한국 민속 문학 사전

설화 2

ㅇㅈㅊ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 Literature

설화
Folktale

발행일	2012년 12월 5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3704-3230)
발행인	천진기
총괄	정명섭
기획	김태우
편수원	백민영 변혜민 은현정 이경민 조선영
윤문·교열·교정	도서출판 평사리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116-01
ISBN	978-89-289-0032-9 978-89-92128-58-2(세트)

한국
민속
문학
사전

설화
2

ㅇㅈㅊ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발간사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며 본류가 되는 것이 설화와 같은 민속문학일 것입니다. 민속문학은 마치 비석에 새겨놓은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문학이라는 뜻으로 구비문학(口碑文學)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가 한 세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마땅한 설화사전이나 민요사전이 없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올해 〈한국민속문학사전〉의 첫 결실인 '설화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한국 문화의 저장소이면서 쇠어지지 않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신화'를 비롯한 시조의 신화와 전국 각지의 전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같은 옛이야기가 현재까지 꾸준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설화는 오늘날에도 영화나 애니메이션, 전시, 공연, 게임 산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설화의 영역 확장 가능성은 앞으로도 무한할 것입니다.

그간의 설화 연구 성과를 130여 명의 설화 전문가들이 노력하여 이 책에 모았습니다. 이 책이 모든 설화를 담은 사전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설화 연구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설화편'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 자문위원, 감수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을 비롯해서 도움을 준 우리 박물관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12월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

발간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 환기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한국민속대백과사전》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제1주제인〈한국세시풍속사전〉전 5권이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되었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09년에 '무속신앙편'(1·2권), 2010년에 '마을신앙편'(1·2권), 2011년에 '가정신앙편'(1·2권)이 발간되었다. 올해는 제3주제인〈한국민속문학사전〉편찬사업이 시작되었고 첫 결실인 '설화편'이 발간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설화편'은 표제어 889항목(가표제어 70항목 포함), 원고 8,000여 장, 사진 200여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자료로는 집필자에게서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사진,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은 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사진자료에는 제목,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자를 기입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화편'은 설화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가 적합한지를 검증하였고 선정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설화를 전공한 133명의 집필진이 원고를 작성하였다.

수합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엄격한 검수를 거쳤고 전문업체가 교정·교열·윤문을 했다. 또한 설화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지닌 6명의 학자로 구성된 감수위원이 최종 원고를 감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원고는 필자들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편'에서는 주로 개별 설화 제목을 표제어로 삼았다. 또한, 사전에 실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와 자료들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설화를 크게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하고 그 대항목 밑에 중항목을, 중항목 밑에 소항목을 두어 구체적인 설화들을 분류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 필자 순으로 구성되었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목차는 크게 가나다 차례와 분류별 차례를 병행하였다. 가나다 차례는 일반적인 사전 찾기 방식으로서 비교적 편리하게 표제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분류별 차례를 병행한 것은 설화의 성격과 관련 설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는 이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설화가 어떤 성격의 설화인지, 그 설화와 비슷한 성격의 설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표제어로의 접근성을 높였고, 백과사전의 특징인 참조와 학습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필자란에는 집필자 성명과 소속만을 표기하지 않고 집필자가 작성한 표제어와 쪽수를 써 두어 이를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전에서는 적극적으로 '상호참조(cross reference)' 표시를 하여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했다. 서로 연관되는 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특히 설화 분야는 연관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관련 표제어를 즉시 찾아볼 수 있는 상호참조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설화는 같은 이야기가 달리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표제어'를 설정하여 독자가 표제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러두기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문학사전〉은 설화편, 민요·판소리편으로 구성된다.

표제어 선정과 범주

1. 표제어라 함은 〈한국민속문학사전〉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민속문학'이라 함은 민간에서 구전된 문학을 말하며, 〈한국민속문학사전〉에서는 설화(무속신화 포함)와 민요·판소리의 사설을 대상으로 한다.
2. '설화편' 사전에서는 구비전승되는 설화를 대상으로 표제어를 우선 추출하였다. 또한, 문헌으로 전해지지만 신화나 구전성을 지닌 것은 표제어 대상에 포함했다. 설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학술용어와 문헌·자료집도 표제어 대상에 포함했다. 그런 다음 중요도, 조사 연구한 성과물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3.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또한, 설화의 구체적인 제목을 표제어로 삼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여러 설화를 포괄할 수 있고 널리 쓰이는 제목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4. 이 사전의 표제어는 표제어들이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된다는 점과 먼저 발간된 다른 사전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붙여 썼다. 또한, 학술 용어로 굳어진 경우나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는 경우에도 붙여 썼다. 그러나, 민담처럼 이야기 제목이 표제어가 된 경우에는 한국 어문 규정을 따라 띄어 썼다. 또한, 이 사전의 표제어는 설화 사전을 전제로 하기에 소항목 표제어 뒤에 붙을 수 있는 'ㅇㅇ설화' 혹은 'ㅇㅇ전설' 등의 부가적인 명칭은 생략했다. 단, 신화와 용어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제시하되, 국어와 한자가 섞인 경우와 국어와 한자가 일대일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생략했다. 용어 중에서 외국 이론의 용어를 번역한 경우에는 영문 명칭을 함께 써 두었다.
5. 표제어는 그 층위에 따라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나누었다. 표제어를 층위별로 분류한 것은 표제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류하였다.
   1) 대항목 : 신화, 전설, 민담 등 3개항으로 나누었다.
   2) 중항목 : 대항목을 세분하여 41개항으로 나누었다.
   3) 소항목 : 구체적인 설화 제목, 자료, 용어 등 독립항목을 소항목으로 설정하였다.

6. 각 항목별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화** : 세상을 창조한 신이나 나라를 세운 인물들의 이야기, 특정 성씨의 시조 이야기, 무속 신들의 이야기, 마을에서 모시는 신들의 이야기 등을 표제어로 삼았다.
   ◆ 건국신화 :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등을 세운 인물의 이야기
   ◆ 시조신화 : 성씨 시조 신화 중에서 연구 성과가 있으며 출처가 분명한 이야기
   ◆ 마을신화 : 마을에서 모시는 신에 대한 이야기
   ◆ 무속신화 : 천지창조 이야기, 무속 신의 내력담, 제주도의 당본풀이 등 무속에서 전승되는 신들의 이야기
   ◆ 기타 신화 : 거인신화, 풍신신화, 신모신화 등 거인이나 바람신, 기타 여성신에 대한 이야기

   2) **전설** : 일반적인 기준처럼 증거물이 존재하는 이야기를 전설로 분류했다.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전설을 표제어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지역에 국한되어 전승되는 경우에는 조사·연구 성과물의 유무, 출처의 명확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 자연창조 전설 : 해, 달, 별, 산이나 섬 등 자연물이 생겨나게 된 유래를 담은 이야기
   ◆ 산·봉·영 전설 : 산이나 봉우리, 고개 등과 관련된 이야기
   ◆ 바다·섬 전설 : 바다나 포구, 섬 등과 관련된 이야기
   ◆ 강·폭포 전설 : 강이나 나루, 폭포 등과 관련된 이야기
   ◆ 연못·샘 전설 : 연못이나 샘 등과 관련된 이야기
   ◆ 바위·굴 전설 : 바위나 절벽, 굴 등과 관련된 이야기
   ◆ 지명 전설 : 마을이나 땅, 폭포 등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
   ◆ 성·다리 전설 : 성곽이나 다리 등과 관련된 이야기
   ◆ 사찰·탑상 전설 : 사찰, 탑, 종, 불상 등과 관련된 이야기
   ◆ 누정·비각 전설 : 비석이나 무덤, 정자 등과 관련된 이야기
   ◆ 꽃·나무 전설 : 꽃이나 나무 등 식물과 관련된 이야기
   ◆ 동물·사물 전설 : 상상이나 현실 속의 동물, 사물 등과 관련된 이야기
   ◆ 풍속 유래 전설 : 세시풍속이나 놀이 등과 관련된 이야기
   ◆ 영웅·장수 전설 : 영웅이나 장수 등과 관련된 이야기
   ◆ 이인·명사 전설 : 충신이나 학자, 권신 등과 관련된 이야기
   ◆ 고승·이승 전설 : 행적이 기이하거나 불법이 높아 추앙받았던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
   ◆ 예인·재인 전설 : 예술적 재능이나 의술, 풍수 등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 기타 인물 전설 : 기타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

   3) **민담** : 역사나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널리 전승되는 이야기를 민담으로 분류했다. 민담 중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편 존재하고 연구 성과가 있는 이야기를 표제어로 우선 선정하였고 그 밖에 조사·연구 성과물의 유무, 출처의 명확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 이계담 : 천상이나 지옥, 혹은 용궁이나 신선세계 등과 관련된 이야기
   ◆ 환생담 : 동물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이야기
   ◆ 변신담 : 동물이나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바뀐 이야기
   ◆ 동물담 :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
   ◆ 이물담 : 도깨비나 괴물, 혼백이나 귀신, 기이한 물건 등과 관련된 이야기
   ◆ 기인담 :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
   ◆ 풍수담 : 명당이나 명지관 등과 관련된 이야기
   ◆ 점복담 : 점이나 점쟁이와 관련된 이야기
   ◆ 운명담 : 예언이나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나 운명을 바꾸게 된 이야기
   ◆ 행운담 : 의외의 행운을 얻게 된 이야기
   ◆ 윤리담 : 효자나 효부, 열녀, 우애 있는 형제 등 교훈을 주는 이야기
   ◆ 지혜담 :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 사기담 : 거짓으로 속여 남을 골탕 먹이거나 남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
   ◆ 우행담 : 바보나 바보스러운 행위에 대한 이야기
   ◆ 과장담 : 과장된 행위나 결과로 웃음을 주는 이야기
   ◆ 육담 : 성에 관련된 이야기
   ◆ 어희담 : 글자나 말장난으로 웃음을 주는 이야기
   ◆ 형식담 : 반복이나 연속 등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전개되는 이야기

   4) **용어** : 설화에 대한 설명이나 연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5) **자료** :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 역사서나 야담집 등의 문헌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표제어 배열과 목차

1. 표제어의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분류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사전의 끝부분에는 집필자별로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표제어는 흐리게 표기하여 주표제어와 구별하였다.

가표제어와 상호참조

1. **가표제어** :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야기는 대표형을 주표제어로 선정하고,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것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이런 경우 가표제어를 표제어와 같은 위치에 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한 표제어로 이동을 유도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 가표제어 표시 : 표제어 원고가 있는 표제어로 페이지 이동
2. **상호참조** : 내용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 표제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호참조 표시 : 상호참조 관련성이 있는 표제어 간의 상호 참조

서술 체계

이 사전에서 분류한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에 따라 서술 체계와 분량에 차이를 두었다. 서술 체계와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 피정의항과 정의항을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되 명사형으로 끝맺도록 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국어사전식 정의보다는 민속문학사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 역사 : 대항목이나 중항목에는 해당 표제어의 발생 배경이나 역사적 전개 양상 등을 기술하였다. 소항목 중 설화는 그 설화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기술하였다.
◆ 줄거리 : 소항목 중 설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 비슷한 설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선택하여 대강의 줄거리를 소개하였다.
◆ 변이 : 소항목 중 설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설화의 다양한 형태를 소개하고 지역과의 관련성이나 변이의 원인 등을 기술하였다.
◆ 분석 : 소항목 중 설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화를 분석한 연구 현황과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 내용 : 대항목과 중항목, 용어와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표제어에 대한 개관, 연구의 동향과 성과 등을 기술하였다
◆ 특징 : 해당 표제어의 민족적, 지역적, 시대적, 민속문학적 특징 등을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설화의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이야기와 구별되는 특징을 기술하였다.
◆ 의의 : 해당 표제어가 전체 민속문학 상에서 차지하는 의의, 사회적 의미, 문화적 상징성 등을 기술하였다.
◆ 출처 : 소항목 중 설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록한 설화를 실은 자료집이나 줄거리가 수록된 문헌을 제시하여 이용자가 참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가공된 경우는 되도록 출처로 제시하지 않고 검증된 채록본이나 문헌 등을 출처로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일차 자료가 실린 출처와 구별하여 표제어를 분석한 연구 논문이나 저서를 제시하였다.
◆ 필자 : 집필자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표기 방법

1. **부호와 기호**

1) 맞춤법과 표기법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 맞춤법(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0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1) 작은따옴표 ' ' : 어느 부분을 강조하거나 특별히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뜻할 때 쓴다.
(2) 큰따옴표 " " : 직접 인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3) 겹낫표 『 』 :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쓴다.
(4) 낫표 「 」 : 책의 하위 장 제목과 논문명 등을 나타낼 때 쓴다.
(5) 대괄호 〔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나타낼 때 쓴다.
(6) 소괄호 (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쓴다.
(7) 홑꺾쇠표 〈 〉 : 설화나 고전소설 등의 작품명을 지칭할 때 쓴다.
(8) 줄임표 ……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함을 나타낼 때 쓴다.
(9) 가운뎃점 ·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함을 나타낼 때 쓴다.
(10) 온점 .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11) 물결표 ~ : '내지'라는 뜻으로 쓰일 때와 생몰년 사이에 쓴다.

2) 한자와 한자어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표기하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 현실음을 따랐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한자는 뒤에서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나 특수한 용어 등 한자 표기가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하였다.
5) 도량형·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따른 부호를 단위 그대로 표기하였다.

2. **사진과 자료**

사진, 도표, 삽화, 지도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진과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 마포문화원 / 문화재청 / 온양민속박물관 / 한국관광공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와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필자가 어떤 표제어를 집필했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자문위원은 강진옥(이화여대), 신동흔(건국대), 이강옥(영남대), 정명기(원광대), 조현설(서울대), 천혜숙(안동대), 최원오(광주교대) 교수 등이 맡았다.
2. 감수위원은 신화 분야는 김열규(서강대)와 서대석(서울대), 전설 분야는 나경수(전남대)와 최래옥(한양대), 민담 분야는 조희웅(국민대)과 최인학(인하대) 교수 등이 맡았다. 자료와 용어 분야는 서대석 교수와 최인학 교수가 각각 맡았다.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편

차례

가나다순

ㄱ

가마고개 30
가야건국신화 30
가짜열녀 30
가짜지관의 성공 31
각시섬 32
각편 32
간부 잡은 원님 33
감기의 유래 33
감은사 34
감은장아기 35
강·폭포전설 35
강감찬 36
강릉안인진해령사신화 38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39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40
개로 환생한 어머니 41
개무덤 41
개와 고양이 구슬 다툼 42
개운포 43
개촌신화 44
거북바위 44
거울 처음 본 사람 45
거인 장길손 45
거인설화 46
거짓말 세 마디 46
건국신화 48
건망증 심한 사람 49
걸어온 산 50
견묘쟁주 51
견우직녀 51
견훤 52
계룡산 53
계모담 54
계불삼년 구불십년 55
계서야담 55
계서잡록 56
고구려건국신화 56
고금소총 56
고기 놓친 까마귀 56
고대정본풀이 57
고려건국신화 58
고려장 없어진 유래 58
고리봉 59
고분지통 유래 60
고석정 61
고수레 유래 62
고승·이승전설 6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64
고유 64
고조선건국신화 66
고종달 66
고창녕 66
곡성 안 들은 상복 66
곰나루 67
공갈못 68
공민왕 68
공식적표현 70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70
과거 급제한 백정 아들 71
과부와 머슴 71
과장담 72
곽재우 73
관용적표현 75
관음사 75
관촉사은진미륵 76
관탈민녀 77
광덕 엄장 77
광청애기본풀이 78
광포전설 79
구두쇠 개심시킨 공수래공수거 79
구렁덩덩신선비 80
구렁이의 보은 81
구룡사 82
구복여행 83
구비문학 84
구슬할망본풀이 87
구연 88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의 유래 88
구월산 89
구토지설 90
국사봉 90
군웅본풀이 91
궁예 92
궤네깃당본풀이 93
귀머거리 동문서답 94
글 잘하는 황정승 딸 95
금강산 96
금계필담 97
금기화소 97
금도끼은도끼 98
금돼지굴 98
금산 99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100
금시발복 명당 101
금와왕신화 102
금척 103
기능 105
기문 105
기문총화 105
기인담 106
기지 있는 부인 107
기지시줄다리기 유래 108
김녕사굴 109
김덕령 110
김병연 111
김부대왕 113
김삿갓 115
김선달 115
김수로왕신화 116
김알지신화 118
김유신 119
김유신신화 120
김응서 121
김중진 122
김춘추 122
김춘추신화 123
김현감호 124
김호랑이굴 125
까치의 재판 126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 괴물 126
꼬리 잘린 호랑이 127
꼬리따기 128
꼬마 명재판관 129
꼬부랑할머니 130
꽃·나무전설 130
꾀로 얻은 명당 132
꾀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132
꾀쟁이 하인 133
꿀 싸는 강아지 134
끝없는 이야기 135

ㄴ

나도 계집 있다 138
나도밤나무 138
나옹화상 139
나주기민창본풀이 139
낙안읍성 141
낙화암 142
난생화소 143
남매탑 143
남매혼설화 144
남사고 144
남산 145
남원진씨시조신화 146
남의 복 빌려서 산 사람 147
남이 148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149
남편 따라 죽은 열녀 150
남편 병 고친 열녀 151
남평문씨시조신화 152
남한산성 152
내 병 다 나았다 153
내 복에 산다 154
노적봉 155
노힐부득 달달박박 156
논개 157
놋다리밟기 유래 158
농다리 159
누명 벗은 시아버지 160
누정·비각·묘총전설 160

ㄷ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의 유래 164
다시 찾은 옥새 164
다자구할머니 165
닥실나루 166
단군신화 166
단락소 168
단종 168
단혈전설 169
달래강 170
달성배씨시조신화 171
당금애기 172
당신화 173
대감굿무가 173
대관령국사성황당신화 175
대국산성 176
대동야승 177
대신 든 장가 177
대왕암 178
대홍수 178
덕 쌓아 얻은 명당 179
덕진다리 180
도깨비 물리치는 법 180
도깨비 씨름 181
도깨비가 준 돈 182
도깨비감투 183
도깨비방망이 183
도깨비보 185
도깨비불 185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합 186
도담삼봉 187
도둑 감싸서 개심시킨 사람 188
도둑 잡은 아이 188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189
도드람산 189
도랑선비청정각시노래 190
도량 넓은 남편 191
도미의 처 192
도선 193
도술화소 193
도화녀비형랑 194
독도 195
독장수구구 195
돈 떼먹는 법 196
돈 천 냥의 구원 197
돈전풀이 197
동명왕신화 199
동물 나이 자랑 200
동물·사물전설 201
동물담 202
동부여건국신화 203
동야휘집 203
동자삼 204
동지팥죽 유래 204
동패낙송 205
돼지 맞돈 205
돼지꿈 206
두꺼비신랑 207
두꺼비의 보은 208
두더지의 혼사 209
등나무 210
땀 흘리는 비석 210
떠내려온 섬 211
떡보와 사신 211

ㄹ

류성룡 212

ㅁ

마고할미 216
마누라본풀이 217
마십굴 218
마을신화 219
마이산 220

막산이 221
만어사 222
만파식적 223
말무덤 224
말바위 224
말하는 남생이 225
망부석 225
망우리 226
매옹한록 227
맹감본풀이 227
맹사성 228
머리에 쓰면 둔갑시키는 해골 229
메기 꿈의 해몽 230
메뚜기와 물새와 개미 230
메추라기의 꽁지 231
며느리 개심시킨 시부모 232
며느리 고르기 233
며느리고개 234
며느리밥풀꽃 235
며느리의 말대꾸 236
멸치의 꿈 236
명당 빼앗아간 딸 236
명엽지해 237
모방담 237
목도령과 대홍수 238
묘향산 239
무너미고개 239
무당호랑이 240
무등산 240
무속신화 241
무수옹 243
무식으로 유식 이기기 244
무영탑 245
무왕 246
무학대사 246
문경새재 246
문굿무가 247
문둥이 남편과 이부열녀 249
문무왕 249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250
문전본풀이 251
문헌설화 252
미륵사 253
미추왕신화 254
미혈 255
민담 256
민속문학 259
밀본 259

ㅂ

바다·섬전설 262
바닷물이 짠 이유 263
바리공주 264
바리데기 265
바보며느리 265
바보사위 266
바보에게 성행위 가르치기 267
바보원님 268
바보의 문자 쓰기 269
바보형제 269
바위·굴전설 270
박문수 271
박문수 친척 된 사람 273
박상의 273
박연폭포 274
박엽 275
박제상 276
박혁거세신화 276
반쪽이 277
밥 안 먹는 마누라 278
방귀시합 279
방귀쟁이며느리 280
방리득보 282
방이 282
방학중 282
배너미골 284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 284
백두산 285
백마강 286
백일홍 287
백제건국신화 288
뱀신랑 288
범어사 288
벙어리로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289
벽골제 290
변신담 291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사람 292
변신화소 293
변이 293
병립구조 294
보리암 294
보양 295
보은속리정이품송 295
보한집 296
복 타고난 백정의 딸 296
본풀이 297
봉사 남편과 벙어리 아내 299
봉정사 299
부모 때리는 효자 300
부부간의 비밀신호 301
부부의 떡 다툼 301
부석사 302
북두칠성 303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304
북부여건국신화 304
불가사리 304
불국사 306
불씨 지킨 며느리 307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307
비 내린 이무기 308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309
빈대절터 310
뻐꾸기 310
삐악삐악꼬꼬 311

ㅅ

사귀가 된 엽전 314
사기담 314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316
사만이본풀이 317
사명당 317
사복 318
사자바위 319
사자생손지지 320
사주가 임금과 같은 사람 321
사찰·탑상전설 321
산·봉·영전설 323
산방산 324
산삼과 이시미 325
산상왕 325
산함일구 강토이주 326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327
삼각산 328
삼공본풀이 329
삼국사기 331
삼국유사 331
삼년고개 331
삼대 후레아들 놈 332
삼두구미본풀이 333
삼부연폭포 334
삼성신화 335
삼승할망본풀이 336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336
삼족구 338
삼족오 338
삼척해신당신화 339
삼천갑자동방삭 341
삼태성 341
삼학도 342
삽화 343
상가승무노인탄 343
상객 간 아버지 실수 덮은 딸 344
상객의 망신 345
상사바위 345
상사뱀 346
상사여귀 347
상원사 348
새끼 밴 쥐와 용한 점쟁이 348
새끼 서 발 349
새빨간 거짓말 350
새의 말 알아듣는 사람 351
새털 사서 장가간 총각 351
새털옷 신랑 352
생불할망본풀이 353
서경덕 354
서고청 355
서귀포본향당본풀이 355
서기 357
서동 357
서산대사 358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360
서화담 360
석탈해신화 361
선녀와 나무꾼 362
선녀홍대 363
선덕여왕 364
선도산성모 365
선운사 366
설문대할망 367
설씨녀 368
설화 369
섬진강두꺼비 372
성·다리전설 372
성기 큰 남녀 374
성덕대왕신종 374
성삼문 374
성조무가 375
성질 급한 사위 377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 377
세 여인의 소원 378
세검정 379
세경본풀이 379
세민황제본풀이 381
세화본향당본풀이 382
셍굿무가 383
소 바꿔 탄 사돈 385
소가 된 게으름뱅이 385
소가 된 사람의 복수 386
소가 된 상좌 386
소박맞은 세 자매 387
소백산 388
소화 389
속 깊은 어린 신랑 390
속리산 391
속어면순 392
손 없는 색시 392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394
손님굿무가 394
손돌목 396
손순매아 397
송광사 397
송당본향당본풀이 398
송동지영감본풀이 400
송시열 400
송익필 400
송징장군당신화 401
수로부인 403
수부지모 403
수성당신화 404
수수께끼 푼 아이 405
수이전 406
수중명당 407
숙영랑앵연랑신가 407
순차구조 408
술 귀신 유래 408
스님 골려먹은 상좌 409
시골말로 급제한 선비 409
시골여자의 말대답 410
시골쥐서울쥐 411
시래호박소 이무기 411
시루말 412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413
시무굿무가 414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415
시조신화 415
시퀀스 417
신돌석 417
신라건국신화 418
신립 418
신모신화 420
신목전설 420
신물 420
신방 지키는 유래 421
신방에 든 아들 죽인 계모 422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다 422
신중본풀이 423
신통한 여덟 형제 424
신화 425
신화소 428
심청굿무가 428
심화요탑 430
쌀 나오는 바위 430
쌀 나오는 죽순 똥 나오는 죽순 431
쌀 노적 돌 노적 431
쌍계사 432
쌍녀분 433

ㅇ

아기봉 490
아기씨당신화 490
아기업개당신화 491
아기장수 493
아들 많이 낳을 팔자 494
아들로 태어난 원수 494
아들의 간 먹는 계모 495
아랑각 496
아버지 구한 아들 497
아비와 동침할 운명 498
아우라지 499
아이를 솥에 넣고 도망친 토끼 500
아지담 500
아지재판 501
아차산 501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501
악형선제 502
암행어사 젖 먹이고 발복한 여인 503
애오개 504
야래자설화 504
양사언 506
양씨아미본풀이 506
양은천미 508
양이목사본풀이 508
어린 원님의 지혜 509
어머니 병 고친 효자 510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510
어면순 511
어사가 된 막냇사위 511
어우야담 512
어희담 513
엉터리 염불로 극락 가기 514
엎질러진 물 515
에밀레종 515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 516
여우 잡은 소금장수 517
여우고개 518
여우구슬 518
여우누이 520
여우와 까마귀 521
여우혈 명당 521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522
역옹패설 523
연명설화 523
연못·샘전설 523
연오랑세오녀 525
연이와 버들도령 526
열녀시험 526
열두 띠 유래 528
열불열녀 529
열행담 530
영규대사 531
영남루 531
영등할머니 531
영웅·장수전설 532
영웅의 일대기 534
영월하송리은행나무 534
영지 535
영혼이 뒤바뀐 사람 536
예인·재인전설 537
옛 지아비가 황천에서 운다 538
오곡밥 유래 539
오뉘산성 540
오뉘탑 540
오뉘힘내기 540
오동도 541
오물음 542
오백장군 542
오성과 한음 543
오성의 장난 543
오세암 544
오쟁이 지다의 유래 545
오찰방 545
옥녀봉 546
온달 547
온조비류신화 548
왕건신화 550
왕십리 551
왜적 물리친 여자 대장부 552
용 못 된 이무기 552
용 승천 553
용 싸움 555
용궁에서 보물 얻어온 사람 556
용다리 557
용머리고개 557
용문사 558
용미리석불입상 559
용소 560
용재총화 561
용추폭포 562
우렁각시 563
우목낭상 564
우물명당 564
우부현녀 564
우애담 565
우연히 들어온 업 565
우연히 잡은 명당 566
우탁 567
우행담 567
운림지 569
운명담 569
운문사 571
운주사 571
울돌목 572
울산바위 573
웃개나루 573
원광법사 574
원님으로 환생한 머슴 575
원님의 명판결 576
원두표 577
원천강본풀이 577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579
원형 580
원혼설화 580
원효 582
월성 583
유금이들 584
유리왕신화 584
유왕산 586
유의태 587
유형 587
유화부인 588
육담 589
윤리담 590
은혜갚은 까치 591
음부에 그린 그림 591
음탕한 선생 발거벗긴 과부 592
의견 593
의상 593
의좋은 동서 594
의좋은 형제 595
이계담 596
이계여행화소 597
이공본풀이 597
이괄 599
이류교혼화소 600
이몽학 600
이물담 601
이산해 602
이서구 603
이성계 604
이순신 605
이야기꾼 606
이야기로 쫓은 도둑 606
이야기주머니 607
이야기판 608
이어도 608
이여송 609
이완 610
이원익 610
이의 울음 611
이이 612
이인·명사전설 612
이재수 614
이준경 614
이지란 615
이지함 615
이차돈 617
이태원 617
이항복 618
이황 619
인문전설 620
인물전설 620
인불구 유래 620
인신공희 621
일월또본풀이 621
일식 월식 623
일월노리푸념 623
일월산황씨부인당신화 625
일월신화 626
일화 627
임경업장군당신화 627
임꺽정 629
임자 있는 명당 629
임지한 630
잉어의 보은 631

ㅈ

자린고비 634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635
자식에게 들킨 부부동침 636
자연전설 636
자연창조전설 637
자청비신화 638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 638
잡기고담 639
장군봉 639
장군수 640
장보고 640
장수바위 641
장승재판 642
장인 버릇 고친 사위 642
장자못 643
장자풀이 644
재담 646
재복데기 646
재인폭포 647
재주 많은 의형제 648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648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온 사람 649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 650
저승사자의 실수 650
저승에서 만난 배필 651
적강화소 652
적대자 652
전봉준 652
전생 인연으로 부부된 사람 653
전설 654
전실 자식 눈 뺀 계모 656
전횡장군당신화 657
절부암 658
젊어지는 샘물 659
점복담 660
접동새 661
정기룡 662
정도전 663
정렴 664
정만서 664
정방폭포 666
정승 낳을 여자 666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 667
정승을 소로 만든 망태기 668
정철 669
정충신 669
제석본풀이 670
제왕운기 670
조력자 671
조마구 671
조신 671
족제비가 된 남편의 원혼 672
종소리 673
주몽신화 673
주왕산 674
주원장 675
주인집 딸에게 장가간 머슴 676
주천강 676
죽령산신당신화 677
죽어서 염라대왕 된 사람 679
죽을 고비 세 번 679
중들의 절 자랑 680
쥐떼도강 681
쥐의 둔갑 681
쥐의 보은 683
지귀 683
지네각시 684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684
지네장터 685
지렁이 눈과 가재의 띠 685
지렁이 삶아 봉양한 효자 686
지리산 687
지리산성모 688
지명전설 689
지성이감천이 690
지역전설 691
지장본풀이 691
지중용출 692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 693
지하국 다녀와 명의 된 사람 694
지하국대적퇴치 694
지혜담 695

진가장무가 697
진담록 697
진묵대사 697
진정한 친구 698
진좌수 699
짐가제무가 699
쫓겨날 며느리 구한 가짜지관 701

ㅊ

차복 704
차사본풀이 704
차산필담 705
차전놀이 유래 705
참새가 뛰는 이유 707
창녕조씨시조신화 707
창세가 707
채제공 709
처녀 더위 빼기 710
처녀고개 711
처용 711
처용암 712
천냥점 치고 잘된 사람 713
천년두골쌍용수 714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714
천부지모 715
천생연분 715
천안삼거리 715
천예록 716
천자가 된 구렁이 717
천자명당 717
천자바위 718
천지왕본풀이 719
철쭉꽃 720
첫날밤에 똥 싼 신부 721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721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722
청구야담 723
청다리 723
청실홍실 724
청야담수 724
청어장수 725
청평사 725
초공본풀이 726
촌담해이 728
최영 728
최영장군당신화 729
최제우 731
최치원 732
춤추는 호랑이 732
충렬굿무가 733
충주어씨시조신화 734
치마대 735
치마바위 735
치술령 736
치악산 737
친구 간에 지킨 의리 738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739
칠산바다 739
칠성본풀이 740
칠성풀이 741
칠월칠석 유래 743

ㅋ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744
콩쥐팥쥐 744

ㅌ

탐색담 748
탕건바위 748
태백산 749
태평한화골계전 750
토끼와 호랑이 750
토끼의 간 750
토끼의 재판 752
토산여드렛당본풀이 753
토정 754
통과제의 754
통도사 754
퉁두란 755
트릭스터담 756

ㅍ

파송자 757
파자놀이 757
파자점 759
파평윤씨시조신화 759
파한집 760
팔봉산 760
팥죽땀 흘리는 시아버지 761
팥죽할멈과 호랑이 762
평강채씨시조신화 762
표충비 763
풍속유래전설 763
풍수담 765
풍신신화 766
피바위 767

ㅎ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 쌓는다의 유래 770
하음봉씨시조신화 770
하회마을 771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 772
학산한언 774
한라산 774
한양도읍 776
한우물 777
할미산성 778
할미할아비바위 778
해동고승전 779
해모수신화 779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 781
해부루신화 78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782
해인사 784
행운담 785
허가바위 786
허목 787
허미수 788
허웅애기본풀이 788
허준 789
허풍선이 790
허황옥신화 791
형산강 792
형식담 793
형제바위 794
형제투금 795
혜통 796
호동왕자 낙랑공주 797
호랑이 눈썹 797
호랑이 배 속 구경 798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799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799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800
호랑이로 변한 남편 801
호랑이와 곶감 801
호랑이의 보은 802
호랑이형님 803
호식당할 운명 804
호종단 805
혹부리영감 805
혼쥐 807
홀어미산성 808
홍계관 808
홍수설화 808
화석정 809
화소 809
화수분 810
화엄사 810
환생담 811
환생화소 813
황룡사 813
황새의 노래 재판 814
황희 814
효녀 지은 816
효부와 호랑이 816
효불효다리 817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818
효자동 818
효행담 819
훈장 골탕 먹인 제자 819
훈장 장가보낸 학동 820
흥륜사 821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편

차례

분류별

신화 425

건국신화 48
가야건국신화 30
고구려건국신화 56
고려건국신화 58
고조선건국신화 66
금와왕신화 102
김수로왕신화 116
단군신화 166
동명왕신화 199
동부여건국신화 203
박혁거세신화 276
백제건국신화 288
북부여건국신화 304
삼성신화 335
석탈해신화 361
신라건국신화 418
온조비류신화 548
왕건신화 550
유리왕신화 584
주몽신화 673
해모수신화 779
해부루신화 781

무속신화 241
감은장아기 35
고대정본풀이 57
광청애기본풀이 78
구슬할망본풀이 87
군웅본풀이 91
궤눼깃당본풀이 93
나주기민창본풀이 139
당금애기 172
대감굿무가 173
도랑선비청정각시노래 190
돈전풀이 197
마누라본풀이 217
맹감본풀이 227
문굿무가 247
문전본풀이 251
바리공주 264
바리데기 265
사만이본풀이 317
삼공본풀이 329
삼두구미본풀이 333
삼승할망본풀이 336
생불할망본풀이 353
서귀포본향당본풀이 355
성조무가 375
세경본풀이 379
세민황제본풀이 381
세화본향당본풀이 382
셍굿무가 383
손님굿무가 394
송당본향당본풀이 398
송동지영감본풀이 400
숙영랑앵연랑신가 407
시루말 412
시무굿무가 414
신중본풀이 423
심청굿무가 428
양씨아미본풀이 506
양이목사본풀이 508
원천강본풀이 577
이공본풀이 597
일뤠또본풀이 621
일월노리푸념 623
자청비신화 638
장자풀이 644
제석본풀이 670
지장본풀이 691
진가장무가 697
짐가제무가 699
차사본풀이 704
창세가 707
천지왕본풀이 719
초공본풀이 726
충렬굿무가 733
칠성본풀이 740
칠성풀이 741
토산여드렛당본풀이 753
허웅애기본풀이 788

마을신화 219
강릉안인진해령사신화 38
대관령국사성황당신화 175
삼척해신당신화 339
송징장군당신화 401
수성당신화 404
아기씨당신화 490
아기업개당신화 491
일월산황씨부인당신화 625
임경업장군당신화 627
전횡장군당신화 657
죽령산신당신화 677
최영장군당신화 729

시조신화 415
김알지신화 118
김유신신화 120
김춘추신화 123
남원진씨시조신화 146
남평문씨시조신화 152
달성배씨시조신화 171
미추왕신화 254
창녕조씨시조신화 707
충주어씨시조신화 734
파평윤씨시조신화 759
평강채씨시조신화 762
하음봉씨시조신화 770
허황옥신화 791

기타신화
다자구할머니 165
마고할미 216
선도산성모 365
설문대할망 367
영등할머니 531
유화부인 588
지리산성모 688

전설 654

자연창조전설 637
걸어온 산 50
견우직녀 51
대홍수 178
떠내려온 섬 211
북두칠성 303
삼태성 341
연오랑세오녀 525
울산바위 573
일식 월식 623

산·봉·영전설 323
가마고개 30
계룡산 53
고리봉 59
구월산 89
국사봉 90
금강산 96
금산 99
남산 145
노적봉 155
도담삼봉 187
도드람산 189
마이산 220
며느리고개 234
묘향산 239
무너미고개 239
무등산 240
문경새재 246
백두산 285
산방산 324
삼각산 328
삼년고개 331
소백산 388
속리산 391
아기봉 490
아차산 501
여우고개 518
옥녀봉 546
용머리고개 557
유왕산 586
장군봉 639
주왕산 674
지리산 687
처녀고개 711
치술령 736
치악산 737
태백산 749
팔봉산 760
한라산 774

바다·섬전설 262
각시섬 32
개운포 43
독도 195
삼학도 342
손돌목 396
오동도 541
울돌목 572
이어도 608
칠산바다 739

강·폭포전설 35
곰나루 67
닥실나루 166
달래강 170
박연폭포 274
백마강 286
삼부연폭포 334
섬진강두꺼비 372
아우라지 499
용추폭포 562
웃개나루 573
재인폭포 647
정방폭포 666
주천강 676
형산강 792

연못·샘전설 523
공갈못 68
벽골제 290
영지 535
용소 560
운림지 569
장군수 640
장자못 643
젊어지는 샘물 659
한우물 777

바위·굴전설 270
거북바위 44
금돼지굴 98
김녕사굴 109
김호랑이굴 125
낙화암 142
대왕암 178
마십굴 218
말바위 224
망부석 225
미혈 255
사자바위 319
상사바위 345
쌀 나오는 바위 430
오백장군 542
장수바위 641
절부암 658
처용암 712
천자바위 718
치마바위 735
탕건바위 748
피바위 767
할미할아비바위 778
허가바위 786
형제바위 794

지명전설 689
망우리 226
배너미골 284
애오개 504

왕십리 551
유금이들 584
이태원 617
지네장터 685
천안삼거리 715
치마대 735
하회마을 771
한양도읍 776
효자동 818

성·다리전설 372
낙안읍성 141
남한산성 152
농다리 159
대국산성 176
덕진다리 180
도깨비보 185
오뉘산성 540
오뉘힘내기 540
용다리 557
월성 583
청다리 723
할미산성 778
홀어미산성 808
효불효다리 817

사찰·탑상전설 321
감은사 34
관음사 75
관촉사은진미륵 76
구룡사 82
남매탑 143
만어사 222
무영탑 245
미륵사 253
범어사 288
보리암 294
봉정사 299
부석사 302
불국사 306
빈대절터 310
상원사 348
선운사 366
성덕대왕신종 374
송광사 397
쌍계사 432
에밀레종 515
오뉘탑 540
오세암 544
용문사 558
용미리석불입상 559
운문사 571
운주사 571
청평사 725
통도사 754
해인사 784
화엄사 810
황룡사 813
흥륜사 821

누정·비각·묘총전설 160
개무덤 41
고석정 61
땀 흘리는 비석 210
말무덤 224
세검정 379
아랑각 496
영남루 531
표충비 763
화석정 809

꽃·나무전설 130
나도밤나무 138
등나무 210
며느리밥풀꽃 235
백일홍 287
보은속리정이품송 295
영월하송리은행나무 534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 693
철쭉꽃 720

동물·사물전설 201
만파식적 223
불가사리 304
비 내린 이무기 308
뻐꾸기 310
삼족구 338
삼족오 338
상사뱀 346
시래호박소 이무기 411
용 못 된 이무기 552
용 승천 553
용 싸움 555
의견 593
접동새 661

풍속유래전설 763
고수레 유래 62
기지시줄다리기 유래 108
놋다리밟기 유래 158
동지팥죽 유래 204
열두 띠 유래 528
오곡밥 유래 539
차전놀이 유래 705
칠월칠석 유래 743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 772

영웅·장수전설 532
강감찬 36
견훤 52
고종달 66
곽재우 73
궁예 92
김덕령 110
김부대왕 113
김유신 119
김응서 121
김춘추 122
남이 148
막산이 221
문무왕 249
박엽 275
선덕여왕 364
신돌석 417
신립 418
아기장수 493
오찰방 545
온달 547
원두표 577
이괄 599
이몽학 600
이성계 604
이순신 605
이여송 609
이완 610
이재수 614
이지란 615
임꺽정 629
임지한 630
장보고 640
전봉준 652
정충신 669
주원장 675
최영 728
최제우 731
퉁두란 755
호종단 805

이인·명사전설 612
고유 64
고창녕 66
김병연 111
김삿갓 115
류성룡 212
맹사성 228
박문수 271
박제상 276
서경덕 354
서고청 355
서기 357
서화담 360
성삼문 374
송시열 400
송익필 400
양사언 506
우탁 567
이산해 602
이서구 603
이원익 610
이이 612
이준경 614
이지함 615
이항복 618
이황 619
정기룡 662
정도전 663
정렴 664
정철 669
채제공 709
최치원 732
토정 754
허목 787
허미수 788
황희 814

고승·이승전설 63
광덕 엄장 77
나옹화상 139
노힐부득 달달박박 156
도선 193
무학대사 246
밀본 259
보양 295
사명당 317
사복 318
서산대사 358
영규대사 531
원광법사 574
원효 582
의상 593
이차돈 617
진묵대사 697
혜통 796

예인·재인전설 537
김선달 115
김중진 122
남사고 144
박상의 273
방학중 282
오물음 542
유의태 587
정만서 664
진좌수 699
허준 789
홍계관 808

기타인물전설
공민왕 68
김현감호 124
논개 157
단종 168
도미의 처 192
도화녀비형랑 194
무왕 246
방이 282
산상왕 325
서동 357
설씨녀 368
손순매아 397
수로부인 403
심화요탑 430
조신 671
지귀 683
처용 711
호동왕자 낙랑공주 797
효녀 지은 816

민담 256

이계담 596
선녀와 나무꾼 362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다 422
엉터리 염불로 극락 가기 514
용궁에서 보물 얻어온 사람 556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648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온 사람 649
저승사자의 실수 650
지하국 다녀와 명의 된 사람 694
지하국대적퇴치 694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714
해와 달이 된 오누이 782

환생담 811
개로 환생한 어머니 41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100
아들로 태어난 원수 494
영혼이 뒤바뀐 사람 536
원님으로 환생한 머슴 575
전생 인연으로 부부된 사람 653
족제비가 된 남편의 원혼 672
천자가 된 구렁이 717

변신담 291
구렁덩덩신선비 80
두꺼비신랑 207
머리에 쓰면 둔갑시키는 해골 229
뱀신랑 288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사람 292
새털옷 신랑 352
소가 된 게으름뱅이 385
소가 된 사람의 복수 386
소가 된 상좌 386
여우 잡은 소금장수 517
여우구슬 518
여우누이 520
우렁각시 563
정승을 소로 만든 망태기 668
쥐의 둔갑 681
지네각시 684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684
호랑이로 변한 효자 801

동물담 202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39
개와 고양이 구슬 다툼 42
견묘쟁주 51
계불삼년 구불십년 55
고기 놓친 까마귀 56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64
구렁이의 보은 81
구토지설 90
까치의 재판 126
꼬리 잘린 호랑이 127
동물 나이 자랑 200
두꺼비의 보은 208
두더지의 혼사 209
말하는 남생이 225
메기 꿈의 해몽 230
메뚜기와 물새와 개미 230
메추라기의 꽁지 231
멸치의 꿈 236
무당호랑이 240
방리득보 282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309
시골쥐서울쥐 411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413
여우와 까마귀 521
은혜갚은 까치 591
인불구 유래 620
잉어의 보은 631
종소리 673
쥐의 보은 683
지렁이 눈과 가재의 띠 685
참새가 뛰는 이유 707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722
춤추는 호랑이 732
토끼와 호랑이 750
토끼의 간 750
토끼의 재판 752
팥죽할멈과 호랑이 762
호랑이 배 속 구경 798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799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799
호랑이와 곶감 801
호랑이의 보은 802
호랑이형님 803
황새의 노래 재판 814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818

이물담 601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 괴물 126
도깨비 물리치는 법 180
도깨비 씨름 181
도깨비가 준 돈 182
도깨비감투 183
도깨비방망이 183
도깨비불 185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합 186
사귀가 된 엽전 314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316
산삼과 이시미 325
상사여귀 347
선녀홍대 363
쌍녀분 433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579
이야기주머니 607
조마구 671
혹부리영감 805
혼쥐 807
화수분 810

기인담 106
거인 장길손 45
목도령과 대홍수 238
반쪽이 277
밥 안 먹는 마누라 278
삼천갑자동방삭 341
새의 말 알아듣는 사람 351
신통한 여덟 형제 424
왜적 물리친 여자 대장부 552
재주 많은 의형제 648

풍수담 765
가짜지관의 성공 31
금시발복 명당 101
꾀로 얻은 명당 132
덕 쌓아 얻은 명당 179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189
사자생손지지 320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327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394
수중명당 407
여우혈 명당 521
우물명당 564
우연히 잡은 명당 566
임자 있는 명당 629
죽어서 염라대왕 된 사람 679
천자명당 717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800

점복담 660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의 유래 164
돼지꿈 206
새끼 밴 쥐와 용한 점쟁이 348
천냥점 치고 잘된 사람 713
파자점 759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 781

운명담 569
구두쇠 개심시킨 공수래공수거 79
구복여행 83
남의 복 빌려서 산 사람 147
내 복에 산다 154
무수옹 243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304
사주가 임금과 같은 사람 321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336
아들 많이 낳을 팔자 494
아비와 동침할 운명 498
재복데기 646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 650
저승에서 만난 배필 651
정승 낳을 여자 666
죽을 고비 세 번 679
차복 704
천생연분 715
청실홍실 724
호식당할 운명 804

행운담 785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70
과거 급제한 백정 아들 71
금척 103
다시 찾은 옥새 164
대신 든 장가 177
박문수 친척 된 사람 273
복 타고난 백정의 딸 296
새끼 서 발 349
쌀 노적 돌 노적 431
암행어사 젖 먹이고 발복한 여인 503
어사가 된 막냇사위 511
우연히 들어온 업 565
호랑이 눈썹 797

윤리담 590
가짜열녀 30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40
고려장 없어진 유래 58
고분지통 유래 60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의 유래 88
글 잘하는 황정승 딸 95
금도끼은도끼 98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149
남편 따라 죽은 열녀 150
남편 병 고친 열녀 151
도둑 감싸서 개심시킨 사람 188
도량 넓은 남편 191
돈 천 냥의 구원 197
동자삼 204
며느리 개심시킨 시부모 232
명당 빼앗아간 딸 236
문둥이 남편과 이부열녀 249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 284
부모 때리는 효자 300
불씨 지킨 며느리 307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307
산함일구 강토이주 326
상가승무노인탄 343
손 없는 색시 392
신방에 든 아들 죽인 계모 422
쌀 나오는 죽순 똥 나오는 죽순 431
아들의 간 먹는 계모 495
악형선제 502
어머니 병 고친 효자 510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510
엎질러진 물 515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 516
연이와 버들도령 526
열녀시험 526
열불열녀 529
옛 지아비가 황천에서 운다 538
우목낭상 564
의좋은 동서 594
의좋은 형제 595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635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 638
전실 자식 눈 뺀 계모 656
지렁이 삶아 봉양한 효자 686
지성이감천이 690
진정한 친구 698
천년두골쌍용수 714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721
친구 간에 지킨 의리 738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739
콩쥐팥쥐 744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 쌓는다의 유래 770
형제투금 795
효부와 호랑이 816

지혜담 695
간부 잡은 원님 33
곡성 안 들은 상복 66
기지 있는 부인 107
꼬마 명재판관 129
꾀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132
누명 벗은 시아버지 160
도둑 잡은 아이 188
며느리 고르기 233
무식으로 유식 이기기 244
상객 간 아버지 실수 덮은 딸 344
속 깊은 어린 신랑 390
수수께끼 푼 아이 405
시골말로 급제한 선비 409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415
아버지 구한 아들 497
아지재판 501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501
어린 원님의 지혜 509
원님의 명판결 576
장승재판 642
장인 버릇 고친 사위 642
쫓겨날 며느리 구한 가짜지관 701
파자놀이 757
훈장 골탕 먹인 제자 819
훈장 장가보낸 학동 820

사기담 314
거짓말 세 마디 46
꾀쟁이 하인 133
꿀 싸는 강아지 134
돈 떼먹는 법 196
돼지 맞돈 205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360
스님 골려먹은 상좌 409
아이를 솥에 넣고 도망친 토끼 500
오성과 한음 543
오성의 장난 543
음탕한 선생 발가벗긴 과부 592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 667
첫날밤에 똥 싼 신부 721

우행담 567
거울 처음 본 사람 45
독장수구구 195
떡보와 사신 211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250
바보며느리 265

바보사위 266
바보원님 268
바보의 문자 쓰기 269
바보형제 269
벙어리로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289
부부의 떡 다툼 301
상객의 망신 345
소박맞은 세 자매 387
신방 지키는 유래 421
청어장수 725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744
팥죽땀 흘리는 시아버지 761

과장담 72
건망증 심한 사람 49
귀머거리 동문서답 94
바닷물이 짠 이유 263
방귀시합 279
방귀쟁이며느리 280
성질 급한 사위 377
술 귀신 유래 408
이의 울음 611
자린고비 634
중들의 절 자랑 680

육담 589
감기의 유래 33
과부와 머슴 71
나도 계집 있다 138
내 병 다 나았다 153
바보에게 성행위 가르치기 267
봉사 남편과 벙어리 아내 299
부부간의 비밀신호 301
삐악삐악꼬꼬 311
삼대 후레아들 놈 332
새털 사서 장가간 총각 351
성기 큰 남녀 374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 377
세 여인의 소원 378
소 바꿔 탄 사돈 385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522
오쟁이 지다의 유래 545
음부에 그린 그림 591
자식에게 들킨 부부동침 636
주인집 딸에게 장가간 머슴 676
처녀 더위 빼기 710

어희담 513
며느리의 말대꾸 236
새빨간 거짓말 350
시골여자의 말대답 410
이야기로 쫓은 도둑 606
허풍선이 790

형식담 793
꼬리따기 128
꼬부랑할머니 130
끝없는 이야기 135
쥐떼도강 681

용어

각편 32
개촌신화 44
거인설화 46
계모담 54
공식적표현 70
관용적표현 75
관탈민녀 77
광포전설 79
구비문학 84
구연 88
금기화소 97
기능 105
난생화소 143
남매혼설화 144
단락소 168
단혈전설 169
당신화 173
도술화소 193
모방담 237
문헌설화 252
민속문학 259
변신화소 293
변이 293
병립구조 294
본풀이 297
삽화 343
설화 369
소화 389
수부지모 403
순차구조 408
시퀀스 417
신모신화 420
신목전설 420
신물 420
신화소 428
아지담 500
야래자설화 504
연명설화 523
열행담 530
영웅의 일대기 534
우부현녀 564
우애담 565
원형 580
원혼설화 580
유형 587
이계여행화소 597
이류교혼화소 600
이야기꾼 606
이야기판 608
인문전설 620
인물전설 620
인신공희 621
일월신화 626
일화 627
자연전설 636
재담 646
적강화소 652
적대자 652
조력자 671
지역전설 691
지중용출 692
천부지모 715
탐색담 748
통과제의 754
트릭스터담 756
파송자 757
풍신신화 766
홍수설화 808
화소 809
환생화소 813
효행담 819

자료

계서야담 55
계서잡록 56
고금소총 56
금계필담 97
기문 105
기문총화 105
대동야승 177
동야휘집 203
동패낙송 205
매옹한록 227
명엽지해 237
보한집 296
삼국사기 331
삼국유사 331
속어면순 392
수이전 406
양은천미 508
어면순 511
어우야담 512
역옹패설 523
용재총화 561
잡기고담 639
제왕운기 670
진담록 697
차산필담 705
천예록 716
청구야담 723
청야담수 724
촌담해이 728
태평한화골계전 750
파한집 760
학산한언 774
해동고승전 779

아기봉
아기씨당신화
아기업개당신화
아기장수
아들 많이 낳을 팔자
아들로 태어난 원수
아들의 간 먹는 계모
아랑각
아버지 구한 아들
아비와 동침할 운명
아우라지
아이를 솥에 넣고 도망친 토끼
아지담
아지재판
아차산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악형선제
암행어사 젖 먹이고 발복한 여인
애오개
야래자설화
양사언
양씨아미본풀이
양은천미
양이목사본풀이
어린 원님의 지혜
어머니 병 고친 효자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어면순
어사가 된 막냇사위
어우야담
어희담
엉터리 염불로 극락 가기
엎질러진 물
에밀레종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
여우 잡은 소금장수
여우고개
여우구슬
여우누이
여우와 까마귀
여우혈 명당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역옹패설
연명설화
연못 · 샘전설
연오랑세오녀
연이와 버들도령
열녀시험
열두 띠 유래
열불열녀
열행담
영규대사
영남루
영등할머니
영웅 · 장수전설
영웅의 일대기
영월하송리은행나무
영지
영혼이 뒤바뀐 사람
예인 · 재인전설
옛 지아비가 황천에서 운다
오곡밥 유래
오뉘산성
오뉘탑
오뉘힘내기
오동도
오물음
오백장군
오성과 한음
오성의 장난
오세암
오쟁이 지다의 유래
오찰방
옥녀봉
온달
온조비류신화
왕건신화
왕십리
왜적 물리친 여자 대장부
용 못 된 이무기
용 승천
용 싸움
용궁에서 보물 얻어온 사람
용다리
용머리고개
용문사
용미리석불입상
용소
용재총화
용추폭포
우렁각시
우목낭상
우물명당
우부현녀
우애담
우연히 들어온 업
우연히 잡은 명당
우탁
우행담
운림지
운명담
운문사
운주사
울돌목
울산바위
웃개나루
원광법사
원님으로 환생한 머슴
원님의 명판결
원두표
원천강본풀이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원형
원혼설화
원효
월성
유금이들
유리왕신화
유왕산
유의태
유형
유화부인
육담
윤리담
은혜갚은 까치
음부에 그린 그림
음탕한 선생 발가벗긴 과부
의견
의상
의좋은 동서
의좋은 형제
이계담
이계여행화소
이공본풀이
이괄
이류교혼화소
이몽학
이물담
이산해
이서구
이성계
이순신
이야기꾼
이야기로 쫓은 도둑
이야기주머니
이야기판
이어도
이여송
이완
이원익
이의 울음
이이
이인 · 명사전설
이재수
이준경
이지란
이지함
이차돈
이태원
이항복
이황
인문전설
인물전설
인불구 유래
인신공희
일뤠또본풀이
일식 월식
일월노리푸념
일월산황씨부인당신화
일월신화
일화
임경업장군당신화
임꺽정
임자 있는 명당
임지한
잉어의 보은

ㅇ

: 이응

전설

아기봉

정의 비범한 아기장수의 비극적인 죽음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봉우리에 얽힌 전설.

줄거리 〈아기봉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중에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소재한 〈아기봉설화〉가 대표적이다. 아기봉 정상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얽힌 10여 미터 높이의 '아암(兒巖)'이라는 기암이 있는데, 이 바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승한다.

제석천왕의 딸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임신을 했다는 죄로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 아기를 낳았다. 매일 새벽 치성을 드리던 할머니가 산파 역할을 하였으며, 태어난 아기는 평범한 인간과 달리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할머니와 선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할머니가 아들에게 발설을 하였다. 그 후 아기는 장차 나라의 위협이 된다고 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변이 〈아기봉설화〉 각편들은 '아기가 태어난 곳'이라는 이유로 '아기봉'이라고 부른다는 데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설화 각편에 따라서 아기의 부모를 선녀·궁녀 등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아기는 자신을 낳아 준 부모의 손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노파(老婆)나 스님의 손에서 자라기도 한다. 한편, 할머니의 아들이나 촌장 등의 고발로 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일부 각편에서는 왕후(王侯)가 되었다고도 한다.

분석 입실리 〈아기봉설화〉는 전형적인 〈아기장수설화〉의 한 형태이다.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에 소재한 '악휘봉' 관련 설화도 〈아기장수설화〉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아기장수 설화형의 〈아기봉설화〉와는 다른 예외적인 형태의 설화도 전승한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에 있는 '애기봉'은 평안감사가 사랑하던 기생과 피난길을 떠났다가 감사는 포로가 되었고 기생은 이를 모른 채 기다리다 숨을 거두었다. 이후에 사람들이 기생이 묻힌 봉우리를 '애기봉(愛妓峰)'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아기봉설화〉는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비극적 죽음이라는 결말을 보이고 있다.

특징 아기장수 계열의 다른 설화들과 대조해 보았을 때, 입장리 〈아기봉설화〉 속 주인공인 아기장수는 '악인들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비범한 장수에 대한 강한 금기는 다른 지역에서 전승하는 아기장수 설화보다 새로운 개혁을 원치 않는 폐쇄된 사회상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의의 〈아기봉설화〉의 주인공인 아기장수는 투쟁을 통해 영광을 차지하는 건국신화의 주인공과는 달리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아기장수는 천상에서 점지 받아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보수적 체제에 안주하려는 현실 추구 성향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아기봉설화〉에는 세상과 부대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버리고 살아야 하는 민중들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새로운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민중들의 심리가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출처 김포시사(김포시사편찬위원회, 김포시, 201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44; 286.

참고문헌 설화와 민중(임철호, 전주대학교출판부, 1996), 아기장수 이야기의 신화적 주제 탐색(김영희, 구비문학연구10, 한국구비문학회, 2000), 아기장수전설의 현대적 변용 연구(박영호, 한국언어문화44,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필자 최명환(崔明煥)

신화

아기씨당신화

정의 서울 지역 아기씨당에서 전승되는 주신(主神) 아기씨의 좌정 내력담과 영험담을 다룬 신화.

역사 〈아기씨당신화〉는 조선시대 왕십리에 마을이 형성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기씨당이 조선시대 서울에 있던 부군당(府君堂)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좌정 내력담에서 조선시대 사소문 중 하나인 광희문(시구문)과 왕십리와의 관련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중에 전승되던 아기씨에 대한 영험담에서도 시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6·25전쟁과 관련한 아기씨의 영험담 또한 전해지고 있어, 비교적 최근까지 당신화가 생성·전승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어떤 이가 당 앞에 말의 피를 뿌린 후,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행차에 보이던 당의 영험함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승되고 있어 당신앙이 과거보다 약화했음을 알 수 있다. 아기씨당은 질병과 죽음에 관한 액을 막는 기능으로 특화된 곳이었으나, 현대 의학의 발달로 그 기능이 점차 약해졌고 그것이 당신화에 반영되었다.



아기씨당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김기형

줄거리 북쪽 나라가 망하자 공주 다섯 명이 시녀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러나 왕십리에 이르러 더는 갈 수가 없어 산속에 머물면서 몇 해 동안 초근목피로 연명하다가 봄에 찔레꽃을 입에 문 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왕십리에 마을이 생기자 변고를 일으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마을 유지들 꿈에 나타나 자신들을 모시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행당동 아기씨당과 양지당에 각각 한 분씩, 수풀당에 세 분을 당신(堂神)으로 모셨다. 이후에도 역사적인 변고가 있을 때마다 현몽을 통해 자신의 영험함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분석 아기씨당은 신화와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여 볼 때, 호구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마을당이다. 서울굿에서 호구신은 마마에 걸려 죽은 처녀귀신이나 마마를 옮길 수 있는 신으로 여긴다. 아기씨당의 좌정 내력담과 당굿을 보면 아기씨가 마마에 걸려 죽은 원혼임을 알 수 있다. 좌정 내력담은 '원사-원혼의 해코지-현몽-좌정-영험'이라는 당신화의 일반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기씨가 죽었다는 사실이다. 아기씨는 북쪽에서 나라가 망하자 왕십리로 피난을 나온 다섯 명의 공주인데, 봄에 찔레꽃을 입에 물고 죽었다. 이는 마마에 걸려 죽었음을 상징하며, 당굿을 통해 나타나는 아기씨의 모습 역시 서울굿의 호구와 거의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왕십리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기씨를 주신으로 모시는 세 당 모두 왕십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왕십리는 성 안의 시체 대부분이 나왔던 광희문과 인접한 곳이며, 근처 신당동은 화장장과 시체 집단 매립지는 물론 질병을 관리하던 국가 의료기관인 활인서가 있던 곳이다. 따라서 왕십리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었고, 그에 대한 액막이를 아기씨당이 담당했다고 해석한다. 아기씨당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액막이 당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은 지리적 특성과 연관 지어 볼 때 개연성은 있으나, 당굿과 지역 토박이들의 증언을 통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

특징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 사회에서 전염병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특히 천연두는 일생에 한 번은 꼭 겪어야 하는 질병으로 조선시대에는 20년에 한 번꼴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사율이 높고 헛소리하고 눈이 뒤집어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천연두를 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를 관장하는 호구신을 새로 만들어 천연두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순하게 지나가도록 모셨다. 아기씨당이 위치하는 왕십리 일대는 광희문, 화장터, 시체 집단 매립지, 활인서가 있어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늘 안고 있었기 때문에, 호구신인 아기씨를 통해 질병과 죽음의 액을 걷어내길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아기씨가 당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은 천연두라는 질병과 왕십리라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다. 당신화에서 아기씨가 공주 혹은 옹주로 표현되는 것은 실제 사실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질병신을 마을신으로 좌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마를 앓다가 죽은 공주나 옹주의 시신 역시 광희문을 통해 왕십리 일대로 빠져나왔겠지만, 그보다는 아기씨라는 고귀한 신분을 통해 질병신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감을 없애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학의 발달로 천연두가 사라지고 조선시대 왕십리가 갖던 지리적 특성이 약해지자 아기씨에 대한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영험담의 훼손으로 나타났다.

의의 그동안 서울 지역의 당신화는 거의 전승되지 않았고, 전승되더라도 단편적이라고 인식되었다. 〈아기씨당신화〉는 좌정 내력담과 영험담이 함께 전승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당신화가 전승 계보가 확실한 당주 무당에 의해 전승되고 있으며, 당굿을 통해 신화의 신성성이 지속해서 확보된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 또한 높다.

출처 성동구의 구비설화(최래옥 외, 성동민속대관1, 성동문화원, 1999), 서울민속대관1-민간신앙(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서울특별시, 1990).

참고문헌 서울지역 당신화 연구(고영희, 한국무속학11, 한국무속학회, 2006), 서울 지역 아기씨당의 성격과 기능(권선경, 한국민속학49, 한국민속학회, 2009).

필자 권선경(權宣慶)

신화

아기업개당신화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아기업개당(업개할망

당)에서 업저지를 당신으로 모시게 된 내력을 담은 신화.

역사 마라도 아기업개당과 그 신화의 역사는 쉽사리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마라도에서 물질이 이루어지거나 사람이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이 설립되고 그에 따른 신화도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신앙은 대개 이웃한 마을의 당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관련성이 미약한 경우는 대개 원혼형 당신을 모시는 때인데, 이럴 때 그 역사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아기업개당신화〉도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토산리의 〈일뤠또본풀이〉에서 그 근원을 추적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일뤠또가 임신 중에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탓에 마라도로 귀양간 것으로 설정된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일뤠또의 기능이 아기의 산육(産育)이라는 점에서 보면 마라도에 아기 업저지를 모시는 당이 있는 것이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줄거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알드르 해녀들은 종종 무리지어 마라도로 물질을 하러 갔다. 어느 해 이 마을 해녀 셋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라도로 물질을 하러 갔다. 해녀 가운데 이씨 집의 해녀가 갓난아기를 두고 갈 수 없어 아기와 업저지를 함께 데리고 갔다. 업저지는 허씨 애기로 당시 열네 살이었다. 해녀들은 마라도에 이르러 물질을 하려고 하였으나, 때는 5월 장마여서 갑자기 파도가 거세어졌다. 물질을 포기하고 섬에서 빠져나가고자 하였으나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사흘 동안 장막을 치고 지내면서 기다렸으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마라도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루는 한 해녀의 꿈에 산신대왕이 나타나 열네 살 처녀를 두고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였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살길이 달리 없다고 믿고 업저지만 마라도에 남겨 두고 배에 올랐다. 그러자 과연 파도가 잦아들어 배를 타고 뭍으로 나갈 수 있었다. 홀로 남겨진 업저지는 뒤늦게 배가 떠나는 것을 알고 함께 데려가라고 울부짖으며 소리쳤으나 소용없었다. 결국, 홀로 남겨진 업저지는 속절없이 굶어 죽고 말았다. 다음 해 4월 해녀들이 다시 마라도로 가서 보니 뼈만 남아 있었다. 이에 마을에서 그 자리에 당을 세우고 업저지를 일뤠중저로 모시기 시작하였다.

변이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변이를 거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마라도와 해녀를 가파도와 선주로 달리한 이야기가 관련 전설로 전한다. 전승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설정을 추가한 사례도 있다. 해녀들의 배는 따로 사공이 있어 배질을 해 주었는데, 해녀들은 마라도를 떠날 때 미리 사공과 짜고 업저지를 따돌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흰 천을 바닷가 언덕의 눈에 띄는 곳에 걸어 두었다. 그리고 배에 오른 뒤에 우연히 천을 발견한 척하고 잊고 왔다며 업저지로 하여금 다시 가서 천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업저지가 배에서 내리자 해녀들과 사공은 즉시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 버렸다. 업저지는 철저하게 속고 죽음으로 내몰린 셈이다.

분석 이 신화는 일반적인 당신본풀이와는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찍이 처녀당본풀이의 하나로 다룬 사례가 있는 것처럼 당신본풀이로 보아도 좋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원한이 아니라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원한이 문제인 예로 따로 주목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김녕사굴전설〉, 성산읍 수산리의 〈진안할망당본풀이〉 등이 이와 가까운 사례이다. 다른 유사 사례처럼 아기업개당의 업저지는 제물로 바쳐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부당한 일이지만 집단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다만 희생자를 위하여 당을 설립하고 제의를 통해 위로할 뿐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제의도 희생자인 당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토산리 〈일뤠또본풀이〉에서는 일뤠중저가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탓에 마라도로 귀양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마라도는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조차 내쳐지는 때에나 가는 곳이다. 마라도의 험한 조건 탓에 이러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일뤳당신은 용왕황제국의 딸로 설정되는 것이 흔한데, 이처럼 해녀의 업저지로 설정된 것은 달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용왕황제국 딸로 설정된 이야기에서는 본래의 성격이 해신이고 부차적으로 얻은 성격이 치병신이 된다. 해녀의 업저지로 설정된 이야기에서는 본래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 죽어서 해녀와 아기를 돌보는 일뤳당신이 된 것이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토산의 일뤠또는 아기를 여럿 낳고 돌보던 존재이고 한때 마라도로 버려졌던 존재이기도 하다. 〈아기업개당신화〉가 일반적인 〈일뤳당본풀이〉와는 거리가 먼 듯 보이지만, 그 바탕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일뤳당이지만 일반적인 〈일뤳당본풀이〉가 아니라 전설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풀이도 원혼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을 때에는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의의 공동체나 집단을 위하여 희생된 원혼을 주인공으로 삼은 사례이다. 제주도에서는 바로 그 공동체나 집단이 가해자로 설정된 예가 많다. 이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이 구분 없이 전승되는 사례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출처 남국의 무가(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제주설화집성1(김영돈 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참고문헌 제주도 처녀당본풀이 연구(고광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제주신당보고서-서귀포시권(제주특별자치도·전통문화연구소, 2009).

필자 강정식(姜晶植)

전설

아기장수

정의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탓에 부모 또는 관군에 의해 비극적 죽음을 당한 아기장수에 관한 전설.

역사 이 전설의 형성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삼국사기』에는 아기장수처럼 겨드랑이에 깃이 달린 장수에 대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읍지류에도 아기장수 전설과 흡사한 이야기가 보인다. 또한 아기장수의 모티프가 조선조의 반체제적 인물 전설과 결부되거나 조선조 후기 민란(民亂) 관련 담론인 '진인(眞人) 출현설'과도 닿아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전설이 조선조 중기와 후기에 널리 유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줄거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용산 마을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어미가 방아품을 팔고 왔더니 삼칠일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날아서 천장에 붙어 있었다. 저녁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관가에서 알면 큰 해가 미칠 것이니 아이를 죽이자고 했다. 아이를 기름틀에 넣고 호박돌과 나락 한 섬으로 눌렀는데도 아이가 죽지 않았다. 나락 두 섬을 실어도 틀이 끄덕끄덕했다. 나락 석 섬을 실었더니 벌벌 떨다가 마침내 죽었다. 아이가 죽고 나자 마을의 '용바우' 속에서 용마가 나와 공중을 선회하다가 보탕들이란 소(沼)에 빠져 죽었다. 아직도 그 바위에 피 흔적이 남아 있다.

변이 전국적으로 광포하는 전설로 다양한 변이가 이루어졌다. 자신에게 해를 미칠까 두려운 부모가 그 비범한 아이를 살해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이를 죽이는 상황과 방법이 다양하다. 아이가 쉬이 죽지 않아 낙심해 있는 부모에게 아이는 지릅으로 자기 겨드랑이의 날개를 떼라고 가르쳐주기도 한다. 어딘가로 피신하여 큰일을 도모하던 아기장수가 어머니의 실수 또는 배신으로 관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유형도 높은 빈도를 보인다. 아기장수 '우투리'를 죽인 존재가 이성계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조선조 역성혁명에 대한 민중적 반감의 표현이다. 조상 묘를 잘못 쓴 탓에 아기장수가 출생한 것으로 보거나, 그 묘를 잘못 쓰게 된 원인을 며느리에게 돌리는 변이형들도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청장년까지 생존하는 아기장수도 있다. 날개를 잘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아기장수, 겨우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아기장수, 잠적하여 언젠가 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기장수 등의 생존형 아기장수들이 특히 호남지역과 제주도서지역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은 백제권의 역사 및 도서지역의 환경적 특수성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분석 〈아기장수전설〉은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비범한 아이가 가족 또는 적대세력에 의해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이다. 비범성의 상징인 날개와 용마는 아이의 연원이 하늘에 닿아 있음을 말해 주는 요소이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비범한 아이는 민간에서는 역적이 될 징후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가 돌아올 것이 두려워 하늘이 내린 영웅을 제거해 버린다. 민중 영웅이 실패하는 것은 민중의 보수안신(保守安身) 의식 때문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혈육인 부모가 아이를 직접 살해하는 데서 전설의 비극성은 고조된다. 부모에 의한 아이 살해는 그 아이를 수용할 최소한의 공간도 부재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모는 바로 민중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이다. 아기장수의 죽음 이후에 용마가 출현하여 따라 죽었다는 에피소드에도 아기장수의 죽음이 지극히 안타깝고 부당한 것이었다는 민중적 항변이 담겨 있다. 관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유형은 아기장수의 잠재적 가능성을 기존의 지배세력이 차단하는 것이어서 전설 화중의 부정적 현실인식과 좌절감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유형도 결국 죽음의 다른 원인을 아기장수의 '가족'인 어머니에서 찾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전설의 주제는 결국 자신들의 영웅을 수용하지 못한 민중의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집약된다.

특징 〈아기장수전설〉은 비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신분적 제약 때문에 좌절과 죽음을 맞게 되는 민중영웅담 계열에 속한다. "장수나자 용마난다."라는 관용구가 있을 정도로 장수와 용마가 짝이 된 이야기는 풍부하지만, 이 전설은 장수가 아기 단계에서 죽음을 당할 뿐 아니라, 아기장수가 죽은 후에야 용마가 출현하여 따라 죽는다는 점에서 다른 장수전설보다 더 심각하고 비장하다. 또한 비범성의 표지가 날개와 용마로 나타나는 점에서 천강(天降)한 건국시조, 특히 〈박혁거세신화〉와도 닮아 있다. 다만 박혁거세 탄생 시의 조짐들은 신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즉위'로 귀결된 반면, 아기장수의 날개는 반역의 징후로 인식되어 '죽음'으로 귀결된 차이가 있다. 건국시조신화의 구조가 체제 수호적인 귀족영웅담으로 계승된 것과 달리, 〈아기장수전설〉의 모티프와 구조는 김덕령, 이몽

학, 신돌석, 최제우와 같은 반체제적 영웅담에서 거듭 재현되어 온 것도 특징적이다.

의의 아기장수는 메시아, 곧 제세주(濟世主)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새로운 세상과 질서를 기대하는 민중적 희구의 소산이다. 전설 속의 아기장수는 비극적 종말을 맞는 미완의 영웅이지만, 조선조의 반체제적 인물 전설을 통해 계속 되살아나는 점에서 그는 '죽지 않는' 영웅이다. 언젠가 나타나리라 기대되는 잠적한 아기장수의 형상도 같은 의미이다. 민중의 저항 정신은 〈아기장수전설〉 유형군을 통해 '영원히 회귀하는 영웅'을 형상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세의 질곡을 벗어나게 해 줄 새로운 메시아를 바라는 민중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전설의 내용이 조선조 후기 진인(眞人)출현설과 닿아 있는 것도 이 전설의 저항 문학적 의의를 말해 준다. 김동리의 『황토기』, 최인훈의 희곡 『옛날 옛적에 훠어이』에서 보듯이, 현대소설과 희곡에도 이 전설이 수용되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 545.

참고문헌 아기장수이야기의 전승력 연구(김영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아기장수전설과 진인출현설의 관계(신동흔, 고전문학연구5, 한국고전문학회, 1990), 아기장수전설의 신고찰(이혜화, 한국민속학16, 한국민속학회, 1983),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천혜숙,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필자 천혜숙(千惠淑)

민담

아들 많이 낳을 팔자

정의 다남운(多男運)을 타고난 주인공이 그 팔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나 실패하여 팔자에 정해진 자식만큼 많이 낳고 잘 살았다는 설화.

줄거리 한 가장이 점쟁이에게 아주 많은 아들을 둘 팔자라는 말을 듣고 날마다 그 아들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팔자에서 벗어나고자 집을 떠난다. 그러다가 처첩을 많이 두었으나 일점혈육이 없는 한 부잣집에 들르는데, 거기서 주인공은 자신이 집을 나서게 된 사연을 털어놓는다. 이에 부잣집 주인은 주인공에게 대신 아들을 낳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첩과 동거하게 한다. 주인공이 차례대로 돌고 나서 막내 마누라 방으로 들어가니 막내 마누라가 여기서 탈출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달아나는 방도를 가르쳐 주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주인공은 세월이 흘러 처첩과 처첩이 낳은 아들들과 상봉하여 잘 산다.

분석 이 설화는 다자다복(多子多福)이라는 운명의식을 보여주고 있기에 설화 향유층의 운명관과 연계하여 연구되었다. 주인공이 아들을 많이 낳을 팔자에서 벗어나고자 적극 대응책을 세웠음에도 결국 운명에 정해진 아들들이 기어이 태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다남으로 오히려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데서 아들을 많이 둘 팔자 자체가 복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많은 아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설화 향유층의 보편적 소망이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들들이 친아버지에 대한 책무를 전혀 따지지 않고 다만 친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데서 핏줄을 중요시하는 인식도 함께 보여준다.

의의 이 설화에서는 주인공의 왕성한 생산성으로 인한 양육문제와 가난이 구체적 갈등으로 제시된다. 물질적 빈곤을 극복하려는 방책으로 자녀 생산을 막고자 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그 덕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비록 자식이 많은 것이 단시일에는 힘든 것으로 여겨지나, 오랜 시일을 두고 봤을 때 팔자에 자식이 많은 것이야말로 행복이라는 민중의 행복관과 자녀관이 잘 드러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1, 108; 8-6, 946.

참고문헌 한국 운명설화 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한중 운명설화 연구(박명숙, 민속원, 2009).

필자 박명숙(朴明淑)

민담

아들로 태어난 원수

정의 원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는 순간에 죽음으로써 복수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원혼의 복수 이야기는 제주도의 서사무가 〈차사본풀이〉, 함경도 무가 〈짐가제굿〉 중 2본이 채록되어 있다. 또 충청북도 보은군의 〈영동이유래담〉, 『전라북도지』에 있는 〈홍덕현감설화〉도 포함된다. 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복수하기 위해서 원수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설정은 서사무가와 설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사를 형성한다.

줄거리 비단장수 세 명이 주막에 머물었는데, 주막집 부부가 비단장수의 비단을 탐내어 모두 죽이고 비단을 가로채 부자가 되었다. 이후 이 부부가 삼 형제를 낳아서 애지중지 잘 길렀으나 삼 형제가 과거 급제를 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날 부모 앞에서 모두 죽는다. 부부는 너무나 억울하여 죽은 사연을 풀어 달라고 원님에게 간청한다. 원님은 강님 사령에게 저승사자를 불러오게 하여 그 내막을 물어본다. 염라대왕은 삼 형제가 부부에게 죽임을 당한 비단장수 세 명이 복수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님은 부부를 사형에 처한다.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똑똑한 강님 사령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저승사령을 시킨다.

변이 주막 부부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비단장수나 유기장수처럼 많은 재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들 장사꾼은 두 명 혹은 세 명이어서 형제나 삼 형제로 태어나는 변이가 있다. 정북창(중종 때 인물)에게 원한을 산 벼슬아치들이 삼 형제로 태어나 죽었으나, 정북창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분석 이 이야기는 설화, 서사무가, 고전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남아 있어 서술구조나 존재양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차사본풀이〉 유형의 서사무가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는 대표적 서사이다. 이러한 서사는 죽음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

특징 〈장화홍련〉은 원님에게 나타나 자신들의 원을 풀어 달라고 하는 반면, 이 이야기는 원수의 자식으로 태어나 직접 복수하는 설정이 특징이다.

의의 원한 맺혀 죽은 사람들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승 주변을 맴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비단장수는 주막집 자식으로 태어나 과거 급제하여 돌아오는 순간에 모두 죽는다. 즉, 부모에게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한을 풀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88~1988) 4-3, 168,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324; 4, 280; 6, 365; 7, 39; 8, 38.

참고문헌 김치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 문제(강진옥, 비교민속학41, 비교민속학회, 2010), 서사무가 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원수가 자식이 된 이야기의 이본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하은하, 문학치료연구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최원오, 한국민속학연구29, 한국민속학회, 1997).

필자 김경희(金璟姬)

민담

아들의 간 먹는 계모

정의 계모설화의 한 유형으로 계모가 꾀병을 부리며 의붓자식의 간을 요구한다는 민담.

역사 이 설화의 기원은 인도의 민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관세음보살왕생정토본연경(觀世音菩薩往生淨土本緣經)』 같은 불서(佛書)에 유입되면서 불교문화권의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 구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계모가 무당과 짜고 의붓자식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며 꾀병을 부리자 아버지가 아들을 백정에게 데려간다. 그러나 백정의 부인이 개의 간을 대신 주고 아들을 도망가게 한다. 계모는 간을 먹는 체하곤 병이 나았다고 한다. 유랑하던 의붓자식은 어느 정승 집의 하인으로 들어간다. 정승의 셋째 딸이 의붓자식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도와주어, 의붓자식은 장원급제하고 둘은 혼인한다. 의붓자식은 계모를 가시나무로 만든 가마에 태워 죽이고 아버지와 백정 부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산다.

변이 이 설화는 혼인담이 생략된 각편도 많은데, 이때는 주인공이 대개 백정부부의 도움을 받아 출세한 뒤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것으로 끝난다. 혼인담에서는 의붓자식의 행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정승 집에 드나드는 여인들과 친분을 쌓아 정승 딸에게 접근해서 결국 성공한다. 원조자로 백정 대신 육진·포수·하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계모가 간 대신에 인육을 요구하는 이야기도 있다. 의붓자식이 형제로 등장하여 헤어졌다가 재회하는 이야기도 있고, 일곱 형제가 설정되어 북두칠성의 기원담으로 전하기도 한다. 특이한 변이로 의붓자식이 먼저 계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송아지로 환생하자 그 간을 요구해서 도망한 후 결혼하여 송아지 허물을 벗고 귀공자로 변신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본 설화와 전승역사가 다를 것이다.

분석 내용은 크게 두 층위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계모와의 갈등으로 추방된 의붓자식이 성공하여 가정을 원상 복귀시키고 은혜를 갚으며 악인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권선징악과 도리(道理)라는 유교적 윤리관을 토대로 한다. 다른 하나는 의붓자식이 능동적으로 출세의 기회를 만들어 성공하고, 한편에서는 상층 여성이 미천한 이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원조하여 성공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서동설화〉나 〈온달설화〉에서도 보이는 부분으로, 신분상승을 이루어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민중의 잠재적 갈망과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징 이것은 구성상 유럽의 민간설화인 〈세 가지 언어(The

three languages, AT 671))와 유사하다. 그런데 유럽형은 부자 갈등의 형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서 죽이도록 명하나 하인이 동물의 간을 증거로 내놓으며 아들을 도망시킨다. 그리고 바보 같은 자식이 실은 남다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우리 설화는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나타나는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으로 구전되었으되, 가장 천한 계층인 백정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설정됨으로써 상하 계층의 대립적 양상을 드러내는 지역적인 변화를 보인다.

의의 양반 부모가 버린 자식을 하층민이 거둬 출세시키고 부모로 대우받는다는 계모설화에서는 흔치 않은 구조로, 지배자의 비인간성에 대한 피지배자의 신랄한 비판정신을 담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486; 4-1, 545; 4-4, 772.

참고문헌 觀世音菩薩往生淨土本緣經, 송아지설화 연구(최운식, 한국민속학35, 한국민속학회, 2002), 악 되는 간과 의붓자식의 간 내기(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 비교 연구, 민속원, 2010), 月日の本地の典據小考(徳田和夫, 月報86, 神道大系, 1989).

필자 박연숙(朴蓮淑)

전설

아랑각

阿娘閣

정의 아랑낭자의 원혼에 얽힌 아랑각(阿娘閣)에 관련된 설화.

역사 〈아랑전설〉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상남도 밀양의 영남루 아래 죽림 속에 남아 있는 아랑각(아랑사)에 관한 내용이 고종 연간에 밀양부사를 지낸 신석균(申奭均)이 1878년에 지은 한시에도 등장하는 만큼 적어도 백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야기로 짐작할 수 있다. 그보다 뒤늦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도 장석영(張錫英, 1851~1929)이 지은 한시에 아랑각의 정취를 노래한 구절이 나온다. 비슷한 시기 장상학(張相學, 1872~1940)은 '아랑각'이라는 한시에서 아랑각의 정취가 아닌 아랑의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아랑의 이야기는 과체시의 형태로 19세기 후반 이래 영남 문인들 사이에 회자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이 시가 배극소(裵克紹) 혹은 배익소(裵益紹)의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시는 기록보다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예가 많아서 여러 이본이 있다. 이원명(李源命, 1807~1887)의 『동야휘집(東野彙集)』과 이가원의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 등에 해당 시가 전한다. 그밖에 『청구야담(靑邱野談)』, 『금계필담(錦溪筆談)』, 『일사유사(逸士遺事)』, 『반만년간조선그담』 등의 야담집에 〈아랑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아랑의 이야기는 야담과 설화, 한시 등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대소설과 영화, 지역 축제 등의 문화콘텐츠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밀양 아랑제'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1950년대부터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축제의 기본 모티프와 주제는 모두 이 전설에서 핵심 내용을 빌리고 있다.

줄거리 자색이 뛰어난 밀양 부사의 딸이 유모의 꾐에 빠져 달구경을 나갔다가 남몰래 그녀를 사모하던 남성에게 겁탈을 당한 후 살해되었다. 그 후 밀양으로 내려오는 부사마다 부임한 첫날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어느 해 담력이 뛰어난 신임 부사가 부임한 첫날 아랑 귀신을 만났는데 그간 여러 신임 부사가 아랑의 원혼에 놀라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랑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말했고 부사에게 다음 날 아침 동헌 뜰에 모든 관청 사람들을 모으도록 하였다. 아랑의 원혼이 나비로 변해 자신을 살해한 통인에게 다가가 앉았다. 이로써 아랑의 원한을 풀게 되었다.

변이 이 이야기에서 각편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앞부분은 다음과 같다. 밀양 부사의 딸인 아랑이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유모의 손에 자랐는데 어느 날 유모의 꾐에 빠져 달 구경을 나갔다가 참혹한 변을 당한다. 한편, 갑자기 사라진 딸 때문에 실의에 빠진 부사는 결국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거나 병에 걸려 죽고 만다. 이야기의 후반부에 비해 전반부에서 전승의 지속지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편이며, 아랑의 이름이나 성씨, 변을 당한 장소, 범인의 이름 등에서 각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이는 아랑이 기생으로 등장하는, 1923년에 나온 손진태 채록본에서 나타난다. 후반부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이는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영남루
경남 밀양시, 한국관광공사



영남루
경남 밀양시, 문화재청

아랑의 원귀를 만나는 사람의 신분과 이름 그리고 이 사람이 밀양에서 원귀를 만나게 된 필연성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아랑이 자신의 원한을 풀고 사람들이 아랑의 넋을 애도하는 과정이다. 전자에서 아랑의 원귀를 만나는 이는 벼슬자리에서 떨어진 지 20년이 지난 무변(武弁)이거나, 박식하고 기개가 넘치지만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이상사와 어린 배익소, 혹은 마흔이 넘도록 벼슬을 하지 못하고 죽장망혜로 명산대천을 좇아다니는 이 진사 등이다. 이들은 불우하거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성들로 아랑을 만나 원한을 풀어준 후 사회적인 성취를 거두게 된다. 후자의 변이는 아랑이 직접 나타나 죽음의 경위와 자신의 시신이 묻힌 곳을 알려주는 형태 또는 붉은 깃발이나 나비로 귀환하여 범인을 암시한 후 범인의 자백을 통해 시신 묻힌 곳이 드러나는 형태로 구현되기도 한다.

분석 과체시나 야담으로 전승되는 이 전설의 서사구조는 '밀양 부사의 딸 아랑의 실종-신임 밀양 부사의 반복적인 죽음-중개자(대리 발화자)와 원귀 아랑의 만남-원귀 아랑의 발화로 드러나는 폭력 사건의 경위-공적 영역에서의 해원'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구전으로 전승되는 전설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 준다. 그러나 아랑을 둘러싼 폭력 현장이 원귀 아랑의 발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사 도입부에 직접 구현되고, 아랑이 나비나 붉은 깃발의 암시를 통해 직접 범인을 지목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구전이야기에서는 원귀 아랑의 발화보다 형상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원귀 아랑의 공적 영역에서의 해원'이라는 주제보다는 '원귀 출현이라는 신이한 사건과 원귀가 자아내는 공포'가 더욱 강조된다.

의의 이 전설은 한국을 대표하는 원귀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살아서는 말할 수 없었던 아랑은 원귀가 되어 현실계와 초현실계를 넘나들고 결국 현실계로 돌아와 스스로 자신의 원한을 푼다. 사대부 남성의 중개로 원한을 푸는 아랑의 해원은 남성 폭력의 희생양이 다시 사대부 남성의 가부장적 질서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반대로 공적 영역에서의 애도를 촉진하고 주도함으로써 스스로 해원의 주체가 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느 해석이든 간에 원귀의 존재와 발화는 가부장적 질서와 남성 폭력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며, 원귀가 자아내는 공포는 견고한 듯 보이는 남성 지배 질서에 균열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출처 東野彙集, 逸士遺事, 靑邱野談, 반만년간조선그담(안동수, 조선도서주식회사, 1922), 아랑과 아랑각(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1, 1953), 조선문학사-하(이가원, 태학사, 1997), 주해 청구야담(최웅, 국학자료원, 199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387; 7-5, 278; 7-13, 308; 8-7, 137; 8-8, 66; 8-9, 217,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참고문헌 밀양아랑제 전승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영희, 구비문학연구24, 한국구비문학회, 2007), 아랑형전설의 구조적 특질(곽정식, 경성대학교 문화전통논집2,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조현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강진옥, 고전문학연구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필자 김영희(金玲希)

민담

아버지 구한 아들

정의 위기에 빠진 아버지의 문제를 지혜로운 아들이 해결하는 아지담(兒智譚) 설화.

줄거리 새로 부임한 원님이 이방과 내기를 해서 자기가 이기면 이방의 첩이 자기에게 수청을 들게 하고, 이방이 이기면 200냥을 주기로 했다. 원님은 이방에게 중국 대가집의 주해(註解) 개수를 맞추라 했다. 이방은 걱정이 되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 여덟 살 먹은 이방의 아들이 약속한 날짜에 원님을 대신 만나 중국 대가집 주해가 마을 심 참봉 댁 후원에 있는 것과 모양과 개수가 같다고 했다. 원님은 자기가 이 마을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모른다고 했다. 이방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도 중국에 가 보지 않아 모른다고 했다. 내기에 진 원님은 200냥을 주었다. 원님은 다시 400냥을 걸고 '새끼 가진 황소'를 구해 오라고 했다. 아들은 약속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왔다. 원님이 늦게 왔다고 야단치니, 아버지가 아기를 낳느라고 늦었다고 했다. 원님이 남자가 무슨 애를 낳느냐고 하니, 그럼 황소가 무슨 새끼를 낳느냐고 맞받아쳤다. 원님은 또 이방 아들에게 400냥을 주었다. 겨울이 되어 원님은 다시 800냥을 걸고 딸기를 따오라고 했다. 이번에도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 아버지가 딸기를 따다가 뱀에 물려서 자신이 대신 왔다고 했다. 원님이 동짓달에 무슨 뱀

이 있냐 하니, 그럼 동짓달에 무슨 딸기가 있냐고 맞받아쳤다. 원님은 또 800냥을 주었다. 원님은 관사에 있는 소나무가 모두 몇 그루냐고 물었다. 이방의 아들은 꼭대기가 백백하니(빽빽하니) 이백, 밑을 보니 칠칠하니 사십 구, 합이 이백마흔아홉이라고 답했다. 원님은 산을 가리키며 "산이 저기 있는데 산천초목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다. 이방의 아들은 "하늘은 저기 있는데 일월성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결국 원님은 이방의 아들에게 지고 말았다. 나중에 아들은 이방이 되어, 원님을 손아귀에 넣고 일했다.

변이 이 설화처럼 원님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내용 말고도 아버지 대신 집안 문제 해결하기, 아버지 실수 만회하기, 아버지 잘못 바로잡기, 아버지 도와주기 같은 다양한 변이가 있다.

분석 가부장 질서 아래에서 절대 권력자이어야 하는 아버지의 모순이 드러나고, 이는 '아버지 부재의 문제'로 귀결된다. 아이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여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구축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긴장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은, 시간이 지나 가족 관계가 변화하면서 전도(顚倒)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를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의의 아들이 아버지의 한계를 감싸 안는 것은 자식과 부모를 떨어트려 생각하지 않는 설화 향유층이 가진 집단주의, 인정주의, 온정주의 그리고 관계 중심 사고방식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378; 2-8, 837; 3-3, 307,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181.

참고문헌 과제해결형 설화의 연구(문희철,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아이지혜담에 나타난 부자간의 관계와 그 의미(이성희, 구비문학연구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아이지혜담 연구(이성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어른과 아이의 지혜대결담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전은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지혜담 연구(오영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필자 이성희(李聖熙)

민담

아비와 동침할 운명

정의 소금장수가 아비와 동침할 운명을 타고난 딸을 버리지만, 결국 운명대로 딸과 동침하게 되었다는 설화.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미천왕이 소금장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 상업적 소금 거래가 활발해진 것은 조선 후기 보부상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금장수와 관련된 설화는 조선 후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줄거리 가난한 소금장수가 부인의 출산을 앞두고 장사를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묘지 근처에서 쉬었다. 그런데 우연히 귀신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한 귀신이 여자아이를 낳은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왔는데 그 집에 땔감이 없어서 변소의 나무를 빼다가 밥을 짓는 것을 보고는 "애비하고 붙어먹으라." 하고 저주를 퍼붓고 왔다는 것이다. 소금장수가 집에 돌아와 보니, 귀신이 말한 집이 자기 집임을 알고 태어난 딸을 칼로 찔러 대나무밭에 버렸다. 세월이 흘러 소금장수가 주막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주막에서 일하는 처녀와 동침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처녀의 몸에 난 흉터를 보고 자신이 버린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변이 각편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귀신의 이야기를 듣는 장소가 간혹 초분(草墳)으로 그려지는 예도 있지만 대개는 무덤가로 설정된다. 그리고 결말에 소금장수가 운명대로 딸과 동침하고,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비관하여 죽어 버리는 각편도 있다.

분석 타고난 운명대로 이루어진다는 운명담이나 귀신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소금장수의 능력에 주목하여 이인담(異人談)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이 설화는 금기의 설정과 위반 그리고 이로 인한 징벌의 실현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때의 금기는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따른 것인데, 금기의 위반은 근친상간(近親相姦)이라는 불행한 결과로 나타난다.

특징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금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특히 삼신)에 대한 의례 음식을 장만하면서 측신(厠神)이 거주하는 변소의 나무를 빼다가 쓰는 부정(不淨)을 저지른다. 이는 '부정하게 신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어긴 것이고, 이로 인해 근친상간이라는 운명이 아이에게 주어진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버리지만 결국 신의 저주가 이루어지고 만다. 금기의 설정과 위반, 그에 따른 징벌이 이 이야기의 핵심 요소이다.

의의 이 이야기는 광포설화(廣布說話)로, 금기의 설정과 위반이 측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택신앙(家宅信仰)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전승되고 있다. 아울러 이인적 능력을 가진 소금장수가 자신과 딸의 운명을 미리 알게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딸을 버리지만 결국 딸과 동침을 하게 된다는, 정해진 운명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운명론적 인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4, 964; 6-4, 303; 6-12, 1036.

참고문헌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연구(김용덕, 한국언어문화3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소금장수설화 연구(윤온솔,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한국의 귀신설화 연구(박종오,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박종오(朴宗吾)

전설

아우라지

정의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에 있는 아우라지 나루터를 배경으로 한 전설.

역사 아우라지는 전설이 형성되기에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우선 이곳은 암물[陰水]과 수물[陽水]이 만나는 곳이어서 남녀의 만남을 상징하기에 좋은 곳이다. 태백산에서 발원하여 임계를 거쳐 여량으로 흘러오는 골지천(骨只川)은 물살이 느리고 순해 암물이다. 발왕산에서 발원하여 노추산과 구절리를 거쳐 여량으로 흘러오는 송천(松川)은 물살이 빠르고 힘차서 수물이다. 이 암물과 수물이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아우라지이다. 이곳은 또한 정선아리랑(아라리)의 발상지라고 일컫는 고양산(高陽山)이 인근에 있어 아라리를 화제로 삼기도 좋은 곳이다. 아라리의 노랫말이 나오는 〈아우라지전설〉은 아라리 발생 이후에 형성된 것이 분명하다. 아라리의 기원을 고려 말기-조선 초기로 잡기도 하지만 이는 논거가 부족하고, 조선 후기로 잡는 학설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줄거리 옛날에 아우라지를 사이에 두고 유천리 양지마을에는 처녀가, 그리고 여량리에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총각과 처녀는 유천리에 있는 싸리골에서 동박(동백)을 따며 정이 들었다. 싸리골은 동박나무가 우거진 곳이다. 내일 또 만나자고 약속한 다음날 아침에 총각은 아우라지로 나룻배를 타러 가지만 간밤에 온 비로 물이 불어나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총각은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로 지어서 불렀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 싸리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강 건너편의 처녀도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로 지어서 불렀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 사시장철 님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이 노래가 아라리의 기원이 되었다.

분석 이 전설은 아라리 노랫말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라리의 기원이라는 근거는 없다. 아우라지에는 총각이 뗏목을 타고 가다가 익사하고 처녀가 그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전설도 있다. 이곳은 익사 사고가 잦은 곳이어서 이러한 전설이 생긴 것이다. 1956년에는 신부가 탄 가마를 나룻배에 싣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 신부가 가마 속에서 죽은 일도 있었다. 이곳은 남한강을 따라 서울로 운반하던 뗏목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한 총각이 뗏목을 타고 가다가 익사를 하자 그 총각과 장래를 약속했던 처녀가 절망하여 물에 몸을 던져 자살한 일도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 이런 처녀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우라지 강가에 '아우라지 처녀상'을 세웠다. 이 지역 사람들은 처녀상을 세우고 난 뒤부터 익사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전설을 얘기하기 좋아한다.

특징 남녀가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설화는 여러 유형이 있다. 〈견우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일 년에 한 번 만난다. 강원도 영월군 서면의 〈신랑바위·각시바위전설〉에서는 도령과 사공의 딸이 신분의 벽을 극복하지



아우라지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나루터, 2010.1.5, 시몽



아우라지 처녀상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나루터, 2009.1.23, 시몽

못하고 두 사람이 다 죽는다. 〈아우라지전설〉에는 만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다만 그리움만 있다.

출처 강원의 설화2(강원도, 2005), 정선 아우라지 관광지 지표조사 보고서(강원문화재연구소·정선군, 2002), 정선군지(정선군청, 2004), 한국지명유래집-중부(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 2008).

참고문헌 강원도(뿌리깊은나무, 1983), 강원지방 옛 지명(김명환, 강원지방 옛 지명연구소, 2001), 정선아리랑(진용선, 집문당, 2004).

필자 전신재(全信宰)

민담

아이를 솥에 넣고 도망친 토끼

정의 자기를 잡은 사람의 아기를 끓는 솥에 넣고 도망친 잔혹한 토끼에 대한 설화.

역사 설화에서 토끼는 꾀 많은 인물이거나 잔혹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중 잔혹한 토끼는 자기중심성과 그로 인한 부도덕성 때문에 설화에서 제한적으로 전승됐다.

줄거리 녹두첨지는 자꾸 녹두를 뜯어 먹는 토끼를 잡기 위해 녹두밭에 죽은 척 누워 토끼를 기다린다. 한 무리의 토끼가 나타나 녹두첨지를 장사지내는 놀이를 하는 사이에 녹두첨지는 가장 큰 토끼를 사로잡는다. 녹두첨지는 토끼를 아내에게 건네고 장작을 팬다. 토끼를 건네받은 첨지의 아내는 산채로 솥에 넣는다. 아내가 이웃집에 불을 빌리러 간 사이, 토끼는 솥에서 나와 아기를 대신 넣고 안방에 들어가 아기처럼 눕는다. 녹두영감 내외는 삶은 고기를 먹으면서 토끼 고기가 제 아기를 닮았다고 한다. 노부부가 고기를 다 먹자 안방에서 토끼가 툭 튀어나오면서 자기 새끼 잡아먹고 자기마저 잡아먹으려 한다고 소리친다. 도망을 치며 횃대에 불을 지르면 자기는 죽는다고 하여 노부부가 불을 지르자, 이번에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에 불 지르면 자기는 죽는다고 한다. 그렇게 하자 뒷산으로 도망치면서 자기 새끼 잡아먹고 자기마저 잡아먹으려 한다고 소리친다. 그러고는 산으로 올라간다.

변이 각편에 따라 토끼가 호랑이를 속여서 죽이고 노부부에게서 칼과 도마를 빌려 호랑이 고기를 먹는 내용이 도입부에 추가된다. 결말부에는 연쇄적으로 노부부의 살림살이를 망치고 끝내 노부부마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하지만 토끼의 잔혹성을 기본 축으로 하므로 변이가 크지 않다.

분석 토끼를 지혜로운 트릭스터 범주로 보면 잔혹한 토끼는 의외의 캐릭터이다. 그러나 토끼의 이러한 잔혹성, 자기중심성, 놀이성은 오히려 지혜로운 토끼보다 더 트릭스터에 가깝다. 왜냐하면, 트릭스터는 인류의 초기 모습 혹은 유아기적 자기중심성의 투사이기 때문이다.

특징 꾀 많은 토끼 이야기와 잔혹한 토끼 이야기는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대비된다. 꾀 많은 토끼가 다소간의 영웅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 질서에 관여한다면, 잔혹한 토끼는 인간의 무의식에 깊이 억눌린 요소를 투영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의의 잔혹한 토끼와 꾀 많은 토끼는 아동의 발달 단계와 대비된다. 특히 전자는 자기중심성에 갇힌 전조작기의 아동 발달 단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잔혹한 토끼 이야기는 인류의 진화 혹은 인간의 성장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0, 870; 8-5, 93.

참고문헌 설화학 강요(조희웅, 새문사, 1989), 속임·속음의 서사구조(이한길,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트릭스터담의 문화기호학적 연구(류정월,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문학통사(조동일, 지식산업사, 2005),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기호(金基鎬)

용어

아지담

兒智譚

정의 어른보다 슬기로운 아이의 지혜가 드러나거나 아이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담긴 유형의 설화.

내용 아이지혜담[智慧譚]은 아이의 지혜 모티프가 핵심적인 요소인 설화들이다. 여기서 지혜(wisdom)는 '슬기'와 같은 뜻으로서 지략, 기지 등을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사기(trick)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지혜담은 아이의 행위에 따라 단순히 지혜가 드러나는 설화와 문제를 해결하는 설화로 나눌 수 있다. 문제해결형은 '문제의 제시-문제의 해결'이라는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며 문제 해결의 주체는 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문제의 범위는 국가형, 집안형, 개인형 등으로 나뉜다. 국가형에서는 왕을 비롯한 신하들, 박문수와 같이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이들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를 아이가 해결한다. 집안형에서는 주로 무능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이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아버지의 잘못을 아이가 바로잡는다. 개인형에서는 개인 간에 벌어진 다툼을 해결한다. 아이는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른들의 무지와 모순을 폭로한다. 이러한 폭로는 웃음을 동반하면서 풍자적인 성격을 갖는다. 아이지혜담에서 아이는 순수성, 약자, 이인성, 숨어 있는 자, 미래의 표상, 이상적 인간상 등의 특성을 갖는다.

필자 이성희(李聖熙)

민담

아지재판

兒智裁判

표제어 꼬마 명재판관

전설

아차산

峨嵯山

정의 아차산의 명칭 유래와 아차산에 있는 사찰·바위에 얽힌 전설.

역사 아차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제45권 〈온달〉과 제25권 〈개로왕전설〉이라고 알려졌다. 이들이 '阿旦城(阿旦城)' 아래에서 전사하였다는 기록을 이병도(李丙燾)가 모두 '아차성(아단성)'으로 읽은 것이다. 최근에는 삼국시대의 표기법에 따라 이를 '옥차성(옥저성·옥단성)'이라 할 수 있으며, '아차산'이라는 명칭은 기록에서는 『고려사(高麗史)』 제112권 열전 조운흘(趙雲仡) 조에 등장하며,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오랑캐[阿]라는 뜻을 피하고, 태조 이성계의 이름인 '旦'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阿旦山'을 '아차산(峨嵯山)'이라고 쓰고 읽었다고 한다.

줄거리 아차산에는 온달의 주먹바위와 평강공주의 통곡바위가 있다. 아차산성에서 벌어진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온달의 시신이 움직이지 않아 평양에 있던 평강공주가 달려와 넋을 달래고 나서야 관을 옮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두 바위에 얽혀 전한다. 주먹바위는 전투에서의 패배를 안타까워하며 주먹을 쥔 온달의 모습을, 그리고 통곡바위는 남편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평강공주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편, 아차산 범굴사(梵屈寺)에는 바위에 뚫린 두 개의 구멍에 관한 전설이 전한다. 두 개의 구멍 가운데 작은 구멍에서는 가난하고 착한 이의 기도로 쌀이 쏟아졌으며, 이 사실을 안 욕심 많은 부자가 뚫었다는 큰 구멍에서는 벌레가 쏟아졌다고 한다. 아차산에 얽힌 여러 전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홍계관전설〉은 아차산이라는 명칭의 유래담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의 이름은 조선 명종 때 유명한 점쟁이 홍계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한 임금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라며 탄식한 데서 비롯했다고 한다.

분석 〈아차산전설〉들은 바위나 사찰 혹은 지명의 형성을 설명하는 유래담으로 볼 수 있으며, 특이한 행적을 보여 주는 인물을 다루는 이인전설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인전설에 등장하는 이인은 자신의 능력을 인간 생활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영웅이다. 하지만 〈아차산전설〉에 등장하는 점쟁이 홍계관이나 온달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나 결코 공동체 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의의 아차산 일대는 남한에서 처음으로 고구려 유적이 발굴된 곳이며, 현재 이곳의 문화유적을 보존·발굴하는 데 학계와 지방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아차고개에서 죽은 점쟁이 홍계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전설〉, 〈아차산 아기장수전설〉 〈광나루 용당산전설〉, 〈아차산 쌀바위전설〉, 〈비낭고개의 며느리바위전설〉과 같은 여러 편의 전설들이 수집·소개되었다.

출처 아차산의 전설(김민수, 광진구 광진문화원, 2010), 아차산의 전설(김민수,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2007).

참고문헌 아차산 고구려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최종택, 선사와고대28, 한국고대학회, 2008), 아차산에서의 고대사의 제문제(김민수, 대양문화사, 1999),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구리시·구리문화원, 구리시, 1994).

필자 김정경(金靜京)

민담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정의 부당하게 소박당한 어머니를 위해 슬기로 친부를 찾아낸 아이의 지혜를 담은 설화.

민담

악형선제

惡兄善弟

정의 악한 형과 착한 아우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설화.

역사 아득한 옛날부터 형제간의 우애는 군신 간의 충·부모 자식 간의 효·부부간의 열·친구간의 우정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덕목이었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윤리의식이었기 때문에, '우애'란 주제는 설화문학상에서도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카인과 아벨〉, 〈요셉의 형제들〉 및 기원전 13세기경 이집트의 〈아누프와 바투〉 이야기 같은 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보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록 국내 문헌은 아니지만 〈신라 방이형제〉 이야기가 9세기경 중국의 『유양잡조(酉陽雜俎)』에 수록되어 전하고, 이것은 후대에 이르러 민중들 사이에서 〈홍부놀부〉로 변형되어 즐겨 구연되어 왔다.

줄거리 '악형선제' 유형 중 〈눈먼 아우〉와 〈불로초를 캐러 간 동생〉이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눈먼 아우〉에서 마음씨 나쁜 형은 아우를 때려 눈을 멀게 하고 도망을 치는데, 산신이 나타나 약초를 알려 주어 아우가 눈을 뜨게 된다. 산신의 지시에 따라 아우는 지네의 독을 남몰래 쐬어 죽어가고 있는 부잣집 딸을 찾아가 용마루에 숨어 있던 지네를 잡아 죽이고 처녀의 병을 고친다. 기뻐한 부자는 그 보답으로 딸과 혼인을 시키고 재산도 나누어 준다. 다시 꿈에 나타난 산신의 지시에 따라, 샘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어느 마을을 찾아가 백 년 묵은 뽕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게 한다. 샘을 얻게 된 마을 사람들이 사례를 하여 아우는 살림이 더욱 넉넉해진다. 아우는 걸인잔치를 벌여, 찾아온 형을 만나 장가를 보내고 재산도 나누어 준다.

다음으로 〈불로초를 캐러 간 동생〉에서는 형제가 병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불로초를 캐러 삼신산으로 떠나는데, 학이 나타나 안내해 준다. 바닷가에 이르러 형은 포기하고, 동생만 바다를 건너가 불로초를 구해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형이 불로초를 빼앗고, 동생의 눈을 찔러 멀게 한 후 바닷물에 처넣는다. 혼자 집으로 돌아온 형은 자신이 불로초를 구한 양 거짓말을 한다. 한편, 표류하던 동생은 어느 뭍에 올라 대나무로 퉁소를 만들어 불고, 눈먼 소년이 퉁소를 잘 분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공주가 소년을 초청한다. 불로초를 먹고 쾌차한 어머니는 기러기의 발에다 편지를 묶어 작은아들에게 전해 주기를 빈다. 눈먼 아우가 기러기발에 매인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 보려 할 순간에 눈이 떠진다. 아우는 공주와 혼인하고 어머니를 모셔다가 잘 산다.

분석 '악형선제'란 이야기 명칭은 '선형악제'와 병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선악의 주체를 '형'과 '아우'로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면 '선악형제(善惡兄弟)' 또는 '형제 이야기'로 아우를 수도 있을 것이다. 간혹 '형제 이야기'를 '두 형제 이야기'라고도 하지만, 이는 다소 모호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이 선한지 아우가 선한지 선악의 주체가 확실치 않은데다가, '김씨·이씨' 같은 두 집안의 형제를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들에서 굳이 형을 악한 자로, 아우를 착한 자로 설정한 것은 실제의 반영이라 할 수는 없겠다. 실제로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형은 나이가 많고, 보통 동생보다는 힘이 세기 때문에 강자를 악한 자로 여기는 생각에 이 같은 설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강자인 형의 악행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징 일반적으로 형제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설화들은 결말에 이르러서는 〈홍부놀부〉 이야기처럼 개과천선에 의한 화목이 강조된다. 하지만 권선징악의 틀에 따라 악자가 처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방이설화〉가 그러하다. 물론 형제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에 못지않게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도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형과 아우가 밤새 볏 가마를 상대방에게 옮겨 놓는 형제의 이야기인 〈의좋은 형제〉 그리고 황금 덩이를 놓고 형제가 갈등하다가 강물 속에 내버리고 마는 〈형제투금(兄弟投金)〉 이야기 같은 것은 반목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동기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형제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개 재산 문제 때문이다. 그 밖에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나 출세에 대한 욕망, 드물게는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형제간의 다툼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장화홍련〉 이야기처럼 계모로 인한 의붓형제 사이의 갈등이나 또는 〈칠십생남비오자(七十生男非吾子)〉 이야기와 같이 처남·매부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의의 인간은 생활이라는 현실 문제에 부닥치거나, 개인의 욕구 추구를 위해서는 종종 인륜까지도 저버린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있어서 형과 아우는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복종자의 관계처럼 인식되기 쉽다. 실제 과거의 사회 제도나 법률은 장자에게 더 많은 힘을 주었다. 따라서 이야기들에 있어서도 형은 악한 자, 아우는 착한 자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악형선제'의 이야기들은 이러한 형제간 다툼에 대해 경종 또는 감계(鑑戒)를 주기 위한 것이다.

출처 酉陽雜俎, 남국의 전설(진성기, 일지사, 1968), 옛날이야기 선집3(임석재, 교학사, 197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1, 458.

참고문헌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The Oldest Stories in the World(T. H. Gaster, Boston: The Becon Press, 1952).

필자 조희웅(曺喜雄)

민담

암행어사 젖 먹이고 발복한 여인

정의 굶어 죽어 가는 암행어사에게 젖을 먹인 젊은 여인이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동네 부인들 열댓 명이 산나물을 뜯으러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한 선비가 마치 죽은 것처럼 누워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배가 고파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이때, 용기 있는 젊은 부인이 그 선비에게 자신의 젖을 물려 주었다. 다른 부인들은 이름도 모르는 선비에게 젖을 물리면 안 된다고 야단이었지만, 젊은 부인은 젖 한쪽을 다 빨아 먹게 하고 다른 쪽도 마저 먹였다. 그러고는 찬밥이라도 먹이려고 선비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마을로 돌아온 부인 중 한 명이 젖을 먹인 부인의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말해 주었다. 화가 난 남편은 집으로 와 선비를 두드려 팼고, 선비는 마패를 보여 주며 신분을 밝혔다. 선비가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안 남편은 사죄하고, 암행어사는 떠났다. 얼마 후 관가에서 젖 먹인 부인과 남편을 불러들였는데, 부인이 살려 준 암행어사가 부부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논을 몇 십 마지기 떼어 주고 연못까지 주었다. 암행어사를 살린 부인은 남편과 부자로 잘 살았다.

변이 이 설화는 이본이 6편 정도 전해져 오며, 〈유씨네가 잘된 유래〉, 〈어사에게 젖 물려 잘된 사람〉, 〈박문수 어사와 금패령〉과 같은 이름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채록되어 있다. 젊은 부인과 동네 부인의 관계가 동서지간으로 변이되어 전해지기도 하지만, 젊은 여성이 윤리관보다 생명을 중요시 여겨 낯선 남성에게 젖을 물린다는 사건은 똑같이 전승된다. 또한 젖을 먹고 살아난 남성의 신분이 암행어사라는 것도 같다.

분석 이 설화는 발복설화로, 부자가 되는 이야기의 하나이다. 설화 속 젊은 부인도 다른 발복설화의 여주인공처럼 비범함을 가지고 처신하여 부자가 된다. 특히, 주인공인 여인은 주변의 이목과 사회적 윤리 의식보다 생명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낯선 남성의 생명을 살린다. 단순히 밥을 주어 생명을 살리는 것과 달리, 젊은 부인이 젖을 물려 굶주린 선비를 살리는 사건은 선행의 문제를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의의 이 설화에서 젊은 부인의 젖 먹이는 행동은 선행의 차원을 넘어선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묻는 동시에 같은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대하여 묻는 행위이다. 즉 젊은 부인의 행동은 여인이 정조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선한 행동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민중의 이러한 의식이 젊은 부인을 발복하게 만든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212; 6-3, 326; 7-8, 404.

참고문헌 박문수설화의 성격분석(최래옥, 한국민속학18, 한국민속학회, 1985), 여인발복설화 연구(김대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필자 오정미(吳正美)

전설

애오개

정의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에서 마포로 넘어가는 고개에 얽힌 전설.

줄거리 서울시 서대문사거리에서 충정로를 지나 마포 방향으로 가려면 아현동을 지나는 작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 이 고개를 '애오개'라 하는데, 그 이름의 유래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첫 번째는 인근 지형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 도성 중심에서 마포나루, 인천 강화를 오가기 위해서는 남쪽의 만리재나 서북쪽의 애오개를 걸어 넘어야 했다. 남쪽의 만리재는 높고 길어서 고개를 넘는 데 반나절 이상 걸리지만, 서북쪽의 고개는 훨씬 작아 넘기 수월하였다. 서북쪽에 있는 고개는 아이처럼 작다는 의미에서 아이고개, 애고개라고 불리게 되었고, 지금의 애오개가 되었다. 두 번째는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한성의 주산(主山)인 북한산의 봉우리는 아이가 업혀 있는 형태라 하여 부아악(負兒岳)이라 하는데, 그 아이가 달아나는 형세라 이를 막기 위해 서쪽에 있는 산을 모악(母岳), 남쪽 산을 벌아령(伐兒嶺)이라 하였다. 그리고 서남쪽의 산은 떡으로 아이를 달랜다는 의미로 병시현(餠市峴), 떡전고개라 불렀다. 달아나려는 아이를 떡으로 달래는 고개인 병시현이 아현(兒峴)이 되었고, 그 한글 이름인 애오개로 불리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한성 사대문 안팎의 생활 문화를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옛날 한성부에서는 서소문을 통하여 시체를 나가게 하였는데 아이 시체는 이 고개를 넘어 묻게 하였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시체를 매장한 고개라는 이름으로 애오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당시 아현동 산7번지 인근에는 작은 아총(兒冢)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한다.

분석 애오개는 지역의 지형과 풍수설 그리고 조선시대의 생활풍습을 담아 작은고개, 아이고개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갖게 되었다. 애오개는 한자로 아현(兒峴)이라 적었는데, 이후 '兒'의 표기가 '阿'로 변하면서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阿峴洞)의 지명이 되었다.

의의 애오개는 현재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지형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유래 또한 많이 잊혔지만, 아현동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서 옛 이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출처 마포구지-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마포구, 2006), 아현동사람들이야기(김현경·이건욱, 국립민속박물관, 2007).

참고문헌 고지도를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10),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6).

필자 김현경(金賢敬)

용어

야래자설화

夜來者說話

정의 남자로 변한 뱀이 밤에 여성(처녀)을 찾아와 관계를 하고 이를 통해 낳은 아이가 뛰어난 인물이 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기이(紀異)」에 실린 〈견훤탄생담〉이 가장 오래된 문헌자료이며, 『청구야담(靑邱野談)』 권1 속의 〈귀물매야색명주(鬼物每夜索明珠)〉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인다. 일본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사기(古事記)』(712년) 숭신천황(崇神天皇) 조에 〈삼륜산전설(三輪山傳說)〉이라 하여 이와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고사기』보다 늦게 나온 『일본서기(日本書紀)』 숭신천황 조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젓가락묘[箸墓]의 지명유래담으로 소개되어 있다.

〈견훤탄생담〉에는 야래자(夜來者)의 정체가 '지렁이'이나 일본의 두 자료에는 그것이 '산에서 내려온 뱀'이라 하였으니, 문헌의 편년으로 보아 야래자는 원래 뱀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야래자설화에 해당하는, 송 태조 조광윤(趙匡胤), 월남 정왕조의 선황(先皇) 부령(部領), 청 태조 누르하치의 등의 탄생담에는 야래자가 '수달'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설화는 적어도 동북아에 보편적으로 전승되면서 건국시조 및 역사 인물의 탄생담에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내용 이 설화의 핵심은 '정체불명의 야래자가 밤에 여성(처녀)의 방에 들어가 관계하여 임신을 시키고 가족(부모 혹은 그녀 자신)들의 추궁과 교시를 통해 그녀가 야래자의 정체를 확인하며, 그녀가 낳은 2세가 훗날 뛰어난 인물이 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서구에서는 〈큐피드-사이키〉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찍이 손진태는 이 설화를 '견훤식 전설'로 부르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었다고 보았는데, 대부분 한국의 학자들은 그 반대로 이해한다.

이 설화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에 존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덕순은 일본의 북규슈 지역에서 초기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야요이 문화가 시작된 때를 같이 하여 이 설화가 일본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삼륜산전설〉과 거의 일치하는 자료로 충청남도 연기군 수리산에 얽힌 구전설화를 거론하였다. 김화경도 이 설화가 5세기 무렵 백제계의 유이민 집단에 의해 횡혈식 석실 고분문화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라 하였다. 서대석은 이 설화를 마한계의 수부지모형(水父地母型) 신화였을 것으로 보면서, 백제 후기에 마한의 부족들이 지배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이 설화를 차용한 〈서동설화〉가 생겼고, 또한 백제 멸망 이후에도 백제 유민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견훤의 후백제시대까지 신화적 기능을 유지했다고 보았다. 이지영은 이 설화를 '북방지역의 동이족이 남하하면서 가져온 천부지모형(天父地母型) 신화'로 이해하면서, 전승집단의 신격 수용양상에 따라 원래 산에 거주하는 뱀이었던 야래자가 용·자라·수달·잉어 등의 수신계 신격으로 후대에 바뀌었다고 하였다.

특징 이 설화는 후백제 시조인 견훤, 송 태조 조광윤, 청 태조 누르하치 등과 같은 건국시조의 탄생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평강 채씨 시조 탄생담에도 들어 있어서 성씨시조신화의 성격도 띤다. 특히 후자의 경우, 비교적 신화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야래자의 정체가 '산에 사는 뱀'이 아니고 '못 속의 거북', '연못의 조개 또는 자라'로 나타난다. 이는 수신계 신격이 부계(父系)로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설화는 또한 을파소, 도선국사, 최치원(최충), 김통정 등의 역사 인물 탄생담에도 활용된다. 이 경우 본래의 신화적 성격을 상실하면서 '이물(異物)과의 결합'이 강조된다. 더욱이 지명유래담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전설화하는 경향도 보여 준다. 특정 지역의 못, 굴, 산 등 야래자의 거주 공간과 관련이 깊은 곳에 대한 지명유래담이 대부분인데, 야래자는 지렁이로서 대부분 죽임을 당한다. 끝으로 이 설화는 단순히 야래자와 관계 후 그를 퇴치하는 일만 강조된 이야기, 혹은 동삼을 발견하는 데 관심이 집중된 이야기 등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고사기」에 실린 것처럼 원래 이 설화 속의 야래자는 산에 거주하는 뱀(신의 아들)인데, 잉어, 수달, 자라와 같은 수신계 신격으로 바뀐 것은 후대의 일이다. 정체가 확인된 뒤 뱀은 산으로 사라질 뿐 퇴치되지 않으며, 야래자는 산 또는 산속의 굴, 바위(돌)의 속·위에서 발견된다. 야래자 신격은 전승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며, 인물탄생담의 경우 '산·굴-지렁이·구렁이(뱀)' 외에 '연못-자라·거북·잉어·조개'라는 '물과 수신적 속성의 야래자'가 함께 활용된다. 그리고 이 설화를 활용한 성씨시조담에서 '연못-자라·거북·조개'의 요소가 나타난 것은 바로 전승집단의 수신계 신격의 수용 의식 때문이다.

의의 이 설화는 '여성과 야래자 신격과의 성적(性的) 관계와 그 이세(二世)의 탄생'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물교혼담의 하나로 간주되며, '부모의 신성혼(神聖婚)에 의해 탄생한 주인공이 건국시조(성씨시조)나 마을신이 된다'는 점에서 신화적 성격을 지닌다. 게다가 역사인물담, 지명유래담과 같은 전설적 성격뿐만 아니라 민담적 성격까지 보여 주는데, 이러한 다양한 모습은 이 설화가 오랜 기간 동안 전승해 왔음을 말해 준다.

참고문헌 백제신화 연구(서대석, 백제논총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야래자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전승에 관한 연구(이지영, 고전문학연구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야래자전설과 일본의 삼륜산전설과의 비교연구(장덕순,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월 노달치설화의 일연구(강재철, 동아시아고대학1, 동아시아고대학회, 2000), 한국설화의 연구(김화경,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필자 이지영(李志映)

전설

양사언

楊士彦

정의 조선시대의 문인 양사언(楊士彦, 1517~1584)에 관한 설화.

역사 양사언과 관련한 설화는 구전설화 외에 『계서야담(溪西野談)』, 『청구야담(靑邱野談)』, 『해동야언(海東野書)』, 『동야휘집(東野彙集)』 등 여러 문헌에도 전한다.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양사언이 살았던 시기로부터 거의 3세기가 지난 19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이다.

줄거리 양사언의 부친이 함경도를 순방할 때 오막집에 들어가 점심을 얻어먹은 뒤, 그 집 처녀에게 답례로 작은 선물을 주고 거처를 알려주었다. 얼마 뒤에 처녀는 양사언 부친에게 시집갈 것이니 포천에 가서 청혼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하였다. 양사언 부친은 "환갑 나이에 장가가 웬 말이냐."라며 쫓아냈다. 딸의 간곡한 부탁으로 처녀의 아버지가 포천을 다시 찾아갔다. 양사언 부친은 소리치면서 다시 내쫓았다. 그때 양사언 큰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들은 뒤 "처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시 죽고 말 것이다.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혼례를 치렀는데 양사언 모친은 밤 12시만 되면 나갔다가 날이 밝으면 들어왔다. 6일째 되는 날, 양사언 부친은 몰래 뒤를 밟았다. 양사언 모친은 산골짜기 개울에서 목욕을 하고 바위에 드러누워 기도를 하고 있었다. 양사언 부친은 헛기침을 하여 자기가 있음을 알렸다. 그러자 양사언 모친이 일어나 앉으면서 "하루만 더 참았으면 천하의 명인을 낳았을 것을 하루를 못 참아 조선의 명인밖에는 낳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그 길로 가서 잉태를 하여 낳은 이가 양사언이다.

변이 〈양사언설화〉는 출생설화, 양사언이 죽던 날 사라진 〈날비(飛)자 이야기〉, 〈신선이 된 이야기〉, 〈선필담(善筆談)〉 등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양사언설화〉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출생설화는 설화의 결정적 요소인 후반부의 삽화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반부에 양사언 형제가 성종에게 발탁되어 입신양명한다는 내용이 부연된 이야기, 양사언 모친의 자결로 서출이라는 신분제약에서 벗어난 이야기, 모친이 처음부터 후처(後妻)로 들어와 양사언의 출생이 적자임을 강조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분석 〈양사언설화〉의 주류는 비범한 출생과 신분 상승, 죽음에 관한 설화이다. 서출인 양사언이 과거 급제하여 평생 관직에 있으면서 도가적 삶을 영위하였다는 이야기가 구전되면서 여러 가지 신이담을 파생하였다. 양사언이 죽던 날 사라진 〈날비(飛)자 이야기〉, 〈신선이 된 이야기〉 등이 그러하다. 다양한 형태로 전하는 〈양사언설화〉는 모두 양사언의 이인적(異人的) 면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사언 출생설화의 줄거리는 한 촌가의 소녀가 우연히 만난 양반을 정성껏 대접하고 답례로 받은 선물을 예폐(禮幣, 고마움과 공경의 뜻으로 보내는 물건)라 고집하여 그 집에 들어가 지극한 정성으로 남편과 문중의 인정을 받으며, 남다른 노력과 결단으로써 자신이 낳은 아들을 서류(庶流)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로 행세케 한다는 것이다.

의의 〈양사언설화〉는 후반부의 삽화로 변이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주제는 같다. 타고난 지혜와 강한 의지, 지극한 노력으로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신분제 사회에서 주목되는 대표적인 화소이다. 그것이 오랜 동안 〈양사언설화〉가 구전되어 온 동인이다.

출처 포천군지(포천군지편찬위원회, 1997), 한국문헌설화전집(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태학사, 1981).

참고문헌 양사언문학연구(홍순석, 강남대학교출판부, 1996).

필자 홍순석(洪順錫)

신화

양씨아미본풀이

정의 제주도에 전승되는 양씨 댁 조상의 근본을 서술한 무속신화.

역사 1980년에 현용준이 채록한 양씨아미는 안사인 심방이 구송한 것으로, 남원 예촌리 양씨 댁 조상본풀이이다. 양씨아미가 신이 내려 심방이 되려 하자 오라버니가 무의와 무구를 마련하러 가다가 죽고, 양씨아미도 따라 죽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양씨아미가 심방이 되려 하자 오라버니가 방해하여 죽게 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뒤에 채록되었다. 2003년 이중춘 심방이 구연한 조천읍 와산리 양씨 댁 양씨아미본풀이(김헌선 채록), 2003년 양창보 심방이 구연한 조천읍 와산리 눈미 양씨아미본풀이(김헌선 채록), 2006년 김윤수 심방이 구연한 눈미 와산 고씨 댁 삼당클굿 조상신본풀이 중 '양씨애미'(김헌선 채록) 등 세 편이 앞의 내용과 달리 오라버니가 협조자가 아닌 방해꾼으로 나온다. 지금도 일부 양씨집안의 굿에서 전승되어 내려온다.

줄거리 예촌리 양씨아미와 와산리 양씨아미를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예촌리 본풀이를 소개한다. 양좌수 댁 부모는 돌아가시고 양씨아미가 7세부터 신병이 들어 15세가 되도록 낫지 않은 채 몸이 말라갔다. 15세이던 양씨아미는 어느 날 이웃에서 큰굿을 하는 소리를 듣고 오빠에게 굿 장소에 데려가 달라고 졸라 굿마당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심방이 양씨아미가 팔자를 그르칠 운명(무당이 될 팔자)임을 알고 아기씨 가슴을 열어주는 노래를 부르자 양씨아미는 굿판에서 춤을 추며 운다. 집으로 돌아온 양씨아미는 심방이 될 뜻을 오빠에게 비치게 되었다. 인근 예촌양씨 댁 독자가 사경을 헤매자 양씨아미가 굿을 하게 되는데, 의복과 무구가 없어 남의 것을 빌려 굿을 한다. 그때 오빠는 동생을 위해 의복과 무구를 사러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는데, 양씨아미가 점을 치니 배가 침몰해 오빠가 죽었다는 점괘가 나오자 양씨아미도 물에 빠져 자결한다. 그 후 양씨아미의 영혼은 예촌 양씨댁과 단골을 맺어 돈과 제물을 받고 조상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다음은 와산리 조상본 중 김윤수 구연의 양씨애미를 소개한다. 양씨애미는 열 살이 채 안 된 어릴 적부터 심방 소리와 타령을 잘 했고 친구의 미래를 알아맞혀 심방이 될 능력을 보였다. 어머니가 죽은 뒤 전새남굿을 하던 김씨 심방에게 굿을 배우려 했지만, 양씨애미 오빠의 반대에 부딪친다. 물장오리 위에 올라가 굿 흉내를 내고 헤매다가 오빠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잡혀와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큰오빠가 밥도 물도 주지 않자 둘째와 셋째가 몰래 가져다주어 동생을 연명시킨다.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가 개장국 삶은 물로 양씨애미를 목욕시켜 죽이는데, 둘째와 셋째는 정성으로 묘를 써주었다. 저승에 간 양씨애미는 부정하다 하여 인간세상으로 쫓겨난다. 양씨애미는 고전적 선관을 만나 꽐죽을 얻어먹고 부정을 씻은 후, 둘째와 셋째 오빠에게 자신을 위해 큰굿을 드리면 큰오빠 집은 멸족을 시키되 둘째와 셋째 오빠 집은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 후 양씨 집안에서는 양씨애미를 조상님으로 모시게 되었다.

양창보 구연에서는 양씨아미를 죽게 한 상가지의 자손은 깡패와 도둑이 되게 하고, 작은가지는 부자로 잘살게 해 주었다는 구체적인 시혜가 나타난다.

분석 무당이 되려 하는 사람을 방해하면 그 집안이 망하고, 도와준 자손은 흥하게 된다는 결말에는 바로 무당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무속이 지배이념이었던 고대국가 탐라국이 망한 후에는 중세 이념인 불교가 들어와 위세를 부리게 되었을 것이다. 무속은 불교와 습합(習合)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세 후기 유교의 거센 도전과 탄압에는 힘겨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당이 되는 일은 팔자를 그르치는 일로 인식되었고, 양반이나 부자 등 권세 있는 집안에서 무당이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던 당시의 풍속을 읽을 수 있다. 무당은 사회에서 천시되는 존재였고 무속은 배척되었다. 그래서 양씨아미의 죽음은 무속신앙의 패배를 의미하고 신앙비판서사시의 경향을 띠고 있다. 불교와 유교의 도전을 받는 중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세 서사시이고, 주인공이 평범한 인물이기에 범인(凡人) 서사시 형태이다. 그러나 후반부는 반전이다. 무당 되는 일을 방해하면 그 자손이 벌을 받고 무당이 될 수 있도록 도우면 복을 받는다는 결말구조, 그리고 양씨아미가 신이 되어 자손들의 위함을 받고 굿에서 다른 신들과 함께 모셔진다는 신성 설정은 이 본풀이를 신앙서사시로 만든다.

특징 양씨아미가 자신을 위하는 굿이 없자 샛오라버니의 딸에게 광증을 주고 부자로 살게 해 줄테니 굿을 해 위하라고 하는데(이중춘 심방 구연본), 이런 사례는 당신본풀이에서 흔한 것들이어서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상관성을 가늠하게 한다. 고전적 〈따님아기본풀이〉에서 고전적의 따님아기가 신기가 있어 무당이 되고자 하나 양반 집안에서 무당이 나올 수 없다는 방해 때문에 죽게 된다. 그리고 따님아기가 치제대상이 되었다는 점, 따님아기와 혼인을 약조했던 집안이 바로 예촌양씨였다는 점 또한 양씨아미와 상통한다. 제주도에서는 이처럼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가 서로 연관을 맺으며 전승되고 있다. 한국 본토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조상신본풀이〉다. 한국에서 조상은 대개 남성 조상이고 혈연 조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혈연조상도 있지만, 남의 조상인데 옮겨와 위하게 된 조상도 있고 직업조상도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조상의 계보가 이어져 나간다.

의의 다른 지역에선 본풀이는 없어지고 굿만 있는데, 제주도는 본풀이와 굿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양씨아미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으로 들어서는 장면, 굿을 하는 장면은 바로 굿의 일부가 본풀이로 남아 있는 증거이다.

출처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헌선·현용준·강정식,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참고문헌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조동일, 문학과지성사, 1999),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현용준, 집문당, 2005),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헌선·현용준·강정식, 제주대 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필자 허남춘(許南春)

자료

양은천미

揚隱闡微

정의 조선 후기 편자 미상의 야담집(野談集).

내용 현재 유일본이 단국대학교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다. 찬자(撰者)는 알 수 없지만, 편찬 시기는 1907년에서 1919년 사이로 추정한다. 총 36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각각의 이야기에는 7~9자의 제목이 붙어 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크게 일곱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설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발전된 형태의 작품이 실려 있다. 둘째, 전승되는 이야기들과 다른 형태로 변이된 작품이 다수다. 셋째, 당대에 유행하던 〈소씨전〉 계열의 작품들과의 영향 관계에 있는 작품도 존재한다. 넷째, 전기적 요소를 담은 작품도 보인다. 다섯째, 다른 야담집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들도 적지 않다. 여섯째, 다른 야담집에서는 간략하게 처리된 작품이 이 책에서는 상당 부분 부연, 개변되고 있다. 일곱째, 여성의 주체적 삶의 면모를 드러낸 작품이 다수인 점 등이다. 『양은천미(揚隱闡微)』는 야담의 말기에 자기갱신을 하며 발전하는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준 야담집이라 할 만하다.

필자 정명기(鄭明基)

신화

양이목사본풀이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탐라 양씨 명월파 집안에서 모시는 무속적 조상인 양이목사의 내력을 풀이한 무속신화.

역사 과거 '탐라'라는 이름의 독립된 정치 집단을 이루었던 제주는 고려의 느슨한 지배와 원(元)의 직할 지배, 고려와 원의 지배권 쟁투를 거쳐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반도 왕조 국가의 한 지방으로서 확고히 복속되었다. 섬 외부의 중앙 권력과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반목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 왔던 제주의 토착 지배세력 또한 이전의 정치 권력을 상실했다. 조선의 변방이 된 제주는 말을 공급하는 목마장의 기능이 강조되는 등 과도한 진상에 시달렸다. 국가가 요구하는 진상에 저항하는 목사가 등장하는 이 서사무가는 이러한 제주의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조선조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줄거리 옛날 제주에서는 해마다 백마 백 필을 조정에 진상하였다. 서울에서 목사 벼슬을 받아 제주에 온 양이목사는 백마 백 필에 욕심이 생겨, 마부들에게 자기가 대신 진상하겠다고 하고는 한양에 올라가 진상할 말을 팔아 큰 재물을 챙긴다. 제주에서 진상품이 오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 조정에서는 금부도사와 자객을 제주에 보내 양이목사의 목을 베어 올리라고 한다. 이를 눈치 챈 양이목사는 제주에서 가장 빠른 고동지영감의 배를 타고 달아나다가 울돌목에서 그만 금부도사의 배와 마주친다. 어디로 가는 배냐고 묻는 금부도사의 물음에 사공 고동지영감이 '제주 양이목사가 유람 가는 배'라고 대답한다. 그 바람에 위기에 처하게 된 양이목사는 배에 뛰어올라 자신을 찾는 금부도사에게 스스로 정체를 밝힌 후 덤벼드는 자객의 목을 베고 금부도사를 무릎 꿇리는 데 성공한다. 양이목사는 원래는 진상마를 횡령할 생각이었으나 과중한 진상에 시달리는 제주 백성 생각에 말을 팔아 물품으로 바꾸어 제주 백성을 도왔노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이, 양이목사는 그만 금부도사의 역습으로 돛대의 줄에 머리카락이 꽁꽁 묶이게 되고 만다. 금부도사의 명령으로 사공 고동지영감이 돛대의 줄을 당기자 돛대 끝에 매달린 처지가 된 양이목사는 자신의 목을 베라고 금부도사에게 당당히 말한다. 양이목사의 목을 베자 그 몸은 바다에 떨어져 청룡·황룡·백룡으로 변해 용왕국으로 들어가고, 금부도사의 뱃머리에 놓인 양이목사의 머리는 고동지영감에게 마지막 소원을 남긴다. 고향으로 돌아가 고의왕, 양의왕, 부의왕 세 성(姓) 가운데 토지관 탐라 양씨가 자신의 역사를 대대손손 전하게 해 주면, 자손들을 영원히 번성하게 해 주겠노라는 것이었다. 이후, 양이목사의 목과 함께 모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제주 마장의 백마 백 필 진상 의무를 면하게 했다.

분석 양이목사는 자신을 희생하여 제주 백성들의 과도한 진상 의무를 면하게 했다. 양이목사는 집단을 위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자신의 힘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영웅적 존재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양이목사는 왕과 조정, 금부도사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이 그 적대 세력이라는 점에서 민중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드러낸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수탈에 시달렸던 제주 도민이 중앙정부의 권력에 대해 지녔던 저항 의식이 투사되어 양이목사라는 인물로 형상화된 것이다. 〈양이목사본풀이〉는 특정 집안에서만 배타적으로 전승되는 조상(신)본풀이이지만, 여기에서 드러나는 양이목사의 저항 방식은 중앙정부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에 대한 제주 도민의 집단적인 대응 방법과 매우 닮아 있다. 양이목사는 진상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상품을 횡령함으로써 지배 질서를 교란하며, 진상품을 빼돌려 물품을 사서 제주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진상으로 대표되는 위계 관계를 거래라는 수평 관계로 바꾸어 권력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체제 전복적 인물이다. 중앙의 국가 권력은 양이목사의 목을 베어 권력관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되, 양이목사의 바람대로 과도한 진상을 감면해 준다. 양이목사는 체제의 전복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과도한 진상이라는 현실 문제를 드러내는 한편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유명한 이재수의 난에서 보듯, 일반적인 제주 민란은 난을 일으켜 문제를 제기하고 장두(狀頭)의 희생을 대가로 해결책을 얻어 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의 신화적 원형은 바로 '희생하는 영웅'인 양이목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양이목사본풀이〉에서 발견된다.

특징 영웅신화라는 시각에서 볼 때 양이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여느 신화의 영웅과는 다르다. 애초에 재물이 탐나서 진상마를 빼돌린 것에서 드러나듯 양이목사의 행위는 타고난 영웅적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진상품을 횡령하여 자기 배를 불리려다가 과도한 수탈에 신음하는 제주 백성들을 가엾이 여겨 구휼하기에 이르는 내력을 금부도사에게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임금으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을 꾸짖는 순간, 양이목사는 자객을 죽이고 금부도사를 무릎 꿇리는 용맹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다. 요컨대 〈양이목사본풀이〉의 양이목사는 타고난 영웅이 아니라 만들어진 영웅, 변화하고 발전하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여타의 신화적 영웅과 변별된다.

의의 정치적 타자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양이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집단의 정치적 패배 의식이 투영된 변모된 영웅서사시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이목사본풀이〉는 변화한 정치 질서 속에서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신화적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이라는 외부 왕조의 지배 하에서 정치적 권력을 상실한 호족 집단인 양씨 일족의 한 가문에서 발견되는 〈양이목사본풀이〉는 정치적으로 주변화된 호족 신화의 변모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신화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각, 2007).

참고문헌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조동일, 문학과지성사, 1997). 외부의 부당한 억압이 만들어 낸 비극적 남성 영웅(조현설,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3, 휴머니스트, 2008).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정진희, 제주도연구32, 제주학회, 2009).

필자 정진희(鄭眞熙)

민담

어린 원님의 지혜

정의 원님이 된 아이가 자신을 어리다고 무시하는 아전들을 지혜로 굴복시켰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에 열세 살 먹은 어린 원님이 부임하니, 아전들이 원님을 골탕 먹이려고 길이가 십 리나 되는 합덕에 있는 방죽을 구경하자고 했다. 원님은 사인교(四人轎)를 타고 방죽을 돌고, 아전들은 사인교 뒤를 따라 돌았다. 원님은 아전들이 그만 돌아가자고 해도 경치가 좋으니 계속 더 돌자고 하였고, 결국 따라 돌던 아전들이 힘이 빠져 잘 못했다고 빌었다. 한 번은 어린 원님이 공주감사를 뵈러 가는 길에 대흥골에서 한 남자가 소를 도둑맞았다며 찾아 달라고 애원했다. 어린 원님은 대흥 원님을 만나러 가서 아침상을 받았는데, 일부러 말고기는 안 먹는다고 하며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다. 대흥 원님이 말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라 하고, 증거로 두피족(頭皮足)을 가져오라 했다. 두피족을 가져 오니 덕산 원님이 소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걸 주며 자신의 소인지 확인해 보라 했다. 소 주인은 자신의 소가 맞다며 소 머리를 끌어안고 울었다. 어린 원님은 대흥 원님에게 백 냥을 빌려 달라고 하니, 홈친 소로 책잡힌 대흥 원님이 할 수 없이 돈을 주었다. 어린 원님이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길을 떠났다. 당시 원님이 먹는 고기는 모두 푸줏간에서 가져오는데, 소를 훔친 사람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훔친 소를 푸줏간에 팔았으리라는 것을 안 것이다.

변이 어린 원님이 원님 놀이를 하면서 매를 찾아 주거나, 어려운 수수께끼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방과 육방 관속의 억지 질문에 지혜롭게 대응하기도 하는 내용으로 원님의 지혜를 보여 주는 여러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분석 아이지혜담의 한 유형으로, 아이가 지혜로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유형이다. 나이 어린 원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아전들의 저의를 알고, 지혜로 아전들을 항복시키고 소 잃은 사람의 소도 찾아준다. 어른들이 아이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는데, 이때 어른들은 주로 황희 정승, 박문수 어사 같은 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미에는 과거 급제처럼 성공담이나 출세담이 첨가되기도 한다. 새로 부임한 어린 원님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전들에 비하면 약자이다. 약자인 어린 원님은 지혜를 통해 아전들과의 기싸움에서 이긴다. 또한 지혜로 선정을 펼친다. 겉으로는 아이가 어

리고 무지한 것 같지만, 내면에 숨겨진 진실은 아이의 우위를 인정하게 만드는 반전이 일어난다.

의의 그리스 희곡에서 항상 낙오자 또는 약자의 대명사인 총명한 에이론(Eiron)은 우둔하여 허풍만 떠는 알라존(Alazon)을 누르고, 마지막에는 승리하여 아이러니(Irony)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 약자인 아이가 지혜를 통해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들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아이러니가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3, 731; 7-13, 99.

참고문헌 아이지혜담에 나타난 부자간의 관계와 그 의미(이성희,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아이지혜담 연구(이성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지혜대결담 연구(정윤숙,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어른과 아이의 지혜대결담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전은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지혜담연구(오영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한국구전소화의 서사구조와 변이양상 연구(박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현대시론(정한모, 보성문화사, 1992).

필자 이성희(李聖熙)

민담

어머니 병 고친 효자

정의 이름난 명의도 못 고치는 모친의 병을 아들이 지극한 효성으로 낫도록 해 주었다는 민담.

줄거리 옛날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이 당대 최고의 명의로 꼽히는 편작(編鵲)이었다. 모친이 병이 들어 앞을 못 보는데 형이 아무리 유능하다 한들 고칠 수가 없었다. 효심이 지극한 동생이 어머니를 업고 병을 고치러 타향을 떠돌았다. 하루는 모친을 업고 높은 산을 오르다가 깊은 골짜기에 이르러 모친을 잠시 내려 놓고 쉬었다. 어머니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했다. 아들이 물을 구하러 산속을 헤매다 보니 오래된 두개골에 물이 괴어 있고, 지렁이 두 마리가 빠져 죽어 있었다. 그 물을 가져다 어머니께 드려 마시게 하고는 다시 업고 재를 넘었다. 조금 가다가 모친이 집으로 가자고 하여 이유를 물으니 병이 나았다는 것이다. 다시 모친을 업고 내려오니 집이 환하게 보인다며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신기해하는 형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니 그 물이 바로 '천년두골에 쌍용수'라며 무릎을 쳤다. 그걸 먹으면 낫는 줄을 알았으나 그 물을 구할 정성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야기에 따라서 여러 명의가 등장하거나 두 인물이 형제간이 아닌 예도 있다.

분석 화타, 편작과 같은 중국의 명의와 우리나라 명의인 유의태가 나오나,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효성을 강조하는 민담이다. 생로병사는 인생의 필수 과정이다. 늙으면 아프고 병은 약으로 고쳐야 하지만, 약도 의원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로지 자식의 지극한 정성만이 말년의 고난을 이기는 대책이었음을 말한다. 해골에 담긴 지렁이 썩은 물은 약과 독은 같은 것이라는 동양사상을 보여준다. 어머니를 업고 재를 넘고 물을 찾아 산속을 헤맨 아들은 자신도 갈증이 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움큼의 물을 보자 병든 모친을 생각해서 그 물을 가져다 먹인다. 그런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모친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특징 실명했다가 자식들의 정성으로 부모가 눈을 뜨는 화소(개안 모티프)는 한국 문학 중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에서 자주 보인다. 현장에서 60~70대의 노년층이 진지하게 구연하는 민담으로, 그 안에는 자식들이 효도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458; 5-5, 510; 7-8, 757.

참고문헌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김대숙,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 연구1(강진욱, 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985), 한국 효행설화의 성격 연구(최래옥, 한국민속학10, 한국민속학회, 1977).

필자 김대숙(金大琡)

민담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정의 하룻밤 자고 간 남자를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그를 찾으러 갔다가 산삼을 얻어 잘살게 되었다는 설화.

역사 여성의 성적 욕구를 부정하고 과부의 개가를 용납하지 않았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공식적 통치 규범과는 반대로, 이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중시하는 민중적 사고가 이런 설화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조리장사(또는 스님, 숯돌장사)가 하룻밤 자고 간다. 방이 없어서 홀로된 어머니 방에서 자고 가는데 어머니가 임신을 하여(또는 그리워하게 되어) 그를 찾는다. 이를 알게 된 아들이 조리장사를 찾아 길을 나선다. 결국 찾기는 했으나 이미 죽었다. 시체를 찾아 어머니께 보이니 명주 등을 내주며 묻으라고 한다. 그를 묻는 곳에서 산삼(또는 금)을 얻어 효자는 잘살게 된다.

변이 울산광역시 지역 자료에서는 조리장사를 산속에서 만나서 다음 날 같이 가기로 했으나 잠에서 깨어 보니 같이 잔 집은 없고, 그 자리에 산삼이 그득 있었다. 전라북도 정읍 자료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머슴이었던 그를 어머니와 결혼시키는 것으로, 아무보상 없이 아들의 순수한 효도로 그렸다.

분석 이 설화는 〈효불효설화〉와 비교할 수 있다. 강 건너에 정인(情人)을 둔 어머니를 위하여 아들들이 돌다리를 놓아 준다는 내용이다. 이 유형 중 몇몇 각편은 아들이 어머니를 개가시킨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에는 이 설화가 '433-2 효불효교 이야기', '435-6 늙은이에게 배필 얻어주기', '435-7 동침하고 간 떠돌이 잊지 못하는 과부' 등 세 항목에 분산되어 분류되어 있다.

특징 이 이야기는 서사민요(敍事民謠)로도 존재한다. 조동일이 채록한 것으로 경상북도 상주의 〈영해 영덕 소금장사〉와 안동의 〈강원도 금강산 조리장사〉가 있다. 이른바 '희극적 서사민요'이다. 전자는 아들이 소금장사를 데려와 어머니와 같이 살게 하고, 후자는 조리장사가 죽어 옷을 지어 태우는 것으로 마친다.

의의 어머니에게 새 남자를 얻어 주는 아들을 효자라고 하는 구비전승 주체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 동시에 노년 여성의 성적 욕구를 긍정하는 파격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6, 748; 6-11, 499; 7-9, 974; 7-10, 517; 840; 7-11, 677; 7-16, 50; 8-3, 51; 8-11, 647; 8-13, 51.

참고문헌 구비설화에 나타난 과부의 형상과 의미(김기형, 한국민속학26, 한국민속학회, 1994), 서사민요 연구(조동일, 계명대학교출판부, 1970).

필자 신연우(申蓮雨)

자료

어면순

禦眠楯

정의 조선 초기 송세림(宋世琳, 1505~1519)이 편찬한 소화집(笑話集).

내용 취은(醉隱) 송세림은 23세에 문과에 장원급제를 할 만큼 빼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병마로 인해 강호에 물러나 '졸음을 쫓는 방패'라는 제목의 『어면순(禦眠楯)』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송세림의 동생인 송세형(宋世珩)이 목활자본으로 출간했지만, 목활자본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않고 있다.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며, 수록된 이야기는 총 82편이다. 발문은 정사룡(鄭士龍)이 썼다. 수록된 이야기 가운데 절반 정도는 성(性)과 관련된 것이다. 이 때문에 권응인(權應仁)을 비롯한 후대의 문인들은 이 책을 불에 태워 버려야 할 것으로 이해하였다. 김휴(金烋)도 맹랑한 말을 담은 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어면순』은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그 양상은 유만주(兪晩柱)가 쓴 『흠영(欽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거정(徐居正)이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를 보여 주려는 것과 달리, 송세림은 조화롭지 못하고 분울(憤鬱)한 세계를 보여 주려는 의도로 이 책을 편찬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어면순』은 『태평한화골계전』과 함께 조선 초기 소화의 두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필자 김준형(金埈亨)

민담

어사가 된 막냇사위

정의 처갓집에서 박대를 받은 막냇사위가 공부를 열심히 해 과거에 급제하여 처갓집을 놀라게 했다는 설화.

줄거리 옛날 사위 셋이 있는 집의 막냇사위를 장모가 천대하자, 막내딸이 이런 수모를 받고 살겠느냐고 하여 부부가 같이 집을 떠났다. 그런 뒤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과거 급제를 못하니 우리 부모가 그런 괄시를 하고 수모를 주는데, 나는 분하여 견딜 수 없으니 당신은 분발(奮發)하시오."라고 했다. 아내는 남편을 방안에 앉히고 글을 배우라 하는데, 서른 살 나이인 남편은 정말 열심히 글을 배우고 공부하였다. 아내는 공부하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고 독려(督勵)하고 감독하였다. 부부는 그렇게 십 년을 하였다. 나이 사십이 된 남편은 드디어 과거를 보아 급제하여, 나중에 병조판서를 하였다. 한편 처갓집의 두 동서는 조상이 벼슬을 한 집이지만 그들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처갓집에서는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살고 있는 막냇사위가 찾아가니 극진히 대접을 하였다.

변이 다른 이야기에서는 셋째 사위가 아내와 각골변려(刻骨勉勵)하여 암행어사, 또는 경성판사(京城判事)가 되었다. 다른 이야기로는 셋째 사위는 아니지만, 영리한 어부 아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데, 같이 간 양반 아들들에게 박대를 받고 골탕을 먹지만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의 사위가 되어 잘 살았다는 것이 있다.

분석 암행어사가 된 셋째 사위는 본래 신분이 양반이었다. 하지만 양반이라도 삼대에 걸쳐 벼슬을 하지 않으면 삼대무관(三代無官)이라 상민과 중인(中人) 신세가 되고 만다. 한편 부모가 일찍 죽고 고단한 신세가 된 아이는 양반 행세를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셋째 사위가 된 양반이라서 과거를 보고 벼슬인 암행어사, 병조판서, 경성판사[漢城府尹]를 하였다. 이 셋째 사위는 위로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만 못하다고 처갓집에서 구박을 받는다. 이런 설움을 받아야 분발하여 공부해서 출세를 할 동기가 생긴다. 이런 셋째 사위는 아내를 잘 만났다. 이 막내딸은 친정의 응석받이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위하려는 지각(知覺)이 있는 성숙한 여인이다. 이 아내가 자기 집을 나와 어려운 중에도 남편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서 드디어 남편을 과거에 합격시켜 암행어사를 만들었다.

의의 '약자-설움-분발-급제' 과정을 담은 이야기로 공감을 많이 준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남의 어떤 단점을 들어 사람을 무시하고 박대하면 안 된다. 무시를 당한 사람이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본인이나 그를 도우려는 아내의 인내와 자각(自覺)과 분발이다. 사정과 환경이 불리(不利)하면 이를 역전시키려는 각오가 필요하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합심하여 십 년이 걸릴 정도로 장기간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각오하고서 분발하고 노력하면 상황이나 여건이 불리한 것이 꼭 불리로 끝나지 않고 유리하게 되며[不利之利], 쓸모없는 것은 쓸모 있는 것이 될 수 있다[無用之用]는 진실을 보여 준다. 또한 성공을 하려면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탓해야 하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한다는 진실도 보여 준다.

출처 제주설화집성1(김영돈, 현용준·현길언 편, 탐라문화총서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중부지역 구비전승(박종수·강현모, 태학사, 200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8, 125.

참고문헌 구전설화의 막내캐릭터와 그 문학적 의의(박상란, 한국문학연구3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필자 최래옥(崔來沃)

자료

어우야담

於于野談

정의 조선 중기에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이 편찬한 야담집(野談集).

내용 『어우야담(於于野談)』은 이본이 30여 종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읽혔다. 1832년 유금(柳琴)이 『어우집(於于集)』을 간행하면서 『어우야담(於于野談)』의 유고를 수집하여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64년 후손인 유제한(柳濟漢)이 이본들을 수집하여 5권 1책으로 간행한 것이 『만종재본(萬宗齋本)』이다. 권1은 인륜편으로, 효열·충의·덕의(德義)·은둔·혼인·처첩·기상(氣相)·붕우·노비·배우(俳優)·창기(娼妓), 권2는 종교편으로, 선도·승려·서교(西敎)·무격(巫覡)·몽(夢)·영혼·귀신·속기(俗忌)·풍수·천명(天命), 권3은 학예편으로, 문예·식감(識鑑)·의식·교양·음악·사어(射御)·서화·의약·기예·점후(占候)·복서(卜筮)·박혁(博奕), 권4는 사회편으로, 과거·구관(求官)·부귀·치부·내구(耐久)·음덕(陰德)·붕당(朋黨)·무망(誣罔)·고풍(古風)·외임(外任)·용력(勇力)·처사(處事)·구변(口辯)·오기(傲忌)·교학(驕虐)·욕심·재앙·생활고·도적·해학, 권5는 만물편으로, 천지·초목·인류·금수·인개(鱗介)·고물(古物) 등을 다루었다.

이 책에는 탄탄한 서사적 구조 속에 빼어난 문학성을 담은 야담이 있는가 하면 전설이나 일화도 많다. 필기 기록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다. 시화와 고증잡록류의 기록들, 인물의 일화나 귀신담 등이 뒤섞여 있으며, 임진왜란 전후의 생활상도 다채롭게 담겼다. 조선 후기에 성행한 야담집의 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야담집이라 부르기에는 미흡한 설화집 혹은 필기집의 성격이 더 강하다. 필사본이 영남대학교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있다.

필자 이강옥(李康沃)

민담

어희담

語戱譚

정의 내용보다는 언어적 희롱이나 경합과 같은 형식적 틀을 사용하여 재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형식의 이야기.

역사 말재주 형태의 어희담(語戱譚)은 고려조의 문헌에서부터 연희 예능의 한 종목으로 공연된 재담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궁중의 나례(儺禮)에서 악귀를 구축하는 규식지희(規式之戱)에 이어 소학지희(笑謔之戱)가 행해졌다. 소학지희는 줄타기, 땅재주 등의 곡예와 광대들의 재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것을 담당하였던 재담꾼이 주로 무속인 출신들이었다. 비록 오랜 전승 기간을 거치면서 변모를 거듭했겠지만, 오늘날의 굿에서도 재담이 파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담은 무속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담이 설화의 대화체로 전개되는 부분에 수용되어 어희담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문자를 이용한 글재주 형태의 어희담은 고려조의 시화(詩話) 및 15세기 이후에 대량으로 편찬되어 간행된 『문헌소화집(文獻笑話集)』의 향유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15세기 후반에 형성된 현실적이고 개방적인 학문 풍토, 문인들의 긴밀한 유대관계, 희학(戱謔)이 용인되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글재주 형태의 어희담을 유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내용 어희담은 말재주를 통한 말 시합 형태와 글재주를 통한 글 시합의 형태로 전개되면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 중 글재주를 통한 글 시합 형태의 어희담은 문자 지식, 특히 한자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구연되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먼저, 말 시합 형태의 어희담이 갖는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 시합의 경쟁 상대 또는 경합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이야기의 묘미가 배가 된다. 어른과 어른, 남자와 여자, 수령과 아전, 관장과 백성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말 시합이 벌어질 때, 이기는 자의 신분이 지는 자의 신분보다 열등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던 쪽이 청중의 기대와는 달리 상대를 이김으로써 웃음이 유발되는 원리라고 하겠다. 이에 해당하는 설화로 〈어린애의 말대꾸〉를 들 수 있다. 한 사람이 점잖게 의관을 갖추고 가다가 길가 조밭에서 한 대여섯 살 먹은 아이가 아랫도리를 벗고 쪼그리고 앉아 있자 "너 어디 있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가 "나 조밭에 있지 않소."라고 대꾸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둘째,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여 열거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 이 경우 설화에는 말을 꾸며 내는 재치 이외의 심층적 의미는 담기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설화로는 〈옛날에〉를 들 수 있는데, "옛날 옛적 간날 갓적, 하늘땅이 열릴 적에, 나무 접시 열릴 적에, 종주라기 애기 적에, 고초당초 소싯적에, 털벙거지 초립 적에……" 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셋째,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를 사용하여 상대가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다른 의미로 말대꾸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 이 경우 설화에서는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고 흥미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 상황이 설정되기도 한다. 또한 대꾸하는 자가 똑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빗대어 하는 말, 즉 곁말을 사용하여 중의적(重義的)으로 말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글 시합 형태의 어희담이 갖는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경합담(對句競合談)의 형태를 통해 흥미를 유발한다. 이는 지식인들이 한시(漢詩)로 대구 경합을 벌이는 관행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 안 되는 것은 없다[物無不對]〉 같은 설화가 이에 해당한다. "인상여사마상여 명상여 성불상여(藺相如 司馬相如 名相如 姓不相如) 위무기 장손무기 피무기 아역무기(魏無忌 長孫無忌 彼無忌 我亦無忌)." 같은 식으로 중국의 역사적 인명과 그 인명이 가진 의미를 뒤섞어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그 의미가 두 가지로 이해되도록 함으로써 절묘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첫째 문장은 "인상여와 사마상여는 이름은 상여이지만 성은 상여가 아니다."라는 의미와 "인상여와 사마상여는 이름은 서로 같지만 성은 같지 않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문장은 "위무기와 장손무기는 저도 무기이고 나 역시 무기이다."라는 의미와 "위무기와 장손무기는 저도 꺼려함이 없고 나 역시 꺼려함이 없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우리말의 음과 같은 음의 한자를 모아 뜻이 통하는 시구를 만들어 표현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 이에 해당하는 설화로 〈상객의 글재주〉를 들 수 있다. 어느 집의 모자라는 신랑의 상객(上客)으로 간 김삿갓이 신부 집 사람들에게 신랑이 시를 한 수 지었다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하늘은 길어 가도 잡을 수 없고(천장거무집天長去無執), 꽃도 늙어지면 나비가 아니오네(화로접불래花老蝶不來). 땅 그림자는 반에 머물렀고(지영반정지地影半停止), 국화나무는 찬 모래 위에 피어 있네(국수한사발菊樹寒沙發). 강가 정자에 가난한 선비가 지나가다가(강정빈사과江亭貧士過), 크

게 취해 소나무 아래에 엎드려 있네(대취복송하大醉伏松下). 달이 옮겨지니 산 그림자가 고쳐지고(월이산영개月移山影改), 저자를 통하여 이익을 구하러 오네(통시구리래通市求利來).” 이 시를 들은 신부 집 사람들이 신랑의 글재주에 감탄하였다. 셋째, 파자(破字)를 이용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이에 해당하는 설화로 〈파자〉를 들 수 있다. 김씨(金氏)와 유씨(柳氏) 성을 가진 두 문사가 같은 마을에 살았다. 유 씨는 마을 동쪽에 살고 김 씨는 마을 서쪽에 살았는데, 유 씨가 김 씨를 놀리며 말하기를 “서쪽 마을은 악(惡)이요, 서쪽 입[口]은 비웃는 것[哂]이다.”라고 하였다. 유 씨는 김 씨가 서쪽에 살기에 서녘 서(西) 자와 마음 심(心) 자를 합하여 악할 악(惡) 자를 만들고, 입 구(口) 자와 서녘 서(西) 자를 합하여 비웃을 신(哂) 자를 만들어 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문의 독법(讀法)을 가지고 청중이 기대한 것과 다른 해석을 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이에 해당하는 설화로 〈내불왕(來不往)〉을 들 수 있다. 어떤 선비들이 놀이를 가자고 아이를 시켜 친구에게 편지를 들려 보냈더니 “내불왕 내불왕(來不往 來不往)”이라는 답장이 왔다. 선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불(不)’자가 두 개나 들어 있으니 못 오겠다는 것이라며 막 나가려는데, 친구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선비들이 못 오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왔냐고 묻자, “답장에 뭐랬던가? 내불왕 내불왕(來不往 來不往)이라. 오지[來] 말래도[不] 가겠는데[往], 오라는데[來] 아니[不] 가겠는가[往]?”라고 대답하였다.

특징 어희담은 재담(才談)이나 소화(笑話)의 하위 유형으로써 주로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이나 재미를 유발하는 점, 단일 모티프로써 짧고 완결된 이야기를 형성하는 점, 설화의 대화체로 전개되는 부분에 수용된다는 점, 교훈적 기능보다는 청중을 웃기고자 하는 오락적 기능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차별성을 갖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의의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회활동을 영위한다. 그런 점에서 말재주나 글재주를 통해 웃음 및 재미를 유발함은 인간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말이나 문자로 재치를 부려 근엄한 인간관계 및 엄숙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적 인간을 자연스럽게 풍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5세기 문헌 소화 연구(강성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서대석, 세창출판사, 2011). 옛날이야기기꾸러미4(최인학·엄용희, 집문당, 2003). 한국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한중소화의 비교(서대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필자 최원오(崔元午)

민담

엉터리 염불로 극락 가기

정의 한 할머니가 엉터리로 염불을 외웠으나 극락에 갈 수 있었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한 스님이 할머니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석 달 열흘 동안 외우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와서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되뇌다가 다음 날 자고 나니 잊어버렸다. 며느리에게 자기가 뭐라고 되뇌었는지 묻자, 며느리는 ‘뒷집의 신 영감’이라고 거짓으로 알려 주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뒷집의 신 영감’을 되뇌었고, 내용을 모르는 아들은 신 영감을 모셔온다. 시어머니와 아들은 죽어서 극락으로 가고, 며느리는 지옥에 갔다.

변이 이 설화의 각편은 엉터리 염불을 외웠지만 결국 극락에 간 할머니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엉터리 염불을 외운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들이 이상하게 여긴 이후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업고 높은 낭떠러지에 올라가 아래로 굴렸으나 선녀들의 보호를 받았고, 이를 본 며느리가 염불을 석 달 열흘 외우고 낭떠러지에 올라가 떨어졌으나 죽은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가다가 어머니의 염불이 잘못된 줄 알고 다시 고쳐주자 어머니는 극락에 가고 며느리는 지옥에 갔다고 나온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어머니를 건넛마을 할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었으나 염불을 계속 잘못 외우자 결국 어머니를 낭떠러지에 굴렸다. 그 후 어머니는 신선이 되고 아들과 며느리는 구렁이가 된 것으로 매듭짓기도 한다.

분석 이 설화는 비록 엉터리 염불이라도 마음을 담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규율이나 형식보다는 진솔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형상화한 이야기이다. 그러면서도 며느리의 죽음을 통해 또 하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언뜻 며느리의 행동이 지옥에 갈 만큼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을 모를 리 없다는 점, 염불을 엉터리로 가르쳐 주고 정신 나간 시어머니로 몰았다는 점은 단순한 실수로 다뤄지지 않는다. 이 설화를 전승하는 계층에서는 그것이 가족 간 도리라는 기본에서 어긋났고, 죽어서도 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기에 며느리를 지옥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특징 서사구조의 짜임새가 다소 떨어지기도 하고 각편마다 전승되는 내용이 다르기도 해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내용의 설화로 〈십 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있다. 한 스님이 십 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웠지만 득천(得天)하기 위해 물에 빠져야 한다는 말에 죽을까 봐 빠지지 못했다. 때마침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 소리를 듣고 물에 빠져 득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염불로 극락을 간다는 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광덕 엄장〉, 〈노힐부득 달달박박〉에서 나타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3, 543; 6-9, 142; 6-12, 713; 7-13, 299; 8-12, 551.

참고문헌 극락설화 연구(이영수, 한국민속학45, 한국민속학회, 2007). 이계설화 연구(박태상, 화경고전문학연구회, 설화문학연구-하,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필자 김광욱(金侊郁)

민담

엎질러진 물

정의 글공부만 하는 남편과 헤어진 아내가 남편이 출세한 뒤 다시 함께 살자고 하였지만 남편이 거절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글공부만 열심히 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대신해 집안의 생계를 돌보는 아내가 살았다. 아내 덕에 근근이 먹고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가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을 부탁하며 피를 훑으러 나갔다. 아내가 나간 사이 장대비가 왔으나 남편은 글공부에만 집중하였다. 그 모습에 화가 난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가 버렸다. 아내가 나간 뒤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였고, 우연히 아내와 남편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여전히 피를 훑으며 가난하게 살던 아내는 출세한 남편을 보자 다시 함께 살고 싶어 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물을 떠 오라고 시키더니 땅에 쏟고 다시 주워 담아 보라고 하였다. 물을 한번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부부도 헤어진 다음에는 다시 살 수 없다면서 아내를 데려 가지 않았다.

변이 이 설화는 약 20편 가량이 전해오며, 남편이 글공부를 하는 선비이거나 낚시를 하는 강태공인 예가 있다. 선비 혹은 강태공인 남편은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때문에 아내가 떠난다는 공통된 서사를 가진다. 집을 떠난 뒤의 아내의 모습도 여러 변이가 있다. 집을 나간 아내는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전승된다. 다시 만난 남편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유형과 거절을 당한 아내가 죽어서 매미가 되는 유형 그리고 죽은 아내가 서낭당이 되어 사람들의 침과 돌을 감수해야 하는 비극적 존재가 되는 유형이다.

분석 설화에서 남편은 가장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며 아내는 끝내 남편의 부족함을 감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수많은 이본들에서 어느 편도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이야기는 없다. 그래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참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린 아내는 끝내 가난을 면치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거나, 죽어서 매미나 서낭당이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따라서 이 설화는 주로 부부 사이의 신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되고 있다.

의의 이 설화는 진정한 의미의 부부 관계, 나아가 인간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설화 전승자들은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간 아내에게 벌을 주어 부부의 관계와 도리에 대하여 설화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3, 53; 7-10, 525; 585.

참고문헌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본 엎질러진 물 이본의 의의(조은상, 고전문학과교육1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부부서사진단도구를 위한 구비설화와 부부서사의 진단 요소(정운채, 고전문학과교육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한·중설화에 나타난 강태공(손지봉, 구비문학연구2, 한국구비문학회, 1995).

필자 오정미(吳正美)

전설

에밀레종

정의 성덕대왕신종에 관련된 전설로, 승려의 보시 요구에 실언하여 어린 자식을 종을 만드는 데 시주하였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중요한 토목 공사에 사람을 묻거나 성스러운 제사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고대 풍속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이다. 이 이야기는 신라 770년(혜공왕 6)에 완성된 성덕대왕신종에 관련된 전설로, 공식 사서에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19세기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타나면서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채록되었다.



성덕대왕신종
경북 경주시 일정로 국립경주박물관내, 한국관광공사

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기본 교리와 상충되어 논란이 있다. 이 이야기는 신성한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큰 희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주종 사업에 따른 백성들의 원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특징 어린아이를 쇳물에 넣어 희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승자들의 상반된 입장, 즉 강압에 의한 것과 자발적인 것이 공존한다. 전자는 주종 과정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후자는 신성한 희생을 드러낸다. 유사한 설화로 당나라 무측천(武則天, 684~704) 때 주조된 〈대운사 종설화〉가 있다.

의의 아름다운 종과 관련된 비극적 이야기는 후대에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함세덕의 희곡 〈에밀레종〉, 박용숙의 단편소설 〈신종〉, 박용구의 장편소설 〈에밀레종〉이 이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창작되었다.

출처 신라의 전설집(경주시,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298,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에밀레종전설고(김열규, 성덕대왕신종 종합논고집, 국립경주박물관, 1999), 에밀레종전설과 그 소설적 변용 연구(이지영, 관악어문연구1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에밀레종전설의 근원과 전래(황인덕, 어문연구56, 어문연구학회, 2008).

필자 오세정(吳世晶)

민담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

정의 정성이 지극한 자식이 부모가 먹고 싶어하는 구하기 힘든 과일을 구한다는 내용의 효행설화 .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의 지은, 설씨녀, 『삼국유사(三國遺事)』「효선」의 진정, 대성 그리고 『고려사(高麗史)』 열전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조선 후기 문헌 설화집 등에서 시대별 효자들의 효행담을 볼 수 있다.

줄거리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는 모친이 홍시를 찾았다. 때는 6월 여름이어서 효심이 깊은 아들이 아무리 찾아도 홍시를 구할 수가 없었다. 깊은 밤 장에 다녀오는 길에 호랑이가 나타나 아들에게 등에 타라고 했다. 아들이 호랑이를 타고 어느 집으로 가니 마침 제삿날이었다. 아들은 제사상에 올렸던 홍시를 얻었다. 아들이 호랑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홍시를 어머님께 드렸더니 맛나게 드셨다.

줄거리 봉덕사에서 종을 만드는 일이 계속 실패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때 한 승려가 민가를 돌며 재물이나 쇠붙이를 보시받으러 다니다가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아낙을 만났다. 승려가 시주를 청하자, 아낙은 집안이 가난하여 시주할 것이 없으니 어린아이라도 가져가라고 농을 했고 승려는 그냥 돌아갔다. 주종 작업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자, 아이를 바쳐야 종을 만들 수 있다는 계시가 있었다. 승려는 다시 그 아낙의 집을 찾아 아이를 데리고 와 쇳물에 넣었다. 마침내 종이 완성되었는데, 종을 치면 그 아이의 원혼 때문에 '에밀레' 하고 소리가 났다.

변이 아이를 희생시키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실언 때문이 아닌 자발적으로 아이를 보시하는 예가 있다. 주종 작업을 하던 공장(工匠)의 여동생이 자신의 부정 때문에 종을 완성하지 못한다고 여겨 스스로 자신의 아이를 희생시킨다.

분석 이 설화는 토목 공사를 할 때 사람을 묻어 공사를 완성했다는 인주(人柱)설화와 신성한 존재와 소통하기 위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설화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부처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종을 주조하는데, 어린아이

변이 효행담의 주인공은 아들, 며느리, 수양아들, 수양며느리, 딸 순위로 나온다. 부모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인 예가 많다. 홍시 대신에 잉어, 죽순과 대추, 천도복숭아, 능금, 예계나무, 꿩 알 등이 나오기도 한다.

분석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전승하는 민담이다. 효는 유교 사회에서 국가적 이념이지만, 그 실제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일상적인 사건이다.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존경과 애정으로 충과 열에 앞서는 가치이지만, 실제로 치사랑은 어려워서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효행담의 서사구조는 '환경의 제시-장애-효(불효)의 발생-효과-결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절차를 밟는다. 유학에서의 효는 부자 중심이지만 실제는 모자간의 이야기가 많은데,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기 때문이다. 효행의 중심 인물은 며느리이다. 효행은 먹고사는 일, 즉 생활의 문제이므로 가정 안에서 의식주를 전담하는 며느리의 의사와 행동이 관건이다. 딸은 출가외인으로 양아들, 수양며느리 보다도 못하다. 효행담의 제보자는 40대 이상 60~70대가 많으며, 화자는 부모 처지에서 이야기를 구술한다. 효행이 노년층의 중요한 관심이기 때문이다.

특징 여름에 홍시를 구하고 겨울에 잉어를 구하는 보상은 일견 기적으로 보이나 그 내면에는 지극한 정성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들어 있다. 호랑이를 타고 남의 제사에서 홍시를 얻어오는 일은 마치 동화와도 같이 환상적이지만, 이가 모두 상하고 없어 물렁물렁한 것만 씹을 수 있는 노인이 되어 단것을 먹고 싶어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의의 『삼국사기』 열전의 지은과 『삼국유사』의 〈손순매아〉처럼 유학이 한국에 들어와 충효열이 중심 이념이 되기 전에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한국인에게 이미 중시되었다. 하지만 〈고려장설화〉나 부모를 팔아먹는 이야기처럼 효행은 실천이 어렵다는 관점도 드러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3, 36; 6-11, 600; 7-17, 319; 8-4, 592.

참고문헌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김대숙,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한국 효행설화의 성격 연구(최래옥, 한국민속학10, 한국민속학회, 1977),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박영주, 도남학보16, 도남학회, 1997), 효자 호랑이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강진옥, 민속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필자 김대숙(金大塾)

민담

여우 잡은 소금장수

정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여우를 소금장수가 작대기로 퇴치하고, 그 작대기를 산 사람이 낭패를 본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소금장수가 사람의 해골을 뒤집어쓰고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신한 여우의 뒤를 따라간다. 할머니는 잔칫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를 지켜보던 소금장수는 할머니를 작대기로 때려죽인다. 할머니는 여우로 변하고, 사람들은 소금장수를 치하하며 어떻게 여우임을 알았는지 묻는다. 소금장수는 신이한 작대기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많은 돈을 받고서 작대기를 판다. 작대기를 산 사람은 자기도 여우를 잡고 돈을 벌 요량으로 멀쩡한 노파를 때려죽여 곤욕을 치르게 된다.

변이 이 설화는 광포설화로 내용도 거의 일치한다. 소금장수는 옹기장수, 새우젓장수, 석유장수, 미역장수 따위로 변이가 일어나는데, 가난하며 방랑생활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편에 따라 변신한 여우가 소금장수에게 호의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소금장수가 여우와 함께 잔칫집에 가는 사건을 통해 나타난다.

분석 소금장수는 방랑하는 삶을 통해 경험이 풍부하며, 그런 이유로 설화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 설화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인(異人)이라기보다는 범인(凡人)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재물에 관심이 많고, 그 때문에 작대기가 여우를 알아본다는 거짓말을 한다. 한편, 초자연적 영역의 존재인 '변신 여우'가 범인에 가까운 소금장수의 용력(勇力)에 제압되는 모습은 인간과 초자연적 세계의 관계가 인간의 우위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징 이 설화처럼 변신한 여우를 퇴치하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감찬이 신랑으로 둔갑한 여우를 퇴치한다는 설화인데, 강감찬의 이인적 면모에 초점이 있다. 한편 소금장수와 같은 인물이 여우 퇴치에 나서는 이야기도 있는데, 초점은 공통적으로 소금장수의 활약에 있다. 이들 이야기는 여우를 퇴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 작대기를 탐내는 인물의 모방담으로 이어지는 본 설화와는 차이가 있다.

의의 이 설화는 소금장수를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욕망에 대해서 긍정한다. 결말에 나오는 모방담은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동시에 재미와 교훈을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36; 2-2, 508; 4-2, 273; 7-10, 460; 8-3, 106.

참고문헌 모방담의 구조와 의미(서대석,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양상1(강진옥,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소금장수설화의 유형과 의미(이종주, 한국문학이론과비평2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4), 여우의 초월적 성격과 변모양상(박대복·유형동, 동아시아고대학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필자 유형동(俞亨東)

전설

여우고개

정의 여우가 출몰하거나 사람이 여우에게 홀렸다는 내용이 있는 고개의 전설.

줄거리 전국에 널리 분포된 전설의 하나이다.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에서 동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관한 전설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 지역에 최 진사라는 사람이 장성한 아들이 있어 혼인시켰다. 첫날밤을 지낸 이튿날 계집종이 문을 열어 봤더니 신방에서 똑같이 생긴 며느리가 둘이나 나왔다. 깜짝 놀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말투와 몸놀림뿐만 아니라 하는 짓이 똑같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었다. 친정에 사람을 보내어 신부의 특징을 알아온 후 비교해도 진짜를 구분하지 못했다. 백 년 묵은 여우의 장난이라고 여겨 고양이를 방에 넣었더니 여우 한 마리가 꼬리를 말면서 밖으로 도망가 버렸다. 여우고개에서 살던 백 년 묵은 여우가 사람이 되어 새색시로 둔갑하여 신부행세를 하였는데, 고양이가 여우의 꼬리를 알아보고 덤벼들어 들통이 난 것이다. 이후로 사람들은 이 여우고개로 지나다니는 것을 꺼렸다. 한편 경기도 과천시에는 〈남태령 여우고개〉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어떤 게으름 많은 길손이 이 고개를 지나다 소머리 탈을 만드는 백수노인을 만났다. 장난삼아 그것을 써 본 길손은 그대로 소로 변해 버렸다. 노인은 그 소를 팔면서 "이 소는 무를 먹으면 곧 죽는다."라고 당부했다. 어느 농부에게 팔린 게으름뱅이는 오랫동안 소로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보아 무를 먹었다. 그랬더니 소가 죽이 벗겨지면서 다시 사람이 되었다. 이후로 이 고개를 여우고개라고 불렀다.

변이 이외에도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전라북도 김제시 용동에 있는 진주 강씨의 선산에도 '귀비기재'라 불리는 여우고개에 얽힌 전설이 있다. 이 전설은 강태진이라는 주인공이 고갯길에 백 년 묵은 여우를 만나 홀릴 지경에 이르자 여우의 한쪽 귀를 자르게 되었는데, 이후 가산을 탕진하고 장사하던 중 다시 여우를 만나 원풀이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의 여우고개, 경기도 연천군 여우고개, 경기도 부천시 여우고개, 충청남도 청양군 여우고개 등 〈여우고개전설〉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대부분 여우에게 홀려서 피해를 보거나 회복되는 구성을 보여 준다.

분석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여우고개전설〉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으면서 위험요소가 있는 고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백 년 묵은 여우, 늙은 여우 등으로 표현되듯이 나이 많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괴롭힌다는 내용의 화소를 공통으로 가진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와 공간에 대한 경계를 포함해 오래된 여우(짐승)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의 〈소로 변한 게으름뱅이 길손〉 이야기, 〈새신부로 변한 백 년 묵은 여우〉 이야기, 〈사람을 홀리고 괴롭히는 늙은 여우〉 이야기 등을 통해 실제 여우의 출현을 경고하거나 삶의 교훈 등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상에서 약은 사람들에게 '여우같은' 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여우가 사람으로 변하듯 겉과 속이 달라 잘 변하니 조심하라는 경계의 의미가 들어 있다.

출처 어우야담1(유몽인, 전통문화연구회, 200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2, 340.

참고문헌 서울의 고개(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 1998), 이성강의 천년여우 여우비에 나타난 동양적 모티프 분석(김영욱, 여성문학연구22, 한국여성문학회, 2009).

필자 이윤선(李允先)

민담

여우구슬

정의 한 학동이 여인으로 변신한 여우의 구슬을 빼앗았으나 하늘을 안 보고 땅을 먼저 보아서 땅의 이치만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이 설화가 언제부터 전승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문헌으로는 전하지 않으나, 구전으로는 다수의 각편이 전승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자의 정체가 '구미호'인 유형과 '여우'로 통칭하는 유형이다. 편의상 '구미호 유형'과 '여우 유형'으로 지칭하였을 때, '여우 유형'에 비해 '구미호 유형'의 전승은 그 수가 적은 편이다.

줄거리 '여우 유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서당을 다니는 한 아이가 차츰 몸이 나빠지자, 서당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물었다. 아이가 말하기를, 산을 지나갈 때 어떤 여자가 나타나 자기의 귀를 잡고 입을 맞추었는데, 그 후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했다. 서당 선생님은 아이에게 여자와 입을 맞출 때 입안에 뭐가 들어왔느냐고 물은 뒤, 다음번에 또 입안에 뭐가 들어오면 자기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이가 서당 선생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가져오지 않겠다고 했다. 서당 선생님은 그 여자는 백여우인데, 여자의 입속에 있는 구슬을 삼키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을 내려다보면 땅의 이치를 다 알게 된다고 하였다. 다음 날 아이는 백여우와 입을 맞출 때 자기 입속에 들어온 여우구슬을 삼켰다. 그러나 하늘은 알아야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해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 후 아이는 땅의 이치를 거울 들여다보듯 잘 아는 풍수가 되었다.

'구미호 유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니는 큰 서당이 있었다. 이 아이들은 가끔 공부가 늦게 끝나면 함께 모여 큰 방에서 잠을 자곤 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학동 백 명과 입맞춤하여 죽이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여우가 아름다운 소녀로 변신하여 서당을 찾아가 아흔아홉 명과 입맞춤하였다. 그러나 미리 눈치를 채고 피신한 한 학동과는 입맞춤하지 못하였다. 소녀가 마지막 한 명의 학동을 찾다가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자, 학동은 그 소녀를 미행하여 소재처를 알아냈다. 학동이 마을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소녀가 나타나 학동의 입을 맞추었다. 소녀는 학동의 기력을 빨아들이기 위해 구슬을 학동의 입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학동의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이를 반복하였다. 학동은 이 소녀가 여우라고 생각하는 한편, "여우구슬이 녹기 전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의 모든 지혜를, 땅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속신을 생각해 내고 구슬을 삼켰다. 그러나 깜짝 놀란 소녀가 학동의 턱을 눌러 구슬을 다시 꺼내려 해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기절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난 학동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여우를 죽였다. 그 후로 학동은 땅의 지혜는 얻게 되었으나 하늘의 지혜는 얻지 못했다고 한다.

변이 여우 대신 구렁이가 나오기도 하고, 학동에게 여우의 정체를 알려 주는 사람이 서당 선생님 대신 의원인 예도 있다. 서당 선생님이 학동에게 여우구슬을 가져오라고 하는 대신 구슬을 삼키고 자기 집에 오면 책을 줄 테니 보라고 했으나, 학동이 자기 방에서 지리책을 먼저 봐서 지리에만 통달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또 서당 선생님이 학동에게 여우구슬을 문 채 자기에게 빨리 달려오라고 했으나, 학동이 달려오다 엎어지는 바람에 구슬을 삼켜 지리를 알게 되었다고 하거나, 서당 선생님이 여우구슬을 삼켜 지리 박사가 된 학동의 뒤를 며칠 동안 몰래 따라다니다가 학동이 똥을 누자 그 속에 들어 있던 여우구슬을 먹고 천기 박사가 되었다고 한 예도 있다. 또 여우구슬을 삼킨 학동에게 여우가 다시 나타나 구슬을 내놓지 않으면 삼 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한 번 먹은 구슬을 어떻게 내놓느냐며 주지 않고 평생 잘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천문 지리와 관련한 정보를 주는 대신 죽지 않으려면 여우구슬을 삼키라고 하거나, 그 정보를 주었으나 너무 무서워 "아이구메!"라는 소리를 내서 명창이 되었다거나, 그 정보를 듣고 여우구슬을 삼킨 학동이 훌륭한 문장가가 되었다는 예도 있다. 한편, 특정 인물과 결부되어 경상북도 안동 지방에서는 조목(趙穆)의 일화로, 전라남도 장성 지방에서는 박상의(朴象義)의 일화로, 전라북도 군산 지방에서는 권삼득(權三得)의 일화로, 충청남도 대덕 지방에서는 송시열(宋時烈)의 일화로, 충청북도 영동 지방에서는 도선(道詵)의 일화로, 강원도 영월 지방에서는 이황(李滉)의 일화로, 경기도 양평 지방에서는 이식(李植)의 일화로 인물전설이 되어 전승되기도 한다.

분석 이 설화에 등장하는 여우는 신성과 마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표면적으로는 여우의 마성이 두드러지지만, 이면적으로는 여우의 신성이 제시된다. 여우구슬을 삼킨 학동이 훌륭한 풍수, 학자 등이 되었다고 한 것에서 그 사실이 잘 드러난다.

특징 문헌설화에 보이는 여우는 서사 전개상 한 기능을 담당할 뿐이며, 부정적 관념의 표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는 부정적 표상인 여우의 연원을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거타지설화〉에 등장하는 여우는 한국의 여우설화에서 파악되는 가장 오래된 변신 여우이기도 하다. 구전설화에서 보이는 여우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며, 부정적 관념의 표상뿐 아니라 긍정적 관념의 표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의의 여우는 동아시아의 구비문학, 기록문학에서 다수 등장하는 동물이다. 중국과 일본의 자료에서는 대체로 매혹적 여성,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한국의 자료에서

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하다. 따라서 이 설화는 여우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에 대한 한·중·일의 문화적 인식에 관한 보편성과 특수성, 혼재성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출처 구미호와 여의주(정인섭, 한국의 설화, 최인학·강재철 역,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인지의 한계(손진태, 한국민화에 대하여, 김헌선·강혜정·이경애 역, 역락, 200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5, 358.

참고문헌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강진옥·김미란,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신묘한 구슬설화 유형의 구조와 의미(최원오,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학회, 1994).

필자 최원오(崔元午)

민담

여우누이

정의 딸로 태어나 가족을 해친 여우를 오빠가 물리쳤다는 설화.

줄거리 옛날 어느 부부가 아들은 여럿 두었으나 딸이 없어서 딸 낳기를 간절히 원하다가 산신에게 기도하여 예쁜 딸을 낳았다. 딸이 자라난 후, 어느 날부터인가 날마다 집안의 가축이 죽어 나갔다.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들들에게 이유를 알아보게 했다. 큰아들이 지켜보니, 한밤중에 누이동생이 소의 항문에 기름을 칠한 손을 집어넣어 간을 빼 먹으니 소가 죽어 넘어졌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그랬다는 소리를 못하고 얼버무렸다. 다음날은 둘째 아들에게 지키라고 했으나 마찬가지였으므로 결국 막내아들에게 지켜보라고 했다. 누이 동생의 행동을 목격한 막내아들은 사실을 말했지만 아버지는 누이동생을 모함한다며 오히려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다. 쫓겨난 아들은 다른 곳에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자 고향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아들이 집에 가 보겠다고 하자 그의 아내가 위험하다며 만류했다. 그가 한사코 가려고 하자 아내는 마지못해 병 세 개와 천리마를 내주면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병을 사용하라고 했다. 아들이 옛집을 찾아가니 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누이가 혼자 있다가 반기면서 뭘 잡숫고 싶으냐고 아양을 떨었다. 부추전이 먹고 싶으니 부추를 베어 오라고 하자 누이는 오빠가 달아날까봐 끈으로 묶어놓고서 밭에 갔다. 그 사이 오빠는 끈을 풀어 문고리에 매어 놓고 달아났다. 오빠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 누이가 뒤를 쫓아가는데 여우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하면서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아 다급해진 오빠는 아내가 준 병을 사용했다. 파란 병을 던지니 새파란 강이 나타났지만 누이가 여우라서 강물을 헤치고 나와 따라왔다. 그래서 또 병 하나를 던지니 가시덤불이 솟아나서 여우를 찌르는데 아무리 찔러도 여우가 죽지 않고 따라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붉은 병을 내던졌더니 불이 나서 여우가 불에 타 죽었다.

변이 이본들은 대부분 기본 서사구조를 공유하므로 변이는 세부 내용에서 나타난다. 아들의 숫자는 3~9명으로서 다수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딸을 얻기 위한 기도는 산제 불공, 절 불공, 칠성당, 여우 굴 치성 등이며, 여우라도 낳게 해 달라는 각편도 있어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여우누이의 정체를 목격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인물이 막내아들인 경우가 많으나 각편에 따라 큰아들 또는 그냥 아들로 언급되기도 한다. 아들들이 사실을 말해 차례로 쫓겨나기도 하고, 현장을 목격하지만 동생의 소행이라 말하지 못하거나, 조느라고 못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아들 하나는 사실을 말해 쫓겨나고 문제 해결자로 돌아온다는 공통성이 있다. 아들의 원조자는 예사롭지 않은 능력의 소유자로서 아내(옥황상제 또는 용왕의 딸), 산신령, 대사, 명인, 산중 보살, 무당 등으로 변이된다. 원조자가 증여하는 마술적 물건은 세 개의 병이 대표적이나 봉투 세 개, 부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화소의 속성을 공유하는 변이들은 대체로 구연자의 기억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본 중에는 누이가 식사 준비를 하면서 오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부르는데 그때마다 때마다 오빠가 달아나기 전에 누었던 똥이 대신 대답하는 경우도 있으며, 세 개의 병으로는 퇴치되지 않아서 오빠가 나무 위에 올라가 피신하고 추가 원조가 나타나는 이본들도 많다. 이때 새, 불개, 강아지 등 새와 개가 원조 동물로 나타나서 여우를 공격하여 퇴치한다. 나아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처럼 동아줄 화소, 참기름 화소 등이 부연되기도 하고, 아들이 원조자를 만나는 부분에서는 '방리득보(放鯉得報)', '서천꽃밭 환생꽃' 화소 등 다양한 삽화가 삽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확장형 변이는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려는 화자의 개성적 부연으로서 적극적 구연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분석 이 설화는 딸로 태어나 집안을 망치는 여우누이와 그 누이의 정체를 알고 물리치려는 아들의 갈등이 주축이 되는 남매 대결의 서사이다. 여우누이를 물리치는 아들의 행적은 영웅신화의 주인공처럼 입사식담 구조를 보여 준다. 아내의 원조를 받아 여우누이와 대결하는 아들의 이야기는,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아 괴물을 퇴치하는 〈페르세우스신화〉와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 준다. 남매 대결에서 아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계기는 여우누이의 행위를 목격하는 대목이다. 그 사건은 변신물의 정체를 파악하게 된 아들의 인식 능력을 부각시킨다. 진실을 말한 아들은 부모로부터 쫓겨나지만 외부 세계에서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존재와 결혼하고, 아내로부터 또는 예지력을 지닌 존재로부터 누이를 물리칠 수 있는 마술적인 물건을 증여받아 집으로 돌아온다. 아들이 결혼하고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외부의 문화적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아들의 능력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처음 목격하자마자 여우누이의 정체를 파악했고, 외부에서 신이한 도구를 얻어 그 사용법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기지를 발휘하여 누이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며, 신이한 도구를 사용하여 누이를 물리친다. 여우누이의 힘은 일차적으로 변신 능력에 있었지만, 그것이 오빠에게 간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력이 약화된다. 여우누이로부터 벗어나는 아들의 능력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맹목적인 부모가 죽음과 패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과의 대비를 통해 확인된다. 아들의 인식 능력은 아내(외부의 조력자)로 표상되는 문화적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더욱 확장되면서 여우누이로 대변되는 자연적 괴력을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적 질서를 재편하는, 문화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특징 변신화소를 가진 환상적인 이야기인 〈여우누이〉는 딸로 태어난 변신체가 가족 구성원을 해치고 집안을 패망시킨다는 점, 서사구조가 남매간의 갈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 남매 대결로 전개되는 갈등 양상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여우 변신담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의의 〈여우누이〉는 변신설화 중에서도 독특한 인물 형상과 서사구조를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된다. 〈여우누이〉에는 변신 능력과 괴력을 가졌으나 고정된 인물형인 누이와 인식 능력을 통해 변모하고 성장하는 인물형인 오빠가 등장한다. 남매 대결은 처음 누이의 절대 우위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변모하고 성장하는 오빠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러한 인물 형상은 자연적 혼돈을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적 질서를 재편하는 문화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여우누이〉는 다양한 상상력, 구성 요소들이 연관되어 이루어 내는 의미 지향의 다층성, 이야기로서의 즐거움 등 민담의 문예적 가치를 다양하게 구현한 유형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4, 595; 8-5, 161; 8-9, 331.

참고문헌 여우누이설화에 나타난 남매대결의 의미(강진옥, 이어령선생님환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구조와 분석2 소설, 창, 1993), 오누이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이태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여우누이(김성룡,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1, 휴머니스트, 2008).

필자 강진옥(姜秦玉)

민담

여우와 까마귀

표제어 고기 놓친 까마귀

민담

여우혈 명당

정의 신비한 존재가 명당에 장사지내는 것을 방해하거나 명당을 탈취하려 하나 용감한 막내아들의 지혜로 명당을 차지하고 발복하게 되는 풍수설화.

줄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삼 형제가 풍수를 찾아갔다. 풍수가 보니 맏상주와 둘째 상주는 기상이 약했으나 막내상주는 미더워 보였다. 풍수가 자리를 잡아 준 대로 묘를 쓰고 얼마 뒤에 맏상주가 시묘를 사는데 아버지가 나타나 이장해 달라고 했다. 맏상주가 둘째 상주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둘째 상주가 이번에는 자기가 시묘 산다고 하였다. 그런데 둘째 상주에게도 아버지가 나타나 이장해 달라고 하였다. 둘째 상주가 막내 상주에게 그 일을 전하자 막내 상주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날 리가 없다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시묘를 살겠다고 했다. 막내 상주가 시묘를 사는데 아버지가 나타나 이장해 달라고 하였다. 막내 상주가 아버지라고 나타난 사람을 바로 집어던졌는데, 쓰러진 것을 보았더니 여우였다. 그러니까 풍수가 막내 상주의 기상을 믿고 여우혈을 알려 준 것이었다. 그 집안은 막내 상주 덕분으로 명당을 옮기지 않고 유지하여 그 뒤로 잘되었다.

변이 너구리가 아버지처럼 나타나 묘를 옮기게 하려는 경우도 있다. 막내가 아버지처럼 위장한 귀신이 찾아오자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다음에 미리 준비한 밧줄로 그 손을 대들보에 묶어 놓고 절굿공이를 들고 나가 마구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 죽은 너구리가 널브러져 있는 예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경주 최 진사가 부자 된 내력을 여우혈과 관련짓기도 하는데 개나 삼족구를 길러 여우를 퇴치한다.

분석 명당을 차지하여 발복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순수 민담이다. 지관이 정해 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던 신이한 존재가 주인공 가족이 명당에 묘를 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담력이 센 동생이 지관이 잡아 준 명당에 부모님을 장사지내는 것을 강행하여 결국 명당을 차지한다. 첫 번째

와 두 번째에서 실패하고 세 번째에서 성공하는 것은 설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설정으로 문제 해결의 점층법적 효과를 나타낸다.

특징 명당을 먼저 차지하고 있던 존재의 방해로 명당에 묘를 쓰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담력 있는 동생의 고집으로 극복하다. 주인공이 명당에 장사 지내는 것을 방해한 존재가 여우였기 때문에 '여우혈 명당'이라고 부른다. 특별한 형태의 명칭이나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풍수에서는 여우혈이나 명당 기운을 먼저 차지하던 존재가 명당 탈취를 방해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의 명당이라 불리는 좋은 자리에 조상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3대가 적선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설화의 전승자들은 명당 발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력이나 풍수적 술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통해 전승하고 있다. 여우혈 명당은 좋은 자리를 함부로 차지할 수 없도록 지키는 정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차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마음이 약한 형들과 달리 담력이 세고 용감한 막내의 지략으로 명당을 지키던 정령의 방해를 극복하고 명당을 탈취하는 과정을 전승하는 것은 설화 향유자들의 명당 발복이 쉽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267; 1-4, 74; 4-3, 544; 7-8, 1159; 7-13, 395; 8-9, 969; 8-13, 357.

참고문헌 풍수와 한국문학(손정희, 세종출판사, 2000),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민속원, 1995).

필자 심민호(沈民皓)

민담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정의 여자 음부를 보고 괴물이라 착각하여 도망간 바보 호랑이 이야기를 담은 설화.

역사 여성의 성기를 소재로 삼는 설화의 성적 담론을 활용하여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극대화하였다. 하지만 성인의 담론에 속하는 성적인 소재 때문에 전승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줄거리 봄날에 맏동서와 둘째 동서, 막내 동서가 산나물을 캐러 산에 갔다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호랑이를 만난다. 아직 아이가 없는 막내 동서가 호랑이의 밥이 되겠노라고 하고 두 동서를 산에서 내려가게 한다. 막내 동서는 기왕 죽게 된 상황이니 호랑이가 먹기 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발가벗는다. 호랑이 밥이 되기로 작심은 하였으나 겁이 난 막내 동서는 엉덩이를 호랑이 쪽으로 향하고 뒷걸음치며 다가간다. 호랑이는 다가오는 여자의 엉덩이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겁에 질린다. 다른 동물은 다 입이 가로인데 다가오는 동물의 입은 세로인데다가 그 입에서 빨간 피가 흐르고 검은 수염이 보였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잘못하다가는 이 동물에게 죽고 말거라 생각하고 슬슬 뒷걸음치면서 도망가다가 마침내 절벽에 떨어져 죽고 만다.

변이 호랑이와 여성이 대립하는 구조로, 호랑이를 만난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나타난다. 여자가 발가벗거나 치마를 뒤집어쓰고, 또 산발한 머리를 뒤로 넘긴 채 뒷걸음치는 예가 있다.

분석 호랑이의 바보스러움을 부각하기 위해 금기시된 여성의 성기를 활용한 것은 기발하지만, 바보 호랑이 이야기의 주 전승 집단인 아동이 향유하기엔 표현상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짧은 일화 형식을 띠며 전승 또한 활발하지 못하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바보 호랑이 이야기의 한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특징 이 이야기는 호랑이의 바보스러움을 부각하기 위해 남성의 성기를 활용한 이야기와 대비된다. 남성의 성기든 여성의 성기든 둘 다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여성의 성기를 소재로 삼은 이야기는 호랑이의 여성성과 관련된 의미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의의 여성의 성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의 사회학적 의미를 추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3~5세 아동기를 남근기라 하여 성에 대해 활발하게 상상하는 시기로 본 프로이트(Freud)의 관점을 원용하면, 이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인 남근기 아동의 성적 상상에 기댄 성인의 이야기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6, 588; 7-6, 403.

참고문헌 구비문학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원형(김필래,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한국의 호랑이 민담 연구(황정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한국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 호랑이설화의 서민적 상상력 연구(신종원,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호랑이설화에 나타난 민중 의식(김혜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김기호(金基鎬)

자료

역옹패설

櫟翁稗說

정의 고려 말의 문신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이 1342년(충혜왕 복위 3)에 저술한 잡록(雜錄).

내용 『역옹패설(櫟翁稗說)』은 목판 간행본으로, 전집(前集) 2권, 후집(後集) 2권, 습유(拾遺)로 구성되어 있다. 『역옹패설』에 수록된 내용은 이제현이 직접 쓴 후집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집 서문에서 『역옹패설』의 체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집에 ①조종세계(祖宗世系)의 오래된 것과 공경(公卿)의 언행이 그 안에 수록되어 있었네. 그러나 종래는 ②골계의 말로 끝을 내었네. 후집에 수록된 것은 ③경사(經史)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문구의 조탁에 관한 것뿐이네." 이는 『역옹패설』 전집은 필기(①)로 시작하여 패설(②)로 끝을 맺고 있음을, 후집은 시화(③)를 주로 수록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실제 이 책 전집에는 총 62칙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중 50칙까지는 기사류(記事類)가 중심이며, 그 이후인 12칙은 골계의 내용을 담은 설화류이다. 후집에는 57칙이 실려 있는데, 그중 한두 칙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화이다. 이 책에 실린 것 중 구비문학과 관련된 부분은 ②에 해당하는 설화류 부분이다.

필자 김준형(金埈亨)

용어

연명설화

延命說話

정의 단명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치성이나 도액(度厄)을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화.

내용 연명설화(延命說話)는 주인공의 수명 연장 방법에 따라 칠성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방법, 저승차사를 접대하는 방법, 염라대왕에게 소지를 올리는 방법, 집을 떠나 고행을 겪는 방법, 삼정승 딸과 혼인하는 방법 등의 변이형이 전승된다. 이들 변이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위무 혹은 대항을 통해 인간의 소망을 실현하는 무속적, 민간신앙적 사고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한편, 호환을 당할 운명을 타고난 소년이 방책을 마련하여 이를 변역한다는 내용의 호환도 액담도 활발하게 전승된다. 연명설화는 운명변역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설화 유형으로서,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지만 초월적인 힘을 빌려 바꿀 수 있다는 운명관을 담고 있어 정명론을 탈피하기 시작하는 단계의 운명 인식을 보여 준다.

필자 정재민(鄭在珉)

전설

연못·샘전설

정의 연못·샘의 지형에 관한 내력이나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

내용 샘에 관한 전설은 고대국가 성립시기에서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신라 건국신화인 〈박혁거세신화〉에서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담에는 나정(蘿井)과 알영정(閼英井)이 등장한다. 『삼국유사』 샘 관련 전설에서 샘은 인물의 신성성을 대변하는 공간 표상으로 나타나는데, 탈해의 신성성을 인증해 준 〈요내정(遙乃井)전설〉, 혜공 스님의 신이성을 보여 주는 〈혜공정(惠空井) 유래〉, 대현 스님의 법력을 보여 주는 〈금광정(金光井) 유래〉 등이 그 예이다. 『고려사(高麗史)』 세계(世系)에는 작제건의 아내 용녀가 대정(大井)을 팠다는 이야기와 용녀가 서해용궁을 왕래했다는 광명사(廣明寺) 동상방(東上房)의 〈북정(北井)전설〉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금빛 물고기가 돌우물에서 놀았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 〈범어사〉 유래담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위의 사례들을 비롯하여 용이 나타났다는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정(金城井)과 추라정(雛羅井) 등의 유래담이 있다.

연못에 관한 자료는 더욱 풍부하다. 『삼국유사』에는 금와왕이 출현한 곤연(鯤淵), 피리의 구멍을 떼어 던지니 용이 되어 날아갔다는 용연(龍淵)(〈만파식적〉), 못에서 나온 노인이 글을 주었다는 서출지(書出池)(〈사금갑〉) 이야기가 있

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용녀가 박 진사와 인연을 맺었다는 〈박연(朴淵)전설〉과 함께, 용이 살고 있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는 다수의 연못전설이 전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위의 자료들을 위시하여,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냈더니 일월이 다시 빛을 발했다는 〈일월지(日月池)〉, 밥 먹여 기른 물고기가 전한 편지로 결혼하게 되었다는 〈양어지(養魚池)〉, 도조가 흑룡을 쏘니 피가 흘러 연못 물이 붉게 되었다는 〈적지(赤池)〉, 세 용 싸움에 개입한 사람이 과부가 된 암룡과 부부가 되었다는 〈공검지(恭檢池)〉, 군역(軍役)을 나갔던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빠져 죽었다는 〈부자연(父子淵)〉, 물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이성계에게 준 일로 부부 인연을 맺었다는 황해도 곡산 〈용연(龍淵)〉, 나옹 선사가 출생한 〈작연(鵲淵)〉 등이 전한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읍지가 간행됨에 따라 민간에 전승되던 전설자료들 상당수가 문헌에 정착되었다. 이 유형들은 〈세경본풀이〉(버들잎화소), 〈용비어천가〉(용 싸움, 적지), 〈옹고집전〉(장자못), 현대소설 현진건의 〈무영탑〉(〈영지〉), 황순원의 〈비늘〉(〈양어지〉) 등 문학작품의 소재적 원천으로서 다양한 재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못·샘에 관한 전설은 전국 각지에서 해당 증거물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 연못·샘전설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신성 존재의 탄생 공간 전설이다. 샘과 못은 신화적 인물의 탄생과 연관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혁거세는 나정 옆 수풀 속에서 발견되고, 알영은 알영정 가에서 계룡의 옆구리로부터 태어났다. 금와왕이 곤연에서 발견된 것이나, 나옹 화상이 작연(까치소)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신화적 인물의 출생에 관한 서사적 전통을 보여 준다. 샘은 물을 보유하는 공간이자 원형(圓形)의 구멍이라는 형태적 이미지로 인해 생명을 보유하는 여성 공간으로서 자궁을 상징하며, 연못은 샘의 확대형으로서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남녀 결연의 매개 공간이다. 남녀 결연의 매개 공간 관련 전설은 버들잎 띄운 물로 인연을 맺는 남녀, 먹이를 준 잉어가 편지를 전해 주어 결혼하는 남녀, 용녀와 박 진사의 결연 등은 우물이나 연못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성 존재 및 이계와의 소통 공간 관련 전설에서는 연못에서 나온 노인이 올린 글이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서출지〉, 용녀가 서해용궁으로 왕래하는 통로였다는 〈북정〉은 이계와의 소통을 매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 기능을 보여 준다. 셋째, 용과 관련된 신성 공간이다. 용이 살거나 승천한 연못, 기우제를 지내면 효과가 있다는 연못, 용이 갈아 놓은 얼음 모양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예측한다는 〈용경(龍耕)전설〉 등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승된다. 용 싸움을 도와 준 인물에게 용이 물을 대어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용싸움〉은 물을 관장하는 존재로서의 용의 위력에 대한 숭앙심과 함께 인간과 동물 사이의 보은과 소통의 코드를 보여 준다.

넷째, 〈장군무 나오는 샘〉이다. 마시면 힘이 세지는 샘물에 관한 전설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전승된다. 장군수는 젊어지는 샘물처럼 물이 가진 생생력(生生力) 상징이 극대화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장자못전설〉이다. 가장 널리 분포된 유형으로서, 악행의 결과 장자의 집이 못이 되었다는 결말에서 물이 갖는 징벌과 정화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연못·샘전설은 물의 원형적 상징성에 기초하여 한민족의 자연 및 인문적 특징이 반영된 다양한 전설 유형을 산출하고 있다.

특징 연못·샘전설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지명전설로서 다양한 자료적 양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유형 설화가 쌀농사 중심의 농경문화를 영위해 온 우리나라의 자연적·인문적 환경과 긴밀한 연관을 보여 주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의의 연못과 샘은 물을 보유하는 공간이므로 연못과 샘에 관한 전설은 물의 생활적 필요성과 보편적 상징성이 어우러진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물의 생명력과 생생력을 보유하는 공간으로서, 원형이라는 형태적 특징상 생명을 생성하고 낳는 여성 상징으로서, 셋째, 물을 관장하는 존재인 용이 머무르는 신성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보여 준다. 나아가, 연못·샘전설은 우리 민간에 자리하는 용신신앙 관념과 그 문화적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연못·샘전설은 한민족의 생활문화에 토대를 두고 형성된 문화적 산물로서 한국문화의 기층이자 원형으로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國輿地勝覽, 三國遺事, 世宗實錄地理志, 한국민속과 문학연구(김열규, 일조각, 1970), 한국설화문학의 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필자 강진옥(姜秦玉)

전설

연오랑세오녀

延烏郎細烏女

정의 신라 사람인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가니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세오가 보낸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어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다는 설화.

역사 11세기경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설화집 『수이전(殊異傳)』에 실린 것으로 전한다. 남겨진 최초의 자료는 13세기 『삼국유사(三國遺事)』「기이」에 실린 것이다. 이 밖에 15세기경 쓰인 『필원잡기(筆苑雜記)』에도 수록되어 있다.

줄거리 신라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연오가 바다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바위에 실려 일본으로 떠내려갔다. 일본 사람들이 이를 보고 귀인이라 믿어 일본의 왕으로 삼았다. 세오는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남편의 신발을 발견하고 그 바위에 오르니 바위가 역시 세오를 일본으로 싣고 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왕인 연오에게 아뢰어 세오는 일본의 왕비가 되었다. 이후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일관이 일월의 정기가 일본으로 갔기 때문이라 하여 일본에 가서 이 부부를 데려오고자 했지만 연오는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명이니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세오가 짠 비단을 전해 주며 이것으로 제를 지내라 했다. 그 말대로 제사를 지내니 해와 달이 예전과 같아졌다고 한다. 그 비단을 어고에 두어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 하였으며, 제사를 지내던 곳을 영일현(迎日縣) 또는 도기야(都祈野)라고 하였다.

변이 〈연오랑세오녀〉의 변이형이 나타나는 자료를 한국 설화 속에서 찾기는 어려우나, 한일 간 설화 비교 연구와 관련해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일본의 비슷한 설화를 변이형으로 고찰할 필요는 있다. 〈연오랑세오녀〉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일본 설화의 변이형으로 〈천일창설화〉를 들 수 있다. 이 설화는 『일본서기(日本書紀)』를 비롯하여 『고사기(古事記)』 등에 수록되어 있다. 먼저 『일본서기』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신라의 왕자 천일창이 우태옥을 비롯한 일곱 가지 보물을 가져왔는데 단마국에서 이것을 신물(神物)로 삼았다. 천일창은 이후 일본에 정착하였다. 『고사기』에도 천일창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일본서기』보다는 구체적인 신화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신라의 어떤 늪에서 신분이 낮은 한 여자가 낮잠을 자고 있다가 음부에 햇빛이 비치어 붉은 구슬을 낳았다. 이를 본 한 천한 남자가 여자에게 간청하여 구슬을 얻었으나 신라의 왕자인 천일창이 이를 빼앗았다. 구슬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왕자가 그녀를 아내로 삼았으나 곧 왕자는 그녀를 박대하였다. 이에 아내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 왕자는 아내를 따라 일본으로 가다가 이르지 못해 다지마국에서 다른 처녀와 혼인하였다. 〈연오랑세오녀〉와 이 설화의 관련성은 몇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다. 우선, 천일창이라는 이름이 연오와 세오처럼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부부가 모두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 그리고 부부가 모두 일본에 귀화했다는 것 등이다.

분석 이것은 일월조정(調定)신화의 특성을 가졌다는 점, 태양신의 이동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 한일 교류 관계를 상징적으로 기술한 점 들에 주목하여 연구되어 왔다. 일본에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설화가 존재하므로, 일본의 태양신과 태양여신이 각각 『삼국유사』의 연오와 세오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는 한일 신화 간 영향 관계를 입증하는 가설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설은 태양신 혹은 일월신의 이동 양상을 중심으로 설화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신라의 영일 지방에서 일본으로의 집단적 이주와 태양신 숭배 문화의 전파 과정을 상징적으로 기술했다는 주장은 여기서 도출된 것이다. 제사를 직접 지낸 장소인 영일현의 다른 이름으로 기술되는 '도기야'가 '도지들', 즉 '해돋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추가적인 근거로 삼으며, 그 과정에서 태양신을 모시는 관습 역시 전파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연오와 세오가 신을 의미할 뿐 아니라 제천의식을 담당하는 제의의 주체일 수 있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제천의식의 실제 연행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오가 짠 비단으로 제의를 행했다는 점은 비단이 환유의 원리를 통해 신성한 것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종교적 신앙물이 생성되는 하나의 사례이다.

특징 고대 한국과 일본 간 교류와 이동의 양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일월조정신화로서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단순히 해와 달의 근원설화로서 해석되기도 하며,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석하여 한일 신화의 영향 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에 활용되기도 한다. 고대의 한일 관계에 관한 거의 유일한 설화라는 점에서 양국의 교류에 관한 역사적 맥락을 함축한 설화로 볼 수 있다. 일월신화가 창세신화적 속성을 띠는 예가 있으나, 〈연오랑세오녀〉는 창세신화의 이러한 모티프가 고대 신라와 일본 간 교류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통해 상징적으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의 한일 비교신화 연구의 기원이 되는 자료로 알려져 있으므로 신화적 맥락, 역사적 맥락, 제의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월이라는 비교적 보편적인 모티프가 등장하는 신화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을 제외한 기타 동아시아권의 비슷한 유형의 설화들과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古事記, 三國遺事, 日本書紀, 筆苑雜記.

참고문헌 동아시아 일월조정신화 비교 연구(정충권, 구비문학연구14, 한국구비문학회, 2002), 연오랑세오녀설화 일고(강현모, 한국언어문화4, 한국언어문화학회, 1986), 연오랑세오녀설화의 연구(김화경, 인문연구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일본신화의 연구(황패강, 지식산업사, 1996), 한국 고설화론(김현룡, 새문사, 1984), 히메코소사의 록기 전승 고찰(진은숙, 일본어교육58,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1).

필자 송효섭(宋孝燮)

민담

연이와 버들도령

정의 엄동설한에 나물을 구해 오라며 계모에게 쫓겨난 의붓딸이 초인적인 도령을 원조자로 만나 시련을 극복한다는 민담.

역사 한겨울에 풀기 어려운 문제를 부과하는 이야기는 세계 각지에 분포하고, 가장 이른 것은 『수신기(搜神記)』에 수록된 왕상·맹종의 효행담이다. 따라서 이 설화의 발생지는 중국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의붓딸은 동지섣달에 나물을 구해오라는 계모의 명을 받고 산속을 헤매다가 초목이 만발한 신비한 동굴을 발견한다. 거기에 사는 도령에게 나물을 얻고 재차 동굴을 방문할 때는 "김해 김도령 남해 남도령 문을 열라"라고 주문을 외우고 들어가 나물을 얻는다. 또한 죽은 사람의 숨을 되돌리는 숨살이꽃, 쓰다듬으면 뼈가 되살아나는 뼈살이꽃, 살이 붙는 살살이꽃 등 환생꽃 이야기도 듣는다. 계모가 수상히 여기고 미행해 도령을 죽이지만 의붓딸이 환생꽃으로 살리고 도령과 혼인한다.

변이 의붓딸이 캐는 나물은 참나물, 산나물, 고사리, 상추 등 다양하며, 동굴 문을 여는 주문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의붓딸이 동굴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흰 강아지나 죽은 어머니, 새 같은 초월자의 도움을 받는 일도 있고, 환생꽃이 약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동굴에 꽃이 없어 그것을 구하러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도 있는데, 〈바리공주〉나 〈여우누이〉 등의 민담이 관여했을 것이다. 의붓딸과 도령이 남매가 되어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변이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여느 계모설화와 달리 계모의 악행이 의붓딸의 미래 배우자에게까지 미치는데도 그를 징계하여 다스리는 결말이 나오는 전승은 극히 적다. 아무리 고난의 강도가 더해지더라도 이를 꿋꿋이 헤쳐나가는 주인공은 강인한 한국 여성상이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전반부에 설정된 신비로운 동굴과 주문, 후반부에서의 죽음과 환생이라는 긴박한 사건전개 그리고 신이한 환생꽃의 모티프들은 설화의 주요한 기능인 '흥미'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기제들이다. 한편 여성 심리의 발달 측면에서는 계모에 의한 고통과 도령과의 만남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여성의 불안전한 자아가 하나의 성숙한 인격적 자아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징 세계 각지에 전승되는 일반적인 형식은 의붓딸이 난제를 해결한 뒤 계모소생인 적대자가 의붓딸의 행위를 모방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원조자를 친절하게 응대한 의붓딸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불친절하게 응대한 적대자에게는 벌이 가해지는 선악 대립의 구조이다. 우리 설화에서는 여주인공이 거듭되는 고난을 견딘 후 환생한 도령과 결합하는 혼인담으로 나아갔고, 그러한 전개 과정에 신비로운 동굴, 주문, 환생꽃이 새롭게 설정되는 지역적 변용을 겪고 있다.

의의 이 설화는 문화적 변화를 여실히 보여 주는 설화로, 역경을 극복하는 한국인의 자아상을 그리면서도 낭만과 여유로운 정서를 담아내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형태로도 전승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6, 331; 7-1, 344; 7-3, 457; 7-6, 196.

참고문헌 三綱行實圖, 반반버들잎 초공시와 엽엽이(김헌선, 설화 연구 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 보고사, 2009), 연이와 버들도령과 의붓자식의 딸기 구해오기(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 비교 연구, 민속원, 2010).

필자 박연숙(朴蓮淑)

민담

열녀시험

정의 열녀시험을 통해 여염집 부인의 부정함과 술집 과부의 정숙함이 드러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한 선비가 벼슬을 구하러 서울에 갔다가 돈만 날리고 있을 때였다. 하늘에서 갑자기 쇠못이 떨어져 궁궐 기둥에 박혔는데, "열녀만이 못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선비는 자신의 아내가 못을 뽑게 하려고 귀향했다. 가는 도중에 술장사하는 늙은 고모에게 들러 이런 일을 말하자, 고모가 선비에게 "서방을 열두 명 거느린 사람이어야만 못을 뺄 수 있다."라고 집에 가서 말하라고 시켰다. 선비의 아내는 그동안 본 남자가 열하나 반밖에 안 되니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정(不貞)함을 말했다. 선비는 못을 뽑아 보겠다고 자청한 고모와 함께 상경했다. 고모가 목욕재계한 후에 못을 뽑으니 못이 반쯤 나오다가 멈추었다. 고모가 하늘에 축수하며 손자가 오줌을 싸서 그 사타구니를 들여다 본 것밖에는 없다고 말하니 못이 빠졌다.

변이 궁궐에 쇠못이 떨어진다는 화소 대신 열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열녀탑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설화 유형의 변이는 못이 반쯤 뽑혀 나오다가 멈췄을 때에 고모가 하는 고백의 내용에서 나타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친정에서 조카를 배 위에 얹고 어르는데 조카가 배 위에 오줌을 싸서 사내아이의 사타구니를 보게 된 일, 둘째는 준수한 청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죽은 남편을 떠올리며 부러워한 일, 셋째는 지나가는 선비가 죽은 남편과 비슷하여 뒤통수를 결눈질한 일, 넷째는 어떤 부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며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자신도 저렇게 아이를 낳고 살아봤을 거라고 생각한 일, 다섯째는 샘에서 물을 얻어 마시고 가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하룻저녁 자 봤으면' 하고 생각한 일 등이다.

분석 선비의 젊은 아내와 술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늙은 과부인 고모가 대비되면서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정숙할 거라 믿었던 선비의 아내는 오히려 많은 남자와 놀아난 부정한 여인이었고, 일찍 과부가 되어 술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고모는 매우 정숙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반가의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운 짧은 시간에도 열 명의 남자와 놀아났는데, 청상과부로 지내며 술장사를 한 고모는 정절을 지켰다는 역설적인 상황은 열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다. 못이 빠져 나오다 중간에 멈추자 정절을 의심받게 된 고모는 양심에 꺼려지는 바를 고백하여 자신의 결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된 남자와의 접촉이란 어린 조카가 자신의 배에 오줌을 싸거나 사내아이를 안아준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서사 내용은 남자와 성적(性的)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는 과장된 표현인 동시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성애를 실현할 수 없었던 청상과부의 외로운 삶을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외간 남자를 바라본 적이 있다는 고백은 외간 남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품은 일에 대한 고해라기보다는 죽은 남편에 대한 과부의 상실감과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이런 고백 장면은 열(烈)이라는 이념과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던 과부의 인고의 삶을 모조리 그려내어 이 설화의 문학적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이 설화에서 열녀에 대한 피상적이며 관념적인 인식을 깨뜨리는 또 하나의 인물은 선비의 아내인데, 열 남자를 보아서 열녀[十女]가 된 것은 특별히 자신에게 남다른 정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기치 않은 중의 겁탈부터 하인의 공갈 협박에 이르기까지 불가피한 외부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이는 남편이 출타한 동안 종과 사통하는 여인에게 양반가의 여인다운 정숙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반 계층의 도덕적 허위가 폭로된다. 그러나 이런 변명 속에는 정절을 강요하는 사회의 압력이 역설적으로 훼절을 부추긴다는 주장 역시 담겨 있어서, 여성의 정절 문제가 사회의 강제 규범으로 자리 잡을 때에 나타나는 역기능을 지적하고 있다. 이 설화에는 열이라는 사회 규범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가면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경험적 삶의 진실과 허위를 낱낱이 드러내어 그 규범의 허와 실을 보여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내면에 은밀히 감춰진 정욕을 여성의 목소리로 직접 토로하는 장면은 다른 열행담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이 설화는 순박하다 못해 어리석기까지 한 양반 가문의 여인의 언행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늙은 술집 과부의 지혜를 대조하여 인간에 대한 피상적 이해가 갖는 한계를 일깨운다.

특징 『용재총화(慵齋叢話)』와 『성호사설(星湖僿說)』의 문헌에서도 비슷한 설화를 찾아볼 수 있다. 문헌설화는 구비설화와 달리 액자구성의 형태를 띤다.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인이 열녀시험 과정을 거의 다 통과하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하자 자신의 정절을 주장하며 내면을 토로하는 장면이다. 성 안의 여인들이 모두 시험에 응했지만 실패하였다는 문헌설화의 내용을 구비설화는 더욱 구체화하여, 평소에 정숙한 줄 알았던 선비의 아내가 사실은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이야기를 첨가하였다. 구비설화에서는 여인의 고백이 지니는 의미 지향이 문헌설화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문헌설화에서는 외간남자를 연모했던 죄과(罪過)를 여인이 인정하지만, 구비설화에서는 죽은 남편에 대한 과부의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내면의 토로는 과부가 겪었던 수절의 고통을 강조하면서 정절이 갖는 가치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청상과부의 수절이 갖는 엄혹함을 고발한다. 문헌설화에 비해서 구비설화는 열녀에 대한 선입견과 열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뒤집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8, 176; 4-2, 432; 5-3, 329; 6-6, 491; 6-8, 407; 8-3, 320.

참고문헌 구비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김대숙, 고전문학연구9,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국역 대동야승(민족문화추진회, 1986), 국역 성호사설(李瀷, 민족문화추진회, 1981), 열녀설화의 재해석(이인경, 월인, 2006), 열녀시험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열인식의 의미(황인덕, 조종업박사화갑기념논총, 1990).

필자 이인경(李仁卿)

전설

열두 띠 유래

정의 십이지와 열두 동물이 어떤 원리와 의미로 선택되고 배열되었는지 설명하는 설화.

줄거리 옛날, 하늘의 대왕이 동물들에게 지위를 주고자 했다. 그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달하는 짐승부터 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각 짐승들은 기뻐하며 저마다 빨리 도착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 그중에서도 소가 가장 열심히 수련을 했다. 각 동물들의 이런 행위를 지켜보던 쥐가 도저히 작고 미약한 자기로서는 먼저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제일 열심인 소에게 붙었다. 정월 초하루가 되어 동물들이 앞다투어 달려왔다. 소가 가장 부지런하여 제일 먼저 도착하였으나, 도착한 바로 그 순간에 소에게 붙어 있던 쥐가 뛰어내리면서 가장 먼저 문을 통과하였다. 소는 분했지만,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분석 수많은 동물 중에 왜 쥐·소·범·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 등의 열두 동물이 선택되었는가? 선택된 열두 동물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졌고, 열두 동물은 어떤 연관관계를 지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어떤 절대자가 사연을 가지고 동물들을 소집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열두 띠 동물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나, 열두 띠 동물들은 신체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이 없거나 퇴화하거나 또는 여타의 동물에 비해 아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등 신체에 한 가지씩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 설화가 있다. 대표적인 설화가 소 등에 올라탄 쥐가 소보다 먼저 도착하여 십이지신 중 첫째가 되었다는 것이다.

열두 띠 동물에 배속된 동물들의 배열 순서에 관한 민간설화도 여럿 있다. 동물의 발가락 수를 기준으로 배열했다. 쥐는 앞뒤 발가락 수가 다른데, 앞발은 짝수, 뒷발은 홀수로, 음양이 교체하여 제일 먼저 자리 잡았고, 그 뒤로 소[4], 호랑이[5], 토끼[2], 용[5], 뱀[0], 말[1], 양[4], 원숭이[5], 닭[4], 개[5], 돼지[4]의 순서로 발가락 숫자가 홀수와 짝수인 동물을 서로 교차하여 배열했다. 또 각 동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예를 들어 자시(밤 11시~새벽 1시)는 쥐가 가장 열심히 뛰어다니는 때이고, 축시(새벽 1시~3시)는 소가 저녁에 먹은 여물을 되새김질하면서 아침 밭갈이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특징 열두 띠 동물의 유래를 역사유물과 기록을 보면 민간설화와는 다르다. 중국에서 기원한 십이지는 별자리의 운행,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순환을 관찰하고 그 순환 주기를 표기하기 위해 별의 모양을 모방하여 표현되었다. 십이지는 모든 계절에 따라 만물이 봄에서 겨울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상태를 기초로 한 것이다. 십이지는 중국 은(殷)나라에 이르러 널리 사용되었고, 한대(漢代) 중기에 와서 십이지를 시간



김유신묘 십이지 호석 탁본
국립민속박물관



십이지구성도
온양민속박물관

과 방위 개념으로 연결되었다. 십이지를 동물과 연결시킨 것은 후한(後漢) 때 왕충(王充)이 쓴 『논형(論衡)』에서 처음 나타난다. "인(寅)은 목(木)이고 그 짐승은 호랑이[虎]이다. 술(戌)은 토(土)이고 그 짐승은 개[犬]이며, 축(丑)과 미(未) 역시 토이다. 축의 짐승은 소[牛]이며, 미(未)는 양(羊)이다. 목(木)은 토(土)를 이긴다. 따라서 개와 소, 양은 호랑이에게 굴복하게 된다. 해(亥)는 수(水)로 그 짐승은 돼지[豚]이다. 사(巳)는 화(火)로 짐승은 뱀[巳]이다. 자(子)는 또한 수(水)이고 짐승은 쥐[鼠]이다. 오(午)는 또한 화(火)로 말[馬]에 해당한다. 물[水]은 불[火]을 이긴다. 따라서 돼지는 뱀을 먹는다. 물이 불에게 해를 입히므로 말은 쥐똥을 먹으면 복창증이 걸린다." 십이지 열두 띠의 전개로 관념적 십이지가 생기고, 거기에 한자로 표기되고, 나중에 동물과 연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십이지의 한자와 동물들과 관계가 없게 된다.

의의 한국의 띠 문화는 한국인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민(民)의 종합적 사고 형태이며 생활철학의 관념 체계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모두 '띠'를 가지고 있다. 한 해의 수호 동물,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띠 동물을 통해 한 해의 운[年運]과 사람의 성격, 운명, 재능 등을 파악하려고 했다. 열두 띠의 유래담은 이런 한국의 띠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설화 자료이다. 열두 띠의 동물 속성에 빗댄 강원도 영월 단종제 '띠 놀이'의 띠 동물 간 대화는 각 띠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과 태도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9, 256.

참고문헌 띠12동물이야기(이종환, 신양사, 1989), 영월을 찾아서(경성문화사, 1983),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의 띠문화(이찬욱, 황금시대, 2000).

필자 천진기(千鎭基)

민담

열불열녀

烈不烈女

정의 남편을 죽인 남자와 결혼한 후에 남편의 원수를 갚은 여인에 관한 설화.

역사 남녀의 애정을 둘러싼 친구의 배신과 복수라는 인간사회의 보편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열(烈)이라는 이념이 생기기 이전으로 설화의 형성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열 관념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혼자 사는 남자가 친구의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기 위해 함께 나무하러 가서 친구를 낫으로 찔러서 죽인다. 친구는 목에서 피를 거품처럼 뿜으며 죽는다. 혼자 돌아온 남자는 시치미를 떼고 친구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부부가 되어서 함께 지낸다. 세월이 흘러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 하루는 비가 오는데 낙숫물이 거품을 내며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남자가 혼자 웃었다. 아내가 이유를 묻자, 남자는 아내가 이제는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자신이 친구를 죽인 사실과 그가 죽을 때 목에서 피가 거품처럼 일었던 일을 말한다. 이에 아내가 후부(後夫)를 죽인다.

변이 후부가 전남편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일어나는 아내의 행동에서 다음과 같은 변이가 나타난다. 첫째는, 아내가 후부와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둘째는, 아내가 후부를 죽인다. 셋째는, 아내가 후부와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죽이고 자결한다. 넷째는 아내가 후부를 죽이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면서 어머니를 죽이는 변이이다.

분석 『한국설화유형분류집』의 설화유형 '433-7 원수의 아내 되었다 복수하기'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손진태는 경상남도 창원군의 설화를 〈열불열녀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중국 설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 같다고 하였다. 중국 설화는 주인공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속아 개가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설화는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개가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후 장덕순은 여인의 개가

는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는 분명 열녀설화라고 하였다. 그러나 각편에서는 여인이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 아니라 생활고나 애정 때문에 개가하는 예가 더 많이 나타난다.

'열불열녀'라는 설화 명칭은 여인이 개가한 것은 본남편에 대한 불열(不烈)이지만 원수를 갚은 것은 열(烈)이라는 의미이다. 여인이 후부와 그의 자식을 죽여서 본남편의 원수를 갚은 일과 자결한 일이 열행에 해당될 수 있는데, 각편에 따라 서사가 다르게 전개되는 것도 많다. 여인은 대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향한 수절 의지가 없으며, 개가한 것이 불열(不烈)이라는 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상을 알고 난 후에 여인이 자결하는 것은, 훼절을 속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남편을 죽인 원수와 함께 살며 자식까지 낳았던 부조리한 삶을 용납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인은 패륜의 결과였던 자식을 죽이는데, 이런 모든 불행의 시초가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과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했던 어미의 심정, 그리고 후부를 살해한 데 대한 죄의식과 같은 인간적 고뇌로 결국 여인이 자결한 것으로 이해된다. 남편을 죽인 범인과 함께 살면서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은 누구나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살인자에 대한 복수심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여인의 행위는 본남편을 향한 열을 행함에 앞서 살인자에 대한 응징이라는 사회 정의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편을 잃었을 때 과부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생활고와 애정의 결핍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 설화는 상층의 윤리규범이었던 수절을 경제 기반이 없는 서민층 과부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임을 보여 준다. 더불어 애정 때문에 개가하는 주인공을 통해 여성 인물을 열녀라는 이념의 차원이 아니라 욕망을 지닌 정서적 인간으로서 조명하는 점도 주목된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물거품을 보면서 후부가 진실을 토로하는 장면인데, 여인과 후부가 영위하던 단란한 가족의 삶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된다.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여인은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운 후부의 귀를 후벼 주거나, 아들의 재롱을 보거나 다듬이질을 한다. 이는 교조적(敎條的)인 열 이념으로 무장한 열녀설화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낭만적 정서를 가득 담은 장면 묘사로서, 그들의 결혼생활이 이처럼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를 뿌리치고 복수를 위해 후부를 살해했음을 강조한다. 이 설화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기대어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핍진하게 그려내어 인간이 소망하는 세속적·현실적 행복과 인간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회적·도의적 책임이 충돌하는 삶의 현장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

특징 장덕순은 이 설화를 "전부에 대해서는 열이요, 후부에 대해서는 불열이기 때문에 열불열설화(烈不烈說話)라고 부르는 것 같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열이란 한 남성을 향해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민찬은 '열불열설화' 전반이 공유하는 서사갈등을 '열과 불열의 긴장 관계'라고 요약한 바 있다. 여기서 '열과 불열의 긴장'이란 한 남자(본남편)에게 여인이 열행과 불열을 함께 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3, 89; 5-4, 27; 6-4, 110; 6-11, 440; 7-8, 682; 7-13, 285; 8-3, 37.

참고문헌 열녀설화의 재해석(이인경, 월인, 2006), 열불열설화의 이념적 지향과 삶의 문제(민찬, 한국문화9, 한국문화연구소, 1987),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문학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필자 이인경(李仁卿)

민담

열행담

烈行譚

정의 여자가 정절을 훌륭하게 지키는 행위에 대한 설화.

내용 열행담(烈行譚)은 도미의 아내가 개루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절을 지킨다는 내용의 관탈민녀형(官奪民女型) 설화인 『삼국사기(三國史記)』「열전(列傳)」의 〈도미(都彌)의 처〉에서부터 나타난다. 열녀라는 개념은 외적의 침입으로 겁탈 위기에 처하자 자결한 열녀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룬 『고려사(高麗史)』「열녀전」에서부터 보인다. 열행담은 문헌과 구전으로 풍부하게 전승된다. 문헌설화에는 양반가문 여성들이 의리와 명분을 앞세워 정절을 지키고, 인연을 맺은 후 떠난 남성을 위해 기생이 수절하며, 여종이 상전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는 이야기 등이 있다. 구비설화는 훨씬 다양하다. 열녀의 개념이 육체적 정절을 지킨 여자로 한정되지 않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외간 남자와의 동침조차 감수하는 열행(정신적 정절)을 실천하는 여자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양반가문의 기득권을 위해 청상과부의 수절을 강요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수절과부의 고통을 강조하는 등, 경직된 열(烈)이념의 맹목성을 비판하는 의식이 구비설화에 담겨 있다.

필자 이인경(李仁卿)

전설

영규대사

靈圭大師

정의 임진왜란 때 의병승장으로 활약한 고승 영규대사에 대한 전설.

역사 영규대사에 대한 문헌기록은 소략하며 이야기 형태를 갖춘 전설은 주로 민간에서 구전되어 왔다. 특히 계룡산 갑사 인근 지역에서 자료가 널리 전승되어 왔다. 영규대사는 충청남도 공주시를 빛낸 인물로 인정되어 전설이 지역 역사로 공식화되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줄거리 영규대사는 계룡산 갑사의 천한 불목하니였다. 산에서 나무로 몽둥이를 해 와 마루 밑에 쌓아 두었으며, 밤중에 몽둥이를 군사로 만들어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멀리 해인사에 불이 났는데 하룻밤 사이에 달려가서 끄고 와 스님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영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스님들을 모아 놓고 높은 짐대(철당간)에 뛰어올라 나라를 구하자고 독려했다. 영규는 승군을 이끌고 금산으로 가서 조헌이 이끄는 의병부대에 합류했는데, 조헌이 영규의 의견을 무시하고 산기슭에 진을 치는 바람에 크게 패하여 전멸 지경에 이르렀다. 영규는 총을 맞아 치명상을 입은 배를 움켜쥔 채 원군을 안보낸 감사를 죽이겠다며 공주로 향했으나, 강물을 건너다 황토물이 상처에 들어가는 바람에 쓰러져 죽었다. 계룡면 월암리에 영규의 비각이 있는데, 관리가 지나가면 말발굽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6·25전쟁 때 바로 옆에 큰불이 났는데도 비각은 멀쩡했다고 한다.

변이 지역민들이 전하는 영규대사 관련 전설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지역 유지들은 그가 불목하니였다거나 공주감사를 죽이러 왔다는 내용을 부정하고 그를 나라에 충성한 고승으로 부각하는 양상을 보였다. 위 이야기 외에 영규대사가 갑사의 짐대를 놓고 동학사의 여장군과 뺏고 빼앗기는 경쟁을 벌인 이야기도 지역에 널리 전승된다. 영규가 커다란 짚신을 삼아서 길에 떨어뜨려 여장군을 물리치고 짐대를 지켰다고 한다.

분석 〈영규대사전설〉은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축으로 삼아 민중의 역사 인식을 반영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영규를 미천한 불목하니로 설정하는 가운데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조헌과 대비시켜 지배층에 대한 대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영규가 공주감사를 죽이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설정에는 지배권력층에 대한 민중의 원망과 복수의식이 짙게 담겨 있다.

특징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지역에서 강한 전승력을 발휘하고 있는 역사인물전설이다. 지역의 일반인과 유지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승한다는 사실도 특징적이다.

의의 〈사명당전설〉, 〈서산대사전설〉과 더불어 대표적인 승장(僧將)전설로 특히 민중적 역사관이 짙게 담겨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출처 공주군지(공주군지편찬위원회, 1988),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자료(신동흔, 집문당, 2002)

참고문헌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신동흔, 집문당, 2002), 영규대사설화의 연구(강현모, 한민족문화연구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필자 신동흔(申東昕)

전설

영남루

嶺南樓

표제어 아랑각

신화

영등할머니

정의 음력 2월 초에 찾아와 해상 안전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진 영등신(영등할망)에 대한 신화.

역사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의 제주목 풍속 조에는 "2월 초하루에 귀덕(歸德), 김녕(金寧) 등지에서는 12개의 장대를 세우고 신을 맞이하여 제를 지낸다. 또 애월(涯月)에 사는 사람들은 떼를 말머리 모양으로 만들고 채색의 비단으로 꾸민 후 약마희(躍馬戲)를 하여 신을 즐겁게 했다. 보름에야 끝내니 이를 연등(燃燈)이라 하고 이달에는 승선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록에서 이 신화의 연원을 엿볼 수 있다.

줄거리 '외눈배기섬'이나 '강남천자국'에서 온다는 외방신(外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국립민속박물관

方神) 영등할망은 영등하르방, 영등대왕, 영등호장, 영등우장, 영등별감, 영등좌수 등을 데리고 음력 2월 초하룻날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로 들어와 2월 보름에 동쪽 섬 우도를 통해서 나간다. 영등할망이 제주에 꽃구경 올 때는 여러 식솔을 동반하는데, 딸을 데리고 오면 너그러워져서 날씨가 좋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자주 성질을 내서 날이 궂거나 비가 온다고 한다. 할망은 제주 바닷가의 보말을 다 까먹으면서 다음 해에 수확할 미역, 천초, 소라, 전복과 같은 해산물의 씨앗을 바다에 뿌린다.

분석 영등신과 관련된 신화로서의 정연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들과 관련해서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에서 일곱 신위를 모시고 무속의례를 치르고 있고, 전설로서는 영등할망, 하르방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에 의해 채록되고 있을 뿐이다. 영등신은 서북계절풍을 타고 오는 일정기간에 제주섬 밖으로 떠나는 외방신으로, 제주섬을 돌면서 밭에는 곡식의 씨를, 바다에는 해초와 해산물의 씨를 뿌리고 가는 농·어업의 풍요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어부들의 어로활동을 관장하는 선박수호신인 선왕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영등신과 관련해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영등 대왕(황영등)이 용왕국에 있을 때 한 어선이 외눈배기섬으로 표류해 가는 것을 보고 바위 밑에 숨겼다가, 외눈배기 괴물의 눈을 피해 관음보살을 외며 가라고 가르쳐 살려 보냈다. 어부들은 제주 항구에 가까워지자 염불을 그쳤는데, 그때 다시 폭풍이 일어 외눈배기섬으로 되돌려 버렸다. 영등 대왕이 훈계한 뒤 다시 살려 보내자 외눈배기 괴물이 영등 대왕을 세 토막으로 잘라 죽였다. 대왕의 머리는 소섬(우도)에, 사지는 한림읍 한수리에, 몸체는 성산읍 성산리에 각각 떠올랐다 전한다.

의의 영등신에 대한 의례를 치르는 것은 새봄의 개화를 촉진하는 구실과 함께 새해의 시작을 뜻한다. 영등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절기에 북서풍을 몰고 오는데, 이는 계절의 전환을 상징한다.

출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영등굿(현용준, 한국민속학 창간호, 한국민속학회, 1969).

참고문헌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영등굿(칠머리당굿보존회, 황금알, 2005). 제주도 당신앙 연구(문무병,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자료집(문무병,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필자 좌혜경(左惠景)

전설

영웅·장수전설

英雄·將帥傳說

정의 지적이고 육체적인 비범성을 중시한 인물에 관한 전설.

내용 영웅·장수전설의 주인공들은 시대의 개혁을 주도하며, 기존의 질서와 사유에 반항하다가 좌절하기도 한다. 민중들은 이런 인물들을 영웅전설로 전승하고 있다. 자신이 시도한 일에 성공한 사람은 영웅이 되고, 실패하여 좌절하는 면모를 보이는 사람은 비극적 장수가 된다. 장수전설은 신화적 영웅과 달리 지배적 질서체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주몽신화〉에서 주몽에게 패배한 송양왕 이야기 등이 대표적이다. 그 이후에 장수전설 유형에는 아기장수와 같이 자신의 의지를 펼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나, 세계의 지배질서에 대항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 고 시도하는 주인공을 배경으로 하는 전설들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장수전설의 유형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대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에 따라 개혁과 혁명을 시도한 유형이 있다. 기존의 질서에서 보면 반란의 무리들로 이몽학, 나승대, 정여립, 이괄, 홍길동, 망이 망소이, 순석 등이 있다. 둘째,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무인들인 관군의 지도자 유형이 있다. 장보고, 최영, 남이, 신립, 임경업, 최제우 등으로서, 억울한 죽음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신이 되거나 종교적 지도자가 된 경우이다. 셋째, 국가가 외침을 당해 위기에 처하였을 때 민간에서 출현한 의병대장으로 김덕령, 고경명, 김천일, 최담령, 정인홍, 곽재우, 조헌, 영규대사, 사명대사, 서사대사, 신돌석, 전봉준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의 인물에 대한 전설을 일생담으로 재구성하였을 때 일정한 서사구조를 갖추게 된다.

영웅·장수전설에 관한 전설을 일생담으로 재구성하면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어느 곳에 잠재된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아이가 탄생하게 된다. 그의 능력은 잠재되었기 때문에 신화적 주인공처럼 어렸을 때 버림을 당하거나 아기장수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고 성장하게 된다. 그는 성장기에 많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키지만, 잠재된 신이한 능력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금기를 어기게 된다. 그 금기는 부모가 아닌 타인인 선생에게 발견된다. 그래서 선생에게 버림을 받은 그는 무사적(육체적) 측면의 능력이 계속하여 성장하지만, 지혜적 측면의 능력이 성장을 멈추게 된다. 따라서 장수는 활동기에 무사적 측면의 신이한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지만, 지혜적 측면에서 조급성, 질투심, 사려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을 멈춘 지혜의 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대상들을 죽이는 데 급급하였다. 최후에는 활발한 무사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혜적 측면의 부족으로 세계와의 대결에서 결과적으로 패배한다. 그렇지만 최후의 패배는 완전한 파멸로 끝나지 않고, 묏자리 등을 통해 주인공과 같은 영웅인물이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영웅·장수전설의 변이는 유형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런 장수전설에 등장하는 삽화를 보면 탄생담에는 태몽 삽화나 풍수지리 관련 삽화, 지역 산신과 연결되어 있다. 같은 인물에도 여러 가지의 탄생삽화가 존재하고 있다. 다만 탄생삽화에는 주인공에게 신이한 능력이 잠재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그 능력이 실재적인 것임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성장담에서 그의 신이한 능력을 보이게 되는데, 이몽학의 경우 '홍수 물 건너기'나 김덕령의 경우 '장군수 훔쳐 먹기'로 나타나고 임경업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을 발견한 선생의 태도도 이몽학의 경우에는 역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지만, 김덕령의 경우에는 다른 금기를 제시하면서 근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임경업의 경우는 능력이 조장되기도 한다. 활동담에서는 이몽학의 경우에 무사적인 측면은 활발하지만 국가에 저항하는 반란의 형태가 중심이 되고, 지혜적 측면은 개인적 욕구를 강조하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김덕령의 경우, 의병장이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무사적 측면에서 왜적을 무찌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지혜적 측면에서는 무자비성과 조급성을 보이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임경업의 경우는 낙안군수로 선정을 베풀지만 〈처녀창귀설화〉를 통해 비극적 최후를 예견하고 있다. 다만 임경업은 〈박씨부인전〉 삽화를 차용하여 민족적 영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후담에서 이몽학은 역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비극적으로 죽은 역사적 사실조차 변경하여 구술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역사적 사실의 한계로 패배하도록 한다. 다만 그는 최후에 남겨진 묏자리를 통해 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덕령은 역사적으로 옥사하였다는 사실을 최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만고충신김덕령'이란 푯말을 통해 재생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임경업의 경우는 국가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청나라의 포로가 되었던 임경업이 오히려 왕자와 백성을 구출하여 오다가 별 볼일 없는 역적에게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지만, 무속에서 연평도의 당신(堂神)으로 재생한다고 하겠다.

특징 장수전설은 영웅담의 한 유형으로 성장기에 금기 모티프가 주어지고, 이것이 일생에 결핍요소로 작용하여 최후에는 패배하도록 서사구조를 이룬 설화작품이다.

의의 장수전설은 한국문학에서 비극적 문학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들의 현실극복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장수전설은 구조적으로 하나의 틀을 이루고 있다. 곧, 탄생담은 풍수지리나 태몽삽화를, 성장담은 학습 삽화와 힘내기 삽화를, 활동담은 등장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삽화를, 최후담은 죽음 부정하기 삽화를 차용하고 있다. 이 삽화들은 인과성과 논리성을 가진 일련의 순차적인 진행을 통해 연대기적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영웅 출현의 기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민중영웅 이야기(조동일, 문예출판사, 1992). 부여의 구비설화1·2(김균태·강현모, 부여문화원, 1994). 장수설화의 구조와 의미(강현모, 역락, 2004).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장군설화연구(오세길,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필자 강현모(姜賢模)

용어

영웅의 일대기

정의 영웅적 인물의 생애를 정리한 서사모형.

내용 영웅은 보통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위대한 공헌을 하고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영웅의 이야기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공통된 전기적(傳記的) 서사유형이 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사르곤(Sargon), 모세(Moses), 카르나(Karna), 오이디푸스(Oedipus), 파리스(Paris), 텔레푸스(Telephus), 페르세우스(Perseus), 길가메시(Gilgamesh), 사이루스(Cyrus), 테세우스(Theseus), 로물루스(Romulus), 헤라클레스(Heracles), 지크프리트(Siegfried), 디오니소스(Dionysos) 등의 영웅적 인물의 일대기를 검토하여 공통된 서사단락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폰 한(J. G. von Hahn), 조셉 캠벨(Joseph Campbell), 오토 랑크(Otto Rank), 로드 래글런(Lord Raglan)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이 추출한 영웅 일대기의 주요 서사단락을 차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으로 비정상적으로 출생한다. ②주인공은 양친에게 불길한 존재라는 전조를 보이고 버려진다. ③버려진 주인공은 야수나 양육자를 만나 구출되어 성장한다. ④주인공은 야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자연재해를 방비하는 등 인류사회에 위대한 공적을 이룩하고 고향으로 개선한다. ⑤주인공은 박해자를 물리치고 투쟁에서 승리하여 권좌를 차지한다. ⑥주인공은 일정 기간 통치를 하다가 권좌에서 물러나 이례적인 죽음을 맞는다.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는 한반도의 영웅신화나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인 주몽, 탈해, 알지, 영품리, 견훤, 바리공주, 궤네기또, 홍길동, 유충열 등을 비롯하여 이정임 등 신소설의 주인공에 이르기까지 근간 서사구조로 용해되어 있음이 김열규, 조동일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그 결과 영웅의 일대기라는 전기적 서사유형은 영웅신화, 영웅서사시, 고전영웅소설, 신소설 등에 두루 용해되어 한국 서사문학사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필자 서대석(徐大錫)

전설

영월하송리은행나무

정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소재한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행주형 풍수설화(風水說話).

역사 하송리는 영월경찰서 부근의 큰 소나무 숲인 송정개 아래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행정(杏亭)'이라 부르기도 한다.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7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령은 1,200년 정도이다. 처음에는 '대정사(對井寺)' 앞에 있었으나,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다.

줄거리 영월읍의 지세는 배 모양으로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영월읍은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동강과 서강이 합수되는 지점이라 홍수가 잦은 편이다. 영월엄씨(寧越嚴氏) 시조인 엄임의(嚴林義)가 마을에 터를 잡을 무렵, "배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돛대가 필요하다."라며 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행나무를 심었다. 영월읍이 잦은 홍수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행나무 때문이다.

변이 은행나무는 하송리 주민들에게 신목(神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은행나무의 신성성(神聖性)을 유지하기 위해 하송리와 영월읍 주민들은 국가나 마을 또는 개인의 재난을 미리 알려주는 형태의 신이담(神異談)으로 변이를 일으켜 전승한다.

분석 이 설화는 예언담(豫言談)에 속하며, 조상의 묏자리가 아닌 주거지와 관련한 양택풍수(陽宅風水)를 내용으로 해서 전승되는 설화이다. 영월군의 지세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화가 전승하는 영월읍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형국이다. 그래서 우물을 깊이 파도 안 되며, 돛대를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심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홍수가 크게 나더라도 배를 타고 있으니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특히, 은행나무를 심은 사람을 영월엄씨 시조인 '엄임의'라고 지목한다. 영월의 대표적인 세거성씨 시조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영월읍이 잦은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특징 〈영월하송리은행나무〉 설화와 같은 행주형 풍수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 설화는 '행주'라는 신화적 모티프와 홍수설화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행주형의 홍수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양상이 주목된다. 홍수를 행주로 피한 마을이라는 것과 행주형의 마을 형국으로 인해 미래의 홍수에 대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공존하는 것이다.

의의 옛 사람들은 홍수와 같은 재난 앞에서도 자연에 의지해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능동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다가 미래의 홍수에 대비하는 심리적 준비까지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데 이 설화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출처 영월지방 민속신앙과 서낭당 조사(영월문화원,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462; 2-8, 252; 2-9, 127.

참고문헌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엄흥용, 대흥기획, 1995), 영월문화재대관(영월문화원, 2006),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풍수설화의 유형별 분석과 의의에 관한 연구(정영수,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필자 최명환(崔明煥)



영월하송리은행나무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문화재청

전설

영지

影池

정의 석가탑 축조와 관련된 석공 아사달과 아내 아사녀에 얽힌 전설.

역사 신라 경덕왕(景德王, 재위 742~765) 때 신라 재상 김대성이 천하의 묘공(妙工)과 공장(工匠)을 불러 모아, 토함산 아래 불국사에 대가람을 개축할 당시를 배경으로 한 전설이다.

줄거리 당나라에서 초빙된 석공 아사달이 불국사 석탑을 쌓고 있었다. 먼저 다보탑을 완성한 후, 주야로 석가탑을 쌓는데 여념이 없었다. 아사달이 집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내인 아사녀가 남편을 찾아 서라벌로 왔다. 그러나 여자는 부정하다 하여 석탑을 쌓는 남편과 만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사녀는 할 수 없이 연못가에 와서 아침저녁으로 연못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던 아사녀는 연못 속에서 탑의 환상을 보고, 연못에 뛰어들고 말았다. 이러한 연유로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르고, 다보탑을 유영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사녀가 빠져 죽은 연못을 영지(影池)라고 했다.

변이 무영탑과 영지에 관한 설화는 각편이 많다. 그러나 체계적인 구조와 내용 대부분을 수렴한 설화는 거의 없고, 각편에 따라 내용과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무영탑에 대한 원형이 되는 설화는 불국사의 사적을 기록한 책인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채록된 구비설화의 내용은 『고금창기』의 내용과 유사하나, 아사달이 당나라 사람에서 신라(혹은 부여) 사람으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각편에 따라서는 아사녀가 아사달의 누이로 나타나거나 아내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석 무영탑은 불국사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다. 이와 관련된



경주 불국사 석가탑(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불국로, 문화재청

설화의 내용은 그 서사구조나 의미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기록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고금창기』의 것이 가장 대표성을 가진 원형 자료로 추정된다. 이 〈무영탑설화〉는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오사카 로쿠손(大阪六村)이 채록한 설화 〈영지〉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석공은 당나라 사람으로 변화가 없지만, 아사녀는 누이에서 부인으로 바뀌었다. 현진건이 쓴 〈무영탑 전설〉은 『불국사고금창기』의 내용과 오사카 로쿠손이 채록한 내용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특징 이 설화는 현진건이 1929년 『동아일보』에 〈무영탑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고, 그 후 소설 〈무영탑〉으로 재창작되었다. 또한 이 설화를 바탕으로 1960년 신동엽은 혁명시 〈아사녀〉를 써서 발표하기도 했다. 1957년에는 신상옥 감독이, 1970년에는 김수용 감독이 이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의의 무영탑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에 있으며, 이 전설은 불국사와 영지라는 복수의 장소가 배경이다. 아사달의 국적은 당나라와 신라(부여)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한류를 위한 뛰어난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佛國寺古今創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333; 7-10, 68.

참고문헌 무영탑전설의 전승과 변이 과정에 대한 연구(강석근, 신라문화3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영지전설 연구(이혁주,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필자 이동철(李東哲)

민담

영혼이 뒤바뀐 사람

정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에 갔다가 이승으로 돌아왔으나 육신이 이미 매장되었기에 다른 사람의 몸에 붙어 살아난다는 설화.

역사 저승에 갔다가 돌아온 영혼이 자기 몸으로 다시 들어가 살아난 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선율 환생〉과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실려 있다. 저승에 갔다 돌아온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살아나는 이야기로는 조선 명종 때 보우화상(普雨和尙)이 쓴 『왕랑반혼전(王郎返魂傳)』이 있다.

줄거리 이름과 나이가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한 날 한 시에 죽었다. 두 사람의 영혼이 저승에 갔으나, 염라대왕이 한 사람은 수명이 다하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하였다. 그가 이승에 와서 보니, 자기 육신은 이미 매장되었으므로 저승에서 만난 사람의 육신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좋아하였으나, 정작 그 사람은 자기는 다른 지방 사람이고, 가족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하였다. 양쪽 집의 아들들이 서로 자기 아버지라고 다투다가 고을 원님에게 판결을 요청하였다. 원님은 두 사람이 죽은 날과 장례 치른 날을 확인한 뒤에 살았을 때에는 영혼의 아들들이 모시고, 죽은 뒤에는 다른 쪽의 아들들이 육신을 찾아 장례를 치르라고 하였다.

변이 이 설화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의 유래담으로 전해 온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생거남원 사거임실(生居南原 死居任實)'로 바뀌어 전해 온다.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아들의 몸에 들어가서 고향의 아내까지 데려다가 함께 잘살았다는 변이형도 있다. 『왕랑반혼전』에서는 10년 전에 죽은 송씨 부인의 영혼이 공주의 몸에 의탁하여 살아나서 옛 남편과 만나 행복하게 산다. 저승에 갔던 영혼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의 몸에 들어갔다는 변이형도 있다.

분석 육신을 떠났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경우에 생기는 일들은 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 소재였다. 염라대왕은 수명부(壽命簿)를 보고, 수명이 남은 사람의 영혼은 이승으로 돌려보낸다.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일은 염라대왕의 명을 받은 저승사자가 한다. 이러한 영혼관과 저승사자의 역할에 관한 의식은 전통 상장례(喪葬禮)의 초혼(招魂)과 사자상(使者床)에도 나타난다.

특징 이 설화는 영육분리(靈肉分離)의 이원적 사고와 영혼불멸관(靈魂不滅觀)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 설화에 나타나는 재생의 양식은 환혼부활(還魂復活)이다. 이 유형의 설화 중에는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 관념을 바탕으로 꾸며진 이야기도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9, 162; 2-5, 365; 4-2, 441; 5-2, 250; 274; 797; 5-4, 1098; 8-9, 807.

참고문헌 설화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4), 옛 이야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삶과 죽음(최운식, 한울, 1997), 재생설화의 재생의식(박계홍, 구비문학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필자 최운식(崔雲植)

전설

예인·재인전설

藝人·才人傳說

정의 예능(藝能)과 의술, 풍수지리 등에 능한 인물 관련 전설.

역사 우리 민족은 예부터 가무를 즐겼다. 가야국 우륵(于勒)은 가야금을 만들었고 고구려 왕산악(王山岳)은 거문고를 만들었다. 조선 초기 세종은 아악을 정비했다. 이때 박연(朴堧)의 노력이 컸다. 고려시대는 속악(俗樂)이 번성하여 가요 가사들을 후대에 남겨 놓았다. 조선 중기 이후 이세춘(李世春), 김천택(金天澤), 김수장(金壽長) 등 가인들의 등장과, 『청구영언(靑丘永言)』, 『해동가요(海東歌謠)』 등의 편찬은 가곡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후 많은 가인들이 등장했으며 『해동가요』에 '고금창가제씨(古今唱歌諸氏)' 56인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 가곡의 활동이 매우 왕성했음을 알게 된다. 의술 관련 설화는 조선 중기 이후 많이 등장한다. 명의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 편찬으로 활기를 얻어, 이름난 의원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여러 가지 전설이 유포되었다. 특히 명의로 이름이 나면 임금의 병을 치료하는 어의로 선출되어 관직에 오르므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신이(神異) 관련 전설이 많이 남아 있다. 풍수지리설 관련 설화는 신라 석탈해(昔脫解)가 임금이 되기 전 좋은 집터인 호공(瓠公)의 집을 술책으로 빼앗아서 마침내 임금이 된 설화가 최초이다. 그리고 왕건(王建)의 선조들은 지사(地師)의 말대로 좋은 집터로 거처를 옮겨 성자(聖子) 왕건을 얻어 고려시조가 되었다. 고려 이전에는 집터에 관련되었던 풍수지리설이 조선 초기부터 묘지와 관련을 맺어 많은 연관 설화가 등장하였으며 조선 중기에 이르러 왕성하게 전파되었다.

내용 조선 후기 심용(沈鏞)은 가객 이세춘과 금객(琴客) 이철석(李哲石), 기생 추월(秋月)·매월(梅月)·계섬(桂蟾) 등과 함께 늘 모였는데, 고관대작들의 잔치에는 예외 없이 초대되어 풍악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에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하니, 이와 관련된 전설이 예인 설화로 많이 전해졌다. 이들 중 이세춘은 특히 가곡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니 신광수(申光洙)의 『관서악부(關西樂府)』에 '일반 시조에 장단을 배열한 것은 이세춘'이라고 읊고 있음은 그의 활약을 대변한다. 조선 중기 이후로 예인전설이 많이 전하는데, 예능에 의해 행운과 불운이 교차되는 설화는 흥미를 끈다. 저[笛]를 잘 부는 단천(端川) 관장은 도적에게 잡혀 갔다가 저를 불어 도적들을 감동시켜서 무사히 귀환했고, 반대로 옥저[玉笛]를 잘 부는 한 사람은 섬에서 옥저 부는 소리를 들은 신령에 의해 섬에 머물게 되어 옥저만 불다가 죽었다. 또 무용을 잘하는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선 아이들 사이로 사푼사푼 걸으며 벌 나비가 꿀을 채취하는 시늉을 하면서 춤을 추는 탐화봉접(探花蜂蝶)놀이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손가락을 퉁겨 악기 소리를 내는 사람, 휘파람을 불어 음악 소리를 내는 사람 등의 전설도 전해진다.

의술설화는 조선 중기 이후 신이(神異)에 관련된 명의(名醫) 전설이 많이 유포되었다. 어떤 신인이 나타나 의술이나 약을 일러 주거나 꿈을 통해 비법을 알려 주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며, 약의 효험과 병을 잘 고쳤다는 과장된 표현이 대부분이다. 곧 허준에게 한 청년이 의술을 가르쳐 주어 허준이 선조 임금의 병을 고치고 어의가 되었다는 전설, 두창 치료의 명의 유상(柳常)이 꿈에 신인(神人)을 만나 논쟁한 후 임금의 병을 고치고 관직을 얻었다는 전설 등은 기적에 의한 출세 염원이라는 민심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강한 약으로 병을 빨리 고치는 의원과 원리에 입각해 천천히 병을 고치는 의원을 비교하고 비판한 설화도 있고, 침으로 병을 잘 치료한 설화도 있어서 옛날 의술 이해에 도움을 준다.

신라 말기 도선(道詵) 스님의 활동설화가 풍수지리설화의 출현을 예고한다. 좋은 집터를 잡아 주어 왕건이 탄생했고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다는 설화는 후대 풍수지리설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조선 건국에도 풍수지리와 관련하여 무학(無學) 스님의 설화가 결부된 것은 출세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했다. 조선 초기 이후 풍수지리설화는 거의 모두 좋은 묘지 선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조상 묘를 좋은 곳으로 옮겨 가문에 행운이 오게 하겠다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노력에 의한 출세가 거의 차단되었던 조선시대의 정치 현실이 그러한 풍조에 영향을 미쳤다. 묘지 관련 풍수지리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인 세종 때 유학자 서거정(徐居正), 어효첨(魚孝瞻) 등은 풍수지리설에 의한 묘지 선택을 극력 반대했다. 조선 중기 묘지설화가 왕성해지는 데에는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과 그의 형 이지번(李之蕃)의 영향이 컸다. 조선 중기 이후 이름난 지관(地官)으로는 이의신(李懿信), 정하규(鄭夏圭), 박상의(朴尙義), 이기옥(李基沃), 이유필(李惟弼) 등이 있으며, 명당자리를 증명하는 신묘한 내용의 전설이며, 묘를 쓴 이후에 실제로 부귀를 얻게 되었다는 징험 내용 등이

많이 전해진다. 그리고 지관끼리 서로 우위를 다투는 설화며, 좋은 명당자리를 술책으로 차지하는 설화, 행패 부리는 지관 전설, 지관을 욕보이는 전설 등이 다양하게 전파되었다.

특징 예능이며 의술, 풍수지리 등은 모두 개인의 특이한 소질과 기능에 의존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옛날 이 기능인들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만 스승에게서 배웠고, 신묘한 기술이나 방법은 경험에 의하여 혼자 터득한 자신만의 비술(秘術)로 생각하여 남에게 묘법(妙法)이 전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1인 1기로 끝났으며 전승된 것 위에 더하여 발전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의의 오늘날은 예능의 시대라고 할 만큼 예능이 생활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옛날 예인들의 생활이며 특수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옛날 의술에 관한 연구 역시 많이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문화콘텐츠에 소재로 이용되고 있어 전망이 밝다. 다만 풍수지리설은 현실성 문제가 있어서 크게 발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於于野譚, 고금소총(민속자료간행회, 1959). 한국문헌설화1·2·6(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2000).

필자 김현룡(金鉉龍)

민담

옛 지아비가 황천에서 운다

정의 여성의 시구(詩句)나 회초리로 잘못을 뉘우친 과거 길의 선비가 후에 자신을 유혹하는 여성을 그 방법대로 물리쳐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민담.

역사 실제 과거와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과거를 볼 정도의 선비라면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를 제시하는 설화로 이해할 수 있다. 정암 조광조나 월사 이정귀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그 경우 무척 소략(疏略)하다. 조광조나 이정귀의 이야기가 민중적 소망과 만나 확대되면서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줄거리 과거 보러 가던 선비가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유숙하게 된다. 밤이 되어 선비가 유혹하자 여자가 '신인영어금야(新人迎於今夜, 오늘 밤에 새 사람을 맞아들이면)'라는 시구에 짝을 맞추라고 요구한다. 어떤 시구를 대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이에 날이 밝았다. 시구의 짝을 묻자 '구랑곡어황천(舊郎哭於黃泉, 옛 지아비가 황천에서 운다)'이라고 한다. 이에 선비는 잘못을 뉘우친다. 서울 와서 머물게 된 대감댁에서 이번에는 청춘과부가 그를 유혹하자 선비는 이 시구로 여성을 물리친다. 이를 알게 된 대감이 감동한다. 이에 벼슬을 하게 되거나 그 여자와 혼인하게 된다.

변이 각편에 따라 '양인금야유정결(兩人今夜有情結, 두 사람이 오늘 밤 정을 맺으면)'과 '황천귀부하곡야(黃泉歸夫何哭也, 황천에 돌아간 남편이 얼마나 울까?)' 등으로 시구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 시구가 아니라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으로 변이되기도 한다. 선비를 깨쳐 준 여인이 신령이어서 자고 나서 보니 집도 절도 없었고, 서울 가서 바른 행실을 하도록 도와준 것이라는 예도 있고, 전반부만 나타나거나 후반부만 나타나기도 한다.

분석 임재해는 과거 소재 설화를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그중이 설화를 신령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는 유형으로 수용하여 '인간 중심의 글공부에만 빠진 편벽된 선비가 아니라, …… 천지신명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은 융통성 있는 선비'에 대한 민중의 소망으로 이해한 바 있다. 설화에서 과거 시험과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는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설화 전반에 걸쳐 과거의 의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신연우는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에 보이는 과거 시험의 의미에 대해 탐구한 바 있다. 한편 한시의 시구가 중요한 소재라는 점에서 주로 남성 식자층에서 전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의 이 설화에서는 과거의 실상이 제시되었다기보다는 지식층과 관료에 대한 민중의 시각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설화의 민중적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노힐부득 달달박박〉에서는 여인과의 접촉을 통해 종교적 깨달음을 얻는데 이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9, 87; 5-3, 650; 6-7, 364; 6-9, 428; 8-10, 58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3, 44; 7, 328; 329; 330; 9, 109; 12; 123.

참고문헌 설화로 본 과거제의 전설적 수용과 민중의 권력 인식(임재해, 과거 몸을 일으켜 이름을 떨치다-2010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영주시청·소수박물관, 2010). 초공본풀이의 과거시험의 의미(신연우, 구비문학연구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필자 신연우(申蓮雨)

전설

오곡밥 유래

정의 정월대보름 오곡밥을 먹는 유래에 관한 설화.

역사 우리나라에서 농경이 시작된 시기는 신석기문화 중기이다. 청동기문화시대에 들어오면 농경 지역이 크게 확대된다. 농작물 역시 벼, 보리, 조, 피, 수수, 콩과 같이 대단히 다양하다. 따라서 곡물을 이용한 음식이 일찍이 있었다. 대보름의 명절식인 오곡밥을 먹는 유래에 대한 기록은 신라시대부터 나타나는데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紀異)」 사금갑(射琴匣) 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오곡밥이라 하지 않고 찰밥으로 나타나 있다. 오곡밥이라는 명칭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다.

줄거리 신라 제21대 비처왕(毗處王)은 소지왕(炤知王)이라고도 하는데, 왕이 즉위한 지 10년째인 무진년(戊辰年, 488)에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하였다. 그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고, 쥐가 말하기를 까마귀가 있는 곳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왕은 기사(騎士)에게 명령하여 뒤쫓게 하였다. 남쪽의 피촌(避村, 지금의 경주 남산 동쪽 기슭)에 이르렀을 때,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었다. 멈춰 서서 이 모습을 구경하다 까마귀가 간 곳을 잃어버리고 길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연못 가운데서 나와 글을 바쳤다. 그 겉봉에 "이를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뜯어 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고 씌어 있었다. 사신이 와서 글을 바치니 왕은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하였다. 일관(日官)은 "두 사람이란 백성이요, 한 사람이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뜯어 보니 "금갑(琴匣)을 쏴라."라고 씌어 있었다. 왕은 궁궐로 돌아와 금갑을 쏘았다. 그 바람에 내전에서 분향 수도하는 승려와 비빈이 은밀히 간통하고 있었다가 주살되었다. 이때부터 나라 풍속에 따라 매년 정월 상해(上亥), 상자(上子), 상오(上午)일에는 모든 일에 조심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15일을 오기일(烏忌日)로 하여 찰밥으로 제사지냈다. 이를 속어로는 달도(怛忉)라고 하며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모든 일을 금한다는 말이다.

분석 오곡밥이 찰기가 있는 밥인 탓에 약밥[藥飯]과 혼재될 수가 있다. 약밥은 찰밥에서 변형, 발전된 후대의 음식으로 오곡밥과는 확연히 다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상원조에는 약밥과 오곡밥을 구별하여 기록한다. 『경도잡지(京都雜志)』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약밥에 대한 기록이 있다. 특히 『경도잡지』에는 약밥이 신라 때부터의 음식이라 설명하여 오곡밥과 약밥이 혼재되는 결과를 낳았다. 고려시대 『목은선생문집(牧隱先生文集)』에 약밥을 주제로 한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약밥을 명절식으로 시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약밥은 조선시대에도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짓고 오곡밥은 어느 가정에서나 짓는 정월대보름 명절식이었다.

의의 오곡밥은 대보름을 맞이하는 명절식이다. 또한 아직은 추운 때의 영양을 보충하면서 온갖 곡물의 풍요를 예축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 설화는 이러한 명절식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로서 문화 기원 설화의 의의를 지닌다.

출처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洌陽歲時記.

참고문헌 농경생활의 문화읽기(배영동, 민속원, 2000).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김명자(金明子)



오곡밥
국립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 차례상
국립민속박물관

전설

오뉘산성

프레이 오뉘힘내기

전설

오뉘탑

프레이 남매탑

전설

오뉘힘내기

정의 오뉘가 목숨을 걸고 힘내기를 하면서 성을 쌓다가 말았다는 전설.

역사 〈오뉘힘내기전설〉의 연원은 신화적 속성이 있다. 역사적 연원을 보면, 서사무가의 〈창세가〉나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미륵과 석가, 대별왕과 소별왕의 인세(人世) 차지하기 대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문헌신화에는 탈해와 수로의 왕권 다툼, 탈해와 노례의 왕위 다툼, 탈해와 호공의 집터 다툼, 주몽과 송양왕의 궁터 다툼이 있다. 이처럼 문헌신화의 힘내기 모티프는 건국 초기 왕권 다툼이나 집터 다툼의 성격으로 나타나고, 즉위와 신혼, 제도 정비의 모티프와 이웃하면서 중요한 신화소로 등장하고 있다. 힘내기가 전설로 전환한 것은 신화적 배경을 상실하거나 인간중심적 사고를 중시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견훤, 김덕령, 이몽학, 정여립과 같은 다양한 역사적 인물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전설의 주인공들은 신화적 질서에 동화되지 않고 사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규명해 나간다. 따라서 힘내기관련 전설에서는 승패의 문제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승자가 아닌 패자 중심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줄거리 옛날에 쌓다가 만 한 성터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홀어머니가 장사인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았다. 두 남매가 모두 장사여서 한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하루는 지는 사람의 목을 베어 죽이는 내기를 하였다. 이때 아들은 나막신을 신고 서울을 갔다 오기로 하고, 딸은 치마로 돌을 날라 성을 쌓기로 하였다. 그런데 딸은 성 쌓기를 끝내 가는데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이기게 할 욕심으로 뜨거운 팥죽을 쑤어 딸에게 먹게 하여 일을 늦추었다. 딸이 팥죽을 먹는 사이에 아들이 돌아왔으므로 아들이 이기고 딸은 죽임을 당하였다. 일부 설화에서는 비겁하게 이긴 것을 안 아들이 자살하자 어머니도 따라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변이 힘내기의 주체는 오뉘가 대부분이지만, 가정 내에서 부부나 딸과 며느리인 예도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장수(장군), 주인과 하인, 수절과부와 홀아비가 등장하기도 하고, 수적으로 확대되어 남자 부대와 여자 부대, 남자 역사들과 여공들이 나오기도 한다. 또 비현실 세계에서는 신선과 신선, 선녀와 선녀, 보살과 보살이 등장한다. 힘내기 방법도 아들은 서울에 갔다 오기이고 딸은 성 쌓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밖에도 스물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아들은 탑 쌓기, 다리 놓기, 개울 내기, 집 짓기, 보 쌓기, 굴 뚫기, 산 두르기나 돌기이며, 딸은 씨 뿌려 옷 짓기, 다리 놓기, 탑 쌓기, 물 나르기, 나무 심기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개입은 남자와 여자의 대결이 동성으로 옮겨질 때 그 성격이 약화되기도 한다. 한편, 〈오뉘힘내기〉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 인물에 결구되는 예도 있다. 〈오뉘힘내기〉가 특정 인물에게 결구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 일반적 〈오뉘힘내기〉에 특정 인물의 이름만 등장하는 단순결구형, 둘째, 일반 〈오뉘힘내기〉의 끝에 특정 인물의 활동담이 결구된 단순활동담결구형, 셋째, 〈오뉘힘내기〉 삽화의 내부에 특정 인물의 사건이나 성격을 결구시키는 복잡결구형, 넷째, 〈오뉘힘내기〉 삽화 내부에 특정 인물의 사건이나 성격을 결구시킨 뒤 그 인물의 활동담을 뒤에 결구하는 복잡활동담결구형의 순서로 변모한다. 이처럼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삽화에서는 남자를 살려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임의로 변모되어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예도 존재한다. 어머니가 딸을 방해하는 방법은 뜨거운 팥죽이 대부분이지만, 볶은 콩, 콩밥, 누룽지, 떡과 같은 음식이 등장하거나, 쌓은 성이나 탑을 밀거나, 밥상에 놓은 숟가락을 감추거나,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방해가 뚜렷하게 아들을 편들고 있음에도 딸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다.

분석 〈오뉘힘내기〉는 단시간에 끝낼 것, 남보다 힘이 셀 것, 먼 거리를 빨리 다녀올 수 있을 것과 같은 조건이 있다. 이 중에 시간 조건은 남녀가 같고, 대개 여자는 힘들기의 속성이 있고 남자는 거리에 관한 속성이 있다. 그런데 후대로 올수록 여자의 속성이 약화하면서 옷 짓기와 밥 짓기, 물 나르기로 변화되었다. 내기 방식에서 남성들의 힘들기가 덜한 것으로 인식되자, 남녀가 같은 내기로 변모되어 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야기는 여신격인 홀어머니의 신권 계승 과정에서 일어난 영웅들의 필연적인 대권 다툼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갈등과 다툼이 불분명하지만, 신적 권능에 따른 질서화의 주체가 되는지 못되는지에 따라 패자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오뉘힘내기의 각편에서는 누이의 힘이 동생의 힘보다 우월하다. 그럼에도 누이가 죽고 남동생이 승리한다. 또 애초 누이의 죽음이 설정되지 않는 것은, 전승과정에서 남녀 간에 힘의 대립에 관한 개연성을 얻기 힘든 사회로 변모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딸의 죽음에 항변하는 유형은 현세적 질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신이 갖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혼란한 질서 체계에 대한 항변이다. 다른 변이형들은 나름대로 극복을 모색하는 의미 지향을 보이는데, 누이는 비범한 장수의 출현을 음성적으로 돕는 존재가 되어 비범한 장수가 감당할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보여 준다. 따라서 비극적으로 죽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누이의 재생을 기대하거나 암시하지 않는 것은 누이의 죽음으로 새로운 영웅을 출현시키려는 숨기는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징 영웅불립이란 대결 양상을 가정 속으로 가져와 설화로 만든 작품이다. 가장 가까운 오뉘간의 힘내기 경쟁을 통한 갈등의 양상을 보여 준다.

의의 〈오뉘힘내기〉는 공존할 수 없는 두 주체 사이에 일어나는 필연적 갈등이다. 주체가 오뉘로 설정된 것은 모권과 부권 사회의 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오뉘의 다툼은 남권과 여권에 국한되지 않고 천신과 지신, 나아가 인간계 내부의 위계 다툼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출처 東國李相國集, 三國遺事,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조선신가유편(손진태, 동경 향토연구사, 193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2; 389.

참고문헌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강현모,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몽학 오뉘힘내기 전설고(강현모, 한국언어문화, 한국언어문학회, 1988),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천혜숙,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필자 강현모(姜賢模)

전설

오동도

梧桐島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에 있는 오동도와 관련된 설화.

줄거리 이 섬에 관련된 설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동나무가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 말 어느 날, 신돈이 오동도에 봉황새가 자주 드나든다는 말을 전해 듣는데, 봉황은 군주를 상징하는 새이며, 오동도가 '들 입(入)' 자와 '임금 왕(王)' 자로 구성되어 있는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로운 임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봉황이 날아들지 못하도록 오동나무를 모조리 베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동백나무가 많은 것에 대한 설화이다. 한 부부가 오동도에 귀양 와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바다로 나간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 재물을 훔치고 아내의 몸을 빼앗으려 하였다. 아내는 도망치다가 도둑에게 붙잡히려는 순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시신을 발견한 남편은 아내를 오동도 정상에 묻어 주었는데, 그곳에서 동백과 신우대가 자라났다. 그때부터 오동도에는 동백과 신우대가 많이 번졌다 한다. 셋째는 오동도에 지네가 없는 이유에 대한 설화이다. 남쪽 동굴에는 오백 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이 섬에 해조를 따러 왔던 여인이 동굴 가까이 갔다가 지네를 보고 실신했다. 이에 남자들은 배를 타고 몰려가 여인을 구하고 사흘 밤낮을 불을 피워 연기를 동굴 속으로 흘려보내 지네를 잡았다. 그 후로 오동도에 지네가 살지 않는다고 한다. 넷째는 〈토끼전설〉이다. 자산에 살던 토끼가 거북이에게 오동도까지 건네주면 보물을 준다고 하고 거북이 등을 타고 갔는데, 오동도에 도착하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도망쳐 버렸다. 거북이는 토끼에게 복수하기 위해 섬으로 올라가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토끼가 지나갈 때 덥석 붙잡아서는 이빨로



오동도
전남 여수시 수정도, 한국관광공사



오동도 전설비
전남 여수시 수정도, 배도식

토끼의 껍질을 홀랑 벗기고 말았다. 이에 토끼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자 산신령이 나타나 섬에 있는 억새밭에 가서 뒹굴면 나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토끼가 그대로 하였더니 원래의 모습은 되찾았으나 대신 평생 소리 내지 못하는 동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분석 첫째와 둘째, 셋째 이야기는 그 배경이 매우 지역적이지만 넷째 이야기는 아시아 전역에서 보이는 세계적인 설화이다. 이 설화의 특징은 육지동물과 수중동물이 대립하는 데 있다. 지역에 따라 육지동물은 원숭이·사슴·토끼·여우로, 수중동물은 악어·자라·상어·자라표범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내용도 '육지동물에게 속기만 하는 수중동물담'과 '자신을 속인 육지동물에게 복수하는 수중동물담'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전자는 동남아시아와 극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고, 후자는 베트남과 중국, 한국, 일본에서만 보인다.

의의 대부분 설화가 지역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그중 〈토끼전설〉은 아시아 전역에서 보인다. 또 문헌으로 조선 후기 『고금소총(古今笑叢)』에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역사성과 세계성에서 매우 크다.

출처 여수, 아으 동동다리(김준옥, 민속원, 2004), 여수·여천향토지(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한국민족의 유산8(박갑수·박영준·김학동, 신흥서관, 1980).

참고문헌 오동도 토끼설화의 세계성(노성환, 민속원, 2010), 한국에서 토끼설화를 전한 일본 고대씨족(노성환, 동북아문화연구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イナバノシロウサギ神話の周辺(石破洋, 国語国文31, 金沢大学, 2006), すすきの穂と兎(樹胡厚生, アジア遊学19, 勉誠出版, 2000), 韓國の兎と龜の葛藤譚,(依田千百子, 因幡の白兎神話の謎, 門田眞知子編, 今井出版, 2008).

필자 노성환(魯成煥)

전설

오물음

吳物音

표제어 김중진

전설

오백장군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에 있는 경승 가운데 하나인 영실(靈室)에 있는 기암괴석에 얽힌 전설.



오백장군(오백나한)이라 불리는 영실바위
제주도 서귀포시, 2010.10.1, 허남춘

줄거리 『제주도 전설지』와 『제주도 전설』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라산 서남쪽 영실이라는 곳에는 수많은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다. 이 기암괴석을 대개 오백장군(五百將軍) 또는 오백나한(五百羅漢)이라고 한다. 이 기암괴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옛날 어떤 어머니가 아들 오백 형제를 낳고 살았다. 식구는 많은데 흉년까지 들어 끼니를 잇기도 힘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쑤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오백 형제는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한편 어머니는 큰 가마솥을 걸어 놓고 아들들이 돌아오면 먹일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을 젓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 솥에 빠져 죽고 말았다. 양식을 얻으러 나갔던 오백 형제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죽이 있어 먹기 시작하였다. 막내가 죽을 먹으려고 솥을 저을 때 이상하게도 틀림없는 사람의 뼈다귀를 발견하였다. 순간 막내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가 솥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아차렸다. 막내는 어머니가 빠져 죽은 죽을 먹은 불효한 형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막내는 통탄하며 멀리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까지 달려가 끝없이 울다가 바위가 되어 버렸다. 그때야 비로소 형들도 어머니가 솥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 늘어서서 통탄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변한 바위가 오백장군이다. 막내는 차귀섬에 있으니 영실에는 모두 499명의 장군이 있는 셈이다. 차귀섬에 있는 막내 장군바위는 인근 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바굼지오름에서 훤히 보인다.

변이 영실의 기암괴석에서 비롯된 〈오백장군설화〉는 제주도의 거인 설화인 〈설문대할망〉과도 관련하여 전승된다. 즉 오백장군이 설문대할망의 자식들이라는 내용으로, 모자관계로 설정된 것이다. 이런 변이는 진성기가 채록하여 보고한 『남국의 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제주도 내에 널리 퍼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오백장군〉이 민간에 전승되는 데에는 16세기에 임제(林悌)가 『남명소승(南溟小乘)』이라는 자신의 저서에 영실기암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임제는 1578년에 한라산을 등반하여 영실기암을 구경하고는 중국 전국시대의 전횡(田橫)과 그 일행 오백 명에 대하여 언급한 시를 남겼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에서 오백장군이라는 이름이 굳어지고 설화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징 원래 〈오백장군〉은 영실기암과 관련한 독립된 설화였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근래에 들어 〈설문대할망설화〉와 결합되어 유포된 특징이 있다. 또한 후반부에 풍수담과 연결되기도 한다.

의의 〈오백장군설화〉는 가난 속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여 희생되고, 자식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불효를 짓게 되어 암석으로 변하였다는 내용이므로 효(孝)를 강조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출처 남국의 설화(진성기, 박문출판사, 1964), 제주도전설(현용준, 서문당, 1996), 제주도 전설지(제주도, 1985).

참고문헌 설문대할망설화 재고(현승환, 영주어문24, 영주어문학회, 2012),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정진희, 국문학연구19, 국문학회, 2009).

필자 강소전(姜昭全)

민담

오성과 한음

표제어 오성의 장난

민담

오성의 장난

정의 오성부원군 이항복과 그 주변 인물의 재미있는 장난에 얽힌 설화.

역사 오성은 조선 중기의 명신인 백사 이항복(1556~1618)이다. 이항복이 오성부원군이 된 까닭에 오성대감이라 부르던 것을 줄여서 '오성'으로 일컫게 되었다. 〈오성과 한음〉으로 널리 알려진 오성의 장난에 관한 설화들은 이항복의 개인사를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한 유쾌한 장난꾼에 대한 이야기로서 민담의 성격을 짙게 지니고 있다. 그 이야기는 종류가 무척 많은데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조선 후기에 걸쳐 구전되면서 계속 추가되고 변이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줄거리 오성과 한음은 단짝 친구로 서로 어울려 다니며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다. 한 번은 둘이서 전염병으로 몰살한 시체를 치우기로 했는데 한음이 먼저 가서 시체 사이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오성은 놀라지 않고 한음을 시체로 취급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어느 날 오성이 한음에게 말하기를 변소에 불알을 잡아당기는 도깨비가 있어 미래를 예언해 준다고 했다. 한음이 변소에 가서 앉았을 때 오성이 노끈으로 한음의 불알을 잡아당겼는데 한음은 도깨비짓으로 깜빡 속고 말았다. 오성은 한음의 부인과도 격의 없이 지냈다. 어느 날 오성은 한음에게 자기가 한음 부인과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큰소리를 치며 그럴듯한 증거를 댔다. 그 얘기를 들은 한음의 아내는 오성을 초대해 떡 속에 똥을 넣어서 먹이고는 거짓말하는 입에는 똥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오성은 자기 아내한테도 많은 장난을 했다. 혼약을 맺었을 때 사람들한테 쫓기는 척하면서 아내의 치마폭에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아내는 겉선만 볼 것이지 속선까지 보느냐고 힐난했다. 오성은 어느 날 장인이 수염이 없어 고민하는 것을 보고 당나귀 신(腎)을 구해다 씹으면 된다고 속여서 장인을 골탕먹였다. 그러자 오성의 부인은 코가 작은 시아버지로 하여금 겨울에 문밖에 코를 내놓도록 해서 보복했다. 오성은 밖에서 들어올 때면 부러 차가운 돌에 엉덩이를 대고 와서 아내의 배에 들이대곤 했다. 아내는 오성 몰래 그 돌을 뜨겁게 달구어 놓아서 오성의 엉덩이를 데게 했다고 한다. 오성은 짓궂은 장난꾼이었지만 뒤에 중요한 공신이 되었다.

변이 이외에도 오성의 일화는 매우 많다. 우선 대장장이 집에서 몰래 못을 훔쳐내다가 달군 못에 엉덩이를 덴 이야기가 유명하다. 이항복은 뒷날 그 못을 대장장이에게 돌려 주어 가산을 일으키게 했다고 한다. 그는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합도 했는데 "내가 일어설지 앉을지 맞춰 보라"라는 질문으로 도깨비를 물리쳤다고 한다. 이웃집 대감이 담을 넘어간 나무에서 감을 따 먹자 방문으로 주먹을 밀어 넣고서 이게 누구 손이냐고 말해 그를 굴복시켰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외에 학동들 몰래 꿀을 먹던 훈장이 밖에 나간 사이에 친구들과 꿀을 나눠 먹고서 죽어 가는 시늉을 했다는 이야기 등 서당에 관한 일화들도 전해진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이항복 고유의 이야기인 것은 아니다. 재치 있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오성의 일화로 채택된 사례도 많다. 서당 학동의 재치나 이웃

집 대감의 방문에 주먹을 밀어 넣는 이야기 같은 것이 그 예가 된다.

분석 오성과 한음의 장난에 관한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허구적이고 희극적인 성격을 지닌다. 오성과 한음 사이에 친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둘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꽤 있으며 어려서 함께 논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들을 짝으로 삼아서 발랄하고 유쾌한 소화들을 폭넓게 전승해 왔다. 이야기 속의 오성과 한음 그리고 그들의 아내는 상당히 서민적이고 행동적인 인물들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평민들이 오성과 한음이라는 인물에 대해 가졌던 친근감이나 신뢰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전형적인 인물들이 보여 주는 발랄하고 도전적인 행동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오성과 한음은 사회의 윤리규범보다 본연의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며 관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사회 권위를 유쾌하게 뒤엎는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한 원초적 충동과 닿아 있음으로써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야기 가운데는 오성이 자기 아내나 한음의 아내를 놀렸다가 더 크게 골탕먹었다는 내용이 많은데, 이 또한 남녀 간 질서나 권위 체계를 뒤집음으로써 사회 권위의 파괴와 전복이라는 지향성을 서사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징 한국 설화 가운데는 김선달이나 방학중, 정만서 같은 트릭스터적 인물이 있는데, 오성과 한음에게도 그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오성과 한음은 본격 트릭스터라기보다는 유쾌한 장난꾼에 더 가까운 인물이다. 특징적인 사실은 오성과 한음이 양반 출신으로 고관이 된 인물이면서도 신분에 걸맞지 않게 발랄한 장난꾼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양반형 인물의 거침없는 희극적 행보는 신분 계층을 떠나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장난꾼들과 달리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움직인다는 사실도 특징이다. 이는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들어 주는 한편으로, '우정'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한다.

의의 오성과 한음은 한국 설화가 만들어 낸 가장 유쾌한 캐릭터로 손꼽힌다. 특히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마음껏 세상을 누빈다는 설정이 큰 재미와 매력을 만들어 낸다. 한국 설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친구'를 들라고 할 때 이들을 첫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러한 캐릭터적 매력은 오늘날까지 그 힘이 이어져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수많은 이야기책과 만화책, 소설이 나오고 있다.

출처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자료(신동흔, 집문당,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40; 3-1, 198.

참고문헌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신동흔, 집문당, 2002), 오성과 한음(김현룡, 철학과현실사, 2002), 이항복 이야기의 전승 동력과 기원(이승수, 한국어문학연구5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필자 신동흔(申東昕)

전설

오세암

五歲庵

정의 다섯 살 된 아이가 홀로 암자에 남아 있다가 폭설에 관음의 보살핌을 받아 목숨을 구하고 득도하여 그 암자를 오세암이라 부르게 된 전설.

줄거리 한 중이 부모 잃은 어린 조카를 암자로 데려와 키운다. 아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중이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 아이만 암자에 남겨둔 채 마을로 내려간다. 중이 양식을 구해 암자로 가려고 했으나 폭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눈이 녹기만을 기다렸다. 이른 봄, 눈이 녹기 시작하자 중은 서둘러 암자로 올라갔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중이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자 어머니(관음보살)가 매일 양식을 주었다고 했다. 그때 갑자기 바람소리와 함께 나타난 백의선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경전을 주고 청조(靑鳥)가 되어 날아갔다. 아이가 오세에 득도하였다고 하여 암자를 오세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변이 일반적으로는 암자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인물은 중, 스님으로 불리지만, 설정대사, 설총과 같이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기도 한다. 아이가 폭설로 고립되어 있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준 관음보살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를 보살펴 준다. 배고픈 아이에게 밥, 떡, 젖 등 양식을 준다. 아이가 먹었다는 밥그릇에 모래가 담긴 예도 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관음보살이 모래로 밥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관음보살은 아이가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덮을 것을 주거나 안아 주기도 한다. 그 외에도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놀아 주는 예도 있다. 대부분 설화의 결말은 아이가 다섯 살에 득도한다. 하지만 나중에 커서 훌륭한 도승이 되기도 한다.

분석 아이는 폭설로 세상과 고립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상황에서 관음보살의 보살핌을 받는다. 눈은 아이에게 고립과 시련을 주는 동시에 아이가 관음보살의 현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진실 되고 거짓 없는 순수성을 상징한다. 아이의 결핍은 자신을 돌봐 준 중과 관음보살의 사랑으로 충족되고, 시련은 고립된 아이를 독립된 자아로 성장시켜 낸다. 아이가 스님과 분리되어 관음보살을 만나서 득도에 이르는 길은 본연의 나를 찾는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징 이 설화는 주인공인 어린아이의 순수성이 돋보이고 감동적인 서사적 특성으로 동화,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같은 다양한 아동 문화콘텐츠로 개발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146; 247; 2-5, 62; 2-8, 788; 2-9, 194; 7-8, 938; 7-14, 357; 8-13, 376.

참고문헌 오세암설화의 심층의미와 아동문화콘텐츠로의 변용에 관한 연구(노제운, 어문논집61, 민족어문학회, 2010), 절따라 전설따라-문화유산으로 읽는 사찰연기설화(김승호, 대원정사, 1999),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향토의 전설(강원도, 1979).

필자 박현숙(朴賢淑)

민담

오쟁이 지다의 유래

정의 "오쟁이 지다."라는 속담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

줄거리 오쟁이(씨를 담는 바구니 비슷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오장' 혹은 '오장치'라고도 함)를 짊어진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일하고 있는(혹은 밥을 먹고 있는) 어떤 부부를 보았다. 남자는 갑자기 그 여인과 정을 나누고 싶어 꾀를 내었다. 남자는 그 부부가 들으라는 듯이 "참 별일 다 보겠다. 일하다 말고 사랑을 하고 있냐?"라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남편이 쫓아와 "너 뭐라고 했냐?"라고 따졌다. 이에 오쟁이를 짊어지고 가던 남자가 천연덕스럽게 말하길, "여기서 이 오쟁이를 지고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고 능청을 떨었다. 이에 속은 남편이 그럼 어디 한번 해 보자고 대들었고, 남자는 남편에게 오쟁이를 지워준 뒤 여인에게 다가가 정을 나누었다.

변이 처음 보는 남자와 정을 나누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원래 간통하고 있는 남녀를 등장시켜 줄거리를 치밀하게 구성한 변이도 있다. 간통하던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둘이서만 재미를 볼 게 아니라 자네 서방이 보는 앞에서 하면 더 재미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오쟁이를 짊어지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여자의 남편이 집에 있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 "대낮부터 정을 나누고 있느냐?" 하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남편은 의아해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이 오쟁이를 짊어지고 보면 당신들이 정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남편이 한번 볼까 하고 오쟁이를 짊어지는데, 남자는 그 틈을 타 여자와 정을 나누었다. 남편이 오쟁이를 짊어지고 보니, 과연 아내와 남자가 정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분석 이 설화는 전국에 퍼져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 채록은 주로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졌다. 겉으로는 일종의 육담(肉談)으로 남녀 사이의 간통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설화의 묘미는 속임과 속음의 상관 관계에 있다. 속임과 속음을 통한 지적 유희를 긴장감 있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릭스터(trickster)의 면모도 엿볼 수 있다. 꾀로 상대를 골려 주는 이야기 유형으로, 〈봉이 김선달〉 류의 이야기와도 통한다. 그렇지만 상대를 골려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간통한다는 점에서는 구별된다.

의의 오늘날 "오쟁이를 지다."라는 속담은 외간 남자가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설화는 속담의 유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성욕과 골계가 적절히 배합된 〈봉이 김선달〉 류의 해학담으로서 그 가치를 지닌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5, 783,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8, 372; 11, 134.

참고문헌 한국육담의 세계관(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7).

필자 이한길(李漢吉)

전설

오찰방

吳察訪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장사로 이름났던 오찰방(찰방 오영관)의 행적을 담은 전설.

역사 오찰방은 조선 현종 때 인물로 현재 무덤도 남아 있다. 제주도 지역의 일반적인 장사전설 주인공과 달리 오찰방은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동네에서 힘자랑하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공을 세우는 이야기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줄거리 오찰방의 아버지는 처음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 소 열

마리를 먹였으나 딸을 낳았다. 아내가 다시 임신하자 딸을 얻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번에는 소를 아홉 마리만 먹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이 바로 오찰방이다. 오찰방은 힘이 장사여서 씨름판이 벌어지는 곳마다 나가서 항상 이겼다. 누구 하나 대적할만한 자가 없어 곧 기고만장해졌다. 하루는 이웃 마을 씨름판에 갔는데 역시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누구 제대로 된 놈 없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총각이 나섰다. 이번에는 오찰방이 힘을 제대로 써 보기도 전에 그만 지고 말았다. 오찰방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분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누이가 그 총각이 자기였다고 말했으나 오찰방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러자 누이가 오찰방의 신발을 벗겨 대들보에 끼워 버렸다. 오찰방이 힘을 써 보았으나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누이는 가볍게 대들보를 들고 신발을 꺼내어 자신의 힘을 입증하였다. 오찰방은 이에 누이의 말을 믿게 되었고 다시는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편, 오찰방은 자신의 능력을 온 나라에 떨치기도 하였는데, 나라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도적을 잡아 바치는 공을 세워 찰방 벼슬을 하였다고 한다.

변이 탄생과 관련하여 오찰방이 날개 달린 아기장수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이 발각되어 날개를 잃었음에도 대단한 장사로 살아갔다고 한다.

분석 〈오찰방전설〉 각편 가운데 날개 달린 아기장수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른 지역과 달리 날개를 잃은 뒤에도 죽지 않는다. 제주도의 〈아기장수전설〉은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이다. 현길언은 일찍이 이러한 점을 제주도 〈아기장수전설〉 특징 가운데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특징 오찰방은 누이와의 씨름에서 지고 날개를 잃는 등 좌절할만한 소지가 많으나, 결정적인 실패나 좌절을 겪지 않는 인물이다. 부대각, 막산이, 정훈디와 같은 여러 장사의 이야기와 얽혀 있다. 이들 인물의 경쟁에는 각 지역 사람들의 경쟁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의의 제주도 장사전설은 먹성을 근거로 영웅의 면모를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오찰방전설〉은 직접적으로 먹성을 거론하지 않은 사례여서 특별하다. 물론 오찰방이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소를 여러 마리 먹었다고 하는 방식으로 먹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달리 설정하여 전반적인 이야기판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출처 제주도 전설(현용준, 서문당, 1976), 제주설화집성1(김영돈 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9-3, 33.

참고문헌 제주도의 장수설화(현길언, 홍성사, 1981), 제주설화 일고찰(허춘, 국문학보13,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5).

필자 강정식(姜晶植)

전설

옥녀봉

玉女峰

정의 옥녀봉(玉女峰)이란 지명과 관련하여 전승되는 설화.

줄거리 옥녀봉에 관한 이야기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마을을 지키는 산신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마을 뒷산 옥녀봉에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 산신(옥녀)이 살고 있었다. 이웃 마을 남자 산신이 이 땅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왔는데 옥녀가 이 남신을 물리쳤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다 나무를 심고 당산제를 지내며 옥녀를 위로하였다. 둘째는 옥녀봉의 지형과 지명에 관련된 유형이다. 옥녀는 부모가 돌아가자 삯바느질로 동생을 공부시켰다. 매일 뒷산에 올라가 기도하자 산신령이 감동하여 동생을 급제시켜 주었다. 옥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 그만 산이 되었다. 그래서 산봉우리를 옥녀봉이라고 하였으며, 그 산 모양이 여자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 셋째는 옥녀가 정절을 지키다 죽음에 이르는 유형이다. 옥녀라는 미인이 살았는데 혼약을 한 도령이 있었다. 도령이 과거 보러 간 사이에 사또가 흑심을 품고 온갖 요구를 하였다. 옥녀는 더는 사또를 피할 수 없게 되자 강에 투신해 죽었는데, 그 순간 사또도 급살 맞아 죽었다. 장원급제하여 돌아온 도령은 옥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세에 같이 살자며 옥녀가 죽은 자리에 투신해 죽고 말았다. 그 뒤부터 혼례 행렬이 이 길을 지나가면 반드시 동티가 나서 가마가 물에 빠지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변이 이 전설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승된다. 첫째 유형은 〈오뉘힘내기전설〉, 〈마고전설〉과 유사한 내용이다. 경상남도 사천군 곤양면 연항마을에서는 옥녀산신이 마고 못지않은 대식가이며 힘이 장사인 거구의 추녀로 등장하여 마을 사람을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둘째 유형은 지형(지명)을 바탕으로 옥녀가 베를 짠 '베틀바위', 옥녀가 베를 씻은 '옥녀샘', 옥녀가 비파를 켠 '옥녀바위', 옥녀가 춤추는 '무도골'과 같이 다양한 이야기로 전승된다. 셋째 유형 중에서 특이한 형태는 사랑도 〈옥녀봉전설〉이다.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 모티프가 중심이다. 옥녀는 그로 인한 천벌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살한다. 그 이후 사랑도 주민들은 혼례 때 대례를 치르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이 유형은 혼사 장애를 겪는 옥녀 유형에 해당한다.

분석 이 설화는 잘 짜인 서사담이며 그 주제도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옥녀산신, 옥녀 상사, 옥녀 정절, 옥녀 헌신을 위한 화소 및 삽화가 수용되거나 조합되고 있으며, 상이한 유형까지도 차용하여 상당한 변형을 보여 준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된다는 점에서 옥녀 유형을 〈장자못전설〉이나 〈아기장수전설〉과 같이 하나의 새로운 설화계로 설정할 수 있다.

특징 이 설화는 정절, 효행, 권선징악이나 근친상간 등 금기와 같은 우리 민중의 윤리의식을 교훈적으로 전하며, '옥녀봉'이라는 산정(山頂)을 증거물로 하여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출처 사천군지(사천군지편찬위원회, 1990), 통영시지(통영시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9, 245; 6-6, 699.

참고문헌 사량도 옥녀봉설화의 형성과 희생제의적 성격고(황경숙, 도남학보15, 도남학회, 1996), 옥녀설화 연구(김영일, 경남대학교 어문논집11, 경남대학교, 2000).

필자 김구한(金求漢)

전설

온달

溫達

정의 고구려 영양왕(?~590) 때의 실존 인물인 온달을 주인공으로 한 인물전설.

역사 〈온달전설〉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5 「열전」 제5 온달 조에 실려 있다. 이 이야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51 「평양부」 인물 조와 초략본(抄略本) 『명심보감(明心寶鑑)』 「염의(廉義)」에도 실려 있다. 이런 문헌자료가 민간에 유출되어 현재까지 구전되고 있다.

줄거리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온달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 평강왕 때, 외모는 우습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착한 온달이 밥을 얻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평강왕은 어린 공주가 툭하면 울어대므로, 크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농담을 하곤 하였다. 공주가 성인이 되자 왕은 공주를 상부 고씨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공주가 부왕의 말을 따르지 않자, 왕은 공주를 대궐 밖으로 내쫓았다. 공주는 온달의 집으로 가서 온달과 온달의 눈먼 어머니를 설득하여 혼인하고 함께 살았다. 공주는 가지고 온 금붙이를 팔아 살림을 일으키고, 온달에게 말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공주는 온달에게 대궐에서 내다 파는 국마(國馬)를 사오게 한 뒤에 잘 길렀다. 온달은 그 말을 타고 사냥대회에 나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후주(後周)의 무제(武帝)가 쳐들어왔을 때 온달이 전장에 나가 싸워 큰 공을 세우니, 왕은 온달을 사위로 맞이하고 대형(大兄) 벼슬을 주었다. 온달은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온달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시신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위로의 말을 하니, 그제야 관이 움직여 장사를 지냈다.

변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공주가 스스로 나서서 온달의 아내가 된다. 공주가 어렸을 때 자주 울자 왕이 공주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했다는 단락과 왕이 공주를 상부 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공주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단락은 생략되었다. 그러나 온달이 전공(戰功)을 세우고 임금의 사위로 인정을 받은 뒤에 대형 벼슬을 한 일,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일, 움직이지 않던 온달의 시신이 공주의 위로를 받은 뒤에 움직인 일 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명심보감』에서는 온달이 사냥대회에 나가서 기량을 발휘한 일, 전장에 나가 싸운 시기와 장소, 전사한 곳은 생략되었다. 구전자료를 보면, 온달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온달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이야기도 있다. 공주가 온달의 출세를 위해 글을 가르치고, 말타기·활쏘기·칼 쓰기 등의 무술을 가르쳤다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자료도 있다. 온달이 사



온달 장군이 가지고 놀았다는 공깃돌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1997. 8. 8, 최운식



온달산성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2007.7.11, 시몽

냥대회에 나가 기량을 발휘하는 대목에서 온달이 임금과 나란히 말을 타고 달리면서 호랑이를 잡았다고 아주 흥미롭게 서술된 자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사냥 이야기는 생략된 채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큰 공을 세우는 단락만 있는 자료도 있다. 온달의 고향이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인데, 그곳에 온달이 가지고 놀던 공깃돌과 온달의 애마가 묻힌 말무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온달전설〉이 공깃돌과 말 무덤의 유래를 설명하는 증시전설(證示傳說)로 변한 예이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정승의 딸이 스스로 원하여 시골에 사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서 금붙이를 내놓으며 살림을 일으킬 방도를 찾자고 하니, 온달은 그런 것은 자기가 일하는 숯구덩이에 많이 있다고 한다. 함께 숯구덩이에 가보니, 금덩이가 많이 있어서 그걸 팔아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한다.

분석 『삼국사기』 〈온달전〉에서는 평강공주가 부왕의 명을 어기고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남편을 내조하여 출세하게 한다. 이 이야기에는 공주의 자주적인 의식과 함께 온달의 용감성과 충성심이 잘 드러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온달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면서 온달의 용감성과 충성심 강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명심보감』은 공주가 내조하여 온달을 영달(榮達)하게 하는 공주의 선행담(善行談)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는 왕의 식언(食言)을 비판하면서 의리를 지킨 공주의 행동을 칭찬한다. 구전설화에서는 온달의 아내가 된 공주가 온달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쳐 내조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문헌자료가 구전되면서 민중 의식이 강화된 것이라 하겠다. 이 이야기는 부녀간의 대립과 갈등을 그린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

특징 이 설화는 부권 중심의 관습과 도덕률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이 주체적인 의식을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설화는 고귀한 신분의 여주인공이 미천한 신분의 남주인공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점에서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설화의 구전자료에는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에 가깝게 변이된 이야기도 있다. 이 설화는 고소설 〈온달전〉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출처 三國史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314; 438; 6-10, 519; 8-14, 187, 함께 떠나는 이야기 여행(최운식, 민속원, 2004).

참고문헌 민중언어로서의 온달설화(문찬식, 한국언어문학17·18, 한국언어문학회, 1979), 온달설화 고찰(김현룡, 학산조종업박사화갑기념논총, 1990), 온달설화의 전승양상(최운식, 청람어문교육20, 청람어문학회, 1998), 온달전의 구비문학적 이해(김대숙,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임재해, 여성문제연구11,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필자 최운식(崔雲植)

신화

온조비류신화

溫祖沸流神話

정의 백제를 건국한 온조와 비류에 관한 건국신화.

역사 백제는 B.C. 18년에 국가를 건설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건국 장소도 대방현, 하남위례성으로 다양하고, 시조 혹은 건국주에 관한 기록에도 온조(溫祚), 비류(沸流)가 등장한다. 백제의 건국주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三國史記)』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삼국유사(三國遺事)』,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는 백제시조를 온조 혹은 비류로 들고 있으며, 『삼국사기』 「지리지」나 중국의 정사(正史), 『속일본기(續日本紀)』 등에서는 동명(東明), 우태(優台), 구태(仇台), 도모(都慕)를 언급한다.

줄거리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1 온조왕 즉위년 조에 의하면, 온조의 아버지는 추모(鄒牟) 혹은 주몽(朱蒙)으로, 북부여에서 졸본부여로 와서 부여왕의 둘째 딸과 결혼하였다. 얼마 뒤에 부여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비류이고 둘째가 온조였다. 그런데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았던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온조와 비류는 오간(烏干), 마려(馬黎) 등 열 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떠나 한산(漢山)에 이르렀고, 이곳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 이때가 전한(前漢)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B.C. 18)이다. 비류는 십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미추홀(彌鄒忽)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살 수 없었으므로 위례성으로 돌아와 살다가 죽었다. 그 뒤 온조는 백성이 날로 즐겁게 따르므로 국호를 백제라고 하였다. 그 세계(世系)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로써 성씨를 삼았다. 이어 기록된 비류설을 보면, 백제의 시조 비류왕은 그의 아버지가 우태로 북부여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이고, 어머니는 졸본 사람 연타발(延陁勃)의 딸 소서노(召西奴)이다. 소서노는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을 와서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소서노는 우태가 죽은 뒤 북부여에서 온 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세우는 것을 내조하였다. 이에 주몽은 소서노를 왕비로 삼아 특별히 후대하며, 비류와 온조를 자기 아들과 같이 대하였다. 주몽은 부여에서 낳은 아들 유류(孺留)가 오자 태자로 삼아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이에 비류는 아우 온조와 더불어 어머니를 모시고 패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가서 살았다. 한편, 북사나 수서에 의하면,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도는 어짊과 믿음이 돈독한 동명의 후손 구태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비류국은 동이 강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변이 『삼국사기』에 나타난 줄거리조차 위와 같이 차이가 있으며, 일연(一然)의 『삼국유사』에는 "시조 온조는 동명의 셋째 아들로서 신체가 크고 심성이 효우(孝友)하였으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라고 나온다. 그리고 『해동고승전』 권1 마라난타(摩羅難陀) 조에는 '은조(恩祖)'로 표기되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온조설과 비류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은 비류가 형이고 온조가 동생이며, 이들 형제의 생모와 주몽이 부부이고, 주몽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여계 출자이고,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점이다. 차이점을 보면 첫째, 아버지가 온조설에서는 주몽으로 비류설에서는 해부루의 후예인 우태로 나타난다. 둘째, 주몽의 왕위 계승에서 온조설에서는 장인에게 물려받았는데, 비류설에서는 비류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룩 되었다. 셋째, 백제 건국에서 온조설에서는 온조가 역동적이지만, 비류설에서는 비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온조는 단지 이름만 등장한다. 넷째, 온조설에서는 온조와 비류가 한강 유역과 미추홀에 정착하였다가 뒤에 두 영역이 병합됐지만, 비류설에는 비류와 온조가 함께 미추홀에 거주하였다. 이상에서 온조와 비류의 관계를 유추하면, 소서노가 먼저 우태에게 시집을 가서 비류를 낳고 뒤에 주몽에게서 온조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어 이들은 이부동모(二父同母)의 형제로 보이기도 한다. 또 각기 일파의 수장으로 미추홀과 위례 지역에 정착하였다가, 위례 지역이 미추홀을 아우른 후 국호를 백제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으나, 『삼국사기』에서 "부여로써 성씨를 삼았다."라고 한 것을 "해(解) 씨로 성씨를 삼았다."라고 고쳐 놓아, 백제의 왕성(王姓)은 부여 씨가 아닌 해 씨가 되었다. 그러나 『삼국유사』 권2 「기이」 2 남부여전백제 조에 인용된 「소부리군전정주첩(所夫里郡田丁柱貼)」에는 백제왕의 성을 '扶(餘)氏'라고 하였으므로, 『삼국유사』에도 백제왕의 성씨로 부여 씨와 해 씨가 있었던 셈이 된다.

분석 백제의 건국신화는 수도가 옮겨질 때마다 전승설화가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온조와 비류는 건국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건국주로서의 의미만 있다. 그리고 한성백제시대에는 온조계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고구려의 〈주몽신화〉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부여계 〈동명왕신화〉를 차용하였다가, 웅진으로 천도하였을 때는 비류계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충청남도 공주 지역의 〈곰나루전설〉이나 비류설과 같은 지손계 건국신화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징 『삼국사기』에 기록된 온조와 비류의 내용은 건국신화와 같이 신이성과 환상성을 가지지 못하고 역사적 기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온조와 비류가 신화의 주인공이기보다 건국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조비류신화〉는 초기 백제를 구성한 집단이 천손계인 온조 세력과 지손계인 비류 세력의 연합체임을 알려 준다. 따라서 이들 집단이 추구하는 신화를 보면, 온조계는 부여의 천손계인 〈동명왕신화〉를 차용하였고, 비류계는 지손계인 금와왕 계열의 신화를 차용하면서 두 족속 간에 협력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 준다.

의의 이 신화는 신화적 서사구조라기보다 역사적 기록에 가깝다. 이들 자료는 나름대로 신화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백제의 건국신화를 재구성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 또한 있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海東高僧傳.

참고문헌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임재해, 천재교육사, 1995), 백제건국신화의 전승양상과 의미(강현모, 비교민속학24, 비교민속학회, 2003), 백제건국전설(현용준, 한국학보8, 일지사, 1977), 백제신화연구(서대석, 백제논총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김성호, 지문사, 1982), 현지조사를 통한 백제설화의 연구(최래옥, 동아시아문화연구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2).

필자 강현모(姜賢模)

신화

왕건신화

王建神話

정의 고려의 창건자인 왕건의 선대를 신성화한 신화

역사 1160년대 전반에 고려 검교군기감을 지낸 김관의가 『편년통록(編年通錄)』을 지어 의종에게 바친다. 이 책은 편자가 여러 집에 소장되어 있던 문서들을 방집(訪集),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인데 왕건의 6대조 호경(虎景)으로부터 아버지 용건(龍建)에 이르는 6대의 신이한 사적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이후 1451년(문종 1)에 제작된 『고려사(高麗史)』의 서두에 '고려세계(高麗世系)'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역사의 일부가 됨으로써 고려의 건국신화로 자리매김 된다.

줄거리 자칭 신라 성골장군(聖骨將軍) 호경은 백두산에서 내려와 부소산 왼쪽에 거주했는데, 마을 사람 아홉 명과 평나산에 사냥하러 갔다가 바위굴에서 범을 만난다. 범이 굴을 막자 제비를 뽑기 위해 각자의 관(冠)을 던졌는데 범이 호경의 관을 문다. 호경이 범과 싸우려고 굴을 나서자 범이 사라지고 굴은 무너진다. 호경이 죽은 이들을 장사지내기 위해 먼저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중 산신이 나타나 스스로 과부라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자고 한다. 말을 마치자마자 산신과 호경은 사라졌고, 평나군 사람들은 사당을 세워 호경을 대왕으로 봉하고 산 이름을 구룡산(九龍山)으로 고친다. 그 후 옛 처를 잊지 못한 호경이 밤에 꿈처럼 찾아와 동침을 하였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강충(康忠)이다.

강충은 구치의와 결혼하여 오관산(五冠山) 마가갑(摩訶岬)에 살았는데, 신라 풍수가 팔원이 와서 "만일 부소군을 산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암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 거기서 삼한(三韓)을 통일하는 자가 출생할 것"이라고 한다. 강충은 사람들과 이사를 한 후 소나무를 심고 이름을 송악군으로 개칭한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인 보육(寶育)은 중이 되어 지리산에서 불도를 닦은 뒤 돌아와 마가갑에 산다. 어느 날 꿈에 곡령(鵠嶺)에 올라가 남쪽을 향해 오줌을 누자 오줌이 조선 천지에 가득 찼다. 형 이제건(伊帝建)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버티는 기둥을 낳을 꿈이라면서 딸 덕주(德周)를 보육에게 주었는데 둘 사이에서 두 딸이 태어난다. 둘째 진의(辰義)가 성년이 되었을 때 언니가 오관산에 올라 앉아 눈 오줌이 천하에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듣고 언니에게서 그 꿈을 산다. 그 뒤 당나라 숙종이 즉위하기 전 송악군에 왔다가 보육의 집에 머물게 된다. 숙종은 두 딸에게 터진 옷을 꿰매 달라고 하였는데, 언니가 문지방을 넘자마자 코피가 터져 되돌아 나오는 바람에 진의가 숙종을 모시게 된다. 머문 지 한 달 만에 태기가 있자 숙종은 진의에게 활과 화살을 주면서 아들을 낳거든 주라고 한다. 그 후 아들을 낳아 작제건(作帝建)이라고 이름 짓는다.

작제건이 16세가 되자 진의는 활과 화살을 주는데, 작제건의 활솜씨가 빼어나 사람들에게 신궁(神弓)이라 불린다. 작제건은 아버지를 찾아 사신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늙은 여우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해 용왕의 요구에 직면한다. 작제건이 활로 여우를 쏘아 죽이자 용왕은 천자인 아버지를 만날지 보물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돌아갈지 선택하라고 한다. 작제건이 동방의 임금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자 용왕은 건자가 붙은 이름으로 3대를 거쳐야 가능하다면서 다른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 작제건은 용녀를 아내로 삼고 칠보(七寶)와 돼지를 얻어 돌아온다. 돼지가 송악산 남쪽 기슭에 가서 눕자 거기에 새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곳은 바로 강충의 옛터였다. 그 뒤 용녀는 금기를 어겼다는 걸 빌미로 용궁으로 돌아가고 작제건은 속리산에 들어가서 불경을 읽다 죽는다. 용녀가 낳은 네 아들 중 맏이인 용건은 꿈에 만난 여자와 결혼하여 송악산 옛집에 산다. 그때 당나라에서 풍수지리를 배우고 찾아온 도선(道詵)의 말대로 새 집을 짓고 살다가 아들을 낳아 왕건(王建)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왕건이 17세가 되었을 때 도선이 다시 찾아와 하늘의 뜻을 전하면서 병법과 천문의 이치 등을 가르쳐 준다. 이후 마침내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다.

분석 고려 건국신화는 왕건이 탄생하기까지의 기나긴 과정에 발현된 신이한 사적과 선대의 노고를 기술하고 있다. 이는 건국신화 제작의 문화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천지신명의 권위와 혈통만으로도 건국의 신성함을 드높일 수 있었던 고대와 달리 중세에는 상대적으로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권위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다. 이를 위해 〈왕건신화〉는 고려의 창건자인 왕건을 비신화적으로 기술하고 선대에 대해서는 신화적으로 기술하는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먼저 왕건은 천신의 혈통을 직접 취하지 않고 신라 쪽 혈통을 취한다. 『편년통록』은 신라 성골장군인 6대조 호경으로부터 시작된다. 혈통의 신성함을 전 왕조의 혈통을 통해 보장받으려는 태도이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 천자의 권위도 빌린다. 당나라 숙종을 선대 혈통에 끌어들여 중세 문명의 중심인 중국 쪽의 권위를 확보함으로써 왕가의 신성화를 기도한다. 이 새로운 신화의 제작과정에서 『편년통록』은 다양한 신라의 설화 모티프를 활용한다. 보육과 그의 맏딸이 꾼 오줌 꿈은 이른바 선류몽 설화에 속하는 것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 조에 나오는 김유신의 누이 보희의 오줌 꿈을 따온 것이고, 진의의 매몽(買夢)과 숙종과의 결연 역시 같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보희의 동생 문희와 김춘추의 결연 모티프를 따온 것이다. 또, 작제건이 바다를 건너다가 용왕을 만나 신궁의 능력을 드러내는 부분은 『삼국유사』의 〈거타지설화〉를 빌려온 것이다.

특징 〈왕건신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풍수지리설의 도입이다. 호경이 백두산에서 오관산으로 내려왔다고 기술한 것은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백두산이 조산(祖山), 오관산이 종산(宗山)이기 때문이다. 강충이 송악군으로 개명하고 거기서 산 것은 송악산이 주산(主山)이기 때문이다. 조-종-주 산의 흐름, 곧 용맥(龍脈) 속에서 개경은 명당이 되고 도읍이 된다. 보육이 지리산에서 불도를 닦다가 마가갑으로 돌아온 이유도, 작제건이 용왕에게서 얻은 돼지가 송악산 기슭에 가서 누운 이유도 풍수적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고려 건국신화인 〈왕건신화〉는 풍수지리설이라는 중세의 과학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왕권을 신성화하고 있다.

의의 〈왕건신화〉는 고대 건국신화가 아니라 중세에 만들어진 건국신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고대 건국신화와 달리 〈왕건신화〉는 신성성의 근거를 천상과 같은 초월적 공간에서 찾지 않고 신라의 성골, 당나라 천자와 같은 지상의 혈통과 중세 문명의 중심에서 찾는다. 건국주인 왕건 자신을 신성화하지 않고 풍수지리설 등을 활용하여 선대를 신성화하는 방식의 새로운 건국신화 제작 방법 또한 보여 준다. 이 방법은 조선의 건국자인 이성계의 선대 신화 제작에도 계승된다.

출처 高麗史, 三國史記.

참고문헌 고려건국신화 고려세계의 신화사적 의미(조현설, 고전문학연구17, 한국고전문학회, 2000), 고려건국신화의 구조와 특성 연구(박찬복,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조현설(趙顯卨)

전설

왕십리

往十里

정의 왕십리의 지명유래전설.

역사 왕십리와 관련한 이야기의 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실제로 무학은 이성계의 명에 따라 도읍을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이 과정에서 무학대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농부의 행동을 근거로 할 때 후대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지영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야사로서 무학이 한양 정도(定都)와 궁궐 축조에 관련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민중이 이 시기에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줄거리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후에 새 도읍지를 삼기 위해 무학대사에게 좋은 지세를 찾아낼 것을 명한다. 무학대사가 조선 팔도를 다니다가 왕십리에 와서 풍수를 보고 있었다. 그때 밭에서 소로 쟁기질을 하던 농부가 있었는데, 소를 보고 "미련한 소야, 십 리를 남겨 놓고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성을 냈다. 그 말을 들은 무학이 자기에게 한 말인 것으로 알고,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농부는 십 리를 더 가면 좋은 자리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후부터 농부가 밭을 갈던 곳을 왕십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변이 변이의 대부분은 무학대사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개 소를 이용해서 질책하는 방식을 취한다. 두 마리의 소가 쟁기질하는 장면을 본 무학대사가 농부에게 어느 소가 일을 잘하는가를 물어보자 농부는 무학대사에게 귓속말을 한다. 즉 큰 소리로 말하면 소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행동도 이해 못 하는 무학대사는 무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특이한 이야기가 채록된 바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왕십리』 보고서를 보면 중국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무학대사가 아닌 홍대장이란 분이 왕비를 십 리 밖으로 대피시켜서 왕십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일반화된 것이기보다는 제보자 집안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분석 〈왕십리전설〉은 〈무학을 나무란 농부〉계 설화의 하나인데, 여기에는 〈왕십리전설〉과 〈학터에 세운 궁궐〉이라는 두 유형이 있다. 이 설화의 중심인물은 이름 없는 농부인데, 무학의 어리석음을 소에 빗대어 질책하고 있어 서사구조가 같다.

특징 〈왕십리전설〉은 어떤 이유에서 왕십리로 부르게 되었는지 연유를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특히 조선의 건국과 관련한 인물인 무학대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성계나 정도전 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의지나 판단과 달리 민중의 지혜를 빌려 도읍지를 정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중의 역할이 더 중요했음을 알려 주는 특징이 있다.

의의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유교와 불교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하지만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를 해

결하는 인물로 농부나 노인 같은 평범한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을 건국하고 새로운 도읍지를 선정하는 데 무학대사처럼 지식층이 해결하지 못하고 민중의 지혜를 빌려서 완성한다는 점에서 풍수지리를 활용한 민담의 속성도 담고 있다.

출처 왕십리(서울역사박물관, 2009), 서울민속대관—구전설화(서울특별시, 199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468.

참고문헌 무학을 나무란 농부계 설화의 다층적 전승양상과 그 의미(이지영, 동아시아고대학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무학자초 연구(황인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필자 김종대(金宗大)

민담

왜적 물리친 여자 대장부

정의 왜적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한 여자 대장부에 관한 설화.

줄거리 김 정승이 이 정승을 찾아가 딸을 며느리 삼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켰다. 그런데 이 정승의 딸은 평범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 정승의 딸은 시집 온 후에도 언제나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남편에게 장기만 열심히 가르쳤다. 밤낮없이 장기를 가르치자, 서울 장안에서 남편이 장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 곧 여러 사람들이 내기 장기를 하러 몰려들었고, 어떤 큰 부자가 전 재산을 걸고 내기 장기를 하자고 청하였다. 남편을 따라간 이 정승 딸은 남편 옆에서 계속 훈수를 두어, 결국 남편을 내기에서 이기게 하였다. 그 후, 이 정승 딸은 전 재산을 팔아 심어놓은 박을 말려 검게 칠하고, 무쇠를 사서 철퇴와 투구를 마련하였다. 곧 전쟁이 나자, 미리 준비해 놓은 검은 박과 철퇴와 투구를 이용해 왜적을 물리쳤다. 이 정승 딸은 언제 왜적이 쳐들어 올 지를 알고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변이 왜적이 올 것을 대비한 며느리는 남편에게 장기를 가르친다. 그리고 왜적이 오자 다른 가족은 피난시키고 앞장서서 왜적을 물리쳤다는 각편도 있다. 구체적인 전쟁 준비 내용은 각편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남편에게 장기를 가르친 이유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똑같다.

분석 이 설화는 여성이인설화 중 하나이다. 정경민은 전형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행동으로 '숨어 있던' 여성이 자신 또는 가족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특이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설화를 '여성이인설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 남편을 내기 장기에서 이기게 하고, 왜적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는 주인공 여성은 전형적인 이인형 인물이다. 아내는 초인적인 힘으로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답을 구하고, 가족과 나라를 지킨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해 내기 어려운 것을 연상해 낼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체계의 우월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의의 여성이인설화의 주인공 대부분이 기혼 여성이다. 〈왜적을 물리친 여자 대장부〉도 주인공이 시집와서 남편을 가르치며 전쟁을 준비한다. 여성이 한 집안뿐 아니라 나라까지 구하는 이야기로, 효부와 열녀라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긍정적인 능력을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5, 756; 7-11, 800.

참고문헌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강진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 연구(신동흔,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학회, 1994), 여성 이인설화 연구(정경민, 대학원연구논집, 이화여자대학교, 2004), 이인설화의 의미 층위와 문제점(윤주필, 설화문학연구-상,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장사설화와 이인설화에 나타난 변혁과 안주의식(홍태한, 경희어문학14,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4).

필자 오정미(吳正美)

전설

용 못 된 이무기

정의 용이 되려다 인간의 방해로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 설화.

줄거리 공부를 많이 했지만 벼슬을 못한 가난한 양반이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베를 짜서 남편에게 주면서 양식을 사 오라고 했다. 남편은 베를 팔았으나 양식을 안 사고 돈을 들고 집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모여 구렁이를 죽이려고 하였다. 양반은 사람들에게 구렁이도 하나의 생명인데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섭하지 말라며 양반을 위협했다. 양반은 구렁이를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베를 판 돈을 모두 술값으로 지불했다.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왔기에 가족은 굶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풍수라도 하라며 패철(무덤 자리나 집터를 정할 때 풍수나 지관이 사용하던 나침반)을 얻어 와서 남편에게 주었다. 양반은 풍수에 문외한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섰다. 가다가 어떤 집에 초상이 나서 가 보니, 좋은 묏자리를 정하기 위해 풍수쟁이를 불러



운룡도
국립민속박물관

모으고 있었다. 양반도 그 자리에 갔으나 풍수에 아는 것이 없어 난감해 했다.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불쌍한 한 아이가 들어왔다. 양반은 자기 밥을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는 신통한 능력이 있어, 풍수에 문외한인 양반을 최고의 풍수가로 만들어 주었다. 양반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아이는 자신이 지난번 양반이 구해 준 구렁이라고 정체를 말했다. 그때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이무기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용으로 변신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이는 은혜를 갚고자 찾아온 것이라 하며, 이제 더는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사라졌다. 양반은 이무기 덕분에 부자로 잘살았다.

변이 이러한 유형의 설화는 많지 않다. 이무기가 용이 못 된 경우, 이무기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 설화처럼 과거에 자신을 도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도 있지만, 다른 설화는 용이 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내용도 있다.

분석 우리 문화에서 용을 지칭하거나 용과 관련된 말에는 '이무기, 이시미, 미리, 영노, 광철이, 바리'들이 있다. 보통 용은 긍정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무기는 부정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 못 된 이무기 심술만 남았다.", "용 못 된 이무기 방천 낸다." 같은 속담이 생겨났다. 이 설화에서 주인공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사람들이 구렁이를 죽이려고 할 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구해 주고, 굶주린 아이에게 자신의 밥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특징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사람의 방해로 용으로 승천하지 못하면, 이무기는 보복하는 것이 일반이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자신을 죽이고 방해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6, 567; 8-11, 474.

참고문헌 용사사상의 한국문학적 수용양상(이혜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국설화에서 용신신앙의 수용양상과 의미 연구(이동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이동철(李東哲)

전설

용 승천

龍 昇天

정의 이무기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용으로 승천한다는 설화.

줄거리 온 가족이 끼니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그래서 부인과 자식을 두고 정처 없이 떠났다. 깊은 산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하룻밤 지낼 곳을 찾다가 불빛이 새어 나오는 대궐 같은 집이 있어 들어갔다. 아리따운 처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목욕물도 받아 주고,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옷도 내어 주며 극진히 대접하였다. 두 사람은 잠자리도 하고 바둑도 두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살았다. 그러다 3년의 세월이 지나자, 두고 온 집안 소식도 궁금하고 부친의 제사도 있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그 말을 차마 못하고 있는데, 그 처녀가 미리 알고 두루마기를 준비해 주며 다녀오라고 했다. 집으



용호도
국립민속박물관

로 가기 전날 밤 자다가 처녀의 몸에서 구렁이 꼬리를 발견했다. 처녀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사실을 알고 남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리고 몇 가지 부탁을 했다. 첫째, 밖에서 한 노인을 만나거든 일절 답하지 말라고 했다. 둘째, 두루마기를 입고 집에 가서 제사지낼 때, 장을 옷고름에 세 번 적서 오라고 했다. 셋째, 집에서 나올 때 대문을 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뿌리치고 돌아오라고 했다. 넷째, 장을 적신 옷고름을 잘 간직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남자는 처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남자가 돌아오는 길에 지네가 변신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간장 적신 옷고름을 달라고 했다. 남자는 옷고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돌아와서 처녀에게 주었다. 처녀는 옷고름을 받아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옥황상제의 딸이었던 구렁이 처녀는 남자 덕분에 용으로 승천할 수 있었다. 구렁이를 도와 준 남자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부유하게 잘살았다.

변이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했다는 설화는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설화는 많은 용 승천 설화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이 유형의 설화는 이무기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용으로 승천했다는 이야기에 해당되고,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의 변이형이다. 이 외에도 이무기의 용 승천 이야기는 다양하게 전승된다.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서 천 년, 산에서 천 년, 물에서 천 년, 총 삼천 년을 견뎌야 한다고 전해진다.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인간에게 선을 베풀고,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런 기본 관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결부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로 전해진다. 인간이 이무기의 용 승천을 돕고 그 결과로서 큰 재물이나 넓은 땅을 얻기도 하고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며, 훌륭한 후손을 얻기도 한다. 이때 인간이 이무기의 용 승천을 돕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남들이 더럽다고 할 때 깨끗하다고 말하고, 흉하다고 할 때 잘 생겼다고 말하고, 뱀이라고 할 때 용이라고 말하고, 침을 뱉으라고 할 때 안 뱉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다. 반대로 이무기의 승천을 방해했을 때 승천 못한 이무기의 보복을 받는 이야기도 있다. 전국에 퍼져 있는 용 관련 지명은 거의 용 승천과 관련되어 있다.

분석 이 설화는 가난한 인간과 용으로 승천하기를 지향하는 이무기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은 가난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다.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주인공은 결국 집을 나와 자살을 결심할 정도의 지경에 이른다. 이때 구원자인 구렁이 여인이 나타난다. 구렁이 여인과의 만남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구렁이 여인은 경제적인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종류의 결핍을 안고 있다. 구렁이 여인의 결핍은 지상의 삶을 끝내고 하늘로 승천하는 일이다. 구렁이 여인은 천상에서 천제에게 죄를 짓고 지상으로 유배됐기 때문이다. 다시 승천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야만 했다. 수련의 내용은 보통 인간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그 선한 일을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다. 여기서 가난한 주인공과 용 승천을 지향하는 구렁이 여인의 만남은 상호 보완적이다. 주인공은 구렁이 여인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었고, 구렁이 여인은 주인공의 도움으로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방해자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를 물리치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 서로의 목적을 성취한다. 결국 이 설화는 겉으로는 주인공이 구렁이의 승천을 돕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과 동물, 본능과 이성, 경제와 윤리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 강조된다. 또한 이 설화의 각편에서 '활인(活人)의 덕(德)'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승천에 관심을 두는 신격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특징 설화에서 설정한 가난은 대부분 민중의 가난이다. 그런데 '가난은 하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민중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상상을 했을 것이다. 그 결과로 만들어 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용 승천〉 이야기이다. 용이 승천할 때는 반드시 큰 비를 내리는데, 이는 가뭄 해소라는 민중의 가장 큰 문제의 해결과 연결된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때 설화 속에 형상화된 이무기의 존재는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시혜하는 모습은 아니다. 인간이 항구적인 복을 얻고자 한다면 일정 정도의 윤리적 행위를 이무기에게 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인간과 이무기 사이에 암묵적인 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과 이무기에게 제시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고 있는 쪽이 인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의의 용은 상상의 동물로서 신이한 조화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설화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상의 동물인 용을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다. 설화 속 용은 일반적으로 농경 사회에서 비를 내려주는 존재로 숭앙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는 용이 승천하기 전 단계인 이무기의 한계를 이용하여 인간과 이무기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그 소재와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5, 205; 6-8, 501; 8-9, 746.

참고문헌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네처녀설화(이지영,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1997), 전남 용설화의 의미지향 연구(한정훈, 남도민속연구11, 남도민속학회, 2005).

필자 이동철(李東哲)

전설

용 싸움

정의 어떤 사람이 못에 사는 용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한쪽 용을 이기게 도와 준 보답으로 넓은 들을 얻었다는 전설.

역사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22장에 이성계의 조부인 도조(度祖)가 용 싸움에 끼어들어 백룡을 도와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것이 〈용싸움설화〉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도조가 흑룡을 쏘아 못의 물이 붉게 물들었다는 적지(赤池), 용싸움에 개입한 사람이 과부가 된 암룡과 부부가 되었다는 공검지(恭儉池)에 관한 전설이 기록되었다. 또 조선시대 읍지류에는 용을 알아본 보상으로 땅을 얻는 〈유금이들〉 유형이 보인다. 따라서 이 설화는 적어도 조선조 이전에는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옛날 황해도 장연군 용연면 용정리 마을에 활을 잘 쏘아서 활량으로 불리는 김 씨가 살았다. 어느 날 김 씨의 꿈에 마을 용소의 황룡이 나타나서는 자신이 수백 년 동안 지켜 온 소(沼)를 서해 청룡이 빼앗으려 한다면서, 김 씨더러 내일 있을 싸움에 와서 활로 청룡을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용소로 간 김 씨는 황룡과 청룡이 뒤엉켜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 활을 쏘지 못했다. 꿈에 또 황룡이 나타나 부탁했다. 다음날 아침에 용소에 가니 두 마리 용이 또 엉켜서 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김 씨가 청룡을 쏘아 죽였다. 그날 밤 꿈에 황룡이 나타나 은혜를 갚겠다며, 용소의 물을 줄 것이니 마을의 넓은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개간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성벽력이 치더니 용소와 황무지를 막고 있는 바위산에 큰 굴이 생겼다. 그곳으로 용소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넓은 황무지가 수천 정보의 논으로 바뀌었다. 그 후로 용이 나온 연못을 '용소', 개간한 벌을 '용정벌', 마을을 '용정리', 면을 '용연면'이라 부르게 되었다.

변이 전국적으로 못이나 소가 있는 곳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전설로, 용 싸움에 끼어든 주인공의 행위에 따라 상이한 결말의 변이가 나타난다. 곧 용 싸움을 돕는 데 성공하여 행운을 얻는 유형과 실패하여 패망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용비어천가』의 〈도조설화〉에서는 도조가 백룡의 부탁으로 흑룡을 활로 쏘아 죽이자, 백룡이 나타나 자손이 흥할 것을 예언했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그 예언의 실현이었다. 청주 한씨 시조도 용 싸움을 도와주고 들을 얻어 충청북도 청주시 방서동의 대머리마을을 개척한다. 행운형 가운데는 이렇게 들이나 농지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패망형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의 〈용당못전설〉처럼 용 싸움에 개입한 사람이 실수로 상대 용을 이기게 한 탓에 당사자가 죽거나 또는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이다. 용을 퇴치하는 수단은 활, 칼, 고함치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두 마리의 용이 못 지킴이의 권한를 두고서, 또는 승천을 다투며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공검지의 경우처럼 남편 용을 두고 처첩 사이인 두 용이 싸우기도 한다. 싸움에 끼어든 존재가 개국시조의 조부, 성씨 시조, 명궁과 같은 영웅적 존재에서부터 점차 부자, 머슴 등으로 바뀌는 것은 신화적 의미가 퇴색되면서 생긴 변이이다.

분석 용 싸움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용신들의 싸움이다. 황룡이 수백 년 동안 지켜 온 못을 서해 청룡이 빼앗으려고 한 데서 기인된 용들 간의 싸움은 결국 연못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관장하려는 용신들의 주도권 다툼이다. 경북 안동시의 선어대 용과 임하 용의 싸움, 또는 영덕군의 용당못과 오십천의 용들 간의 싸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때로 선악의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쪽 용, 곧 선룡이 인간에게 나타나 도움을 청함으로써 용 싸움에 인간이 개입하게 되고, 인간은 선룡을 도와 준 보상으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는다. 전설의 주인공이 토지를 얻는다는 결말은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전설 향유층의 소망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설에서 용신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목표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다. 용 싸움에 개입하는 인간은 안동 선어대의 마 씨 총각처럼 평범하고 결핍된 존재도 있지만, 선행 유형에서는 도조나 청주 한씨 시조처럼 영웅적 존재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설의 원초적 의미는 영웅적 존재가 신들의 싸움을 해결해 준 보상으로 나라 또는 마을의 토지를 얻는다는 것이었는데, 점차 평범한 농민들의 땅에 대한 욕망을 투영하면서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지역전설로 변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용싸움전설〉은 여러 지역의 〈용소전설〉들과 관련하여 전승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우제의 현장이었던 용소, 너무 깊어 명주실꾸리가 끝없이 들어간다는 용소, 악한 장자를 징치하여 생겨난 장자못 등이 용 싸움의 현장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용이 지키는 소(沼)'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설은 '용 싸움'이나 '영웅의 악룡 퇴치'와 같은 신화적 모티프가 근간이 된 점에서, 신화적 전설의 범주에 속한다. 들이나 논으로 주어진 보상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마을 공동체로 확산된 각편들이야말로 이 전설의 신화적 성격을 잘 말해 준다. 용신의 승천을 도와준 인간이 들을 증여받았다는 유형은 〈유금이들〉 이야기와도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용 싸움의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의의 토지가 용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은 용을 농경신으로 섬겨 온 민속신앙의 반영이다. 한편 용과 인간이 관계 맺는 양상을 통해서는 신인(神人)관계에 대한 민중적 사고를 읽을 수도 있다. 이야기 속에서 신은 절대적 우위에 있지도 않고, 인간에게 일방적 증여를 하는 존재도 아니다. 이러한 상호증여(相互贈與) 또는 상호시혜(相互施惠)의 신인관계는 제물을 통해 신과 소통하는 제의의 원리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용 싸움〉의 상징은 많은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싸움, 또는 싸움의 구조를 취하는 많은 민속놀이의 구조와도 연결되는 점에서,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262.

참고문헌 용, 그 사회와 문화(서영대 · 송화섭, 민속원, 2002),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이동철, 민속원, 2005), 현장론적 화소체계에 따른 용싸움에 끼어든 도조유형 설화의 구조분석 (김진형, 비교민속학38, 비교민속학회, 2009).

필자 천혜숙(千惠淑)

민담

용궁에서 보물 얻어온 사람

정의 어떤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용궁을 방문하였다가 진귀한 보물을 얻어온 후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는 설화.

역사 이 설화가 언제부터 전승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용궁에서 얻어온 보물 중의 하나인 해인(海印)이 신라 애장왕(哀莊王, 재위 800~809) 3년에 세워진 해인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각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설화 전승의 역사가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명종 때 예언가 격암 남사고(南師古, 1509~1571)의 저술로 추정되는 『격암유록(格菴遺錄)』에는 "海印 善者生獲之物 惡者死獄之物(해인은 착한 사람은 살리지만, 악한 사람은 죽이는 물건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줄거리 한 선비가 불쌍한 개를 돌봐주었는데, 실은 그 개가 용자(龍子)였다. 선비는 개를 돌봐준 대가로 용궁에서 해인을 얻어 집에 돌아와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어떤 중이 찾아와 해인사를 짓고자 한다며 해인을 빌려 달라고 했다. 선비가 해인을 빌려주었지만 중은 해인을 돌려주지 않고 팔만대장경 속에 숨겨 버렸다. 한편, 아들이 없던 왕은 당대의 유명한 점쟁이였던 정만인을 불러 관상을 보게 하였다. 정만인은 아들을 낳기는 어려우니 태자가 될 만한 아이를 알려 주겠다며, 대신 자신이 해인사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 그때 중국에서 칙사가 와서 만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보화를 뺏긴다고 하자, 나라에서는 백성 만인(萬人)을 죽였다. 정만인을 죽이라는 말이었는데, 엉뚱하게 백성 만 명을 죽인 것이었다. 그 후 정만인은 보화를 가지고 임금이 되었다. 지금은 그 보화가 용궁에 있는데, 만약 그것을 다시 받게 되면 일곱 개의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한다.

변이 보물의 명칭이 해인인 예가 다수이나, 빨간 구슬, 쇠, 하얀 병으로 나오기도 한다. 해인의 용도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나오는 예도 있다. 구조되는 동물로 자라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개가 등장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들 동물을 돌봐주는 주체로는 선비나 학자, 선생 등 대부분 학식 있는 사람이 많으나, 경주 최씨의 시조, 가난한 사람, 노재상 등이 나오는 예도 있다. 후에 해인을 다시 찾는 인물로 정만영, 정만용, 정 씨라는 상좌 등이 나온다. 한 사람이 실족하여 연못에 빠져 용궁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나 용왕으로부터 흰떡과 강아지 한 마리 또는 조그만 강아지와 돌을 얻어 바깥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물 밖에 나오자마자 강아지와 흰떡이 굳어 버려 보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사위, 하인, 시집간 딸 등이 그것을 훔쳐갔다는 각편도 있다.

분석 이야기 초반은 동물보은담, 중반은 해인사유래담, 후반은 신물(神物)탐색담 등 복합적인 구조로 짜여 있다. 이들 이야기를 이어주는 핵심 요소가 해인인데, 해인은 절 창건, 권력 쟁취, 불로장생, 죽을 사람을 살리는 주구(呪具)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제시된다.

의의 해인사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이기도 하다. 또한 이 설화에서의 '해인'은 북유럽 신화에서의 '절대반지'처럼 절대 권력을 보장해 주는 보물의 의미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3, 275; 7–13, 456.

참고문헌 용궁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이동철, 비교민속학28, 비교민속학회, 2005),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김승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최원오(崔元午)

전설

용다리

정의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의 동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용머리가 양쪽으로 붙은 돌다리에 관한 전설.

줄거리 군수의 집에 하인으로 있던 돌쇠가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어서 친정에 돌아와 수절하고 있는 군수의 둘째 딸을 사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가슴만 태우다가 둘째 딸은 상사병을 앓다가 죽고, 돌쇠는 용다리 위에서 개울물을 들여다보며 둘째 아씨를 부르다가 미쳐 버렸다. 딸이 죽고 나서 군수는 진주를 떠나게 되었는데, 용다리를 건너다가 돌쇠가 없어서 찾았더니 다리 옆 고목에 목을 매고 죽어 있었다. 이후 용다리 밑에는 진주에서 개구리가 제일 많이 모여 우는데, 짝을 지은 남녀가 지나가면 개구리울음이 그치기도 하고,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용다리를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변이 다리와 관련된 전설은 이 외에도 많다. 경남 밀양에는 스님과 처녀가 서로의 사랑을 걸고 다리 놓기 시합을 벌여서 처녀가 먼저 다리를 완성하자 스님이 사과하고 떠났다는 다리도 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선녀들이 쉬다 갔다는 '하늘다리'가 있고, 영암읍에 있는 덕진교는 덕진이라는 여인의 원혼이 원님에게 부탁하여 다리를 놓았다고 한다.

분석 이 설화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남녀에 관한 슬픈 전설이다. 이외에 상사병으로 죽은 애인을 그리워하거나 상사병을 앓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설로 〈상사바위〉가 있다. 예불과 독경에 빠진 총각을 사랑하던 아가씨가 기다리다 지쳐서 죽었는데, 죽고 나서 구렁이가 되어 총각의 몸을 감았으나 총각이 꿈쩍도 하지 않자 구렁이는 맥없이 빠져나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 절벽을 상사바위로 일컫는다고 한다. 용다리 아래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미쳐 버린 머슴의 통곡소리로 받아들인 것은 사람들이 전설이 진실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전설은 증거물만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시대나 인물이 덧입혀지기도 한다.

의의 다리는 예로부터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이어주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연결하는 기능을 했다. 놋다리밟기는 난을 피해 도망가는 공주를 환영하여 다리를 놓아 무사히 피난케 했다는 데서 유래했으며, 민속놀이의 하나인 답교(다리밟이)는 다리를 밤새도록 밟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다리가 병 없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일종의 주술적 행위의 모방이었다.

출처 내 고장의 전설(진주시, 1983), 전남의 섬(전라남도, 2002), 진주 옛이야기(안동준, 지식산업사, 2003).

참고문헌 구비문학의 세계(조동일, 새문사, 1980), 한국설화의 변이양상(최래옥, 구비문학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필자 박성석(朴性錫)

전설

용머리고개

정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동에 있는 용머리 형상의 고개에 얽힌 지명전설.

줄거리 전주천에서 자란 용이 천 년을 기다렸다가 전주천 물을 모두 삼키고 승천하다가 힘이 빠져 떨어졌다. 이때 용이 떨어진 곳이 완산 칠봉계곡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천 년에서 하루가 모자랐기 때문에 승천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 용이 한을 품고 몸부림치다가 머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 떨어진 자리가 용머리 형상이라 '용머리고개'라고 하였다. '용머리고개'에는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또 다른 유래가 있다. 몹시 가뭄이 든 어느 해에 강감찬 장군이 전주천을 건너는 초립동(草笠童)을 불러다가 왜 이런 가뭄을 못 본 체 지나느냐고 하면서, 당장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고 호통을 쳤다. 초립동은 잠시 인간으로 둔갑한 용이었는데, 강감찬 장군의 꾸짖음에 비를 내리게 하고 떨어져 죽었다. 그리고 용이 떨어져 죽은 곳을 '용머리고개'라고 하였다 한다.

분석 두 전설은 모두 산의 모양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용머리라는 지명은 용의 머리가 떨어진 자리라서 붙여졌다는 것으로, 풍수적으로 어떤 지형의 유래를 설명하고자 한 지명전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천 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승천하지 못한 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비교적 단조롭고, 강감찬이 가뭄을 해결한 지혜를 덧붙인 이야기는 좀 더 흥미를 자극한다.

특징 지명전설은 어느 지역의 지형과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전승되므로 그 지역 안에서 생명력을 갖는다. 용은 우리나라 지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이다. 전국적으로 용머리 또는 용두라는 지명이 많고 이에 얽힌 지명전설도 비슷한 것이 많다. 풍수지리적으로 용은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민간신앙과 관련해서는 비를 관장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수호신으로 숭배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명에 얽힌 전설에서 용은 매우 친근한 존재로 자주 등장한다.

의의 지명전설이 대개 지명의 유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므로 이야기가 짧은 경향이 있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삶의 공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형과 삶의 모습이 변하더라도 지명전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오래 간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전주시지(전주시청, 1997).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전주문화원, 문예연구사, 2001).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국토지리정보원, 2010).

참고문헌 전주 지역전설의 현대적 활용(서해숙, 남도민속연구9, 남도민속학회, 2003).

필자 김월덕(金月德)

전설

용문사

龍門寺

정의 은행나무의 유래와 예언 능력 등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얽힌 전설.

줄거리 신라 신덕왕 때 창건된 용문사는 이 절의 천왕목(天王木) 역할을 하는 은행나무가 유명하다. 이 은행나무는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세자였던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용문사에 들렀다가 심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義湘大師)가 꽂은 지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자란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은행나무는 신령스러운 능력이 있어서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를 예견하곤 했다고 한다. 8·15 광복과 6·25전쟁 때는 나무가 우는 소리를 내어 변고를 미리 알렸고, 고종이 승하하셨을 때에는 커다란 가지 하나가 부러져 슬픔을 나타내었다. 언젠가 이 나무의 영험함을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댄 적이 있었는데, 나무에서 피가 쏟아지고 맑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며 천둥 번개가 쳤기 때문에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미의병(1907) 항쟁 때 일본군이 용문사에 불을 질렀을 때도 이 나무만 타지 않고 무사했다.



용문사 은행나무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2001.12, 한국관광공사

분석 용문사 사찰 내의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은행나무로 알려져 있다. 마의태자가 심었다거나 의상대사가 꽂은 지팡이가 자라 은행나무가 되었다는 삽목전설(揷木傳說) 유형의 유래담은 용문사의 창건연대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사찰과 이 은행나무의 역사가 함께 함을 말해 준다. 용문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과 화재를 겪었으나, 신기하게도 이 은행나무만은 화를 당하지 않고 1,1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고 있다. 용문사의 사천왕전(四天王殿)이 불탄 뒤부터는 은행나무가 천왕목이 되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아직도 구전되고 있는 은행나무의 영험담들은 이 나무가 서낭나무로 받들어지며 지속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조선 세종(世宗) 때 정삼품(正三品)보다 더 높은 당상직첩(堂上職牒)을 하사받았다는 것 또한 이 나무의 신성성이 국가적으로도 인정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특징 수목숭배(樹木崇拜)는 고대로부터 이어 온 자연종교현상이며, 전국 각지의 노거수(老巨樹)에 대한 전설은 이러한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용문사 은행나무는 천 년 이상의 수령만큼이나 다양한 전설들이 이야기되어 왔는데, 지팡이가 뿌리를 내렸다든지, 나라의 큰일을 예견했다든지, 나무를 베려 하자 화를 당했다든지 하는 우리나라 노거수전설의 보편적인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접할 수 있어 주목된다.

출처 양평군지(양평군지편찬위원회, 199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53.

참고문헌 경기도로 떠나는 사찰기행(우리사찰답사회, 문예마당, 2005). 어느 인문학자의 나무세기(강판권, 지성사, 2002).

필자 김준기(金俊基)

전설

용미리석불입상

龍尾里石佛立像

정의 고려의 원신궁주(元信宮主)가 석불을 조성하고 그 미륵불에 빌어 자식을 얻었다는 전설.

역사 이 전설은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곧 고려 선종이 후사를 얻기 위해 원신궁주를 들였다고 하는 대목이 나타난다.

줄거리 고려 13대 왕 선종이 후사를 두지 못해 원신궁주를 후궁으로 들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기를 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궁주의 꿈에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長芝山)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틈에 사는 사람들인데, 배가 매우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꿈에서 깬 궁주가 이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선종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내 사정을 알아오게 하였다. 장지산에 다녀온 사람은 "산 아래에 큰 바위 둘이 나란히 서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은 "그 바위에 두 도승을 새기고 절을 지어 불공을 드리라."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궁주에게 태기가 있어 기다리던 왕자 한산후(漢山候)가 탄생했다고 한다.

분석 이 전설은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장지산 미륵불의 조성 내력을 담고 있다. 함께 지어진 사찰과 연계해 볼 때 이 전설은 사찰연기담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사찰연기담으로서의 〈용미리석불입상전설〉은 왕자의 탄생과 맞물려 기자(祈子)의 대상이 되고, 기원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과 연계된 여러 변이형이 파생되기도 하였다. 고 이승만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 석불 앞에서 득남기도를 해 이승만을 낳았다고 하는 것도 한 예이다. 곧 득자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존의 전설에 바탕을 두고 아무개도 이 석불에 빌어 자식을 얻었다든



용미리석불입상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문화재청

가, 이렇게 얻은 자식은 크게 된다더라와 같은 파생담이 나타난다. 한편, 김용덕은 미륵불 신앙에 대해 분석하면서 용미리 석불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징 애초 이 전설은 용미리 석불의 미륵불로서 이적 시현과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였을 법하다. 왕가의 후손을 석불 조성의 공덕으로 두게 되었다고 하는 점도 나타나지만, 그보다는 미륵불을 통한 후세의 안정과 번영, 불국토 지향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전설상에 석불의 원력으로 왕손이 탄생하였다는 대목으로 말미암아 기자석불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따라서 인근 사람들이 후사를 구하기 위해 이 석불을 찾아와 기자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내세를 구원하는 부처로서 미륵불이 자식을 점지하는 신통력을 지닌 기자불로 변모한 것이다.

의의 용미리 석불의 조성 내력과 사찰연기적 성격이 담긴 전설이다. 석불을 조성하여 득남을 이뤘다는 사례로 후대인들에게 자식을 비는 대상이 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경기문화재총람(경기도, 2006), 파주시지(파주시, 2009).

참고문헌 미륵불신앙의 현장 연구(김용덕, 한국언어문화43,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필자 박종익(朴鍾翼)

전설

용소

龍沼

정의 용이 살거나 승천하면서 만들어졌다는 못에 관한 전설.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 만파식적 조에 용이 승천한 자리가 못이 되었다는 내용을 가진, '용연(龍淵)'의 지명유래 설명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용이 살고 있거나 용과 관련한 신이한 현상을 보여 주는 각지의 못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간행되었던 전국의 읍지에도 해당 자료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이 유형 전설의 형성과 전승의 오랜 연원을 확인할 수 있다.

줄거리 용이 살거나 승천했다는 못에 관한 전설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용이 살았다는 못의 지형에 관한 이야기, 용이 승천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지형, 기우제를 지내는 공간으로서 용소(龍沼), 연못의 얼음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는 용경(龍耕), 용 싸움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 만파식적 조에서 전하는 용연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신문왕이 동해의 용으로부터 검은 옥대와 대나무를 받고 돌아오는 중 기림사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 태자 이공(理恭)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하례하고는 천천히 살펴보고서 "이 옥대의 여러 쪽은 모두 진짜 용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왕은 "네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라고 하니 이공이 "이쪽 하나를 떼어 물에 넣어 보십시오." 하고 말했다. 이에 옥대의 왼편 둘째 쪽을 떼서 시냇물에 넣으니 금방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땅은 이내 못이 되었으니 그 못을 '용연'이라고 불렀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 지역에서 구전되는 〈용소전설〉은 몇 개의 삽화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강물을 따라 올라가면 농업용수로 쓰려고 막아 놓은 용소보(龍沼堡)가 있는데, 얼마나 깊은가 하면 옛날에 명주실꾸리에 감긴 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거기에 돌멩이를 매달아 못 안에 집어넣어도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둘째, 옛날에 용이 거기서 등천(登天)을 했다고 해서 용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거기에 길이가 십여 미터 되는 굴이 하나 있는데, 용이 하늘로 올라갈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셋째, 옛날에 명주실꾸리 하나를 다 집어넣어도 모자랄 정도로 물이 깊으니, 당시 글깨나 하는 양반들이 거기에 모여서 통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다니면서 시를 읊으면서 술도 마시고 즐기기도 했다고 한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의 〈용소전설〉은 기우제 지내는 공간의 면모를 보여 준다. 여름에 모 심고 난 후 가뭄이 심하면 그곳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개를 잡아서 개 피를 바위에다 칠하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도 가뭄이 심하면 그렇게 한다고 한다.

변이 용소 관련 전설들은 대체로 해당 지형에 대한 설명 또는 지형 형성의 유래에 대한 간단한 설명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이 살았거나 승천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지형에 관한 설명이 기본요소가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기우제 지내는 장소로서 활용된다는 사실이 설명되거나 용경에 관한 내용이 제시된다. 용이 승천하면서 만들어진 못에 관한 내력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 예컨대, 황해도 옹진군 용연리 용연의 경우, 옛날에 큰 우물 옆을 상여 행렬이 지나가다 상여꾼이 덥고 피로하여 잠깐 쉬려고 하니 갑자기 땅이 울면서 우물이 함몰되고 상여도 떨어지더니 물이 솟아오르면서 흰 용이 나타나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뒤로 이곳은 못이 되었다고 한다. 반면, 경상북도 경주시 기림사 용연은 용으로부터 받은 옥대의 한쪽을 떼서 시냇물에 넣으니 금시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땅은 이내 못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용소에 관한 전설에서 기우제 관련 내용은 구술해도 용소의 지명 유래에 관한 내용은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에 따라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내지 않거나 지낸다고 해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승 지역의 특수성 또는 구연자의 망각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용소에 관한 전설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사례가 많은 유형으로 용이 살았다는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물이 얼마나 맑고 깊은지 명주실꾸리를 다 넣어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못의 깊이를 부각하지만 그것은 못의 크기와 못이 담고 있는 물의 양을 동시에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지형의 특성은 용이라는 동물을 신성시하는 민간의 신앙 관념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 둘째, 용이 승천하면서 만들어진 지형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용은 앞서와 같은 큰 못에서 승천하기도 하지만 경주시의 용연이나 옹진군의 용연처럼 우물이나 시냇물에 인연하여 승천하면서 못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또한 물과 용의 관련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용소는 한결같이 수심이 깊고 수량도 풍부하여 물에 대한 다양한 상징과 상상력이 작동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셋째, 용소는 기우제를 지내는 공간으로도 활용되는데,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 민간에서 시도하는 방법은 개의 피를 칠해 바위를 오염시킴으로써 비를 유도하는 기제이다. 맑고 정결해야 할 신성 공간을 불결하게 만듦으로써 그 부정을 씻어 내도록 유도한다. 이는 용소가 비를 관장하는 용의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다. 비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에서 민간의 기우 관련 주술의 기제를 엿볼 수 있다.

특징 〈용소전설〉은 하나의 독립적 유형이라기보다, 용과 관련된 못에 관한 다양한 지명전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용이 살고 있거나 용과 관련하여 형성되었다는 공간에 대한 내력을 소박한 언어로 전하는 〈용소전설〉에는 용에 대한 신앙적 관념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한국인의 기층적 생활문화의 단면이 잘 나타나 있다.

의의 용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중요시되어 온 신성 상징이므로 용신 관념은 한국인의 세계관, 상징체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용소는 물의 원형적 이미지와 용의 상징성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용소전설〉은 용과 관련된 민간의 오랜 신앙적 관념과 원형적 상징성에 기초한 신앙적·생활적·문화적 상상력의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출처 三國遺事,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218; 2-6, 187.

참고문헌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한국설화문학의 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필자 강진옥(姜秦玉)

자료

용재총화

慵齋叢話

정의 조선 전기 성현(成俔, 1439~1504)이 지은 잡록집(雜錄集).

내용 『용재총화(慵齋叢話)』는 성현이 1499~1504년 사이에 지은 잡록집으로서, 1525년(중종 20) 처음 간행되었다. 규장각에 3권 3책의 필사본과 석판본 두 종류가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5권 5책의 목판본이 있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는 낙질본이 있다. 이후 1909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간행한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 때부터 조선 성종 시기까지 문장가·명필가·화가·음악가 등의 인물, 도읍지·전적·도자기·비문 글씨·활자 등의 문화, 예조·승정원·장악원·성균관·집현전·언문청·내경청·조지서·빙고·제단·과거 등 조선 초기의 관청과 제도, 처용희(處容戲)·관화(觀火)·구나(驅儺) 같은 궁중 행사, 납채(納采)·신참례(新參禮)·세시풍속·권초례(捲草禮)·불교 의례 등을 기록했다. 독특하거나 장난기 많은 인물들을 둘러싼 이야기인 사대부일화나 평민일화들을 많이 담고 있다. 시화(詩話)도 많다. 우리나라 역대 시문을 총괄해 간략히 평한 것을 비롯해, 더러는 시구 하나를 따져 평하기도 한다. 또 편찬자 가문의 일들과 가족 관련 일화들도 있고 속담이나 고담, 전설이나 전기(傳奇)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새의 화생(化生), 조수(潮水), 꿩의 맛, 유사한 사물, 팥꽃의 색깔, 개구리 울음소리, 황새 꽁지의 색깔 등을 다루기도 했다.

이 책의 다양한 기록은 오늘날 사회학·민속학·구비문학은 물론 한국학 연구의 자료로서 귀중하다.

필자 이강옥(李康沃)

전설

용추폭포

龍湫瀑布

정의 용(龍)이 승천(昇天)하면서 남긴 폭포나 못과 관련된 전설.

줄거리 전라남도 해남(海南) 대흥사(大興寺)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물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거기에 각각 '용둠벙'이 있다. 어느 날 아래 용둠벙 근처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솟더니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무꾼들은 바위와 나무 밑으로 비를 피했다. 그때 갑자기 용둠벙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뭔가 커다랗고 이상한 것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나무꾼들이 쳐다보니까 땅으로 뚝 떨어졌다. 나무꾼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 용이 이무기로 변해 있었다. 그 이무기는 마을 사람을 많이 괴롭혔다.

변이 이 전설은 용이 소(沼)에서 승천(昇天)했다는 공통된 모티프를 보여 주며, 그와 관련된 증거물로 용소(龍沼), 용연(龍淵), 용둠벙, 용추골(龍湫-), 용추폭포(龍湫瀑布) 같은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용이 승천하려다가 인간에게 들켜 머리만 용이 되고 몸은 뱀으로 남았다거나, 승천하다가 추락했다는 변이형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승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용의 승천 모티프와 함께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용이 승천한 곳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는 내용이 첨가된 변이형도 있다. 이때 용에게 바치는 제물도 지역에 따라 개의 머리, 개의 피, 돼지, 생게로 다양한 변이 양상을 보인다. 기우제를 포함한 지역적 사례로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용추폭포,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용추폭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상리 용소, 경상북도 안동군 북후면 옹천동 용바우 들이 있다.



용추폭포
경남 함양군, 한국관광공사

분석 이 전설은 용의 승천과 함께 기우제를 지낸다는 내용이 결합한 예가 많은데, 이는 기우제와 관련한 민간의 풍속과 상관성이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보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호랑이의 머리를 한강과 박연(朴淵)에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물속에 있는 용을 자극하려는 것인데, 용이 화가 나면 비를 뿌린다는 민간신앙의 사고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 전국에서 구비전승되는 용과 관련한 지명전설에서도 기우제를 지낼 때 개를 잡아서 개의 피를 바위에 바른다거나, 생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 용이 더럽다며 내친다고 전해진다. 가뭄이 들면 용과 관련된 연못이나 수물에 피를 뿌려 흐리게 해서 용을 화나게 하는데 맑은 연못이 흐려졌을 때 연못을 정화시키기 위해 용이 비를 내린다. 이런 풍속은 모두 용을 수신(水神)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뭄이라는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신에 대한 격렬한 모욕 행위를 통해 '비'로 상징되는 재앙을 자초한 것인데, 이는 일상적인 제의와는 다른 기우제만의 특징이다.

특징 이 전설은 단순히 용의 승천 이야기와 그에 따른 증거물인 지명전설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 풍속인 기우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의의 이 전설은 용의 여러 성격 중에서 물을 지배하는 수신(水神)으로서 용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3, 524; 2-5, 218; 6-5, 189; 6-12, 929.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가평의 지명과 유래-상(가평문화원, 2001), 우리문화의 상징세계(김종대, 다른세상, 2001), 한국설화문학연구(장덕순, 박이정, 1995),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필자 이홍우(李洪雨)

민담

우렁각시

정의 우렁이에서 나온 처녀를 얻은 총각이 금기를 어겨 아내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중국 문헌에는 일찍부터 상서로운 우렁이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우렁이가 여자로 변하는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당대(唐代) 문헌인 『집이기(集異記)』 중 〈등원좌(鄧元佐)〉라는 전기(傳奇)와 도잠(陶潛, B.C. 365~474)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수신후기(搜神後記)』에 〈우렁각시(螺女形)〉가 있다. 후세의 인용자들이 〈백수소녀(白水素女)〉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수신후기』에는 주인공을 '후관사단(候官謝端)'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27년에 나온 정인섭의 『온돌야화』에 〈조개 속에서 나온 여자〉로, 1946년 손진태의 『한국설화문학의 연구』에 〈나중미부설화〉로 실려 있다.

줄거리 옛날 시골에 살림이 어려워 장가도 못 가는 가난한 노총각이 노모와 둘이 살았다. 어느 날 논에서 일하다가 "이 모를 심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라고 하니 "나랑 먹고 살지."라는 소리가 들렸다. 신기한 생각에 다시 한 번 "이 모를 심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라고 하니 또 한 번 "나랑 먹고 살지."라고 하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논가에 고동이 하나 있어 주워 와서 집 장롱 속에 깊숙이 넣어 두었다. 그날부터 모자가 일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맛나게 볶은 꿩고기와 차진 밥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신기하게 여긴 총각이 하루는 일을 나가는 척하다가 몰래 숨어 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장롱 속 고동 안에서 선녀같이 예쁜 처녀 하나가 홀연히 나와 밥을 짓기 시작하였다. 총각이 너무나 신기해 얼른 뛰어들어가 처녀를 꼭 부여잡고서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하였다. 처녀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 사흘(석 달, 삼 년)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미 급한 총각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처녀를 졸라 그날부터 부부가 되어 같이 살았다. 신랑은 혹시 누가 색시를 데려갈까 두려워 절대로 바깥출입을 못 하도록 단속하였다. 하루는 색시가 들에서 일하는 신랑이 먹을 점심을 지었는데, 시어머니가 누룽지가 먹고 싶어서 며느리에게 밥을 이고 가게 시켰다. 신랑에게 가던 중 사또 행차를 만나 길을 피해 숲에 숨었는데, 원님이 보니 숲 속에 무언가 환한 빛이 보였다. 신기하게 여긴 원님이 하인을 보고 숲 속에 빛이 나는 곳을 찾아가서 꽃이면 꺾어오고, 샘이면 물을 떠오고, 사람이면 데리고 오라고 시켰다. 하인이 숲에 가 보니 어떤 미인이 밥 광주리를 내려놓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하인이 가자고 팔을 잡아끄니 색시는 은가락지를 빼어 주며 살려 달라고 했으나, 결국 원님은 색시를 가마에 싣고 가 버렸다. 신랑은 색시를 찾으러 관원에 갔다가 못 찾고 억울하게 죽어 파랑새가 되었다. 원님에게 잡혀간 색시는 밥도 안 먹고 원님을 거역하다 죽어 참빗이 되었다.

변이 행복한 결말로 바뀌는 변이가 일어난다. 원님에게 잡혀간 색시가 웃지를 않자 원님이 색시의 소원대로 거지 잔치를 열어 주고, 색시를 찾아온 신랑이 새털옷을 입고 춤을 추자 색시가 좋아서 웃는다. 원님이 신기해서 신랑에게 곤룡포와 깃털 옷을 바꾸어 입자고 한다. 신랑이 곤룡포를 입자 색시가 얼른 당 위에 오르라고 소리쳐 원님은 쫓겨나고, 신랑은 벼슬을 얻어 색시와 행복하게 산다. 한편 원님에게 들키는 변이도 있다. 색시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빈둥대는 남편이 딱해서 색시가 자화상을 그려 주며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쳐다보며 일하라고 시켰다. 마침 바람결에 화상이 날아가 원님의 눈에 띄어 색시가 원님에게 잡혀가기도 한다. 그리고 색시를 찾고자 원님이 사는 집을 향해 굴을 파다가 굴이 무너져 남편은 죽고, 그곳에는 남편의 이름을 딴 '마십이굴'이 생겼다는 전설도 있다.

분석 동물이 변해 여자가 되고 가난한 노총각과 맺어지는 이류교혼담으로, '금기와 금기의 위반' 구조이다. 미모의 민간 여자를 높은 신분의 남자가 억지로 빼앗아 가는 관탈민녀형 모티프가 강조된다. 변신으로 신이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밥은 여자가 해 주어야 하므로 남자에게 여자의 가치는 지극히 일상적이다.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라는 삼각관계에서 난관이 발생하는 변이 또한 신이한 이야기가 가족관계라는 현실적인 민담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징 남녀결연담은 난관을 통해서 주인공의 성년제의와 여성수난 모티프를 표현한다. 장애는 주로 신분적 차이로 설정되는데, 우렁각시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선녀로 묘사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신분, 더 유능한 처지에 있다. 평범하지 않은 만남과 금기를 어긴 결합이 비극적 결말을 자초하며 불행의 실마리는 권력에서 온다. 여성은 남성의 삶에 중요한 가치로, 남성들 사이에서 뺏고 빼앗기는 대상이 된다.

의의 우렁이는 달동물이고 땅, 여성, 야래자와 같은 상징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탈민녀형 설화는 〈춘향전〉의 근원설화로 주목받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2, 163; 5-7, 191; 8-7, 541.

참고문헌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최래옥,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최인학, 민속원, 2004),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중소설설화비교연구(김현룡, 일지사, 1976).

필자 김대숙(金大琡)

신화

우목낭상

寓目囊箱

프레이 전실 자식 눈 뺀 계모

민담

우물명당

상호화소 한우물

정의 사후에 동네 대동샘에 신체 일부를 매장하여 가문을 일으키려 했던 풍수가 비밀이 폭로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옛날에 이름난 풍수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자신을 묻을 명당을 알려 주려 하였다. 유언을 남기려던 풍수는 부인에게 당신은 남이니 나가라고 하였다. 풍수는 아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목을 베어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동네 대동샘에 넣으라고 했는데, 밖에 있던 부인이 이를 엿들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은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시신을 대동샘에 넣었다. 석 달 열흘이 채 되지 못한 어느 날, 풍수의 아내가 아들과 다투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이 대동샘을 팠더니 막 용이 되어 승천하려던 풍수의 시신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석 달 열흘을 채우지 못해 결국 풍수의 집안과 그 후손들은 망하고 말았다.

변이 일부 각편에는 묻힌 풍수의 시신이 용이 아니라 검은 소가 되어 일어나려다 사라지는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그 밖에 아내가 아닌 풍수의 아들이 비밀을 폭로하기도 하고, 풍수의 딸이 비밀 폭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비극적 사건으로 귀결되지 않고, 풍수의 시신을 동네 대동샘에 묻은 후 실제로 가문이 번성하는 것으로 끝맺는 이야기들도 있다. 이런 각편에서는 풍수의 재생으로 태어난 아이가 무사로 성장하여 나중에 그를 위한 사당이 지어지기도 하고, 풍수인 아버지와 아들들이 저승의 왕이 되기도 한다.

분석 〈우물명당〉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풍수설화의 관점에서 무덤에 관한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관점을 분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화적이고 민속적인 관점에서 재생 공간으로서 우물이나 무덤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비극 서사의 관점에서 금기 파기와 그로 말미암은 비극적 파토스(pathos) 분석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밀 폭로의 주체로 등장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풍수 아내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기도 한다.

의의 비극적 플롯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로, 금기 파기와 이로 말미암은 비극적 결말의 의미를 분석하기 쉬운 작품이다. 또한 금기 파기가 비밀 폭로로 이뤄지고, 이 폭로를 여성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해석 또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설화는 특히 재생 공간으로서 우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고, 용이나 검은 소로 승천하는 모티프에 개입된 변신과 존재 이행의 신화적·주술적 전통을 분석하는 설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출처 강원설화총람1, 4(최웅 외, 북스힐, 200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204; 628; 4-5, 87; 4-6, 560; 6-3, 36; 7-8, 685; 7-15, 52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2, 28.

참고문헌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과 여성의 죄(김영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한국 풍수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 분석(신월균,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필자 김영희(金昤希)

용어

우부현녀

愚夫賢女

정의 아버지보다 현명한 딸(愚父賢女), 남편보다 지혜로운 아내(愚夫賢女)가 등장하는 설화 유형.

내용 〈온달〉, 〈서동〉, 〈숯구이 총각과 생금장〉, 〈내 복에 산다〉, 〈복진 며느리〉, 〈삼공본풀이〉 등의 신화, 전설, 민담에 두루 나타나는, 남자보다 더 지혜로운 여자가 등장하는 설화 유형이다. 애초에는 남자 쪽이 여자 쪽보다 더 힘 있고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두 사람이 헤어져 시련을 겪고 난 후, 전도된 입장에서 다시 만난다. 금(金)과 말[馬] 등의 문화적인 모티프가 나타나고, 일본, 몽고, 인도에까지 널리 퍼져 있는 오래된 전승이다. 이는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에 눌려 살았던 여성들의 보상심리가 만들어 낸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계 혈통 중심에서 부권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온 딸이 자신보다 문화 단계가 낮은 남성을 만나 금(철)을 녹이는 기술을 가르쳐 세력을 기른 뒤 원래 자신이 소속했던 집단을 복속시킨 역사적 사실이 신화적으로 표현되어 전승된 민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필자 김대숙(金大琡)

용어

우애담

友愛談

정의 형제 사이의 정과 사랑을 소재 및 주제로 한 설화.

내용 우애담(友愛譚)은 가정 내에서 올바른 형제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애담은 형제 관계의 성격에 따라, 형제 협력담, 형제 불화담, 바보 형제담으로 분류된다. 형제 협력담은 우애 좋은 형제가 서로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형제 불화담은 우애 나쁜 형제가 불화하여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바보 형제담은 바보인 형제가 하나 있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선동화집』, 『조선민담집』, 『한국구전설화』 등 해방 이전에 기록된 설화 자료집에는 대략 60여 편의 우애담이 존재한다. 형제 협력담에는 〈삼형제〉, 〈똑같은 재주〉, 〈물속의 구슬〉, 〈칠형제의 선행〉 등의 작품이 있다. 이 유형에서 형제들은 착하고 효성스러우며, 성실하고 공손하며, 서로를 돌보는 품성이 있다. 이들은 재물 욕심으로 인해 다투지 않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형제 불화담에는 〈착한 아우와 악한 형〉, 〈금방망이와 은방망이〉, 〈놀부와 흥부〉, 〈말하는 남생이〉 등의 작품이 있다. 이 유형에서 탐욕스런 형들은 장자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을 내쫓는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형제 불화의 원인이 되며, 탐욕스런 형제가 징계를 받고 착한 형제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 유형의 주 내용이다. 바보 형제담에는 〈바보 형〉, 〈미련한 형〉 등의 작품이 있다. 이 유형은 지적 장애를 겪는 형제와 동거하는 가족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분노, 슬픔을 보여주며, 고통의 서사화를 통해 '소통'의 의미를 강조한다.

필자 권혁래(權赫來)

민담

우연히 들어온 업

정의 우연한 기회에 업이 들어오거나 업을 업고 들어와서 집안이 부유해졌다는 설화.

줄거리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업을 업고 들어와 그 뒤로 집안이 부유해졌다는 이야기이다. 경상남도 거제시에는 종이장수가 종이를 팔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짊어지고 온 종이에 뱀이 실려 와서 이후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강원도 속초에는 시주를 받으러 다니던 스님이 밀, 보리를 받아 보자기에 싸서 짊어지고 오는데, 너무 무거워 살펴보니 구렁이였던 것이다. 이 구렁이가 보자기에서 나와 집 마루 밑으로 들어간 뒤로 스님이 시주를 나갈 때마다 돈과 쌀이 생겨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영월에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간 여자가 있었는데, 잘사는 친정집에서 노비가 떡을 짊어지고 왔다. 짐이 너무 무거워 살펴보니 그 안에 큰 뱀이 있어서 그 뱀을 잘 모셨더니 이후로 집안이 부유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꿈속에서 업이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나가자 따라가 보니 사돈댁으로 들어간 뒤로 사돈댁이 만석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외에 경상북도 성주군에는 등짐장수를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죽으려고 서낭당에 갔는데, 아이가 있어 업고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이 아이가 업이었고, 이후 등짐장수는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분석 업은 재복을 관장하는 가신(家神)이다. 그래서 업이 보이면 함부로 잡지 않는다. 업을 잡으면 그 집이 망한다고 하



업을 모셔 놓은 업가리
경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005.6, 김태우

며, 집을 허물면 업이 미리 알고서 먼저 나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실제 업이 보이면 집안이 망할 징조라 하여 조심스러워하고, 업이 보이는 곳에 흰 죽을 쑤어서 바치고 비손하는 간단한 의례를 행하기도 한다. 대체로 구렁이를 업이라 하는데, 업은 사람들의 눈에 좀처럼 띄지 않는 곳에 있다. 그래서 업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광이나 지붕의 용마름 밑 같은 집 안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업을 '수곡신(守穀神)' 혹은 '업왕(業王)'이라 칭하기도 한다. 업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업이 보여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전하는데, 대체로 전승자가 실제 그러한 경우를 보거나 들었다는 이야기 방식을 취한다.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살필 수 있는 〈우연히 들어온 업〉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격에 대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의의 〈우연히 들어온 업〉은 업에 대한 민중적인 인식과 신심(信心)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다. 또한 구렁이를 대표적인 업의 상징물로 보는 것은, 구렁이의 실제 모습보다는 뱀이 갖는 신성성을 숭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464; 2-9, 825; 7-5, 307; 8-1, 326; 8-2, 145.

참고문헌 가택신앙과 주거공간의 상관관계(서해숙, 남도민속연구7, 남도민속학회, 2001),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필자 서해숙(徐海淑)

민담

우연히 잡은 명당

정의 지관(地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잡아 준 자리가 진짜 명당이었다는 설화.

역사 우리 조상들은 조상의 묘와 관련된 음택풍수를 중시해서, 오래전부터 풍수담이 풍부하게 전해져 온다. 도선이나 남사고와 같은 명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 가짜 풍수에 의한 명당 상점 이야기도 전국적으로 풍부하게 전승된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까지 풍수설이 신봉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을 볼 때, 가짜 풍수 이야기도 조선 후기에 생성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승된다고 할 수 있다.

줄거리 공부만 하던 사람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지관 노릇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패철(佩鐵)을 구해다 준다. 할 수 없이 패철을 옷에 달고 집을 나서는데, 어느 부잣집에서 부친상을 당하여 명당을 구하고 있었다. 그 집에 여러 지관이 머물고 있었는데, 공부만 하던 사람이 명지관 행세를 하자 맏상주가 다른 지관들을 돌려보내고 공부만 하던 사람에게 묏자리를 잡아 달라고 부탁한다. 며칠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은 그는 명당자리를 잡아 주겠노라고 하고는 냅다 도망을 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상주들이 뒤쫓아 오자, 할 수 없이 자신이 넘어진 자리를 가리키며 이곳이 명당이니 그 자리에 묘를 쓰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자리가 진짜 명당이었다.

변이 각편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각편에 따라 가짜 지관 행세를 하는 사람이 공부만 하는 선비이거나 가난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지관 노릇을 한다거나 도망가다 넘어진 자리가 명당이었다는 점 역시 같다.

분석 〈우연히 잡은 명당〉은 가짜 지관이 우연히 잡은 자리가 진짜 명당이었다는 것으로 풍수설화 중 하나이다. 이야기 속에서 우연한 계기로 가난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운명론적 세계관과 반운명론적 세계관을 동시에 보여 준다.

특징 소극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가난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설화 전승자들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문제 해결에 우연성이 개입되면서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소화(笑話)적 특성도 있다.

의의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풍부하게 전해지는데, 대체로 풍수설에 의한 명당 관념보다는 궁핍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극복하는 주인공의 적극적인 자세에 긍정적인 결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명당에 대한 해석이 지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단한 현실에서 다만 이야기 속에서라도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던 민중들의 의식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8, 318; 7-15, 282.

참고문헌 풍수설화(신월균, 밀알, 1994), 풍수설화의 유형과 의식 세계(서훈정,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필자 박종오(朴宗吾)

전설

우탁

禹倬

정의 유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민간신앙 타파에 얽힌 우탁(禹倬, 1263~1342)관련 설화.

역사 우탁이 영해사록(寧海司錄)이 되어 팔영신(八鈴神)을 폐했는데, 감찰규정 때 충선왕이 부왕의 후궁인 숙창원비를 부인으로 맞이하자, 흰옷에 도끼를 들고 대궐로 들어가 극간(極諫)했다. 정이가 주석한 『역경(易經)』이 처음 들어와 아는 이가 없자 달포 만에 해독하여 후진을 가르쳤다. 『고려사(高麗史)』「열전」에도 경서와 사기를 통달하고, 역학에도 정통하여 점괘가 맞지 않음이 없다고 기록될 만큼 뛰어난 역학자였다. 이러한 우탁이 민간신앙인 음사(淫祀)를 강경히 타파하자 관련 설화가 형성되어 문헌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고려사』「열전」에 우탁이 영해사록으로 부임했는데 영해 사람들이 팔령신을 극진히 섬기며 폐해가 심한 것을 보고는 방울을 부수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한다. 영해의 구전은 더 흥미롭다. 우탁이 팔령신 중에서 일곱을 없애자 나머지 하나가 살려 달라고 빌어 남겼는데, 여덟 번째 신은 눈이 멀고 신세도 가련한 할미였다. 그 신이 지금 당고개 서낭이라 한다. 우탁은 『주역(周易)』을 깊이 공부하여 도술을 지녔다 한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럽자 계속 그러면 멸종시키겠다고 글로 써 보내니, 개구리들이 동헌에 모여들어 살려 달라 했다고 전해온다. 또 백호에게 처녀를 제수로 바치던 것도 '경(敬)' 자를 써 붙여 폐해를 근절했다고 한다.

변이 팔영신을 수장할 때 세 신은 잡귀를 막도록 경상북도 영양에서 울티재 넘는 곳과 인량리 팔풍정 그리고 관어대를 지키게 하고, 다섯은 바다에 던져 버렸다는 변이형도 있다.

분석 우탁이 영해사록으로 부임하니 팔영신에게 치를 굿이 준비되었다. 그는 굿을 거절하고 사자(使者)를 시켜 두서너 줄의 문자를 써 보내어 팔령신을 제압한 후, 한 신(神)만 살려 주며 동해에서 오는 잡귀를 관어대 입구에서 막으라 명령하고 나머지 일곱은 모두 수장했다. 그 후로 백성들은 팔령신의 행패에서 벗어나 무사히 생업에 종사하였다. 충청북도 단양의 구전에는 우탁이 스스로 주역을 전수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데, 중국에서 주역을 한 번 쓱 보고 다 외워 왔다고 한다. 우탁을 '역동선생'이라 부르는 것도 중국의 역(易)이 동(東)으로 이동했다 하여 생긴 말이라 한다.

의의 〈팔영신퇴치설화〉는 영웅이 요물을 퇴치하였다는 유형의 변형으로 영웅 대신에 지방 관장이 등장하고, 민간신앙을 누르고 유학의 통치를 확립하려는 데에 요물퇴치의 의도가 있다. 이는 제주도 〈김녕사굴〉 이야기와 비슷하다. 그런데 팔령신을 다 없애지 않고 일부를 남겨 두어 제한된 범위 안에서 관습을 용인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동물퇴치설화〉는 도술을 익힌 도인은 개구리 같은 동물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유형인데, 유학에서도 도술을 얻을 수 있다는 민간전승적 사고를 나타낸다. 또한 글씨를 써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특징인데, 당시 유학 통치에 방해 요소인 민간신앙을 누르기 위한 절충안으로, 글자(유학 상징)로서 부적(미신 상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高麗史, 靑丘永言,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401; 3-3, 45; 7-6, 61.

참고문헌 내고장전통가꾸기(내고장전통가꾸기 편찬위원회, 단양군, 1982), 역동우탁선생 사상의 연구(오석원, 안동문화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84),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필자 김낙효(金洛孝)

민담

우행담

愚行譚

정의 지능이 모자라는 인물의 바보짓이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어떤 인물이 행하거나 벌이는 어리석은 짓을 제재로 한 소화(笑話) 성격의 설화.

역사 바보는 동서고금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유형이다. 중국의 『태평광기(太平廣記)』와 같은 설화집에 바보설화가 상당수 채록되어 있고, 불교경전의 하나인 『백유경(百喩經)』에 실린 이야기의 태반은 어리석음에 대한 질타이다. 우리의 문헌설화집인 『촌담해이(村談解頤)』 등의 많은 설화집에도 우행담(愚行譚)이 실려 있다. 서양에서도 에라스뮈스는 『우신예찬(愚神禮讚)』에서 바보의 신을 등장시켜 똑똑한 체하는 현자들을 풍자했으며, 브란트는 『바보배』에서 바보들을 싣고 항해하는 배에서 벌어지는 온갖 바보짓을 조롱했다.

이러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바보설화는 단순하게는 지능이 떨어지는 저열한 사람들을 제재로 한 우스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보 인물이 나타나 똑똑한 체하는 인물의 거짓을 폭로하기도 하고 시대 변화 같은 특별한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표출되는 부적응을 바보짓으로 그리기도 한다. 우리 설화에 있는 우행담도 상당수는 그러한 바보문학의 보편 전통이라는 바탕 위에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내용 우리 우행담에서 가장 흔한 예를 들자면 '바보사위담'이나 '바보며느리담', '바보원님담'처럼 독자적으로 유형화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인물의 지능이 모자라는 까닭에 '사위'나 '며느리', '원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집중된다. 그러나 그러한 본질적인 저열함 대신 거울이나 시계 같은 새로운 사물에 대해 몰라서 낭패를 겪는 이야기도 있으며, 성행위를 모르는 바보를 깨우친다는 구실로 엮은 사실상의 음담도 있다. 나아가, 세상물정에 어둡고 남을 잘 믿기만 하는 까닭에 남에게 잘 속는 인물에게 동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그 이야기의 범위가 매우 넓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우행담은 '24. 모를 만해서 모르기(바보 이야기)'에 속한다. 이 유형은 다시 여섯 가지 작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가족 관계 서툴러서 바보짓하기'는 부자간, 고부간 등 가족 간의 관계에 서툴러서 바보짓을 하는 이야기다. 둘째, '세상살이 서툴러서 바보짓하기'는 장사하는 법이나 살림살이 등을 모른다는 이야기다. 셋째, '시키는 대로 하다가 바보짓하기'는 바보 인물을 깨우쳐 바보인 티가 나지 않게 하려다가 도리어 더 큰 바보짓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넷째, '나무라는 사람이 더 무식하기'는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어리석음을 깨우친다고 나섰지만 결국 자신이 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다섯째, '모르는 물건 나타나기'는 거울이나 시계 같은 새로운 물건이 등장하자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벌이는 소동을 다루는 이야기다. 여섯째, '모르는 짓 가르치기'는 성행위 같은 일을 일러주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이야기다.

우행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우행담이 우스개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 웃음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이고, 또 하나는 우행담에 내재한 사회문화적 의미 등을 찾으려는 연구이다. 김교봉의 「바보 사위 설화의 희극미와 그 의미」나 김복순의 『바보 이야기와 웃음』, 이강엽의 「바보설화 웃음의 의미와 기능」이 전자의 예라면, 임재해의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의 갈등」이나, 신연우의 「바보 형제 이야기의 신화적 해명」, 「바보사위 설화의 신화적 소인(素因)」, 이강엽의 「바보 양반담의 풍자양상과 그 의미」 등은 후자의 예이다. 그러나 웃음에 대한 연구는 웃음연구의 일반 이론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고, 의미를 찾는 연구는 의미 천착에 기운 나머지 우스개라는 본질적 특성과 사이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둘을 아우르는 작업이 요망된다.

특징 우행담은 그 내용상 지혜담과 대극적인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난 어리석음과는 달리 바보의 순진함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지혜담과 겹쳐질 수 있다. 또 바보 인물이기 때문에 고지식하게 행동하고 그 결과 뜻밖의 행운이 오는 이야기에서는 행운담과 겹쳐지며, 바보 인물을 빌미로 성행위를 가르치는 이야기에서는 육담과 겹쳐진다.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언어구사가 서툴러서 벌어지는 우스개는 어희담과도 연관되며, 바보의 경직성 탓에 기계적인 중복이 거듭되는 이야기는 일정 부분 형식담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의의 우리 말의 '바보'가 갖는 어의(語義)의 폭 만큼이나 우행담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멍청이'나 '머저리' 같은 말들이 나쁜 뜻의 문맥에서만 쓰인다면, '바보'는 좋은 뜻으로도 쓰인다. 때로는 바보 인물에 대한 조롱뿐만 아니라 동정을 담아낼 수도 있으며, 나아가 동경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가령, 이덕무(李德懋)는 간서치(看書痴)라는 자호를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바보라 했고, 김수환 추기경처럼 후덕한 인물에 대해서도 존경의 뜻을 담아 '바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대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끊임없이 바보 인물이 등장하는 까닭 또한 그런 데에 있을 것이다. 바보 인물을 실질적인 바보로만 여긴다면 조롱에 그치겠지만, 바보 인물을 우의(寓意)로 작동시킨다면 폭넓은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프란츠(Franz)가 동화를 연구하면서 바보에 관한 동화는 백인사회에 더 많다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문명화가 진행될수록 바보 인물이 등장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는 우행담이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의 바보문학'이 하나의 영역으로 성립하게 된다면 구비설화의 우행담이 그 근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바보사위설화의 희극미와 그 의미(김교봉, 한매최정여박사송수기념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바보사위설화의 신화적 소인(신연우, 연민학지9, 연민학회, 2001), 바보설화 웃음의 의미와 기능(이강엽, 열상고전연구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바보 양반담의 풍자양상과 그 의미(이강엽, 연민학지7, 연민학회, 1999), 바보 이야기와 웃음(김복순, 한국학술정보, 2009), 바보 형제 이야기의 신화적 해명(신연우, 고전문학연구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의 갈등(임재해, 여성문제연구11,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필자 이강엽(李康燁)

전설

운림지

雲林池

정의 평안북도 자성군 압록강(鴨綠江) 가 중강진에 있는 도마봉(刀磨峯)의 운림지에 얽힌 전설.

줄거리 압록강 연안에 위치한 중강진(中江鎭) 부근에 있는 도마봉 꼭대기 연못 옆 초가에 운림(雲林)이란 처사가 살았는데 퉁소를 잘 불었다. 어느 해 팔월 보름날 밤 운림이 못가 바위에 올라앉아 통소를 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한 여인이 나타나 혼인해 함께 지내자고 하였다. 하늘의 뜻이라 생각해, 부부가 되어 금실 좋게 살아갔다. 그런데 이듬해 여름에 날이 가물기 시작해 한 달이 지나도록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물론 운림도 가뭄을 근심했지만, 운림의 부인이 걱정하는 정도는 더 컸다. 가뭄이 깊어갈수록 부인의 얼굴빛도 점점 나빠졌고, 음식도 잘 먹지 못했으며 자꾸 울었다. 이 때문에 운림은 더욱 간절히 비를 기다렸으나, 가뭄은 더 심해만 갔다. 연못의 물이 거의 다 말라붙고, 초목도 다 타서 며칠만 더 지나면 폐농할 판이 될 지경이었다. 그러자 부인은 아예 식사도 전폐하고 잠도 안 자며 조바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림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부인이 없고 편지 한 장만 놓여 있었다. 자신은 연못 속에 살던 물고기였는데, 퉁소 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워 마음이 끌려 사람으로 변신해 함께 살았으며 자기 때문에 가뭄이 찾아와 다시 못 속으로 돌아가니, 달 밝고 바람 맑은 밤이면 퉁소 소리나 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가뭄은 물러갔으나 운림은 슬픈 마음을 퉁소로 달래다, 어느 날 연못에서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연못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후부터 이 연못을 운림지(雲林池)라 불렀는데, 달 밝은 밤이면 퉁소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곡조가 연못에서 흘러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가뭄이 심할 때, 못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하며, 또 이 못 속에는 이름 모를 물고기가 많은데 물고기를 잡으면 벌을 받는다고 한다.

분석 남한에서는 보기 드문 전설이다. 분단 이전에 채록된 이홍기의 자료집 『조선전설집』과 1986년에 북한에서 펴낸 자료집 『재미나는 옛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거의 그대로 옮겨 놓되 결말 부분이 다르며, 문장만 윤문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전설집』에서는 지금도 퉁소 소리가 들리며, 기우제를 보내면 비가 내리고, 거기 사는 이름 모를 물고기를 잡으면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재미나는 옛이야기』에는 더 이상 퉁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바뀌었고, 기우제와 징벌 요소는 아예 삭제되었다. 이를 통해 '유물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과감하게 편집하는 북한 당국의 편집 원칙을 엿볼 수 있다.

의의 이 전설은 물을 관장하는 용신에 대한 오랜 관념을 비롯하여 음악 또는 노래가 지닌 감응력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살던 주인공이 여인과 부부가 되어 행복을 누리고 마침내 그 부인을 따라가는 설정에서, 인생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물고기 여인을 통해서 사랑을 위해 일정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생각하게 하는 전설이다.

출처 재미나는 옛이야기 1~3(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사, 1986~1987), 조선전설집(이홍기, 조선출판사, 1944).

참고문헌 북한설화의 연구(김화경, 영남대학교출판부, 1998), 이홍기의 조선전설집 연구(이복규, 학고방, 2012).

필자 이복규(李福揆)

민담

운명담

運命談

정의 초월적으로 정해진 운명이 그대로 실현되었다거나 혹은 어떤 종류의 방도를 모색하여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을 바꾸었다는 내용을 가진 이야기.

내용 운명담(運命談)은 운명이 인간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야기의 서사적 전개에 필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제나, 또는 운명에 대한 외경이나 불행한 운명에 대한 변역과 같은 주제를 다룬 설화 유형들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 속에 사주, 팔자, 운명이 언급되거나 일부 화소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서사적 전개나 주제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운명담이라 하기 어렵다. 운명담은 운명에 대한 인간의 대응방식에 따라 운명실현형(運命實現型)과 운명변역형(運命變易型)으로 크게 나뉜다. 운명실현형에는 주인공이 운명에 대

한 변역을 시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정해진 운명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결말을 갖는 이야기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운명실현형에는 타고난 운명대로 불행해지는 유형, 정해진 팔자대로 행복해지는 유형, 변역이 좌절되어 불행해지는 유형, 그리고 변역 시도가 실패함으로써 도리어 행복해지는 유형으로 세분된다. 그에 비하여 운명변역형이란 주인공이 어떤 종류의 방책을 세워 예언된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행복한 결말을 보여준다. 그 대신 누구의 힘에 의존해 운명을 변역하는가 하는 점에서 세부 변이가 나타난다. 불운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외부 존재에게서 유래하는가, 아니면 주인공 자신에게서 나오는가에 따라 타력으로 불운을 변역하는 이야기, 자력으로 불운을 변역하는 이야기, 그리고 양자 사이의 중간 형태인 타력과 자력을 함께 이용하여 불운을 변역하는 이야기로 세분할 수 있다. 운명실현형에는 단명할 운이나 호식(虎食) 당할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방비를 한다 해도 결국 정해진 때에 죽고 만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손복담(損福談)〉, 〈천생연분담(天生緣分談)〉, 〈다남운담(多男運談)〉 등의 대표적 유형이 전승된다. 〈손복담〉은 부유한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다리를 떨면 복이 떨어진다는 속신을 지키지 않아 가난하게 살다가, 이를 알아본 관상쟁이가 다리를 꺾어 버린 후 잘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운명을 타고나도 속신이나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행운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리를 꺾거나 절단하여 불구자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운명의 초월성 내지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천생연분담〉은 어떤 노총각이 나이 어린 천정배필(天定配匹)을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녀와 혼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서, 일명 〈연지곤지〉유래담이라고 한다. 〈다남운담〉은 많은 아들을 낳을 팔자를 타고난 가난한 남자가 집을 떠나 유랑하다 씨내리를 하였는데 나중에 그 아들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찾아와 부유해졌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운명변역형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에는 〈연명담(延命談)〉, 〈호환도액담(虎患度厄談)〉, 〈차복담(車福談)〉, 〈구복여행담(求福旅行談)〉 등이 있다. 〈연명담〉은 단명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신적 존재에게 치성을 드리거나 출가하여 고행을 겪음으로써 수명을 늘려 장수했다는 이야기이다. 〈호환도액담〉은 호식을 당할 액운을 타고난 사람이 치성, 고행, 선행, 혼인, 독경 등의 방법을 통해 액막이한다는 것으로, 이야기의 내용이나 구조 등에 있어서 연명설화와 친연성이 매우 높다. 〈차복담〉은 가난한 나무꾼이 하늘에 올라가 신에게 간청하여 다른 사람의 복을 임시로 빌려서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수신기(搜神記)』에 실린 〈장차자(張車子)〉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토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복여행담은 가난한 사람이 복을 구하기 위해 초월계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고민을 대신 해결해 주고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로서, 인간이 자력으로 운명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단계의 인식을 보여준다.

특징 운명담 속에는 예언, 이인, 신선, 둔갑, 이계방문 등의 신이한 내용을 담은 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담은 예언설화나 이인설화, 신선설화 등과 그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언설화는 예언이 정말로 적중하는가 하는 예언 자체의 신비함에 초점이 놓인 반면, 운명담은 예언된 운명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인간의 대응양상에 초점이 놓여 있다. 또한, 이인설화는 이인의 출현이나 그의 영이한 능력이 중시되지만, 운명담 속의 이인은 단지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의의 운명담은 운명인식의 변화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번 정해진 운명은 불변한다는 정명론(定命論)은 운명실현형 이야기의 인식적 토대이다. 방도를 취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역명론(易名論)은 타력에 의한 운명변역형 설화와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의지로 운명을 만들 수 있다는 조명론(造命論)은 자력에 의한 운명변역담과 서로 통한다. 나아가, 운명담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수(壽)·부(富)·귀(貴)·다남(多男)을 추구했던 한국인의 복(福) 인식 및 행복관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연명담〉이나 〈차복담〉, 〈천생연분담〉, 〈구복여행담〉 같은 다수의 운명담은 중국설화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설화 전파와 토착화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양문화권 내의 여러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운명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搜神記, 太平廣記, 연명설화고(정규복, 어문논집11,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8),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민담의 유형(최인학, 인하대학교출판부, 1994),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한국 운명설화 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한중 운명설화연구(박명숙, 민속원, 2009).

필자 정재민(鄭在珉)

전설

운문사

雲門寺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호거산에 자리잡은 운문사(雲門寺)의 창사연기 설화.

역사 일연의 『삼국유사』 권4 「의해」 5의 '원광서학(圓光西學)'과 '보양이목(寶壤梨木)'에 운문사의 창사 내력과 설화가 전한다. 1788년(숙종 44)의 「호거산운문사적(虎踞山雲門事蹟)」에도 운문사의 내력이 기록되었다.

줄거리 신라 진흥왕대 한 도승이 운문사의 계곡으로 들어와 수도하다가 다섯 개의 사찰, 이른바 오갑사(五岬寺)를 지었다. 원광이 다시 이 오갑(五岬)을 중창하고 머물면서, 점찰법회를 열고 세속오계를 전수했다. 나말여초의 유학승 보양은 귀국길에 서해 용궁에서 설법하고 비단가사를 받고 용왕의 아들 이목(璃目)을 데리고 나왔다. 이때 서해 용왕이 작갑(鵲岬)에다 절을 지으면 장차 불법을 수호하는 왕이 나와 삼국을 평정하리라 했다. 보양이 이곳에 이르자 원광을 자처한 노승이 나타나 도장이 든 궤를 주었다. 또 까치들이 오층탑이 있던 자리를 알려준 것이 서해용의 말과 같아 그 자리에다 절을 짓고 작갑사(鵲岬寺)라 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가 오갑에 속했던 토지 오백 결을 시납하고 운문선사(雲門禪寺)란 사액을 내려주었다. 서해 용왕의 이목은 절 곁의 작은 못에 살면서, 강우(降雨) 등으로 보양의 법화를 도왔다.

변이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는 작갑과 이목의 사실이 원광의 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운문사 쪽의 사전(寺傳)은 『삼국유사』의 내용과 다르지 않으나, 현지 마을의 구전에서는 불승보다 이목의 능력이 훨씬 더 우세한 변이형들이 나타난다.

분석 서해 용왕의 호법(護法), 원광의 현신(現身), 까치의 조짐 등에 힙입어 보양이 운문사를 중창한 연기담이다. 그 가운데 용왕의 호법은 다른 창사 설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강우의 능력이 부각된 서해 용자 이목은 특이한 존재이다. 그리고 원광과 까치의 상징은 운문사가 이전의 오갑을 계승한 사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징 용신이 개입된 창사설화의 범주에 속한다. 이 설화의 서해 용왕은 황룡사, 금산사 등에서 보듯이 창사를 돕는 호법 용신이지만, '이목'의 존재는 다른 창사설화에서는 찾기 어렵다. 특히 이목과 보양의 관계는 사찰이 들어서면서 그곳의 못에 살던 용들이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한 〈통도사〉 전설과도 다르다. 이목의 일은 기우제 및 이무기 신앙이 강했던 이 지역의 종교문화적 전통, 또는 운문사가 경영했던 방대한 사원전(寺院田)과도 관련이 있다.

의의 승(僧)과 용(龍)의 대립 관계를 구조적 근간으로 하는 창사설화 전통의 흥미로운 사례이다. 특히 『삼국유사』로 대표되는 사전(寺傳)과 현지 구전의 향전(鄕傳)이 보여주는 대립적 전승은 외래용과 재래용, 불교신앙과 용신신앙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三國遺事, 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7, 303.

참고문헌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조동일, 집문당, 1990), 삼국유사 보양이목 설화의 전승론적 검토(천혜숙, 동계성병희박사 화갑기념민속학논총, 형설출판사, 1990), 한국 용신창사설화의 민속학적 연구(이준곤, 문현, 2009).

필자 천혜숙(千惠淑)

전설

운주사

雲住寺

정의 운주사에 천불천탑을 조성하면서 와불을 세우지 못했다는 전설.

역사 운주사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록이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불천탑의 조형적 특징이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잘 발견되지 않아 역사적인 검증이 어렵다. 운주도사, 마고할미, 도선대사로 여러 창건주가 각편에



운주사와형석조여래불
전남 화순군, 문화재청

따라 다르게 등장하며, 창건 동기도 각기 다른 것으로 보아 오랜 전승과정을 통해서 많은 설화가 새롭게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옛날 도선대사가 화순에 천불천탑을 세우기로 하였다. 하늘에 대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천여 명의 선동선녀가 내려와서 불상과 불탑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반드시 하룻밤 사이, 첫닭이 울기 전까지 마쳐야 하는 일이었다. 날이 새면 선동선녀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도선대사는 해가 뜨는 것을 늦추기 위해 일봉암이라고 하는 바위에 해를 묶어 두었다. 새벽녘까지 모든 일이 순조로워 천불천탑이 거의 조성되고, 이제 와불만 일으켜 세우면 되었다. 그런데 일을 돕던 대사의 동자승이 일에 지쳐 그만 첫닭 우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와불을 세우려던 하늘의 선동선녀들이 한순간에 모두 하늘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와불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누워 있다. 만약 와불을 세웠더라면 수도가 이곳으로 옮겨 왔을 것이라 한다.

변이 운주사를 세운 사람이 도선대사가 아니라 운주도사라고도 하고 마고할미라고도 하는 전설들이 전한다.

분석 우리나라가 배의 모습인데 동쪽은 태백산맥이 있어 무겁기 때문에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운주사를 세웠다고도 하고,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웠다고도 한다. 그러나 천불천탑을 하늘의 도움으로 밤에 세우려 했다는 전설의 내용으로 볼 때, 풍요다산을 기원했던 민간신앙의 성격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 〈운주사전설〉은 천불천탑의 조성과 관련되는 내용이지만, 실제 불상과 불탑을 보면 정통 불교 미술의 세련된 형상이 아니다. 특히 70~80여 년 전까지도 운주사에서 초파일이 아닌 추석 때 지역민들에 의해서 자발적 축제가 열렸던 점으로 미루어 보자면 민간신앙화한 불교유적의 성격이 있다.

의의 운주사와 천불천탑에 대한 기록이 전혀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불천탑의 조성설화는 운주사와 천불천탑의 성격을 조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출처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참고문헌 운주사전설 연구(나경수, 한국언어문학38, 한국언어문학회, 1997), 운주사 종합학술조사(전남대학교박물관, 화순군, 1991), 운주사 천불천탑의 비밀(강형구, 띠앗, 2001).

필자 나경수(羅景洙)

전설

울돌목

정의 구기자의 효험을 본 노인이 전라남도 진도군의 망적산 봉우리에 있는 용샘과 울돌목을 뚫어 홍수를 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전설.

역사 〈울돌목전설〉은 진도 지역의 지명유래와 관련이 있다. 또한 구기자에 대한 이야기와 진도읍성 축성에 관한 내용이 복합된 것으로 보아, 지명유래담에 구기자와 읍성 축성에 관한 이야기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아주 먼 옛날에 진도읍 망적산에서 커다란 청룡 한 마리가 승천했는데, 용이 승천한 샘에서 물길이 솟아올라 남녘의 산 아래로 흘러내려 가기 시작하였다. 물이 수십 일 동안 계속해서 솟구쳐 망적산 남쪽 들녘은 완전히 물에 잠기고 말았고,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땔감을 구하러고 뒷산으로 갔다가 하늘도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용샘에서 솟구치는 물길을 잡으려면 용샘을 오직 도굿대(절굿공이)로 절구통에 보리쌀 찧듯이 힘껏 쳐서 뚫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용샘물은 바다로 나가게 되어 물길도 잡히고, 앞으로 망적산 남녘에는 진도 전역을 호령할 커다란 읍성도 들어설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일로 마을 사람들이 시름에 잠겼는데 육지 장사 세 명이 용샘을 뚫어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육지 장사들도 삼일 만에 실패하고 몰래 도망을 가 버렸다. 며칠 후, 망적산 남쪽 기슭에 있는 구기자골에 사는 70대 노인이 도굿대로 용샘을 뚫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33일째 되는 날 울돌목까지 구멍을 뚫어 온 바다에 물이 치솟았고 드디어 물길을 잡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용샘에 도굿대를 넣으면 사흘 만에 울돌목 바다로 나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여 노인을 따라가 보니, 노인은 수백 년 묵은 구기자나무로 집을 짓고, 구기자 열매와 구기자 뿌리에서 나온 물만 마시면서 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구기자의 효험이 알려졌고, 망적산 아래에는 진도읍성이 건설되었다.

변이 이 이야기는 〈용샘과 울돌목 전설〉 혹은 〈망적산 용샘 전설〉 등으로 전하나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분석 〈울돌목전설〉은 구기자의 효험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일종의 신이담으로, 진도 망적산 일대와 울돌목의 지명유래와 관련이 있다. 아울러 구기자의 효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지명유래담이자 효험담이다.

특징 〈울돌목전설〉은 특정한 지역이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결점이 해소되고 나아가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좋은 땅으로 변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점을 해소하는 데 특정 식물의 효험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 결점을 해소하면 명당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국에 분포하지만, 지역 특산물이 결점 해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역 특산품의 위상을 높이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출처 옥주의 얼(진도문화원, 1982), 디지털 진도문화대전(jindo.grandculture.net)

참고문헌 전남의 민속연구(나경수, 민속원, 1994), 호남의 전통문화론(박만규·나경수, 전남대학교출판부, 1999).

필자 박종오(朴宗吾)

전설

울산바위

정의 울산바위가 강원도 설악산에 정착하게 된 유래와 관련된 설화.

줄거리 태초에 조물주가 금강산을 만들면서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바위들을 불러 모았다. 울산에 있던 울산바위도 금강산에 들어가고자 부지런히 길을 걸었다. 하지만 설악산에 이르렀을 때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이 모두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여 그곳에 멈춰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변이 〈울산바위설화〉에는 원래 자리하고 있었던 울산 지역에서 해마다 산세(山貰)를 받아가던 것을 동자승의 지혜로 다시는 세금을 물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의 '산세다툼' 화소가 덧붙어 나타나는 각편이 다수 있다. 이 외에도 울산의 매미 떼가 이곳에 와서 울었다고 하는 '매미울음' 화소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각편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울산바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012.7, 한국관광공사

분석 이 설화는 울산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강원도 속초, 양양 등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채록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 지역 중심의 전승양상을 보이는 지역 설화적 성격의 자료이다. 다만 이 바위가 본래 울산에서부터 옮겨 왔다고 전해지므로 울산 등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도 설화가 전승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 설화는 바위의 이동, 멈추는 과정 그리고 그 지역에 자리 잡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지역과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인다는 산세다툼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 산이동설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울산바위의 이동은 대체로 스스로 걸어가는 형태를 취하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장사가 울산바위를 옮겨 가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서 거인에 의한 산이동적 성격이 복합된 모습을 보여 주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특징 이 설화는 다른 곳으로부터 산이 옮겨 왔다고 하는 산이동설화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는 설화로, 흔히 덧붙는 '산세다툼' 화소 외에도 '매미울음' 화소가 첨부된 자료가 다수 전승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매미울음' 화소는 울산바위가 울산에서 옮겨 온 산이라 그곳의 매미가 날아와서 울었다는 것으로, 그 바위가 원래 있던 지역에서 산세를 받아간다고 하는 관념과도 상통하는 의식의 반영이다. 또한 그 바위가 울산으로부터 옮겨 왔다고 전해지는 데 대한 진실성을 부여하려는 장치이기도 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252, 8-14, 248.

참고문헌 설악산 울산바위전설 고찰(속초문화24, 속초문화원, 2008), 한국의 거인설화(권태효, 역락, 2002).

필자 권태효(權泰孝)

전설

웃개나루

정의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과 함안군 진동 마을을 잇는 웃개나루에 얽힌 설화.

줄거리 웃개에는 옛날부터 김 씨, 박 씨, 이 씨가 살았는데 쥐

가 많아 '쥐설' 혹은 땅의 생김새를 따서 '배 떠나는 설' 또는 '연잎설'이라고 했다. '연잎설'이라는 것은 연잎에 물이 어느 정도까지는 담길 수 있지만 많이 담기면 그만 기울어져 쏟아져 버린다는 뜻으로, 부자가 되면 옷개를 떠나야지 더 살면 망해 버린다는 뜻이다. '배 떠나는 설'도 마찬가지이다. 김 씨는 행인과 말을 재워 주는 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무척 가난했으나 옷개나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점점 형편이 좋아졌다. 다만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들면 엽전이나 자그마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것이 걱정이었다. 김 씨는 자꾸만 손님의 돈이 한 푼, 두 푼 없어지는 이유를 몰라 고민하던 중, 어느 날 밤 쥐가 손님방을 들락거리면서 엽전을 물어내는 것을 발견했다. 이튿날 지난 밤 보아 두었던 쥐구멍을 파헤쳐 보았더니 그곳에는 수년간 쥐가 물어다 모은 돈이 고스란히 있었다. 단번에 부자가 된 김 씨는 살던 곳이 연잎설이라 떠나야 재산이 유지될 것인데 오히려 돈을 더 벌 욕심으로 집을 늘려 크게 지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김 씨가 이웃 동네에 노름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났다. 김 씨가 모았던 전 재산은 삽시간에 몽땅 타 버렸고, 원래대로 가난해졌다고 한다.

분석 쥐는 미래를 알고 있고 부를 가져다주며, 둔갑하는 신통력이 있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간신, 수탈자의 이미지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 전설은 쥐를 통해 부자가 된 인물이 욕심 때문에 화를 당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유형의 전설은 '~하지 마라.'의 금기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서술을 취하는 예가 많다. 이 전설의 금기는 돈을 벌면 '떠나야 하는 것(그곳에 있지 마라)'이고, 당위는 그곳을 떠나 '부를 지키는 것'이다. 김 씨는 이 둘을 모두 지키지 않아 불행해진 인물이다. 이것은 쥐의 조력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나무꾼과 선녀〉와 금기를 어김으로써 벌을 받았다는 〈장자못전설〉의 서사구조에서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징 "쥐가 달아나면 그 집의 복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쥐는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재산을 불러 주는 길상의 동물로 여겨졌다. 이는 끊임없이 먹이를 물어다 나르는 쥐의 근면성과 새끼를 많이 낳는 생태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쥐에 대한 관념은 일상에서 복을 가져오고 나아가 풍요를 상징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쥐의 특성인 다산이 더해지면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 인간은 이상을 추구하며 살기에 현재보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망이 무한대라 만족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 설화를 통해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과욕 경계에 대한 의식과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선조들의 현실 긍정 사고를 살필 수 있다.

출처 창녕군지(창녕군지편찬위원회, 2003), 함안의 구전설화(함안문화원, 2005).

참고문헌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조력자 사슴과 쥐의 역할과 그 기능 고찰(김종대·이주홍, 어문논집13, 중앙어문학회, 2010),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신동흔, 소명출판, 2009).

필자 김구한(金求漢)

전설

원광법사

圓光法師

정의 삼기산 여우신의 도움으로 중국에 유학을 갔고, 돌아와서는 윤회전생에서 서로 구제하자[生生相濟]는 약속을 했던 신라 진평왕 때의 고승 원광법사와 관련된 설화.

줄거리 『고본수이전(古本殊異傳)』에 따르면, 원광법사는 원래 삼기산에서 수도하던 승려였다. 그는 삼기산 신의 부탁을 듣고 주술을 연마하는 중에게 자리를 옮기도록 권했다. 중이 원광의 말을 무시하니 신이 산을 무너뜨리려 중이 거하는 난야(절)를 무너뜨렸다. 신은 원광에게 중국 유학을 권했고 가는 데 필요한 계책을 자세하게 일러 주었으며, 윤회전생에서 서로 구제하자는 약속을 맺었다. 원광이 신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니 커다란 팔뚝을 보여 주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서야 그 신이 검고 늙은 여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석 『삼국유사(三國遺事)』 불교설화 중에는 토착신앙과 날카로운 대립뿐만 아니라 불교 우위의 관점에서 토착신앙과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예도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광서학 조이다. 삼기산의 신은 원광의 중국 유학을 돕고 그와 윤회전생에서 서로 구제하자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서사가 진행되면서 토착신격인 삼기산 신과 불승인 원광의 위상은 역전된다. 신은 자신의 신술이 으뜸이고 미래를 예측하며 천하의 일을 통달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자기도 죽음이라는 무상의 해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목소리나 위력으로 현현하다가 커다란 팔뚝으로 형상화되고 최후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죽어가는 검은 여우로 정체를 드러낸다. 소리 말고는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였다가 차츰 원광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마침내 나약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데서 신격의 하락을 감지할 수 있다. 반면 원광은 삼기산에서 도를 닦는 일개 승려였지만 당나라 유학을 마칠 때는 학덕이 높은 고승이 되어 있었다. 우호적인 관계로 일관되고 있지만 불승 앞에서 점점 하락하는 토착신격을 그려냄으로써 토착신격이 불교에 복속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징 일연은 고려시대 김척명이 운문선사의 창건자인 보양스님의 기사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윤색하여 〈원광법사전〉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각훈(覺訓)은 1215년(고종 2),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을 편찬할 때 김척명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원광전을 기술했다. 일연은 향전(鄕傳)이라 일컬은 『고본수이전』 소재 원자료와 당 『속고승전(續高僧傳)』을 원문 그대로 전재하면서 『해동고승전』의 폐단을 일일이 지적하였다. 『고본수이전』 소재 〈원광법사전〉이 '전(傳)'이 아니라 설화의 기술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일연의 언급을 감안했을 때 『수이전(殊異傳)』의 문헌 정착과 개정도 구비전승의 맥락을 따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海東高僧傳,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강진옥, 고전문학연구9, 한국고전문학회, 1994), 조선 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박희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형성기 산문시고-수이전을 중심으로(이경우,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필자 박성지(朴聖智)

민담

원님으로 환생한 머슴

정의 미천한 신분 때문에 벼슬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양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벼슬을 하였다는 설화.

역사 신분이 낮은 사람이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 벼슬을 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에 실려 있다. 신분의 제약에서 벗어나 출세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기에 조선시대 선비들이 쓴 『청구야담(靑邱野談)』, 『기문총화(記聞叢話)』, 『금계필담(錦溪筆談)』, 『해동기화(海東奇話)』와 같은 야담집에도 실려 있고, 민중들 사이에서도 널리 구전되어 왔다.

줄거리 평생 머슴살이를 하던 김상구가 머슴살이를 하여 받은 새경을 모두 절에 시주하였다. 그는 절에 가서 "죽은 뒤에 인간으로 환생하게 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빈방으로 들어가 죽었다. 그는 빈방으로 들어가면서 스님들에게 "22년 뒤에 이 방문을 열 사람이 올 터이니 그 때까지 절대로 방문을 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래서 아무도 그 방문을 열지 않았다. 22년 뒤에 그 고을에 부임한 원님이 절을 찾아와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의 뼈를 수습하여 장사 지냈다. 원님은 자기가 김상구가 죽어 환생한 사람인데, 그 사실을 꿈을 통해 알았다고 하였다.

변이 이 설화의 주인공은 머슴·농민의 아들·중인데, 원님 또는 감사가 되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죽어 환생한다. 벼슬을 한 주인공이 전생(前生)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난다. 첫째, 주인공의 부모가 어떤 인물이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잉태하며, 태어난 아기가 그 인물의 이름이 적힌 패(牌)를 손에 쥐고 있어서 그 사람의 환생임을 안다. 둘째, 주인공이 일 년에 한 번씩 꿈속에서 어떤 노부부의 대접을 받곤 하였는데, 감사가 된 뒤에 노부부를 만나서 자기가 노부부 아들의 환생임을 안다. 셋째, 주인공이 꿈을 통해서 또는 시신 옆에 놓여 있는 유서를 보고 안다. 넷째, 죽은 사람이 남긴 유서의 내용이 주인공 어머니가 꾼 태몽(胎夢)과 같아서 안다.

분석 미천한 사람이 타고난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길 밖에 없다. 주인공은 죽어 양반의 아들로 환생하여 벼슬을 했다. 이 설화에는 관직 획득에 대한 열망과 현세 소원의 내세 성취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나타난다. 이 설화는 우리 민족이 지닌 영혼관과 재생(再生)에 대한 관념,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특징 이 설화는 『삼국유사』, 『청구야담』, 『기문총화』, 『금계필담』, 『해동기화』 등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승려나 유학자들도 즐겨 이야기하였던 것 같다. 그 중에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김대성 이야기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생긴 내력을 설명하면서 시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출처 記聞叢話, 錦溪筆談, 三國遺事, 靑邱野談, 海東奇話, 한국의 전래소화(이훈종, 동아일보사, 196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549; 5-2, 779; 7-2, 280; 7-8, 933; 7-10, 55; 8-5, 896; 9-1, 134.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영혼관(동아시아고대학회, 경인문화사, 2006), 양반으로 환생하여 벼슬한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최운식, 비교민속학27, 비교민속학회, 2004), 옛 이야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삶과 죽음(최운식, 한울, 1997), 재생설화의 재생의식(박계홍, 구비문학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필자 최운식(崔雲植)

민담

원님의 명판결

정의 지혜로운 원님이 재판을 통해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준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기본 모티프는 지혜로운 관장의 명쾌한 판결인데, 이런 화소를 지닌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탈해(脫解)가 몰래 호공의 집에 숫돌과 숯을 묻어놓고 관아에 제소하여 호공의 집을 빼앗는 이야기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야담집에도 일부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만, 구비전승되는 자료가 대부분이다. 일명 공안설화(公安說話), 송사설화(訟事說話), 재판설화라고도 한다.

줄거리 〈백지소지 보고 명판결한 원님〉 이야기는, 어떤 벙어리가 부잣집에서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주인이 새경을 주지 않자 관가에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은 소지(所志, 청원이 있을 때 관아에 내던 서명)를 내서 지혜로운 원님이 밀린 새경을 받아주었다는 내용이다. 즉, 말 못하는 벙어리의 마음을 헤아려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원님이 직접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원님 대신 아이나 여성이 사건을 해결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유명한 점쟁이 홍계관의 신비한 점술과 연관된 명판결담이 한 예이다. 어떤 소년이 과거를 보러 상경했다가 홍계관이라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친다. 홍계관은 백지에 황색 물감으로 대나무 그림을 그려주면서 훗날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림을 내놓으면 살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 후 소년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정승의 사위가 되지만 첫날밤에 신부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살인 누명을 쓰고 처형될 위기에 처한다. 이때 대나무 그림을 보이자 원님의 딸이 황백죽이라는 범인을 찾아내 누명을 벗겨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곡성 안 들은 상복〉이란 설화도 널리 전승된다. 남편이 시묘살이를 가 있는 동안 이웃집 남자가 상복을 입고 남편인 양 행세하면서 부인을 겁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원님이 '곡성 안 들은 상복'을 가져오면 큰 상을 주겠다고 속여 범인을 찾아낸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전대나 떡과 같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이야기도 다수 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장승재판〉 또는 〈절구통 재판〉이다. 가난한 장사꾼이 장승에 전대를 걸어놓았다가 잃어버리자 원님은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승을 잡아다 볼기를 친다. 이에 사람들이 원님의 어리석음을 비웃자, 원님은 관장을 능멸한 죄를 물어 벌금을 거둬 장사꾼의 손해를 변상해 준다. 또, 비단이나 담비가죽 같은 귀한 물건을 두고 서로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는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이야기도 있다. 예를 들어, 비단을 서로 잡아당겨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하자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울상을 짓는 것을 본 원님이 울상을 짓는 쪽이 진짜 주인이라고 판결을 내려 지혜롭게 시비를 해결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옹기짐을 깨뜨린 옹기장수의 불쌍한 처지를 고려하여 바람이 불기를 기원한 뱃사공들에게 옹기값을 변상하게 했다거나, 사냥을 하다가 매를 잃어버린 매 주인의 엉뚱한 제소에 대해서는 산에게 물어보라고 판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변이 〈원님의 명판결〉 설화 유형 전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이는 판결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백성의 제소를 받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원님의 몫이다. 따라서 원님이 지혜롭게 해결 단서를 찾아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님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나 부인, 누이가 사건을 해결하는 변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는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낫다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고 함으로써 관장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나아가 훌륭한 관장이라면 모름지기 현명하고 재치 있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분석 〈원님의 명판결〉 설화는 대체로 제소자-범행자-판결자라는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 발생-제소-판결-사건 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 가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등장인물과 순차구조는 재판의 일반적 형식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명판결담〉은 사건 자체가 제소할 만한 사건인 경우에는 법적·윤리적 정의에 입각한 판결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건일 경우에는 기발하고 재치 있는 판결이 주로 이루어진다. 전승자의 시각도 전자는 교화적 측면이 강하다면 후자는 흥미적 측면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양면적인 시각은 더욱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이상적인 관장의 출현을 기대하는 서민들의 심리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존재하는 전도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특징 억울한 일을 관청에 호소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을 가진 송사소설도 여러 편이 전해지는데 〈장화홍련전〉, 〈옥낭자전〉, 〈진대방전〉, 〈정수경전〉, 〈이운선전〉, 〈김인향전〉, 〈신계후전〉, 〈은애전〉, 〈유연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들은 설화를 소설화한 것과 실사를 바탕으로 꾸며진 것으로 나누어지며, 신분갈등이나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권력층이나 관습과의 갈등과 같이 다채로운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의의 〈원님의 명판결〉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본 민(民)과 관(官)의 이상적인 관계 또는 이상적인 관장의 면모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설화에 비해 유교적 애민정신에 입각하여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상적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리얼리티와 비판적 인식을 함께 지니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9, 809; 4-5, 298; 8-7, 400.

참고문헌 牧民心書, 공안설화의 연구(강현모,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재판설화의 양면성 연구(정재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조선소설사(김태준, 학예사, 1939), 한국송사소설연구(이헌홍, 삼지원, 1997).

필자 정재민(鄭在珉)

전설

원두표

元斗杓

정의 인조반정에서 공신이 된 원두표와 관련된 인물전설.

줄거리 원두표가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묏자리를 잡지 못해 명풍수를 찾아갔다. 그리고 정승 집에서 상을 당해 모시러 왔다고 명풍수를 속여 말에 싣고 산으로 갔다. 풍수를 산속 나무에 매달아 두고 두 형님을 시켜 풀어주게 했더니, 풍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마워하며 정승이 날 명당을 잡아 주었다. 풍수는 두 상주의 관상이 정승 감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납치한 막내 상주를 보니 정승이 될 만하였다. 어느 날 인조반정을 모의한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는 대궐 문을 깨고 들어갈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 고민 중이었는데, 주막에서 술을 먹고 있던 원두표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며 도끼로 대궐 문을 깨부수고 들어갔다. 원두표는 후에 정사공신(靖社功臣)을 거쳐 정승이 되었다.

변이 원두표와 관련된 전설은 인조반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중종반정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세조가 단종을 내친 계유정난으로 착오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명풍수는 동시대에 살았던 국풍(國風) 박상의라고 실명을 거론한 예도 있다. 또한, 인조반정에 참여한 〈기축이〉 이야기와 섞어 전해지기도 한다.

분석 인조반정 후 정사공신이 되어 좌의정까지 지낸 원두표의 기개와 용맹에 관련한 전설로, 선친의 묏자리를 잡은 이야기와 도끼로 대궐 문을 부수고 반정의 선봉에 선 이야기로 나뉜다. 세력가들의 묏자리만 봐 주는 이름난 지관을 속여서 정승이 날 자리를 차지한 화소에서는 원두표의 지략을 읽을 수 있으며, 노름과 술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반정 모의에 가담하여 도끼로 궐문을 부수고 선봉에 서는 내용은 원두표의 용맹을 드러내는 화소이다.

특징 지역의 인물전설로 원두표의 고향인 경기도 여주 지역에서 주로 전승되고, 또한 원주 원씨라는 이유로 강원도 지역에서 널리 전승되는 특징을 가진다. 무인으로 인조반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원두표의 기개와 용맹함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주막을 전전한 방탕한 인물이 우연히 반정 모의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도 드러난다. '도끼 정승'이라는 말은 원두표의 용맹과 객기를 아우르는 긍정과 부정을 중의적으로 담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1-2, 20; 202; 2-5, 782; 7-10, 805.

참고문헌 역사인물이야기연구(신동흔, 집문당, 2002), 원두표실기의 창작 방법과 소설사적 의의(곽정식, 한국문학논총52, 한국문학회, 2009).

필자 김종군(金鍾涓)

신화

원천강본풀이

상효원조 구복여행

정의 제주도 심방들이 전하던 서사무가의 하나로, 원천강이라는 점술서의 기원을 서술한 무속신화.

역사 현재 두 편의 자료가 학계에 보고되었는데, 1930년대에 박춘봉 심방을 대상으로 조사, 채록한 자료와 1960년대에 조술생 심방을 대상으로 조사, 채록한 자료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조사, 채록되지 않았고, 무속 현장에서도 더는 들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전승이 중단된 자료이다. 원천강(袁天綱)은 당나라 초기의 역사적 인물로 관상을 아주 잘 보았다.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도 원천강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것은 원천강의 저술이 명과학(命課學, 음양학)의 지식을 측정하는 준거나 시험과목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원천강은 인명(人名)보다는 서명(書名)으로 인식되었다. 그에 비해 제주도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역사적 인

물로서 원천강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춘하추동이 공존하는 신비의 공간이나 점술서, 점쟁이 또는 무당 등을 지칭하는 직업 명칭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편, 1572년에 발간된 『금합자보(琴合字譜)』에는 "오ᄂᆞ리 오ᄂᆞ리나 ᄆᆡ일에 오ᄂᆞ리나 졈므디도 새디도 오ᄂᆞ리 새리나 ᄆᆡ일 샹의 오ᄂᆞ리 오쇼셔."라는 시조가 실려 있다. 이 시조에 나오는 '매일'과 '장상'이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서사무가의 형성 시기를 1572년 이전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시대에 이미 원천강의 이미지가 운명을 추리하거나 길흉을 판단하는 준거로 널리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술문화가 민간에도 널리 퍼져 〈원천강본풀이〉와 같은 서사무가를 형성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줄거리 박춘봉 심방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강님들에서 옥같은 여자아이가 솟아났다. 그때부터 어디선가 학이 날아와 한 날개로 깔고 다른 날개로 덮고 야광주를 입에 물리며 그 여자아이를 키웠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오날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오날이가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 부인을 만나 부모가 원천강에 있음을 알고 부모를 찾아 길을 떠났다. 오날이는 도중에 장상이라는 사람을 만나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자, 장상은 서천강 가의 성 안에서 글만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오날이가 연꽃을 만나 길을 묻자, 연꽃은 제일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 큰 뱀을 만나 길을 묻자, 큰 뱀은 야광주를 세 개나 갖고 있는데도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매일이라는 처녀를 만나 길을 묻자, 매일이는 자신이 항상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옥황의 세 시녀를 만나 길을 묻자, 시녀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그 벌로 물을 푸고 있는데 바가지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퍼낼 수가 없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오날이는 정당풀과 송진으로 바가지의 구멍을 막고 옥황께 축도한 후에 물을 대신 퍼 주었다. 시녀들은 크게 기뻐하며 오날이에게 백배사례하고는 원천강까지 동행하며 길을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오날이는 원천강에 도착하지만, 문지기가 오날이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오날이가 서럽게 울자 냉정하던 문지기가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오날이의 부모에게 가서 고하였다. 오날이를 부른 부모는 왜 여기에 왔는지 물어 자기들의 딸이 분명한지 확인한 뒤, 오날이를 낳은 날에 옥황상제로부터 원천강을 지키라는 명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고는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두 존재하는 원천강의 성 안을 구경시켜 주었다. 며칠 후, 오날이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원천강으로 오는 도중에 부탁받은 것들을 부모에게 물었다. 부모는 장상과 매일이는 부부가 된다면 만년 영화를 누릴 것이고, 연꽃은 윗가지의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만발할 것이며, 큰 뱀은 야광주 두 개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오늘이가 연꽃과 큰 뱀을 처음 만난 사람이니, 그 야광주와 연꽃을 받으면 신녀가 되리라고 알려 주었다. 되돌아오는 도중에 부탁받은 일을 모두 마친 오날이는 백씨 부인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보답으로 야광주 하나를 선사한 후에 옥황의 신녀가 되어 승천하였다. 승천한 오날이는 옥황의 명을 받들어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이라는 책을 목판으로 적는 일을 맡게 되었다.

변이 분량이나 서사 전개 등에서 박춘봉 심방의 자료가 조술생 심방의 자료에 비해 더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술생 심방의 자료를 소개한다. 한 남자가 왕이 되려고 하자, 나라에서 그 남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사령을 보냈다. 그 사실을 안 남자가 아내에게 아무 날, 아무 시에 누가 자신을 찾아오면 모르겠다고 하면서 버티라고 말했다. 그러고서 남자는 장독대를 만들어 거기에 독을 놓은 뒤 그 속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사령이 남자를 잡으러 왔지만 번번이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사령이 꾀를 내어, 한 여자에게 세 살 난 아기를 업혀 남자의 부인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에게 자기 남편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라고 시켰다. 그 여자를 본 남자의 아내는 남편이 외도한 줄 알고 장독대에 있는 독을 열어 남편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때 사령이 나타나 남자를 잡아갔다. 남자가 붙잡혀 가면서 부인에게 원천강이나 볼 팔자라고 말했다. 그 후로 남자의 부인은 원천강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조술생 심방의 자료는 박춘봉 심방의 자료와는 전혀 다른 내용과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박춘봉 심방의 자료가 〈구복여행설화〉의 내용과 구조를 변용하였다면, 조술생 심방의 자료는 〈아기장수설화〉의 내용과 구조를 변용하였다.

분석 '원천강'이란 단어는 제주도의 서사무가 중 〈초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 등에서도 확인된다. 〈초공본풀이〉에는 '원천강 ᄉᆞ주역(원천강이 쓴 점서)', 〈세경본풀이〉에서는 'ᄉᆞ주역 원천강(원천강이란 점서)'으로 나오는데, 모두 자식을 가질 운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당본풀이〉에는 '원천강 팔ᄌᆞ 궂인 이 당 메고', '원천강을 쐬기랴고' 등으로, 〈조상본풀이〉에는 '원천강을 그리치고 ᄉᆞ주를 그리칠 아기'로 나오는데, 모두 원천강과 팔자의 연관성 또는 팔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의의 인간의 운명 인간뿐만 아니라 연꽃 같은 식물이나 큰 뱀 같은 동물 등 자연만물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사무가는 생태학적 운명관을 시사한다.

출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조선무속의 연구—상(赤松智城·秋葉隆 ,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참고문헌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이수자, 동원지춘상박사 정년기념 남도민속학의 진전, 간행위원회, 태학사, 1998), 오늘이가 아닌 오늘이 서사의 허망함(최원오, 어린이와문학-9월, 월간 어린이와 문학, 2011),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강권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김혜정, 한국무속학20, 한국무속학회, 2010), 한중일 구복여행설화의 비교적 고찰(황인덕, 비교민속학31, 비교민속학회, 2006).

필자 최원오(崔元午)

민담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정의 첫날밤 소박당해 한을 품고 신방에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사그라진 신부에 관한 전설.

줄거리 김씨 성을 가진 남자가 이씨 가문에 장가들기 전, 첫날밤에 간부(奸婦)가 어린 신랑을 죽인다는 말을 듣는다. 장가든 첫날밤 처가에 있는 신방에 들어 주안상을 받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창문에서 중의 머리 같은 것이 끄덕끄덕 하는 것을 보고 제 집으로 도망쳐 버린다. 그 후 김 씨는 새장가를 들었는데, 10년 만에 옛날 처가 동네를 지나다 옛일이 생각나서 그 집을 찾는다. 집은 보잘것없는 처지가 되었고, 몸종이 김 씨를 맞이한다. 몸종은 집안 식구들이 다 죽고 아씨하고 자신만 남았으며, 김 씨가 도망간 후에 아직 신방 문을 못 열어 보았다고 한다. 몸종은 김 씨에게 "백배사죄한 후 문을 열어 달라."라는 신부의 말을 전한다. 문을 열자 첫날밤 모습 그대로 먼지를 뒤집어쓰고 신부가 앉아 있다. 신부는 "여우가 되어 오늘내일 서방님을 잡아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원을 풀어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한다. 김 씨가 자신이 도망간 이유를 말하자, 신부는 그것이 창 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던 해바라기 꽃이라고 하면서 사실을 확인시킨다. 두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은 주안상의 술을 나눠 마시고 첫날밤을 다시 지낸다. 신부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은 뼈만 남을 것이니 김 씨의 등거리로 싸서 묻어 주고 가라고 부탁한다. 첫날밤을 지낸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신부의 뼈를 묻어 주고 떠난다.

변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신부 원혼을 달래준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자료는 남성이 화자이다. 제목에 이미 '신랑'이 주체임을 드러낸다. 신부의 계모가 신랑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엿들은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자, 신부는 자살해서 원귀가 된다. 그 뒤 다시 장가를 들어 신행길에 옛 신부의 동네를 지나다가 원혼이 운다는 사연을 듣고 신부집에 찾아가서 유예되었던 첫날밤을 보낸다. 다음 날 신부는 뼈만 소복이 남긴 채 스러지고 신랑은 신부의 뼈를 묻어 준다. 그 후 신랑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간다.

이 이야기에서 신랑에게는 큰 잘못이 없다. 신부의 계모가 하인들을 시켜 신랑을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즉, 신부의 가정 내 갈등이 원혼의 원인이다. 또 이 자료의 특징은 신랑의 보상 화소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뼈를 수습해 주고 한을 풀어 주는 데서 그치는 여성 화자의 이야기와 달리, 신부의 한을 잘 풀어준 덕분에 신랑이 복을 받는다는 결말에 이른다. 이 유형의 전설은 남성 화자가 구연하면서 남성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와 출세하려는 욕망을 표현한다. 신부를 자살에 이르게 한 잘못이 신랑에게는 없지만 신부의 원한을 신랑이 잘 풀어주었기 때문에 신랑이 벼슬을 한 것이라는 남성 중심적 메시지가 이 유형의 전설에 녹아 있다. 〈상사뱀전설〉은 원한을 품고 상사뱀이 된 처녀가 이순신과 같은 긍정적이고 유명한 인물과 결합하면서 복수가 아니라 복을 주는 존재로 전환하는데, 이 유형이 갖는 의미와 대단히 비슷하다.

사그라진 신부는 신랑과의 재회로 한을 푸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으로 숭배되기도 하는데,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의 〈황씨부인당전설〉이 그것이다. 이 전설은 두 유형이 전해지는데, 하나는 오해한 신랑이 도망친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 학대 유형이다. 전자는 후반부가 변이되는데, 신랑이 도망쳐서 새로 장가들었지만 아이를 낳기만 하면 죽어 점을 쳐보았더니 신부의 원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당을 지어 원혼을 위로하자 시신이 삭아 없어졌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후자는 첫날밤의 사건을 벗어나 시집살이담으로 바뀌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인물이 나타난다. "지금부터 약 160여 년 전 순조 때 경북 영양군 청기면 당리에 살던 우 씨의 부인 평해 황씨는 남편과 혼인하여 금실 좋게 살았으나 딸만 아홉을 낳아 시어머니의 학대가 극심했다. 황씨 부인은 아들을 낳지 못한 죄책감으로 더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대할 수가 없어 아홉째 딸이 젖을 뗄 무렵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렇게 실종된 며느리를 찾지 못하다가 산삼을 캐던 심마니가 삼막(蔘幕)에서 소복을 입고 있는 며느리를 만난다.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달려가 "여보." 하며 손을 잡자 부인은 사라지고 백골과 재만 남는다. 남편 우 씨는 탄식하며 이를 거두어 장사지냈고, 그 후 마을 사람들이 황씨 부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 자리에 당을 짓고 '황씨부인당'이라 했다는 것이다. 전자든 후자든 남성 화자이

기 때문에 여성이 원한을 품게 된 원인이 남성 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야기의 초점은 원혼의 한을 풀어 주고 사당을 만들어 위로해 주었다는 데 있다.

분석 이 유형의 전설은 원혼형 설화의 하위 갈래에 속한다. 원혼형 설화는 원혼이 한을 풀기 위해 현실로 돌아와 문제를 일으키는 일련의 설화를 말한다. 그 가운데 이 전설은 첫날밤에 소박당한 신부가 주인공이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말 못할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어린 신랑의 오해로 간부라는 누명을 쓴 신부가 자신을 한을 풀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여성의 정절이 극도로 중시되던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설화인데, 이 유형의 전설에서는 화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누가 구술하느냐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고 전설에 담기는 주체의 목소리가 달라진다. 〈말 못할 사연〉의 화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신부의 처지에서 신랑에게 당당하게 요구한다. 백배사죄해야 문을 열어 준다, 여우가 되어 복수하려고 했다, 남편의 체취가 묻은 속옷으로 뼈를 싸서 묻어 달라는 요구는 모두 여성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이다.

특징 황씨 부인은 현재도 당리 촌민들의 수호신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으로 모셔진다. 황씨부인당은 무당들의 기도처가 되었고, 이들에게는 여산신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황씨 부인은 아들을 낳게 해 주는 영험이 있는 당신으로 숭앙을 받기도 한다. 아들을 낳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황씨 부인의 한이 같은 한을 지닌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발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설이 신화로 변하는 특징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의의 이 설화는 여성의 원한을 그리는 원혼형 설화 가운데서 남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원한은 해당 남성의 사죄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는 구전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시에 전설의 주인공인 원혼이 민간 신앙에서 당신으로 신격화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출처 영남지방의 동제와 탈놀이(박진태, 태학사, 199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2, 264; 8-4, 664. 초야에 가출한 신랑(손진태, 최인학 역,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참고문헌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조현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원혼설화에 타나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강진옥,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필자 조현설(趙顯卨)

용어

원형

原型, Archetype

정의 다양한 문학작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서사양식, 인물유형, 이미지 등을 지칭하는 문학비평상의 개념.

내용 원형은 하나의 문학작품을 다른 문학작품과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하며, 각자의 문학 경험을 하나로 통일하거나 통합할 수 있게 하는 전형적·반복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들은 고도로 관습화된 문학작품에서 쉽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천상(天上)의 이미지를 식물계에 적용하면 나무는 성수(聖樹)가 되는데, 이러한 성수로의 원형 이미지는 각종 문학작품에서 전위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난다. 〈단군신화〉에서 신단수(神檀樹)-신시(神市)의 중심, 웅녀가 환웅과 결연하여 단군을 낳게 되는 계기가 됨-, 〈김알지신화〉에서 시림(始林)의 나뭇가지-김알지가 시림의 나뭇가지에 걸려 있던 황금궤 안에서 나옴-, 〈신충설화〉에서 궁궐 뜰의 잣나무-신성왕권과의 유감적(類感的) 관계를 나타냄-, 〈사복설화〉에서 띠풀-어머니를 장사지내려 할 때 띠풀을 뽑으니 그 밑에 비인간의 연화장계(蓮花藏界)가 나타남-, 〈원효불기설화〉에서 밤나무-원효의 어머니가 밤나무 아래에서 원효를 낳았다 하여 그 밤나무를 사라수(裟羅樹)라 부르며 성별(聖別)하려는 의도가 나타남-가 그러한 예다.

필자 최원오(崔元午)

용어

원혼설화

冤魂說話

정의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이 직접 나타나 해원을 이루고자 하는 설화.

역사 원혼(冤魂)이 억울함을 풀어내는 이야기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나타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사비(斯卑)와 탁리(托利)가 원혼이 되어 유리왕에게 병을 주었으나 무당의 중재로 해원을 하는 내용이 보인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적국에 환생하여 보복한 원혼(〈고구려 추남〉), 억울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 윤회 전생할 때마다 병을 준 원혼(〈신충봉성사유래〉), 사냥에서 희생된 동물의 원귀(김대성 조, 혜통항룡 조) 등에 원한을 해소하는 이야기가 나타난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백성의 원한을 산 벼슬아치가 천벌을 받아 응징당하는 사례가 보인다. 조선시대 각종 문헌설화집에는 전대 자료들을 계승하면서 당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원혼설화 유형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삼국시대의 원혼설화가 남성 원혼에 편중되었다면 조선시대 문헌설화에는 여성 원혼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아랑전설〉이나 〈상사뱀〉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 원혼담이 확인되고 있다. 원혼설화는 민간 신앙화된 원혼 관념에 근거하여 전승되는 구비설화에서 더욱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 주는 한편, 다양한 문학 장르의 소재적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사본풀이〉, 〈짐가제무가〉는 자식으로 환생하여 보복하는 원혼담이 핵심 서사로 작용하는 무속신화이다. 원혼설화와 소설 장르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활발한 교섭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혼설화는 고소설의 경우 〈장화홍련〉 등 계모와 전실 자식의 갈등을 다루는 유형이나 처첩관계 갈등을 다루는 유형처럼 여성 인물의 고난이 부각되는 가정 소설류에서 적극 수용되었다. 그리고 원혼설화는 앞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신소설에도 다양하게 활용되며, 현대 소설에서도 적지 않은 작품에서 재현되고 있다. 원혼설화는 영상 매체에서도 적극 재현되고 있다. 1967년 권철휘 감독의 〈월하의 공동묘지〉 이후 한국형 공포 영화의 계보를 형성할 만큼 수많은 작품을 산출하면서 사회적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고, 〈전설의 고향〉을 위시하여 TV 드라마로도 다양한 재현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내용 원혼설화는 견딜 수 없는 일 때문에 죽은 사람의 혼령이 생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원귀·동물(상사뱀, 족제비)·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직접 대면하거나 현몽이나 매개물을 통해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원혼이 되어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자기 주장을 관철할 만한 처지에 있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원혼이 되는 존재는 사회적 약자 또는 주변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원혼설화는 오랜 역사적 배경과 광범위한 전승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 자료의 범주가 넓지만, 원혼의 발생 동기와 해원 방식에 따라 신원형, 욕구형, 좌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좌정형은 원혼이 집단민의 합의를 통해 당신으로 좌정하는 유형으로서 당신화에 포함된다.

신원형은 원혼이 제3자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내는 유형이므로 인간과 원혼의 '소통'이 문제해결의 중요 단서가 된다. '아랑형'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폭력적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행착오 끝에 원님과 소통하여 문제를 공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미혼 여성의 원혼담이다. 〈곡성 듣지 않은 상복〉은 속임수로 정절을 잃은 것을 알자 자살한 기혼 여성의 원혼이 원님의 꿈에 나타나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한다. 〈사그라진 신부 원혼〉은 첫날밤 신부형상으로 오랜 세월 버틴 원혼이 신랑의 사죄를 받자 해원하는 이야기이다. 이들 여성 원혼담에서 원혼의 발생 요인은 정절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성 윤리관에 기인한다. 신원형 남성원혼담의 경우 원혼 발생은 사회 계층적 갈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샛서방과 공모한 아내에게 살해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다. 원혼이 동물 형상으로 나타나 결정적 동기를 제공하여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는 〈족제비가 된 남편 원혼〉, 혼령이 문제 해결자에게 과거 급제로 보답하는 〈남의 덕에 과거한 박문수〉가 그 예이다. 이처럼 신원형 원혼의 형성 요인에서 여성의 정절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신원형의 의미 지향이 윤리적 가치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욕구형은 애정이 거부되자 좌절한 사람의 혼령이 연모 대상에게 직접 나타나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야기 유형이다. 사랑이 좌절되는 이유는 계층별 차이와 윤리적 규범에서 비롯된다. 원혼은 주체의 욕망과 그를 둘러싼 외부적 제약(사회·윤리적 규범)의 대립에서 발생하므로 욕구형 원혼담은 욕망과 사회적 금제의 관계 양상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원혼은 문제 당사자와 대면하여 억압된 욕망의 해소를 시도한다. 욕구형 설화를 대표하는 〈상사뱀〉은 남성형과 여성형 모두 상층 인물을 사랑하는 하층 인물의 좌절을 통해 계층적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아가 여성형에는 남성 인물의 완강한 도덕관념과 거부당한 좌절감으로 죽어 가는 하층 여성 인물의 욕망을 대비적으로 보여 주면서 인간의 생명과 윤리적 규범의 관계 양상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욕구형 원혼설화에는 가족의 시신을 수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자신의 간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진 처녀 원귀가 신립을 패망시킨다는 〈신립과 여귀〉, 연모 감정을 이기지 못해 담을 넘어간 처녀가 연모 대상에게 종아리를 맞고 돌아와 원귀가 되었다는 〈월장한 처녀 원귀〉 등이 포함된다. 욕구형 원혼은 연모 상대와 직접적 대면을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이는 신원형 여귀가 공적 통로를 통해 사회적 공감 속에서 해원을 이루는 것과 비교된다. 신원형 여귀가 정절 수호라는 공적 가치를 제기하는데 비해, 신분적 질서나 윤리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욕구형 원혼의 동기는 공적 채널을 통해 담론화하기에는 어려운 사회적 금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원혼설화의 구성과 서술 방식에는 해원을 통한 상생적 결말에 대한 지향이 보인다. 이는 원혼의 발생이 계층·권력·물리적 힘의 여부에 따른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과 대비되면서 원혼설화의 담론적 지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의의 원혼설화는 생시의 원통함을 원귀가 되어 풀어내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원혼 등장은 '죽어서 말하기'에 해당된다. 원혼설화에서 원혼은 상층보다는 하층, 남성보다는 여성으로서 권력이나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주변 인물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혼의 위상은 원혼 담론이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임을 보여 주는 증거로서 원혼 담론이 소외되고 거부당한 사회적 주변인들의 자기표현 방식임을 말해 준다.

원혼설화는 한국 문화의 기저를 형성하는 원혼 관념에 기반을 두고 전승된다. 원혼은 그 형상적 특이성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비일상적인 존재 양태로서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화소이다. 원혼설화는 무속신화와 기록문학, 영상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장르에 수용되어 다양한 작품들을 산출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원형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강진옥, 고전문학연구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욕구형 원혼설화의 형성과정과 변모양상(강진옥, 한국문화연구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3), 한국 원귀설화의 비교문학적 연구(안병국,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필자 강진옥(姜秦玉)

전설

원효

元曉

정의 신라 고승 원효의 불법 설파와 신이한 행적에 관한 설화.

역사 문헌과 구비에 나타나는 전승양상은 원효의 불교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문헌에서는 구체적으로 불법을 설파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비에서는 원효의 신이한 행적을 중심으로 전승된다.

줄거리 617년(진평왕 39)부터 686년(신문왕 6)까지 신라에 살던 승려 원효는 공부하기 위해 의상과 함께 중국으로 떠난다. 그러던 중 밤에 한 동굴에서 노숙하게 되었는데, 목이 말라 왼편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신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시체가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음을 얻어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원효의 신이한 탄생과 불법의 설파 과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원효의 어머니는 유성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원효를 잉태하였다. 원효는 그의 어머니가 만삭이 되어 골 밤나무 밑을 지나갈 때 태어났는데 그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편의 옷을 나무에 걸고 해산하여 그 나무를 사리수(娑羅樹)라고 하였다. 지금도 그 나무의 열매를 사리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원효를 해산할 때에 오색구름이 덮였다고 한다. 이렇게 태어난 원효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스승 없이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다. 하루는 원효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 주겠는가. 하늘 받칠 기둥을 깎겠다(誰許沒柯斧我斫支天柱).'라며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자, 태종(김춘추)이 그 의미가 현자를 낳고자 하는 내용임을 파악하고 요석공주와 동침하게 해 설총을 낳게 한다. 이후 원효는 속복으로 갈아입고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칭하며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을 설파한다. 이에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도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 외에도 구비설화에서는 원효의 신이한 행적에 관한 내용이 전승된다. 원효가 중국 오대산에서 법회에 참여한 천 명의 승려를 살려낸 신이한 행적에 관한 일화도 있다. 원효가 암자에서 수도하다 하늘을 보니 중국 뒷산이 무너져 승려들이 몰살당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글귀를 써 중국을 향해 던지자 그곳의 승려들이 하늘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다. 이후 마지막 승려가 나오자 산이 무너져 절이 함몰되었다. 하지만 승려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승려들이 문을 열어 하늘에서 날아온 문짝을 보니 '해동의 고승 원효가 천 명의 승려를 구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이들은 신라에 와 원효의 제자가 되었다.

변이 〈원효설화〉에서는 먼저 불교의 설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이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문헌설화에서 관음보살이 원효의 깨달음의 경지를 시험해 보는 유형과 원효가 금강삼매경소를 짓고 설법하여 이후 왕후의 병을 고치는 유형이 존재한다. 두 유형 모두 원효가 불법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적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유형의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가 불도를 닦는 과정에서 보여 주는 신이한 행적에 관한 변이형은 주로 구비설화에서 나타난다. 먼저 원효가 천 명의 스님이 기거할 곳을 찾다가 운흥사를 지어 이들을 수도하게 하고 이후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주하도록 조화를 부리는 유형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온양면 운화사 서쪽의 도통골에서 수도하던 원효가 난데없이 물을 떠 오라 하여 북쪽에 뿌렸는데 그 시각 불타고 있던 불국사 남쪽에서 구름이 몰려와 불이 꺼지는 유형이 있다. 원효가 제자인 사명당과 점괘를 해석하는 내기를 하지만 번번이 원효가 이긴다는 유형도 있고, 원효가 영혈사를 비롯한 절을 지었다는 유형의 변이형도 존재한다. 이들 유형에서는 해당 절이 원효의 신이한 사건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내용을 지님으로써 특정 사찰의 기원과 유래를 원효에게서 찾고 있다. 이들은 모두 원효가 불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는 신이한 행적에 관한 변이형이다.

분석 불도를 닦고 불법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효의 행적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문헌설화에서는 원효가 불교를 설파하는 모습과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불교 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 반면 구비설화는 원효가 불도를 닦는 과정에서 보여 주는 신이한 행적을 중심으로 원효의 민중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원효가 산중에서 도적을 교화하고 그들을 부려 부석사를 지었다는 구비전승의 변이형 역시 불법 설파의 측면과 동시에 원효의 민중 영웅적 자질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징 문헌설화에서는 원효가 대중에게 불교를 설파하는 과정과 노력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불교 관련 설화들에 비해, 불교의 대중화 과정이나 대중적 가치관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구비설화에서는 산적을 교화하는 모습이나 화재로 위기에 처한 절을 구하는 모습, 부자들에게 조화를 부려 자발적으로 시주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지향적인 원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의의 〈원효설화〉에서 원효는 다른 고승들과는 달리 자신의 비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 특히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 주겠는가. 하늘 받칠 기둥을 깎겠다.'라는 노래는 원효가 은유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세속적인 비유를 통해 초월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원효 특유의 스타일을 보여 준다.

출처 三國遺事, 宋高僧傳, 林間錄, 宗鏡錄,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2, 153.

참고문헌 설화에 반영된 원효사상과 민중 의식(서대석, 국문학연구16, 국문학회, 2001), 원효설화의 미학(오대혁, 불교춘추사, 1999), 원효설화의 상징적 의미(박쌍주, 교육철학15, 한국교육철학회, 1997), 원효전승의 종합적 고찰(조춘호, 국문학64, 한국어문학회, 1998), 전기와 설화를 통해 본 원효 연구(김영태, 불교학보17, 불교문화연구원, 1980), 한국불교설화의 양상(최래옥, 한국의 민속과문화3, 민속학연구소, 2000), 한국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조현설 외, 역락, 2005).

필자 송효섭(宋孝燮)

전설

월성

月城

정의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있으며 신라 때 축조된 월성과 관련된 설화.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 〈탈해이사금〉과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탈해왕〉에 월성 관련 이야기가 실려 있다. 『삼국사기』 권34 〈잡지제삼(雜志第三)〉을 보면, 파사왕(破娑王) 22년(101)에 금성 동남쪽에 월성(月城)을 쌓았는데, 임금이 머문다는 뜻에서 재성(在城)이라고도 했다. 혹은 반달처럼 생겼다고 신월성(新月城), 반월성(半月城)으로도 불렸다. 둘레가 1,023보였다. 북쪽에 둘레가 1,838보인 만월성(滿月城)이 있었다. 시조 이래로 사람들이 금성에 살다가 후세에는 두 월성에 많이 살았다고 했다. 이렇게 월성은 신라 희망의 상징으로서 신라 초기에서부터 말기까지 신라의 정궁(正宮)이었다. 문무왕 때는 안압지, 임해전, 첨성대 일대가 편입되었고, 월성 옆에는 문천(蚊川)은 월성의 해자(垓字)로서 조운선도 출입했다고 전한다. 특히, 월성과 탈해왕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고, 이는 설화의 발생 배경이 되었다.

줄거리 월성과 관련된 탈해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용성국(龍城國)에서 알과 보물과 함께 궤짝에 실려 온 탈해는 가야에서 괴이하게 여겨 거절당한 뒤 계림 동쪽 아진포(阿珍浦)로 왔다. 학문과 지리에 두루 통달한 탈해는 두 종과 함께 토함산에 올라가 돌무덤을 만들고 7일 동안 머물렀다. 초승달을 닮은 봉우리가 있어서 오래 머물 곳이라 생각하여 찾아가 보니, 호공(瓠公)의 집이었다. 탈해는 그 집에 숫돌과 숯을 몰래 묻고 이튿날 아침에 찾아가서 자기 조상이 살던 곳이라 우겼다. 호공이 관가(官家)에 고발했다. 관가에서 증거를 요구했다. 탈해는 자기 조상은 대장장이로 잠시 이웃지방에 간 사이 다른 사람이 빼앗은 것이니 땅을 파보라고 했다. 과연 땅에서 숫돌과 숯이 나와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이 월성지였다. 또한 진흥왕 때 "왕이 명하여 월성 동쪽에 새 궁전을 지으려는데 황룡이 나타나서 왕이 이상하게 여겨 절로 개조하고 '황룡사(黃龍寺)'라는 이름을 내렸다."(『삼국사기』 권4 진흥왕 조)라고 하여 월성과 황룡사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설화도 전한다.

분석 왜국 동북 1천 리에 있다는 용성국-정명국(正明國), 완하(玩夏), 화하(花厦) 또는 다파나국(多婆那國)이라고도 함-은 일본의 한 지역 혹은 동북 시베리아 일대로도 본다. 그러나 용성국은 먼 곳이라는 점에서 탈해의 출신적 신성성과 관련시키는 것이 무난한 듯하다. 또한 탈해(脫解)에서 해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고 탈해가 실제로 동악신이니, 용성국은 '해 뜨는 곳'을 뜻하는 말로도 추정된다. 또한 정명은 밝음과 관련되고, 완하, 화하는 여름과 관련된다(실제로 한여름 해는 동북쪽에서 뜬다). 탈해는 토함산에서 월성 쪽을 바라보고서 길지로 알고 찾아갔다고 했다. 따라서 월성은 신라 초기에 경주 동쪽에 있는 토함산에서 뜨는 해를 숭배하던 신전을 모태로 발전한 궁궐일 가능성이 크다.

의의 박혁거세의 탄생지에 가까이 있으면서 신라 초기부터 말기까지 정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탈해가 토함산에서 월성이 길지임을 알아보고 선택하여 마침내 왕 자리에 오르고 죽어서 토함산의 동악신으로 숭배되었다는 점에서 월성은 신라에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곳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참고문헌 석탈해와 토함산, 그리고 석굴암(강인구, 정신문화연구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신라도성 유적의 발굴과 연구현황(박박룡, 경주월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시, 2010), 신라상대 왕실에 있어서 외손의 왕위계승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성태규, 고문화6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4), 탈해신화의 문학사적 의미(박대복, 우리문화연구18, 우리문학연구, 2005), 토함산 석굴암의 점정과 그 배경(장충식,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10, 한국교무불자연합회, 2004).

필자 전관수(田寬秀)

전설

유금이들

정의 경상북도 경주시와 인근 지역에서 〈유금이들〉의 유래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용이 된 임금이 치수를 완성하고 이를 알아본 유금이에 힘입어 승천할 수 있었다는 전설.

역사 통일신라의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김부대왕이 홍수 피해에 속수무책인 상황을 한탄하다가, 자신이 죽으면 용이 되어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임금이 죽은 뒤 예언대로 치수를 완성하였지만 하늘로 승천할 힘이 없었는데, 지나가던 유금이가 용으로 화한 임금임을 알아봄에 따라서 승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줄거리 신라 김부대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주의 절반에는 형산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큰비가 오면 경주가 자주 물에 잠겼다. 산(형제산)을 뚫어 물꼬를 트기 위한 공사를 하려고 해도, 물이 차 있어 쉽지 않았다. 김부대왕은 천년의 도읍지가 될 자리가 경주 터인데, 그런 장소로 못 만드는 것을 아쉬워하며, "내가 죽으면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적에 물꼬를 막고 있는 산을 처내어 물꼬를 트고 가겠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김부대왕이 죽어 큰 구렁이(이무기)가 되어 경주 어느 들에 엎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용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에 유금이라는 영리한 아이가 구렁이를 보고, "아 용님 나오신다."라고 외쳤다. 구렁이는 꼬리로 동해 열두 섬을 치고서 울릉도를 치려고 하자, 아이가 "울릉도는 용의 것이니, 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열두 섬을 친 구렁이는 용이 되어, 형제산을 둘로 갈라놓고 승천하였다. 이후, 대왕이 용이 되어 승천하게 도와준 유금이라는 아이를 기려, 용이 승천한 들을 유금이들이라 하고, 나누어진 두 산을 형산(兄山)과 제산(弟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변이 전승 과정에서 유금이들이 주금이들로 와전되기도 한다. 또한 이 주금이란 와전된 말을 근거로 '죽음들'이라는 의미 해석까지 이루어지기도 한다.

분석 〈유금이들〉 이야기의 주요 모티프는 '용이 된 임금'과 '임금(용)을 알아본 백성'이다. 유금이들이란 지명의 유래를 밝히는 지명 유래담이지만, 용이 백성을 위해 농사지을 땅을 만들고 백성이 용을 알아본다는 설정이 중심 모티프인 셈이다. 문무대왕을 주인공으로 하여 전승되는 전설은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해의 열두 섬을 쳤다는 식으로 호국 의식이 강조된 반면,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에서 채록된 유금이들 이야기는 왕이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민중 의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용 관련 전설은 이후 청룡과 황룡, 혹은 청룡과 백룡 등의 싸움에 인간이 관여하여 많은 토지를 얻거나 화를 입게 된다는 도조 유형의 전설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 〈유금이들〉 이야기는 경주 지역에서 다수 채록되었는데, 구미 지역에서 채록된 것에는 왕의 이름이 없으나, 경주 지역에서 채록된 것은 왕의 이름이 김부대왕(경순왕)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주 감포의 대왕암, 수중릉 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전승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 124; 7-2, 50; 7-3, 210; 7-15, 380.

참고문헌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9), 용 싸움에 끼어든 도조(度祖)유형 설화의 서사구조와 갈래 차이의 현장론적 분석(김진형,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조정현(曺鼎鉉)

신화

유리왕신화

瑠璃王神話

정의 고구려 제2대왕 유리의 왕위 계승을 다룬 왕권신화.

줄거리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주몽이 떠난 뒤 유리가 태어난다. 유리가 어릴 때 새를 쏘며 놀다가 실수로 물 긷는 부인의 물동이를 깨뜨린다. 그 부인이 "아비가 없어 미련한 짓을 한다."라고 꾸짖자 유리가 부끄러워하며 돌아와 어머니에게 부친의 일을 묻는다. 그러자 어머니는 유리에게 아버지가 남쪽 땅으로 가 나라를 세웠다면서 부친이 남긴 "일곱 모난 돌 위의 소나무 밑에 감춘 물건을 찾으라."라는 말을 전한다. 유리는 부친이 남긴 물건을 찾으려고 산골짜기를 헤매다 돌아왔는데 집안의 주춧돌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기둥 밑에서 부러진 칼을 찾는다. 그것을 가지고 옥지 등 세 사람과 함께 졸본으로 가서 부왕을 만나 단검을 맞추자 갈라진 자리에서 피가 나면서 둘이 연결되어 하나의 칼이 된다. 부왕이 진짜 내 아들이라면 신성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유리는 곧 공중으로 몸을 날려 창구멍으로 새어드는 햇빛을 타는 신이한 능력을 보인다. 부왕은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는다.

분석 〈유리왕신화〉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동명왕편(東明王篇)」 등에서 〈주몽신화〉에 이어 기록되어 있다. 〈유리왕신화〉는 건국신화가 아니라 주몽이 동부여에 있을 때 결혼하여 낳은 아들 유리가 새로 나라를 세운 부친 주몽왕을 찾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능력을 인정받아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을 다룬 왕권신화이다. 이 왕권신화의 핵심은 유리가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고 부러진 칼을 찾아 아버지의 단검과 서로 맞추어 보는 이야기이면서도 공중으로 솟구쳐 햇빛을 타는 능력을 보이는 이야기이다. 전자는 『삼국사기』에, 후자는 「동명왕편」(곧 『구삼국사(舊三國史)』 「고구려본기」)에 전하고 있다.

이 신화의 주인공인 유리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해씨(解氏)계의 첫 번째 왕으로, 신화 속의 아버지와는 성씨가 다르다. 따라서 유리의 시조신화가 당연히 전승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건국신화는 고씨인 주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리의 신이한 탄생담이나 결연담은 생략되고 왕권계승담만 남은 것이다. 고구려 건국신화나 그와 깊은 관계가 있는 무속신화의 화소를 〈유리왕신화〉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무속신화 〈제석본풀이〉는 중의 형상으로 찾아온 제석신(혹은 석가모니불)과 당금애기의 결연담으로 시작된다. 결연 후 중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약속의 징표를 남긴 채 떠나고 당금애기는 홀로 남아 아들 삼 형제를 낳는다. 이 아들들이 성장하여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삼천 선비로 상징되는 적대적 인물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린다. 이 말을 들은 삼 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당금애기에게 부친의 행방을 묻는다. 모친이 응하지 않자 협박을 하여 결국은 부친을 찾아가는 징표인 박씨를 얻는다. 하루 만에 하늘까지 닿은 박 넝쿨을 타고 올라가 부친을 만난 삼 형제는 그릇에 각자의 피를 담아 그 피가 서로 합쳐지는 것으로 부자 관계를 확인한다. 부친을 확인한 삼 형제는 신직을 받아 신이 된다.

〈제석본풀이〉와 〈유리왕신화〉를 견주어 보면 아버지의 부재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비난을 받은 주인공의 아버지 탐색, 정체 확인 과정에 등장하는 피 등의 화소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근거를 통해 판단해 보면 〈유리왕신화〉 역시 〈주몽신화〉처럼 천부지모(天父地母)의 결합에 의한 영웅의 탄생이라는 이야기가 그 전반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리왕신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몽신화〉의 일부로, 왕위계승담으로만 존재한다. 그 결과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자 관계 확인담과 천신의 혈통으로서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신이담만 남고 나머지는 소거된 것이다.

특징 『삼국사기』와 「동명왕편」 가운데서는 후자가 더 신화적이다. 부여계 신화의 핵심 신화소의 하나가 선사(善射)이다. 주몽도 명사수이고 유리도 명사수이다. 「동명왕편」에서 유리는 단지 활을 쏘아서 물동이를 깬 정도가 아니라 구멍 뚫린 물동이에 진흙 탄환을 쏘아 이전처럼 다시 막는다. 파리를 쏘아 떨어뜨린 주몽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활쏘기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 선사 화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동명왕편」에는 무속신화처럼 유혈 화소가 나타난다. 서로의 피를 합쳐 합혈(合血) 여부로 부자 또는 모자 관계를 확인하는 화소는 여러 무속신화에 보이는 바 부러진 칼을 합쳤는데 피가 흘렀다는 것은 이 신화소가 수용된 결과이다. 햇빛타기화소 역시 부여계 신화소이다. 주몽왕의 다른 이름인 동명왕과 그의 아버지 해모수, 북부여 신화의 해모수와 해부루, 그리고 유리명왕은 모두 해[日], 빛[光], 밝음[明]과 관계가 있다. 유리가 공중으로 솟구쳐 햇빛을 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여계 신화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신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진흙탄 화소, 유혈 혹은 합혈 화소나 햇빛타기의 화소를 삭제한다. 역사적 인물인 유리왕의 영웅성, 그리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표현하는 데 이런 신화적 요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부여에서 태어나 성장한 유리가 어머니 예씨와 함께 졸본에 찾아왔을 때 주몽왕에게는 왕비 소서노와 두 아들 비류, 온조가 있었다. 전·후처의 아들들 사이에 왕권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했다. 이 갈등에서 승리한 쪽이 유리 집단이다. 패배한 비류, 온조 집단은 졸본을 떠나 남하하여 각각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유리왕신화〉는 이 사건 이후 유리 집단이 자신들의 왕위 계승 정당성을 신화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에 〈유리왕신화〉를 끼워 넣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리왕신화〉는 시조신화가 아니라 왕위계

승담, 왕권신화로 정착되었다.

의의 〈유리왕신화〉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신화가 건국신화와 무속신화의 관련성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당금애기〉라고도 불리는 〈제석본풀이〉와 〈유리왕신화〉의 유사성은 건국신화 또는 왕권신화가 본래 무당에 의해 구연되던 서사시였으며, 이 서사시가 한문 기록으로 정착된 것이 오늘날 확인할 수 있는 문헌신화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출처 三國史記, 東明王篇.

참고문헌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이지영, 월인, 2000),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 1980).

필자 조현설(趙顯卨)

전설

유왕산

留王山

정의 부여 지역에 전승되는 백제설화의 하나로, 유왕산 지명과 유왕산놀이의 근원에 대한 유래 전설.

역사 서기 660년 음력 8월 17일 의자왕, 태자, 세 왕자, 대신 88명, 백제 백성 12,807명이 당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실과 당시 남은 사람들이 유왕산 마루턱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끌려간 사람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약했다는 역사의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지금까지 전승된다.

줄거리 나당연합군은 백제가 망하자, 백제를 부흥하려는 세력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의자왕과 대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때 잠시 머무른 곳이 바로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에 있는 유왕산이다. 남은 백제 유민들은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유왕산 마루턱에 올라 다시 만날 것을 마음 속으로 기약하였는데, 이 마음이 이어져 매년 음력 8월 17일이 되면 유왕산에 모여 당나라로 끌려간 백제 사람들을 추모하기 시작한 것이 유왕산놀이의 시초가 되었다.



유왕산
충남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 한국학중앙연구원

변이 유왕산(留王山)은 왕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머물다 간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다른 이름으로 왕이 즐겁게 놀던 산(遊王山)이라고도 한다. 이는 소정방이 포로로 잡혀가는 백제왕과 유민들이 이별의 회포를 풀 수 있도록 일주일간 머물게 했다는 구전에서 기인한다. 부여 지역 구전에 의하면 백제왕과 유민들이 당나라로 떠나기 전 이곳에 머물 때, 백제 부흥군이 당나라 군대를 향해 활을 쏘았다고 하여 사당산(射唐山)이라고도 한다.

분석 〈유왕산〉 이야기는 유왕산놀이의 구술상관물이다. 역사 사실과 이야기의 진실이 구비전승물과 세시풍속으로 연관되어 전승되다가, 지역문화 축제로 확산된 예의 하나이다. 특히 유왕산놀이는 백제 유민이 모여 추모하던 추모제가 1947년까지 아녀자들의 반보기 행사로 변이되어 난장이 펼쳐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최근 다시 추모제의 성격으로 회귀하여 지역 축제가 되었다. 이렇게 추모제 중심의 성격으로 지역 축제를 형성할 수 있는 타당성의 근원이 바로 〈유왕산 전설〉이다. 인근의 충남 서천 남산에도 이와 비슷한 전설과 풍속이 전한다. 1948년 이후 단절되었던 이 행사는 1997년 백제 멸망의 역사 배경과 반보기의 세시풍속을 바탕으로 하여 향토 축제인 유왕산 추모제로 부활하였다.

의의 〈유왕산〉 이야기는 지역 축제의 근원설화로 전승되고 있으며, 연구 또한 유왕산놀이와 유왕산 추모제와 연관하여 진행되었다.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유왕산의 지명과 놀이의 근원을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구조가 간단하나, 구비전승물과 세시풍속의 상관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부여군지(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부여의 구비설화(김균태, 보경문화사, 1995), 부여의 전설집(김석기, 화산출판사, 198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55.

참고문헌 유왕산놀이(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유왕산추모제(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전설과 지역문화(최운식 외, 민속원, 2002).

필자 이상희(李尙姬)

전설

유의태

柳義泰

정의 조선 중기 명의 유의태의 의술을 이야기한 명의설화.

역사 명의설화의 출현은 의원에 대한 민중의 관심에서 비롯된다. 이는 민중들이 처한 사회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조선시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은 임병양란과 이상 기후로 기근과 역병이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근과 불량한 위생에서 온 약한 면역력은 풍질·역병·구토·두통·눈병·부인병·귓병 같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 이때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민중들은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인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런 시대 상황과 민중의 소망이 어우러져 명의설화가 탄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줄거리 외아들인 유의태는 이른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 겨우 결혼을 한 유의태는 나무장사를 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아버지가 한 적선에 대한 보답으로 금침과 은침을 준다. 의술을 전혀 모르던 유의태는 금침과 은침으로 침술을 행하여 이내 명성을 얻는다. 대국천자가 정수리에 부스럼이 나서 유의태를 초빙한다. 일주일의 기한을 받은 유의태는 골방에서 코딱지와 벽의 흙을 발라 환을 만든다. 말린 환을 다시 갈아 천자의 환부에 바르니 사흘 만에 병이 낫는다. 천자가 유의태를 환대하며 조선으로 돌려보낸다.

분석 〈유의태설화〉는 다섯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명의 의료담으로 여기에서 유의태는 병의 종류나 환자의 계층에 관계없이 명쾌하게 병을 해결하는 신의(神醫)로 등장한다. 둘째는 효행 및 자애 의료담으로 유의태의 의술보다는 가족의 정성이 치료의 해결책이 된다. 셋째는 요행 의료담으로 유의태가 임기응변으로 제조한 가짜 약이 치료제가 되어 위기를 해소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곤경에 처한 유의태가 원조자의 등장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유형이다. 다섯째는 의술도구 획득담으로 의술도구의 획득은 유의태를 명의로 이끄는 매개체가 된다.

의의 〈유의태설화〉는 인간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설화 각편에서 나타나는 병에 걸린 사람은 지배계층이 많고, 또 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코딱지, 흙벽 같은 하찮은 것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의료 혜택을 독점하던 지배계층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해학적인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민중들의 낙천성과 풍자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설화에서 유의태는 무지한 대상 또는 신의(神醫), 영웅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유의태가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이자, 단순히 의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실제 삶의 여건을 개선시켜 줄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의태설화〉는 당시 의료 현실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과 풍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4, 202; 8-10, 672; 8-11, 670.

참고문헌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강진옥, 민속어문론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의료설화를 통해 본 명의 유의태의 자취 연구(구현희 외, 영남학16, 경희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한국의료설화연구(곽의숙,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오세길(吳世吉)

용어

유형

類型, type

정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한편의 이야기, 또는 각편군을 지칭하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

내용 유형(類型)은 다른 설화와 함께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구연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유형은 단 하나의 삽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삽화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동물담과 소화 및 일화는 하나의 삽화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민담은 여러 개의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화소가 세계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유형은 문명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역사지리학파의 화소 분석과 달리, 설화를 유기적인 작품으로 다루고자 하는 거시적 구조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면서 분석의 단위가 달라지는데, 프로프와 던데스가 각기 러시아 민담과 북미 인디언 민담에서 종래의 유형보다 큰 범위에서 존재하는 유형적 구조를 발견한 이후, 종래의 유형 개념과는 다른 구조적 유형이 문제시되고 있다.

필자 강진옥(姜秦玉)

신화

유화부인

柳花婦人

정의 고구려 건국신화의 주인공인 주몽의 어머니로 건국 후 여신으로 추숭된 유화부인에 관한 신화.

줄거리 독립된 유화부인의 신화는 없다. 유화부인은 고구려 건국신화에 시조모로 등장하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나타나는 '유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화는 본래 하백의 딸인데 웅심산 아래에 있는 압록강에 놀러 나갔다가 자칭 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해모수와 통정한다. 그 뒤 해모수는 혼자 떠나버리고 유화는 중매도 없이 통정을 했다 하여 우발수로 쫓겨났다가 동부여왕 금와에게 발견된다. 금와왕의 궁실에 갇혀 있었는데 햇빛이 몸을 비추어 임신한 뒤 닷 되 크기의 알을 낳는다. 금와왕이 알을 길가에 버리자 소와 말이 피하고, 들판에 버리자 새가 날개로 덮어주고, 쪼개려고 해도 쪼갤 수가 없어서 다시 유화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온다. 이 아이가 바로 주몽이다. 주몽이 성장한 뒤 동부여를 떠나 고구려를 세웠으므로 유화는 시조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분석 유화로 추정되는 인물이 가장 먼저 기록에 나타나는 사례는 〈광개토왕비문〉 등의 금석문이다. 그러나 금석문에 유화라는 이름은 없고 하백(河伯)의 딸로 나타난다. 하백은 강의 신을 지칭하는 보통명사이다. 중국 신화에서 하백은 황하의 신이지만, 〈주몽신화〉에 등장하는 하백은 압록강의 신이다. 하백은 압록강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집단들이 숭앙하던 수신(水神)으로 보인다. 수신 숭배와 관련이 있는 연개소문 집안의 〈천헌성묘지명(泉獻誠墓誌銘)〉을 보면 하백의 후손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고구려를 구성한 여러 씨족집단 가운데 하백을 숭배하던 집단이 있었고, 이들이 건국시조의 모계가 된 것이다.

유화라는 이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동명왕편(東明王篇)」 등에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동명왕편」은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구삼국사』 기록이 가장 이르다. 그런데 『구삼국사』의 기록에는 하백에게 세 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맏이가 유화로 나타난다. 유화에게는 훤화, 위화라는 두 동생이 있고, 이들이 함께 청하에서 나와 웅심연에서 놀다가 해모수를 만난다. 해모수가 이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잡으려고 하자 두 동생은 도망쳤지만 유화는 붙잡힌다. 『구삼국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후의 문헌들은 유화만 기록하고 두 동생은 생략한 것이다.

유화라는 이름에 담긴 버드나무, 유화와 두 자매에 관한 모티프로 인해 유화와 만주신화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만주기원신화에 따르면 천녀 셋이 부르후리라는 호수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검은 새가 떨어뜨린 붉은 열매를 막내 부쿠룬이 먹고 임신을 하여 지상에 남은 뒤 아들 부쿠리용순을 낳는다. 이 아이가 성장하여 어머니가 전한 천명(天命)에 따라 물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 세 부족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운다. 부쿠룬 역시 건국주를 혼자 키워 천명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시조모이고, 목욕을 하러 왔던 세 자매 가운데 하나여서 유화와 대단히 닮았다. 더구나 만주족은 버드나무를 신성시하여 버들잎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신화, 버드나무에서 시조가 탄생했다는 신화도 전승하고 있어 만주신화와 유화의 신화는 같은 계통의 신화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징 유화부인은 시조모일 뿐만 아니라 농경신, 또는 곡모신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구삼국사』에 따르면 유화는 동부여를 떠나는 아들에게 오곡(五穀)의 종자를 싸서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몽은 어머니와의 애절한 이별에 마음이 팔려 종자 챙기는 걸 잊어버린다. 동부여를 떠난 주몽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는데, 주몽은 "신모(神母)가 보리 종자를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활을 쏘아 떨어뜨린다. 주몽은 비둘기의 목에서 종자를 얻고 물을 뿜어 다시 비둘기를 살려 보낸다. 주몽도 신적 능력이 있지만 주몽이 신모라고 부른 어머니 또한 비둘기를 보낼 정도로 신성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유화는 본래 수신 하백의 딸로 수신 계통에 속한다. 유화가 부친에게 쫓겨날 때, 하백은 유화의 입을 잡아당겨 석 자나 되게 만든다. 가문을 욕되게 한 데 대한 징벌이었다. 나중에 유화는 통발 속의 물고기를 먹다가 강력부추라는 어부에게 잡힌다. 그런데 입술이 길어 말을 못하므로 입술을 세 번 자른 뒤에야 말을 하여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긴 입술,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은 유화가 수신계에 속한다는 것을 말한다. 물새의 형상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신 유화가 아들에게 오곡의 종자를 증여하는 모습은 고구려 건국 이후 유화가 시조모로 숭배되면서 곡모신의 직능까지 획득한 결과일 것이다.

유화는 고구려가 건국된 이후 국가적 제전의 주요 신이 된다. 『삼국사기』의 제사 조에 따르면 『북사(北史)』를 인용하여 고구려가 10월에 하늘 제사를 지내는데 부여신(扶餘神)과 고등신(高登神)을 모시는 두 개의 신묘가 있다고 하였다. 부여신은 나무로 조각한 부인의 신상인데 하백의 딸이고, 고등신은 부여신의 아들 주몽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동명왕 14년 8월에 유화부인이 동부여에서 죽으매 그 나라의 왕 금와가 태후의 예를 갖추어 장사지낸 뒤 신묘(神廟)를 세웠고, 태조왕 69년 10월에 왕이 부여에 가서 태후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보면 유화는 아들을 보낸 후 동부여에 남아 있다가 죽었으며, 동부여에 신묘가 세워진다. 뿐만 아니라 후에 고구려에서는 주몽이 죽은 후 주몽과 더불어 시조모의 목각상을 모시고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유화부인을 부여신이라고 한 것은 이 여신이 부여계 집단 공동의 시조모였기 때문이다.

의의 고구려 건국신화에 형상화되어 있는 유화부인은 시조모가 국가 제전에서 어떤 위상을 지니며 시조모의 신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단군신화〉의 웅녀가 고조선의 제의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단군신화〉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화부인은 시조모로서 아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중개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좋은 말을 알아보는 능력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곡모신의 형상도 지니고 있다. 또 유화부인은 고구려 건국 이후 고구려 및 백제계 왕들에 의해 부여신으로 숭앙된다. 〈유화부인신화〉는 시조모의 신화적, 제의적 위상을 잘 구현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출처 東明王篇, 三國史記, 三國遺事.

참고문헌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조현설, 문학과지성사, 2003),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이지영, 월인, 2000).

필자 조현설(趙顯卨)

민담

육담

肉談

정의 남녀의 성기, 성행위(性行爲), 성생활(性生活)등을 소재로 한 설화.

역사 육담이 나올 토양은 인류의 출발과 함께 있었다. 사람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여 태어난다. 사람이 소중하다면 사람이 생기고 태어난 것도 소중하다. 성과 성행위는 풍년이 드는 것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감출 것, 말하지 말 것, 공개적으로 거론하기에 부적절한 것, 사람으로서 품위가 떨어지는 속(俗)된 것으로 보아, 반 윤리도덕적이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어느 편이든 인류가 생긴 이래 육담은 성과 성행위의 실제를 묘사하거나 또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과장해 구술하여 형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인간과 육담은 불가분의 관계다. 조선시대에, 육담은 춘화(春畵)와 같이 표출이 되지 않고 즐기는 것이 되어서 이름이 있는 학자나 무명인(無名人)이 잠을 쫓아내는 재미있는 웃음을 주는 이야기를 모아 『고금소총(古今笑叢)』 같은 책을 내었다. 이때 그들은, "선비가 육담을 보고 들어서 잠을 쫓아내고 정신을 차려 성현의 책을 공부하면 유익하다."라는 논리를 폈고, 또한 "섣불리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정적(政敵)에게 몰려 피해를 입으니, 아무에게나 부담을 주지 않는 육담을 하여 말하고 싶은 욕망을 풀자."라는 변명도 하였다. 1930년 손진태(孫晉泰)는 정대일(丁大一)이란 이름으로 『속명엽지(續葉葉志)』를 내었고, 1950년에 임석재(任晳宰)는 『쌍말사전』 2권을 유인물로 내었으나 지금은 보기 어렵다. 1950년대 말경 『고금소총』이 국문으로 나왔다. 그 뒤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에서 많은 육담 자료를 볼 수 있다.

내용 육담은 크게 성기에 관한 것, 성행위에 관한 것, 성욕 체우기에 관한 것, 원뜻과 다른 발음으로 육담이 된 것 등이 있다. 먼저 성기(性器)에 관한 육담이다. 〈한골옹(恨骨翁)이야기〉는 한 노인이 큰딸을 스무 살 총각에게 시집을 보내고, 둘째 딸은 집이 갑자기 기울어져서 마흔 살 중년에게 시집을 보내고, 셋째 딸은 더 가난하여져서 쉰 살 난 초로(初老)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후에 세 딸이 친정에 모였을 때 큰딸은 남자 그것은 "뼈[骨]다.", 둘째 딸은 "살[肉]이다.", 셋째 딸은 "가죽[皮]이다."라고 하는 말을 노인이 듣고 탄식하면서, "내가 둘째와 셋째에게 뼈맛[骨味]을 못 보여 주어 한이로다!"라고 하였다. 〈처녀 국소(局所) 보기 이야기〉를 보면, 친구랑 같이 길을 가던 봉이 김선달이 개천에서 빨래하는 처녀에게 가서, "네 국소가 둘이라 나라에서 잡아들이니 따라오라."라고 하니 억울한 처녀가 옷을 벗고 증거를 보였다. 〈감기 걸리면 왜 콧물이 나오나〉 유래담을 보면, 옛날 양물이 둘인 왕자가 국부가 둘인 여자를 찾다가 못 찾고 죽어 귀신이 된 후에 드디어 국부가 둘인 여자를 만나 그 짓(牲行爲)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여자의 두 콧구멍에다가 한 것이고, 그 결과 콧물이 나오는 감기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 밖에 〈관부인전(灌夫人傳)〉(女性器), 〈주장군전(朱將軍傳)〉(男子性器) 이야기도 있다.

다음은 성행위에 관한 육담이다. 〈공자님에게 버선을〉 이야기에서는 첫날밤에 잠자리가 황홀한 신부에게 신랑이 "이

잠자리는 공자님이 만든 법이다."라고 하니까, 신부가 "고마운 공자님에게 버선 한 켤레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포천장소 탓이다〉 속담 유래담을 보면, 친정아버지가 포천장에 황소를 팔아 암소를 사러 가서, 암소를 팔아 황소를 사려는 사돈인 시아버지를 만나 서로 소를 맞바꾸었다. 사돈끼리 술을 많이 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이튿날 보니 옆에 사돈 마누라가 있었다. 다음은 성욕 채우기 육담이 있다. 〈세 모녀의 소망 이야기〉를 보면, 다듬이질을 하고 있던 과년한 큰딸이 "천장에서 그것(남근)이나 한 망태기 떨어졌으면 쓰겠다."고 하니, 둘째 딸이 "내 몫까지 두 망태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내 몫은 없냐? 세 망태기……." 마지막으로 원뜻은 좋은데 발음은 육담이 된 것이다. 〈발음 조심 이야기〉는 강씨네 아이에게 시집을 간 송씨네 딸이 시부모에게 걸어가서 자리에 엎드려 술을 올리며 공손하게 뵙는다. "姜兒之父(강아지부)에 宋兒之兒(송아지아)가 步之付席(보지부석)에 納酌恭謁(납작공알)이라."(필자 채록). 그밖에 성씨(명(明), 곽(郭), 홍(洪), 여(呂) 씨 등) 유래나 파자(破字)풀이로 육담을 하는 일이 있는데, 재미로도 하지만 세도를 부리는 이들을 빗대어 성씨를 파자풀이한 것이다.

특징 사람들은 육담을 어떻게든 세상에 내놓으려는 본능이 있다. 현재에도 한문으로 쓰인 육담이나 구전하는 육담이 출판이 되고, 사랑방 같은 곳에서는 자유롭게 육담을 나누고 있다. 국내에서 새로 생기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육담은 이전보다 더 풍부하다. 근래 신문이나 유머 잡지 등이 있어서 육담을 싣는다. 이것을 보면 육담은 인류와 함께 존속할 것이다.

의의 육담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표현 면에서 서술은 담백하고 은유성이 짙으며, 암시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성행위, 성기, 성적 정황을 사실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수용 면에서, 듣는 사람은 빈부귀천, 남녀상하 없이 선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성교육 면에서, 성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하여 기이한 행위를 하고, 오류나 실수를 하거나, 망신을 당하는 내용은 유소년(幼少年)에게 은연중에 성적 지식을 알려 준다. 지혜 면에서, 이성을 유혹하고, 성욕을 자극하고, 성감을 고조시키고, 그러기 위한 계략과 지략과 책략과 기지(奇智)를 구사하는 것은 생활의 지혜 얻기가 된다. 건강 면에서, 육담이 재미있으면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웃음을 유발시키는데, "웃음은 명약(名藥)."이라 정신건강에 좋다. 활기 면에서, 육담은 본능과 윤리를 교묘하게 담아서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 젊은 사람에게는 성을 통하여 생활 전반에 활기를 주고, 나이든 사람에게는 현재의 답답한 삶에 의미를 준다. 육담은 흥미를 만들어 내고, 오래 잘 기억하고, 신명나게 구술(口述)하고, 상징이나 은유를 쓰면서 본능을 간접적으로 시킨다는 쏟는 점에서 지적 활동이다.

참고문헌 古今笑叢,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2, 836, 한국민속대관6(임석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260; 3, 194; 7, 151; 9, 17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7(임석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욕설백과(정태룡, 한국문원, 1997), 한국 육담의 세계관(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7).

필자 최래옥(崔來沃)

민담

윤리담

倫理談

정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 인간의 행위에 관한 내용을 소재나 주제로 한 이야기의 총칭.

내용 윤리담은 윤리적·교훈적 성격이 강한 이야기로, 특히 오륜(五倫)에 관한 윤리의식을 강조한다. 화자들은 정직하고 완고한 사람들을 소재로 하여 행위에 대한 응보성(應報性)을 강조하며 교훈적 의미를 드러낸다. 윤리담은 국가와 사회의 범주보다는 주로 가족, 친구 사이의 규범과 도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윤리담을 구성하는 하위 유형으로는 효행 윤리를 강조하는 효행담, 정절 관념을 강조하는 열녀담, 형제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우애담 등이 있다.

효행담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화'를 말한다. 효행담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각편들이 전승되고 있다. 효행담을 효행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유형화해 보면,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잘라 부모의 약으로 삼은 경우, 잉어·딸기·홍시·석류 등 계절에 맞지 않은 동식물을 구하는 경우, 호랑이·신령 등 인간 외적 존재를 감동시켜 도움을 받는 경우, 자식 또는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된다. 효행담은 대부분 '지극한 효성은 반드시 그 보답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야기의 전반적 정조를 형성한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 부부가 홀로 된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내용의 〈상가승무노인탄(喪歌僧舞老人歎)〉, 부모에 대한 특별한 정성으로 부모를 감동시킨다는 내용의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 〈효자와 잉어〉, 〈어머니 병 고친 효자〉, 〈효부와 호랑이〉, 〈유복자의 효성〉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이러한 특별한 효성 끝에 마땅한 응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열녀담은 '여인이 한 남자를 위해 정절을 지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화'를 말한다. 열녀담에서는 특히 정절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이야기가 생기게 된다. 설화에서는 외적의 침입, 호환, 자연재해, 관의 폐해, 남편의 병, 외간 남자의 강압과 유혹, 송사, 친정 부모의 개가 권유 등이 극복해야만 될 난관으로 나타난다. 열녀담은 주자학적 삼강의 윤리가 민간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다각적으로 보여 준다. 열녀담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교화의 과정을 통하여 무장된 열녀에 얽힌 규범적인 이야기들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종사(一夫從事)라는 규범에서 이탈하였으나 열녀라고 불리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기존 윤리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 준다. 〈남편 병고친 열녀〉, 〈열불열녀(烈不烈女)〉, 〈열녀시험〉, 〈불씨 지킨 며느리〉 등의 작품이 있다.

우애담은 형제 사이의 정과 사랑을 소재 및 주제로 한 설화를 말한다. 가정 내에서 올바른 형제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형제 관계의 성격에 따라 형제협력담, 형제불화담, 바보형제담으로 분류된다. 형제협력담은 우애 좋은 형제가 서로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이 주 내용이며, 형제불화담은 우애 나쁜 형제가 불화하여 갈등을 겪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바보형제담은 형제 중에 바보가 하나 있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형제협력담'은 〈특재 있는 팔 형제〉, 〈삼 형제〉, 〈똑같은 재주〉, 〈물속의 구슬〉, 〈멧돌 조랑박 장구〉, 〈칠형제의 선행〉 등의 작품이 있고 형제불화담에는 〈착한 아우와 악한 형〉, 〈금방망이와 은방망이〉, 〈놀부와 흥부〉, 〈말하는 남생이〉 등의 작품이 있다. 바보형제담에는 〈바보 형〉, 〈미련한 형〉, 〈쿨떡이 이야기〉 등이 있다.

이외에도 친구 간의 진정한 우정을 강조한 유형으로는 〈진정한 친구〉, 〈선량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부(姦夫)를 잡아준 평양감사의 친구〉, 〈당태종과 엄자릉〉, 〈박준원과 박종경 이야기〉 등이 작품이 있다. 또한 악행을 한 계모에 대한 징치와 올바른 계모의 도리를 이야기한 〈연이와 버들도령〉, 〈전실 자식 눈 뺀 계모〉 등의 작품이 있다.

조희웅의 한국설화 세부분류표에 의하면, 윤리담은 일반담의 하위 유형인 교훈담과 유사한 범주이다. 일반담은 신비스런 요소가 제거된 보통 인간들의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야담이나 일화들도 상당수 포함되며, 교훈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일반담에는 교훈담을 비롯하여 기원담(起源譚), 출신담(出身譚), 염정담(艶情譚)이 있다.

특징 윤리담에는 이야기 전개의 묘미와 함께 교훈적 의미가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 비범하고 신이한 요소들이 더러 등장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현실 맥락에 토대를 두고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서민적 생활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도 효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다.

의의 윤리담은 규범적인 윤리를 강조하며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킨 자에게는 마땅한 보상이 있음을 논하며 사람들에게 윤리적 교훈을 제시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야기가 전승되고 향유되던 역사 시기에 추구되었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가치들, 그리고 현실의 개연성 속에서 야기되는 애환과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훈으로 제시되는 이상적 규범과 윤리에 앞서, 심각한 고난의 현실과 기존 윤리에 대한 왕성한 소통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들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구비 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김대숙, 고전문학연구9, 한샘, 1994), 옛이야기 형제담의 양상과 의미(권혁래, 동화와번역19,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한국설화론(최인학, 형설출판사, 1982),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조희웅, 한국연구원, 1983),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박영주, 도남학보16, 도남학회, 1997).

필자 권혁래(權赫來)

민담

은혜갚은 까치

표제어 치악산

민담

음부에 그린 그림

정의 의심 많은 남편이 부인의 음부에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설화.

역사 예부터 부인 음행 관계는 여성 쪽에만 정숙을 요구해 왔다. 전래설화에서 남편과의 관계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남자 접촉을 막으려는 남편의 노력, 음행을 방조해 이득을 얻으려는 남편, 음행을 응징하여 죽이는 남편 등이다. 이 설화는 첫째에 해당한다.

줄거리 어리석은 남편이 영리하고 예쁜 부인과 사는데 이웃집 남자가 엿본다. 멀리 외출할 일이 생긴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여 사타구니에 사슴을 그려 놓고는 외간 남자와 접하여 지워지면 엄하게 벌하겠다고 위협하고 떠났다. 남편이 외출하는 걸 본 이웃집 남자가 와서 호합(好合)을 요구하니, 남편이 그림을 그려 놓아 안 된다고 했다. 남자는 지워지면 다시 그리면 된다면서 호합한다. 남자가 다시 사슴을 그렸는데, 뿔이 솟고 서 있는 사슴이었다. 남편이 돌아와 보고는 뿔이 옆으로 처지고 누워 있는 사슴이었는데 왜 서 있느냐고 추궁한다. 이에 부인이 "사슴이 어찌 누워 있기만 합니까? 서 있기도 하고, 서면 뿔도 서지요."라고 대답하니 남편이 수긍한다.

변이 전파 과정에서 외도를 즐기는 부인이 등장하며, 사슴 대신 토끼로 바뀐다. 그림 위치도 음부 위 또는 오른쪽 엉덩이 등으로 변하는데, 사통(私通)한 남자가 토끼 그림 대신 손님을 보고 놀란 토끼가 달아났다는 글귀를 적어 놓는다. 글귀를 본 남편이 유식한 사람과 접촉했다고 용서한 이야기도 있다. 더 나아가 남편이 글귀를 적은 귀인(貴人)을 찾아 서울까지 가서 과거장에서 음부에 적힌 글귀가 출제된 것을 보고 응시하여 급제했다는 비약적인 변이 형태도 있다. 또 오른쪽이 아닌 왼쪽 엉덩이에 그린 토끼에 대해, 부인은 토끼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대답한다.

분석 내용이 남성들의 해학에 해당하여 전파에 한계가 있다. 남편과 간부(姦婦) 그리고 아내의 삼각구도에서 행동과 말을 중심으로 지능이 점점 높아지며, 음담이지만 핵심을 피하여 은근히 주위를 맴돌게 구성한 수준 높은 소화(笑話)이다.

특징 여성 성기가 등장하여 남녀가 함께 공공연히 얘기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영리한 부인의 외도를 막아 보려는 어리석은 남편의 노력이 부인의 대답 한마디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에 폭소와 함께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의의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소화로서 가치가 높다. 변이에서 보듯이 엉덩이라든가 허벅지 등으로 조금 벗어난 위치를 택하면 새로운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과 접촉한 귀인이 그에 대해 보상하려고 과거 제목으로 출제한 것과 같은,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한다면 높은 수준의 설화로 변모할 수 있다.

출처 續禦眠楯,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8, 829; 6-11, 12.

참고문헌 조선 후기 문헌설화의 연구(조희웅, 형설출판사, 1982), 한국문헌설화 4(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 야담문학 연구(정명기, 보고사, 1996).

필자 김현룡(金鉉龍)

민담

음탕한 선생 발가벗긴 과부

정의 기지를 발휘해 음탕한 훈장을 망신시킨 과부와 관련된 설화.

줄거리 과부의 아들이 다니는 서당 훈장이 자꾸 "너희 어머니 오늘 저녁에 좀 만나잔다고 해라."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아이는 서당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루는 과부가 꾀를 내어 저녁에 훈장을 오시게 하였다. 훈장이 와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데 마침 이웃집 늙은 과부가 놀러 왔다. 과부는 훈장을 방에 있는 큰 단지 속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늙은 과부가 담배를 피우면서 단지에다 재를 털었다. 늙은 과부가 돌아간 듯하여 단지에서 나왔는데 다시 오는 기척이 났다. 과부가 나가라고 하니 벗은 채로 밖으로 나가 마당가 두엄 속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일꾼이 오더니 언 두엄을 쇠스랑으로 찍으려 하였다. 벌떡 일어나 도망을 치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죽은 듯 누워 있으니 순라군이 죽은 놈 불알은 약에 좋다며 칼로 따려고 하였다. 후다닥 일어나 도망을 가서는 다시는 과부를 넘보는 음탕한 짓을 하지 않았다.

변이 각편에 따라 음탕한 존재가 훈장이거나 승려이기도 하고, 훈장 노릇을 하는 승려이기 하다. 이 셋의 각편 수는 비슷하지만 승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승려의 음탕한 행태를 꼬집는다는 의미가 크다. 이 설화는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수록된 것으로, 승려가 색탐으로 거듭되는 낭패를 겪는다는 〈물 건넌 중의 유래〉와 같은 유형이다. 이 외에 〈상좌에게 골탕 먹은 어리석은 중〉도 승려가 색탐으로 골탕을 먹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문헌설화는 당시 전승되던 민담을 재화(再話)한 것이므로 오랜 구전 내력을 갖고 있다. 죽은 중의 성기가 약이 된다며 잘라 쓰자는 말에 승려가 놀라 달아났다는 화소의 하한선은 이 문헌설화로 보인다.

분석 이 설화의 구조는 '훈장의 음심-과부의 기지-훈장의 낭패-훈장의 개심'으로 되어 있다. 훈장은 시골 서당 선생이지만 그 인격과 학식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승려 또한 종교적 지도자로 인품과 권위를 지닌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과부에게 음심을 품고 접근하려 했다는 점이 이 설화의 문제 상황이다. 또한 과부는 남편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혹은 성적으로 약자이다. 이러한 과부가 자신의 불리한 처지에 굴복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고 음탕한 훈장과 승려를 개심시키려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가 인격과 학식, 권위를 소유한 훈장과 승려의 탐심을 폭로하고 개심시키려 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징 이 이야기는 동양에서 기원하여 동유럽에서 널리 전승되었다고 하는 〈함정에 빠진 구혼자(AT1730)〉와 유사하다. 남자 주인공이 음심을 품고 접근하다 낭패를 당한다는 화소만 보면 그렇다. 즉, 여자는 남자들을 한 사람씩 오게 하고 도착하면 옷을 벗도록 했는데, 다음 사람이 오면 옷을 벗은 남자는 숨어야 했다. 마침내 그녀의 남편이 와서 당황한 남자들을 쫓아낸다.

의의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권위 있고 위엄 있는 훈장(승려)의 인간적인 면모를 폭로했다는 점, 성적으로 약자인 과부가 기지를 발휘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2, 793; 4-2, 81.

참고문헌 구비설화에 나타난 과부의 형상과 의미(김기형, 한국민속학26, 한국민속학회, 1994), 구전설화에 나타나는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캐릭터(박상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설화학 원론(스티스 톰슨, 윤승준·최광식 역, 계명문화사, 1992).

필자 박상란(朴商蘭)

전설

의견

義犬

표제어 개무덤

전설

의상

義相

정의 신라의 승려 의상(義相)에 대해 전하는 설화.

역사 의상에 관련된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린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이야기들에 대해 일연 선사는 『국사(國史)』, 『고기(古記)』, 『고전(古傳)』, 『신라고전(新羅古傳)』과 최치원의 『부석본비(浮石本碑)』 등을 참고했다고 했다. 일연 당시만 하더라도 의상과 관련된 설화가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려 준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 다만 『부석본비』에 대해 일연의 제자 무극(無極)이 간략하게 『부석본비』를 소개한 대목이 보인다. 원효와 더불어 신라 사상계를 이끌었던 의상의 비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줄거리 의상은 29세가 되던 해에 황복사에서 출가하였다. 의상은 원효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가던 도중 요동에서 간첩 혐의로 갇힌 지 열흘 만에 돌아와야 했다. 650년(진덕여왕 4)에 의상은 당나라의 배를 만나 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의상은 양주에 도착해 유지인의 청으로 관아에 머물게 되었다. 마침내 의상은 종남산 지상사의 지엄을 찾아뵈었다. 지엄은 마니보주(摩尼寶珠)를 보는 꿈을 꾸고 의상을 맞이하노라고 했다. 비로소 의상은 화엄(華嚴)의 깊은 뜻을 해석하게 되었다. 이 당시 당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던 김흠순(또는 김인문)과 양도 등이 의상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당 고종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장차 신라를 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 달라고 했다. 의상은 귀국하여 조정에 그 사실을 알렸다. 이에 신인대덕인 명랑(明朗)으로 하여금 제단을 가설하고 비법으로 저들을 물리쳐 국난을 면하게 하였다. 676년에 의상은 부석사를 창건하고 대승불교의 강론을 폈으며, 많은 영험한 이적들을 남겼다. 문인 현수는 의상 법사에게 소를 지어 올리고, 참으로 은근하고 간절한 서한을 지어 보냈다. 의상은 열 곳에 사찰을 지어 화엄의 교학을 전하게 하였다. 오진(悟眞), 지통(智通), 표훈(表訓) 등 열 명의 제자를 길렀는데 모두가 성인에 버금가는 제자들이었다.

위의 내용은 『삼국유사』 의상전교(義湘傳敎) 조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인데, 의상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문헌설화인 부석사 창건 연기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의상은 원효와 더불어 당으로 들어서다 토감(土龕)에 머무르게 된다. 거기에서 원효는 귀신을 만나 놀라는 경험을 통해 일심(一心)이 진리임을 깨닫고 돌아간다. 혼자서 등주의 바닷가에 이른 의상은 한 신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빼어난 용모의 선묘(善妙)라는 처자를 만난다. 선묘는 의상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세세생생(世世生生) 스님께 귀의하겠다고 다짐한다. 나중에 의상은 귀국하는 길에 옛 단월의 집에 이르러 예전에 신세를 졌던 것에 대해 감

사를 표하고 상선을 불러 닻줄을 풀게 하였다. 선묘는 미처 의상을 만나지 못하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법복(法服)과 집기를 상자에 넣어 떠나가는 배를 향해 던진다. 그러면서 선묘는 큰 용이 되어 배가 무사히 항해하도록 돕고, 의상이 고국에 돌아가 불법을 펼치기를 기원한다. 지극한 정성으로 선묘는 용이 되어 배를 보호하고, 의상이 무사히 신라로 돌아가도록 했다. 환국한 의상은 화엄사상을 일으킬 생각으로 산천을 두루 돌아다녔다. 의상이 부석사를 지으려 한 곳에 다른 종파의 승려들이 있었다. 선묘는 신통력을 내어 큰 바위로 변신해 가람의 위를 덮었다. 승도(僧徒)들은 그 모습에 놀라 달아났다. 의상이 그제야 절에 들어가 화엄경을 한 해 내내 밤낮 없이 강론하자, 일부러 모으지 않아도 절로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변이 줄거리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기록으로는 『삼국유사』의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洛山二大聖觀音正取調信) 조에 낙산사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정진했던 의상의 이야기가 전한다. 당에서 돌아온 의상 법사는 관음보살의 진신을 보기 위해 7일간 재계(齋戒)한다. 그러자 용중과 천중 등 용천팔부의 시종이 굴속으로 그를 인도였다. 의상이 공중을 향해 참례하여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받았다. 그리고 또 다시 7일 동안 재계하니 마침내 그는 관음보살의 진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관음보살의 말씀에 따라 산꼭대기에 솟아오른 한 쌍의 대나무가 있는 자리에 사찰을 짓게 된다.

또 부석사 관련 연기설화는 구비설화로도 많은 이본들이 있는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의상조사가 지은 부석사〉, 〈까치가 터를 정한 부석사〉,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의 사찰 창건과 득도〉 등 9편 정도가 전하고 있다. 이 설화들에는 『송고승전(宋高僧傳)』(988)에 나타난 화엄의 교리를 펴기 위해 창건되었다는 의도를 약화시키면서 뚜렷한 인과 관계 없이 전개되거나, 선묘와의 관련을 배제한 변이형들도 출현한다. 예컨대 〈선묘룡의 도움으로 지은 부석사〉에는 승도들이 도둑들로 나타나고, 〈부석사의 한샘〉에는 선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의상이 '한샘'에 절을 지으려는데 아홉 마리의 용이 나타나 방해하자 용과 대결하여 승리함으로써 부석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범어사의 창건 연기에도 의상과의 관련성이 나타난다.

분석 의상 관련 설화들은 화엄사상이 관음 신앙과 관련을 맺고 〈낙산사설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관음 신앙의 흐름은 찬녕(贊寧)이 편찬한 『송고승전』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에 전하는 〈선묘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는 부석사의 창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의상의 부석사 창건 연기가 되는 이야기는 선묘가 불법을 수호하는 용으로 변신하고, 화엄교학이 이교도들을 내쫓으면서 근거지를 확보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기존의 설화들을 수습하여 〈의상전교〉 조와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 조를 구성하였다. 또한 의상 관련 설화는 『송고승전』의 『의상전』을 기반으로 한 부석사 창건 연기설화의 변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설화들이 모두 의상이 해동화엄의 초조(初祖)로서 화엄 사상과 관음 신앙을 결합하여 대중 교화를 펼쳤던 역사적 사실을 흥미롭게 서사화하는 과정 중에 나타났음을 잘 보여 준다.

의의 의상 관련 설화는 설화와 승전의 구성 방식, 사찰 창건 설화의 서사 형태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의상의 불교 사상을 설화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깊다.

출처 梵魚寺誌, 三國遺事, 宋高僧傳,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100; 7-9, 714; 7-10, 779.

참고문헌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김승호, 동국대출판부, 2005), 화엄십찰연기설화연구(이광우, 불교어문논집1, 한국불교어문학회, 1996).

필자 오대혁(吳大赫)

민담

의좋은 동서

정의 큰동서가 작은동서의 정직함에 감탄하여 남편을 속이고 땅문서를 시동생에게 줌으로써 함께 잘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민담.

역사 시집 온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이야기로, 한 집안의 화목 여부는 시집 온 여성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조선 후기 가부장제가 확립된 이후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줄거리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부자고 동생은 가난했다. 봄이 되자 작은동서도 형 집에서 멍석에다 나락을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큰며느리 몰래 큰집 나락을 작은집 멍석에 부었다. 그러나 작은동서는 자신이 널어 놓은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로 큰집 멍석에 두었다. 이 모습을 큰동서가 보았다. 큰동서는 남편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한 뒤 시동생에게 논문서를 내 주었다. 술에서 깬 남편이 부인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동생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동생은 형수가 시킨 대로 형이 술에 취했을 때 논문서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했다. 부인도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라며 시동생을 거들었다. 그 후 집안이 번창하였다.

변이 각편에 따라 남편을 술에 취하게 하기 위해 큰동서가 남편의 생일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형제가 함께 술을 마시게 하기도 한다. 술에서 깬 남편은 대체로 자신의 처사를 인정하고 아내의 뜻을 따르는데, 아내가 화를 내는 연기를 하자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며 도리어 아내를 달래기도 하고, 아내가 자신이 벌인 일임을 실토하자 '처음부터 사정을 말했더라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기도 한다. 어떤 각편에서는 형이 동생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직접 동생에게 땅을 주기도 한다.

분석 멍석에 나락을 말리는 것은 철이 되면 으레 볼 수 있는 일상 풍경이었다. 일상 행위에는 인간의 심성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게 마련이다. 큰동서는 일상의 행위를 통해 작은동서의 사람됨을 알게 되고 그녀를 도와 줄 결심을 했다. 전통시대에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주관하는 이들은 며느리들, 곧 여성 가족원들이었다. 이 설화는 형제 당사자가 아닌, 시집온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 문화 속에서 형제간 우애와 가족 화목을 지켜 내는 이야기이다. 다만 구연자 중 남성 화자가 많다는 점과 어떤 각편은 특정 가문의 실화인 것처럼 구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집 온 여성을 길들이려는 이야기의 의도를 추출해 낼 수도 있다.

특징 이 설화는 가족 간 화목을 위해서는 시집 온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큰동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작은동서의 사람됨을 알고 작은집을 도와 줄 결심을 하기 때문이다. 음식 나누어 주기를 거절하게 해 형제 사이를 멀어지도록 했다가 다시 화합하게 하는 〈여자에게 달린 형제의 우애〉 설화에서도 모든 일은 큰동서가 주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의의 형제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이야기에서는 대체로 당사자들의 갈등만 부각된다. 하지만 이 설화는 시집 온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일상의 가족문화를 통해 우애 문제를 다룸으로써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가족 화합을 지향하였으며, 또한 가족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게 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8, 307; 3-1, 281; 4-5, 578; 5-1, 596; 6-2, 502; 7-8, 513; 8-4, 48.

참고문헌 여성의 시각에서 본 형제우애설화에 나타난 가족(정충권,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필자 정충권(鄭忠權)

민담

의좋은 형제

정의 형제간의 우애를 다룬 민담.

줄거리 한 마을에 따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형제가 있었다. 형제는 가을이 되자 추수를 하고 각자 논에 볏가리를 쌓아 놓았다.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은 결혼해 새로 살림이 났기에 쌀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밤중에 몰래 논으로 나가 자기 볏가리를 덜어 동생 볏가리에 쌓아 놓았다. 그날 밤 동생이 생각하기에 형은 식솔도 많으니 쌀이 더 필요할 거라 여겨 밤중에 나가 자기 볏가리를 덜어 형의 볏가리에 쌓아 놓았다. 이튿날 논에 나가 본 형제는 깜짝 놀랐다. 분명히 지난밤에 볏가리를 옮겨 놓았는데 전혀 볏가리가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튿날 밤에도 형제는 같은 행동을 했고, 셋째 날에 드디어 형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서로 밤중에 볏가리를 옮겼던 것이다.

변이 볏가리 혹은 나락과 관련하여 형제 사이의 우애를 다룬 다른 설화가 있다. 이 설화는 형제만 등장하지는 않고, 어머니와 형수도 등장한다. 형은 잘살고 동생은 못살았다. 추수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형 몰래 동생에게 나락을 더 넣어 주자, 아랫동서가 다시 형의 집에 갖다 놓는 걸 보고 형수가 감동을 받았다. 형수가 계략을 꾸며, 동생 생일에 술을 빚으라고 쌀을 주었다. 동생 생일날 형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는 논 백 마지기를 동생에게 주었다. 형이 술에서 깨자 형수는 남편이 술 먹고 시켰다고 각편을 했다. 어쨌든 벌어진 사건이라 형은 인정하고 동생과 잘 살았다고 한다.

분석 형제 사이의 우애를 다룬 설화는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소재가 있다. 금덩이를 소재로 한 〈형제투금설화〉도 있고, 구슬과 잉어를 소재로 한 설화도 있다. 볏가리를 소재로 한 설화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설화처럼 두 형제가 원래부터 우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설화가 있는 반면에 형제 사이의 갈등을 표출하는 설화도 있다. 갈등이 소재인 설화도 약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하여 우애를 회복하지만, 때론 형제 사이에 심한 상처가 생기는 큰 갈등도 있다. 예를 들어, 동생이 형에게 대놓고 논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한다. 이 예도 갈등이 심하지만 결국 지독하게 돈을 모은 동생이 형과 반반씩 나눠 관계를 회복한다. 이처럼 갈등은 반드시 회복되지만, 이런 갈등은 우애설화의 재미를 북돋는 구실을 한다.

의의 이 설화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변이가 많지만, 이 설화는 형제 사이의 우애를 다룬 설화에서도 가장 원형의 구조를 지닌 설화로 기능한다. 삼강오륜을 덕목으로 하는 한국의 도덕관념을 가장 적실하게 보여 주는 설화로서 그 의의가 있다.

출처 강원의 설화(강원도, 2006), 경기민속지(경기도박물관, 2000), 설화(최웅·김용구, 국학자료원, 1998),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162; 2-4, 375; 2-8, 137; 4-4, 281; 6-2, 702; 8-2, 317,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5, 133.

참고문헌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옛 이야기 형제담의 양상과 의미(권혁래, 동화와번역19,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구비우애설화의 양상과 의미(조춘호, 경산대학교논문집11, 경산대학교, 1993).

필자 이한길(李漢吉)

민담

이계담

異界譚

정의 천상이나 지옥 또는 용궁이나 신선세계 등과 같은 비현실 세계나 가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내용의 민담.

역사 전통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계와, '하늘'로 지칭되는 천상계를 구분하는 인식을 가져 왔다.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늘을 숭앙하였으며, 그곳에는 인간사를 관장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기록된 부여의 영고(迎鼓), 동예의 무천(舞天), 고구려의 동맹(東盟), 마한의 천군(天君) 등은 하늘에 대한 제의(祭儀)이기도 하다. 또한 고대 건국신화를 보면, 건국시조들은 모두 하늘에 근원을 두고 있다. 특히 〈혁거세신화〉의 천마(天馬)나 〈김수로신화〉의 자색(紫色) 줄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상징물이다.

무속에서 공간은 대체적으로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 무속에서는 천상에는 우주를 지배하는 천신, 일신, 월신, 성신과 그 시종신(侍從神)들이 살며, 지상에는 인간과 금수, 그리고 산신(山神)과 같은 자연신이 살고, 지하에는 인간의 사령(死靈)과, 이를 지배하는 명부신(冥府神)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 불교와 도교의 유입으로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인식은 더욱 복잡해졌다. 불교는 천상계인 극락과, 지하계인 저승 및 지옥, 그리고 수중계인 용궁까지 설정하여 공간의 폭을 넓혀놓았다. 또한 도교나 신선사상의 유입은 하늘에 있는 천상계라는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개념으로서 산속 혹은 먼 섬 등에 있는 '신선계'를 상징화함으로써 공간의 문제를 세속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가령, 저승이나 용궁은 불경이나 불교설화의 전파와 관련되어 있으며, 천상계의 선녀·선관, 그리고 이상향 등은 도교나 신선사상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무속의 혼백(魂魄) 사상이나 성리학의 이기철학(理氣哲學) 등도 우리의 공간 관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계담(異界譚)은 이러한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 설화는 인간이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다른 현실세계, 곧 가상의 공간 및 상징적 상상력의 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인 것이다.

내용 조희웅에 의하면 이계(異界)는 '이 세상이 아닌 타계(他界)'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천상계, 저승, 지하계, 타계, 용궁으로 나뉜다. 이 공간들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신선계, 이상향, 수중계 등의 용어로 나타난다. 결국 설화 속의 공간은 크게 보면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 등 삼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설정에 따라 관련 설화들은 천상설화(신선설화), 저승설화(귀신설화), 용궁설화 등의 이름으로 존재한다.

천상설화의 경우 건국신화의 시조들은 대부분 천상을 고향으로 두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천상계의 주신인 환인(桓因)은 환웅을 지상에 파견하여 인세를 다스리게 하며, 〈해모수신화〉에서 천제 곧 하느님은 해모수를 지상으로 내려보낸다. 민담 가운데 〈나무꾼과 선녀〉에는 천상계의 선녀가 금강산 연못으로 목욕하러 왔다가 나무꾼을 만나고, 그 후 우여곡절 끝에 천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신선설화는 신선(神仙)과 방사(方士)·은사(隱士) 혹은 이와 관련된 방술(方術)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신선이 되는 이야기, 신선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도술(道術)을 행사하는 신선에 관한 이야기(도술설화) 등이 있다.

저승설화는 이계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설화는 인간이 저승에 가거나 혹은 저승에 갔다가 다시 지상계로 돌아온다는 왕래에 관한 이야기, 이승과 전생에 관한 이야기, 이승 이야기, 그리고 저승 이야기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원한으로 죽은 원귀(寃鬼)에 관한 귀신담은 우리 민족의 생사관, 운명관 등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설화이다.

용궁설화에는 용왕 및 용자(龍子), 용녀(龍女)가 등장한다. 문헌상 용궁이 처음 등장하는 〈수로부인(水路夫人)〉설화〉(『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용궁은 온갖 보물이 있는 화려한 별세계로 그려진다. 또한 〈거타지(居陀知)설화〉(『삼국유사』), 〈작제건(作帝建)설화〉(『고려사(高麗史)』) 등은 영웅들이 용왕의 부탁을 들어주고 용궁을 방문하여 도움의 보답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용궁설화는 용의 보은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이는 불교적인 색채가 윤색된 것이다. 특히 용의 보은담 가운데 방이득보(放鯉得寶)형 설화, 〈해인(海印) 설화〉 등에는 용궁의 보물로서 연적이나 해인이 등장한다.

한편, 이계담은 '이야기 주체(주인공)가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사람 아닌 것들이 사람의 세계로 오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 아닌 것들의 세계로 간다'는 점에서 『한국설화유형분류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의 기준에 따를 때 6번 유형인 '오고 가기'에 속한다. 이때 '사람 아닌 것들'은 동물, 귀신, 도깨비, 식물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들은 '사람'과 함께 서로 변신하고 관계를 맺거나 저승 내지 별세계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동물·원귀·망자가 사람이 되는 이야기(〈구렁덩덩신선비〉, 〈송아지로 태어난 사람〉, 〈선율환생〉, 〈추남설화〉 등), 둘째, 이물로 변신한 사람이 사람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이야기(〈효자호랑이〉, 〈우렁색각시〉, 〈생거진천 사거용인〉, 〈사람을 해치는 여우·호랑이·구렁이〉 등), 셋째, 변신한 이물의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옹고집전〉, 〈여우처녀〉, 〈여우신랑〉, 〈야래자설화〉, 〈곰나루〉, 〈김현감호〉, 〈도깨비설화〉 등), 넷째, 사람이 이물이 되거나 혼령·저승을 경험하고, 또는 신선이 되는 이야기(〈호국룡〉, 〈구렁이가 된 사람〉, 〈개로 태어난 어머니〉, 〈원귀담〉, 〈혼쥐〉, 〈제사 영험담〉, 〈저승차사〉, 〈신선담〉 등) 등이 있다.

특징 이계담에 나타난 공간에 대한 인식 속에는 인간 존재의 우위성 및 인간계의 우월성이 나타난다. 인간계는 천상과 수중 및 저승의 귀양지로 설정되고, 각 공간은 지상계의 인간계와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이들 공간이 결국 인간계의 연장임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무속설화에 이러한 면이 잘 드러나는데, 천상은 인간계가 수평적으로 연장된 한 곳에 나타나고, 서천이나 극락세계 또는 저승도 역시 인간이 걸어서 도달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민담 〈구복여행〉에도 주인공은 수평적인 도보 여행을 통해 상제가 사는 공간에 도달한다.

의의 이계담은 생사·운명·선악·점복·주술 등 우리의 신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죽음과 인간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계의 공간 확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불교와 도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설화의 유형 및 분류(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83), 움직이고 멈추기, 오고 가기의 분류체계(강진옥,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이계설화 연구(박태상, 황패강선생고희기념논총, 한국설화문학연구-하,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저승설화연구(최래옥, 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985), 한국 설화문학의 공간 연구(이수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필자 이지영(李志映)

용어

이계여행화소

異界旅行話素

정의 천상이나 지옥, 또는 용궁이나 신선세계 등과 같은 비현실 세계나 가상의 세계에 대한 여행 관련 화소.

내용 이계담은 인간이 비현실 내지 가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는 사람 혹은 사람이 아닌 것들이 이러한 공간을 오고가면서 다른 것들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변신(變身), 재생(再生), 탐색(探索), 환생(還生) 및 환생(幻生)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계여행(異界旅行)을 주인공이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비자발적으로 떠날 수도 있으며, 여행의 목적에 따라 생명수·꽃과 같은 '주술적인 약물'(magic-medicine)을 구하러 따나는 탐색, 잃어버린 가족·물건을 찾으러 떠나는 탐색, 득도 및 구원을 위한 여행, 단순한 이계여행 등이 존재한다. 이계여행에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뒤따르며, 이를 통해 득도, 자기 존재의 확인, 자기 완성, 혼인, 부의 획득, 가족관계의 회복 등을 성취한다. 따라서 이계여행을 수행하는 주체는 대개 영웅적 성격을 지니거나, 사후(事後)에 영웅성을 획득한다.

필자 이지영(李志映)

민담

이공본풀이

정의 생명꽃, 악심꽃 등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를 관장하는 꽃감관의 내력을 풀이하는 제주도 서사무가.

역사 〈이공본풀이〉는 제주도의 굿에서 구연되는 서사무가인데, 유사한 이야기가 불교설화와 소설로도 존재한다. 조선시대 초에 편찬된 『월인석보(月印釋譜)』 제8권에 전하는 〈안락국태자경〉, 다양한 이본이 전하는 고소설 〈안락국전〉 및 〈기림사(祇林寺) 연기설화〉가 그것이다.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그린 〈사라수탱(沙羅樹幀)〉(안락국태자경변상도安樂國太子經變相圖라고도 함)도 전해지고 있어 불교와의 연관이 강해 보인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타국의 불교 문헌에서는 아직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 바 없다. 우리나라 불교의 독특한 서사가 소설과 무가에 영향을 끼쳐 〈안락국전〉과 〈이공본풀이〉가 출현했을 가능성, 우리 고유의 무속 서사인 〈이공본풀이〉를 근간으로 불교설화 〈안락국태자경〉 및 소설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줄거리 가난한 김진국과 천하거부 임진국은 기자치성(祈子致誠) 끝에 자식을 낳는다. 김진국은 아들을 얻어 원강도령(사라도령)이라 하고, 임진국은 딸을 얻어 원강아미라 하였는데, 장차 그 둘을 혼인시키기로 서로 약조한다. 후에 원강도령과 원강아미는 결혼하여 자식까지 임신했는데, 별안간 원강도령이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가게 된다. 둘은 함께 길을 떠나지만, 임신한 원강아미는 더 이상 여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원강도령은 자식의 이름을 미리 지어 주고 장자의 집에 아내를 남겨둔 채 홀로 서천꽃밭으로 떠난다. 장자는 원강아미를 취하려 겁박을 하나, 원강아미는 이를 이겨내고 아들을 출산한다. 원강아미는 아들 할락궁이와 함께 장자의 집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다. 열다섯이 된 할락궁이는 어머니를 추궁하여 결국 자신의 아비가 누구인지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고, 어머니를 장자의 집에 남겨둔 채 아버지를 찾아 홀로 길을 떠난다. 할락궁의 추적에 실패한 장자는 홀로 남은 원강아미를 고문 끝에 처참하게 죽인다. 한편 장자의 추적을 따돌린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에 도착하여 꽃감관을 만난다. 꽃감관에게 아들임을 인정받은 할락궁이는 도환생꽃으로 어머니를 살리고 수레멜망악심꽃으로 장자에게 복수하라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장자의 집으로 돌아간 할락궁이는 장자의 일족을 불러 모아 몰살하고, 흩어진 어머니의 뼈를 모아 다시 살려 낸 후 어머니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간다. 원강아미는 서천꽃밭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저승어멍(어미)이 되고,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꽃감관이 되었다.

변이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이공본풀이〉와 유사한 서사무가로는 평안도에서 채록된 〈신선세텬님청배〉, 경상남도에서 채록된 〈악양국왕자노래〉 등이 있다. 〈신선세텬님청배〉에는 원강아미와 할락궁이 모자의 시련담이 없고, 〈악양국왕자노래〉에는 꽃으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삽화가 없다. 〈악양국왕자노래〉는 채록자가 〈안락국태자경〉이 무가화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불교설화와의 유사성이 강하다. 제주도의 〈이공본풀이〉는 원강아미와 할락궁이가 사라도령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 서천꽃밭을 관리하게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내력이 상세하게 풀이되어 있고, 불교적 색채가 지워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유사 이본과 구분된다.

분석 서사무가로 구연되는 〈이공본풀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천륜을 잇고 어머니를 위해 복수를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는 점에서 효행 서사시이며, 여성의 수난과 계층적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일상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생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공본풀이〉가 굿판에서 구연되는 신성한 신화인 이상, 이러한 세속적 관심이 〈이공본풀이〉가 지니는 의미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이라는 신화적 관념을 배경으로 하여, 원강아미와 할락궁이가 어떻게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꽃감관의 가족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내력을 풀이하는 서사무가이다. 원강아미는 남편과 아들을 위한 절대적 희생을 요구받았다. 할락궁이에게 요구된 자질은 아버지인 꽃감관이 관리하는 생명꽃과 악심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다. 그 희생과 능력이 각각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모자는 꽃감관의 가족이 되어 서천꽃밭에서 특정한 직능을 부여받는다. 이렇듯 무가 〈이공본풀이〉에는 부계 중심의 가계 전승 논리와 남성 우위의 사회적 성 역할이 '서천꽃밭'이라는 신화적 관념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다. 신화는 현실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그 전범(典範)으로 기능한다는 신화 일반론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징 제주도 신화에서 '꽃'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관장하는 불도할망이 관장하는 것이 바로 '생불꽃'이다. 그런데 〈이공본풀이〉의 꽃감관은 생명을 주는 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내리는 징벌을 의미하는 '악심꽃'도 관장한다. 불도할망이 순수하고 본원적인 '생명'을 관장한다면, 꽃감관은 생명의 존재를 지배하면서 선악에 따라 존재를 특정하게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불도할망의 꽃은 생물학적 의미에서 본원적 생명을 의미하지만, 〈이공본풀이〉에서 꽃감관의 꽃은 문화적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권위의 원천인 주술적 도구로 기능한다.

의의 현재 전승되는 제주도의 서사무가는 오랜 세월 굿판에서 구연되면서 변화해 온 것이다. 〈이공본풀이〉는 제주도의 서사무가가 설화나 소설 등 다른 갈래와 교섭하면서 지속되고 변화해 온 실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신 위주에서 남신 우위로의 변화, 근원적 생명력에 더하여 사회문화적 권위가 강조되는 신화 관념의 변화 등 신화사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양상이 확인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이공본풀이〉의 문학사적 의의라 할 것이다.

출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각, 2007).

참고문헌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조동일, 문학과지성사, 1997),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의 전승 관계(오대혁, 불교어문논집6, 한국불교어문학회, 2001),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이수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정진희, 국문학연구7, 국어국문학회, 2002).

필자 정진희(鄭眞熙)

전설

이괄

李适

정의 조선 중기 '이괄의 난'을 일으켰다가 죽은 이괄(1587~1624)에 얽힌 설화.

줄거리 이괄은 어렸을 때 성질이 난폭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언행을 하였다. 이괄의 아버지는 풍수에 밝아서 자신의 묏자리를 당대에 왕이 날 곳으로 잡았는데, 그 자리는 시신을 거꾸로 묻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유언으로는 시체를 바로 묻고 도토리와 콩팥을 함께 묻으며, 괄의 손금이 올라가면 그때 거사를 치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괄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해서 시체를 바로 묻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금이 올라가지 않자 칼로 손금을 찢고 거사를 했다가 죽었다. 나중에 관군이 이괄 아버지의 무덤을 파 보니 용이 거의 되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그때 묻은 도토리와 콩팥 역시 군사가 되다가 죽어 있었다. 시체를 거꾸로 묻었으면 용이 된 아버지가 아들의 거사를 도와 성공하게 했을 것이다.

변이 〈이괄설화〉는 이괄의 난에 대한 실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많다. 특히, 관군과 싸울 때 돌이 굴러 후퇴 명령을 알리는 징을 쳐서 패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이 설화는 크게 지명유래담, 무용담, 풍수담, 신격담으로 변이되어 전승한다. 지명유래는 이괄암, 이괄소(沼), 가련골과 같은 것이 있고, 무용담은 〈이괄과 팔봉산용의 내기〉가 강원도 홍천을 중심으로 전한다. 이괄이 돌로 사람과 말을 깎아 직접 부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풍수담은 아버지 무덤과 관련해서 전해지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괄이 지관을 섭섭하게 대해서 묘혈을 바로 잡아 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신격담은 홍천의 팔봉산신과 싸운 이야기, 홍천군 동면 덕치리의 마을신이 되어 제사를 받는 내력이 있다.

분석 이괄은 비록 반란에 실패해서 서른여덟의 나이에 죽고 말지만, 열세 살에 벼슬길에 올랐으며, "이괄이 아니면 북방의 침략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 때문에 설화는 이괄의 용맹을 중심으로 그의 반란이 실패한 데 대한 애석함이 담겨 있다. 학자들은 설화에 나타난 민중심리를 통해 "이괄은 당대의 메시아적 인물이며, 설화에는 영웅에 대한 미래지향의식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였다. 〈이괄설화〉에 관한 연구는 지명유래, 전승양상, 민중심리, 신격화 양상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고, 단일 인물설화에 대한 것으로 볼 때는 그 성과가 크다.

특징 이 설화는 민중의 처지에서 바라본 '영웅의 좌절'을 그 특징으로 한다. 민중의 염원이 이괄을 영웅으로 형상화하였다. 그 때문에 반란의 실패를 이괄이라는 인물 자체에 두지 않고 풍수적인 입장으로 처리한다. 또 이괄의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청개구리 이야기의 화소를 개입한 것도 이 설화의 특징이다. 반란 실패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모두 이괄의 대단한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런 능력은 이괄을 삼부인신과 함께 팔봉산당굿의 무속신이 되게 하였고, 덕치리의 서낭제, 고창제, 산신제의 신격으로 좌정하게 한다.

의의 이 설화에는 민중의 소망이 깃들어 있으며,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를 활용하여 영웅의 좌절을 이야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국 민중은 이괄을 아기장수와 같은 인물로 보았으며, 이 설화에서는 반란에 성공했더라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이 왔을 것이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즉, 설화 속에서 이괄의 난을 관료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향한 개혁의 몸짓으로 상징화되어 있다.

출처 강원구비문학전집1(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림대학교출판부, 1989), 내고장 내 겨레 치악에 묻힌 이야기들(황주익, 원주문화원, 197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2, 173; 778.

참고문헌 강원도 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홍천의 이괄전설 전승양상(정윤수, 강원민속학20, 강원도민속학회, 2006), 홍천 이괄 관련 지명과 설화조사 연구(이학주, 강원민속학22, 강원도민속학회, 2008).

필자 김의숙(金義淑)

용어

이류교혼화소

異類交婚話素

정의 사람이 아닌 다른 류(類)가 사람과 성 관계를 맺는 이야기 요소.

내용 이류교혼담(異類交婚談)에서 교혼 대상으로 동물, 식물, 혼령, 정령 등이 등장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여우, 지네, 뱀, 지렁이, 호랑이, 곰, 용, 개 등의 동물이 우세한 비중을 보여 준다. 이류교혼화소(異類交婚話素)는 신화적 성격을 지닌 자료의 경우 신성혼이나 신성 존재의 출생담에서 활용된다. 전설적 유형에도 출생담이 나타나지만, 교혼 대상의 정체에 대한 의문과 확인의 과정이 부각되면서 이물은 퇴치된다. 반면 민담적 유형에서는 교혼의 대상이 재물을 증여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류교혼이 자연에 대한 근원적 숭앙감을 토대로 형성된 화소로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양상을 통해 설화 향유층의 세계 인식 양상을 담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필자 강진옥(姜秦玉)

전설

이몽학

李夢鶴

정의 임진왜란 때에 충청남도 홍산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몽학에 관한 설화.

역사 문헌에는 이몽학이 서울에서 천민의 서자로 태어나 아비에게 좇겨난 성질이 흉악하고 교활한 인물로 나타나는데, 설화에는 홍산 인근에서 태어나 성실하게 성장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장기의 활동도 이곳과 관련되어 있다. 이몽학은 한현(韓絢)을 만나 임진왜란 중인 1596년(선조 29) 7월에 충남 홍산에서 민란을 일으켜 삽시간에 호서 일원을 장악하고 한양을 위협하였다. 이몽학은 민중의 협조를 받아 홍성까지 진격하였다가 홍가신에게 패배하여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승된다.

줄거리 이몽학은 홍산 인근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누이와 함께 태어난다. 태몽에서 누이는 북을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몽학은 올라가기만 하고 태어난다. 그는 신이한 능력을 타고났는데,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더욱 키웠다. 하루는 홍수가 난 하천을 건너가는 신이한 능력을 선생에게 보여 주어 버림을 받는다. 이몽학은 능력이 발각된 후 난을 일으키거나 힘내기에서 도움 줄 대상들을 제거하지만, 최후에 민란을 일으켜 실패함으로써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다. 민중은 묏자리를 통해 새로운 영웅 인물의 탄생 가능성을 제시한다.

변이 이몽학의 탄생담을 보면, 태몽 이외에도 홍산의 정기를 받거나 묏자리의 지기로 태어난다. 그리고 홍수물 건너기 삽화(揷話)도 능력을 드러내지 말라는 금기 모티프의 파괴를 보여 주는 것 외에 단순하게 능력을 드러내는 목적도 있다. 또한 〈오뉘힘내기〉 삽화는 다양한 변이양상을 보이며, 최후담은 그가 역적으로 죽었다는 한계 때문에 변이될 수 없음에도 구멍으로 도망쳐 살도록 변형되기도 한다.

분석 이몽학은 태몽이나 풍수지리에 의해 홍산 인근에서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는 신화적 주인공과 다르게 어려서부터 신이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성장기에는 성실하게 능력을 닦기 위해 노력하지만, 홍수물을 건너는 신이한 능력을 선생에게 드러내 버림받는다. 이는 지혜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기아 모티프 현상이다. 이몽학은 오뉘힘내기나 이적과 같은 무사적 측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지만, 지혜의 측면에서는 욕심 많고, 조급하게 서두르며, 질투심이 많은 인물로 나타난다. 결국 이몽학은 두 측면의 부조화로 최후에 패배한다.

의의 설화에는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킨 인물임에도 지역에서 민중적 영웅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 점은 한 인물에 대하여 지배층과 다른 민중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적 시각을 제시한다. 또 〈이몽학설화〉는 일생담으로 재구성하였을 때 성장기에 버려졌지만, 영웅으로 죽는 서사구조를 통해 민중의 영웅 기대 심리를 드러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화연구원, 1980~1988) 4-5, 234; 694; 723; 816.

참고문헌 이몽학설화고(윤재근, 한국문화연구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5), 이몽학 설화의 연구(강현모, 동아시아문화연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8), 장수설화의 구조와 의미(강현모, 역락, 2004).

필자 강현모(姜賢模)

민담

이물담

異物譚

정의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영역을 넘나들며 인간과 우호적으로 또는 적대적으로 관계하다가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거나 인간에게 퇴치됨으로써 각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설화.

내용 이물담(異物譚)은 도깨비, 괴물, 귀신, 사(邪)가 된 사물 등 비인간계 존재가 서사 전개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설화로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양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 준다. 도깨비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이물로서 다양한 층위로 나타나는 존재이다. 도깨비이야기는 〈도화녀비형랑〉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비형이 귀(鬼)의 무리를 부려 하룻밤에 다리를 세웠다는 '귀교(鬼橋)' 삽화는 구전설화 〈도깨비가 해놓은 토목공사〉에 해당된다.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도깨비 소동에 해당되는 유화들이 여러 편 실려 있고, 『어우야담(於于野談)』, 『천예록』을 위시한 조선시대 문헌설화집에도 다양한 유화가 확인되고 있어 지속적인 전승의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도깨비설화에 나타나는 도깨비 형상은 신성과 괴이라는 양축 사이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데, 크게 신이한 능력을 지닌 신성 존재, 인간적 욕망을 지닌 범부, 괴이하거나 혐오스러운 괴물로 분류할 수 있다. 도깨비의 신성성은 사람의 장래를 알아보는 예지력, 명당을 알아보는 능력, 토목공사의 달인, 착용하면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신이한 물건의 소유자, 돈이나 재물을 갖다 주는 부신(富神) 등으로 나타난다. 도깨비 형상에는 인간적 욕망을 지닌 범부의 모습도 담겨 있다. 도깨비는 씨름이나 수수께끼 내기로 사람과 겨루기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심술궂고 변덕스러운 한편 건망증이 심하고 속기도 잘하는 어리석은 존재이다. 도깨비는 혐오스러운 괴물로도 그려지는데, 도깨비의 괴이한 행동 방식이나 존재 양태 때문에 도깨비는 이용하여 덕을 보고자 하는 대상일 뿐 인간과 공존할 수 없는 타자로 인식된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에는 도깨비의 재물신적 권능, 식성, 변덕스러운 성격과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도깨비를 속여 그 퇴치 방법을 알아낸다. 이처럼 도깨비는 신성과 비속, 친밀과 혐오, 친교와 퇴치 등 양가적 가치가 공존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도깨비와의 관계에서 발복하는 경우는 지략을 발휘하여 도깨비를 이용하는 경우와 도깨비방망이가 활용되는 유형처럼 선인의 선행 결과 주어진 보상뿐이다. 이는 지혜와 선행을 인간 문화의 성장 동인으로 인식하는 향유층 의식을 보여 준다.

귀신 이야기의 전통은 귀신 관념이 존재했던 고대국가 형성 이전으로 소급되며, 원혼에 대한 관념은 삼국시대 초기 유리왕 대의 사비와 탁리의 사건을 통해 확인된다. 〈도화녀비형랑〉에서 사륜왕의 혼령과 도화녀의 교혼으로 출생한 비형랑이 귀신을 다스리는 존재로 활약한 사연은 삼국시대 귀신담의 존재양상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귀신이나 혼백에 관한 이야기의 향방은 조선시대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예속(禮俗)의 영향으로 제사 또는 장묘(葬墓)와 관련된 혼령의 존재에 대한 유형이 많이 산출되었고, 유가적 윤리관의 강화와 함께 원혼설화도 다양하게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귀신의 범주는 자연신격에서부터 인귀(人鬼), 잡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지만 귀신설화는 인귀 즉 사람의 사후 혼령에 관한 이야기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저승으로 가야 하지만 귀신 이야기는 그 혼령이 이승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귀신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거나 그것을 넘나드는 존재이므로 귀신의 공간적 위상을 기준으로 귀신설화는 원혼담, 제삿날 다녀가는 혼령담, 환생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혼담'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생전의 억울함을 품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다.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야 하지만, 원혼은 의식이 생시의 기억을 벗어나지 못하여 이승에 결박된 상태이며 억울함이 풀려야만 저승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원혼은 이승 존재가 아니면서 이승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서, 경계 영역에 머무는 존재 양태를 보여 준다. '신원형(伸寃型)'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원한을 푸는 것으로 〈아랑형〉처럼 정절을 훼손당한 여성 원귀가 많다. '욕구형(慾求型)'은 애정의 좌절로 죽은 사람의 원혼이 뱀으로 변해 연모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상사뱀〉이 대표적이다. '좌정형(坐定型)'은 원혼이 해코지로 자기 의사, 즉 신의(神意)를 드러내면 마을 사람이 합의 과정을 거쳐 당신으로 좌정하는 유형인데, 〈삼척해신당설화〉를 비롯하여 여러 유형이 있다. '제삿날 다녀가는 혼령담'은 특정한 날만 한시적으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데,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혼령이 흩어진다는 유가적 관념과 상통한다. 제사를 통해 혼령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유가적 가족주의를 신앙적 차원에서 확립하는 방법이며, 그 혼령은 조상신의 범주에 포함된다. 개인은 가족주의적 질서 아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환생담' 또는 '전생담(轉生譚)'은 죽음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강렬한 원망(願望)을 가진 사람이 발원을 하여 다음 생에 귀한 신분으로 태어나는 〈고귀한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원한을 품은 사람이 보복을 하고자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 복수하기〉 등이 있다. 여기서 후생인은 특정한 물건이나 흔적, 또는 꿈을 통해 자기의 전생을 알게 됨으로써 정체성이 확인된다.

괴물담은 서사 내부에서 낯설고 두려우며 인간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존재가 특정한 인물이나 계기에 의해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퇴치되는 대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설화에서 괴물 관련 이야기로서 뚜렷한 유형을 형성하는 사례는 〈지하국대적퇴치〉이다. 괴물은 인간계와는 다른 지하국 세계의 존재이고, 그 형상도 여러 개의 머리와 엄청난 용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 인간을 납치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한 인간들의 탐색과 대응책이 마련되고, 결국 영웅과 피납자가 연합하여 싸움으로써 괴물의 정체가 드러나고 퇴치된다.

이 밖에 물건이 오랫동안 유통되지 않아 〈사가 된 사물〉도 이물담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 이야기를 들으면 주머니에 넣어 묶어 두기만 했던 소년이 사가 된 이야기에게 해를 입을 뻔했다는 〈이야기보따리〉, 묻혀 있던 보화(寶貨)가 사가 되어 주인집을 패가시키려 했던 〈사가 된 엽전〉은 이물들의 정체가 어느 용감한 인물에 의해 드러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

이물담은 인간이 아닌 존재, 즉 타자에 대한 시선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이물들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고 확인된다. 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반영하며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물담의 전개양상은 이물이 일방적 우위에 있는 관계에서부터 인간과 이물이 상호 소통하면서 상호 우위를 보여 주거나 인간의 우위를 확인하는 유형들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의의 도깨비, 귀신, 괴물, 사가 된 사물은 오랜 서사적 연원을 갖는 자료들로서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변모 양상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이물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신화적 사고, 세계관, 가치관을 잘 보여 준다. 또한 귀신, 도깨비, 괴물은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화소로서 문학은 물론 문화 장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결과물을 산출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원형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귀신이야기와 삶(강진옥, 월간 어린이와문학71, 2011), 도깨비 날개를 달다(김열규, 춘추사, 1991), 원혼형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강진옥, 고전문학연구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한국난타의 원형, 두두리 도깨비의 세계(강은해, 예림기획, 2003), 한국의 도깨비 연구(김종대, 국학자료원, 1994), 한국 원귀설화의 비교문학적 연구(안병국,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필자 강진옥(姜秦玉)

전설

이산해

李山海

정의 격리된 부모의 몽정사(夢情事)로 출생한 이산해(李山海, 1538~1609)와 관련한 전설.

역사 이산해 부친 이지번(李之蕃)은 천문 지리에 밝았으며 충청북도 단양(丹陽)에서 소를 타고 놀아 신선이라 불렸다. 이지번에게 글을 가르친 삼촌 이지함(李之菡, 土亭先生)은 천문·지리·음양(陰陽)·술서(術書)에 능통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산해도 예언과 술수(術數)에 능했다고 하는데, 신비한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전한다.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의 장인으로, 선조 때 영의정에 올라 당파 싸움의 와중에서 정권을 장악했지만 사람들의 미움을 사 탄핵을 받았다.

줄거리 부친이 중국 산해관(山海關)에서 밤에 부인과 동침하여 교합(交合)하는 꿈을 꾸었다. 이듬해 귀국해 보니 부인이 임신해 있었으며, 어느 날 밤 꿈에 산해관에서 남편과 동침 후 임신했다면서 기록해 놓은 쪽지를 내보였다. 산해관에서 꿈에 부인과 동침했던 날짜를 추적해 보니 그 쪽지와 완전히 일치하기에 아이를 낳게 했고, 꿈에 동침했던 지명을 따서 이름을 '산해'라고 했다.

변이 『지봉유설(芝峯類說)』은 "부부는 정기(精氣)가 서로 감응하면 직접 교합하지 않고도 임신할 수 있다."라는 중국 고서 『박물지(博物志)』와 『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매옹한록(梅翁閑錄)』에서 참판 성몽정(成夢井) 부친이 중국 사신 길에 몽정(夢井)에서 꿈에 부인과 교합하고, 부인도 같은 날 밤 같은 꿈을 꾸어 임신해 아이를 낳았으며, 친정으로 쫓겨났다가 남편이 돌아와 꿈을 확인하고는 아이를 길렀다고 기술했다. 뒤에 『계압만록(鷄鴨漫錄)』에서 이산해로 바뀌어 실려 있다. 민간에는 〈이산해설화〉가 전파되고 있으며, 음양·술서에 밝아 예언을 잘하였기에 예언 관련 설화도 함께 전해진다.

분석 훌륭한 사람은 모친이 남자와의 교합이 아닌, 어떤 기운에 의하거나 신성한 동물에 의해 임신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 나타나 교합하거나 이 설화처럼 멀리 떨어진 남편과 꿈에서 교합해 출생한 예가 많다. 이러한 이탄생(異誕生) 설화는 영의 기운이 이입된 특별한 인물의 탄생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징 실제 교합 없이 격리된 남녀의 꿈을 통한 교합 임신은 옛날 전설을 토대로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지만, 한편으로 여성 쪽을 의심하는 측면도 있어 상상을 통해 흥미를 유발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한편 부인의 불미스러운 실수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명과 연관된 이름 때문에 구성된 설화라는 점도 특징 중 하나이다.

의의 내용이 여운을 남기면서 웃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미화하거나 폄하하는 양면으로 개작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오락 작품에 조화롭게 이용하면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鷄鴨漫錄, 울진군지(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738.

참고문헌 芝峯類說, 한국문헌설화6(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 야담문학 연구(정명기, 보고사, 1996).

필자 김현룡(金鉉龍)

전설

이서구

李書九

정의 조선시대 문신 이서구(惕齋 李書九, 1754~1825)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탁월한 능력을 이인화하여 전승한 인물전설.

역사 조선 후기 문신인 척재 이서구는 사가시인(四家詩人,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중 유일한 적출로, 우의정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서구는 역사적으로 안동 김씨 세도 정권에 부합하지 않는 우현좌척(右賢左戚)의 원칙을 견지하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실천한 인물로, 이 때문에 생전에 김씨의 세도 정치에 의해 13년 동안 방폐되었고 사후 25년 동안이나 추탈관작의 위험에 놓였다. 이 설화는 이서구의 사상과 옛 기록에 적힌 내용에 근간을 두고, 이서구가 선정을 베풀었던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 형성되어 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은거지인 경기도 포천 지역에도 치적이나 인품과 관련한 많은 설화가 전승된다.

줄거리 문헌설화와 구비설화 양쪽 모두 이서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전승된다. 전설 속의 이서구는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인물로 묘사되어 예언가로, 이인(異人)으로, 구원가로 형상화된다. 특히 수학과 입신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많으며, 그의 우월성에 초점을 맞춰 내용이 전개된다. 이서구의 출생에 관한 내용은 태몽과 환생 모티프로, 영웅 출생 때 흔히 볼 수 있는 신이한 이적에 대한 모티프는 차용하지 않았다. 자라서 수학할 때는 이인이 스승으로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스승을 믿지 못하여 중간에 그만두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이는 이서구가 지역적 인물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근거로 제시된다. 입신담은 주로 관료 시절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전라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전승된다.

이서구는 도술, 예언, 풍수에 아주 능했는데, 이런 능력을 백성을 위해 사용한다. 예언에 관한 것으로는 나합(羅閤)의 탄생을 예견한 것이 주를 이룬다. 풍수에 관련한 설화는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전승되는데, 후대에 들어선 철도나 댐 등의 지형에 관한 내용이 많고, 전주의 집 방향을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꿔 가난을 벗어났다는 가사좌향(家舍坐向)에 관한 각편이 많이 전승된다. 그 밖에 전주의 땅 기운을 지키고자 북고사를 진북사로 개칭한 이야기, 전주의 재물 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서북쪽에 숲을 조성해 숲정이라 부른 이야기, 승암산의 화재를 막으려고 인봉에 방죽을 만든 이야기, 북쪽 가련산의 지세를 비보하여 물을 바로 흐르게 한 이야기 등이 전승된다.

또한 신이한 능력을 부각하기 위하여 설화 속의 이서구는 새소리를 알아듣고, 살인자를 잡기도 하며,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후임자를 예견하기도 하고, 이방의 아들이 중의 아들임을 밝혀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원혼을 만나기도 하고 이계(異界)와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이서구의 죽음에서도 예언 모티프가 차용되어 묘비를 세우는 문제, 묘를 쓰는 문제에 대한 그의 이인성이 부각되고 있다.

변이 〈이서구전설〉은 이타적인 인물됨에 초점을 두지만, 각편에 따라 이종사촌의 입신 기회를 빼앗아 자신이 입신하기도 하며, 집안을 살리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조카나 아들을 명풍수로 둔갑시켜 잘살게 해 주거나 생명을 늘려 주기도 하며, 7대손이 살인죄로 죽게 될 것을 예견해 구해 내기도 한다. 각편에 따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

물의 전설 전승양상에서 이름난 이인이 무명씨인 은일자에게 굴복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전설 역시 참외밭 주인, 평범한 노파, 더벅머리 총각 등과 비교해서 열등성을 보이는 각편이 있다. 이는 유명한 인물보다 역사 이면에 감춰진 인물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전승 집단의 의식이 표현된 것이다.

분석 이 설화의 연구는 기록류와 문헌설화, 구비설화의 모든 자료에서 진행되었다. 기록류와 문헌설화에서 보이는 이서구는 지인지감에 뛰어난 도술을 행하는 이인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런 능력은 구비설화에서도 전승되는데,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것은 그의 경세가로서 능력과 인물됨에서 비롯한다. 많은 각편을 보이는 구비설화에서는 이서구의 능력이 예언, 지인지감, 풍수, 도술 등으로 다양하며,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구술되고, 사후에도 설화의 전승력은 약화되지 않고 각종 밀서의 저자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징 이 전설은 이서구의 출생지인 경기도 지역과 치적이 남아 있는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지역 및 은거지인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전승되지만, 부임지였던 전라도 지역에서 전승이 가장 활발하다. 이 전설의 전승에서 특이한 점은 이서구의 예언자로서의 인물 형상이 후대에도 계승되어 설화가 각색, 전승된다는 점이다. 특히 동학농민운동과 남조선운동에 이서구가 이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내용이 문헌설화와 구비설화, 그리고 매천 황현의 기록에 남아 있다. 나합의 탄생을 예견한 일, 남조선에 관한 일, 동학농민에 관한 일들로 사후에 각색 전승된 각편은 그의 이인성에 예언자의 이미지를 부각해 그를 민중의 구원자로까지 형상화한다. 또한 김조순의 첩인 나주 출신 기생의 출생을 추수법(推數法)으로 예견한 이야기, 동학농민으로 백산이 죽산이 될 것을 예견한 일, 제주도 바깥에 있다는 남조선의 일 등 백성의 구원자로서의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이런 예언자, 구원자로서의 〈이서구전설〉의 생명력은 1890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예언서의 저자로 조작된 예가 있을 정도로 많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184; 454; 4-3, 678; 5-2, 752; 828; 845; 5-5, 762; 5-6, 708; 5-7, 604; 6-4, 252; 6-5, 271; 277; 6-8, 75; 8-14, 368; 695.

참고문헌 이서구 관계 설화의 양상과 의미(김윤조, 어문학63, 한국어문학회, 1998), 이서구설화의 역사적 배경(남재철,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이서구의 인물과 설화에 대한 연구(최삼룡, 한국사상사, 원광대학교출판부, 1991), 이서구전설 연구(박주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전라감사 이서구의 인물과 설화에 대한 연구(최삼룡, 전라문화논총4,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0).

필자 이상희(李尙姬)

전설

이성계

李成桂

상호참조 천자바위

정의 조선왕조를 개국한 이성계에 관한 설화.

역사 이 설화는 조선 창업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이해 집단들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이성계 씨족집단의 역사적 이주 경로 및 조선 창업의 주도권 획득 과정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여말선초의 조선 창업 과정을 정치적·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줄거리 〈이성계설화〉는 이성계의 조선 창업 정당성을 이성계 조상의 공덕, 금척과 같은 하늘이 내려 준 천명, 왜적 아지발도를 퇴치하는 영웅성, 민중의 수호신인 호랑이의 도움 등의 이야기로 그려낸다. 한편, 여말선초에 존재했던 무수한 민중 영웅의 명멸에 대한 민중의 아쉬움과 기득 세력인 이성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성계의 등극을 허락하지 않는 지리산신, 이성계와 대결하는 우투리, 이성계에게 목숨을 뺏기는 퉁두란 등의 이야기를 통해 형상화된다.

이 중에서 북한 지역 〈적지〉, 〈적도〉 이야기는 이성계의 조선 창업을 정당화하는 이성계 신화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성계와 악룡의 대결담인 〈적지〉는 이성계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청룡을 도와 적룡을 물리쳐야 왕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성계가 적룡을 퇴치하고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성계와 여진족 대결담인 〈적도〉는 여진족과 싸우던 이성계가 하늘에 구원을 요청하자 바닷물이 갈라진 덕분에 적도로 도망쳐 목숨을 구했다는 데서 적도라는 섬 이름이 유래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성계와 퉁두란의 대결담인 〈퉁두란〉은 이성계와 퉁두란이 용상에 올라앉아 몸 붙이기 내기를 하는데, 용상이 이성계 몸에만 붙어 있어서 이겼다는 이야기이다.

변이 적지 연못의 유래담인 〈적지〉는 이성계 5대조인 목조 이안사와 악룡의 대결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성계 당대의 일로 옮겨 놓은 형태로 전해진다. 친이적(親李的)인 선룡과 반이적(反李的)인 악룡의 색채 이미지 대비 구조가 백과 흑, 청과 적 혹은 황과 흑으로 바뀌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진족의 거주지였던 함경도 경흥 일대 지배 집단이 이성계 선조 집단의 이주 및 통치권 확립에 따라 해당 집단과의 연합 구도를 기준으로 분리되어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결과 이성계 선조 집단과 친이적 여진 집단의 연대세력이 승리하여 지역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이것이 이성계의 조상과 악룡 사이의 대결을 그린 적지유래담 계열이라면, 〈이성계설화〉에서는 색채 대비 구조의 구체적인 차이를 제외한 동일한 구도의 이야기가 이성계 당대의 일로 반복 기술되어 있다.

분석 남한 지역에 전승되는 〈이성계설화〉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신과 이성계, 우투리와 이성계의 대립 등의 이야기가 있다. 대결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성계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을 견지한다. 한편, 북한 지역에 전승되는 〈이성계설화〉는 평양 인근의 성계육 이야기를 위시한 몇몇 각편들을 제외하고는 이성계의 조선 창업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전승된다. 평양 지역을 제외한 북한 지역의 〈이성계설화〉에서는 이성계의 조상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계열과 이성계가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계열, 두 가지로 존재한다. 둘 다 이성계의 초월적 능력을 강조하여 조선왕조 건국의 신화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성계의 조상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계열에서는 각각 여진족·악룡·누르하치와 대결을 벌여 신화적 능력을 확인하며, 이성계가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계열에서는 각각 여진족·악룡·퉁두란과 대결을 벌여 건국조로서 능력을 인정받는다.

특징 이성계의 악룡 퇴치담은 고려 건국신화인 〈왕건신화〉에 먼저 등장했던 것으로, 왕건의 조상 작제건을 고려 건국조 왕건을 탄생시킨 선조가 되는 계기로 설정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왕이 될 자손의 탄생이라는 건국신화의 결과가 왜 악룡과의 대결담으로 형상화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악룡의 정체는 단순한 신성 동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두 마리의 용, 즉 흑룡과 백룡은 한반도 동북방 지역민들이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신성시하는 일종의 제향 대상인 동물 신이라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한반도 동북방은 용에 대한 신성 관념이 존재하는 지역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왜 한반도 동북방 지역민의 신앙 대상이 되는 신성 동물이 흑과 백으로 대비되는 색채로 형상화되었을까 하는 물음이다. 이는 이성계 집단의 한반도 동북방 지역으로의 이주 및 정착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의의 이성계의 악룡 퇴치담에서 악룡은 원나라의 다루가치로, 여진족을 대리 통치하는 정치적 권력을 사이에 두고 이성계 가문에 도전 혹은 저항한 여진족 정치세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백룡은 이성계 가문에 복속되어 이성계 집단의 정치적 관리체제를 내면화한 여진족 세력을 신화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계 집단이 한반도 동북방 지역에 세력을 구축하면서 용을 신성시하던 해당 지역이 두 개의 집단, 즉 이성계와 결탁한 친이, 이성계와 반목한 반이 그룹으로 양분되었던 것을 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성계의 조상인 목조 이안사가 백룡으로 상징되는 친이 여진 세력을 규합하여 악룡으로 상징되는 반이 여진 세력의 저항을 진압하고, 여진족 자치구로 존재해 온 한반도 동북방 지역에서 조선 창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나간 과정이 이성계 대 악룡의 대결담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3, 75; 5-4, 657,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4, 27; 70.

참고문헌 문학과 문화-분단 이전 북한 이성계, 여진족 대결담의 유형과 이성계 신화로서의 인식체계(권도경, 동방학2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이성계전설의 인물인식과 그 특징(이태문,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1997).

필자 권도경(權都京)

전설

이순신

李舜臣

정의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이순신 장군의 신이한 출생과 행적에 관한 설화.

역사 〈이순신설화〉는 임진왜란과 관련한 다양한 설화들과 함께 형성·전승되다가 〈임진록〉이라는 고전소설 작품으로 집대성된다. 〈임진록〉은 민간설화를 모아서 정리한 설화집 수준의 작품으로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담고 있다.

줄거리 이순신의 아버지가 중들을 잡아먹는 이무기를 물리치고, 이무기를 태우자 나비 세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뒤 이순신의 아버지는 아들 셋을 얻었는데,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눈빛을 타고 난 두 아들을 모두 희생시켰다. 세 번째 아이는 눈빛이 순하여 키웠는데, 바로 이순신이다. 어린 시절 이순신은 산속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과 그것을 자신이 막아내게 될 것이라는 신선들의 예언을 엿듣는다. 그리고 청년 시절 자신을 사모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니, 그 여인이 죽어 용이 되어 이순신을 도와 왜적을 무찌른다. 지형을 이용해 왜선들을 격멸시키는 뛰어난 전공을 쌓지만 적탄에 맞아 죽는다.

분석 〈이순신설화〉는 이순신의 업적에 비해 구비전승의 빈도

가 낮은 편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대로 이 이야기가 〈임진록〉이라는 고전소설의 모티프로 집대성되었고, 따라서 구비설화 향유층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승의 틀을 억지로 변이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몇몇 구비전승되는 〈이순신설화〉에서는 한국 장군설화의 서사적 구조와 유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담의 경우, 비록 징치(懲治)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가 신이한 혈통을 이어받아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신이한 능력을 획득하는 수련담에서는 구체적인 수련 과정이 생략되긴 했어도 산속에서 신선을 만나 앞으로 임진왜란의 발생과 해결자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또한 신적 존재에게 신이한 능력을 획득한다는 한국 장군설화의 서사구조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행적담은 객관적 사실과 비현실적 신이성이 혼재되어 있다. 폰디목 전투의 경우 실제적 상황을 근거로 형성된 것이며, 용의 도움을 받아 왜군을 물리치는 이야기에서는 전통적인 한국 장군설화의 모티프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는 역사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의의 〈이순신설화〉는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의 참화를 겪고 난 후의 시대상황과 당시 일본에 가지고 있던 민족 정서를 표출한 작품으로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출처 溪西野談, 東野彙集,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 502; 8-5, 316.

참고문헌 임병양란기 인물전의 비극성 연구(유권석,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임진록연구(임철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한국 장군설화 연구(오세길,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필자 오세길(吳世吉)

용어

이야기꾼

Storyteller

정의 일반적으로 말로 구연되는 연행 현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야기판을 주도하는 사람.

내용 이야기꾼[話者]은 이야기가 소통되는 이야기판에서 청중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구비문학에서 화자는 기술문학(記述文學) 텍스트에서 거론하는 화자 개념과는 상이하다. 기술문학 텍스트의 화자는 작품 안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인으로 작가와는 별개의 인물로 상정되는 반면, 구비문학 텍스트의 화자는 이야기 연행 현장에서 발화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을 지칭한다. 그 명칭으로 구비문학 일반에서는 화자, 이야기꾼, 구연자(口演者)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의사소통론이나 연행 기호학의 측면에서는 수신자(청중)의 대개념으로 발화자나 발신자로 통용되기도 한다. 이야기가 연행되는 현장은 화자, 청자, 이야기, 이야기판 등으로 구성되는데 화자는 이야기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야기판의 화자는 기술문학의 작가와는 달리 이야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없다. 대신 현장성의 맥락 아래 항상 청중을 의식해야 하고, 이야기 전달자 입장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대해 개인적인 가감(加減)을 더해 이야기를 발화한다. 또한 이야기 구연의 유능함에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화자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화자와 청중의 역할이 바뀌어 이야기를 듣던 청중이 동일한 이야기판에서 화자가 될 수도 있다.

필자 김경섭(金鏡燮)

민담

이야기로 쫓은 도둑

정의 이야기의 내용이 우연히 도둑의 행동과 일치하여 놀란 도둑이 도망쳤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외딴 산골에 늙은 내외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할머니가 심심해서 할아버지한테 어디 가서 이야기나 좀 사 오라고 했다. 할머니가 내 준 베를 가지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사러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도중에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팔라고 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마침 황새 한 마리가 내려앉아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무엇을 집어 먹고 땅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는 '훌떡 내려앉는다', '기웃기웃한다', '집어 먹는다', '들여다본다'라고 했다. 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마침 솥을 훔치려고 담을 훌쩍 넘어 온 도둑이 이쪽저쪽을 기웃기웃하다가 솥에 있는 삶은 팥을 집어 먹고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이야기를 들은 도둑이 놀라 도망쳤다.

변이 집에 찾아온 소금장수에게 이야기를 들거나, 학동이 엉터리 선생한테 글을 배워 집에서 복습하다가 도둑을 쫓는 경우도 있다. 황새가 아니라 왁새(왜가리)나 꿩, 두꺼비의 행동으로 나오는 예도 있다. 도둑질 한 다음 날 도둑이 고기나 과일 짐을 지고 장사치인 양 나타나서 어젯밤의 일을 아는지 염탐하기도 하는데, 역시 늙은 내외의 말을 곡해하여 자신의 소행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여 도망친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기도 하다.

분석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라는 말이 있다. 재미에 빠져 이야기를 탐닉하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 설화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물론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지만, 이야기가 도둑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징 이야기나 말을 오해하여 도둑이 스스로 도망쳤다는 설화는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아르네-톰슨의 유형에서 〈한 남자와 두 마리 개(AT1530)〉는 두 마리 개를 부르는 소리를 도둑이 듣고 오해하여 도망친다는 내용이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우리 설화의 특징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3, 410; 4-1, 535,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9, 101.

참고문헌 구비서사에 나타난 말의 원형적 성격(노영근, 구비문학연구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메타구비문학과 민중의 설화 의식(임재해, 구비문학연구8, 한국구비문학회, 1999).

필자 심우장(沈愚章)

민담

이야기주머니

정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머니에 담아만 두었던 사람이 사(邪)가 된 이야기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하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서당에서 글공부를 하는 한 학동이 옛날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에 보관하곤 하였다. 주머니에만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주머니 안이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주머니 안에서 답답함을 느낀 이야기들이 결국 사가 되었다. 이윽고 사가 된 이야기가 자신들을 주머니에 가둔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학동의 결혼식 날,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 행차 중간에 청실배나 옹달샘으로 변신하여 그것을 먹으면 죽도록 하거나, 결혼식장에서 바늘방석이나 떡국으로 변신하여 신랑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학동과 함께 거처하는 하인이 사가 된 이야기들이 숙덕이는 음모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하인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행차에 굳이 끼워달라고 떼를 써서 학동은 하는 수 없이 하인을 말잡이로 데리고 갔다. 말잡이가 된 하인은 신랑이 행차 도중 목이 말라 청실배를 먹거나 옹달샘 물을 마시려는 것을 말을 멈추지 않고 지나쳐 못하게 했다. 결혼식장에서는 바늘방석에서 신랑을 구출하고, 먹으면 죽는 떡국도 먹지 못하게 했다. 학동이 이를 괘씸하게 생각했으나 하인에게 저간의 사정을 듣고는 하인이 참으로 충의스럽다고 생각해서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변이 대부분 서당에 다니는 학동으로 나오는데, 독선생을 앉히고 공부하는 대갓집 아들로 나오기도 한다. 이야기를 잘하는 학동 둘과 못하는 학동 하나가 있었는데, 이야기 잘하는 학동 둘이 죽어서, 그 죽은 혼이 해코지를 하는 예도 있다. 청실배나 옹달샘은 신행 도중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소재인데, 비슷하게 우물물, 딸기, 돌배가 나오기도 하고, 바늘방석 대신 방석 밑에 송곳, 덕석 밑에 실뱀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방에서 지네나 구렁이로 변신해서 물어 죽이겠다는 예도 있다. 이야기주머니는 대들보나 천장에 매달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중에 학동이 이야기주머니를 풀어 주어서 지금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첨가되기도 한다. 〈두꺼비의 보은〉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사가 된 이야기가 신방에서 큰 구렁이로 변신해서 해코지하려고 할 때, 여자 하인이 키운 두꺼비가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분석 이 설화는 기본적으로 서당이라는 문자문화 재생산의 공간에 있는 학동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 이에 사가 된 이야기가 학동을 죽이려는 것을 문자문화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구술문화적이고 민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인이 구해 준다. 이로 볼 때, 이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문자문화의 지배에 대한 구술문화의 반격'이나 '구술문화의 해방'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야기는 이야기하기를 통해 전승되는 것이 본래 특성인데, 그러한 구비전승을 막는 문자의 기록은 구술문화를 말살하려는 문자문화의 횡포라 할 수 있다.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없애야 한다. 이야기들이 음모를 꾸며 학동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학동은 이러한 구술문화의 반격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굳이 글로 적어 주머니에 담아 두는 학동에게는 구술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들의 대화를 엿듣고, 학동을 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학동의 하인이다. 하인이라는 신분이 구술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하인이 이야기의 사기(邪氣)를 퇴치하고, 학동을 구해야 죽어 가는 이야기의 생명성을 건강하게 회

복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문자문화와 구술문화의 차별화가 해소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말이 글에 억눌리고 구술문화가 문자문화에 지배당하는 사회, 곧 말과 글의 모순이 심화된 사회를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여 말의 문화가 활개치는 구술문화의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인을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경계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로 본다면, 이 설화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문자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학동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도, 구술문화를 대표하는 이야기들이 하는 말은 혼자서만 알아듣는다는 점에서 하인은 두 문화의 경계적 존재일 수 있다. 하인이라는 존재는, 이야기를 주머니에 담아 두는 것을 거부하는 이야기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으면서, 이야기문화를 억압하는 젊은 학동에 대해서도 그 무지를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문화의 새로운 위상을 상정하기도 한다. 문자문화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야기의 본질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인이 젊은 상전인 학동과 더불어 행복하게 동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술문화도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여 문자문화와 행복한 동거를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하려 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의의 이 설화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메타설화이다. 이 설화는 이야기문화의 주도권 상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 혹은 구술문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위상으로 다시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일러주는 문제작이라 할 수 있다. 구술문화의 대표자인 하인, 혹은 경계인인 하인이 사가 된 이야기를 물리치고 학동을 구출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문화 변동기에 새롭게 문자문화와 구술문화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755; 1-2, 525.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288.

참고문헌 메타구비문학과 민중의 설화 의식(임재해, 구비문학연구8, 한국구비문학회, 1999). 이야기하기의 구술성에 대하여(심우장, 구비문학연구24, 한국구비문학회, 2007). 이야기주머니설화(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필자 심우장(沈愚章)

용어

이야기판

정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설화 구연의 현장.

내용 이야기판은 화자와 청자가 동참하여 만드는 이야기의 재현 공간이자, 다양한 참여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구연되는 역동적인 이야기 조직체이다. 이야기판은 또한 문화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 속에는 경험적 세계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일상적인 기억을 교류하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부족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이야기판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은 기억들을 새롭게 엮어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규칙들을 재조정하고 재창조하는 사회시스템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이야기판은 공동체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문화교육 또는 인문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필자 심우장(沈愚章)

전설

이어도

정의 이승의 고통스런 삶이 끝나는 지점에 있다는 해양타계(海洋他界) 또는 남해상의 하얀 산호섬에 대한 전설.

줄거리 옛날 어떤 서방이 첩을 얻어 무인도에 가서 살았다. 그런데 본부인이 서방을 찾아가겠다면서 시아버지에게 배를 지어 달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선흘(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아버지가 배를 타고 가는데, 며느리가 노를 저으면서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라고 하였다. 섬에 도착하니 서방은 아기도 낳고 집안이 번창해 있었다. 본가로 돌아가자고 하니 서방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배를 탔다. 온 가족이 배를 타고 오다가 그만 풍파를 만나 모두 죽고 말았다. (그래서 충청도 어느 곳에서는 이들을 위해 고사를 지내 주었다고 한다.) 이것이 '이어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다는 전설이다.

분석 '이어도'라는 명칭은 오랜 시간 동안 제주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상향이나 저승의 피안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1900년 영국 상선 스코트라(Scotra)호가 항해 중 침몰하여 1910년 영국 해군에 의해 '스코트라록(Scotra Rock)'으로 명명되었다. 1984년 제주대학교와 제주도 KBS 조사팀이 공동 탐사에 성공해 '파랑도(波浪島)'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국립지리원이 다시 '이어도'로 정정하여 이름을 붙인 이래, 지금까지 '이어도'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섬이다. 동굴적 존재인 소용돌이와 정토인 피안을 포괄하는 가상의 섬이다. 피안에서 피안에 이르는 경계에 소용돌이가 놓여 있다는 관념이 특징적이다. 제주 사람들은 나날이 부딪히는 갖은 고난을 버티며 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비탄의 고해(苦海)를 뛰어넘으면 부와 환락이 넘치는 정토(淨土)의 섬이 제주도의 남쪽 바다 어딘가에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또 이어도는 제주 여인들이 삶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울 때마다 떠올리고 불러보는 희망의 땅이었다. 그곳은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꿈처럼 펼쳐지는 저승의 피안이었기에 해녀들은 "이여하면 나 눈물 난다.", "이엿말은 마라서 가라."라고 노래하였다.

'이어도'에는 고통스럽고 슬픈 삶, 말하기도 싫은 현실, 삶의 터전, 해녀들의 바다 밭, 여(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조수간만에 따라 드러나는 섬)'는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곳이다. 이어도는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여이다. 이어도는 현실에는 감추어진 여, 밀물 때는 가라앉는 '든여', 물속에 들어가 잠겨 버린 섬이며, 꿈속에서는 하얀 산호섬으로 다가오는 여, 썰물 때 나타나는 '난여', 드러난 섬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해녀들의 물질과 여를 '이어도'로 엮어 내기도 한다.

의의 이어도는 제주에서 중국의 해남으로 가는 뱃길 중간에 있다는 스코트라 록이며, 파랑도, 우리의 해양 영토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의 꿈의 낙원으로서, 해양과학기지센터가 있는 해산물과 산호의 보고로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 가치를 간직한 곳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9-1, 203; 9-3, 232.

참고문헌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좌혜경, 해녀박물관, 2007). 이어도 연구(이어도연구회, 2010). 제주문화상징(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제주도민요 연구-하(김영돈, 민속원, 1984).

필자 문무병(文武秉)

전설

이여송

李如松

정의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의 장수로 온 이여송에 대한 설화.

역사 〈이여송설화〉는 임진왜란 때 이여송이 조선에 파병되면서 생성되었으며, 『청구야담(靑丘野談)』, 『계서야담(溪西野談)』의 문헌설화집에 수록되거나 〈임진록(壬辰錄)〉 같은 소설로 전승되기도 하였다. 문헌설화에는 이여송이 조선의 왕이 되려 했다가 이인(異人)에게 질책을 받아 물러난 이야기가 많다. 구비설화에서는 조선의 인재를 없애기 위해 혈을 지른 이야기가 주로 전승된다. 더 나아가 이여송이 본래 조선 사람으로 조상의 혈을 질러 자손이 끊겼다는 설화도 있다.

줄거리 임진왜란 때 중국에 지원군을 요청하러 갔는데, 천자는 농사철이라고 거절한다. 사신이 율곡이 남긴 글에 따라 준비해 간 고추 수건으로 눈물을 흘리자 천자가 감동하여 이여송을 출병시킨다. 이여송이 소상반죽(瀟湘斑竹, 눈물자국 무늬가 있는 대)으로 만든 젓가락을 준비해야 출병하겠다고 트집을 잡았는데 판서의 바보 형이 소상반죽 젓가락을 가져와서 출병이 이루어진다. 이여송은 조선의 임금이 되고 싶어했지만 바보 형이 이여송을 자기 아들에게 데려갔고, 그 아들이 조선의 대나무로 이여송의 칼을 부러뜨리니 항복하고 귀국한다.

변이 위의 줄거리는 〈이여송의 행패와 망신〉이다. 〈이여송설화〉는 조선에 올 때 부당한 요구와 트집을 잡는 설화, 조선에서 혈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인에게 혼나는 설화 등이 있다. 이여송의 요구와 트집 내용은 용의 간이나 소상반죽 젓가락 외에 천하제일미를 요구하거나 선조가 왕의 상(象)이 아니라고 트집을 잡거나 무조건 손을 불쑥 내밀어 시험한다는 예들이 있다. 이에 이이, 이항복, 류성룡, 류운룡(겸암)이 해당 물건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지도를 내주어 문제를 해결한다. 이여송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남아서 조선을 차지하려 하거나 명산에 혈을 지르거나 미륵불의 목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를 산신, 초립동이 같은 이인이 막았는데, 이를 막지 못해 조선의 인재가 끊어지고 혈이 세 개만 남거나, 이여송이 귀국해 보니 오히려 자기 조상의 혈을 끊었다고 혼난다는 변이형이 있다.

분석 역사에서 이여송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병으로 조선에 와서 왜군을 물리치고 조선을 구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구전설화에서는 조선에 트집을 잡거나 혈을 질러 인재를 없애려 한 인물이며, 결국 자기 조상의 혈까지 질러 망하게 한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된다.

의의 〈이여송설화〉는 외국군의 유입과 주둔에 대한 서민의 부정적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 정세의 냉혹함과 지원군이 약탈자가 되는 상황을 설화를 전승함으로써 극복하려 한 서민의 인식이 담겨 있다.

출처 溪西野談, 壬辰錄, 靑邱野談,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123; 3-3, 332; 8-11, 598.

참고문헌 민족설화의 논리와 인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2),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임철호, 집문당, 1989), 이여송설화 연구(임철호, 국어국문학90, 국어국문학회, 1983), 임진록 연구(임철호, 정음사, 1986).

필자 손지봉(孫志鳳)

전설

이완

李浣

정의 북벌정책을 보필하여 국방체계·군비·병력을 정비한 이완에 관한 설화.

역사 이완 장군은 인조반정의 공신 계림부원군 이수일(李守一)의 아들로 태어났다. 설화에는 가난한 집의 자제로 태어나 지혜로 묏자리를 지키거나, 성장기에 사냥을 나가 도둑의 집에 들어가 도둑의 아내를 얻어서 나오는 것이 있다. 이완은 어영대장과 포도대장이 되었을 때 효종이 즉위하면서 북벌계획을 수립하고 신무기를 제조하였으며, 성곽을 보수하고 신축하였다. 설화에서 이완은 아내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런데 효종의 승하로 북벌계획이 중지되면서, 발탁한 인물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설화도 있다.

줄거리 크게 세 가지 줄거리가 있다. 첫째, '가죽 부대 속의 도둑과 이완 대장' 유형은 이완이 소를 잃은 사람에게 부잣집의 돈을 재치로 얻어 주어 잘살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둘째, '갑옷 챙기고 지도 찾아낸 이완 대장의 부인' 유형은 이완이 박색 부인의 도움으로 갑옷과 투구를 입고 입시하여 시험을 통과하고, 하사받은 붓통에서 북벌계획서를 발견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산적의 아내를 차지한 배포 큰 이완 대장' 유형은 이완 대장이 사냥을 나가 도적의 소굴에 들었다가 도둑의 아내를 데려오고, 도적을 나중에 부하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변이 첫째 유형의 변이로는 고을 원님을 도둑으로 몰리게 하여 가난한 선비에게 돈을 많이 벌도록 돕는 예도 있다. 셋째 유형에서는 잡아온 도둑을 풀어 주는 데서 끝나거나 여러 번 잡아와 벼슬을 하나 주는 것도 있다.

분석 첫째 유형은 이완이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재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둘째 유형은 여성 지혜담으로, 이완이 박색 부인의 도움으로 명장이 된다. 셋째 유형은 이완의 담력과 용기를 드러낸 동시에 신의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밖에도 이완이 북벌정책의 책임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지만, 탁월한 민중 영웅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의의 이 설화는 이완이 어렸을 때는 지혜가 있지만, 성인이 되자 자신보다 아내의 능력으로 문제를 통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여자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한계를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또 신표(信標) 모티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품성으로 백성이 바라고 기다리는 완벽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민중 영웅인 방울(박탁)을 등용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이완의 한계가 드러난다.

출처 承政院日記, 燃藜室記述, 顯宗實錄, 孝宗實錄, 내고장 옛 이야기(홍순석·이인영, 용인문화원, 1985), 전설지(충청북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충청북도, 198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9, 541; 7-3, 78; 8-13, 45.

참고문헌 용인 남부지역의 구비전승(강현모·박종수, 태학사, 1997), 여성지혜담 연구(김옥숙,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필자 강현모(姜賢模)

전설

이원익

李元翼

정의 조선시대 왕족 출신의 재상인 이원익(梧里 李元翼, 1547~1634)에 대한 인물전설.

역사 조선 중기 문신인 오리 이원익은 태종의 아들인 익녕군(益寧君) 치(穉)의 현손이며, 이억재(李億載)의 아들이다. 영의정에 올랐으나 청빈한 생활로 관료의 귀감이 되었으며, 병제와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육번제와 대동법을 실시하는 데 공헌했다. 이런 역사 사실과 전승자의 상상력이 더해져 전설 속 이원익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줄거리 이원익은 어려서부터 재치가 있고 영리하였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서산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나이 어린 수령을 우습게 여기는 육방관속을 입담으로 제압했다고 한다. 또 매우 청빈한 성품으로 유명하였다. 팥죽 값을 내려다 녹봉이 하수구에 떨어지자 나랏돈을 망실할 수 없다 하여 두 배 이상의 값으로 품을 사서 꺼내기도 하며, 갓을 새로 살 여력이 없어 구멍 뚫린 갓을 쓰고도 태풍이 불 것이라 일부러 위를 뚫었다고 재치 있게 얘기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원익은 사람을 판단할 때 관습보다 그 사람됨을 중시하는 지인지감의 능력이 있어, 가난한 선비인 허목을 손자 사위로 삼아 수학시켰다고 한다. 이런 이원익의 모습을 보고, 임금이 찬탄해 관감정(觀感亭)을 지어주며 다른 관료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변이 〈이원익전설〉 중에는 부인이 등장하는 각편도 있는데 이런 유형에 등장하는 이원익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인물됨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인이 기지를 발휘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고 길을 가려는데, 도와준 자가 보상을 요구하자 이원익은 그를 두고 지용(智勇)은 있되 품성이 부족하다며 대장할 그릇은 아니고, 소장밖에 될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각편은 부인의 재치와 이원익의 지인지감 모티프가 결합한 내용이다.

분석 역사, 정치, 사회 분야에서 이원익은 경세가로서, 개혁가로서, 청빈한 관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이원익의 역사적 치적과 품성의 탁월함에 비해, 이원익 관련 설화의 연구는 미흡하다. 이 설화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나 지인지감 모티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 설화가 다뤄지기도 한다.

특징 이 이야기는 그의 출생지인 경기도 광명 지역과 그가 부임했던 지역에서 전승된다. 출생지 인근인 서울과 경기 지역 설화는 이원익의 청빈함, 지인지감과 같은 성품 및 예지력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그 외 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 지역은 관료로서 치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출처 광명시지(광명시, 2006), 광명시지 자료집(광명시, 2006), 광명의 뿌리(광명문화원, 199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536; 1-9, 666; 3-1, 417; 4-3, 695; 6-4, 536.

참고문헌 광명문화 창간호(광명문화원, 1993), 광명의 뿌리(광명문화원, 1996), 디지털 광명 문화대전(gwangmyeong.grandculture.net).

필자 이상희(李尙姬)

민담

이의 울음

정의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기 몸에 붙은 이가 내는 소리였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어디선가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귀를 기울여보니 자기 옷자락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옷을 벗고 자세히 보니, 이가 옷 실밥에 목이 걸려 울고 있었다.

변이 이 설화는 과장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사람이 인지한 특이한 현상이 자신의 신체에 기생하는 이에서 비롯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이는 사람의 몸에서 보이는 특이한 현상과 그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이한 현상은 수염이 젖거나, 기합소리, 울음(비명)소리가 들리는 것들이며, 원인은 이가 수염에 그네를 매고 타는 것, 이와 벼룩이 씨름을 하는 것, 이의 몸 일부가 실밥에 걸리거나 죽은 이의 장사를 지내면서 우는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분석 이 설화는 이가 사람에게 들릴 만큼 큰소리로 울었다는 진술에 가까운 것으로 자아와 초자연적 세계의 대결이라는 서사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전면에 내세운 과장이나 허풍이 웃음을 자아낸다.

특징 이 설화처럼 미미한 생명체에 관심을 보이는 이야기들이 있다. 명절을 앞두고 빨래를 하자, 사람의 몸에 붙어 사는 이가 '시어머니가 나서니 씨도 못 건지겠다.' 또는 '며느리가 나서니 씨는 건지겠다.'라고 한탄하는 이야기도 미물의 관심에서 비롯된 이야기이다. 물론 가사 노동에서 고부(姑婦)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이지만, 바탕은 미물을 바라보는 관찰에 있다. 또한 이, 벼룩, 빈대, 모기들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도 미물에 대한 관심과 관찰에서 비롯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의의 터무니없고 엉터리로 전개되지만, 보잘 것 없이 작은 생명에 관심을 보이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사람의 몸에 붙어 피를 빠는 귀찮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 역시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자 한 설화 향유층의 삶에 대한 여유가 드러난다. 확장해 살펴보면, 일찍이 이규보의 〈슬견설(蝨犬說)〉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생명존중이라는 의식이 투영된 것이다. 이런 인식은 이가 사람처럼 죽은 이의 장사를 지내며 슬퍼하는 대목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3, 149; 150.

참고문헌 증보개정판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2006), 한글개정판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유형동(俞亨東)

전설

이이

李珥

정의 조선 중기의 학자·정치가인 율곡 이이(1536~1584)에 관한 전설.

역사 조선시대에 한문으로 기록한 각종 문헌설화집들에는 율곡에 관한 설화가 근 30편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율곡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없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만 있다. 이에 반하여 1980년대에 전승 현장에서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율곡에 관한 설화 54편이 실려 있는데 율곡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없고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만 있다.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이 율곡을 수태한 곳은 지금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판관터[判官垈]이다. 이를 기념하여 이곳에 봉산서재(蓬山書齋)를 지었다. 판관터라는 이름은 율곡의 부친 이원수(李元秀)가 수운판관(水運判官)을 지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율곡수태전설〉의 배경은 대부분 대관령과 강릉으로 설정되어 있다.

줄거리 조선 중종 때 어느 날 저녁, 한 선비가 강원도 대관령의 주막에서 행장을 풀었다. 한양에서 강릉으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대관령에 이르러 날이 어두워졌던 것이다. 밤이 되자 주막집 여인이 주안상을 차려서 선비의 방으로 들어와 오늘밤 선비를 모시겠다고 하였다. 선비의 정중한 거절에 여인은 무색하여 방을 나갔다. 며칠 후 저녁에 선비는 또 그 주막에서 유숙하였다. 이번에는 강릉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다. 선비가 밤에 여인을 불러 소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여인이 거절하였다. "싫습니다. 지난번에는 선비님 몸에 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부인을 보고 오셨겠지요." 그때 그 선비의 부인이 수태한 인물이 바로 율곡이다.

변이 신사임당의 〈율곡수태전설〉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기본 줄거리는 어느 지역이나 같다. 수태전설 외의 〈율곡전설〉들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려 있는 54편의 율곡전설 분포 상황은 경기도 4편, 강원도 15편, 충청도 10편, 전라도 13편, 경상도 11편, 제주도 1편이다.

분석 〈율곡수태전설〉을 포함하여 율곡이 어렸을 때 호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야기(나도밤나무전설), 어느 날 어느 시에 화석정에 불을 지르라는 유언을 남김으로써 임진왜란 때 선조의 몽진 길을 밝혀준 이야기, 신분이 미천한 학자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을 정중하게 대우한 이야기, 율곡과 퇴계의 부부 잠자리를 비교하는 이야기, 기생이 율곡·송강·서애를 다 겪고 나서 세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 각종 악귀를 퇴치하는 이야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전설에서 율곡은 선견지명이 있는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징 율곡을 다른 인물과 비교하는 전설에서 율곡은 본능을 억제하는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율곡이 각종 악귀를 퇴치하는 전설들은 이인설화에 율곡이 대입된 경우이다.

의의 위기를 미리 알아차리고 주도면밀한 대비책을 세워 실행하는 정신, 이것이 〈율곡전설〉의 존재 가치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5, 528; 2-1, 253; 2-9, 59; 8-14, 467; 9-2, 157.

참고문헌 선견지명의 성인, 율곡(전신재, 강원의 전설, 집문당, 2007), 율곡선생전(유자후, 동방문화사, 1947), 이율곡, 그 삶의 모습(황준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조선조문헌설화집요1·2(서대석, 집문당, 1991·1992).

필자 전신재(全信宰)

전설

이인·명사전설

異人·名士傳說

정의 뛰어난 예지력이나 학식, 인격을 지닌 인물들에 관한 전설.

역사 한국은 예로부터 문치(文治)를 중시하였으며 남다른 식견이나 인격을 지닌 학자와 선비를 존중해 왔다. 조정이나 초야에서 널리 활동한 인물들은 정사(正史)에 족적과 이름을 남기기도 했지만, 흥미롭고 기이한 많은 사연들이 야사나 전설의 형태로 전승되기도 했다. 그 연원은 무척 오래된 것이어서, 『삼국유사(三國遺事)』나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서 고승 외에 설총이나 강수 같은 명사(名士)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유교가 퍼지면서 명사에 얽힌 일화는 기록의 편폭(篇幅)이 넓어지며, 유교국가인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광범위한 확장이 이루어진다. 고려 후기의 『파한집(破閑集)』이나 『보한집(補閑集)』, 조선 전기의 『용재총화(慵齋叢話)』나 『패관잡기(稗官雜記)』 같은 패설집에서 여러 이인(異人) 명사의 일화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 후기로 이어져서 패설류 저술 외에 여러 야담집에 이인과 명사에 얽힌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널리 실린다. 이인과 명사에 관한 전설은 민간에서도 폭넓게 구전되어 왔다. 주로 조선 중·후기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지만 정몽주나 원천석, 황희와 맹사성 같은 여말선초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도 폭넓게 전승되고 있어 관련 민간 전설의 역사적 연원이 무척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인과 명사에 관한 구비전설은 문헌전승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문헌기록과는 서사 맥락이나 의미구조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전승자의 세계관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변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이인·명사전설은 무(武)의 인물에 해당하는 영웅·장수전설과 짝이 되는 문(文)의 인물에 관한 전설을 통칭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학자와 선비, 문관 등에 얽힌 전설이 여기 해당하는데, 조정에서 활약한 인물 외에 관직에서 소외되었거나 초야에 묻혀 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도 많다. 이인이란 말 그대로 '남다른 사람'을 뜻한다. 특히 과거를 읽어내고 미래를 내다보며 인물을 꿰뚫어보는 등의 남다른 예지력을 가진 인물을 이인이라 칭해 왔다. 명사는 말 그대로 '뛰어난 선비'를 말하는데, 남다른 학식과 예지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인과 통하는 면이 있다. 탁월한 인격이나 업무 처리 능력 등을 보인 학자와 관리, 뛰어난 필력을 발휘한 문인 또한 명사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설화의 주인공이 된 이인이나 명사는 멀리 설총이나 강수로부터 개화기의 매천 황현 같은 인물에 이르기까지 그 편폭이 매우 넓다. 특히 조선 중·후기 인물에 대한 전설이 널리 전승되고 있다. 서경덕이나 이황, 이이, 이지함, 이항복, 송익필, 서기, 이산해, 허목, 송시열, 이서구, 이원익, 이준경, 채제공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전 시기의 인물로는 조선 전기의 정도전과 황희, 맹사성, 성삼문 같은 인물에 관한 전승이 활발하며, 고려 말의 우탁이나 정몽주나 원천석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다. 그리고 신라 말 고려 초 인물인 최치원도 전설의 중요한 주인공이다.

이인·명사전설은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이나 능력 등에 따라 두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신인에 가까운 놀라운 신통력이나 예지력을 보인 인물을 한데 묶을 수 있다. 고운 최치원이나 화담 서경덕, 토정 이지함, 구봉 송익필, 북창 정렴, 미수 허목, 강산 이서구 등이 여기 해당한다. 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능력이나 행동을 선보이곤 한다. 당대 최고 문인이었던 최치원은 금돼지 자손으로 신통력을 지닌 인물로 이야기된다. 대학자 서경덕은 술사 전우치를 능가하는 술법을 부린 것으로 전해진다. 『토정비결(土亭秘訣)』을 지은 이지함은 남다른 기행과 천기를 꿰뚫는 예지력으로 유명하며, 송익필은 이여송을 단번에 제압할 정도의 도력을 지녔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북창 정렴이나 미수 허목의 예지력도 신이한 수준에 이른 것이었으며, 천리안을 지녔다는 이서구는 신이한 둔갑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두 번째의 주요 유형으로는 남다른 인격과 문제해결력으로 일세를 풍미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데 묶을 수 있다. 미천한 출신의 정치 지략가였던 삼봉 정도전, 넓은 도량을 지닌 관리로 이야기되는 방촌 황희와 고불 맹사성, 당대의 대학자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명재상 백사 이항복과 서애 류성룡, 오리 이원익, 정의로운 문제 해결자 박문수와 고유 등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절개를 지킨 충신 정몽주나 성삼문, 김상헌 등도 이 유형에 포괄할 수 있다. 그 밖의 유형으로는 문필이나 기예에 뛰어났던 김병연이나 정기룡, 양사언 같은 인물을 한데 묶을 수 있다. 이 여러 인물에 관한 구비전설은 지난날 지식인들의 다양한 형상과 능력을 서사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민중들이 문인 지식인이나 양반관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 준다.

특징 이인·명사전설은 인간이 지닌 다양한 지적·정신적 능력을 대변하는 이야기로서 특징을 지닌다. 통념을 깨는 설정 속에서, 과연 인간이 지적으로 얼마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인격적으로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는가가 주요 화두로 부각된다. 사람들이 이야기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겠으나, 인간의 크나큰 정신적 가능성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설화들은 육체적·물리적 능력을 대변하는 영웅·장수전설과 짝을 이루는 가운데 인간과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설화들은 일반 민중들이 지식인이나 양반관리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태도를 기대했는지를 보여 준다고 하는 의의를 지니기도 한다.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과 넓은 포용력, 민중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등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이인·명사전설〉은 영웅·장수전설과 더불어 인물전설의 주요 영역을 이루는 가운데 인간과 세상, 나아가 역사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폭넓게 담아낸다는 데서 기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다수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각 지역에 전승되면서 과거의 삶을 되새기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개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신동흔, 집문당, 1993),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인물전설의 현실인식(홍태한, 민속원, 2000).

필자 신동흔(申東昕)

전설

이재수

李在守

정의 제주 민중과 함께 봉기한 이재수와 관련된 인물전설.

역사 1901년(신축년) 왕실에서 파견한 봉세관과 그 위세에 편승한 신부 및 천주교도들의 횡포에 맞선 이재수의 역사적 사건을 설화화한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중의 입장에서 구술된 것이 가장 많고 관의 입장과 천주교도의 입장에서 구술된 것도 있다. 1960년대까지는 장두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의 삼의사(三義士)를 강조하던 추세에서 점점 이재수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줄거리 성교(聖敎, 천주교)에 든 도둑놈과 깡패의 패악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자 오대현과 강우복이 장수로 나서서 난을 일으킨다. 성교꾼들에게 장수가 사로잡히고 수세에 몰리자 이때 이재수가 나선다. 이재수가 포수를 대동하여 성을 둘러싸니 성교꾼들은 성 안에서 버티는데, 식량이 떨어져 죽게 되자 성 안의 여자들이 문을 열어 준다. 이재수는 성 안에 들어가 성교꾼 수백 명을 칼로 도륙하고 권세를 휘둘러 백성을 못 살게 군 양반도 잡아다 죽였다. 나라에서는 허가 없이 싸웠다고 이재수를 잡아 갔고, 외세(프랑스)가 두려워 할 수 없이 이재수를 죽였다.

분석 봉세관과 결탁한 천주교도들이 관의 권위를 무시하여 관권마저 상실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정군수가 상무사를 결성하여 봉세관과 천주교도에 저항했고, 이 저항은 민중항쟁으로 이어진다. 〈이재수설화〉는 민중의 입장에서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든 내용이다. 천주교도에 의해 관권 훼손, 토지와 조세의 수탈, 금전 탈취, 토속신앙 배격과 입교 강요 등 교폐가 본격화되고, 불량배와 범죄자들이 입교하여 횡포가 심해지자 이재수를 비롯한 민중들이 이에 항거하는 내용이다. 이재수 누이의 간청으로 저술된 조무빈의 『이재수실기』도 역사와 설화의 바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 속성과 허구 지향의 소설적 속성, 양면을 지닌다.

특징 서양, 기독교 세력의 진출과 왕실의 지나친 수탈에 항거하는 반외세·반봉건의 민중항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두 이재수의 영웅화가 두드러진다. 이재수는 민중영웅전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죽음을 맞는다. 이재수의 신분은 관노이며 마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설화에서도 마부, 하인, 사령, 심부름꾼, 천민, 마부, 통인 등으로 지칭된다.

의의 100여 년 전 역사적 사실의 설화화이다. 이 설화와 관련해 현기영의 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가 창작되었고, 박광수 감독에 의해 〈이재수의 난〉이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출처 三郡敎弊査實成册, 續陰晴史, 남국의 민담(진성기, 형설출판사, 1982), 이재수실기(조무빈, 中島文華堂, 1932), 제주설화집성(김영돈 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9-2, 116; 9-3, 361; 612.

참고문헌 설화·전·소설에 수용된 제주 민중항쟁과 이재수(허남춘, 반교어문연구 14, 반교어문학회, 2002), 한국사19(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81).

필자 허남춘(許南春)

전설

이준경

李浚慶

정의 동고(東皐)이준경(李浚慶, 1499~1572)이 지인지감(知人之鑑)으로 사람을 얻어 그의 후손이 임진왜란에서 화를 입지 않았다는 전설.

역사 이 이야기는 이준경의 일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준경은 동인과 서인의 붕당을 예고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즉 그가 동서붕당을 예언했지만,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와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은 무시했다. 그렇지만 결국 동서붕당이 현실화되었다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때문에 그를 예언가의 면모를 갖춘 인물로 형상화한 이야기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준경이 임진왜란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그린 이 이야기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기문총화(紀聞叢話)』를 비롯한 여러 야담집과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전설

이지란

李之蘭

표제어 퉁두란

전설

이지함

李之菡

정의 『토정비결(土亭秘訣)』의 저자 이지함의 예언, 애민(愛民), 신술(神術)에 관한 인물전설.

역사 〈이지함(토정) 전설〉은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한 각종 구비설화집과 『어우야담(於于野談)』을 필두로 한 조선시대 문헌설화집 그리고 『토정집(土亭集)』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고소설 〈임진록(壬辰錄)〉과 현대 소설 〈소설 토정비결〉과도 관련성이 엿보인다. 〈임진록〉에서 이지함은 조선의 형편을 정탐하러 온 왜장(倭將) 평의지를 혼계하고 또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있다. 〈소설 토정비결〉은 토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작품이다.

줄거리 이지함은 젊어서 서화담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런데 서화담 집 종의 아내가 이지함을 사모하여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이지함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종의 아내를 이지함이 지팡이로 때려 내쫓자, 이를 숨어서 엿보던 종이 감동하여 그 사실을 화담에게 알렸다. 화담이 다음 날 이지함을 불러, 이미 공부가 끝났으니 가고 싶은 대로 가되 항상 군자 됨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지함이 강원도에서 원님 노릇을 할 때였다. 나라에서 멧돼지를 잡아 바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이지함은 사람으로 둔갑하는 호랑이에게 멧돼지를 산 채로 잡아오라고 하고 호랑이와 함께 임금에게 갔다. 임금이 이지함에게 멧돼지를 어떻게 산 채로 잡았느냐고 묻자, 이지함은 호랑이를 시켜서 잡았다고 하며,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깜짝 놀란 임금이 그 후로 멧돼지를 잡아 올리는 일을 그만두게 하여, 백성들이 멧돼지 잡는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이지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남의 밥을 얻어먹어야 연명할 팔자로, 만약 부자가 되면 단명할 관상이었다. 그래서 이지함은 딸을 거지와 혼인시켰지만, 딸이 구걸하는 것이 마음 아팠다. 그래서 『토정비결』을

변이 이 이야기의 변이 폭은 거의 없다. 극히 일부에서는 청지기의 사위가 아니라 이준경의 사위로 나오기도 한다.

분석 이준경의 두드러진 하나의 행적이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형성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인물이 어떻게 신성시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대한 흥미로운 해석의 가능성도 열어 둔다.

의의 지인지감 화소(話素)와 전란 화소가 결합한 유형의 이야기로, 이 방면에 흥미로운 전개 양상을 보인다.

출처 紀聞叢話,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726.

참고문헌 국역 기문총화(김동욱, 아세아문화사, 1999),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필자 김준형(金埈亨)

줄거리 이준경의 집에 피씨(皮氏) 성을 가진 청지기가 살았다. 청지기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준경에게 사위를 골라 줄 것을 부탁한다. 이준경은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청지기에게 남대문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사위로 삼으라고 한다. 청지기가 나가 보니, 이준경이 지목한 사람은 형편없는 몰골을 한 총각이었다. 그러나 감히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그를 사위로 맞이한다. 사위는 만날 잠만 자며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경이 그 사위에게 와서 아주 간곡하게 자신의 자식을 부탁한다. 이준경은 죽으면서, 어떤 일이든 사위의 말을 따르라고 유언한다. 이후 사위는 사업을 하겠다며 청지기와 이준경의 자손에게 돈을 요구한다. 돈은 순식간에 증발한다. 사위가 매번 그렇게 요구하는 동안 청지기와 이준경 자손의 가산이 모두 탕진된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는 사람들에게 창피하니 모두 산으로 이사를 하자고 한다. 청지기와 자손이 그를 따라가니, 거기에는 호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3년을 안락하게 지낸다. 어느 날 이준경의 자손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사위가 그를 이끌고 산 위에 올라가 도성을 가리킨다. 도성은 임진왜란으로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자손은 그제야 모든 일을 알고 그곳에서 몇 년을 더 지내다가 전쟁이 끝난 후 돌아가고, 피 씨 가족은 계속 머문다.

지어 딸에게 주고 점을 치며 살게 했다. 그런데 딸의 점이 백발백중으로 들어맞아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딸에게 『토정비결』을 다시 가져 오게 한 뒤 중간 중간을 틀리게 고쳐 놓았다. 그래서 지금도 『토정비결』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하루는 이지함이 아전과 함께 산에 올라 금단지를 보여 주었다. 아전이 이지함에게 금덩이 하나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지함은 아직 운이 닿지 않았다며 아전의 부탁을 거절했다. 앙심을 품은 아전은 이지함이 생지네즙을 먹은 뒤 먹는 생밤 대신 버드나무를 깎아 주었다. 그 때문에 지네 독을 제거하지 못한 이지함은 끝내 죽음을 맞게 된다.

분석 전설에서 이지함은 예지력을 지닌 사람, 신술을 부리는 사람, 애민정신이 깊은 사람, 검소하며 절제력이 강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여기에 내재된 민중 의식은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이인(異人) 출현에 대한 기대이다. 이야기 속 이지함은 신통한 능력으로 자신이 처한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해일(海溢),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의 큰 재난을 예견하는 비범한 능력을 보인다. 이것은 자신들이 처한 크고 작은 시련을 극복하게 해 줄 이인의 출현을 기대하는 민중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는 올바른 목민관(牧民官) 출현에 대한 기대이다. 이지함은 포천현감, 아산현감으로 부임한 뒤 진정한 목민관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대표적으로 걸인청(乞人廳)을 두고 유랑민이나 걸인을 보살피면서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였다.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는 지방의 관장(官長)에게 시달리던 민중은 자신들의 구체적 열망을 전설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다.

셋째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다. 이지함은 야인(野人)으로 있을 때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며, 관직에 오른 뒤에도 검소한 생활을 지속했다. 포천현감 때도 낡은 옷에 짚신을 신고, 잡곡밥과 나물 한 가지만을 먹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지함전설〉에는 검소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강조하는 민중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는 반대로 호사스럽고 방탕한 생활에 빠진 당시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넷째는 운명론에 대한 민중의 상반된 인식이다. 우선 운명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난다. 전설에서 이지함은 풍수지리에 능통하고, 신술을 부릴 줄 아는 이인이지만, 결코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지함은 자신의 운명대로 가난하게 살았고, 자녀들의 출세도 도모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주어진 운명은 함부로 거스를 수 없다는 민중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운명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나타난다. 이는 〈토정과 소금장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하찮은 장사꾼보다도 못한 예지력을 가진 이지함의 모습을 보여 줘 운명론의 대가인 그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운명론에 대한 민중의 부정적 인식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징 이 전설에서 이지함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하나의 독자적 유형을 이루고 있다. 아전의 흉계로 지네 독을 제거하지 못해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핵심인 서사구조이다. 이러한 전설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을 중심으로 전승되는데, 이를 통해 전설의 형성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사회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 아산은 아전 계층의 세력이 드세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런 배경은 실제 악성 이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지함의 사망 원인을 아전들의 흉계로 형상화하는 근본 동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지함의 죽음과 관련한 전설은 당시 사회 계층 사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민중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막연하게 논의되는 전설에 투영된 민중 의식의 실체를 역사 사실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물전설의 초기 형상화 과정과 이후 대중의 공감에 의한 전설의 증폭화 과정을 추론하는 데도 매우 용이하다.

의의 이지함은 삶 자체가 전설적 비범함을 지닌 인물이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과정이 신비화되어 있다. 이러한 바탕에는 주로 실패한 영웅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전설의 비극성이 숨어 있다. 〈이지함전설〉은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 시작되던 시기에 출발하 실학이 확산되고 풍수와 점복이 성행하던 시기에 변화의 폭이 커진 이야기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또 실존 인물전설에 투영된 사회사적 의미와 민중 의식 그리고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전설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출처 金溪筆談, 於于野談, 靑丘野談, 土亭集,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270.

참고문헌 아전의 흉계로 죽은 토정전설 연구(황인덕, 충청문화연구3,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9), 이토정전설 연구(여운필, 수련어문논집13, 수련어문학회, 1986), 토정 이지함설화 연구(최운식, 한국민속학33, 한국민속학회, 2001).

필자 오세길(吳世吉)

전설

이차돈

異次頓

정의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한 이차돈 관련 설화.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이차돈이 포교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차돈은 어려서부터 곧은 성질을 드러내고 거울처럼 맑은 뜻을 품었으며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그가 순교한 나이는 22세(또는 26세)라는 설이 있다.

줄거리 신라 법흥왕은 528년에 불법을 처음으로 공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신하와 백성 모두 불교를 믿지 않고 반대하므로 법흥왕은 불교의 공인을 주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이차돈은 왕의 뜻을 눈치채고 "나라를 위해 몸을 없애는 것은 신하의 절의요,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의 곧은 의리입니다. 거짓으로 왕명을 전한 죄를 씌워서 신의 머리를 베신다면 만백성이 굴복하여 감히 왕의 명을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은 이를 반대하며 "네가 비록 공덕을 지을지라도 죄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차돈은 다시 "버리기 어려운 것이 목숨이나 소신이 저녁에 죽음으로써 대도(大道)가 아침에 행해진다면 불일(佛日, 부처의 세월)이 다시 중천에 오르고 임금님께서 길이 편안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두 사람이 이심전심으로 뜻을 헤아린 후,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 신하가 불교의 공인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차돈은 홀로 나서서 왕에게 "대개 비상한 사람이 있은 연후에 비상한 일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듣건대 불교는 그 뜻이 깊다 하오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왕은 처음 약속한 대로 이차돈의 목을 베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차돈은 "내가 불교를 위하여 형을 받으니, 만일 불교에 신령함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 반드시 기이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이차돈의 목을 치니 젖과 같이 흰 피가 솟아오르고 머리는 금강산(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소금강산)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이때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며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의 머리가 날아간 곳에 자추사(刺楸寺)라는 절을 지었다.

분석 민간에 전하는 설화에는 이차돈이 천경림(天鏡林)에 절을 세우는데 왕명을 받들어 짓는다고 소문이 났다. 이에 신하들이 왕에게 따져 물으니, 왕은 거짓 왕명을 사칭한 이차돈을 불러 목을 베게 했다는 변이형도 있다. 이러한 일을 겪은 신하들은 무서워서 더는 불교를 공인하려는 왕명을 거스르지 못했다. 이차돈이 순교한 뒤 법흥왕은 대흥륜사(大興輪寺)를 세웠고, 기일에 많은 사람이 모여 이차돈을 추모하였다. 뒷날 국통(國統)이 된 승려들이 이차돈의 무덤을 여러 차례 수축하고 큰 비를 세웠다. 소금강산 백률사지에서 이차돈 순교 모습을 조각한 6면 석당(石幢)이 발굴되었다.

의의 이 설화는 불교의 이적을 보여 주는 영험설화이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 불교를 처음 공인할 때의 시대상을 알 수 있다.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한 뒤 왕위를 진흥왕에게 물려 주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될 만큼 불교의 유입에 적극적이었다. 〈이차돈설화〉는 불법(佛法)을 일으키려는 법흥왕의 의중과 더불어 왕명을 거역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가를 보여 줌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海東高僧傳.

참고문헌 불교이야기1(김용덕, 창작과비평사, 1985), 조선불교통사(이능화,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한국금석문대계3(조동원, 원광대학교출판국, 1983).

필자 김용덕(金容德)

전설

이태원

梨泰院, 異胎院

정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이라는 마을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

줄거리 임진왜란이 일어나 일본군이 서울로 쳐들어왔을 때의 일이다. 당시에는 지금의 이태원 황학골이란 곳에 비구니들이 거주하는 운종사(雲鐘寺)라는 절이 있었다.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는 부하들을 이끌고 이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들을 탈취하여 얼마 동안 머무르며 지내다가, 이곳을 떠나며 그 절을 불태워 버렸다. 그때 왜장들과 관계를 가졌던 비구니들은 갈 데가 없어 융경산(隆景山) 부군당 밑에 토막을 짓고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이를 알고 그곳을 이태(異胎)가 있는 집이라고 하였고, 그 일대를 이태원(異胎院)이라 부르게 되었다.

분석 이태원에 대한 지명유래담은 어떤 한자로 마을 명칭을 표기하느냐에 따른 민간어원적인 설명이 특징이다. 위에서 언급된 이태원(異胎院)의 전설과 유사한 내용이 『동국여지비

고(東國輿地備攷)』에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항복한 왜군들이 귀화해서 이곳에 살았는데, 그들을 '이타인(異他人)'이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마을 명칭이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한자를 이태원(梨泰院)이라고 하는 경우의 전설은 어떤 이가 이곳에 배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배 농사가 잘 되었으므로 마을 이름에 '배 이(梨)' 자가 쓰였다는 것이다.

특징 조선시대 이곳에는 역원(驛院)이 위치해 있었고, 인접해 있는 용산과 서빙고는 한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물류가 활발히 유통되던 주요 포구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이 일대는 한양으로 통하는 주요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용산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주둔지가 되었고, 광복 이후 미군의 주둔지로 이용되면서, 이태원에는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의 집단 거주지이자 외국문화의 집결지로서 이태원의 모습은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이태원은 현재도 외국인들로 붐비는 곳이고, 이들을 위한 호텔, 음식점,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의 진위를 떠나 '이태(異胎)', '이타인(異他人)'이 사는 지역이라는 전설의 내용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이태원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흥미롭다.

출처 東國輿地備攷,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서울(문화공보부, 1979).

참고문헌 서울사회(박경룡, 정음문화사, 1986), 서울 육백년사-민속(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95), 용산구지(용산구, 1992).

필자 김준기(金俊基)

전설

이항복

李恒福

정의 조선 중기의 명신 백사 이항복(1556~1618)의 행적에 얽힌 설화

역사 이항복은 조선 선조부터 광해군 시기 역사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 명신으로, 생존 당시부터 많은 이야기를 남긴 인물이다. 여러 문헌에 그의 뛰어난 지략과 재담에 관한 일화들이 실려 있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고 임금에게 직언하다 귀양을 가서 세상을 뜬 행적 때문인지, 이항복은 백성에게도 큰 지지를 얻어 그를 주인공으로 한 수많은 구비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설화 가운데는 그의 능력이나 행적과 관련되는 전설적인 이야기와 유쾌한 장난꾼 캐릭터를 반영한 민담적인 이야기가 공존한다.

줄거리 이항복 전승 가운데 '오성의 장난'이라 할 만한 희극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 인물전설의 성격을 띠는 구비설화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항복은 어릴 적부터 재주와 기상이 비범했다. 그는 한음과 어울려 다니면서 짓궂은 장난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다. 어느 날 그가 고명한 양반들이 모인 자리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자 다들 화를 냈는데 이율곡이 나서서 감싸면서 뒷날 그가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항복은 재주와 기지가 뛰어났지만 나이가 들도록 과거에서 자꾸 낙방했는데 원귀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를 사모해 찾아갔던 여인이 회초리를 맞고 자살한 뒤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이항복이 한 여인을 해친 중을 징치하자 그 여인의 혼령이 이항복을 괴롭히던 원귀를 쫓아내 주었다고 한다. 이항복은 귀신을 볼 수 있어서, 어떤 혼례식을 귀신들이 방해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서 막아 주었다고도 한다. 어떤 삼대독자가 죽을병에 걸렸을 적에 이항복이 그 옆에 가서 지켜 주자 저승사자들이 아이를 못 잡아가고 다른 사람을 데려갔다고도 한다. 그 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임금은 이항복을 시켜 중국 군대를 청해 오게 했다. 이항복이 이여송을 청해 오는데 압록강에 이르자 강을 건너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이에 이항복이 조선 지도를 내주자 이여송이 조선에 인물이 있다면서 감탄했다. 이여송은 선조를 보더니 임금이 군왕의 상이 아니라며 전쟁에 나서지 않으려 했다. 이에 이항복이 임금으로 하여금 항아리 속에 들어가 울음을 울게 하자 그 소리를 들은 이여송이 용의 소리라며 탄복했다. 다시 이여송은 자기한테 용의 간과 소상반죽(瀟湘斑竹) 젓가락을 바치라 요구했다. 이항복이 바닷가에서 축문을 올리자 용이 나와 죽어서 그 간을 바쳤으며, 한 백성한테서 소상반죽을 구해서 전해 주었다고 한다. 이항복은 이렇게 나라에 큰 공이 있음에도 뒷날 당파에 몰려 귀양을 가서 죽었다.

변이 이항복이 한음 이덕형과 함께했던 어릴 적 일화들은 허구적인 희극담 요소가 많아서 전설적인 이야기와 성격이 좀 다르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도 이항복의 기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이항복이 도깨비와의 수수께끼 시합에서 승리했다든가, 한음과 함께 전염병에 걸린 시체를 치워 주었다든가, 대장장이의 못을 훔쳐서 모아 두었다가 되돌려 주어 살림을 일으켰다는 이야기 등이 그러하다. 한편, 이항복에 관한 일화나 전설적인 전승은 문헌설화에도 무척 많다. 문헌설화 속 이항복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충신이면서 남다른 기지와 언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웃긴 인물로 등장한다. 그의 재담과 해학은 사람들의 체면이나 가식을 벗겨 내면서도 조소(嘲笑)가 아닌 유쾌한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 정리한 내용 중 이항복이 이여송을 맞이한 내용은 서애 류성룡이나 겸암 류운룡, 동고 이경준 등이 그리했다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분석 〈이항복설화〉는 구전과 문헌으로 매우 다양한 이야기가 전승돼 왔다. 세간에는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름의 희극적인 설화가 많이 알려졌지만, 귀신을 제어할 정도의 이인적 능력과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지략과 기지에 관한 전설적인 사연도 폭넓게 전승돼 왔다. 이항복은 설화 속 충신 명관의 전형인 인물로, 거침없는 행동력과 기지, 유쾌함, 강직함이 캐릭터의 주요 요소를 이루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구전과 문헌에 걸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사례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항복이 특유의 인격과 친화력으로 세상 사람의 폭넓은 신망을 얻었던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설화 속의 이항복을 통해 지배층과 민중에게 두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인물유형의 대표적 사례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그것은 능력이나 덕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설화 속의 이항복이 경직된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한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요소에 공감한 것이 역사 속 행적을 포함한 이항복의 형상을 긍정적으로 부각한 힘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징 박문수나 숙종 대왕 관련 설화가 구비전승에 집중되는 데 비하여 〈이항복설화〉는 구전과 문헌에 폭넓게 걸쳐 있다. 이항복이라는 특정 개인에 얽힌 전설적인 이야기와 오성이라는 장난꾼 캐릭터에 얽힌 민담적인 이야기가 각각 큰 전승력을 지닌 채 공존하는 것도 주목되는 특징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다양한 편폭의 이야기가 별개로 흩어지지 않고 '오성대감 이항복'이라는 캐릭터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캐릭터의 넓은 편폭과 포용성은 〈이항복설화〉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의의 이항복은 한국 설화의 대표적인 인물 캐릭터 가운데 하나로 문학적 매력 요소가 매우 많다. 개구쟁이 소년에서 나라를 구한 최고 충신으로 이어지는 서사적 비약은 널리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책이나 만화, 소설들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캐릭터와 서사가 또 다른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변용될 가능성은 아직도 널리 열려 있다.

출처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자료(신동흔, 집문당,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3, 336.

참고문헌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신동흔, 집문당, 2002), 오성과 한음(김현룡, 철학과현실사, 2002), 이항복 이야기의 전승 동력과 기원(이승수, 한국어문학연구5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필자 신동흔(申東昕)

전설

이황

李滉

정의 구전되거나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지는 이황 관련 전설.

줄거리 이황의 외할아버지가 선행을 베풀고 얻은 산실에서 태어났기에 이황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거나, 조상 묘를 명당에 쓴 덕분에 이황이 훌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황과 관련한 이야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해진다. 이웃집 밤나무가 가지를 뻗어 담을 넘어와 이황의 뜰에 밤이 떨어지면 주워 다시 던져 주었다. 과부가 된 큰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 재가하게 하였고, 재가한 며느리를 계속 만났다. 한편, 이황은 무더운 여름날 도산서당을 찾아온 두 젊은이 가운데 꼿꼿한 자세를 흩트리지 않고 엄숙하게 앉아 있는 정인홍(鄭仁弘)은 받아주지 않고, 선생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자마자 도포를 벗고 땀을 닦으며 우물가에서 웃통까지 벗은 채 시시덕거리고 있는 정구(鄭逑)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제사상의 곶감을 달라 하고 찢어진 흰색 두루마기를 깁는데 빨간색 헝겊을 대었을 정도로 바보에 가까운 부인을 이황은 박대하지 않았다. 바보 부인은 은밀한 부부 사이의 일도 남에게 숨김없이 말했는데, 퇴계는 낮에는 점잖은 도학자이지만 밤에는 토끼처럼 자주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자가 되었다. 이황이 단양군수로 있을 때는 기생 두향(혹은 권부향, 매향)의 사모를 받았고, 이황이 옮겨 가게 되자 두향은 순절하였다. 이황은 개고기를 먹은 상주를 변호해 주기도 했다. 피눈물을 흘려 몸이 쇠약해진 것을 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황은 종의 아들인 그 상주를 문인으로 받아 주었다. 즉, 사람마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통념을 거부하였고,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신분의 굴레를 벗겨 준 것이다. 이황은 도술을 부리고 신통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여, 요귀에게 홀린 제자를 구하고, 조카의 수명을 연장해 주며, 9대 자손의 위기를 예견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 강렬한 눈빛으로 나무 위에서 아이를 떨어지게 하고, 여우의 구슬을 삼켜 축지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분석 이황에 대한 설화는 그가 널리 알려진 학자이기에 전설보다는 일화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외조부나 조월천 같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할 때는 기이한 모티프가 나오

기도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가능한 한 넣지 않았다. 유학자로서의 이황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널리 퍼졌기에 기이한 상상력의 개입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황은 벼슬살이에 회의를 느끼고 낙향하여 도산서당을 세워 독서와 수양, 저술에 전념하면서 많은 제자를 이끌었다. 이렇게 학문과 인품에서 완성된 경지를 이룬 이황이 설화의 세계에서는 좀 엉뚱한 인물로 소개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황의 학문과 인격에 흠을 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칫 메마를 수 있는 학자의 인품과 일상을 인간적으로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퇴계 이황은 민중의 상상 속에서 그 어떤 주인공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그들을 대신하여 통쾌하게 활약하는 '학자 영웅'이다.

의의 설화 속 퇴계는 지식인의 사상적 스승일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민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변자요 구원자이다. 퇴계의 인품과 덕행이 설화에서 이러한 퇴계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0, 148; 7-11, 283; 7-13, 72; 453; 7-17, 95, 퇴계선생일화자료선1~9(강재철·홍성남, 퇴계학연구13~22,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1~2008), 퇴계선생일화자료선10(강재철·홍성남, 동양학4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참고문헌 조선시대일화연구(이강옥, 태학사, 1998), 퇴계선생설화(강재철·홍성남·최인학, Nosvos, 2011).

필자 이강옥(李康沃)

용어

인문전설

人文傳說

정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성립하고 성장한 이야기로서, 역사적인 인물이나 인공물이라는 증거를 근거로 하여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내력을 설명하는 이야기.

내용 인문전설은 역사적 사실과 축적된 생활방식에서 비롯되거나 민간신앙을 기초로 하는 내용이 많다. 따라서 인문전설은 이야기로 만들어진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다양하다. 그 대상은 크게 인물, 인간행위, 인공물 등으로 나뉘고, 인공물은 다시 유적과 유물로 나뉜다. 인물전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 강조된 전설로서 이인, 영웅, 장수, 명인, 고승, 효자, 열녀전설 등이 있다. 인간행위와 관계된 전설로는 과거, 풍수, 수업, 괴탄, 점복, 기로(耆老), 힘내기, 인신공양, 전란, 종교적인 수행담류나 영험담류를 포함한 신앙행위 전설이 있다. 유적과 관계된 전설은 가옥, 정문, 비석, 사원, 석탑, 석상, 성지, 역원, 교량, 총묘, 인공물축조 등이 강조된 전설이다. 유물과 관계된 전설은 의복, 음식, 기구 등이 강조된 전설이다.

필자 표인주(表仁柱)

용어

인물전설

人物傳說

정의 역사상 실재했다고 인정되는 인물에 대한 전설.

내용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을 통해 사실성(事實性)을 강조하며 전승되는데, 자연물이나 인공물 같은 구체적 대상 대신 인물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인물전설이다. 특정 인물이 역사상 실재하여 활동했다는 사실이 사람들한테 인지되고 그가 남긴 족적이 널리 알려져 있을 때 별도의 증거물 없이 전설이 성립된다. 이를 인물전설이라 한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장수나 학자, 고승, 예인 등이 인물전설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인물전설은 자연전설이나 인문전설에 비해 전승 범위가 넓은 편이어서, 김덕령, 이여송, 이토정, 황희, 사명당 등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전승되는 인물도 많다. 인물전설은 지역적 증거물과 긴밀히 결합되지 않기에 자연전설 등에 비해 전설적 정체성은 약한 편이며, 서사가 흥미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민담적 변이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항복이나 박문수 같은 인물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과 민담에 두루 걸치는 양상을 보인다. 단, 인물이 출생하고 성장하거나 활동한 연고지에서는 지역적 증거물과 결부되어 전설적 정체성과 생명력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이 보통이다.

필자 신동흔(申東昕)

민담

인불구 유래

人不救 由來

상호참조 목도령과 대홍수

정의 생명을 구해 준 사람에게 짐승은 보은하지만 인간은 배신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2세기에 한역된 『육도집경(六度集經)』과 6세기에 간행된 중국의 불교설화집 『경율이상(經律異相)』에 〈인불구(人不救)설화〉가 전한다. 불전설화로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오랫동안 전승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홍수 유형이 주로 구전되었다.

줄거리 강가에 있던 한 노인이 장마가 지자 물에 떠내려 온 사슴과 구렁이, 사내를 구해 주었다. 사슴과 구렁이는 땅에 풀어 주었고, 사내는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거두었다. 어느 날 사슴이 나타나 금(돈)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노인은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사내는 돈에 욕심이 나서 자신을 구해 준 노인을 도둑으로 몰아 관아에 고발하였다. 관에서는 짐승의 보은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노인은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구렁이가 일부러 고을 원을 물어 다치게 하고, 노인에게 약과 처방을 알려주었다. 노인이 원을 치료하자 신뢰를 얻게 되어 원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그리고 고을 원이 사내를 심문하여 모든 진상이 밝혀졌다. 노인은 방면되고 모함한 사내는 벌을 받았다.

변이 각편에 따라 등장하는 짐승이 호랑이, 노루, 고양이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홍수에서 구조된 사람이 어린 사내아이거나 장성한 남성이기도 하다. 구조된 인물이 양자가 되거나, 머슴이 되는 예도 있다. 주인공이 치료해서 낫게 한 인물은 고을 원이거나 원의 딸 혹은 왕의 딸인 예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시혜와 보은이라는 관계의 윤리를 보여 준다. 보은은 동물조차도 지키는 보편적 윤리이자 의무이다. 또한 이 설화는 인간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 주는데, 인간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은을 하는 악한 존재이다.

특징 한국의 설화에서 동물들은 수혜자가 되면 반드시 시혜자 인간에게 보답을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배은 행위가 특징이다. 동물은 구하되 인간을 구하지 말라는 교훈은 〈목도령과 대홍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의의 이 설화는 동물을 통해 인간과 인간세계를 비판하고, 동물과 인간의 대비로 교훈을 준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인간과 동물의 비교는 고전소설이나 신소설의 우화소설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7, 227; 7-11, 51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21.

참고문헌 종을 울려 보은한 새 설화 연구(오세정, 우리말글39, 우리말글학회, 2007), 인불구 설화의 인·중·한 비교고찰(황인덕, 한국언어문학55, 한국언어문학회, 2005).

필자 오세정(吳世晶)

용어

인신공희

人身供犧

정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에게 인간이 숭배와 복종의 의미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내용 초월적 존재와 소통하기 위해 행하는 의례적 행위인 제의(祭儀)에서, 신 또는 신성한 존재에게 인간이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범세계적이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생산력이 쇠퇴한 세대의 왕을 제물로 바치거나, 산 사람의 심장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바치거나, 장례에서 산 사람을 시체와 함께 매장하는 등 다양한 인신공희(人身供犧)의 풍속이 있었음이 전해진다. 제물이 된 사람은 왕, 대리인 왕(가짜 왕), 처녀, 소년·소녀, 갓난아이, 노예 등 다양하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서 잘 드러나듯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는 양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는데, 이때 양은 인간 제물의 대체물이다. 여기에서 유래한 '희생양(scapegoat)'은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대신 희생하는 죄를 짓지 않은 존재를 모두 통칭하게 되었다. 한국의 설화에서는 뱀이나 지네와 같은 괴동물의 횡포를 막거나, 풍랑과 같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혹은 부모 봉양을 위한 효심의 발로로 인해 인신공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필자 오세정(吳世晶)

신화

일뤠또본풀이

정의 제주도 토산본향당에서 전승되는 당신화.

역사 남녀 신의 혼인과 식성 차이에 따른 별거를 기본 줄거리로 하는 것은 당신본풀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송당계 당신본풀이에서도 보인다. 일뤠또의 남편인 바람웃도(바람운님)가 송당계 당신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송당계 당신앙과 본풀이가 확산된 사례로 보기도 한다. 다만 토산에서는 여성신의 식성이 문제가 되고 일뤠또의 성격이 뚜렷하며 시앗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송당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정에서 일뤠또가 부상하는 양상을 뚜렷이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것은 본향신이 중심인 공동체 신앙에서 일뤠또가 중심인 개별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양상과 맥락을 함께 한다.

줄거리 신명옥본의 바람웃도는 아버지가 쇠운 죄 때문에 무쇠 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진다. 바람웃도는 요왕황제국에 들어가 말잣딸아기와 혼인한다. 그러나 음식을 많이 먹는 까닭에 모든 창고가 비어 가자 다시 무쇠 상자에 담겨 용왕에게 쫓겨난다. 제주도에 이르니 멀리서 어머니가 바람을 이용하여 콩에서 콩깍지를 벗겨 날리고 있었다. 주술로 콩깍지를 일부러 눈에 넣어 눈병이 나자 요왕황제국 말잣딸아기가 부채로 주술을 부려 눈병을 낫게 해 준다. 어머니는 그 보답으로 땅과 물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이때 큰부인 서당팟 일뤠중저가 시어머니가 시앗에게 땅과 물을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는지 살피려고 나선다. 그런데 도중에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시다가 돼지털이 코를 찌른다. 남편 바람웃도를 만나자 일뤠중저에게 부정하다며 야단친다. 사정을 말하였으나 오히려 괘씸하다며 마라도로 귀양 보낸다. 작은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부당하다며 직접 큰부인을 데리러 마라도로 가 보니 이미 일곱 아기를 낳아 데리고 있었다. 큰부인은 작은부인에게 아이를 맡겨 데려가게 하고 자신은 고동을 주워 먹으면서 바닷가로 간다. 작은부인이 토산에 다다라 아기들을 보니 일곱 중 하나가 없었다. 그래서 되돌아가 홀로 떨어져 울고 있는 아기를 데려온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아기를 돌보는 신이 된다. 한편, 안사인본은 송당신의 일곱째 아들로 15세 때 부모에게 불효한 탓에 무쇠 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진다. 요왕황제국에 이르러 작은딸과 혼인하였으나 먹성이 문제가 되어 다시 쫓겨나 제주도로 돌아온다. 일곱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안 소천국은 도망가다가 죽고 어머니는 눈병이 든다. 그러자 며느리가 주술 부채로 눈병을 낫게 해 주고 어머니의 명에 따라 토산으로 간다. 그런데 일곱째 아들은 오백장군 말잣딸아기를 첩으로 삼고 사냥을 다니며 집으로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요왕황제국 작은딸아기는 임신한 상태로 남편을 찾아 나선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시는데 돼지털이 코를 찔렀다. 그 털을 불에 그슬려 냄새를 맡았더니 마치 돼지고기를 먹은 듯하였다. 끝내 남편을 찾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이 부정하다고 마라도로 귀양보낸다. 오백장군 말잣딸아기가 이를 알고 직접 큰부인을 데리러 갔다. 가서 보니 아기를 일곱이나 낳아 데리고 있었다. 큰부인은 작은부인에게 아기를 맡겨 데려가게 하고 자신은 바닷가로 돌아간다. 작은부인이 집에 이르러 보니 아기 하나가 없었다. 되돌아가서 찾아보니 아기가 나뭇가지에 눈이 찔리고 띠에 쓸려 피부병이 심하였다. 당신에 죄를 지으면 온갖 허물을 주는 법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변이 신명옥본은 전후 맥락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신직 분담과 좌정 대목도 분명하지 않다. 일뤠또의 본풀이지만 내용상 주인공인 일뤠중저보다 바람웃도와 요왕황제국 말잣딸아기의 내력담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뤠중저와 요왕황제국 말잣딸아기가 다른 존재인 것은 어떻게 보아도 이상하다. 반면 안사인본은 비교적 정연한 맥락을 갖추었다. 안사인본은 〈송당본향당본풀이〉, 〈궤눼깃당본풀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토산본향당본풀이〉로 바꾸어 놓았다. 큰부인이 일뤠또인 것은 같으나, 신명옥본에서는 큰부인은 본래부터 서당팟 일뤠중저인 상태로 시작하고 따로 요왕황제국 말잣딸아기를 작은부인으로 삼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사인본에서는 요왕황제국 작은딸아기가 큰부인이고 나중에 첩으로 들인 것은 오백장군 말잣딸아기라고 하였다. 박생옥본과 강만원본도 안사인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요왕황제국 따님아기가 주술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임신한 상태로 돼지고기 금기를 어겨 귀양갔다가 일곱 아기를 낳았으니 여러모로 일뤠또의 성격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요왕황제국 맏잣딸아기가 일뤠또로 좌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작은부인은 누구이든 간에 큰 문제가 없다. 이처럼 〈일뤠또본풀이〉는 전승과정에서 혼란이 있으며 온전한 맥락을 갖춘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는 이야기가 비교적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분석 이 설화는 〈당신본풀이〉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일뤠또본풀이〉만 따로 논의해서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그간의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한계가 있어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하였다. 사실상 〈일뤠또본풀이〉는 〈토산본향당본풀이〉라고 해야 옳고 〈토산일뤳당본풀이〉라고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바람웃도라고 하는 본향신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앙이 전승되어 온 내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뤳당신앙이 부상하면서 본향신인 바람웃도는 잊히고 일뤠또가 부각된 것이다. 공동체신앙이 약화된 대신 개별적 성격이 강한 일뤳당신앙이 부상한 것은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양상을 함께 이해해야 〈일뤠또본풀이〉를 두루 이해할 수 있다.

특징 두 세대 이야기인 〈송당본향당본풀이〉가 한 세대의 이야기로 겹쳐진 형태이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나 보이는 오백장군 말잣딸아기가 등장하는 것도 새삼스럽지 않다. 여기에 당신앙의 변화 양상이 겹쳐 본풀이와 의례의 관련이 어긋나 전승자의 혼란을 낳고 연구자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

의의 〈일뤳당본풀이〉의 기원을 담고 있다. 전승과정에서 혼란이 있으나 일뤠또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설정된 사례여서 소중하다.

출처 남국의 무가(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제주도 무가(현용준·현승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참고문헌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강정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제주신당보고서-서귀포시권(제주특별자치도·전통문화연구소, 2009), 토신당본풀이 연구(김동섭,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필자 강정식(姜晶植)

전설

일식 월식

日蝕 月蝕

정의 일식과 월식이 암흑나라에서 온 불개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는 설화.

역사 1930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손진태의 『조선민담집』에 〈일식과 월식〉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1923년 함흥에서 채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1952년 런던에서 출간된 정인섭의 『한국의 설화(Folktales from korea)』에 실린 〈불개(The fire dogs)〉는 1912년 언양에서 채록한 것이라 하였으니, 그 채록 시기가 더 빠르다.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에도 1915년 순창에서 채록한 자료가 실려 있다. 따라서 이 설화는 1910년대에 이미 전국에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줄거리 『한국의 설화』에 실린 〈불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면, 옛날 하늘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막나라(암흑의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 임금은 나라가 어두운 것을 걱정하여, 백성들이 기르던 사나운 불개를 불러 해와 달을 훔쳐오라고 하였다. 이에 불개는 해를 입으로 물려고 했지만, 해가 너무 뜨거워 더는 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만 두고 돌아왔는데, 임금은 불개에게 화를 내고, 이번에는 더 사나운 불개를 보내어 달을 훔쳐 오게 하였다. 그러나 불개가 달을 물려고 하니, 달은 너무 차가워 입이 얼어버렸다. 여러 번 이빨로 물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되돌아왔다. 임금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불개를 종종 보냈지만, 항상 실패하였다. 불개들이 해와 달을 물 때 그 부분이 어둡게 보여, 일식과 월식은 가막나라에서 보낸 불개들 때문에 생긴다고 전해진다.

변이 채록본에 따라 암흑국(暗黑國), 암흑나라, 가막나라, 까막(까망)나라, 어둔 나라 등으로 나타나지만, 이 나라 임금이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걱정한다.'라는 내용은 공통이다. 더러는 '백성들이 캄캄해서 살기가 어려움'을 강조하기도 한다.

분석 불개는 '힘이 세고 사나운 개'를 말하는데, '털복숭이 개'로 설정된 채록본도 있다. 이 '털 많은 개'는 아마도 한국 토종견인 '삽사리'인 듯하다. 삽사리는 '귀신을 쫓는 개'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 왔는데,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 이 설화 속의 '불개의 도전'은 '암흑나라'의 임금에서 끊임없이 해방을 갈망하는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며, 광명과 희망을 염원하는 한국인의 우주적인 진취성을 반영한다.

의의 일식과 월식의 자연 현상을 암흑나라에서 온 불개들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는, 우주기원신화의 성격을 지닌다.

출처 조선민담집(손진태, 동경, 향토연구사, 1930), 한국의 설화(Folktales from korea)(정인섭, 최인학·강재철 역,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7, 138.

참고문헌 한국민담의 유형연구(최인학, 인하대출판부, 1994), 한일 전래동화 비교연구(심은정,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필자 이지영(李志映)

신화

일월노리푸념

삼본풀이 돈전풀이

정의 관북 지방 일월신제라는 무속굿에서 무당이 구송하는 일월신의 유래를 이야기한 무속신화.

역사 〈일월노리푸념〉은 1933년 평안북도 강계시에 사는 전명수 무격의 구연본을 손진태가 채록하여 『청구학총』 28호에

발표한 서사무가이다. 〈돈전풀이〉는 함흥에서 월남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강춘옥 무녀의 보유자료를 1965년 임석재와 장주근이 채록하여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관북지방무가)』에 수록한 자료이며, 〈궁상이굿〉은 김태곤이 1966년 함흥에서 월남한 이고분의 보유자료를 채록하여 『한국무가집』 3에 수록한 것이다.

줄거리 명월각시 해당금과 궁산선비는 말을 붙여 본 지 삼 년 만에 가난하게 혼례를 치른다. 궁산이는 명월각시가 너무 어여뻐 곁을 떠나지 못하여 아무것도 벌지 못해 굶게 된다. 명월각시는 궁산이에게 자기 화상을 그려 주며 화상을 가지고 가서 나무를 해 오라고 한다. 궁산이가 화상을 나무에 걸어 놓고 나무를 하는데 광풍이 불어 화상이 날아가 아랫녘 배 선비 집에 떨어진다. 배 선비는 명월각시가 미인인 것을 알고 생금 한 배를 싣고 궁산이에게 가서 내기 장기를 두자고 한다. 궁산이는 명월각시를 걸고 배 선비는 생금 한 배를 걸고 내기 장기를 두어 궁산이가 세 판을 진다. 명월각시를 빼앗기게 된 궁산이가 식음을 전폐하자 이 사연을 들은 명월각시는 계집종을 자기 대신 변장시켜 놓고 자기는 종으로 변장하여 헌 치마를 입고 한 다리를 절면서 물을 긷겠다고 한다. 배 선비는 명월각시가 종으로 변장한 것을 알고 물 긷는 종년을 달라고 한다. 배 선비가 명월각시를 데려가려 하자, 명월각시는 닷새 말미를 얻어 소를 잡아 포육을 떠서 궁산이 바지와 저고리에 솜처럼 넣어 두고 바늘 한 쌈과 명주실 한 꾸러미를 옷 속에 넣어 놓는다. 명월각시는 배 선비에게 부탁하여 궁산이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한 섬에 내려놓는다. 궁산이는 섬에서 옷 속의 포육을 먹고 바늘로 낚시를 만들어 고기를 낚아 먹으며 산다. 섬에는 새끼 학이 있었는데 어미 학이 하늘로 올라간 동안 궁산이가 물고기를 낚아 돌본다. 어미 학이 내려와 보고 새끼를 살린 궁산이를 업어다가 육지에 내려놓는다. 명월각시가 배 선비와 살면서 옷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자 배 선비가 소원을 묻는다. 명월각시는 거지 잔치 사흘만 열어 달라고 한다. 궁산이가 거지 잔치에 참여하여 자리를 잘못 잡아 사흘을 못 얻어먹고 팔자 한탄을 하자, 명월각시는 이를 알고 따로 상을 차려 먹인 후 구슬옷을 내어 놓으며 이 옷의 깃을 잡아 고들을 들추어 입으면 내 낭군이라고 한다. 궁산이가 구슬옷을 입고 백운중천에 떴다가 내려오자, 배 선비도 구슬옷을 입고 백운중천에 올라갔으나 벗는 재주를 배우지 못하여 내려오지 못하고 솔개가 된다. 궁산이와 명월각시는 다시 만나 살다가 일월신이 된다.

변이 〈돈전풀이〉, 〈궁상이굿〉, 〈일월노리푸념〉의 차이점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돈전풀이〉는 앞부분에서 사람이 저승사자에게 이끌리어 저승으로 인도되는 과정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에서 돈을 쓰며 지낸다는 장황한 의례 해명이 서술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본에는 없는 부분이다. 〈돈전풀이〉 후반부에는 궁산이가 용자를 구해 주고 '건망증태'라는 보물을 얻는다는 다른 본에는 없는 삽화(揷話)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궁산이와 명월각시가 선간(仙間)으로 올라가 돈을 차지하는 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이는 〈돈전풀이〉가 기능 면에서 〈일월노리푸념〉과 관련이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재편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궁상이굿〉에서는 '궁산이'가 '궁상이'로, '배 선비'가 '배선이'로 나타나고 명월각시는 고유명칭이 아닌 '궁상이 부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궁상이의 혼례 사연이 없으며, 궁상이 아내가 미인이어서 초상화를 그려 가지고 나무하러 간다는 사연도 없다. 궁산이와 부인의 재회 과정도 차이가 난다. 궁상이 부인이 배선이네 집에서 탈출하여 우물에다 신발을 벗어 놓고 달아나서 절에 가서 숨어 살며 배선이가 부인을 찾으려고 우물을 퍼내는 사연과 결국 다시 배선이에게 잡혀 오는 사연이 추가되어 있다.

〈궁상이굿〉의 종반에는 궁상이가 장에 가서 사온 고양이와 개가 장자집에 가서 팔방야광주를 물어와서 궁상이가 부자가 된다는 〈개와 고양이의 구슬다툼〉 삽화가 연결되어 있다. 궁상이 부부가 선간으로 돌아가고 고양이와 개가 십 년을 부부처럼 살다가 사람으로 변하였는데 그들의 자손이 고씨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연이 추가되어 있다.

분석 궁산선비와 명월각시가 부부로 결합하고 궁산이가 내기 장기에 져서 부인을 배 선비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만나 재결합한다는 내용은 〈아내의 초상화〉, 〈새털옷 신랑〉, 〈우렁각시〉 등 여러 가지 민담 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 이야기의 틀은 아내 걸고 내기하기 유형의 설화로서, 『고려사(高麗史)』「악지(樂志)」 예성강(禮成江) 조에 수록된 하두강(賀頭綱)의 이야기와 닮았다. 또한 아내가 정절을 지키고 남편과 재회한다는 내용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열전」 도미(都彌) 조의 〈도미의 처〉와도 상통한다. 부부의 결합, 시련과 분리, 시련의 극복과 부부 재결합으로 전개되는 〈일월노리푸념〉의 서사 전개는 가정의 탄생과 가정의 시련, 가정의 완성이라는 가정신화의 서사구조로서 국조(國祖)의 탄생과 시련,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고 국가를 창건하거나 왕으로 즉위하고 신이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국신화의 서사구조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특징 〈일월노리푸념〉은 지상의 부부가 천상의 일신과 월신이 된다는 신화로 천상의 해와 달이 지상의 인간 남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천상의 태양과 태음이 지상의 물과 불, 인간의 여성과 남성과 연계된다는 음양사상론적 사고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일월신과 인간의 남녀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신화소는 고구려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 기록된 〈주몽신화〉에서부터 신라의 일월신화인 〈연오랑세오녀(燕烏郎細烏女)〉 그리고 전래동화로 널리 알려진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널리 전승된다.

의의 〈일월노리푸념〉은 가정신화이면서 동시에 무속서사시로서 관중의 흥미를 위하여 연행되는 여흥굿에서 구연된 무가이다. 남주인공 궁산이는 어리석고 무능하며 여주인공 명월각시는 현명하고 유능한 인물이다. 가정의 시련은 궁산이의 어리석음과 허욕에서 비롯되고 이를 극복하고 타개하는 것은 명월각시의 굳건한 정절의식과 지혜였다. 이러한 작품의 세계는 무속사회 여성층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 우월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서사무가는 대부분 여성이 주인공이고 가정을 비롯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위기와 역경을 여성이 타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사회에서 부자 중심의 가족관과는 다른 모권사회의 부부 중심 가족관을 보여 주는 것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출처 관북지방무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한국무가집3(김태곤,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78).

참고문헌 일월노리푸념의 신화적 성격(서대석, 구비문학연구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조선무격의 신가4(손진태, 청구학총28, 청구학회, 1937).

필자 서대석(徐大錫)





황씨부인당 내부
경북 영양군 청기면 당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신화

일월산황씨부인당신화

日月山黃氏夫人堂神話

정의 시어머니의 구박 또는 남편의 소박으로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에서 원사(寃死)한 후 그 인근 마을들에서 산신 또는 당신으로 모셔진 황씨 부인의 신화.

역사 황씨 부인의 실체나 신격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원사한 황씨 부인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당리 영천 이씨 문중의 이명존(李命存, 1787~1858)에게 현몽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 청기면 무진리 맹촌의 부인당 상량문에는 1884년의 홍수로 당목이 떠내려 간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적어도 19세기 중엽에는 황씨 부인의 신당과 당신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에는 황씨 부인신의 현몽을 얻었다는 부산의 한 보살이 쇠락한 산령각의 당사를 새로 건립하여 모셨다고 한다.

줄거리 영양군 청기면 당리 마을의 우씨 집안으로 시집 온 황씨가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일월산으로 올라가 목을 매고 죽었다. 그 후 일월산 삼막(蓼幕)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황씨를 남편이 장례 지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거듭 발생했다. 죽은 황씨 부인이 당리 마을의 명존할배에게 당을 지어 달라고 현몽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좇아 황씨 부인을 당신으로 모셨다.

변이 황씨 부인이 죽게 된 원인 부분에서 다양한 변이가 이루어졌다. 계속 딸만 낳아 구박이 극심해서, 또는 딸만 낳은 며느리가 스스로 면목이 없어서 가출하여 자결했다는 변이가 나타난다. 극심한 생활고나 호식(虎食)으로 인해 죽은 경우도 있다. 첫날밤 창호에 비친 나무 그림자를 간부로 오인한 남편으로부터 소박당하여 원사했다는 변이형도 빈도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변이형에서 황씨 부인 원혼은 남편이 재혼하여 얻은 여덟 딸을 모두 죽게 만드는 해코지를 한다. 그리고는 남편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모셔주면 마지막 아들은 봉사손(奉祀孫)으로 살려주겠다고 하고 일월산 산신으로 좌정한다. 황씨 부인이 현몽하는 대상이 남편 대신 마을의 유력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황씨 부인이 죽은 후의 형상도 다양하여, 마을사람에게 산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썩지 않은 시신으로 모습을 드

러낸다. 또 다른 변이형에서는 황씨 부인이 낳은 딸들이 이웃 마을들의 당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월산 부근 여러 마을에서는 황씨 부인의 딸들을 당신으로 섬겨 왔다.

분석 시어머니의 구박 또는 남편의 소박과 같은 가부장적 횡포가 황씨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다. 시어머니가 구박한 이유는 황씨 부인이 계속 딸만 낳았기 때문이다. 남편의 소박은 황씨 부인이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오해한 결과이다. 그래서 자결한 황씨 부인은 죽어서도 죽지 않은 상태로 일월산 주변을 맴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사람처럼 말을 걸기도 하는 등으로 원혼의 형상이 비상하게 나타나는 것은 부인의 죽음이 결원(結怨)으로 인한 것임을 말해 준다. 그 결원의 결과는 해코지 또는 재앙으로 나타난다. 마을에서 좋지 않은 일이 거듭 발생하면서 공동체의 질서가 동요되기에 이른 것이다.

원혼설화는 해원(解寃)의 결말을 지향하기 마련이다. 이 신화 역시 결원-해원의 구조를 취하는 전형적인 원혼설화이다. 해코지에 이어 나타나는 현몽은 마을공동체가 원혼 발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이다. 황씨 원혼은 남편 또는 마을의 유력자에게 현몽하여 공동체의 신으로 좌정함으로써 자신의 원한을 풀고자 한다. 여성 원혼이 마을 공동체의 풍요와 안녕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해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원혼설화의 원혼 형상, 해원 형식, 그리고 그것이 갖는 담론적 의의에 관해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당신의 신화로도 주목되었다. 한편으로 마을의 유력자 남성을 매개로 한 해원은 결국 여성이 처한 문제적 상황의 반복일 뿐 진정한 해원이 아니라고 보는 흥미로운 시각도 있다.

특징 전국적으로 광포한 원혼설화의 범주에 속한다. 주로 개인 차원의 복수나 화해를 통한 해원이 많은 데 비해, 이 신화에서는 원혼의 신격화를 통한 해원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 신화의 여성 원혼은 평범한 익명의 여성인데다 그 죽음의 이유도 고부갈등, 출산 등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단종, 공민왕, 임경업 장군 등의 남성 원혼들처럼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나 장군이 정치적 이유로 죽어서 원혼이 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실절(失節)로 오해한 남편의 소박 때문에 원사한 변이형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전설의 내용과도 흡사하다. 다만 이 변이형은 당신 좌정담의 결말을 갖춘 데다 그 신격을 제향하는 집단이 있어서 신화가 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의의 이 신화는 경북 영양군 일월산 부근의 당리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형성된 데다 여성 원혼신이 일월산 일대의 공동체 신앙으로 오래 지속된 점에서, 원혼의 신격화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가 될 만하다. 신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혼 관념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단서이다. 특히 여성 원혼의 존재는 조선조 유교 문화의 산물이다. 고부갈등, 실절, 소박, 적장자 출산의 난제들이 조선조 이래 많은 여성의 삶을 질곡으로, 또는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당신화의 변이형들은 그러한 여성적 결원의 상황들을 서사적 요소로 망라해 보여준다. 나아가 '당신 좌정'이라는 신화적 결말과 신앙화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해원의 문화를 보여 준다는 의의가 있다.

출처 경북마을지, 영남지방의 동제와 탈놀이(박진태, 태학사, 1996).

참고문헌 여신 당신화 연구(조선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여원형 당신화의 형성과 전승에 관한 연구(김정미,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원귀의 해원형식과 구조의 안팎(조현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7, 2003),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강진옥,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필자 천혜숙(千惠淑)

용어

일월신화

日月神話

정의 하늘에 해와 달이 처음으로 생겨난 이야기.

내용 일월신화란 해와 달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있게 된 내력을 밝히고 있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전되어 오던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대표적으로 일월기원신화에 속한다. 또 손진태가 채록한 함경도 무가인 〈창세가〉에서도 천지를 마련하고 나서 해도 둘, 달도 둘이었지만, 이들 하나씩을 떼어 내 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우주기원신화의 일환으로 해와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는 세계적으로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동화로 전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역시 이는 또한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화소로 편재해 있다. 해와 달이 두 개 이상이었다는 신화도 매우 보편적인데, 〈창세가〉에서는 이를 하나씩 떼어 내 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월성(日月星)의 기원담으로 볼 수 있겠다.

신화는 우주기원, 인류기원, 문화기원 등을 설명하는데, 일월기원은 우주기원신화의 유형에 속한다. 일월기원신화는 천지, 남녀, 음양 등과 함께 원시적인 쌍분체계를 보여 주는 신화적 세계상을 담고 있다.

필자 나경수(羅景洙)

용어

일화

逸話

정의 세상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을 담은 이야기.

내용 한문으로 일화(逸話)의 逸은 "잃을 일"로, 주목하지 않았으면 잃어버릴 뻔했던 숨겨진 이야기라는 뜻이다. 사람마다 평생 살아오면서 만든 일화는 있게 마련이다. 그중에서 이야깃거리가 되는 일화는 길이가 비교적 짧을 것, 내용이 감동적이고 재미가 있고 교훈을 줄 것, 일화를 받아들이는 사람(受容者, 廳者)이나 일화를 들려 주는 사람(口述者, 話者)이 그 사람의 인간됨(人間性)에 공감하고 감동을 받을 것, 그래서 시대적으로 계속 전승할 가치가 있을 것, 그 사람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그 조건이다. 일화의 내용은 충효열(忠孝烈),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입공(立功), 수련(修鍊), 청렴(淸廉), 선행(善行), 덕행(德行), 해학(諧謔), 무술(武術), 특재(特才), 기지(奇智) 같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이와 반대로 수가 적지만 불법(不法), 범행(犯行), 인색(吝嗇), 우둔(愚鈍), 음란(淫亂), 배신(背信), 잔인(殘忍) 같은 부정적인 내용도 있다. 일화는 원래 한 인물의 실화(實話)이지만, 민간에 유포되어 구전될 때는 움직이는 단편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원래 일화의 주인공과 다른 시대나 장소에 산 사람에게 일화들이 집중되어 본디 일화가 제삼자의 일화로 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세종 때 황희(黃喜) 정승에게 다른 여러 정승 또한 가지고 있던 겸손, 청빈, 인고(忍苦), 자애(慈愛)를 담은 일화가 집중된다.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많지만 어사의 일화들은 조선 영조 때 박문수(朴文秀)에게 집중된다. 일화는 민간에서 바라는 인물의 모습을 알리고, 또 만드는 구실을 한다.

필자 최래옥(崔來沃)



충민사에 모셔진 임경업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리, 2006.3.18, 서종원

신화

임경업장군당신화

林慶業將軍堂神話

정의 조선 후기 명장인 임경업(林慶業, 1594~1646) 장군이 신으로 모셔진 내력이 담긴 신화.

줄거리 병자호란 때 청나라는 임경업이 두려워서 북방의 육로를 거치지 않고 서해로 쳐들어와 마침내 조선의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세자와 대군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볼모로 잡아 자기 나라로 데려갔다. 임경업 장군은 복수를 하기 위해 어부들과 함께 배를 몰고 중국으로 갔는데, 연평도 근처를 지나던 중에 같이 가던 어부들이 중국에 가면 죽을까 봐 음식과 물을 모두 버리고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임경업 장군이 가시나무를 꺾어오라고 시켜 그 나무를 빙 둘러 바다에 꽂으니 가시마다 조기가 걸려 나와 그것으로 반찬을 했다. 그 이후로 연평도에서 조기잡이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연평도에서 고기잡이를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임경업 장군에게 제를 지낸다.

분석 〈임경업장군당신화〉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를 비롯해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해안 지역에서 전승된다. 신화와 신앙의 전승 지역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오늘날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임경업장군당신화〉는 임경업 장군이 배를 타고 중국을 가는 도중에 식량이 떨어져 바다에 가시나무를 던졌더니 그 가시마다 조기가 걸려 식량을 해결했고, 그 일이 있은 후 연평도에서 조기잡이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물론 서해안 지역에 전해 오는 다른 설화에 '마실 물이 떨어지자 임경업 장군이 바닷물을 퍼 올렸더니 민물이 되었다.'는 내용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연평도 지역의 조기 어업을 개척했다는 연유만으로 신으로 모셔진 것은 아닌 듯하다. 다음의 설화에서 이러한 내용과 함께 연평도의 충민사에 임경업 장군이 신으로 모셔지는 일련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임경업장군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옛날에 임 장군이 청나라하고 싸움하러 가는데 안목이라는 데서 군사들이 중국으로 가기 싫어서 쌀이 떨어졌다고, 부식이 떨어졌다고 각편을 했지. 그러자 임 장군이 "가시나무를 세워라."라고 해서 거기다 내려 가시나무를 세웠더니 조기가 그 가시눈마다 걸렸지. 군사들은 핑계를 댈 것이 없으니 가다 물이 떨어졌다고 했지. 바닷물을 퍼 담아 보라고 해서 담으니 민물이 된 것이지. 임 장군은 천기는 봐도 땅 지리는 못 본다.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가다가 중국놈이 함정을 판 것을 모르고 함정에 빠져 죽었지. 그러자 주민들은 임 장군을 본래 연평도의 '모니(모이)'라는 섬에 모셨다가 연평도로 옮기려고 했지. 연평도 세 곳(까치산, 당산, 성당산)에 계란을 묻었대. 나중에 가서 파 보니까 까치산에 묻은 계란은 골고, 성당산의 계란은 닭이 되다 말았지. 그리고 당산(충민사가 있는 연평도 지역의 안산)에 놓은 계란은 닭이 되었는데, 보통 닭이 아닌 샛김새가 예쁜 닭이 나왔지. 그래서 거기다 임 장군을 묻었대. 〈2006.3.18. 연평도 조사 자료, 이○전(여 · 73)〉

앞서 소개한 설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임경업장군당신화〉는 연평도 지역의 개척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임경업 장군이 연평도 지역의 신으로 모셔지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이 중심 내용이긴 하나, 도서 지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식수와 생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도서 지역이 처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절대적으로 어업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던 연평도 주민들에게 조기 잡는 방법을 알려 주었기에 마을의 신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임경업 장군이 연평도 지역에서 신으로 모셔지는 과정은 일본 여러 지역에서 모셔지고 있는 실존 인물신의 당신화와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지역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훗날 마을의 신으로 모신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신을 '현창신(顯彰神)'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당신화가 여러 지역에서 전해져 온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서 마을을 지켜 준 이순신을 신으로 모셨다는 이야기와 〈임경업장군당신화〉처럼 맨 처음 섬에 들어와 섬을 개척한 입도조(立島祖)를 마을신으로 모신 사례가 그것이다. 물론 이들 인물이 지역의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데에는 특정 인물이 지역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 그 인물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연평도 지역에 전해 오는 다른 설화를 보면 임경업 장군이 평소 연평도 지역의 마을신으로 모셔지기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장군이 중국 갈라고 배를 탔는데 선원들이 가기 싫으니까 물도 쌀도 버리고서 임 장군에게 "물도 쌀도 없다."라고 했다. 그러자 임 장군이 연평도를 가다가 바닷물을 실으라고 하니까 그게 민물이 되었거든. 그리고 안목(연평도 근해)에 그물을 치는데 가시나무 꺾어 놓으라고 하니까 물이 써져서 조기가 가시마다 걸렸어. 그렇게 하다가 연평도를 보니까 산이 좋거든. 산이 좋으니까 부하들에게 나 죽거든 여기(충민사)에 쉬게 해달라고 했대. 그래서 그를 여기에 모셨지. 〈2006.3.18. 연평도 조사 자료, 박○문(남 · 70)〉

연평도 지역에서 발생한 〈임경업장군당신화〉는 조기 어업 과정에서 연평도 주변 지역은 물론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해안까지 확대되어 오늘날처럼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전해져 온다.

특징 〈임경업장군당신화〉는 조기 어업이라는 생업을 토대로 생겨났으며, 임경업이라는 실존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설화이다. 유독 서해안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연평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옹진군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조기 어업 과정에서 서해안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설화는 생업 활동에 따른 특정 지역 신앙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구술 자료이며, 서해안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조기 어업과 관련된 민속문화(배치기, 뱃기 내림 등)와 비교함으로써 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임경업전 연구(이윤석, 정음사, 1985), 현지조사자료(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2006년 3월 18일).

참고문헌 서해안 임경업 신앙 연구(서종원,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서해안 풍어제와 임경업 전설(홍태한,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서해안 조기잡이와 어업생산풍습(주강현, 역사민속학1, 역사민속학회, 1991), 임경업전 연구(이윤석, 정음사, 1985).

필자 서종원(徐鍾源)

전설

임꺽정

정의 임꺽정의 출생과 의적 행적을 칭송하는 인물전설.

줄거리 임꺽정은 경기도 양주시 태생이다. 아버지가 백정이라 마을 사람들이 홀대하여 동네 우물물도 먹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임꺽정은 양주 불곡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먹고 자랐는데, 그 물에 광물질이 많아서 기골이 장대해졌다. 주변 사람들의 홀대를 참지 못해 열아홉 살에 의적이 되었는데, 얼굴에 털이 많아 털북숭이로 보였다. 평안도의 한 장사꾼이 수십 명의 짐꾼을 데리고 도적 산을 넘으려는데, 온 얼굴이 털북숭이인 임꺽정을 주막에서 보고 음식을 어떻게 먹나 궁금해서 국수를 사 주었다. 그러자 임꺽정은 수염을 양 갈래로 갈라서 두 귀에 걸치고 순식간에 국수를 먹어 치웠다. 장사꾼은 신기해하며 몇 그릇을 더 사 주었다. 도적 산을 넘어도 될 만큼 사람이 모여 장사꾼이 고개를 넘는데, 수십 명의 도적이 나타나 재물을 빼앗았다. 그런데 우두머리가 임꺽정이었다. 임꺽정은 음식을 사 준 장사꾼을 알아보고는 재물을 돌려주면서 재를 넘게 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꺽정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변이 임꺽정의 의적 활동에 관한 이야기는 고향인 경기도 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다. 백정의 아들로서 마을 사람들의 홀대를 참지 못해 의적이 된 사연을 주로 이야기한다. 민간에 전승하는 이야기에는 임꺽정이 의적으로 인정을 갖추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헌설화로는 『기재잡기(寄齋雜記)』에 임꺽정의 포악함과 추포(追捕)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 내용을 설화로 수용하는 예도 있다.

분석 실존 인물이며 의적으로 추앙받는 임꺽정에 대한 인물전설이지만, 민간에서 널리 회자하지는 않는다. 홍명희 소설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구연하는 때가 많다. 다만 민간설화는 의적에 초점을 두어 임꺽정이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었음을 강조하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시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기록된 문헌설화에는 『기재잡기』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민가에 횡포를 부리고 사람을 살상하는 포악한 도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추포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징치의 대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의의 의적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임꺽정은 조선 명종 때 체포되었다는 기사 외에 그 행적이 전해지는 예가 매우 드물다. 근래 벽초 홍명희의 소설이 큰 인기를 끌면서 그 내용이 민간에 설화로 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

출처 寄齋雜記, 양주의 구비문학2(강진옥, 박이정, 200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2-8, 764.

참고문헌 임꺽정의 의적모티브 연구(최윤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문헌설화2(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

필자 김종군(金鍾涓)

민담

임자 있는 명당

정의 아무리 복록이 좋은 명당이어도 그 자리를 사용할 주인은 따로 있다는 내용의 풍수설화.

역사 〈임자 있는 명당〉 이야기의 연원은 이성계와 주원장의 등극과 관련한 설화가 이야기판에서 많이 구연된 것을 볼 때,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조 때부터로 추정된다.

줄거리 어떤 농부가 서당에 다녀 글을 배웠는데, 부모가 돌아가시자 할 일이 없어서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 지술(地術)을 배우고 내려왔다. 산을 내려오다가 보니 좋은 명당자리가 있어 표를 해 두고 오는 길에 가난한 상주를 만났다. 그래서 그에게 좋은 일을 하려 했으나 그 자리를 찾을 수 없어 낭패를 보았다. 그리고 십 년 만에 가난한 어느 친구를 만났는데 그의 집에서 떡갈나물과 조당수(좁쌀로 묽게 쑨 죽)로 정성이 담긴 대접을 받았다. 마침 제수가 돌아갔기에 묏자리를 알아봐 주려고 나섰다. 다행히 예전에 앞서 찾을 수 없었던 명당자리를 찾아 그곳에 모시게 했는데, 그 자리는 그날 저녁에 장가를 드는 자리였다. 한편, 외딸을 두고 상처한 서울 어느 대감 집에 계모가 들어와 전실 딸을 죽이려 하자, 그 딸이 돈을 많이 가지고 도망쳐 친구의 조카를 만나 혼인하였고, 그 조카는 부자가 되어 큰아버지를 모시고 잘살았다.

변이 상주가 잡은 자리가 명당이어서 지관이 아까워 방해했는데, 방해할수록 더 좋은 자리가 나와 더는 말리지 못했다. 상주는 결국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아 부자가 되었다는 〈갈수록 명당〉이라는 별칭이 있는 변이형 설화가 있다.

분석 주인공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망자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구복(求福) 의지도 없었는데 명당을 얻어 복을 받은 것은, 훌륭한 지관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자나 상주가 복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특징 명당은 상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만, 주인공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명당을 얻어 운이 틔었다는 것은 명당의 임자가 될 사람의 자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운명론적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다.

의의 이 설화는 풍수설화에서 '분복형(分福型)'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기 복으로 우연히 취득한 명당은 적덕이나 상쟁, 계략으로 말미암은 획득이나 보상이 아니다. 또한 다툼에 의한 쟁취나 불교적 인과나 유교적 선행에 대한 강조도 없다. 이러한 점들이 내재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표면화되어 있지 않고, 노력도 없는 가운데 명당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적극적인 삶이 아니다. 단지 이 설화에는 천재일우의 횡재를 꿈꾸는 억눌린 민중의 소극적인 삶에 대한 희구가 드러나 있을 뿐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229; 2-8, 690; 5-4, 129.

참고문헌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강진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풍수설의 국문학적 수용양상 연구(강중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필자 김미숙(金美淑)

전설

임지한

林支漢

정의 고려 때 경상북도 경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한 아전(衙前) 임지한에 관한 설화.

역사 임지한은 고려 원종 때 충신으로 본관이 예천이다. 『양양기구록(襄陽耆舊錄)』에는 양양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예천 사람으로 추정된다. 임지한은 아전으로서 경주에서 일어난 도적 무리 최종, 최적, 최사를 평정하는 공을 세워 나라에서 벼슬을 주려고 하였으나, 상주 관내에 소속된 다인현을 예천군에 귀속시켜 군세를 확장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진정(陳情)하였다. 원종이 이를 허락한 뒤 다인현은 일제강점기인 1906년까지 예천군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이처럼 임지한은 후손들의 영광을 위해 개인의 영달을 희생할 줄 알았던 덕 있는 사람이며, 분수를 지킨 인물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임지한은 호랑이를 부릴 줄 아는 날렵하고 출중한 인물이자 출세욕을 가진 인물로 전설화되었다.

줄거리 임지한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호랑이를 부린 일화이다. 임지한이 아전으로 있을 때, 예천에 부임한 원이 임지한을 서울에 심부름 보내려고 하였다. 일을 맡은 임지한은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밤에 호랑이를 불러서 타고 서울에 갔다 왔다. 심부름한 결과로 임지한이 원에게 선물을 받거나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일부 설화에는 반란군을 꾀로 물리치는 활동담과 임진왜란과 호열자에 관련된 후일담이 전승되기도 한다. 또 봉화 지역 설화를 보면 임지한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지만 탄생담으로 여길 수 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변이 〈임지한설화〉에 나타난 변이양상을 보면, 우선 그의 신분은 공방, 아전 또는 농촌의 이름 없는 인물로 되어 있다. 서울에 갔다 오는 이유도 원의 부모를 위한 생신 선물이나 약을 사거나, 내란 소식이나 다른 편지를 전하는 것이다. 심부름한 대가는 원이 다른 곳으로 부임하여 못 받기도 하지만, 다인현을 상주에 속하게 해 주거나 묏자리나 산을 받기도 하며, 그 내용이 아예 나오지 않는 예도 있다. 한편, 강원도 양양에서 채록한 설화는 양양 지역과 억지로 연결해 놓은 무리한 내용이지만,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이나 임진왜란이나 호열자에 관련된 후일담이 나타나므로 다른 곳에 없는 종합적인 이야기이다.

분석 이 설화는 전승 지역에 따라 탄생지와 활동지 그리고 무덤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설화의 가장 큰 요소는 임지한이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경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척결하였다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런데 공을 세운 임지한은 실제로 대우를 받지 못한 인물로 보인다.

의의 이 설화는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민중적 영웅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지만 아기장수와 관련된 탄생담을 가지고 있으며, 반란을 척결한 결과에 제대로 보답 받지 못한 대신 다인현을 예천군 관할로 소속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출처 내 고장 예천(이영호, 예천군, 1984), 예천군지(예천군지편찬위원회, 200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50; 7-10, 770; 7-17, 45; 7-18, 57; 289.

참고문헌 장수설화의 구조와 의미(강현모, 역락, 2004).

필자 강현모(姜賢模)

민담

잉어의 보은

정의 잉어로 변신한 용왕 또는 용왕의 아들이나 손자를 살려 주고 보은을 받는다는 내용의 신이담 형태의 설화.

역사 용을 도와주어 그 보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史)』 제2권 진성여왕 거타지 조와 『고려사(高麗史)』 서문에 실린 〈작제건설화〉 이래로 다양하게 전승되었다. 또한, 이 설화는 범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아시아 일대에서 많은 자료가 보고되었다. 중국에는 거북 또는 자라가 등장하여 보은으로 생명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많고, 몽골이나 일본의 이야기에는 잉어 대신 뱀이 등장한다.

줄거리 숯장수가 낚시하여 큰 잉어를 잡았지만, 불쌍해 보여 도로 놓아 준다. 어느 날 잉어가 다시 나타나 숯장수를 용궁으로 데려간다. 잉어는 용왕의 아들이며 용왕이 아들을 구해 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숯장수를 용궁으로 초청한 것이다. 용왕의 아들은 아버지가 숯장수에게 선물을 줄 것을 미리 알고, 다른 선물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자신이 말한 것만을 선택하라고 숯장수에게 말한다. 숯장수는 용왕의 아들이 말한 대로 근사해 보이는 많은 보물을 놔두고 작은 반지만을 달라고 한다. 처음에 망설이던 용왕은 결국 숯장수의 요구를 받아들여 반지를 선물하였고, 숯장수는 인간세계로 돌아와 반지 안에 있던 용왕의 딸과 결혼하여 잘 살았다.



잉어형상 무구
국립민속박물관

변이 이 설화는 주인공이 보은을 받은 뒤 그 후손들이 잉어를 먹지 않게 되었다는 특정 가문의 전설이나, 보답으로 둑이나 강이 만들어졌다는 지명유래전설로 변한 예도 있다. 〈개와 고양이의 구슬다툼〉이나 〈해인사연기설화〉가 대표적인 변이형이다.

분석 주인공은 자신의 지혜나 노력으로 당면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다. 다만 그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또는 미물을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베푼 것뿐이다. 그 선행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오히려 의외의 행운을 가져다준다. 선행에 대한 이와 같은 보상은 권선징악이라는 일반적인 설화가 가진 교훈적 성격에 들어맞는다.

특징 거타지와 작제건이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나라를 세울 위대한 자식을 낳았다면, 이 설화의 주인공은 지극히 평범하며 일상적인 행복을 얻는 데 그친다. 이러한 차이점은 이 설화가 신화로부터 전설이나 민담으로 이동하는 단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임을 말해 준다.

의의 잉어는 용의 유형에 들기 때문에 출세·귀함·효도를 상징한다. 동화나 민담에는 겨울에 산 잉어를 잡아 부모를 봉양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전한다. 자라를 구해 주어 보은을 받는 내용은 고전소설 〈숙향전〉에서도 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113; 5-2, 101, 8-14, 535.

참고문헌 동물 보은담에 갈무리된 공생적 동물인식과 생태학적 자연관(임재해, 구비문학연구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용궁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이동철, 비교민속학28, 비교민속학회, 2005).

필자 김정경(金靜京)

자린고비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자식에게 들킨 부부동침
자연전설
자연창조전설
자청비신화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
잡기고담
장군봉
장군수
장보고
장수바위
장승재판
장인 버릇 고친 사위
장자못
장자풀이
재담
재복테기
재인폭포
재주 많은 의형제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온 사람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
저승사자의 실수
저승에서 만난 배필
적강화소
적대자
전봉준
전생 인연으로 부부된 사람
전설
전실 자식 눈 뺀 계모
전횡장군당신화
절부암
젊어지는 샘물
점복담
접동새
정기룡
정도전
정렴
정만서
정방폭포
정승 낳을 여자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
정승을 소로 만든 망태기
정철
정충신
제석본풀이
제왕운기
조력자
조마구
조신
족제비가 된 남편의 원혼
종소리
주몽신화
주왕산
주원장
주인집 딸에게 장가간 머슴
주천강
죽령산신당신화
죽어서 염라대왕 된 사람
죽을 고비 세 번
중들의 절 자랑
쥐떼도강
쥐의 둔갑
쥐의 보은
지귀
지네각시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지네장터
지렁이 눈과 가재의 띠
지렁이 삶아 봉양한 효자
지리산
지리산성모
지명전설
지성이감천이
지역전설
지장본풀이
지중용출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
지하국 다녀와 명의 된 사람
지하국대적퇴치
지혜담
진가장무가
진담록
진묵대사
진정한 친구
진좌수
짐가제무가
쫓겨날 며느리 구한 가짜지관

ㅈ

: 지읒

민담

자린고비

정의 인색한 사람의 절약 행위를 과장하여 이야기한 설화.

줄거리 〈자린고비설화〉는 생선, 간장, 부채 같은 사소한 것을 극단적으로 아끼는 인물의 이야기로 전승된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옛날 한 부인이 생선을 사러 가서는, 이것저것 만져만 보고 집으로 돌아와 생선 만진 손을 솥에 씻어 국을 끓인다. 이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남편)이 우물에 가서 씻었으면 온 동네가 다 먹을 걸(혹은 그 국을 두고두고 끓여 먹을 걸) 그랬다며 아까워한다. 또 한 자린고비가 간장을 종지에 조금씩 담아 먹는데 새로 들인 며느리가 종지에 간장을 가득 담아 내 온다. 자린고비는 며느리에게 간장을 아끼지 않는다면서 혼을 낸다. 며느리는 이렇게 간장을 가득 담으면 보기만 해도 짜서 먹지 않게 되어 간장을 아낄 뿐만 아니라 숟가락으로 긁지 않아도 되니 숟가락과 그릇까지 아낄 수 있다고 말한다. 때로 며느리가 장아찌를 통째로 담아내거나 조기를 여러 마리 구워서 시아버지가 혼내기도 하지만 결국 며느리의 행동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인정한다. 그 외에 부채를 아끼는 방법을 비교한다거나(부챗살을 하나씩 펼쳐 부친다거나 부채가 아니라 고개를 흔들어 부친다는 이야기) 짚신, 장도리, 담배, 바둑판과 바둑돌처럼 자기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 빌리는 이야기, 장독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파리를 쫓아가 다리에 묻은 장을 빨아 먹는다는 이야기 등이 자주 회자된다.

변이 〈자린고비설화〉는 주로 사소한 것마저 극단적으로 아끼는 인물의 특성을 과장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부자가 된 뒤의 선행을 중심으로 전승되기도 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고비(高聚)〉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 '고비'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찾아와 치부(致富)의 술책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고비는 그를 데리고 숲 속에 가서 소나무에 올라가게 하였다. 그러고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몸을 늘어뜨린 다음 한 손만으로 지탱하라고 시켰다. 마을 사람이 힘들어하자 고비는, 재물 지키기를 그 손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같이 하라고 한다. 또한 자린고비에 관련한 이야기 가운데에는 아껴서 모은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선행담도 있다. 자린고비가 자신의 재산을 베풀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는데, 부자의 운이 다했음을 알고 마음을 바꾸어 재물을 나누어 주고 잔치를 베풀기도 한다.

분석 지독한 구두쇠, 인색한 사람의 대명사 격인 '자린고비'의 이름은 지방마다 또는 이야기의 화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자리꼽재기', '자리껍데기', '진지꼽재기', '자린꼼쟁이', '재령곱재기', '자린곱이', '자리꼽쟁이'와 같이 다양하게 전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자린고비'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이설(異說)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 부모 제사에서 '고비(考妣)'라고 적힌 지방을 쓰는데, 어느 인색한 사람이 이 지방을 기름에 절여 두고 해마다 썼다고 하여 '절인 고비'라고 하다가 이것이 변하여 '자린고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 어떤 늙은이가 재물을 절약하여 어진 인심을 베풀었으므로 '자인고(資仁考)'라 하다가 그의 묘소에 '자인고비(資仁考碑)'라는 비석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고비'에 대해서는 '고비(高聚)'라는 실존 인물로 보기도 하고, '옛날 비석'을 뜻하는 '고비(古碑)'로 보기도 한다.

〈자린고비설화〉 가운데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부자가 된 이후 선행이 나타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사소한 것을 아끼는 이야기이다. 이때 〈자린고비〉 이야기에는 두 명 이상의 자린고비가 등장하여 자신의 인색함을 서로 자랑하거나, 겨루거나, 인색함의 비법을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때로 경쟁적이 되기도 하는데, 그 관계는 다양하다. 부인과 남편 간에, 사돈 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아끼는 방법을 두고 경쟁하기도 하며, 아버지와 아들, 한 사람과 다른 마을 사람 혹은 한 마을과 다른 마을의 자린고비가 경쟁하기도 한다. 이들이 아끼는 물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생선, 간장이나 된장, 장아찌, 부채, 짚신, 장도리, 담배, 축의금, 절구와 절굿공이, 밥풀, 심지어는 사람이나 동물의 똥 따위다.

특징 〈자린고비설화〉는 아낌의 대상물을 선택하고 활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자린고비의 인색함을 보여 주기 위한 대상물로 어떤 이야기에서는 조기를, 어떤 이야기에서는 간장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야기에 따라서는 조기와 간장을, 축의금과 종이와 풀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자린고비설화〉는 대상물을 중심으로 일화 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첫 번째 간장을 아끼는 이야기와 두 번째 부채를 아끼는 이야기가 별다른 서사적 연관성 없이 연결될 수 있으며, 그러하기에 각각 독립하여 전승되기도 한다.

〈자린고비설화〉에서 두 명 이상의 인물은 서로 다른 대상을 아끼기도 하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것들은 더욱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과장되어 나타난다. 가장 사소한 것을 아끼는 인물 혹은 가장 기발한 방법으로 아끼는 인물이 자린고비 중에서도 자린고비가 되며 그것을 확인해 주는 이야기의 끝 대목은 가장 큰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출처 攪睡稗史, 於于野談, 靑邱野談, 太平閑話滑稽傳,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286; 2-5, 505; 7-6, 67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8, 249, 한국구전설화집3(박종익, 민속원, 2000).

참고문헌 그런 우리 말은 없다(조항범, 태학사, 2005), 자린고비설화의 독해 방식과 과장담의 문화(류정월, 서강인문논총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자린고비설화의 전승양상과 의미(최운식, 청람어문교육36, 청람어문교육학회, 2007).

필자 류정월(柳正月)

의의 이 이야기는 사소한 사물들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아끼는 인물의 특성을 과장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과장담 혹은 허풍담 가운데 하나이다. 〈자린고비설화〉는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의 역할, 부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자린고비의 근검절약 정신과 부의 축적을 보여 주는 선행담은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민담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정의 효자 아들이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손자를 땅에 묻어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나 그 자리에서 돌종이 나와 자식을 구하고 어머니를 잘 봉양하게 된 설화.

역사 13세기 말 『삼국유사(三國遺事)』 「효선」에 〈손순매아(孫順埋兒)〉라는 명칭으로 수록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효행담의 일종으로 고려 말 편찬된 『명심보감(明心寶鑑)』에도 기록되어 있다. 비교적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줄거리 신라시대 모량리에 사는 손순이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 품을 팔아 노모를 봉양하였다. 그런데 손순에게 어린 아들이 있어 늘 노모의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 손순이 아내에게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의 굶주림을 막기 위해 아이를 묻어 버리자고 하였다. 손순이 아이를 묻으려는데 그 자리에서 돌종이 나왔다. 아내가 이는 아이의 복이므로 아이를 묻지 말고 돌아가자 하였고, 손순이 종을 가지고 돌아와 매달아 놓으니 은은한 종소리가 대궐까지 들렸다. 흥덕왕이 이 소리를 듣고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알아보라 했다. 이에 흥덕왕이 손순의 사정을 듣고 집 한 채를 주고 해마다 벼 50석을 주며 손순의 효를 기렸다. 손순은 옛집을 내놓아 절을 삼고 흥효사(弘孝寺)라 했다.

변이 『삼국유사』에 따라 〈손순매아설화〉로 알려져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국통감(東國通鑑)』,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명심보감』, 『동사절요(東史節要)』 등에 수록되어 있는 광포설화의 하나이다. 문헌화되기 전에 경주 지방에서 구전되다가 문헌에 기록되면서 문헌과 구전에 함께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손순이 홍효사를 지었다는 내용은 『삼국유사』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통감』, 『동사절요』 등에는 빠져 있다. 실제로 홍효사 절터가 있음에도 변이형에 홍효사 부분이 빠진 것은, 불교적 영험에 집중하는 『삼국유사』와 효행에 집중하는 그 밖의 텍스트들이 갖는 관점의 차이 때문으로 추측된다. 구비전승되는 변이형들에서도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획득한 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구비전승 유형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 가지로 나뉜다. 땅에서 발견한 물건으로 말미암아 문제 상황이 직접 해결되는 예가 있는가 하면, 물건이 제삼자의 개입을 야기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도 한다. 왕이 종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돕는 『삼국유사』 〈손순매아설화〉는 후자의 변이형이다. 노모를 위해 아이를 땅에 묻으려던 효자 곽거가 금솥을 얻었다는 중국의 〈곽거설화(郭巨說話)〉와 영향 관계가 논의되기도 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도 비슷한 유형의 설화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다양한 변이형이 발견된다.

분석 〈손순매아설화〉는 주로 효행설화의 범주에서 논의되어 왔다. 어머니 봉양을 위해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가 진정한 효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상황의 극단적 설정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최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극심한 가난인데, 이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 영험과 같은 환상적인 해결책이 제시된다. 불교적인 영험을 통해 극단적인 효행이 갖는 문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여러 변이형들이 전해지는 설화인 만큼 전승 맥락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야기의 변이 과정에 사회 풍습이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에서 '아이를 땅에 묻는다'는 영아 유기의 극단적인 설정이 실제 존재하던 희생제의적 풍습과 연관되어 있다는 추정을 하기도 한다.

특징 효를 행하기 위해 영아를 유기하거나 매장하는 극단적인 설정이 발견된다. 자식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어버이에게 효를 행하는 실천적 행위와 이로 인해 진기한 보물을 얻게 되는 종교적 보상을 기본 구조로 한다. 불교사상이 바탕이 된 『삼국유사』뿐 아니라 유교사상을 강조하는 『명심보감』에 실린 것도 효행설화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모두에서 비슷한 유형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다양한 변이형이 발견되는 설화라는 점은 한국에서의 유교 이념의 수용과 실천이 갖는 특수한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의의 자식을 묻으려 한 자리에서 돌종 혹은 신이한 물건이 발견되고 그 자리에 절을 짓게 된다는 점에서 불교적 영험과 관련하여 해석되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제시하는 효행설화로서 보다 큰 의의가 있다. 효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는 설화이다.

출처 東國輿地勝覽, 東國通鑑, 東史節要, 三綱行實圖, 明心寶鑑, 三國遺事,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9, 87; 7-1, 324; 8-5, 992; 8-8, 602.

참고문헌 민족 설화의 논리와 의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2),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강진옥, 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985), 설화와 민중 의식(조동일, 정음사, 1985), 손순매아 유형의 분포와 해석(노영근, 온지논총26, 온지학회, 2010),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64), 한국 설화문학 연구(소재영, 숭실대학교출판부, 1984), 한국의 설화(김화경, 지식산업사, 2003),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심우장, 실천민속학10, 실천민속학회, 2007).

필자 송효섭(宋孝燮)

민담

자식에게 들킨 부부동침

정의 부부가 아이들을 억지로 내보내고 잠자리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현장을 들키는 과정이 그려진 소화(笑話) 성격의 육담(肉談) 설화.

줄거리 자식이 많은 집 부부가 잠자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가 생기는 게 싫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방에서 못 자게 했다. 하루는 날씨도 궂은데 내외가 하도 잠자리를 하고 싶어 아이들을 불러 "너희는 소 몰고 어디 가서 풀을 먹이고, 너희는 어디 가서 소 먹일 풀을 베라."라고 시키면서 다 내몰았다. 드디어 둘만 남자 부부는 옷을 벗고 즐기기 시작했다. 남편이 부인의 배를 쓰다듬으며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부인은 '둥덩실'이라 대답하고, 가슴은 어디냐고 묻자 '쌍계봉'이라 했다. 엉덩이는 어디냐고 묻자 '천안 뒤뜰'이라 하고, 성기를 더듬으며 어디냐고 묻자 '조자룡이 승전하고 오다가 말에게 물 먹인 옹달샘'이라 답하며 서로 즐겼다. 이때 자식들이 방문을 열자 아버지가 왜 벌써 오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아이들은 "아이고 아버지, 둥덩실부터 쌍계봉으로 해서 천안 뒤뜰을 거쳐 조자룡이 전쟁하고 오다 말에게 물 먹인 옹달샘에서 소에게 물 먹이고 지금 왔어요."라고 대답했다. 이후 부부는 동침할 엄두도 못 내게 되었다.

변이 각편 중에 부부 동침 시 아내의 몸을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본이 색다르다. 아이를 여섯이나 낳은 부부가 부부관계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다 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안을 다니다가 그만 막내아들 발을 밟고 말았다. 막내아들이 "어떤 놈이냐?" 라고 화를 내자 큰아들이 "가만둬라. 지금 열두 바퀴째 돈다." 라고 해, 부부는 단념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한창 부부관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막내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부부는 서로 싸움하는 척 연기했다. 막내가 부모가 싸운다고 악을 쓰자 큰아들이 "말리지 마라. 엄마가 아버지를 꽉 물었다."라고 했다.

분석 부부의 성욕과 자식들의 이해관계를 엮은 한 편의 육담이다. 그런데 이 육담의 웃음 뒤에는 서글픔도 함께 섞여 있다. 가난 때문에 성욕마저 만족할 수 없는 현실과, 부부와 자식들의 원초적 욕망이 상충하는 씁쓸함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성적인 욕망에 매달리지만 자식들은 먹을 것에 매달린다. 부부의 성행위가 자식들에게 먹을 것의 부족으로 귀결되는 아이러니가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의의 이 이야기는 구전 육담이 성을 소재로 하여 단순히 일탈적 재미만을 주지 않음을 알려 준다. 물론 아이들로 인해 부부관계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 웃음을 유발하지만, 가난과 다산의 문제가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62; 4-2, 73; 5-7 629; 6-6, 490.

참고문헌 성소화 텍스트 향유와 성적 정체성(류정월, 구비문학연구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한국 육담의 세계관(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7), 한국의 민속과 성(비교민속학회, 지식산업사, 1997).

필자 김경섭(金鏡燮)

용어

자연전설

自然傳說

정의 자연물이라는 증거물을 근거로 하여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자연물이 형성된 까닭, 또는 자연물들이 생겨나는 이유와 생김새의 특징을 설명할 목적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

내용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유달리 자연전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활동공간이 산이나 강을 비롯한 수많은 자연물로 둘러 싸여 있고, 또한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해와 달 등 천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이다. 자연전설은 지리상의 특징, 산이나 바위의 생김새, 식물과 동물의 특수한 형상, 동굴, 강, 하천, 호수, 섬, 곶, 바다, 해, 달, 별, 바람, 구름 등 자연현상의 생김새나 형성되는 이유를 소박한 지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전설은 증거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야기 짜임새가 단순한 경우가 많고, 특정한 증거물과 관계된 전설은 당연히 지역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기도 한다.

필자 표인주(表仁柱)

전설

자연창조전설

自然創造傳說

정의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자연물과 자연현상이 생성된 시원 또는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

역사 자연물 창조에 관한 전설인 만큼 그 역사가 유구할 것으로 짐작되나, 기록은 희소한 편이다. 해와 달이 되살아난 유래를 전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 1의 〈연오랑세오녀(燕烏郎細烏女)전설〉이 가장 이른 기록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제주 고적' 에서는 산들이 바다에서 솟았으며, 그 산의 네 구멍으로부터 붉은 물이 나와서 암석으로 변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시대의 읍지류에도 고려 때 동해로부터 용출하였다는 제주의 서산(瑞山), 금성으로부터 떠내려 왔다는 강원도 춘천의 부래산(浮來山), 묘향산에서 떠내려 왔다는 평안남도 안주군의 태향산(汰香山), 성천에서 떠내려 온 평양특별시의 능라도(綾羅島) 등에 관한 창조전설이 전한다.

내용 자연창조전설은 인간이 사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자연물 또는 자연현상이 비롯된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하늘에 떠 있는 해·달·별, 땅 위에 있는 산·고개·강·연못·바위·굴, 그리고 바다 상의 섬, 만(灣) 등이 그 자리에 있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들이 주로 이 범주에 속한다. 지형 및 지명의 유래담이나, 동·식물의 형상 및 이름의 유래에 관한 전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산이나 섬이 떠내려 와서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 대홍수에도 살아남은 산의 형상에 빗댄 지명유래담은 전국적으로 광포하는 자연창조전설이다. 마을에 있는 산과 바위의 생성에 마고할미가 관여한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마고할미가 흙, 돌 등을 지고 가다가 떨어뜨린 것이 마을의 산 또는 바위가 되었다거나, 마고할미의 오줌 줄기가 하천이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거대한 여신의 몸에 관한 신화적 상상력의 소산이다. 이 자료들을 예로 들어 마고할미를 창조여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자연의 창조적 시원을 말하는 점에서는 분명 창조신화의 계열이지만, 신성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신이(神異)가 아니라 기이(奇異)를 말하는 전설로 바뀌었다. 〈연오랑세오녀〉 이야기도 일월창생과 관련된 신화소를 지녔지만, 신라국 해와 달의 정기가 회복된 사건을 중심으로 영일현(迎日縣)의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점에서 전설로 분류된다. 〈떠내려 온 섬〉이나 〈걸어온 산〉 전설도 때로 천지개벽이나 대홍수와 같은 신화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나, 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물과 함께 산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는 언술인 점에서 전설에 속한다. 이렇게 자연창조전설은 신성의 의미가 망실되면서, 증거물 중심의 전설적 언술방식을 취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고할미도 그 신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되면서, 마고가 눈 똥과 오줌이, 또는 그녀의 치마에 난 구멍 사이로 떨어진 흙이 산이나 하천이 되었다는 식으로 희화화된다.

구비전승 과정에서 유희적 상상이나 사회적 의미가 더 보태지기도 한다.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경주산'은 마고할미가 경주에서 산을 메고 가다가 끈이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인다. 울산에서 설악으로 걸어오다가 설악산이 완성된 바람에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울산바위전설〉과도 유사하다. 이 전설들에는 두 지역의 사람들이 산세 때문에 서로 싸웠다는 유희적 상상이 보태지기도 했다. 산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본 아낙이 빨래방망이로 산을 앉히는 바람에 그곳이 막히게 되어 마을이 번성하지 못했다는 유형도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반영된 변이형이다. 여성이 창조가 아니라 오히려 훼방의 주체로 나타나는 것은 창세의 여신인 마고할미의 신성이 부정되는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변이이다.

특징 자연창조전설은 애초 자연의 신화적 창조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이 신성성을 상실하고 특정 지역의 전설로 정착된

특징이 있다. 그래서 구전된 우주기원신화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비록 망실된 부분이 있다 해도 대홍수, 산 이동, 창세여신 등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세계보편적인 신화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화는 그것을 신성하다고 보는 집단의 것인 만큼, 신화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그 이야기가 집단 내에서 포괄적, 규범적, 상징적 의의를 지니고 신성시되고 있는가로 결정된다. 집단 차원에서 수행되는 제의는 신성의 여부를 가늠하는 준거이다. 자연창조전설은 집단의 신성한 규범으로서 힘을 갖지 못한 데다 제의의 맥락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신화소를 가지고 있다 해도, 오히려 일정 지역의 자연물과 결부되면서 그 유래를 설명하는 언술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라기보다는 신화적 전설로 범주화될 만하다. 이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처럼 일월 생성의 신화소를 지니고 있지만 유희적 상상으로만 일관된 신화적 민담과도 구분되는 것이다.

의의 문헌에 전하지 않는 우주기원신화의 실상을 파편이나마 읽을 수 있는 구전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이 전설군은 지역의 자연물 전설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유희적 상상과 사회적 의미화를 통한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르를 넘나드는 설화 변이의 논리를 규명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1973). 마고할미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한국민속학25, 한국민속학회, 1993). 마을우주와 신화적 세계관(천혜숙, 구비문학연구8, 한국구비문학회, 1999).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필자 천혜숙(千惠淑)

신화

자청비신화

표제어 세경본풀이

민담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

정의 두 집안의 가법(家法) 차이 때문에 잘살고 못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다.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잘살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부자는 가난한 친구에게 부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머슴에게 "마당을 쓸어라.", 며느리에게 "부엌의 솥뚜껑을 가져오라.", 큰아들에게 "소를 지붕으로 몰고 올라가라.", 막내에게 "지붕에 올라가 물구나무를 서라."라고 시켰다. 머슴, 며느리, 큰아들, 아내는 두말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 이에 비해 가난한 친구가 머슴에게 "마당을 쓸어라."라고 명하자 "아침에 치워서 먼지가 없는데 뭐 하러 쓰느냐?"라고 하고, 며느리에게 "부엌의 솥을 가져오라."라고 하자 "사랑방에 솥을 왜 가져오라고 하느냐?" 하며, 아들에게 "사랑으로 소를 한번 들여라."라고 하자 "미친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들 시키는 일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것은 부인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붕에 올라가 물구나무를 서라."라고 하자, "버르장머리가 고약하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욕을 해댔다.

분석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은 두 집안의 가법 차이가 재산의 유무에 영향을 미쳐 잘살게 되고 못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우리 선조들은 그 집안의 가법을 보면 그 집이 크게 일어날지 망할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설화에서는 가법의 권위에 따라 집안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보았던 선조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유교의 삼강오륜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적 윤리로서 지금도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삼강오륜에 의하면 위계(位階)의 법도가 분명하여 가족 내에서 가장에 대한 공손, 가족 간의 화목, 형제간의 우애, 부부 사이의 구별 등을 중요시하였다. 가족 간 위계질서와 역학관계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이 올바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의 이 설화는 집안의 법도가 올바로 섰는지를 빈부의 문제와 결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즉, 유교적 도리를 다할 때,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부유한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2, 477; 8-1, 368; 8-2, 62.

참고문헌 신림경제(유중림, 민족문화추진회 역, 솔, 1997). 삼강오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박미해, 아카넷, 2010).

필자 강재철(姜在哲)

자료

잡기고담

雜記古談

정의 조선 후기 임매(任邁, 1711~1779)가 편찬한 야담집(野談集).

내용 『천예록(天倪錄)』을 편찬한 임방(任堕)의 손자 임매가 1754년에서 1767년 사이에 편찬한 야담집으로, 현재 일본 텐리대(天理大)에 소장되어 있다. 2권 1책으로 총 27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각편에는 2~3자의 제목을 달고, 끝부분에는 논평을 붙이고 있다. 이런 형식이 『천예록』에도 보인다는 점에서 가학적(家學的) 계승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유만주(兪晩柱)가 쓴 독서일기 『흠영(欽英)』에서는 본래 이 책이 2권 2책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현전하는 『잡기고담(雜記古談)』에는 없는 항목도 보인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현전하는 본은 완전한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잡기고담』에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담은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시정에서 벌어지는 사실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천예록』이 지향하는 바와 일정 부분 달라졌다. 야담이 현실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모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준 한 예라 하겠다.

필자 정명기(鄭明基)

전설

장군봉

將軍峰

정의 역사상 실존 인물이거나 가상의 인물인 장군과 연관된 산봉우리에 관한 전설.

줄거리 장군봉은 예전에 장군이 난 자리이거나 장군이 날지 몰라 일본 사람들이 혈을 자른 곳이라고 한다. 혹은 장군이 났다가 사라진 곳이거나 장군의 발자국이 남아있거나 장군이 오줌 눈 자리라고도 전한다. 장군이 날 만한 지형으로 실제 장군이 태어난 장소이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장군에 관한 일화가 전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 장군봉은 김덕령이 군사들을 훈련한 곳이라고도 한다. 김덕령이 어느 날 자신이 아끼는 말과 활쏘기 내기를 했는데, 말이 화살보다 늦은 것으로 오해하여 죽였다는 일화가 함께 전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장군봉은 종종 말무덤 유래담과 함께 전승된다.

변이 장군봉에 관한 설화는 이른바 장수 혹은 장군으로 불리는 가상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실존 인물인 특정 장군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전자의 부류 중에는 풍수설화의 성격이 강한 이야기도 있고, 장수설화나 영웅설화의 성격이 강한 이야기도 있다. 또한,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이 전승 지형도상의 인접성 때문에 절충하여 새로운 이야기 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후자의 부류는 다양한 유형의 역사인물담이나 장수 및 영웅설화들과 결합한다. 그밖에 장군이 날 지세를 설명하는 풍수설화나 명당을 둘러싼 다툼을 그리는 투묘설화, 일본 사람들이 장군 날 자리를 끊었다는 단혈설화 등이 전승되기도 한다.

분석 장수나 장군에 관한 지명 및 지형 유래설화는 구원의 주체로 등장할 누군가를 기다리는 미래지향적 소망을 드러내거나, 위기나 한계에 처한 현실의 결핍이 유래된 원인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사라진 장군의 자취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장군의 비극적 죽음을 환기하는 봉우리는 현재의 상실과 결핍을 상기시킨다. '장군이 날 봉우리'는 대지의 기운을 타고 큰 인물이 난다는 관념을 드러낸다. 이 때문에 장군봉에 얽힌 이야기는 곧잘 단혈설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단혈설화는 민족적 자의식과 정체감을 표현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의의 연행 및 전승 주체에게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산이나 바위는 구전설화에서 종종 장수나 장사의 탄생과 연관 있는 곳으로 서술된다. 〈장군봉전설〉은 현재 장군의 부재를 설명하거나 장군이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역사적 인물에 연계된 이야기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장군에 관한 설화로 전승되는 예가 많은데, 대체로 〈말무덤전설〉과 함께 연행된다. '말무덤'의 유래를 설명하는 이 전설은 주로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성격적 결함이나 한계를 표상하는 기능을 한다. 말을 죽인 장수의 성급한 판단과 행동이 비극적 죽음의 원인이 되는 성격적 결함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오뉘힘내기〉 등의 이야기와 함께 전승되기도 한다.

출처 금산면의 구비문학(박성석, 경남문화연구13, 경남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9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2, 96.

참고문헌 마을지형 및 지명유래담의 공동체 구성력 탐구(김영희, 비교민속학46,

비교민속학회, 2011),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강현모,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필자 김영희(金昤希)

전설

장군수

將軍水

정의 물을 마시면 사람의 힘이 세어지고 능력이 커진다는 샘물이나 우물물에 관한 설화.

줄거리 〈장군수(將軍水)〉에 관한 이야기는 세 가지 유형이 전해 온다. 첫째, 수수께끼를 풀어 장군수를 마시고 아내를 찾은 사람의 유형이다. 도둑이 아내를 빼앗아 가며 수수께끼를 내자, 남편은 아내를 찾기 위해 전국에 돌아다니며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어린아이가 수수께끼를 풀어주어 아내를 찾아갔다. 한편, 부인은 힘센 도적에게 남편을 사촌 동생이라고 속인 뒤, 곳간의 칼을 마음대로 움직일 때까지 장군수를 먹였다. 그리고 도적에게 독주를 먹인 뒤, 남편에게 칼로 도둑의 목을 치게 하였다. 도둑의 목이 다시 붙자 아내는 재를 뿌려 죽이고, 도둑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 잘살았다. 둘째, 장군수를 마시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중을 퇴치한 사람의 유형이다. 어느 힘센 중들이 여자들을 겁탈하거나 민간인에게 행패를 부렸다. 한 사람이 중들이 절에 있는 우물물을 마셔 힘이 센 것을 알고 자기도 마시려 하였다. 그러나 우물을 덮은 돌을 들 수가 없어 빨대로 마시자 힘이 생겼다. 그 사람은 물을 실컷 마셔 힘을 키운 뒤, 우물을 막고 중들을 죽여 절이 망하게 하였다. 셋째, 장군수를 마신 동자승의 유형은, 동자승이 매일 새벽에 샘물을 마시자 점점 힘이 세졌다. 장수가 나면 삼족을 멸하기 때문에 노승은 동자승의 양팔 근육을 끊어 힘을 못 쓰게 하고 우물을 돌로 메웠다.

변이 첫째 유형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이다. 여기서는 도둑이 사는 곳을 원님놀이를 하던 아이나 엄마의 등에 업힌 아이가 알려 주기도 한다. 또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 방향을 지시하거나, 내외가 모르고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아내가 도적과 눈이 맞아 남편을 배신하는 이야기도 있다. 둘째 유형은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거나, 힘이 세진 주인공이 글공부를 하지 않자 부모가 혼내려다가 그가 잡아온 짐승을 보고 그만두기도 한다. 또 밥만 먹는 식통장군으로 행세하며 장군수를 먹은 중을 퇴치할 때는 중들과의 경쟁담이 삽입되는 예도 있다. 그 밖에도 장수들이 성장기에 힘과 탁월한 능력을 과시하는 장군수 마시기 삽화(揷話)가 나타나기도 한다.

분석 힘이 세지는 장군수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한계를 보여준다. 장군수를 발견하여 물을 마시고 힘을 길러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중이나 천민(백정)이 우물물이나 샘물을 먹고 장수가 되자, 우물을 막아 장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한계를 보여 준다. 천민들은 장군수로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려 하고, 집권세력은 장군수를 폐쇄하여 새로 등장하는 인물을 봉쇄하려 하였다.

의의 〈장군수〉는 물의 생생력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배가시킴을 보여 준다. 이는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풍수지리와 같은 비일상적인 방법을 통해 극복하려는 민중의 의식과 통한다.

출처 무주의 구비설화와 민요(김용덕·강현모, 무주문화원, 2006), 부여의 구비설화1·2(김균태·강현모, 보경문화사, 199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92; 2-8, 172; 7-6, 116.

참고문헌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강현모,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필자 강현모(姜賢模)

전설

장보고

張保皐

정의 통일신라 말기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에 관한 설화.

줄거리 완도 장좌리 장보고당제 유래전설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까투리섬〉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엄 장군과 장 장군이 있었다. 엄 장군은 완도읍 가용리 엄나무골에서 살았고 장 장군은 완도읍 장좌리 안의 장도에 살았다. 이들 두 사람은 재주와 도술이 서로 엇비슷하여 이따금 내기를 즐기기도 하였다. 하루는 엄 장군이 장도에서 건너다보이는 동쪽 까투리여(섬)에 해 뜨는 시각을 기하여 누가 먼저 기를 꽂나 내기를 하자고 했다. 장 장군은 해 뜨기 전 까투리로 변신해 섬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마음이 음흉한 엄 장군이 매로 변신해 까투리로 변한 장 장군을 잡아먹고 말았다. 지금도 고금면 상정리 서쪽 바다에 있는 이 섬은 '까투리여', '까튼여' 또는 '같은여'라고 불리고 있다. 장도에는 장보고가 쌓았다는 토성의 유래전설도 남아 있다.

분석 이것은 통일신라 말기 진골 귀족들의 왕권 다툼이 격렬해짐에 따라 약화된 중앙정부의 틈새를 비집고 청해진 세력을 기반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려 하였으나, 기득권 세력에 의해 패배한 장보고와 관련하여 완도를 포함한 서남해안 지역에 전승되는 설화이다.

장좌리 장도에 거점을 둔 장 장군이 엄 장군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는 줄거리는 염장에 의해 살해당한 장보고의 최후를 상기시킨다. 염장의 변신체는 매로 나타나며, 이 매는 장보고의 변신체인 까투리의 포식자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까투리와 매의 대립 항은 역사적 인물인 장보고와 염장 사이의 정치적 맥락과 연결된다. 포식관계에서 약자인 까투리는 신라 골품사회에서 최하부에 위치했던 장보고의 정치적 소외를 상징하며, 매는 왕을 정점으로 한 진골 세력의 기득권을 의미한다. 까투리란 설화적 상징 속에는 지배 권력의 희생양으로서의 장보고에 대한 설화 담당층의 인식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특징 장좌리 장도 인근의 공존할 수 없는 두 토착 해양 세력이 힘 대결을 벌이다 한쪽이 패망하며, 그 배경이 까투리섬이라는 점에서 〈장보고전설〉 속의 까투리섬 유래전설은 장좌리 장도 송징당제 유래전설과 동일한 서사 원리로 되어 있다. 동일한 서사구조가 각기 다른 인물전설과 결합하여 지명과 신앙 유래전설로 각각 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신화적 세계관과 미의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보고전설〉의 하위 유형인 까투리섬의 지명유래전설이 장좌리 장도의 당제 유래전설로 존재하는 〈송징전설〉보다 신화적인 친연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텍스트로서 더 오랜 시원을 보여 준다.

출처 완도군지(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 1992), 완도향교지(완도향교지편찬위원회, 1980).

참고문헌 장보고 구비전설에 나타난 인물형상화 방식과 기술태도에 관한 연구(권도경, 온지논총14, 온지학회, 2006), 장보고 구비전승의 변동 단계와 그 현재적 맥락(권도경, 신라문화2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7), 장보고의 설화화 과정과 그 양상(진영미, 수선논집15, 성균관대학교, 1990), 장보고전설과 송징전설의 관계도 규명 및 장보고 구비전승의 한 맥락 고찰(권도경, 한국학술정보, 2007), 장좌리 장도 당제 유래전설과 장보고전설의 상관성 및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권도경, 청소년과 효문화8,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06).

필자 권도경(權都京)

전설

장수바위

정의 옛날 살았던 장수가 남겨 놓은 흔적이 전하는 바위에 관한 설화.

줄거리 옛날 어떤 고장에 힘센 장수가 살았는데, 장수의 발자국이나 손자국, 타던 말발굽 자국이 바위에 남아 있다고 한다. 또 장수가 큰 바위를 옮겼거나 무거운 돌을 던지고 놀았다는 단편적 이야기도 있다. 한편 장수바위는 옛날 평민의 집에 힘센 아기가 태어나면 역적이 될까 두려워 죽여서 묻은 곳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오뉘산성〉에 나오는 오뉘힘내기에서 힘센 남동생이 서울에 다녀오는 동안 누이가 쌓던 성터의 바위가 바로 장수이다.

변이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의 장수바위는 그릇된 장수가 개심하도록 가르치는 구실을 하며, 〈농바위전설〉은 장군의 출현 시기에 대해 인식 차이를 보인다. 무주읍 오산리, 적상면 괴목리와 사산리의 장도바위는 최영 장군이 바위를 칼로 베어 잘랐다고 하고,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에서는 영규대사가 창으로 바위를 잘랐다는 창바위전설이 전한다. 또 어느 장수가 양쪽에 있는 바위를 건너뛰었다는 전설도 있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는 장사가 치마에 싸서 갖다 놓은 바위가 서너 마지기가 되었다고 한다.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의 장수바위는 장군이 부하들과 도읍지를 정하려는데, 서울이 먼저 정해지자 화가 나서 흔적을 남긴 바위이다. 〈오뉘힘내기〉에서 오누이 대신에 남자 장수와 여자 장수가 등장하는 장수바위도 있다.

분석 〈장수바위〉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전승되는 지명유래담에 속한다.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산성의 성벽에는 백제의 장수 발자국이 남아 있다. 이처럼 전국에 장군이나 장수가 행동한 결과가 바위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농바위전설〉은 어떤 시기가 되면 장수가 넣어 두었던 문서와 갑옷을 꺼내 입고 나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부여군 홍산면 일대에는 이몽학이 성장기에 큰 돌을 오 리 밖으로 던졌다는 바위가 있고, 금산군에는 장사들이 정상에서 공기놀이하던 큰 바위들을 나무꾼들이 아래로 굴러 하천변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장수들이 오줌을 누어 파인 자국이나 손톱으로 쓴 글자가 남아 있다는 바위도 있다.

의의 〈장수바위설화〉는 일상의 평범함을 극복하는 초월심리

가 작용한 것이고, 이상적인 세상을 실현할 힘과 지략을 지닌 장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민중의 영웅 기대심리를 보여 준다. 이런 기대심리를 변하지 않는 전승물인 바위에 의탁한 것은 영원히 지속하기를 바라는 의식의 표출이다.

출처 무주의 구비설화와 민요1-3(김용덕·강현모, 무주문화원, 2006), 버드내 유역의 구비설화(김균태·강현모, 금산문화원, 2007), 용인 동부(북부)지역의 구비전승(박종수·강현모, 용인문화원, 199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8, 474; 6-1, 634; 8-1, 204.

참고문헌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강현모,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필자 강현모(姜賢模)

민담

장승재판

정의 소화(笑話) 중 지략담(智略譚)에 속하며, 지혜로운 원님이 장승에게 죄를 물어 도둑을 잡는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장승을 취재하여 범인을 가려낸다는 내용의 이 설화는 『효빈잡기(效嚬雜記)』에 처음 보인다. 종이를 도둑맞은 종이 장수가 현감에게 호소하여 종이를 찾는다는 내용의 이 설화는 임진왜란 무렵 중국 병사로부터 전래한 것으로, 『포공기안(包公奇案)』에 나오는 〈돌비석 치죄 이야기〉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 후기 『매옹한록(梅翁閑錄)』, 『기문총화(記聞叢話)』에는 주인공이 정효성(鄭孝成)으로 되어 있고, 이후 '읍의 관장'으로 나타난다. 이 설화는 19세기 중반 『청구야담(靑丘野談)』에서 이지광(李趾光) 관련 설화로 다시 한 번 변이를 거치는데, 이 유형은 『한거잡록(閑居雜錄)』과 『아동기문』에 실려 있다. 한편, 『동야휘집(東野彙輯)』에는 재판관이 류성룡(柳成龍)으로 되어 있고 지역도 호남으로 바뀌어 있으며, 『성수패설(醒睡稗說)』에는 '호남의 어떤 관장'으로 나타난다. 『계압만록(鷄鴨漫錄)』과 『송천필담(松泉筆談)』에는 재판관이 이유민(李裕民)으로 되어 있다.

줄거리 종이(또는 비단)장수가 종이를 잃고 관가에 가서 찾아 달라고 한다. 원님이 행차 나가 보니 종이를 잃은 곳에 장승(또는 돌부처)이 서 있는데, 무엄하게도 눈을 부릅뜨고 있어 관원들에게 장승을 가져와 가두고 밤새워 지키게 한다. 그런데 살펴보니 관원들이 아무도 지키지 않자 이에 원님은 관원들에게 죄를 물어 벌금으로 종이를 바치게 한다. 원님은 관원들이 바친 종이 가운데 도둑맞은 종이를 발견하고 그 출처를 조사하여 도둑을 잡는다.

분석 구전설화의 내용은 『청구야담』에 실린 마지막 변이 유형과 거의 유사하다. 잃어버린 물건이 종이나 비단으로 바뀌거나 치죄의 대상이 장승, 돌부처, 돌하르방으로 바뀌는 정도이다.

장승이 등장하는 설화는 애초에 장승의 신성한 힘이 강조되는 예가 많았다. 그런데 이 설화에 와서는 관리의 지혜나 합리적 재판 방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이되어 장승은 작품의 화소 정도로만 남았다.

특징 이 설화는 유교 이념을 실현하는 원님의 합리적인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여 사회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 靑丘野談, 效嚬雜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6, 732; 2-1, 256; 6-2, 442.

참고문헌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명관의 치장승설화 비교연구(김현룡, 국어국문학71, 국어국문학회, 1976), 공안설화의 연구(강현모,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필자 강성숙(姜盛淑)

민담

장인 버릇 고친 사위

정의 지혜로운 아이가 도둑질하는 장인의 버릇을 고친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놀부같이 잘사는 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도둑질 잘하는 사위를 얻고자 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아이가 그 사람의 버릇을 고치고자 사위가 되었다. 아이는 부자와 짜고 부잣집에 가서 도둑질이 끝날 무렵 부자에게 장인의 뒷발목을 잡게 했다. 부자가 도둑 장인과 사위를 관가에 넘겼다. 관가에서 사위는 장인이 살기 넉넉한데도 도둑질을 하니 버릇을 고쳐 달라고 하였다. 장인을 가마솥 안에 넣고 물을 붓고 불을 때니 장인의 코에서 쥐가 세 마리가 빠져나왔다. 그 뒤로 장인은 변소에 가기도 무서워했다(장인은 코에 쥐가 들어서 쥐처럼 도둑질을 했던 것이다).

변이 앞 부분에 장인이 될 사람이 도둑질해 간 소 값을 어린 아이가 지혜로 찾아내는 이야기가 있는 유형이 있다. 도둑 장인은 어린아이의 지혜를 보고 함께 도둑질을 하고자 한다. 같은 모티프를 가진 이야기 중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도둑 버릇을 고친 각편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아이가 지혜를 써서 어른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유형이다. 비슷한 유형으로 아버지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등이 있다. 아지담에서는 사회의 모순과 함께 인간성의 모순을 고발한다. 이는 악의 개선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아지담은 궁극적으로 선을 지향한다. 이는 아이의 지혜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꾀를 사용하는 봉이 김선달 같은 인물들의 기지와는 차별되는 지점이다. 아이의 지혜는 억울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약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휘된다. 특히 도둑질하는 장인이나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치는 이야기에서는 어린 사람이 어른의 잘못된 버릇을 고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도덕적 차원에서 어른을 앞서는 아이가 지혜를 써서 어른들의 잘못을 개선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선지향성이 뚜렷하며, 민담의 세계관을 적극 반영한다.

특징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을 고쳐 주는 이야기이다. 보통 어른이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쳐 준다. 아이가 어른의 잘못을 고쳐 주는 이야기는 일상의 파격과 동시에 아이의 지적 우월성이 두드러진다. 장인의 버릇을 고쳐 주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버릇을 고쳐 주는 이야기와 유사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부장적 질서에서 한 가정의 절대 권력자인 가장의 윤리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아버지 부재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설화에서 사위는 윤리 면에서 장인보다 우위에 있다. 사위는 장인의 잘못을 직선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교정한다. 문제를 정면이 아닌 우회적으로 해결하여, 결국 원하는 목적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위의 우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1, 62; 6-2, 670; 675.

참고문헌 아이지혜담에 나타난 부자간의 관계와 그 의미(이성희,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아이지혜담 연구(이성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악자가 강자를 이기는 지혜대결담 연구(정윤숙,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어른과 아이의 지혜대결담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전은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지혜담 연구(오영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필자 이성희(李聖熙)

전설

장자못

정의 시주 온 도승을 박대했다가 집터가 못이 되어 패망한 장자(長者)와 도승이 말한 금기를 위반하여 돌이 된 며느리에 관한 전설.

역사 제주도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를 비롯하여 몇 지역의 서사무가에 〈장자못전설〉의 모티프와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비록 서사무가의 형성에 관한 기록은 부재하더라도 제의에서 구송된 신화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 전설의 역사를 상당히 위로 소급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줄거리 삼대 만석꾼이었던 강원도 황부자는 중이 시주를 오면 바랑에 쇠거름을 가득 채워 중의 등에 지우고 대문간에 매달아두는 등 행악이 심했다. 주지승이 가니 늙은 중이라며 더욱 심하게 대했다. 장자의 맏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워 용서를 구하고 시아버지 몰래 쌀을 시주했다. 주지승이 그녀에게 살려거든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며느리는 아기를 업고 따라나서다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며느리는 아기를 업은 상태로 그 자리에서 돌로 변하였다. 그 바위가 지금도 남아있다. 황부자의 집터는 황지(黃池)가 되었다. 물 속에 묻힌 황부자 집 대들보가 지금도 보인다.

변이 〈장자못전설〉은 전국적으로 광포하는 유형으로, 강원도 태백산의 황지 외에도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의 의림지,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의 경포호 등이 장자못으로 알려졌다. 제



장자못 모자동상
강원 태백시 황지동, 국립민속박물관

천 의림지의 〈장자못전설〉에서는 도승을 따라나선 임산부 며느리가 살아남는다. 경포호 전설에서는 선행을 베푼 존재가 며느리가 아니라 장자의 종으로 나타난다. 또한 귀래리 〈장자못전설〉처럼 돌이 된 며느리를 서낭으로, 또는 경상북도 의령군 정곡면 북실 〈장자못전설〉처럼 돌이 된 며느리를 기자석으로 섬겼다는 변이도 나타난다. 비록 금기를 위반했지만 선량한 며느리를 돌로 변하게 한 결말에 대한 화중의 의문이 이런 변이를 낳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자가 구렁이로 변하여 장자못 속에 살고 있다는 변이도 있다.

돌이 된 며느리 부분이 빠지고 장자못 부분만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징벌과 패망이 '권선징악'의 주제로 집약되면서 유형 차원의 변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 예를 들면, 인색한 장자에게 학대를 당한 중 또는 하인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서 그 부잣집의 발복의 근원인 혈을 자르게 하였는데, 부자가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대로 따랐다가 패망을 자초했다는 내용이다. 풍수지리설을 징벌의 수단으로 이용한 변이형이다.

분석 〈장자못전설〉은 시주 온 도승에게 거름을 퍼 준 장자가 징치를 당하는 삽화와, 장자 대신 시주를 하였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도승의 금기를 위반한 며느리가 돌로 변하는 삽화가 겹쳐 있다. 집터 함몰로 장자를 징치하는 범상치 않은 행위를 보면 도승은 신이거나 신적인 존재이다. 그에 대해서 장자와 며느리는 각각 선과 악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도승이 장자의 집터를 못으로 만든 것은 장자의 악행에 대한 당연한 징벌이지만, 선한 행위를 한 며느리마저 돌로 변하게 한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는 갖가지 해석이 이루어졌다. 며느리의 화석화는 이 전설의 주제를 권선징악의 윤리관으로만 읽을 수 없게 하는 부분이다. 화중도 며느리의 '고개돌림', 곧 금기의 위반을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며느리의 화석화에 대해서는 초월적 신의 세계를 지향하지만 결코 이를 수 없는 인간적 삶의 한계상황[강진옥], 또는 신이 설정한 운명의 덫에 대한 인간적 회의와 항변[천혜숙, 김선자]을 표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한 연구는[신동흔] 도승이 준 금기를, 인간이 이편의 삶에서 저편의 새로운 삶으로 또는 과거의 삶에서 미래의 삶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계시로 읽기도 했다. 그렇게 본다면 며느리의 금기 위반과 화석화는 결국 과거적 삶의 함정에 붙잡혀 좌절하고 만 결과가 된다. 변이형이나 각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의미층위가 이토록 다양하다.

특징 〈장자못전설〉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징벌로 마을이 함몰된 내용을 담고 있는 광포형 전설과 비교될 만하다. 다만 광포형은 장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타락이 문제되는 점, 선의 세계를 상징하는 노파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점, 금기와 위반의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또한 〈장자못전설〉은 『구약성서』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도 유사하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징벌의 수단이 불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타락한 인간과 도시에 대한 신의 징벌을 다룬 점에서 유사한 주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는 금기를 어겨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도 같은 금기 위반으로 돌이 된 장자의 며느리와 흡사한 모습이다.

의의 악행의 징치로 인한 집/마을의 함몰을 다룬 이야기는 중국설화의 전통에서도 풍부하게 나타난다. 인간의 '변신'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도 전세계적으로 확인되는 모티프들이다. 따라서 〈장자못전설〉은 한국 설화의 세계적 보편성을 확인하게 해 주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전승과정에서 생성된 풍부하고 다양한 변이형들을 통해서 신적 질서와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민중적 인식의 다양한 층위를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전설은 고소설 〈옹고집전〉뿐 아니라, 현대소설 『인간문제』(강경애), 『돌』(한무숙)에도 수용되고 있어서 설화의 소설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8, 554: 8-11, 631.

참고문헌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강진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금기와 위반의 심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김선자, 중국어문학논집 11, 1999), 설화의 금기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신동흔,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천혜숙,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필자 천혜숙(千惠淑)

신화

장자풀이

정의 호남 씻김굿의 〈고풀이〉에서 주로 구송되며 저승을 속이는 장자의 이야기를 다룬 무속신화.

줄거리 1. 사마장자가 인색하고 조상 대접도 잘 하지 않는다 : 사마장자의 인색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삽화로, 〈장자못전설〉 삽화와 유사한 내용이다. 스님이 시주를 왔을 때 장자는 쪽박을 깨며 행패를 부리지만 며느리가 스님을 후하게 대접한다. 이본에 따라서는 장자가 문복(問卜)을 갔을 때 점쟁이가 장자의 잘못을 나열하며 죗값을 받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2. 사마장자가 죽을 꿈을 꾼다 : 숟가락이 부러지거나 밥상이 내려앉는 등의 예조가 있다. 사마장자는 가족에게 해몽을 구하지만 가족들은 엉뚱하게 해몽하고 며느리만 죽을 꿈임을 알아차린다.

3. 문복을 한 사마장자는 선행을 행하고 저승사자 대접할 준비를 한다 : 점쟁이의 말에 따라 사마장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등 선행을 행한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굿을 하면서 저승사자 대접할 준비를 한다.

4. 사마장자가 죽음을 모면한다. 또는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다 : 앞의 3단락까지는 모든 이본에 공통되는 단락이다. 결말 부분에 오면서 사마장자가 죽음을 모면하거나 결국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는 두 계통으로 나뉜다. 첫째 계통은 사마장자가 대비를 한 결과 저승사자의 도움으로 다른 존재, 예를 들면 이름이 같은 우마장자, 나이가 같은 동갑 장자, 집에서 키우는 말 등을 대신 잡혀가게 하고 목숨을 이어가 잘 살았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연명담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저승을 속이는 내용 없이 곧장 저승사자로부터 용서받아 잘 살게 되었다는 연명담이 보이기도 한다. 둘째 계통은 사마장자가 여러 가지 계책을 세우고 저승사자의 도움을 얻어 다른 존재를 대신 잡혀가게 하지만 결국은 발각되어 저승에 잡혀가 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는 사후담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장자풀이〉 무가는 핵심적인 내용이 사마장자의 연명 기도와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변이 〈장자풀이〉 무가는 먼저 이름에서 두 계통으로 나뉜다. 사마장자가 저승사자와 함께 저승을 속이는 내용이 없이 곧장 용서받고 잘 산다는 내용은 전라남도 지역에 주로 전하는 이본들로 제목이 〈고풀이〉이다. 반면에 저승사자와 함께 저승을 속이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대부분 〈장자풀이〉라고 되어 있으며 주로 전라북도 지역에 전승된다. 각 이본 간에 편차는 거의 없어 저승을 속이는 회수에서만 차이가 보인다.

고창, 군산, 부안, 정읍 등 전북에서 조사된 것은 저승을 두 번 속이는 이본들이다. 사마장자 대신 우마장자가 잡혀갔는데 다시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자, 이번에는 집에서 키우는 말을 대신 잡아가게 한다. 충청남도 부여에서는 우마장자가 대신 잡혀가고 전남 화순이나 보성, 전북 정읍에서는 말이 대신 잡혀가는데, 이들은 모두 속이는 횟수가 한 번만 나타난다.

분석 〈장자풀이〉는 1966년 처음 채록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채록, 보고되고 있다. 〈북두칠성과 단명소년〉·〈삼천갑자 동방삭〉 등의 연명설화와도 의미가 상통하고, 함경도의 무속신화 〈황천혼시〉·〈혼쉬굿〉, 제주도의 무속신화 〈맹감본풀이〉와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 동일 유형으로 보기도 하지만 내용은 다르다. 현재까지 채록된 이본 간에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주인공이 사마장자, 삼화장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인공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사람도 화순에서 조사된 이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며느리이다. 일단 등장인물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은, 같은 연명담인 함경남도 함흥의 〈황천혼시〉, 제주도의 〈맹감본풀이〉, 경상북도 군위의 〈해원풀이〉와 구별된다. 이들은 모두 저승사자에게 빌어서 목숨을 이었다는 공통 내용을 담고 있지만, 등장인물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고 서사 단락의 구조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여서 다른 유형으로 취급된다. 〈장자풀이〉 무가의 바탕에는 다분히 현실적인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다. 사마장자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저승을 속이고 목숨을 이어가는 것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저승의 세계로 가는 죽음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꺼리는 일이지만, 인간의 노력에 따라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인된다.

사마장자는 자신의 잘못이 많아서 재물을 나누어 주고 기민(饑民)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재물을 나누어 준다. 부안 지역에 전승되는 〈장자풀이〉에는 며느리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재물을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마장자의 목숨 이어가기를 위해서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정의감보다는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개인적인 욕망과 합리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특징 〈장자풀이〉 무가에는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저승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다. 사마장자가 저승사자에게 뇌물을 써서 연명하는 것도 그러하고, 죽을 사람이 아닌데도 엉뚱하게 대신 잡혀 오기도 한다. 심지어는 사마장자 대신 잡아간 우마장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저승사자들이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러한 인식의 밑바탕에는 운명도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한국인의 운명관이 들어 있다. 흔히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장자풀이〉 무가에서 운명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의 싸움에서도 스스로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운명가역론적(運命可易論的)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의의 〈장자풀이〉 무가를 통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거리감을 확인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음이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예고 없이 다가와 현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이별하게 하는 죽음은 혈육의 죽음으로 인해 그 공포가 배가된다. 〈장자풀이〉 무가를 통해서 죽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죽음 저편의 세계 또한 이승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자풀이〉 무가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다. 전남 해남에서 주평단 단골이 부른 〈장자풀이〉의 "세상에 옛날에 사마장자같이 죄목 죄단 많한 이도 인정으로 다리를 놓고 철약으로 목숨 천대해서 죽을 아부지를 살렸는디 오늘날에 아무 살먹은 대조가 어째 목숨 천대를 못해야."라는 부분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회한의 감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출처 군산 김봉순 구송 장자풀이(김성식, 전북의 무가, 전라북도립국악원, 2000), 부여 이어인연 구송 장자풀이(김태곤, 한국무가집1,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71).

참고문헌 무가문학 연구(이경엽, 박이정, 1998), 장자무가 연구(홍태한,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2002), 장자풀이(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전남 동부지역의 무가(임성래, 박이정, 2011).

필자 홍태한(洪泰漢)

용어

재담

才談

정의 익살을 부리며 재치 있게 하는 말이나 이야기.

내용 재담(才談)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문학 양식이나, 이것이 독자적인 형태로 본격화된 때는 근대전환기 무렵이다. 근대전환기에는 골계미를 드러내는 소화와 재담이 쌍벽을 이루며 존재하였다. 재담은 말재주를 통한 구비적 구술 방식으로, 소화는 매체에 기록된 형태를 읽는 방식으로 정착하였다. 재담이 공연의 형태로 등장한 것도, 소화가 신문 매체에 정착된 것도 이러한 토대에서 비롯된다. 특히 박춘재(朴春載, 1881~1948)는 재담으로 명성이 높았다. 박춘재가 구연한 재담을 수록한 유성기 음반이 남아 있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이후에는 『팔도재담집』이나 『익살과 재담』, 『십삼도재담집』 등과 같이 '재담'을 표제어로 내세운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했다.

필자 김준형(金埈亨)

민담

재복데기

정의 한 아이가 집을 떠나 남의집살이를 하면서 죽을 운명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의복과 퉁소를 얻어 성공한다는 내용의 환상적 민담.

줄거리 옛날에 한 아이가 계모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다. 백정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아이는 정승댁의 재복데기가 된다. 재복데기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사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물건(조끼와 퉁소)을 얻는다. 정승댁 식구들이 잔칫집에 간 사이 재복데기가 하늘을 나는 물건으로 잔칫집까지 날아간다. 사람들이 선관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서 재복데기를 극진히 대접한다. 정승의 막내딸이 선관에게 표식을 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온 후 재복데기가 선관임을 확인한다. 나라에 국상(國喪)이 나자 신하들은 짚으로 만든 종을 쳐서 종소리를 내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삼기로 한다. 재복데기가 짚으로 된 종을 치자 종소리가 나서 왕이 된다. 재복데기는 정승의 막내딸과 결혼한다.

변이 주인공이 집을 떠나는 이유는 호환이나 단명을 면하기 위해서인 예가 많고, 계모의 계략이나 집이 없어서인 예도 있다. 남의집살이를 하는 주인공의 호칭은 집안일, 부엌일과 관련되어 있다. 부엌에서 불 때고 재 퍼내는 아이 '재복데기', 마루 닦는 아이 '마리등이', 아궁이에 불 때는 아이 '아궁이지기', 두 언니가 신발을 벗어 아이의 머리를 치면서 놀렸다고 하여 '신바닥이'다. 재복데기가 조력자에게 얻은 신물(神物) 중 퉁소는 불면 하늘을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일을 척척 해결해 주기도 한다. 또 한쪽으로 불면 죽음을 면하고, 다른 한쪽으로 불면 임금님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등 기능이 다양하다. 막내딸이 선관이 재복데기임을 알아보고 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옷깃에다 핏방울을 묻히기도 하고, 두루마기 앞섶을 잘라 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재복데기가 막내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재복데기가 왕이 되는 서사가 첨가되기도 하고, 재복데기의 정체를 안 두 언니가 날아가는 막내를 질투하여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죽어서 버섯이 되었다는 내용의 〈지붕 위에 버섯이 피는 유래담〉으로 마무리되는 예도 있다.

분석 죽을 운명에 처한 주인공은 집을 떠나서 남의 집에서 부엌일, 집안일을 하는 재복데기가 되어 큰 시련을 겪는다. 운명을 두려워만 했다면 그것을 피할 길이 없었겠지만, 주인공은 시련을 받아들이고 견뎌 낸다. 이 시간은 과거 타율적인 삶이 소멸하고 정화되는 시간이다. 독립되고 자유로운 존재로 재생되고, 삶의 주체적 존재로 성장하는 통과의례이다. 신이한 물건인 의복, 퉁소, 부채는 우주와 통할 수 있는 자기 안의 영성적 에너지를 발현하고 통합시켜 주는 상징물이다. 재복데기가 왕이 되고, 상대방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막내딸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실현의 완성을 의미한다.

특징 〈재복데기〉는 서양의 재투성이 〈신데렐라〉의 남성형이라 할 수 있다. 계모의 핍박을 받고 재투성이로 남의집살이를 하는 인물은 남성이고, 재투성이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와 결혼하는 인물은 막내딸이다. 〈신데렐라〉는 마차, 마부, 드레스, 유리구두처럼 변신에 따른 환상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재복데기〉는 의복, 퉁소, 부채와 같은 신물의 기능에 따른 환상성이 부각된다.

출처 강원의 설화1(강원도, 200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486; 3-1, 564; 5-3, 422; 7-6, 701; 7-10, 475; 8-2, 331.

참고문헌 세계민담전집-한국(신동흔, 황금가지, 2003), 한국 민담에 나타난 샤머니즘적 모티프(나주연, 비교민속학37, 비교민속학회, 2008).

필자 박현숙(朴賢淑)

전설

재인폭포

才人瀑布

정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에 있는 재인폭포에 관한 전설.

줄거리 옛날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우연히 이 고을에 사는 재인(才人)의 아내를 발견하였다. 원님은 재인 아내의 미모에 반하여 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인의 아내는 "쉰네는 주인이 있는 아낙입니다." 하고 강력히 거절하였다. 색욕에 사로잡힌 원님이 "네 서방이 뭐하는 놈이냐?" 하고 물으니, 여인은 대답하기를 "이 고장에서는 제일 소문난 외줄타기 재인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답하였다. 이에 원님은 재인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차지하려는 생각으로 줄타기 대회를 열기로 하고, 재인을 죽이기 위해 밧줄에 칼집을 내서 폭포 위의 절벽에 매어 놓고는 줄을 타게 하였다. 재인이 떨어져서 죽으니 원님은 여인에게 "이제는 네 남편이 없으니, 나와 같이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는 강제로 수청을 들게 하였다. 재인의 아내는 원님의 강압을 이기지 못해 수청을 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원님이 밤에 범하려고 접근하자 원님의 코를 물어뜯고 자결하여 절개를 지켰다. 이 일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재인과 아내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폭포를 '재인폭포'라 하였고, 그들이 살던 마을은 '코문이'라고 하였다. 코문이는 다시 고문리(古文里)로 정착되었다.

변이 재인폭포란 이름은 줄타기 재인이 폭포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유래에서 비롯한 것이다. 여기에다 폭포의 소재지 고문리가 '코문이'로 구전되면서 두 개의 화소(話素)가 하나의 이야기로 정착되어 지금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분석 〈재인폭포전설〉은 〈춘향전〉, 〈도미의 처〉와 같은 전형적인 관탈민녀형의 이야기이다. 권력으로 여성을 빼앗으려는 권세가의 탐욕을 비판하는 내용이 〈재인폭포전설〉의 요점이다. 지체가 낮은 재인의 부인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탐욕스런 관리의 코를 물어뜯어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폭포의 이름을 '재인'이라 명명하는 한편, 관리의 코를 물어 저항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코문이'라는 지명이 하나의 전설로 구전되면서 이



재인폭포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010.5, 한국관광공사

설화의 주제의식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의의 폭포에 관한 전설은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재인폭포전설〉에서는 부패한 관리의 폭정과 천대받는 광대의 한이 당대의 실상을 풍자하는 듯이 생성되고 구전된다. 여기에다 재인 아내의 절개까지 부연하고 있어 교훈적인 기대치를 내포하고 있다. 위정자의 실정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는 한편, 천민층의 도적적 관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심리가 〈재인폭포전설〉의 전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출처 輿地圖書, 연천군지(연천군지편찬위원회, 연천군, 2000),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1995).

참고문헌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최래옥, 성산장덕순선생 화갑기념논총, 동화문화사, 1982).

필자 홍순석(洪順錫)

민담

재주 많은 의형제

정의 특이한 능력을 지닌 이들이 만나 의형제를 맺고, 그 능력을 발휘하여 모종의 일을 성사시킨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재주 있는 이들이 만나 의형제를 맺고 세상 구경에 나선다. 그러다 하룻밤 자는 사이에 적대적 인물들을 만나 목숨을 걸고 내기를 벌인다. 첫 번째는 새(풀더미) 많이 하기 내기이다. 두 번째는 산에서 구렁이(혹은 호랑이)를 누가 먼저 잡느냐는 내기이다. 의형제는 이 내기에서 가죽을 벗겨 주머니를 만들어 둔다. 세 번째는 보(洑) 쌓기 내기이다. 의형제는 강물 아래에 보를 쌓고, 적대적 인물들은 강물 위에 쌓는다. 내기에서 진 적대적 인물들은 쌓았던 보를 터트려 엄청난 물줄기를 내려 보낸다. 의형제는 이 물줄기를 두 번째 내기에서 만들었던 가죽 주머니로 담아낸다. 네 번째로 새 쌓기 내기를 벌인다. 첫 번째 내기에서 새를 베어 왔던 터라 적대적 인물들이 새를 던져 주면 의형제가 이를 받아서 높이 쌓는 것이다. 이 내기에서 진 적대적 인물들은 불을 지른다. 불이 붙자, 의형제는 가죽 주머니에 담아 놓은 물로 불을 끄거나 혹은 오줌을 누어 불을 껐다. 그리고 의형제는 콧김으로 바람을 불어 그 물을 얼려 적대적 인물들을 얼음 속에 가둬 죽이면서 끝난다.

변이 등장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른 여러 유형의 변이가 있다. 등장인물의 능력에 맞는 과제가 부여되고 이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우선 돌 구두나 무쇠 구두를 신고 다니는 힘이 센 장사가 있다. 두 번째는 콧바람으로 서 있는 나무를 눕혔다 세웠다 할 수 있는 콧바람이 센 사람이다. 세 번째는 오줌을 누어 강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변이형으로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네 번째는 배와 황소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는 비와 눈을 오게 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한 발로 걷는 사람이다. 두 발로 걸으면 너무 빨리 걷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바위에 귀를 대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분석 〈지하국대적퇴치설화〉처럼 주인공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적대자를 물리친 다음, 혼인에 이르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보여 준다. 더불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조력자가 등장하고, 적대자는 대부분 호랑이로 나타난다. 호랑이가 갖고 있는 맹수성에 주목하고, 〈금강산 호랑이설화〉처럼 '고래배'로 기능하는 호랑이의 집이 그려진다. 이 설화에서 호랑이는 결국 극복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의의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이들이 적대적 인물들과 대결하여 적대적 인물들을 제거한다. 이는 적대적 인물들이 표상하는 부정과 악함을 시원하게 말소하려는 민중의 염원이 담겨 있다. 보통 민담의 주인공들은 이름이 없으나 등장인물들이 각자 주어진 능력과 결부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또한 건국신화에서부터 비롯한 '영웅의 일대기' 유형으로, 오늘날 다양한 유형의 영웅담과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되는 민담이라는 가치를 가진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16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84; 2, 94.

참고문헌 외쪽이설화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에 보이는 자아의 자기실현 양상(신연우, 열상고전연구15, 열상고전연구회, 2002).

필자 이한길(李漢吉)

민담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정의 저승사자의 실수로 죽을 때가 아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이 설화는 크게 '저승 구경하기'형과 '천생연분 맺기'형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저승 구경하기'형 설화의 하나인 〈저승 구경 갔다 온 사람〉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죽어서 저승에 간다. 염라대왕이 명부를 보고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한다. 젊은이는 염라대왕의 배려로 저승 구경을 하고,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하던 안 노인은 젊은이에게 한 노인을 찾아가 법화경을 읽게 하여 자신을 구제해 달라고 부탁한다. 젊은이는 염라대왕이 준 강아지를 앞세우고 이승으로 돌아오고, 저승에서 부탁받은 바를 그 노인에게 전한다. 노인은 점쟁이를 데려가서 경을 베낀다. 이때 한 사람이 오더니 안 노인이 극락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한다.

'천생연분 맺기'형 설화에 속하는 〈오대째 자손 없는 집안(저승서 맺은 연분)〉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정승 집안이 몇 대에 걸쳐 15살에 청혼하고 16살에 죽는 일이 거듭된다. 이 집안의 9대손이 장가드는 것을 거부하고 죽어서 저승에 간다. 9대손은 최 판관을 만나서 명부의 기록을 정정하게 한다. 이때,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처녀가 저승으로 잡혀 온 것을 보고, 9대손은 처녀를 살려달라고 청원한다. 저승에서는 소년의 청원을 들어주고, 소년은 처녀와 함께 이승으로 나온다. 소년은 처녀가 주고 간 초매고리를 증표 삼아 결혼해서 많은 자손을 퍼트린다.

분석 '저승 구경하기'형은 저승사자나 저승의 관리가 실수하여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가 이승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유형의 이야기이다. 저승의 경험담을 간략하게 구술한 설화가 있는가 하면, 〈저승 구경 갔다 온 사람〉처럼 저승의 심사 이후를 흥미롭게 꾸민 이야기도 전승된다. 이 설화는 생전에 쌓은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벌을 받는 동안 그 심성에 변화가 생기면 지옥을 벗어나 극락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설화 전승 집단의 사고를 반영한다. '천생연분 맺기'형은 저승에서 자신들의 사무 착오를 인지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유형이다. 저승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저승이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님을 보여준다. '천생연분 맺기'형의 설화는 이야기의 구성에서 다소간 차이를 찾을 수 있지만, '소년이 단명할 운명을 타고난 처녀를 살리고 그녀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특징 이 설화는 등장하는 사람이 저승을 경험하고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이승-저승-이승'의 순환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승과 저승을 단절된 세계가 아닌 상호 교류가 가능한 세계로 여긴 설화 전승 집단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109; 2-9, 76.

참고문헌 한국구전설화집10(최운식·최진형, 민속원, 2005), 한국문화상징사전(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동아출판사, 1992),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문화론(임동권, 집문당, 1989), 한국민속연구(박계홍, 형설출판사, 1973), 한국설화연구(이영수, 한국학술정보, 2008), 한국의 조상숭배(최길성, 예전사, 1986).

필자 이영수(李瑛洙)

민담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온 사람

정의 잘못 죽은 사람에게 예전(禮奠, 공물을 바치는 것)을 쓰고, 이승으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 온 사람〉 유형에 속하는 설화의 하나인 〈저승 갔다 와서 마음 고친 구두쇠〉의 줄거리다. 옛날 한 마을에 못사는 김 씨와 잘사는 박 씨가 살았다. 박 씨는 심한 구두쇠로 도척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박 씨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도 고작 짚단이나 주었다. 박 씨가 병들어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되었는데, 염라대왕이 아직 올 때가 안 되었다며 저승 구경을 시켜주었다. 구경하다 자기 창고엔 짚단 하나만 놓여 있는데, 못사는 김 씨의 창고엔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을 보고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이승으로 돌아온 박 씨는 착한 일을 하며 살다가 죽을 때에 도척이라는 소리를 면하게 되었다.

분석 저승의 착오로 엉뚱하게 죽은 것으로 판정이 나면 아무 조건 없이 이승으로 회귀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유형의 설화는 엉뚱하게 죽은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고 이승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저승의 재판관이 엉뚱하게 죽은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이승에서 올바르지 않게 살았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저승 갔다 와서 마음 고친 구두쇠〉는 착한 사람의 선행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부자인 박 씨에게 예전을 쓰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그의 저승 창고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한다. 박 씨는 "이거 참 내가 이승에서 암만 잘 살아도, 이 밑에 집에 사는 아무 거시기만 못하구나, 죽어지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이승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승의 풍요로운 삶이 저승에서 행복을, 이승의 빈곤이 저승에서 불행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승설화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특징 이 유형의 설화를 통해 설화 전승집단은 선행을 강조한다. 설화 전승집단이 생각하는 선행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다. 선행의 결과는 내세의 보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도둑소리를 듣던 구두쇠가 개과천선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 즉,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선행은 또 다른 사람의 선행으로 이어진다. 설화 전승집단은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선행이 내세에서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이승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됨을 역설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252; 6-6, 108; 7-3, 471.

참고문헌 저승설화의 전승양상에 관한 연구(이영수,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저승 재물 차용 설화 연구(최운식, 한국민속학11, 한국민속학회, 2000).

필자 이영수(李瑛洙)

민담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

정의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여 수명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은 크게 '북두칠성' 형과 '저승사자' 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북두칠성' 형은 단명할 운명을 타고난 아기가 북두칠성에게 인정(신에게 바치는 재물)을 바침으로써 수명을 연장한다는 이야기이다. 옛날 어느 집에 시주승이 찾아와 시주하는 열서너 살 먹은 아이의 관상을 보고 아무 때 호성(弧星)에 간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부모는 시주승에게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다. 그러자 호성이 드는 날 백화산이란 곳에 집을 짓고 온갖 음식을 차려놓은 뒤 아이를 홀로 남겨두라고 한다. 그날 밤 하얀 영감 셋이 들어와서는 아무 데 사는 아무개가 차려놨다고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 북두칠성은 음식 대접을 받은 대가로 옥황님이 관리하는 장부를 갖고 와서는 아이의 수명을 고쳐준다. 아이는 일혼한두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저승사자' 형은 저승사자에게 인정을 바치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이야기이다. 옛날 어느 동네에 '갑자'와 '소경'이 살았다. 갑자는 소경 몰래 물을 자기 논으로 끌어들인다. 소경이 점을 치고는 내일 모레 죽을 놈이기 때문에 갑자를 놔둔다고 하자 갑자가 소경에게 수명을 연장할 방도를 구한다. 소경은 떡과 돈, 신발을 준비해서 저승사자가 오는 길에 놓아두라고 지시한다. 새벽에 세 명의 저승사자가 와서 갑자가 차려 놓은 음식을 먹고 신을 나눠 신는다. 그러고 나서 갑자를 저승으로 데려가 염라대왕이 조는 틈을 타서 명부를 빼내 '열 십(十)' 자를 '일천 천(千)' 자로 바꾼다. 명부를 확인한 염라대왕은 갑자가 아직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상으로 돌려보낸다. 이 사람이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삭이다.

분석 '북두칠성' 형과 '저승사자' 형은 죽음을 관장하는 대상에게 인정을 바치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북두칠성' 형은 인정을 바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데 비해, '저승사자' 형은 먼저 저승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두칠성과 저승사자라는 직분상의 차이가 설화의 전개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징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북두칠성' 형은 '이승-이승'의 구조로 되어 있는 데 비해 '저승사자' 형은 '이승-저승-이승'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설화 전승집단이 저승에서도 이승과 마찬가지로 상하의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대상의 직분에 따라 과정이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8, 142; 8-6, 482.

참고문헌 저승설화의 전승양상과 현실주의적 성격(곽정식, 어문학101, 한국어문학회, 2008), 저승설화의 전승양상에 관한 연구(이영수,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한국민속연구(박계홍, 형설출판사, 1973), 한국속담의 근원설화(강재철, 백록출판사, 1980),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1996), 한국인의 저승사자와 환생이야기(이은봉, 한국종교연구2,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00).

필자 강재철(姜在哲)

민담

저승사자의 실수

정의 저승사자의 실수로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김용운이라는 사람이 병을 앓다가 죽었다. 김용운의 시체는 방에 있는데, 영혼은 굴레벙거지 쓴 놈이 꼭두잡이해 저승에 간다. 재판관이 굴레벙거지 쓴 놈에게 어디에 사는 김용운을 잡아왔느냐고 묻고는, 재판관은 사람을 잘못 잡아왔다고 한다. 김용운에게 너는 괜히 왔으니 냉큼 나가라고 해서 살아난다. 김용운은 아들을 시켜 전라도 무슨 면의 이장에게 김용운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낸다. 회답이 온 것을 보니, 자기가 살아 온 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분석 〈저승사자의 실수〉는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이 저승사자의 실수로 잘못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이다. 설화 전승집단이 사후 세계로 상정한 저승은 영육 분리의 이원적 사고를 토대로 한다. 영육 분리의 이원적 사고는 원시 신앙부터 오늘날 현대 종교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중추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의 신앙이나 장속(葬俗)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저승의 재판관은 저승사자에게 전라도 무슨 면에 사는 김용운을 잡아 오랬더니 엉뚱한 사람을 잡아왔다고 혼내고서는 잘못 죽은 김용운을 돌려보냈다. 이 설화에서 김용운을 잡아간 '굴레벙거지를 쓴 놈'은 저승사자이다. 이런 류의 설화에서는 저승의 재판관이 저승사자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바로 시정한다. 그리고 이승으로 되돌아온 사람은 본래의 삶을 회복한다. 이처럼 저승사자의 부주의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의해 저승의 실상이 전해진다. 엉뚱하게 죽었던 사람이 저승 구경을 하고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저승설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저승에서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그 결과, 저승에서 재판관과 저승사자가 주고받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징 이 설화를 통해 설화 전승집단이 죽음이 아닌 삶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생을 긍정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설화 전승집단의 의식에서 비롯된 다. 죽음을 부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것은 종교가 생기기 전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다.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저승이 아닌 이승에서의 삶을 선호한다. 만약 죽게 된다면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닌 먼 훗날의 어느 날이기를 염원한다. 이 설화처럼 저승설화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룬 이야기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설화 전승집단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저승임을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1, 413; 3-3, 793; 6-7, 264.

참고문헌 재생설화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영혼관과 내세관(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4), 한국의 민담(최운식, 시인사, 1988), 한국 설화문학 연구(장덕순, 박이정, 1995), 한국설화 연구(이영수, 한국학술정보, 2008), 한국인의 저승사자와 환생 이야기(이은봉, 한국종교연구2,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00).

필자 이영수(李瑛洙)

민담

저승에서 만난 배필

정의 저승에 가서 수명을 얻어 연명한다는 민담.

줄거리 죽어서 저승에 간 소년이 판관을 만나 왜 자기 집안의 남자들이 단명하게 되는지 그 내력을 캐묻는다. 저승의 재판관은 문서를 확인하고는 잘못을 시인하고 "칠팔십 세까지 살다가 오라."라고 한다. 이 소년은 또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처녀가 저승으로 잡혀 온 것을 보고 처녀를 살려 달라고 청원한다. 저승에서 소년의 청원을 들어 주고, 소년은 처녀와 함께 이승으로 온다. 처녀가 소년에게 자신이 사는 곳을 알려 주어 소년이 처녀를 찾아서 결혼하고 저승에서 말한 수명대로 오래 산다.

변이 이 이야기처럼 저승에 가서 수명을 연장하고 인연을 만나는 유형이 있고, 수명만 연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전자에 속하는 이야기 가운데에도 몇 가지 변이가 있다. 소년이 자신의 조상이 정해진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대신 처녀의 수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소년이 자신의 명을 처녀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기도 한다. 재판관이 소년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여기거나 그의 마음 씀씀이를 어여삐 여겨 두 명 모두 수명을 늘려 준다. 수명만 연장하는 유형에서는 저승의 일을 대신 봐 주고 수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고 수명을 연장하는 이야기도 있다. 대부분은 주인공이 소년이나 성인 남성인데, 아이를 둔 엄마로 설정된 각편도 있다.

분석 주인공들은 대부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저승설화와 연명담 가운데 일부로 연구되었다. 사람의 노력으로 천명을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이며 낙관적 세계관을 보여 준다. 또한 저승설화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저승을 구경하고 온다거나 저승사자의 실수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이야기와 달리 저승에서 주인공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징 이 설화는 운명담 가운데 운명이 실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이며 연명담에 속한다. 연명담은 대부분 이인(異人)이 등장해서 단명(短命)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데, 이 설화에서는 개인이 판관에게 적극 요청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수명을 늘린다.

의의 자력에 의한 연명담으로, 한국의 운명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고를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9, 76; 5-6, 360; 6-4, 114; 364; 6-6, 266; 633; 7-8, 993.

참고문헌 설화 속에 나타난 죽음과 그 극복 양상 연구(김나영, 돈암어문학10, 돈암어문학회, 1998), 연명설화의 변이양상과 운명의식(정재민,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저승설화의 전승양상에 관한 연구(이영수,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필자 류정월(柳正月)

용어

적강화소

謫降話素

정의 천상적 존재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화소.

내용 지상이 인간의 현실적, 경험적 세계라면 그 대칭선에 존재하는 하늘은 신성하며 초월적인 세계이다. 천상의 신성한 존재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며, 신성한 존재로 인해 인간 세상에 유익한 결과가 빚어진다. 많은 신화에서 주인공은 천상의 신성한 존재나 그 후예로서 인간 세상에 도래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우거나 인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군신화〉의 환웅, 〈북부여건국신화〉의 해모수, 〈신라건국신화〉의 박혁거세, 〈가야건국신화〉의 김수로 등이 대표적이다. 지상에서 활약하지만 본래 천상 출신이므로 이들은 지상의 인간과는 다른 능력과 자질을 보여 주어 이들의 신성성이 부각된다. 전설과 민담에서도 신선이나 선녀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설정이 종종 나타난다. 많은 고전소설에서 주인공들의 비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강화소(謫降話素)를 적극적으로 차용한다. 신화의 주인공처럼 인간 세상을 다스리거나 교화하는 등 특정한 목적이나 임무를 띠고 적강하는 경우도 있고, 소설의 주인공처럼 천상에서 잘못을 범해 인간 세상에 잠시 유배 오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 속 인물의 비범성과 신성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 방식이 바로 적강이라 하겠다.

필자 오세정(吳世晶)

용어

적대자

敵對者, Villain

정의 서사문학이나 극에서 주인공과 맞서서 싸우거나 경쟁하는 인물.

내용 서사문학이나 서사극에는 주역과 맞서는 상대역이 있다. 특히 희곡에서는 주인공이 갈등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갈등은 주역과 상대역의 다툼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주역에 대립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상대역이 적대자이다. 설화에서 적대자는 주인공과 싸우는 개인이나 집단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설이나 희곡에서 적대자는 인물이 아닌 사회 제도나 자연환경, 또는 주인공 자신의 또 다른 자아가 되기도 한다. 대체로 갈등은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구분된다. 외적 갈등의 적대자는 인물이나 악천후, 잘못된 사회 제도가 되지만 내적 갈등의 적대자는 주인공의 욕망이나 본능이 되기도 한다. 주인공의 행위는 내적 갈등의 결과로 결정되고 외적 갈등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적대자는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사랑 이야기의 적대자는 경쟁자이며 수도(修道) 이야기의 적대자는 자신의 본능적 자아이다. 영웅신화에 등장하는 적대자는 악룡(惡龍)과 같은 괴수가 많고, 〈지하국대적퇴치설화(地下國大賊退治說話)〉의 적대자는 대적(大賊)이나 악마, 또는 주인공을 배신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적대자는 주인공과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반대가 된다. 〈홍부이야기〉의 적대자는 놀부인데 여러 면에서 놀부는 홍부와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춘향이야기〉의 적대자는 변학도와 기녀를 천시하는 신분제 사회 제도나 춘향 자신의 열등한 신분이다. 이처럼 적대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필자 서대석(徐大錫)

전설

전봉준

全琫準

정의 전봉준(全琫準, 1855~1895)이 동학을 일으켜 싸우다 체포되어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의 전설.

줄거리 동학혁명의 선봉에 섰던 전봉준은 '녹두장군'이라고 불린다. 유명한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에 나오는 녹두꽃이 바로 전봉준이라고도 한다. 전봉준이 동학혁명을 도모한 까닭은 그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전라북도 고부군 향교의 장의(掌議)를 지낸 전창혁(全彰赫)이다. 당시 고부군 군수였던 조병갑의 폭정을 이기지 못하고 관청으로 항의하러 갔지만, 오히려 조병갑은 강제해산을 시켰고 그 와중에 전봉준의 아버지는 심한 매를 맞아 한 달 만에 죽고 말았다. 이에 전봉준은 참지 못하고 탐관오리들을 숙청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민란을 일으켰다. 십만 대군을 모집하여 호령하면서 관군을 물리쳤지만, 신무기를 앞세운 일본군과 합세한 관군에게 공주 우금치에서 패했다. 끝내는 순창군 쌍치면 금석리로 피신했는데 옛날 부하의 밀고로 체포되고 말았다. 금석리 오른쪽 산 이름이 계룡산이다. 붙잡히기 전 전봉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계룡산을 조심하라고 했지만, 전봉준은 충남의 계룡산으로 잘못 알아들어 그곳에서 체포되어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분석 전봉준은 동학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로 고부군 궁동면 양교리(현재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졌다. 35세 무렵인 1890년 동학에 입교하여 접주(接主)로서 손화중(孫華中), 김개남(金開南)과 친분을 쌓았고, 1894년 정월에 동학혁명을 일으켰다. 그해 12월 순창에 은신했지만, 1894년 12월 2일 밀고로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전봉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창의하였다는 전설과 그가 계룡산이라는 지명을 혼동해서 결국 체포되었다는 전설 두 편이 따로따로 전한다. 동학사상이 『정감록』과 관련되어 많은 설화화가 이루어진 데 비해 정작 〈전봉준전설〉은 크게 발전하지 않은 듯싶다.

특징 첫 번째 전설은 전봉준의 봉기를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서 일으킨 민란으로 규정한다. 공적 대의가 아니라 사적 원한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지금도 동학란과 동학혁명이라는 두 낱말이 각각 사용되고 있는데, 제보자나 문중에 따라 동학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은연중 드러나는 것이다. 그가 붙잡혀 죽음을 맞은 것은 부하의 배신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설에서는 지명과 관련지어 희석하고 있다. 꿈에 노인이 계룡산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계룡산이라는 이름은 충청도에도 있고 전북 순창에도 있어서 해몽을 잘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전환과는 달리 계룡산은 『정감록』에 새로 수도가 들어설 곳으로 암시된 곳이라는 점으로 볼 때, 『정감록』에 대한 불신이 전설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의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민요가 나올 정도로 전봉준에 대한 민중적 기대감은 컸으며, 외세에 대한 거부감도 컸다. 그러나 전설의 전승과정에서는 동학과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들의 참여가 많았기 때문인지 동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

출처 동학인물열전-전봉준(한겨레신문, 1994년 4월 5일),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3, 523; 5-7, 621.

참고문헌 녹두장군 전봉준(이이화, 중심, 2006), 이야기 동학농민전쟁(송기숙, 창작과비평사, 2001), 조선시대 철학사상(주칠성, 한국학술정보, 2005).

필자 나경수(羅景洙)

민담

전생 인연으로 부부된 사람

정의 전생의 인연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환생담(還生談) 성격의 설화.

줄거리 부잣집(정승 집) 부부가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사라진다. 남편이 부인을 찾아 방방곡곡 다니다가 깊은 산골에서 부인이 숯 굽는 총각과 사는 것을 보았다. 자신과 잘 살던 부인이 갑자기 집을 나가 숯 굽는 총각과 살며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남편은 그 이유를 궁금하게 여긴다. 돌아오던 길에 절에서 도사를 만나(혹은 혼자 참선으로 도통해서) 전생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 전생에 남편은 소금장수(혹은 중), 부인은 이, 숯 굽는 총각은 멧돼지였다. 하루는 소금장수(중)가 이를 잡았는데, 몸에서 나온 것이라 죽일 수가 없어 길에 떨쳐냈다. 그 이는 멧돼지에게 옮겨가서 살다 죽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부잣집 아들(혹은 정승), 부잣집 딸, 숯 굽는 총각으로 환생하였다. 전생의 인연으로 부잣집 딸과 부잣집 아들(정승)이 잠시 부부가 되었다가, 이가 멧돼지에게 가서 생을 마친 것처럼 부인이 숯 굽는 총각을 찾아가서 살게 된 것이다.

변이 남편이 현생에서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는 이유를 찾다가 전생의 인연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에 시간의 순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도치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과거(전생)에서 현재(현생)의 차례대로 진행되는 각편도 있다. 전생의 내력을 알게 되는 계기는 자신의 힘에 의한 것(도통)도 있고 다른 사람(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다. 전생에 중이었던 남편도 이후 다른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산다는 후일담이 첨부되기도 한다. 설화 〈내 복에 산다〉와 결합하여 전승하는

예도 있다. 또 남편이 우연히 머물게 된 집에서 자기 아내와 주인집 아들이 사통하는 것을 보고 아내를 버리고 길을 떠나는데, 나중에 도를 닦아 점을 쳐 보니 그 주인집 아들과 아내가 전생에 한 쌍의 노루 부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부부의 인연이 전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인연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한다. 그뿐 아니라 인연이 끊어지는 것 역시 모두 전생에 정해진 것이며, 현생에서 개인의 실수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 준다. 같은 맥락에서 외도하는 배우자에 대한 설화적 대처 방안의 하나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특징 환생담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환생하는 예와 동물에서 사람으로 환생하는 예가 있는데, 이 설화는 후자에 속한다. 부부 인연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 또한 환생의 이유 가운데에는 원한이나 복수를 위한 것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은혜를 갚기 위해 환생한다는 점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부부라는 인연의 깊이와 한계를 전생과의 관계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윤회 사상이 엿보인다.

의의 한국 설화에서는 매우 드물게도, 부부 인연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서 혹은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설화적 상상력을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7, 391; 7-9, 873; 7-13, 157; 7-15, 156; 8-13, 566.

참고문헌 바람난 배우자에 대한 설화 속 대응양상과 이를 활용한 문학치료적 설계(하은하, 고전문학과 교육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연극성 성격장애의 심층적 원인으로서의 연극성 서사(정운채, 고전문학과 교육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필자 류정월(柳正月)

전설

전설

傳說

정의 특정 시공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믿어지면서 증거물과 함께 널리 구전되어 온 설화의 한 갈래.

역사 삼국시대 전설(傳說)들이 기록된 『삼국사기(三國史記)』(1145)와 『삼국유사(三國遺事)』(1285)가 편찬된 것이 800여 년이나 되었다. 『구삼국사(舊三國史)』와 같은 더 이전의 문헌이 산실된 것을 고려하면 전설이 채록된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문헌으로,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의 왕족, 명장, 고승, 충신, 효자, 열녀 등에 대한 다양한 인물전설들을 담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해명태자와 호동왕자에 관한 전설은 세계의 횡포에 좌절하는 전설적 인간의 전형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전설사에서 의미있는 자료이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사찰이나 고승에 관한 전설들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전설의 다양한 면모가 기록되어 있다.

고려 전기의 인물전설은 『고려사(高麗史)』에서, 고려 후기의 인물 및 지명전설은 『파한집(破閑集)』이나 『보한집(補閑集)』과 같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지리지류가 간행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던 다양한 종류의 전설 자료들이 문헌에 대폭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시대에는 지명전설은 물론이고 역사적 인물전설, 유교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양산된 효자전설과 열녀전설들이 주를 이루었다. 조선 후기에 확산된 야담집의 편찬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계층의 인물전설들이 문헌에 오르게 된다. 그 외에 조선 후기 각 지역에서 간행된 읍지류에도 지역별로 전승된 인물전설들과 지명전설들이 대거 수록되었다.

내용 전설은 전승자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이야기이다. 전설의 사실은 구체적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실제로 일어난 일로 이야기된다. 이를테면 "옛날 숙종대왕 시절에 서울 남산골의 한 선비가..."로 시작되는 것이 전형적인 전설의 서두이다. 그리고 전설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담보한다. "…. 라는 전설이 있는데, 현재 누가 봐도 그 말이 그럴 듯하게 그래 생긴 산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결말에 제시된 증거물은 전설 내용의 사실적 근거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증거물이 상실되면 전설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전승도 약화된다.

그런데 전설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같은 못에서 벌어진 용 싸움을 어떤 사람은 처첩 간인 두 용의 싸움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두 용이 승천을 다투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증거물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랜 구전과정에서 그 사건에 대한 화중의 기억이 희미해졌거나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화중 가운데는 전설의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회의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연행 현장에서는 전설의 내용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잦다.

"가 보면 바위가 얽어서 그렇지 무슨 그럴 택이 있나? 전설이란 그런 것이여."

"사실로 봐서는 그 전설에 전해만 졌지, 실질적으로는 신빙성이 있는 전설로는 될 수 없습니다."

"전연 수긍이 가지 않는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 전설은 전설이니까."

전설에서 사실과 믿음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위의 언술들을 보더라도 전설을 이야기하는 화자들이 전설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 논쟁적 장르이다.

전설은 증거물의 성격상 대체로 지역적 범위에서 전승되는 것이 많다. 특정 지역이나 마을에 부착되어 지명, 지리적 특징, 풍속 습관 등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너무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거나, 어디서나 생겨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전승이 전국적인 범위로 나타나는 광포전설도 있다. 〈경주 최부자 전설〉은 최부잣집이 워낙 널리 알려진 부자여서 경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전파된 것인 데 비해서, 〈장자못전설〉은 못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생겨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원발생한 것이다. 전설은 이렇게 전승범위에 따라 지역전설과 광포전설로 나눌 수 있다.

이야기되는 대상에 따라서는 자연전설, 인문전설, 인물전설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지리상 특징, 자연현상, 동식물의 특수한 형상, 산이나 바위의 형상과 이름이 이루어지게 된 유래 등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전설이다. 인문전설은 정월 대보름 풍속이나 사찰, 비각, 성곽처럼 인간이 이루고 살아 온 문화나 인공물의 유래에 관한 전설이다. 인물전설의 범주는 영웅, 이인, 고승 등과 같이 역사적 실체를 가진 역사 인물과 아기장수나 힘내기한 오누이처럼 상상적 인물전설을 합한 것이다.

전설로 분류된 이야기들을 보면 단순한 설명에서부터 유기적 서사구조를 갖춘 것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나 담화형식의 편폭이 큰 편이다. 그러면서도 전설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 근거를 둔 것처럼 말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기 위한 전설 특유의 틀이 있다.

㉠ 자은면 중심부에 우뚝 솟은 높은 산이 있는데 이름을 두봉산이라고 한다.

㉡ 왜 두봉산이라고 했냐면, 옛날에 천지개벽이 되었을 때 바닷물이 밀려와서 모든 땅덩어리가 바닷물 속에 잠겼으나 그 두봉산의 꼭대기가 곡식을 되는 말[斗]만큼이나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말만큼 남았다고 해서 산이름을 두봉산이라 일컫게 되었다.

㉢ 지금도 산 중턱에 올라가 보면 조개껍질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두봉산〉 지명전설에서 ㉠은 대상의 제시, ㉡은 지명의 연유, ㉢은 증거물의 제시로 볼 수 있다. 다른 예로 〈여자는 남〉이란 전설은 풍수인 아버지가 자신의 장례 방법을 아들에게만 일러두었는데, 그것을 몰래 듣고 화가 난 어머니가 동네에다 발설하여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전설의 결말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머리를 묻었다는 동네우물이 증거물로 제시되면서, "그래서 여자는 남이다."라든지, "여자가 입을 함부로 놀려 그 집이 망했다."라는 내용의 논평이 붙는 경우가 많다. 많은 전설에서는 이처럼 ㉢의 증거물 제시부 다음에 화자가 요약과 논평을 덧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전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논평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처럼 전설은 ㉠화제-㉡연유-㉢증시(證示)-㉣논평의 틀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대상의 유래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설의 중심부로,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단순한 사실의 설명에서 그치기도 하고, 기승전결의 상상적 서사가 펼쳐지기도 한다.

전설은 특정 시공간의 증거물을 통해 사실임을 강조하는 점에서 역사와도 만나는 장르이다. 때로 기록된 역사를 보완하는 기능도 해 왔다. 문자가 정립되기 이전의 고대사 기록이 전설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사실도 전설의 역사 구술적 기능을 말해 준다. 그러나 전설의 언술은 사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경우가 더 많다. 역사적 인물에 관한 전설은 인물의 사실적 행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형상은 사실을 넘어선 상상이다. 호랑이로 변한 효자, 돌이 되는 며느리, 쌀 또는 술이 흐르는 바위의 형상도 다르지 않다. 〈아기장수전설〉의 내용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이다. 날개, 용마, 아기장수 등은 민중적 영웅에 대한 오랜 희구가 집약된 상징들이다. 그리고 이 전설의 비극적 결말에는 새로운 역사창조에 대한 민중적 희구가 좌절된 쓰라림이 서려 있다. 그러면서도 이 전설은 역사를 바꾸어 놓을 미래의 제세주(濟世主)에 대한 기대가 역설적으로 나타난 점에서, 사실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설의 역사성은 기록

된 역사를 반영하고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아기장수전설〉에서도 보듯이 전설 속의 인간은 대체로 예기치 않던 사태에 부딪혀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신화나 민담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신화의 주인공은 예기치 않던 사태에 부딪혀도 자신의 신이한 능력이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쉽게 극복하고, 민담의 주인공은 극히 일상적 평범한 인물이라도 낙천적인 성품이어서 그 사태를 쉽게 벗어난다. 그런데 전설의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타고 났으나 현실의 제약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래서 전설의 서사에는 비극적인 결말이 많고, 그것이 전설 특유의 비장미(悲壯美)를 생성하는 기반이 된다.

특징 신화가 아득한 태초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민담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지 않는 장르인 데 비해서, 전설은 인간 현실의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장르이다. 전설이 신화나 민담에 비해 역사와 친연성이 강한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전설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장르이다. 원혼전설처럼 귀신이 등장해도 현실의 시공간에 나타난 귀신과 만나는 인간의 경이(驚異)가 중심이다. 이것은 신의 초월적 능력을 주로 다루는 신화와 구분되는 전설의 특징이다. 민담의 주인공도 인간인 점에서는 같으나, 민담의 인간은 하늘, 지하국, 용궁을 쉽게 넘나드는 점에서 오히려 신화와 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신화는 전승의 범위가 민족적이고 그 증거물도 포괄적인 데 비해, 전설은 그 증거물의 성격상 지역적인 범위에서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민족으로 한정되지 않고 범세계적인 공간을 넘나드는 민담과도 다른 특징이다.

의의 일정 지역의 전설은 대체로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어서, 지역적 유대감을 갖게 해 주는 구실을 한다. 동시에 지역전설에는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이 집약되어 있다. 또한 지역전설이 중앙 중심, 지배층 중심의 기록된 역사에서 소외된 지방사나 마을사를 갈무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전설이 구비역사로서 중요한 자료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1971), 구전설화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강진옥,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전설과 역사(임재해,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천혜숙,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한국구비문학의 이해(강등학 외, 월인, 2002),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필자 천혜숙(千惠淑)

민담

전실 자식 눈 뺀 계모

정의 계모의 모략에 속아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눈을 빼 준 전실 아들이 아버지와 재회하고 눈을 회복한다는 설화.

역사 액자식으로 구성되는 각편과 그렇지 않은 각편으로 나뉜다. 액자식 구성은 실제로 중국을 자주 다녔던 성삼문(成三問)이나 이정구(李廷龜)가 등장하며, 중국에 가서 과거시험에 응해야 하거나 어떤 고사성어를 알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배경이 중국으로 되어 있는 각편이 있어 중국에서 전승되는 설화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천자문(千字文)〉의 '우목낭상(寓目囊箱)'이라는 글귀 역시 본 설화와는 전혀 다른 내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중국 설화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줄거리 아버지가 중국에 간 사이, 계모는 전실(前室) 아들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 중국에 계신 아버지가 실명을 하여 산 사람의 눈이 필요하다고 편지를 조작하였다. 계모는 아들이 빼 준 두 눈을 받아 비단에 싸서 상자에 넣어 두고는 눈이 먼 아들을 강물에 밀어 넣어 버렸다. 강물에 떠내려가던 아들은 대나무밭에 이르러 목숨을 구하고, 대나무로 퉁소를 만들어 불면서 걸식하며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우연히 중국에서 돌아오던 아버지와 재회하여 그간의 사정을 모두 말하였다. 아버지는 계모를 추궁하여 두 눈을 찾아냈다. 이 슬픈 사연을 들은 마을 아낙네들(몸종)의 눈물에 두 눈을 담갔다가 넣자, 아들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아버지가 계모와 그 소생을 불태워 응징하였다.

변이 액자식으로 구성되는 유형에서는 특정 인물이 중국에 갔다가 과거시험에 급제할 한시 구절을 받고도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떤 인물을 만나서 그 구절에 얽힌 사연을 듣고 급제한다는 내용의 외화가 앞뒤로 덧붙는 변이도 있다.

분석 서사 전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편지 조작은 사건을 변형시키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두 눈을 빼는 신체 훼손은 계모가 편지를 조작한 결과이므로 계모의 흉계가 더욱 강조됨과 동시에 아들의 효성이 극대화되는 장치이다. 이 신체 훼손은 인신공희(人身供犧)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징 이 설화 유형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은, 계모가 아들의 두 눈을 비단에 싸서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다. 〈천자문〉에 나오는 '우목낭상'이라는 명칭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다. 또한 마을 아낙네들이나 아들 몸종의 눈물에 두 눈을 넣고 다시 시력을 찾았다는 것처럼, 여성의 눈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다.

의의 이 설화는 심층적으로 신화 차원의 논리가 작동하는데, 계모가 사용한 편지(문자)와 아들의 퉁소(소리)는 문화와 야생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는 무속신화나 건국신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물을 통한 혈연 확인의 변형이다. 한편, 마을 아낙네들(몸종)은 눈물을 통해 아들의 눈을 재생시키는 생식력을 보여 주어, 곡식의 눈을 트이게 하는 지모신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47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7, 169.

참고문헌 설화연구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김헌선, 보고사, 2009), 한국설화연구(최운식, 집문당, 1991).

필자 이윤경(李倫慶)

신화

전횡장군당신화

田橫將軍堂神話

정의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에서 전횡 장군이 마을의 당신으로 모셔지게 된 내력에 관한 신화.

역사 전횡 장군은 중국의 실존 인물이다. 한나라 유방(B.C. 274~195)과 같은 시대 사람으로 사마천의 『사기(史記)』「전담열전」에 따르면 제나라 재상을 거쳐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그가 유방을 피해 살던 섬을 충남 외연도에 비정(比定)하여 매년 마을 사람들이 그의 사당에서 제사를 모신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횡은 중국의 산둥성(山東省) 지모시(卽墨市)에 있는 전횡도에 은거했으며, 이 섬에는 지금도 오백 군사의 무덤이 남아 있다. 중국 제나라의 왕을 지냈던 전횡 장군이 외연도에서 마을신으로 모셔지게 된 이야기는 '유격장군청덕비(遊擊將軍淸德碑)', 『호산록(湖山錄)』 그리고 사당에 걸려 있는 '전공사당기(田公祠堂記)' 등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줄거리 1598년(선조 31) 보령의 충청수영에 건립된 유격장군 청덕비에는 외연도에서 이미 전횡 장군이 조선시대 초에 풍어신으로 모셔진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1619년(광해군 11) 한여현(韓汝賢)이 편찬한 『호산록』이라는 서산읍지에 보면, 고려 말에 이미 외연도가 전횡 장군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맑은 날 도비산에 올라 보면 바닷길이 분명하고 위안도(蔿眼島)와 오호도(嗚呼島)가 보인다. 이 섬은 전횡의 제나라 경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혹자는 이르기를 오호도는 전횡이 의사 오백 명을 인솔하고 한 고조를 피하여 살던 섬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의 포은 선생께서 중국에 조회하러 가기 위하여 바다를 건널 때 오호도에 이르러 전횡의 의리를 생각하여 한 구절의 시를 써서 이르기를 "오백 명의 사람들이 서로 죽고 말았으니 전횡의 높은 절의 천 년에도 감동하네. 당시에 잃은 땅을 대체 무엇 때문에 책망할까. 대한(大漢)의 너그럽고 어진 정치 만민을 얻었도다."라고 하였다.

고려 말 정몽주가 외연도를 지나면서 전횡을 생각하며 시를 지었다는 것은 외연도와 전횡 사이의 일화가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몽주는 전횡이 마을에서 신격화되어 모셔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죽음으로 의를 실현한 데 대하여 그가 느꼈을 감동은 민간신앙의 대상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당시에 외연도에서 전횡 장군이 신격으로 모셔졌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하겠다.

본래 외연도에서는 전횡 장군을 풍어신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신당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독지가들이 뜻을 모아 1936년 사당을 짓고 한문으로 된 '전공사당기'를 남겨 현재 벽에 걸어 놓았는데 그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의 성은 전 씨요, 이름은 횡이다. 옛날 제나라의 이름난 집안 사람이다. 한나라가 흥하고 제나라가 망하자 의리로 절개를 굽히지 않고 오백여 명의 군



전횡장군사당
충남 보령시 외연도, 2000. 6. 30, 국립민속박물관



전횡장군사당의 위패와 지전
충남 보령시 외연도, 2000.6.30, 국립민속박물관

사와 더불어 바다 건너 반양산(半洋山)에 들어와 살았다. 한나라가 그를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 부르자, 공은 부득이 두 사람의 빈객과 함께 낙양에 이르렀으나 상화점(霜花店)에서 스스로 목을 베었다. 오호라, 공이 부름에 응한 것은 실제 한나라의 위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참화를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함께 간 두 사람 역시 한나라의 벼슬을 받지 않고 슬퍼하다가 공의 무덤 옆에 구덩이를 파고 죽었다. 섬에 남아 있던 오백 명도 역시 한날한시에 함께 죽으니 천만 년 옛적부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일이다. 공의 의로움이 어찌 이토록 지극하였는가. 비록 서산이나 동해로 가려 하였으나 반양산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반양산은 지금의 외연도이다. 지금에 이르러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사당을 세우지 못하고 다만 석대(石臺)로 신을 제사하는 당을 삼았었다. 섬 사람들이 그 절의를 잊고 있다가 신명에 감동하여 나무를 베어 비로소 사당을 건립하고 희생을 진설하여 제를 지내게 되었다. 공의 정령이 완연히 위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풍성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공경하지 않으리오.

분석 외연도의 당제는 매년 음력 2월 14일 저녁에 시작하여 다음 날 정오 무렵 끝난다. 처음 뒷산에 올라가 산제로 시작하여 전횡장군사당제를 모시고 나면, 지태라고 부르는 소를 희생 제물로 삼는다. 보름날 새벽 5시경에 당산에 팥떡을 가져가서 올리고, 올렸던 제물을 수습하여 당을 내려온다. 이후 팽나무제와 등장마당제 그리고 용왕제와 띠배 퇴송으로 이어지며, 끝으로 당샘제와 안당제를 모신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제나라 출신으로 마침내 왕이 되었던 전횡 장군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 서해안의 외연도에서 신격화되어 마을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신격화의 바탕에는 지역과의 연고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즉 전횡 장군이 외연도에 들어와서 살다가 정치적 희생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적 연고성을 찾고 있으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물이 되었던 그의 삶을 위험한 바다에서 삶의 일터를 일궈야 하는 어민들의 위험천만한 삶과 동일시하여 자신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신격으로 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징 중국에서 전횡 장군이 민간신앙의 신격으로 모셔진 예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횡 장군이 외연도에 와서 살았다는 역사적 부회를 바탕으로 하면서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송징 장군, 사도세자와 같이 비운의 역사 인물을 신격화하여 모시는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당신, 특히 풍어신으로 모셔진 것으로 보인다.

의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나오는 관운장이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무신(武神), 수호신 또는 어업신으로 모셔지는 사례는 많다. 하지만 전횡 장군처럼 중국에서 민간신으로 모셔지고 있지 않은 역사적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연고권 주장과 함께 마을신으로 모셔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비명에 간 역사 인물을 신격화하여 자신들의 삶과 일치시키는 한편 소망 희구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나라 신격화 경향의 한 사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출처 遊擊將軍淸德碑, 田公祠堂記, 湖山錄.

참고문헌 민속마을 다양화 기초조사 및 지정연구(이해준 외, 문화재청, 2011), 서해안 동제의 중국계 신격 전횡 연구(이경엽, 도서문화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0), 조선 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나경수(羅景洙)

전설

절부암

節婦岩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龍水里)에 있는 바위에 얽힌 전설.

역사 용수리마을에 실제로 살았던 부부의 이야기라고 한다. 이 설화와 관련하여 1866년(고종 3)에 판관 신재우가 바위에 새겼다고 하는 절부암이라는 마애명이 해당 장소에 있다. 이 부부의 사연을 기리는 절부암제도 현재까지 마을 차원에서 지내고 있다. 절부암은 제주도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줄거리 『제주설화집성』과 『제주도 전설』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경면 용수리의 포구 옆에는 나무들로 우거진 절벽 바위가 있다. 이 바위를 마을 사람들은 절부암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한다. 옛날 용수리에 강사철(康士喆)이라고 하는 총각과 고 씨 처녀가 살았다. 둘 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자랐지만,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착실했다. 십오 세가 넘어, 나중에는 둘이 혼인하게 되었다. 혼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인 강 씨는 생계를 위하여 바다로 나갔다. 마을과 가까운 차귀섬으로 가서 대나무를 베어다가 대바구니 같은 것을 엮어 팔아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남편은 그만 불행하게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고 말았다. 부인 고 씨는 미친 사람처럼 바닷가를 돌며 남편의 시체라도 떠오르기를 빌고 기다렸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시체는 찾을 수 없었다. 비탄에 빠진 부인은 체념하고 남편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결국 부인은 마을 포구 옆 절벽 위의 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하게도 남편의 시체가 바로 그 절벽 밑으로 떠올랐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애처로운 광경을 보고 당산봉의 양지 바른 곳에 부부를 묻어 주었다. 한편 그때 인근 대정 고을에 신재우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벼슬을 한다면 열녀비라도 세워 주겠다며 중얼거렸다. 그 뒤 신재우는 과거를 보았지만 낙방하고 말았다. 신재우가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꿈에 고 씨 부인이 나타나 다시 과거를 보라고 격려하였다. 신재우는 부인 고 씨의 묘에 참배하고 다시 과거를 보아 급제하였다. 신재우는 부부의 도움으로 자신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다고 여겼다. 신재우는 대정 현감(혹은 판관)이 되어 돌아와 매년 3월 15일에 열녀제를 지내도록 하고 열녀비를 세워 주었다. 이런 까닭으로 부인이 목을 매어 죽은 절벽 바위를 절부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분석 열녀설화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교화의 과정이 반영된 규범적인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규범적인 열녀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과도 관련이 깊다. 조선시대 제주도 열녀에 대한 연구를 보면 19세기 이후 열녀로 정표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 실제 〈절부암〉 이야기 역시 19세기 중반 신재우가 고 씨 부인의 절행을 중히 여기고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면서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절부암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한국관광공사



절부암 암석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문화재청

특징 〈절부암〉 이야기는 부인이 자결한 뒤 남편의 시체가 떠오르고 부인의 혼이 실제 인물의 과거 급제를 도왔다는 등 극적인 구성과 풍부한 내용이 특징적이다.

출처 국문학보15(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제주도 부락지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도 전설(현용준, 서문당, 1996), 제주도 전설지(제주도, 1985), 제주설화집성1(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참고문헌 구비 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김대숙, 고전문학연구9, 한국고전문학회, 1994),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 연구(김지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필자 강소전(姜昭全)

전설

젊어지는 샘물

정의 과장담의 하나로, 한 욕심쟁이 노인이 젊어지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 아기가 되자 이웃집 노인 내외가 데려다 키웠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한 노인 내외가 자식 없이 힘들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 한 짐을 해서 집 가까운 곳에 가져다 놓고 쉬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다녔다. 할아버지는 그 새를 잡으려다가 깊은 산 속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샘을 발견한 할아버지가 물을 세 번쯤 마시자 신혼 시절의 젊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집에 돌아갔는데, 할머니가 보니 웬 총각이 나무 한 짐을 이고 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총각에게 혹시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총각은 자신이 그 할아버지라면서 산속에 있는 샘으로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자 할머니도 새댁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신혼 시절의 모습

으로 돌아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노인이 와서 다시 젊어진 이유를 물었다. 자초지종을 듣고 샘의 위치를 알게 된 욕심쟁이 노인은 그 샘이 있다는 산속으로 갔다.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아기가 되고 말았다. 노인 내외는 밤이 되어도 옆집 노인이 돌아오지 않자 산속에 있는 샘으로 찾으러 갔다. 노인 내외는 그곳에서 두루마기 안에 들어 있는 아기를 발견하였다. 노인 내외는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

변이 새를 잡으려다가 샘물을 발견하는 경우에 그 새를 잡으려는 목적이 부잣집에 팔기 위한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 새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이 나무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 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온다.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노인이 나오지 않고 노인 내외만 등장하거나, 할머니가 욕심을 부려 샘물을 많이 마신 탓에 아기가 되기도 한다. 특정 장소를 증거물로 하여 전설로 전승되기도 하는데, 약초를 캐러 금강산에 들어간 노인이 샘물을 마시고 젊어져서 지팡이를 버리고 집에 돌아왔다는 내용이며 욕심쟁이 노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분석 아직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은 시도된 적이 없다. 욕심쟁이 노인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 아기가 되었다는 내용은 '좋은 것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준다.

특징 신화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약수로, 전설에서는 약수나 술 등으로, 민담에서는 젊게 해 주는 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의 물을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신화적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설화이다.

출처 금강산전설(리용준, 한국문화사, 199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9, 363.

참고문헌 백두산설화연구(김성식,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백두산설화연구(정재호 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2).

필자 최원오(崔元午)

민담

점복담

占卜譚

정의 점(占)을 쳐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운명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서술하는 이야기.

역사 인간은 유한한 능력밖에 지니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늘 장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점복은 불안한 장래를 예견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비롯되었다. 따라서 어떤 사회이건 아득한 옛날부터 개인이나 집단의 운명을 판단해 주는 점복자(占卜者)가 있어 왔다. 이 점복자는 개인의 팔자를 예언하고 집단의 운명을 예견한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드러나는 많은 점구(占具)들이 '점치는 행위'의 오랜 역사를 확인시켜 준다. 실제로 고대의 점복담(占卜談)을 기록한 문헌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대사를 보면 점복담이 꽤 많이 남아 있고, 점치는 행위가 개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일관(日官)'까지 두어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점복의 행위를 관장하는 관상감을 두었고, 명과(命科)란 국가시험을 실시하여 관원을 뽑았을 정도였다. 점복담은 상하 계층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동안 유전하였으며, 현재 전하는 문헌자료도 상당한 양에 이른다.

내용 복술담 또는 명복담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나, '복술'의 원뜻은 '점을 치는 방법이나 기술'을 뜻하므로, 복술담이란 명칭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명복담의 경우 역시 '명복'이란 '이름난 점쟁이'를 뜻하는 말이므로 딱 어울리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점치는 일'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점복담이 좋을 듯하다.

세계 광포설화의 하나로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인 분포가 확인된 〈천냥점 설화〉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난다. 장사를 하여 돈을 번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점쟁이를 만나게 되고, 모든 돈을 주고 점구(占句) 세 개를 얻는다. '지름길(혹은 소로)로 가지 말고 큰길로 가라', '밉거든 곱다고 해라', '반가워하거든 기어라(혹은 화가 날 때는 참아라).'는 점구대로 주인공은 지름길인 산길을 피해 강도의 칼날을 피하고, 물속에서 나온 추한 괴물에게 보답을 받고, 출타 중 아내와 눈이 맞아 목숨을 해치려던 간부(姦夫)를 찾아내 처벌한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뜻조차 알 수 없는 점구를 받지만, 그 점구대로 행동한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죽음을 면한다. 점복담은 다분히 민중들의 '팔자타령'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이야기를 보자.

관상쟁이가 한 사람에게 "모일 모시에 죽을 팔자니 조심하라."라고 했다. 그날이 되자, 그는 집안에만 있으면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친 후에 보니 담장 밑에 꽃대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쓰러진 꽃이 불쌍해서 손질해 주던 중, 갑자기 무너진 담장에 깔려 죽었다.

점복담의 내용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길흉의 조짐을 예언하고, 그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마무리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불가사의한 꿈에 대한 해몽, 택일이나 택지, 병환·천후(天候)·관운(官運)·연명(延命)·관혼상제·전쟁 따위에 관련된 것을 들 수 있다. 예언의 실현은 즉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먼 장래에, 가령 수십, 수백 년 후에 실현되기도 한다. 때로는 먼 장래에 예언이 실현됨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청자는 사회 혹은 세계의 멸망이나 새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게 된다.

점복담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대체로 혼인을 하고, 벼슬을 얻고, 재산을 얻고, 목숨을 구하고, 세력가의 핍박에서 벗어나고, 호환(虎患)을 모면하고, 도둑의 화를 피하거나 범인을 찾고, 싸움에서 이기고, 가족이나 특정 인물(가령 귀인·조력자·간부 등)이나 물건을 찾고, 귀신을 쫓고, 음식을 구하는 등 행운을 얻게 되지만, 드물게는 불행한 죽음이나 실패를 맞는 경우도 있다.

특징 점복담은 크게 보면 예언담에 속한다. 그러나 예언담이 대체로 현자나 이인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에 비하여, 점복담은 점쟁이의 점술에 의해 얻게 되는 것이므로 점괘의 내용은 점쟁이조차도 알 수 없는 주문 형태의 것일 수도 있다. 한자의 형태로 된 파자점(破字占) 혹은 한문으로 이루어진 시구 따위가 점구로 이용된다. 이러한 점구의 내용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풀려 간다.

점복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점복담의 묘미를 보여 주는 이야기들 중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거나 "남 일은 알아도 제 일은 모른다."라는 속담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 앞의 것은 명복으로 자부하던 사람이 점치기 시합에서 뜻밖에도 패한다는 이야기이다. 뒤의 것은 남의 일을 훤히 맞히던 명복이 제 일은 몰라 낭패를 본다는 이야기이다. 또 점괘를 잘못 해석하여 낭패에 이르거나, 명복이 어쩔 수 없이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민간에서는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명복으로 설화화하여 구연하는 예가 많다. 예컨대 역학(易學)과 관계가 있는 중국 인물들인 곽박(郭璞, 276~324)이나 이순풍(李淳風, 602~670), 소강절(邵康節[邵雍], 1011~1077), 우리나라의 인물들인 북창(北窓) 정렴(鄭磏, 1506~1549), 토정(土亭) 이지함(李芝菡, 1517~1578) 등이 점복담에 자주 등장한다. 그 밖에 조선시대 초의 맹인 홍계관의 경우는 상자 안에 숨겨 놓은 잉태한 쥐의 숫자까지도 맞혔다는 명복으로 유명하다.

의의 본질적으로 점복담은 과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던 시대·장소에서 숙명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던 인류는 종교적 신앙처럼 예언의 실현을 고대하였다. 아마도 점복담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좋은 위로나 치료법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조선문화총서1, 을유문화사, 1947), 천냥짜리 예언 설화 소고(조희웅, 이숭녕선생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을유문화사, 1977), 朝鮮の占卜と豫言(村山智順, 朝鮮総督府, 1933).

필자 조희웅(曺喜雄)

전설

접동새

정의 핍박받던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다는 유래당 성격의 비극적 실화.

줄거리 옛날 옛적에 아들 아홉과 딸 하나를 낳고 어머니가 죽었다. 후처로 들어온 계모는 전실 딸을 몹시 미워하여 늘 구박했다. 혼기가 찬 딸이 많은 혼수를 장만해 놓고 계모의 구박을 못 이겨 갑자기 죽었다. 아홉 오라비들이 슬퍼하면서 딸의 혼수를 마당에서 태우는데, 계모는 아까워하며 태우지 못하게 말렸다. 이에 격분하여 오라비들이 계모를 불 속에 밀어 넣었더니 까마귀가 되어 날아갔다. 죽어서 접동새가 된 처녀는 밤이면 오라비들을 찾아와 울었다. 접동새가 밤에만 다니는 까닭은 까마귀가 죽이려 하므로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 서숙 농사를 짓는 가난한 총각이 예쁜 우렁각시를 만나 잘 살았다. 어느 날 각시가 들밥을 나르다가 나라님이 어사출도하여 데리고 가 버렸다. 총각은 우렁각시를 찾았으나 데려올 수 없어서, 애가 타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다.

분석 이 설화는 사람이 죽어서 새[鳥]로 환생한 설화 유형에 속한다. '새'로 환생한 이야기에는 접동새 외에도 뻐꾸기, 파랑새, 갈매기, 까마귀, 닭 등이 있다. 이 설화들 대부분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그 원혼이 새로 환생한 경우이다. 이 설화들에 등장하는 새는 천상과 지상, 신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 사이를 오가는 사령을 상징하며, 그 저변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새의 몸을 빌려 지상을 떠돈다는 설정과, 영혼과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무속적 사유가 깔려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접동새설화〉는 계모담 유형에도 속한다. 계모의 구박을 이기지 못해 죽은 딸이 그 한을 풀기 위해 접동새로 환생하였고 오라비들은 그 계모를 불 속에 밀어 넣음으로써 그 죄를 벌한다는 내용으로 전형적인 계모담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의의 접동새는 접동새(『두시언해(杜詩諺解)』, 1481년), 접동이(『신증유합(新增類合)』, 1576년), 자규(『청구영언(靑丘永言)』, 19세기) 등으로 나타난다. 접동새의 슬픈 울음소리는 계모의 구박을 받다가 죽어서 우는 누이의 울음이고, 우렁각시를 뺏긴 총각이 우는 소리이다. 접동새는 그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한(恨)이나 슬픔의 정서를 표출하는 시가문학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고려 정서(鄭敍)의〈정과정(鄭瓜亭)〉에는 "내 님을 그리ᄉᆞ와 우니나니 산접동새와 난 비슷ᄒᆞ요이다."라고 하여 유배지에서의 외로운 신세를 산접동새에 비기어 노래하고 있다. 이조년(李兆年)의 시조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銀漢)이 삼경인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야 알랴마는, 다정(多情)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에도 자규가 등장한다. 한편, 접동새와 비슷한 것으로 소쩍새가 있는데, "소쩍소쩍" 하고 주로 밤에만 운다. 소쩍새와 관련해서는 적은 솥에 많은 식구들의 밥을 짓느라고 갖은 고생을 하지만 구박만 하는 시어머니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죽은 며느리의 혼이 "솥적 솥적." 하고 우는 소쩍새가 되었다는 설화가 전한다.

출처 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568; 3-3, 420.

참고문헌 새 설화 연구(강신영,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새의 문화기호 읽기(천진기, 새가 날아든다, 경기지역대학박물관협의회, 2008),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지역상징동물연구(천진기, 우리문학연구32, 우리문학회, 2011),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혼과의 소통, 또는 무속적 요소의 문학적 층위(오태환, 국제어문42, 국제어문학회, 2008).

필자 천진기(千鎭基)

전설

정기룡

鄭起龍

정의 조선 임진왜란 때 명장인 정기룡에 대한 인물전설.

역사 임진왜란 때 명장인 매헌(梅軒) 정기룡(鄭起龍, 1562~1622) 장군의 초명(初名)은 무수(茂壽)로, 1586년(선조 19)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 무관으로서 용맹을 떨친 인물이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전장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장의 모습을 보였던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그의 영웅성에 초점을 맞춰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

줄거리 정기룡은 조부가 명당을 획득·발복하여 장군이 될 운명을 타고 나거나 이미 죽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자라서는 친구들과 산에 갔다 호식(虎食)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큰 인물을 살려 두라는 산신령의 명으로 살아난다. 수학할 때도 하늘이 정기룡을 알아보고 용마와 신검을 주고, 임금도 정기룡을 알아보고 초명인 무수에서 기룡(起龍)으로 이름을 바꾸어 준다. 정기룡은 결혼을 통해서도 든든한 보조자를 얻는데, 바로 둘째 부인이다. 정절을 지키며 죽은 첫째 부인 다음으로 얻은 둘째 부인은 정기룡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와 의병들을 준비해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정기룡은 상주성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비장한 죽음을 맞이한다.

분석 〈정기룡전설〉 연구는 장군설화 유형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장군설화는 혈통에 나타난 신이성의 유무와 그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민중의 주체적인 역사 인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전설은 그 가운데 천손성공형에 속한다. 그 이후에는 크게 역사적 사실의 관계와 전승양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설화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설화세계를 구축하여 전승하고 있으나 정기룡의 신분, 혼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설화의 진실성이 부각되어 전승된다. 설화에서는 정기룡의 신분을 천민으로 설정하여 능력으로 출세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전승자와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더욱 영웅화하였다. 혼인 이야기에서는 둘째 부인인 권 씨의 예지력과 이인성을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승된다. 죽음 또한 평탄한 죽음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과 달리 상주성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는 것으로 형상화하여, 아들의 효와 정기룡의 충을 아울러 부각시키고 있다.



충의사
경북 상주시, 한국관광공사



정기룡 장군 영정과 위패
경북 상주시, 한국관광공사

의의 지배층과 민중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정기룡의 문학적 형상화는 문헌설화나 구비설화에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전설 속 정기룡은 민중과 보다 친근한 존재로 형상화된다. 또한 〈정기룡전설〉은 여성 의식의 성장을 보여 준다. 전통적 여성 이인과는 달리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국가 전란에 대비하는 권씨 부인을 통해 여성의 참여가 공적인 부분으로 확대 성장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근대적 여성의식의 성장은 다른 여성이인설화와 더불어 여성영웅소설을 형상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1, 588; 7-8, 528; 8-3, 135; 8-4, 96; 9-2, 202, 정기룡전설 연구(윤정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참고문헌 문헌 속에 나타난 정기룡 장군(장원철, 경남문화연구29,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8),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임철호, 집문당, 1989), 한국 여성이인설화 연구(이상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한국 장군설화 연구(오세길,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필자 이상희(李尙姬)

전설

정도전

鄭道傳

정의 술수(術數)와 신통력(神通力)이 뛰어난 정도전(鄭道傳, 1337~1398)에 얽힌 전설.

역사 정도전은 고향 단양의 도담삼봉을 좋아해 삼봉으로 호를 삼았고 박학다식(博學多識)했다. 이성계(李成桂)의 조선 건국을 도왔고, 개국 후 군사·외교·행정·역사·저술 분야에서 활약했으며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썼다. 한양정도(漢陽定都) 문제로 무학(無學)과 논쟁했으며, 한때 명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하여 신통력을 발휘하는 설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태조가 한양정도에 대하여 무학에게 좌(座, 방향)를 물으니 동향으로 하라 하는데, 정도전은 남향을 주장했다. 실세였던 정도전 주장대로 결정되자, 무학이 "한양 말세에 백성이 배고플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이에 정도전은 "남방에 보리가 나니 걱정할 것 없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당시 보리가 없었는데 정도전은 몇백 년 후 일을 미리 알았던 것이다. 중국 천자의 총희(寵姬)가 정도전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병이 났다면서 정도전의 간을 요구했다. 천자는 곧 정도전을 호출했고, 정도전은 미리 알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천자가 사실을 얘기하니 환자를 보자고 해, 방문을 확 열면서 기침을 세 번 하고 닫아 버렸다. 얼마 후 천자가 방문을 열어 보니 흰 여우가 죽어 있었다. 놀라는 천자를 보고 예쁜 여자와 놀지 말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훈계한 다음 돌아왔다.

변이 『오산설림(五山說林)』에서는 정도전 예언이 드러나지 않고 무학이 임진왜란과 왕자의 난을 예언한다. 요괴처치설화는 예부터 전하던 서사구조에 그를 관련시킨 것이다. 그리고 정도전 부친이 과거 길에 소나기를 피하다 한 여종[婢]과 정을 통하고 갔는데 그 여종이 임신하여 정도전을 낳았으며, 어릴 적에 기지로 부친을 찾았다는 설화도 전한다. 역시 부친 찾는 전래설화에 정도전을 연결한 구성이다.

분석 정도전이 박식하고 풍수지리에 밝았던 점을 고려하여 무학과의 논쟁에서 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혼하게 유포되던 요괴처치설화를 연결하여 초인(超人)으로 미화하면서 중국의 기를 꺾으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특정인을 미화하기 위해 불특정인 설화를 연관시킨 것이다.

특징 정도전은 뛰어난 인물로서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중추가 되었지만 말년에 이성계의 아들에게 참수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그래서 동향인 또는 아는 사람들이 이를 동정하여 미화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의의 정도전은 결국 정치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학문이 깊은 유학자였으므로 그의 한문학과 성리학, 문체를 중심으로 연구할 분야가 넓다. 또한 정도전이 지은 건국 찬양 가요며 편찬한 『고려사(高麗史)』가 사람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기에, 그의 설화를 함께 연구하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출처 寵睡錄, 五山說林,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3, 54; 8-14, 565.

참고문헌 三峰集, 충주시지(충주시, 2001), 한국문헌설화6(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김현룡(金鉉龍)

전설

정렴

鄭磏

정의 풍수, 예언, 도술 등에 능하여 많은 이적(異蹟)을 행한 조선 중기의 학자 북창(北窓) 정렴(鄭磏, 1506~1549)에 관한 설화.

역사 정렴은 조선 중종 때의 유학자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11 〈명종조고사본말(明宗朝故事本末)〉에 관련 기록이 전한다. 정렴 관련 설화는 『어우야담(於于野談)』, 『이순록(二旬錄)』, 『계서야담(溪西野談)』 외에도 많은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

줄거리 정렴의 사촌 동생 삼형제가 찾아와 아버지 묏자리를 정해 주기를 청하였다. 정렴은 삼형제를 데리고 진흙 밭으로 가 뛰어난 명당이라 이른 후 한밤중에 하관(下棺)하기를 당부하였다. 삼 형제가 아버지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구덩이를 팠는데, 땅이 워낙 물기가 많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물이 반 정도 차올랐다. 삼 형제는 돌을 넣어 구덩이를 평평하게 만든 후 하관을 하였다. 이후 삼 형제가 정렴을 만나 하관한 이야기를 하자, 정렴은 삼 형제가 구덩이에 던진 돌 하나씩 헤아려 장차 귀한 자손이 태어나리라 하였는데 과연 후손이 모두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변이 『청구야담(靑邱野談)』에는 마침 길을 지나던 정렴이 복수를 위해 환생한 구렁이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해동잡록(海東雜錄)』에는 정렴이 단명할 운을 타고 태어난 아이를 위해 연명할 방도를 일러 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해동이적(海東異蹟)』에서 정렴은 각종 언어에 능통하고 신선술에 통달한 인물로 나타난다.

분석 〈정렴설화〉의 내용은 크게 연명설화(延命說話), 풍수설화(風水說話), 예언설화(預言說話), 치병설화(治病說話)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정렴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유창한 언어 구사나 아주 먼 곳까지 꿰뚫어 보는 천리안(千里眼)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승된다.

특징 연명설화에서 단명할 운명을 지닌 사람은 대부분 정렴의 친구로 나타나며, 연명의 방법은 주로 정렴의 수명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정렴은 신선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을사사화에 동조한 아버지 정순붕과 뜻을 달리하여 과천과 양주에서 은둔생활을 하다 생애를 마쳤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영향을 받아 전승설화에서 은둔자의 면모가 강조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의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여 외국사신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일화는 정렴의 비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 또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출처 燃藜室記述, 靑邱野談, 海東異蹟,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796.

참고문헌 북창 정렴의 현실적 불화와 도가적 극복(손찬식, 도교문화연구3, 한국도교문화학회, 1989), 북창 정렴 전승 연구(손찬식, 한국어교육학회지63, 한국어교육학회, 1998).

필자 정명기(鄭明基)

전설

정만서

鄭萬瑞

정의 경상북도 경주 출신의 건달 정만서가 남을 속이거나 말장난하는 설화.

역사 정만서는 19세기경 경주에 살던 사람으로 묘는 경북 월성군에 있고 후손이 대구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실존 인물과 설화의 주인공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정만서의 이야기를 기록한 설화집이 20세기 전반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이 주인공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정만서의 이야기 중에 비슷한 삽화(揷話)가 이미 15세기에 기록된 바가 있어서 정만서가 전형적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정만서는 남을 속여 돈 버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기생집에 가서 기생에게 '거문고'를 사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후 나중에 엉뚱하게 방앗공이를 시켜멓게 칠해서 '검은 거'라면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정만서의 거짓 장례식이다. 집에 돈이 다 떨어지자 죽은 척하고 부인에게 장례를 치러 부조금을 걷게 한다. 각편에 따라 역할이 바뀌어서 정만서가 부인이 죽었다며 통곡하면서 친구들에게 부조금을 걷는 예도 있다.

정만서는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짓궂은 장난도 잘한다. 어느 날 종각 밑을 지나가면서 "인경쳐라." 하고 외친다. 인경을 칠 때가 아니지만 종지기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종을 친다. 화가 난 상관이 나타나서 왜 인경을 쳤느냐고 물으니 종지기가 정만서를 가리키면서 "저자가 치라고 했다."라고 하소연한다. 그래서 상관이 정만서를 잡아와서 그 이유를 물으니 정만서는 '인경철'이라는 아들을 찾고 있었다고 태연히 대답한다. 물론 인경철이라는 아들은 없다. 설화에 의하면 정만서에게는 '범'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정만서의 기막힌 유머 감각을 볼 수 있다. 정만서가 어떤 주막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머슴이 황급히 달려와서 아들 범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한다. 그러나 정만서는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포수가 범을 잡았느냐며 농담을 한다.

분석 정만서는 한국의 트릭스터(trickster)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히 트릭(trick, 속임수)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계적인 인물로 인간 사회가 정하는 범주나 개념을 초월한다는 뜻이다. 가진 것 없이 돌아다니며 생계를 돌보지 않기에 건달형 인물이라고도 한다. 또한 남을 속여 돈을 벌기도 하므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만서의 행각을 보면 사기꾼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거문고'와 '검은 거'라는 유음어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도 하지만 종지기에게 인경을 치게 만드는 사건에서는 똑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람을 괴롭히기만 한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전혀 없지만 순전히 남을 골탕먹이는 데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농담으로 대꾸하는 것은 그저 비참한 현실을 웃음으로 초월하고자 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정만서가 얼마나 뛰어난 트릭스터인지는 거짓 장례식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고향에서 지인을 속이는 것은 타지에서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는 정만서가 일반인과 달리 사회 관습이나 금기에 구속받지 않는 트릭스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징 트릭스터로서의 정만서는 김선달이나 방학중 같은 다른 한국 트릭스터들과 공통점도 많지만 뚜렷한 차이점도 있다. 특히 평양의 대표적인 사기꾼인 김선달과 대조되는데, 김선달은 심사숙고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지만 정만서는 닥치는 대로 행동하는 인물이다. 이야기 중에 그나마 돈이 떨어져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벌인 거짓 장례식도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죽은 척(혹은 부인을 죽은 척 시키기)하는 것이다. 거문고 이야기도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기생집에 갔다가 거문고를 보고 "우리 집에도 거문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행동을 시작한다. 정만서의 또 다른 특징은 말장난을 많이 하고 언변이 탁월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속임수나 장난이 인간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트릭스터들이 어느 정도 언어 사용 능력이 뛰어나지만 정만서는 그중에도 으뜸이고 특히 유음어를 이용한 언어유희를 자주 사용한다.

의의 정만서의 이야기가 꾸준히 전승되어 온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설화에서 기생이 욕심 많은 인물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런 인물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이야기가 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말장난이나 언어유희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런 말장난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재담집 『엉터리들』에서는 정만서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농담을 하는 대목을 공자의 제자 일화와 견준 바 있다. 공자의 제자가 자신의 아들이 강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살아 있을 때에는 내 아들이었지만 죽었으니 더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대답하며 슬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만서 역시 세속을 뛰어넘은 달관자라고 평가했다. 얼핏 보면 이렇게 세속을 뛰어넘는 현인과 정만서를 비교하는 것이 의외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만서도 나름대로 세속을 초월했기에 아들의 죽음에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울 때에 웃을 줄 알고, 우리의 틀에 박힌 삶에서 탈

출구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 563; 7-11, 430; 8-10, 212.

참고문헌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존재 양상과 의미(김헌선, 경기어문학8,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0),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79), 트릭스터담 연구(조희웅, 어문학논총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나수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필자 나수호(那秀昊)

전설

정방폭포



정방폭포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한국관광공사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동에 있는 정방폭포와 관련 있는 전설.

역사 정방폭포의 경관은 매우 아름다워서, 예부터 제주의 절경으로 꼽히는 영주십경(瀛洲十景) 가운데 하나로 정방하폭(正房夏瀑)이라고도 하였다. 18세기 초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에도 정방탐승(正方探勝)이라는 화폭이 있다. 정방폭포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3호이다. 〈정방폭포설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서불은 서복(徐福)이라고도 한다. 최근 전설을 넘어서서 중국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고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줄거리 『제주도 전설지』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진시황은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권세를 부렸다. 나아가 진시황은 끝없는 영생을 누리고자 하였으나 자기 육신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모든 신하를 모아 놓고 사람이 영생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때 서불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동쪽 나라 작은 섬인 영주라는 곳의 신령스러운 한라산에 있는 불로초를 먹으면 사람이 영생할 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서불은 진시황으로부터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불로초를 구해 오겠다고 하면서 진시황에게 동남동녀 오백 명을 내어달라고 하였다. 한라산 깊은 곳에 자라는 불로초는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마음과 몸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동남동녀들의 눈에만 보인다고 하더라고 둘러댔다. 진시황은 서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동남동녀 오백 명과 여행에 필요한 여러 척의 배와 물건들을 마련해 서불을 떠나보냈다. 서불 일행은 제주에 도착한 뒤 불로초를 구하기는커녕 한라산을 비롯하여 제주의 여러 곳을 구경하러 다녔다. 그러다가 정방폭포를 구경하고 다시 동쪽으로 떠나면서 폭포의 바위에 '서불과차(徐市過此)' 혹은 '서불과지(徐市過之)'라고 하여 자신들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글귀를 새겨 두었다. 폭포의 상단 바위에 당시 새긴 글귀의 흔적이 있다고 전한다. 불로초를 구실로 진시황에게서 벗어난 서불 일행은 동쪽으로 가서 작은 나라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분석 서불 관련 전설들은 여러 곳에서 전승되지만, 남해 일대와 제주도 서귀포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다. 〈서불설화〉를 통해 서불의 이동 경로를 탐구한 최근 연구에서는 〈서불 설화〉가 불로초로 상징되는 영생의 환상초를 찾아가는 탐색자와 문화 전파자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징 〈서불설화〉는 진시황제의 〈불로초설화〉와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등에도 전승되고 있어 동아시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이동 경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출처 남국의 전설(진성기, 일지사, 1968) 제주도 전설지(제주도, 1985).

참고문헌 서복집단과 제주도(홍순만, 제주문화원, 2002), 서불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이창식, 어문학88, 한국어문학회, 2005).

필자 강소전(姜昭全)

민담

정승 낳을 여자

정의 기이한 행동으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놀라게 한 신부가 인재를 낳았다는 민담.

줄거리 한 가난한 집 부모가 딸을 시집보내기 위해 빨래 심부름을 시켰다.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처녀는 삼 년 뒤에 시집을 가면 더 좋을 거라는 지나가는 중의 말을 듣고 첫날밤 신랑을 박대할 궁리를 한다. 첫날밤 신부가 지저분한 행색으로 줄곧 담배를 피우자 신랑은 도망쳐 버린다. 신부는 부모님께 자고 일어나니 신랑이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태연하게 삼 년을 보낸다. 삼 년이 지난 뒤 아버지와 함께 시집으로 찾아가 신랑에게 자신이 첫날밤에 이상한 행동을 한 연유를 설명하고 함께 살았다. 이후 아이를 낳았는데 평양감사가 되었다.

변이 이 설화는 여성 인물이 이상한 언행을 하여 시집이나 남편으로부터 격리되거나 시집살이에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는 인재를 낳는다는 이야기이다. 여성 인물이 보여주는 이상한 언행은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난다. 신행 날 경치 구경을 하다 시댁에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시집에서 모셔오던 사당 배례를 거부한 후 세 아들을 귀신에게 잃기도 한다. 또, 인재를 낳기 위해 벙어리 행세를 하기도 하며, 꿈에 나왔던 배필이 거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감행하여 삼 정승을 낳기도 한다. 특히, 대범한 여성 인물이 아들들을 잃으면서도 귀신에게 굴복하지 않아 결국 인재를 낳는다는 설화는 〈손병사 모친담〉과 거의 유사하다.

분석 이 설화는 순종적이고 정숙한 신부 또는 며느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거리가 먼 여성 인물이 나중에 인재를 낳음으로써 가족, 남편과 화해하고 집안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여성 인물의 이상함, 고약함은 결국 인재를 낳음으로써 설화 안에서 대범한 자질로 그려진다. 규범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는 거침없는 활달함이 인재를 생산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화적 인식은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며느리와 아내에 대한 고정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에 대한 반성이다.

특징 이 설화는 동일한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뚜렷한 유형을 이룬다기보다는 여성 인물들의 이상한 행동들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여성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은 훌륭한 인재를 낳기 위한 계획된 행동인 경우도 있고 타고난 품성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성 인물은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인재를 낳기도 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자신의 활달한 기질을 그대로 발휘하여 인재 아들을 얻기도 한다. 또한 이 설화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모친을 등장시킴으로써 설화 향유자들이 서사 층위에서 드러난 여성 인물의 비일상적 행위를 비범성으로 이해하게 한다.

의의 이 설화는 여성 인물이 가부장적 가족 질서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낳을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규범적 여성상에 대한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훌륭한 아들'의 출산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여성 인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적 가치관을 자신의 욕망으로 내면화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3, 103; 7-15, 621; 8-3, 184.

참고문헌 여성 이인설화 연구(정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 양상(강진옥, 한국민속학27, 한국민속학회, 1995), 한국 여성이인설화 연구(이상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정경민(鄭京珉)

민담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

정의 억울하게 벼슬을 얻지 못한 선비가 정승에게 해를 끼쳐 벼슬을 얻는 설화.

역사 유사한 설화가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청구야담(靑邱野談)』 100번과 『동야휘집(東野彙輯)』 권5 112번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19세기 전반까지 민속문학에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시골 선비가 벼슬을 얻으려고 정승 집을 찾아간다. 선비는 재물을 바쳐 가며 벼슬 얻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정승이 벼슬을 주기는커녕 선비의 돈만 쓰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어 간다. 분노에 찬 선비는 정승의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정승의 가슴을 목침으로 때려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든다. 다음 날 아침 정승의 아들들이 문안을 오자 정승이 말은 못하고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선비를 가리키며 전날 벌어진 일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비가 그 동안 나를 열심히 섬겼으니 벼슬을 시켜 주거라."라는 유언으로 알아듣고 선비에게 벼슬을 마련해 준다.

변이 구비로 전승되는 설화는 19세기 야담집에 수록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야담에는 선비가 재상을 열심히 섬기고 재상이 병들었을 때에 극진히 병구완을 했다고 묘사된다. 특히

벼슬할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진 선비가 앓아누워 있는 재상의 가슴에 올라가 흉기를 들고 찌르려다 인간의 도리로 차마 감행하지 못하는 대목은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따라서 구비로 이야기가 전승되면서 진지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더욱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으로 변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조선 말기 관료층의 부정부패를 보여 줄 뿐 아니라, 나아가 배경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보장이 없는 현실을 지식인층이 아닌 평민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도는 혈통이나 가계에 기반을 둔 사회가 아닌 능력주의 사회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권력자들이 성공의 모든 관문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힘 없는 시골 선비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윤리규범을 어겼으나 결국 벼슬을 얻고 출세한다는 이야기는 매정한 현실을 대면한 개인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 시골 선비가 서울에 있는 권력자에게 재산을 바쳐 벼슬을 얻으려는 이야기는 이 외에도 많다. 선비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낙심하여 시골로 돌아가다가 다른 이(혹은 귀신)의 도움을 받아 벼슬을 하게 되는 경우와, 선비가 대감의 약점을 찾아 협박하여 벼슬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은 이와 달리 선비가 무능하게 낙향하는 것도, 특별한 꾀를 내어 협박한 것도 아닌 분노와 절망감에 극단적인 행동까지 감행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의 부조리를 강조한다.

의의 이 설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과거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하여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는 이상적인 사회상이 아닌,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부패한 관료에게 뇌물을 바쳐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상을 보여 주며 비판하고 있다. 재물만 탐하고 벼슬은 주지 않는 관료에게 통쾌하게 보복하고 선비가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은 잔혹한 현실과의 대결에서 개인이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이며 민담적인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6, 53; 4-6, 39.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이인경, 민속원, 2008), 한국 설화의 분류체계와 속이고 속는 사연(조동일, 구비문학연구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필자 나수호(那秀昊)

민담

정승을 소로 만든 망태기

정의 한 선비가 사람을 소로 만드는 신이한 망태기를 얻어 자신의 재산을 빼앗은 정승에게 복수하고 재산을 되찾는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부유하게 살던 어떤 선비가 벼슬을 얻고 싶어서 정승댁에 식객으로 들어간다. 정승은 좋은 자리가 있으니 높은 대감에게 대접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다. 선비는 정승이 요구하는 돈을 구해 바친다. 그러나 벼슬은 얻지 못하고, 4년 만에 4천 석 넘게 있던 재산만 날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선비가 한 푼도 없이 집에 가려니 어찌나 기갈이 심하던지 길가의 원두막을 지키고 있던 노인에게 참외 하나를 구걸한다. 노인은 장기 내기를 해서 선비가 이기면 참외를 실컷 먹게 해 주고, 자기가 이기면 선비에게 망태기를 쓰라고 제안한다. 선비가 자신 있게 그러자고 했는데 단번에 내기에 진다. 하는 수 없이 망태기를 머리에 푹 썼는데, 그 순간 몸이 전부 누런 소로 변한다. 노인이 소를 끌어다 원두막 뒤 산기슭에다 묶어 두고는 손자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으니 잘 지키라고 한다. 소가 된 선비가 무를 먹지 말게 하라는 말이 왠지 이상하다 싶어, 무를 찾아 먹었다. 그러자 바로 망태기가 헐거워지면서 사람으로 되돌아왔다. 선비는 망태기와 무를 가지고 정승을 찾아간다. 선비는 정승이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망태기를 씌워 소로 만들어 버린다. 정승의 가족들은 난리가 나고, 선비는 고향의 도승에게 이런 병을 잘 고치는 방법이 있다면서 고향에 가서 약을 가져오겠다고 한다. 그러고는 무 잎 말린 것을 조금씩 정승에게 먹여 도로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으로 돌아온 정승은 선비에게 크게 치사하고 재산을 도로 돌려준다. 선비는 나중에 벼슬도 얻는다.

분석 이 민담의 기본 틀은 탐관오리에게 억울하게 당한 순진한 선비가 사기에 가까운 수법으로 복수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성이 높은 문헌설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민담에는 독특하게도 복수의 수법으로 사람을 소로 만드는 신이한 망태기가 등장한다. 즉, 사실성 높은 이야기 틀에 구비설화의 상상력이 결합된 것이다. 탐관오리를 통쾌하게 징치하고 싶은 향유층의 욕망이 신이담의 형식을 빌려 형성된 민담으로 볼 수 있다.

의의 설화의 서두에 조선 후기, 경상도 출신 무관인 김 아무개라는 식의 구체적 시간, 장소, 인명이 포함되는 예가 많다. 따라서 이 민담은 조선 후기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혼란한 신분제 사회를 사실적으로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면서도 민담적 흥미 요소를 잃지 않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2, 346; 3-4, 567; 4-2, 282; 7-15, 198.

참고문헌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과 그 의미(강진옥, 진단학보73, 진단학회, 1992), 원형 개념으로서의 변신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특성과 변신 미학(최원오, 구비문학연구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필자 은현정(殷賢貞)

전설

정철

鄭澈

정의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에 관한 인물전설.

역사 정철은 54세 때 영의정으로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맡으면서 동인(東人)들을 잔인하게 추방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 부친의 유배지에서 지냈던 것을 시작으로 파직과 사직, 유배와 복직의 정쟁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정철설화〉는 역사의 평가가 극단적인 만큼이나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줄거리 정철이 호남 안찰사로 가게 되자, 재상 정지연에게 호남에 조심스러운 일과 군사의 일이 많아 백면서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였다. 정지연은 정철이 선비의 절개가 있어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정철이 웃으면서 공명과 부귀는 재상이 차지하고 선비의 괴로운 절개만 맡긴다며 비꼬았다. 또 다른 이야기로 임진왜란 때 유성룡, 허잠, 이성중과 함께 평양 연광정에 모여 있었는데 적의 총성이 들려왔다. 유성룡이 울면서 영결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자, 정철이 같이 죽을 텐데 어찌 영결이냐고 하였다. 한번은 정철이 서당을 다닐 때 처녀로 변신한 여우의 유혹에 빠져 놀았다. 스승이 처녀의 정체를 알려 주며 호정(狐精)을 빼앗아 삼킨 다음 하늘을 먼저 보라고 했으나 땅을 먼저 보는 바람에 지리에 달통하게 되었다. 또 정철이 동해안을 순찰할 때 말에게 먹일 죽을 놋그릇에 담아온 것을 보고 놀랐다. 그곳에 있는 누룩바위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알고 석수장이를 불러 바위를 부수었다. 이 외에도 정철이 소장(訴狀)의 글자 하나를 바꾸어 살인죄에 연루될 사람을 구해주었다.

변이 〈정철설화〉는 구비설화의 단맥설화(斷脈說話)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어렸을 때 배웠던 일가의 스승을 불렀다가 무례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스승 조상 묘가 명당임을 알고 단맥하자 승천하려던 용이 죽었다. 이 때문에 스승은 물론 정철의 집안까지 망하게 되었다. 또 정철이 강원도에 똑똑한 아이들이 많음을 보고, 시골에 인재가 태어나면 서울 사람들이 위태롭게 된다며 명당의 혈을 끊었다.

분석 정철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극단적인 것은 삶의 대부분이 기축옥사(己丑獄事)와 같은 정쟁의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문헌설화의 대부분에서 정치성이 배제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구비설화에서 정철은 강원도 명당의 단맥 행위자로 설정되어 있다. 관찰사로 있으면서 〈훈민가〉를 지어 백성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려 했던 것이 오히려 반감을 산 것으로 생각된다.

특징 〈단맥설화〉의 대부분은 단맥 행위자가 이민족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민족에 대한 피해 의식과 적대감,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원도 설화에서 정철이 단맥 행위자로 설정된 것은 이민족과 같은 차원의 가해자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의 〈호정설화〉는 〈남사고설화〉와 같이 인간이 지상의 일만 알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그런데 정철의 〈호정설화〉는 그가 풍수에 능통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준다. 정철의 풍수는 허학봉에게 명당을 구해 주어 출세하게 한 긍정적인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원도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다 준 부정적인 행위와 연계되어 있다.

출처 溪西野談,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1, 250; 258; 2-3, 40; 185; 365; 2-4, 360.

참고문헌 구비전승 변이에 관한 일고찰-설화 여우처녀구슬의 경우(성기설, 인하대학교 국어교육연구4, 인하대학교, 1987),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임철호, 집문당, 1989).

필자 임철호(林哲鎬)

전설

정충신

鄭忠信

정의 조선 선조, 광해군, 인조 때의 장수 정충신(1576~1636)에 관한 인물전설.

역사 정충신은 임진왜란 때 권율과 이항복의 신임으로 무과에 급제했고, 광해군 때 건주위(建州衛)로 파견되어 적정을 살폈다. 호국(청나라)의 장수들이 그의 당당함과 지략에 감복하였다. 인조 때에는 이괄의 난을 진압하여 금남군(錦南君)에 봉해졌다.

줄거리 정충신은 부친이 무등산 청룡과 북악의 백호가 품에 안기는 꿈을 꾸고, 식비(食婢)와 동침하여 낳은 만득자(晩得子)이다. 광주 지인(知印)으로 있을 때, 권율이 이항복에게 보내 겸종으로 두게 했다. 북변에 있을 때 누루하치와 친하게 지냈는데, 여러 아들 가운데 유독 여섯째 아들에게만 공손했다. 후일 그가 청조의 황제가 되었다. 정충신이 이항복의 병든 말을 고쳐주자 한 재상이 자신의 말도 봐 달라고 하였다. 정충신이 재상의 말을 보고는 마의(馬醫)를 불러오게 하였다. 재상이 연유를 묻자 이항복과 나란히 논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선사포 첨사로 제수되어 떠날 때 한 재상이 자신의 서녀를 데려가게 했다. 거절할 수 없어 데리고 왔지만 몸집이 크고 말투가 거칠어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감사의 갑작스런 부름을 받았을 때 소실이 앞으로 닥칠 일과 대비책을 일러주었다. 소실의 말대로 하여 평양 감영에서 행패를 부리는 중국 사신을 물러가게 했다. 그 후 정충신은 모든 일을 소실과 의논하였다.

변이 문헌설화는 야사의 성격이 강하나 구비설화는 민담적 성격이 강하다. 이방이 용꿈을 꾸고 관비와 관계하여 낳았다는 탄생담, 어렸을 때 감사에게 들어온 송사를 해결한 아지 설화형 명판결, 호환으로 단명할 운명을 타고났지만 이를 극복하고 신립과 오성에 이어 권율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들은 구비설화에만 있다. 북방설화에는 정충신이 누르하치 아들에 비하여 열등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천자검을 얻었지만 셋째 아들의 눈빛을 감당하지 못하여 내 주고 만다. 같은 내용의 조선족 설화에는 정충신이 국적 불명의 최무사로 변이되어 있다.

분석 설화에서 정충신은 천한 신분과 단명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를 극복하고 많은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호국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 민중적, 민족적 영웅으로 설정되어 있다. 정충신의 성공 뒤에 첩을 설정한 문헌설화와 정충신의 신분을 더 천민화 시킨 구비설화에는 당담계층의 상이한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특징 정충신 탄생담은 〈홍길동전〉과 신청천(申靑泉)의 탄생담과 유사하다. 그러나 홍길동과 신청천은 좌절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정충신은 성공의 발단으로 작용한다.

의의 정충신의 성공 뒤에 여성의 도움을 설정한 것은 〈곽재우설화〉나 〈이순신설화〉와 유사하다. 이러한 설정과 전개에는 성공한 인물에 대한 담당 계층의 시기심과 열등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출처 溪西野談, 東野彙輯, 靑邱野談, 천생연분(김재권, 북경민족출판사, 1998),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5, 267; 4-3, 183,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4, 34.

참고문헌 설화와 민중(임철호, 전주대학교출판부, 1996),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필자 임철호(林哲鎬)

신화

제석본풀이

표제어 당금애기

자료

제왕운기

帝王韻紀

정의 이승휴(李承休)가 1287년(충렬왕 13)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한 한문서사시.

내용 고려 충렬왕 13년에 이승휴가 중국과 고려시대까지의 우리 역사를 7언과 5언의 운율시의 형식으로 쓴 책이다. 상·하 각 1책으로 되어 있는데, 충렬왕까지의 고려시대 부분은 5언시를 써서 구별했다.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기에 창작된 이 서사시는 신라·고구려·남옥저·북옥저·동부여·북부여·예·맥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일한 세계(世系)를 제시하고, 단군이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해에 건국을 했다는 주장을 드러냄으로써 동시대의 『삼국유사(三國遺事)』와 더불어 역사 서술을 통해 외세의 압력에 대응한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단군과 주몽 등의 고대국가 건국과 관련된 여러 신화 전승들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와는 다른 유형의 신화 전승을 기록하고 있어 민속문학적 가치가 높다. 『제왕운기(帝王韻紀)』는 1287년 출간된 후 1360년(고려 공민왕 9)과 1413년(태종 13)에 각각 중간(重刊)되었다.

필자 조현설(趙顯卨)

용어

조력자

助力者, helper

정의 구조주의 민담학에서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주인공을 도와주는 인물 유형.

내용 조력자는 러시아 민담학자 블라디미르 프로프(V. Propp)가 설정한 민담의 등장인물(Dramatis Personae)의 한 유형이다. 프로프는 민담의 등장인물을 악마(villain), 증여자(donor), 조력자(helper), 탐색대상(sought-for person and her father), 파송자(dispatcher), 주인공(hero), 가짜주인공(false hero)의 7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중 조력자는 주인공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을 도와 적대자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인물이다. 한 편의 설화에서 조력자는 하나만 등장하기도 하고 여럿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조력자가 주인공을 도와주는 방법도 다양하다. 주인공이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구하기도 하고, 적대자와 대결할 때 힘을 보태기도 하며, 주인공에게 적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대자를 퇴치할 도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하국대적퇴치설화(地下國大賊退治說話)〉에서 주인공 한량과 의형제를 맺고 한량이 줄을 타고 지하 굴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것을 도와준 초립동들이나 한량에게 대적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 까치 등이 조력자이다. 조력자는 영웅설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기아(棄兒)가 된 영웅을 구출하여 양육하는 인물이나 주인공에게 학문이나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이나 도사 등이 대표적인 조력자이다.

필자 서대석(徐大錫)

민담

조마구

표제어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 괴물

전설

조신

調信

정의 조신(調信)이 낙산사 관음상 앞에서 꿈을 꾸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전설.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탑상」의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이하 낙산이대성) 조에 속해 있는 설화들은 낙산사, 세달사(현 강원도 양양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영험전설이다. 신라 하대부터 김주원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반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며, 백성들은 가난하여 유랑을 일삼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신〉을 비롯한 이 지역 불교 영험전설은 귀족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버팀목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전쟁과 살육의 상흔이 깊을수록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가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연의 편찬의식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 일대에 전하는 관음보살의 영험전설을 채록하고 연대기 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진신(眞神)이 바로 이곳에 거주한다는 신념을 거듭 강조했다. 몽고난 이후의 피폐해진 상황을 관음보살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줄거리 조신은 세달사 장원을 관리하던 중 그곳 태수 김흔의 딸에게 깊이 매혹되었다. 그는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그녀와 결합하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관음보살 앞에 가서 원망하며 울다가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김씨 처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다섯이나 두었으나 가난에 시달리며 초야를 두루 유랑했다.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는 가운데 헤어지자는 간곡한 부인의 말에 기뻐하며 갈라서다가 잠이 깨었다. 그는 관음상 앞에서 참회하고 부지런히 선행을 쌓았는데 나중의 그 종적은 알 수가 없다.

분석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꿈의 구조와 그 의미는 〈조신〉의 의미를 규명하는 관건이 된다. 제법(諸法)을 공(空)으로 보는 불교는 현실과 비현실을 모두 환(幻)으로 여긴다. 어느 한 편에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고 부정하는 방편으로 양자를 자유롭게 오가며 연기(緣起)의 진실을 드러낸다. 〈조신〉에는 이러한 불교적 진실이 잘 드러난다. 신분 높은 여자를 연모하는 현실은 비현실적이고, 가족을 이끌고 유랑하는 비현실계는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현실과 비현실이 겹겹이 포개진 세계를 경험한 후, 실상을 바로 보는 진실을 깨닫게 된 그는 사재를 기울여 정토사를 세우고 부지런히 선행을 쌓다가 나중에는 종적을 알 수 없게 된다[不知所終]. 여기서 백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함께하는 불교 지식인의 고뇌와 삶의 지향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조신〉을 단순히 영험설화에 그치지 않고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한 요인이며, 관음영험담이나 당 전기(傳奇)의 영향으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드는 독특한 특질이기도 하다.

그간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신〉을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성립된 전기소설로 규정하는 문학사적 접근이다. 이로써 소설의 기원을 나말여초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불교사상과 연결하는 접근방식이다. 꿈과 현실이 겹쳐진 환몽구조를 유식학(唯識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든가, 일연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조동오위의 철학을 작품에 대입하는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낙산이대성 조 자체의 체제를 분석함으로써 불교적 의미를 도출하는 방향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다. 셋째는 나말여초의 극심한 사회변동이 작품의 사상적 구조와 형식을 창출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변증법적 가설에 따라 불교의 깨달음 구조가 나말여초라는 현실의 변혁 과정을 담아내면서 불교적 주제뿐만 아니라 현실을 담아내는 논리 구조를 창출했다고 보았다. 격변기라는 사회적 형식이 불교 진리와 마주쳐 환몽구조라는 문학양식과 시대적 환란에 대한 삶의 비전이 제시됨으로써 묵직한 의의를 만들어낸다. 이로써 〈조신〉이 단순한 불교문학이 아니라 낙산사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 하층민의 동향 및 지식인의 사상적, 정치적 이상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조신〉에서 보이는 '현실-초현실-현실'이라는 환몽구조는 당 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최치원〉 같은 전기소설을 비롯하여 조선 중기 몽유록과 조선 후기 소설인 〈구운몽〉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구조를 공유한다 해도 사상적,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의미지향이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당 전기인 〈침중기〉는 대부분 도가적 환술로 시작하여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깨어난 후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면서도 끝까지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최치원〉에서 초점은 불합리한 세계에 대한 문인 지식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데 있다. 주인공은 좌절한 유자(儒者) 관료로서 꿈속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두 미인과 만나 사랑을 나누다가 각몽 이후 세속과 단절하고 은둔한다. 작품의 무게중심은 소외된 문인의 고독감이 해소되는 몽중 체험에 놓여 있다. 이에 반해 〈조신〉의 몽중 체험은 현실보다 더 처참하다. 각몽 이후에는 생의 관점이 바뀌며 각몽 이후의 깨달음과 행위가 부각된다. 하지만 같은 불교사상에 근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구운몽〉은 몽중 세계가 쾌락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조신〉과 다르다. 쾌락으로 채워진 몽중 현실을 다시 깨달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육관대사라는 서사 장치가 필요해진다.

의의 이처럼 〈조신〉은 불교의 진리를 꿈과 현실을 오가는 고도로 조직적인 구조와 사실적인 현실 묘사로 표현한 불교문학의 정수다. 지역적 전통을 기반으로 나말여초라는 당대 사회의 어수선한 현실과 이를 넘어서려는 민중과 지식인 집단의 고뇌가 녹아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의 전기소설이나 후대 유가 지식인들이 창작한 전기와 질이 다르다. 문학사적으로도 당대 한문학의 경지를 가늠하고 소설의 연원 탐색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위상을 지닌다. 또 한·중·일을 관통하는 환몽구조가 불교사상을 배경으로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전범이기도 하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조신 조의 연구(김정경, 정신문화연구3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조동오위의 시각으로 본 낙산이대성 관음정취조신 조의 이해(신연우, 한국사상과문화1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조신설화의 비교연구(차용주, 한국문화인류학2, 한국문화인류학회, 1969), 조신에서 깨달음의 실천지향과 변증법적 삼단구조(김용철, 한국학연구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조신전의 구조와 형성배경(오대혁, 한국문학연구2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한국전기소설의 미학(박희병, 돌베개, 1997).

필자 박성지(朴聖智)

민담

족제비가 된 남편의 원혼

정의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원혼(冤魂)이 족제비로 화(化)하여 자신을 죽인 부인과 간부를 징치(懲治)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어떤 남자가 형편이 어려워져 기르던 소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돈주머니를 한쪽에 풀어놓고 똥을 싸고 있는데, 족제비 한 마리가 돈주머니를 물고 달아나 새로 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화가 나서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려 하는데 어디선가 개가 나타나 술상을 건드려 엎어 놓았다. 남자가 개에게 돌을 던졌으나 개 옆에 드러누워 잠자고 있던 다른 사람을 맞춰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관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돈주머니를 잃어버린 남자가 자초지종을 말해 무덤을 파 보았더니 그 속에 잃어버린 돈주머니와 함께 훼손된 시신이 있었다. 돌에 맞았던 사람은 주막집 여주인의 간부로 둘이 짜고 여주인의 남편을 살해했는데, 죽은 남편의 원혼이 족제비와 개로 변하여 죄상이 드러나도록 한 것이다.

변이 각편에 따라, 돌에 주모가 맞아 죽기도 하고, 가위를 던졌더니 간부의 눈에 꽂히기도 하고, 접시나 술 사발을 던져 간부의 눈을 맞히기도 하고, 명태를 칼등으로 두드리다가 칼이 빠져 간부의 목에 꽂히기도 한다. 족제비 대신 여우나 쥐 혹은 매가 등장하기도 하고, 개 대신 고양이가 등장하기도 한다. 원혼이 족제비나 개로 화한 것이 아니고, 하늘이 족제비와 개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을 알리도록 했다는 각편도 있다.

분석 죽은 시신이 있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굴을 파서 사는 동물이어야 하기에 원혼이 족제비나 여우로 화한 것으로 보인다. 원혼담은 보통 마지막 반전이 중요한데, 돈을 잃어버리고, 술상이 엎어지고, 사람을 해치는 따위로 계속되는 불행이 결국은 범인을 잡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마지막 반전이 돋보이는 설화이다.

특징 지은 죄는 언젠가는 탄로 나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고서는 무사히 살 수가 없다는 주제가 담긴 윤리적 성격이 강한 설화이다. 우리 설화에 등장하는 원혼은 대체로 여자인 예가 많은데, 이 설화에서는 원혼이 남자이며, 동물로 변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247; 7-14, 390.

참고문헌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강진옥,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강진옥, 고전문학연구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필자 심우장(沈愚章)

전설

종소리

표제어 치악산

신화

주몽신화

朱蒙神話

정의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의 탄생과 건국에 얽힌 신화.

줄거리 주몽에 관한 신화 기록은 여러 문헌에 나타나지만 『구삼국사(舊三國史)』와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고 풍부한 신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주몽에 관한 여러 구전이 종합되어 새롭고도 장엄한 건국 이야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주몽은 해모수와 유화의 아들로 출생한다. 천제가 태자 해모수를 부여의 옛 도읍지로 보낸다. 옛 도읍지는 천제의 명에 따라 동해 가섭원으로 나라를 옮겨 동부여를 세운 부루왕의 땅이었다. 오룡거에 탄 해모수는 고니를 탄 백여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강했는데, 머리에는 까마귀 깃으로 만든 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을 차고 있었다. 아침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천왕랑이라고 불렀다. 해모수는 웅심연 물가에 놀러 나온 하백의 세 딸을 아름다운 구리집으로 유혹하여 그 가운데 맏이인 유화와 억지로 통정한다. 해모수가 용수레를 따라 하백의 나라에 이르러 유화와의 혼인을 요청한다. 해모수와의 변신술 대결에서 패한 하백은 혼인을 허락한 뒤, 해모수가 유화를 버리고 갈까 걱정하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둘을 함께 가죽수레에 넣어 용수레에 싣는다. 하지만 술이 깬 해모수는 유화의 금비녀로 가죽수레를 뚫고 홀로 승천한다. 하백이 크게 노하여 유화를 우발수로 추방한다.

유화는 어부의 그물에 걸려 동부여의 금와왕에게 갔는데, 금와왕은 유화가 천자의 비(妃)라는 걸 알고 별궁에 둔다. 그 뒤 유화는 햇빛이 몸을 비추어 임신을 하고 왼쪽 겨드랑이에서 큰 알을 낳는다. 왕이 알을 버렸으나 우마(牛馬)가 피해가고 새가 깃으로 품어 어쩔 수 없이 유화에게 돌려주었더니 마침내 한 사내아이가 알을 깨고 나온다. 한 달이 지나 말을 하였는데,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자 백발백중으로 파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주몽이라고 했다. 성장하면서 금와왕의 일곱 아들과 함께 사냥을 다녔는데 너무 뛰어나서 항상 질시를 받는다. 그래서 주몽은 유화가 준비해 준 준마를 타고 세 벗과 더불어 동부여를 떠난다. 압록강 동북쪽 엄체수에 이르러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천자의 손자, 하백의 외손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말하면서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뒤쫓는 군사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강을 건넌다. 졸본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운 뒤 비류왕 송양과의 대결에서 크게 승리한다. 왕위에 오른 지 19년 만에 하늘에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아서 태자가 왕이 남긴 옥채찍을 용산(龍山)에 묻고 장사를 지낸다.

분석 주몽은 동부여 금와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로,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동부여를 떠나 남하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운 뒤 비류국을 점령하는 등 점차 세력을 키워간 인물이다. 그러나 주몽의 신화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주몽의 혈통과 능력을 신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여계 민족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천신의 권위와 혈통을 끌어들인다.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를 아버지로 삼는다. 해씨는 주몽의 성인 고씨와 혈통이 다른 고구려 지배세력 가운데 하나였다.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 된 것은 천제의 권위와 해씨 집단의 힘을 동시에 끌어들이려는 계책에 따른 것이다. 주몽은

해모수만이 아니라 하백계 집단도 끌어들인다. 왕의 시비가 빛에 의해 임신을 한다는 부여계 전승이 있지만, 유화는 단지 시비가 아니라 하백의 딸로 자리매김 되어 압록강의 수신을 숭배하는 또 하나의 세력을 신화를 통해 통합한다. 천신과 지신(수신)의 결합에 의해 건국주가 탄생했다는 신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주몽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주몽신화〉는 몇 가지 점을 더 부각시킨다. 무엇보다 주몽은 명사수이다. 원시, 고대사회에서 활쏘기 능력은 영웅의 핵심적 징표였다. 주몽은 어려서는 파리를 쏘아 명사수, 곧 주몽이란 이름을 얻었고, 성장기에는 동부여 왕자들의 질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탁월한 사냥 능력을 뽐냈으며, 동부여를 탈출해서는 유화가 보낸 비둘기를 쏘아 보리 종자를 얻었고, 나라를 세운 뒤에는 백 보 밖에 옥가락지를 놓고 쏘아 비류국 왕 송양을 굴복시켰다. 주몽의 활은 그의 군사적 능력을 상징한다.

활은 군사적 능력만이 아니라 종교적 능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주몽은 위기 상황에서 '천제의 손자, 하백의 외손'이라는 일종의 주문을 외우면서 활로 물을 쳐서 어별교를 만든다. 이때의 활은 주술적 도구이기도 하다. 주몽의 이런 행위가 말해 주듯이 주몽은 군사적 영웅이면서 종교적 영웅, 다시 말해 주술사이기도 하다. 주몽은 죽은 비둘기에게 물을 뿜어 되살린다. 유화가 보낸 비둘기 한 쌍을 활로 쏘아 떨어뜨린 뒤 보여준 신이한 능력이다. 주몽은 비류국 왕 송양과의 싸움 과정에서 사슴을 거꾸로 매달고 위협하며 주문을 외운다. 이 주문이 효력을 발휘하여 큰 비가 내려 송양의 도읍을 물에 잠기게 한다. 〈주몽신화〉는 주몽을 군사적 영웅이자 종교적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몽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몽은 일찍이 준마를 알아보고 그 말의 허뿌리에 바늘을 꽂아 여위게 하여 금와왕으로부터 그 말을 얻는다. 주몽은 신하 부분노로 하여금 비류국의 고각(鼓角)을 몰래 가져오게 한 뒤 색을 검게 칠하여 오래된 것처럼 만들고, 궁실을 썩은 나무로 지어 오래 묵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도읍의 선후를 따지는 비류국왕의 입을 막는다. 영웅이 가진 꾀쟁이(트릭스터)의 형상이 주몽에게도 보인다. 이 같이 여러 국면에서 주몽이 신성화됨으로써 고구려의 건국은 종교적, 역사적 정당성을 얻는다.

또, 고구려 건국영웅 주몽은 후대에 한반도 고대국가들의 역사가 고조선을 기원으로 삼아 통합되는 과정에서 단군과 관계를 맺고 부루의 형제가 되기도 한다. 『단군기(檀君記)』라는 문헌에는 단군이 하백의 딸과 관계를 맺어 아들 부루를 낳았는데, 해모수가 또 하백의 딸과 결혼하여 주몽을 낳았으니 주몽은 부루와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는 것이다. 주몽은 어머니 유화를 통해 단군과 연결된다. 단군은 주몽의 이모부가 되는 셈이다. 목적에 따라 혈통이 통합되면서 주몽과 관련된 다양한 신화들이 형성된 것이다.

특징 〈주몽신화〉는 건국신화가 재구성되는 양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주몽신화〉에는 부여계 〈동명왕신화〉만이 아니라 해부루 등의 〈해씨계신화〉, 하백으로 대표되는 〈수신계신화〉, 송양으로 대표되는 〈고조선신화〉 등이 종합되어 있다. 또 〈주몽신화〉에는 다른 건국신화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신계 집단이 드러난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와 유화의 아버지 하백 집단이 그들이다. 하백은 압록강의 신으로 수신이다. 동부여의 금와왕 탄생신화, 연개소문의 탄생담이나 그 아들들의 묘지명에도 수신신화의 특징과 흔적이 나타난다.

의의 〈주몽신화〉는 건국서사시로서 건국신화의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기록된 건국신화는 본래 국가의 제전에서 불리던 건국서사시가 역사 기록으로 정착된 것이다. 『구삼국사』에 기록되었던 〈주몽신화〉는 서사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또, 하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북방계 유목민들이 정착민이 되고 농업생산을 시작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화로서의 의의도 가지고 있다.

출처 舊三國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地理志.

참고문헌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조현설, 문학과지성사, 2003),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이지영, 월인, 2000).

필자 조현설(趙顯卨)

전설

주왕산

周王山

정의 주왕산의 이름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전설.

줄거리 〈주왕산전설〉은 현재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전승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옛날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 주도(周鍍)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주왕'이라 자칭하며 장사 백여 명을 거느리고 장안을 치려다 도리어 패하여 요동을 지나 천신만고 끝에 지금의 주왕산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당나라에서는 신라왕에게 주도를 잡으라고 부탁했다. 신라왕은 마일성(馬一聲)의 다섯 형제를 시켜 그곳에 가서 주왕이라는 자를 죽이라고 명하였으며, 다섯 형제는 우여곡절 끝에 주왕을 잡아 죽였다. 그날 밤 주왕의 서자 대전도군(大典導君)이 주왕의 주검을 찾아 굴을 파서 감추었다. 형제는 그것을 알고 그 굴에 안치된 주왕의 시신을 꺼내어 굴 위에다 쇠갈고리로 주왕과 그 부하를 찍어 올려 세웠다.

또 다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라의 왕자 김주원(金周元)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였다고 하여 '주방산(周房山)', 고려의 군사를 막느라 쌓은 성이 '주방산성(周房山城)'이라 일컫는다.

분석 〈주왕산전설〉 중 하나는 당나라 덕종 때 주도란 사람과 관련된 전설이며, 다른 하나는 신라의 왕자 김주원에 관련된 전설이다. 그런데 두 전설 유형은 우리나라 역사문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및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산 이름도 주방산과 주방산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1587년 2월에 학봉 김성일이 주왕산을 유람하고 남긴 시에서도 전설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서애 유성룡의 경우에도 주왕산의 한자를 '주왕(朱王)'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긍익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성재(省齋) 권상익(權相翊)의 『주왕산유기(周王山遊記)』에서도 주왕산의 언급은 있으나, 인물 전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이 1597년에 저술한 『주왕산록(周王山錄)』에서는 '이 산이 주왕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삼한시대에 왕호를 가지고 있던 자가 이곳에 피난을 와서 산 위에 대궐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 자는 위급한 일이 있으면 폭포수 가운데 바위구멍에 숨어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각편 또한 현재 전승되는 전설유형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승되는 주왕산 유래와 관련된 두 유형의 전설은 이러한 문헌이 생긴 시기보다 훨씬 후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전설 유형 중 주도 관련 각편은 『동아일보』 1926년 10월 31일자 기사에 소개된 내용이고, 김주원 관련 각편은 1966년에 발간된 『경상북도 관광자원집』에 실린 내용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특징 주왕산에는 유래전설 외에도 주왕산 주변의 자연물에 얽힌 전설이 주왕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기암병풍바위, 학소대, 급수대, 주왕암, 주왕굴, 무장굴, 연화굴, 자하성, 백련암 등에 관한 유래전설은 모두 주왕의 전투 및 가족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경상북도 관광자원집(경상북도, 1966), 청송명물 주왕산의 내력(동아일보, 1926년 10월 31일).

참고문헌 조선 중기 성리학자의 산수 감상 특징과 그 의미-여헌 장현광의 주왕산록을 중심으로(이지양, 고전문학연구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주왕산에 얽힌 전설(국립공원문화73, 한국자연공원협회, 1998).

필자 김진형(金鎭亨)

전설

주원장

朱元璋

정의 조선 사람 주원장이 중국에 가서 천자가 되었다는 설화.

역사 〈주원장설화〉인 천자봉의 지명전설, 천자명당설화, 환생하여 천자가 된 구렁이설화 등은 출신이 미천한 명나라 태조를 활용하였고, 이성계와 비교하는 설화는 주원장을 이용해 이성계의 역량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줄거리 이무기인 대명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치악산 주지가 용이 될 수 없으니 천자 노릇이나 하라며 이무기를 죽이자 혼이 나와서 오막살이로 들어간다. 대사가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다 공부시키고 부모 유골과 함께 삶은 달걀을 묻게 한다. 중국에서 이성계가 만난 사람이 자신에게는 은잔을 주고 주원장에게는 금잔을 주어 이성계는 조선으로 온다. 중국에서는 짚으로 만든 북을 울리는 사람이 천자가 되는데 주대명이 천자라는 방을 붙이고 짚북을 던지니 소리가 나서 천자가 된다.

변이 위의 줄거리는 〈천자 주대명〉이다. 〈주원장설화〉는 구렁이환생설화, 천자명당설화 그리고 이성계와 비교설화 등 세 가지 유형과 그 복합형, 기타 설화가 있다. 위의 설화는 복합형에 속한다. 구렁이 환생설화에서 절의 주지나 도승 대신에 심마니, 병조판서 등이 주원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며, 구렁이는 칼 외에 불에 죽기도 하고 구렁이의 혼은 노란 구름이나 청개새로 표현된다. 절에서 자란 아이는 손을 펴지 않는데 이를 펴자 천자의 손금이었다. 이 사실이 누설되지 못하도록 주지를 죽임으로써 천정(天定)의 엄정성을 보인다. 주원장의 출생지, 묘지, 활동지역은 황해도, 함경도, 충청북도 단양, 강원도, 경상도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특히 경상도 웅천은 천자명당의 장소로 거론된다. 천자명당설화는 지관 입장에서 서술되며, 수중명당인 예도 있다. 이성계 비교설화는 은잔, 금잔처럼 물품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담력, 주량, 식사량, 문장 등도 비교 대상이 되어 〈천 냥 술과 만 냥 술〉, 〈신 한 켤레와 두 켤레〉, 〈천자의 시와 제후의 시〉 등으로 전한다.

분석 이 설화에는 천명의 필연성과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필연성은 손금과 명당에서 확인된다. 주지에게 간 아이는 오랫동안 손을 펴지 않는데 손금에 '왕, 대국천자, 대명천자 주원장, 주천자' 등이 쓰여 있다고 하였다. 명

당설화에서는 지관이 천자 자리에 자기 부모의 묘를 쓰려 했으나 실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본인의 무능보다는 천명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 외에 천자를 배출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드러난다.

의의 천자는 신분제 사회인 당대에 가장 높은 존재이다. 이 설화에는 아무리 미천한 존재라도 명당을 잘 잡고 손금을 잘 타고 태어난다면 가장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8, 351; 3-4, 602; 8-10, 394.

참고문헌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변이(임철호,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한국설화의 중국인물 연구(손지봉, 박이정, 1999).

필자 손지봉(孫志鳳)

민담

주인집 딸에게 장가간 머슴

정의 머슴이 기지를 발휘해 주인을 속여 주인집 딸에게 장가를 갔다는 소화(笑話) 성격의 민담.

줄거리 한 머슴이 주인집 딸에게 장가가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저녁에 주인이 머슴을 불러 다음 날 아침 일찍 보리를 타작하라고 했다. 머슴이 부엌에 들어가 보니 장작이 없어서 장작을 쌓아 놓은 곳에 갔는데, 빨려고 벗어 놓은 주인집 딸의 속옷이 있어 가져 왔다. 새벽닭이 울자 머슴은 그 속옷을 입고 마당에 나와 보리타작을 했다. 타작 소리에 주인이 일어나 머슴이 속옷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입고 있냐고 물었다. 머슴은 자기 속옷을 입는다는 게 주인집 딸의 속옷을 입었다며 혼잣말을 하고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주인은 머슴이 딸과 동침했다고 생각하여 그를 사위로 삼았다.

변이 이 설화는 머슴이 꾀를 쓰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 머슴이 주인집 딸의 속옷을 훔쳐 입고 일을 하여, 주인이 딸과 머슴이 동침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드는 유형, 머슴이 깃털을 주인집 딸이 오줌 누는 곳에 꽂아 딸이 걸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병에 걸리게 하여 이를 고쳐 주는 유형, 뒷간에서 볼일을 보는 주인집 딸에게 머슴이 '씹'이라고 욕을 하여 주인이 딸과 머슴이 동침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유형, 머슴이 남녀의 관계를 모르는 주인집 딸을 속여 동침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유형은 변이가 덜하지만 마지막 유형은 머슴이 주인집 딸을 속이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특히 이 유형은 머슴이 동침을 하기 위해 주인집 딸을 속이는 과정이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소화이면서 육담(肉談)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분석 이 설화는 『한국설화유형분류집(韓國說話類型分類集)』의 분류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 상위 유형인 '3 속이고 속기' 중에서 최종 유형인 '333-2 처녀 차지해 장가드는 술책'에 속한다. 처녀를 차지해 장가드는 술책 중에는 주인집 딸과 머슴의 관계 외에도 서로 이웃하는 처녀 총각의 관계를 다룬 설화도 있다. 그 중에서 머슴이 주인이나 주인집의 딸을 속여 장가를 가는 것만 이 부류에 속한다. 주인은 머슴을 사위로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미 머슴이 자신의 딸과 동침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한다.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웃의 시선을 의식해서 두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기도 하는데, 이는 전통사회에서 결혼관과 신분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특징 소화의 주인공은 흔히 가난하고 억눌림 받다가 마지막에는 승리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이 설화는 주인에게 늘 복종해야 하는 '머슴'이 지략을 사용해 상전을 속여 주인집 딸과 결혼하고 부(富)까지 차지하여 승리자가 되는 점에서 소화 주인공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의의 이 설화는 신분적으로 약자인 머슴이 지략을 통해 기존의 신분 질서에 대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면서도 이를 웃음으로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2, 420; 2-6, 383; 5-5, 146; 7-6, 123; 7-10, 842.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1971),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이홍우(李洪雨)

전설

주천강

酒泉江

정의 샘에서 저절로 술이 나오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술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설화.



주천강
강원 영월군 주천면, 2005.1.16, 시몽

역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영월군 주천면 조에 '주천석(酒泉石)'에 관한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곳 지명은 고구려 때는 '주연(酒淵)'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주천(酒泉)'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곳의 지명이 오래 전부터 술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천 설화 역시 그 생성과 전승의 역사가 고구려 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줄거리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 '주천'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이 샘에서는 사시사철 술이 나왔다고 한다. 이 샘물은 양반이 마시러 가면 청주가 나오고 상민이 가면 탁주가 나왔는데, 상민이 일부러 양반 복식을 하고 가도 여전히 탁주만 나오는 신비한 샘이었다. 어느 날 이 고을에서 농사를 짓던 한 젊은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진짜 양반이 되었다. 젊은이는 고향으로 금의환향을 해서, 이제는 샘물을 뜨면 청주가 나오겠지 하고 샘에 가서 물을 뜨니 예전처럼 탁주만 나오는 것이었다. 이에 화가 난 젊은이가 샘물이 나오는 곳을 막아 버리니 이후로는 아예 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변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설화이기는 하지만 전승되는 사례는 대략 20곳 미만이며, 영월군 주천면의 〈주천석설화〉가 가장 대표적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본래 주천석이 돌구유처럼 생겼는데 매일 물 길러 가는 것이 귀찮았던 관원이 현청으로 옮기려는 순간 천둥과 벼락이 쳐서 바위가 세 개로 갈라졌으며, 그중 하나가 이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전승되는 설화에서는 이런 내용은 보이지 않고, 주천에서 나오는 술이 반상(班常)을 구별하여 나오기에 화가 난 상민이 술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영종도와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한 사람이 딱 한 잔씩만 먹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혹은 중)이 여러 잔을 마셔서 부정을 타 술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예도 있다.

분석 〈주천설화〉는 최상수에 의해 처음 소개된 후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황인덕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황인덕은 영월군에 전승되는 〈주천설화〉를 대상으로 '주천'이라는 지명의 전설화 과정과 설화의 변이과정을 추적하여 현재 전승되는 설화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특징 '술샘'이라는 명칭은 샘을 중심으로 길 가던 사람들이 모여 쉬던 곳이라는 의미의 '쉴샘'에서 '술샘'으로 변이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반상을 구분하여 술이 나온다는 것은 조선 후기의 신분제 혼란이라는 당시의 사회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의 〈주천설화〉는 광포설화인 〈쌀 나오는 바위〉 이야기와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비슷하다. 이야기 속의 쌀이나 술은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자연의 혜택이다. 그런데 그러한 혜택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는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주천설화〉는 지나친 인간의 욕심에 대한 하늘의 벌을 자연물의 파괴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소박하면서도 엄격한 우리 민족의 윤리관을 잘 드러낸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출처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8, 327; 2-9, 819; 8-2, 24,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성문각, 1984).

참고문헌 영월 술샘전설의 장소성과 역사성(황인덕, 구비문학연구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한국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연구(강진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필자 한미옥(韓美玉)

신화

죽령산신당신화

竹嶺山神堂神話

정의 다자구할머니를 여성 신격으로 모신 충청북도 단양군 용부원리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신화.

역사 이 신화는 충청북도 단양에서 경상북도 풍기와 안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죽령과 연계하여 전승된다. 죽령은 높이가 689m이며, 죽령재 또는 대재라고도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2」에는 신라 제8대 왕인 아달라이사금 5년(158)에 고개가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1910년대까지도 경북 동북 지방의 여러 고을들에서 서울을 오갈 때 이 고개를 이용하였다. 죽령은 문경새재와 함께 영남로와 백두대간을 대표하는 큰 고개다. 1941년 죽령터널(철도) 개통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이 개통되어 지금은 옛길이 되었다. 이곳 죽령에서는 해마다 음력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 마을 옆 당산에 위치한 죽령산신당(竹嶺山神堂)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기원의 대상 신격은 죽령산신, 곧 다자구할머니다. 죽령산신제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나온다. 141년(태종 14) 8월 신유(辛酉)에 나라의 사전체계(祀典體系)를 정비하면서 국행의례로서 죽령산(竹嶺山)이 소사(小祀)에 등재되었다. 용부원리 마을에는 산신제 축문, 홀기들이 보존되어 있다.

줄거리 죽령 일대에는 도적 떼 소굴이 곳곳에 있어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도적질하고 심지어는 공납물조차 노략질을 당하는 일도 있어서 단양군수가 곤경에 처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묘안이 있으니 인근 군에서 군사들을 지원받아 도적 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단양군수에게 청하였다. 단양군수가 할머니의 말에 따라 가까운 풍기, 영춘, 청풍의 수령에게 도움을 청하여 군사를 지원받아 매복시켰다. 할머니가 "다자구야!" 외치면 도적 떼가 잠을 자고 있는 신호요, "들자구야!" 외치면 도적 떼가 자지 않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신호로 알라는 묘책을 내놓고는 도적 소굴 근처에서 "다자구야, 들자구야!" 하며 외치고 다녔다. 도적 떼가 웬 소리냐고 묻자 할머니가 말하기를 "나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다자구요 작은 아들은 들자구인데,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찾아다닌다."라고 하니, 도적들이 의심하지 않고 도적 소굴에 같이 머물게 하였다. 어느 날 두목의 생일을 맞아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신 도적들이 취해서 곤히 잠들자 할머니는 "다자구야!" 하고 외쳤고,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한순간에 도적 떼를 잡았다. 한편, 궁중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보상 하고자 할머니를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다. 어느 날 임금의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 연을 띄워 연이 떨어진 곳이 내가 자리 잡을 곳이라고 알려 준다. 그곳이 지금의 죽령산신당 자리이다. 그 후 다자구할머니는 신으로서 영험함을 보이고, 점차 지역민들은 신앙 대상인 죽령산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죽령산신당
충북 단양군 대강면. 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죽령산신당신화〉는 죽령산신이 도적을 물리치는 무용담과 죽령산신당이 만들어지는 유래를 설명하는 유래담, 그리고 산신으로 좌정한 이후에 보여 주는 신이담(神異談)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신화는 죽령 일대의 한 노파가 신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죽령산신당과 산신제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어 신화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제의의 주체자인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마을 주민들은 죽령산신과 산신제의 신성성을 지속적으로 보여 준다. 곧, 신이담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한 이 신화는 죽령산신인 다자구할머니의 신통력이 뛰어남을 증명하고, 잘 위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변이가 일어난다. 더불어 이 신화는 죽령국행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죽령국행제는 죽령의 수호신이자 인격신인 '다자구할머니'를 의례 대상 신격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봄가을로 향(香)과 축(祝)을 내려 행하던 전통 의례를 말한다. 조선 태종 연간에 국가의 사전(祀典)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죽령산이 소사(小祀)로 등재되었고, 세종 연간에 제장이 새로이 정비되면서 국행의례로 체계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엄격하게는 조선 이래로 특히 일제강점기, 6·25전쟁, 새마을운동 같은 격동의 근·현대를 거치면서 당대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전승되고 있다. 또, 무속인들과 부녀층도 암암리에 산신당에 와서 다자구할머니에 대한 비손 행위를 한다.

특징 죽령산신이 부여받은 국가수호신의 종교적 상징성은 〈죽령산신당신화〉에서 비롯된다. 죽령고개에 좌정해 있던 여신이 할머니로 현신해 도적의 피해와 이에 따른 고통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그 신성성을 드러내고 공동체 제의의 신체(神體)로 자리 잡는 여신신화다. 다자구할머니는 죽령산신제에서 모셔지는 산신(山神)이면서 여신(女神)이다. 이 신화 속에서 다자구할머니는 수호신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지역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해 주지만, 일반적인 여성신화와 달리 농신(農神)의 요소나 거인의 형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의의 죽령전설이 여신좌정담으로 발전한 사례이다. 〈죽령산신당신화〉는 국행제 또는 산신제를 통한 공동체 신앙과 결부되어 있으며, 개인이나 지역의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담(來歷談)으로 이용되고 있다. 곧 전승되는 제의의 현장인 신당(神堂)의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다. 큰 산이나 큰 고개에 결부된 여신의 실체가 재미있는 '다자구 덜자구'라는 노래로 도적 집단을 소탕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공감을 동시에 획득하는 여성 영웅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자구할머니는 죽령 인근의 〈온달전설〉, 〈석문마고전설〉, 〈부석사선묘전설〉에 나오는 온달누이, 마고할미, 선묘와 같은 여신 계보를 잇고 있다.

출처 단양군 민속조사 보고서(김영진, 단양문화원, 1992), 민담민요집(충청북도, 1984), 민속지(충청북도, 1989), 전설지(충청북도, 198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3-3, 32.

참고문헌 다자구할머니 설화의 신화적 성격(이창식·최명환, 동아시아고대학7,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 죽령국행제 조사연구(이창식·안상경, 박이정, 2003), 충북 북부지역 여성설화 연구(최명환, 충북학8, 충북학연구소, 2006).

필자 이창식(李昌植)

민담

죽어서 염라대왕 된 사람

정의 아버지의 영뚱한 유언을 따라 아버지는 염라대왕이 되고 아들은 조선의 왕이 된 사람에 관한 설화.

줄거리 삼 형제를 둔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 자기가 죽거든 시체를 물에 넣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형들은 거부했으나, 막내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가족들의 비난을 피해 무작정 길을 떠났다. 그러던 중 산속에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귀신임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정승의 딸이었는데, 이를 인연으로 정승은 막내아들을 잘 대해주었다. 그날 밤 다시 그 여인이 막내아들 앞에 나타나 자기를 살려내는 법을 알려주자 이내 여인을 살려냈다. 이후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중국까지 퍼져 중국의 천자가 죽은 태자를 살려내라고 막내를 잡아들였다. 막내는 아버지의 묏자리를 통해 저승으로 갔고, 염라대왕이 된 아버지를 만나 죽은 태자를 살려냈다. 후에 태자는 대국의 왕이 되고, 아들은 조선의 왕이 되었다.

변이 아버지의 유언은 각편마다 다르지만, 통상의 예법에 벗어난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연못이나 강처럼 물에 넣으라는 유언이 대부분이고, 나무 밑에 넣어 달라거나, 목만 빼서 석관에 넣어 달라는 유언도 있다. 이 설화에서는 아버지가 저승의 염라대왕이 되어 있지만, 간혹 용궁의 용왕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시신을 물에 넣으라는 유언을 고려할 때 용궁이 조금 더 개연성이 있다. 유언을 거부한 두 형은 후에 아버지의 유언을 거부한 죄로 소가 되거나 거꾸로 매달리는 식의 벌을 받는다. 정승의 딸을 살려내는 내용이 생략된 이야기도 있다. 정승의 딸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준다는 단락이 드물게 삽입되기도 한다.

분석 이 설화는 '효'를 명분으로 자신의 입신을 선택하고 부모의 바람을 저버리는 모순을 잘 형상화한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갈등은 일반적인 예법과 아버지의 유언이 대립하면서 시작된다. 이 대립은 참된 효에 대한 물음이다. 두 형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평가를 들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회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다. 효의 기본은 자식 된 도리로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며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원하는 바가 사회적 관념과 대치되는 상황이라면 선뜻 부모를 따를 수 없게 된다. 일반적인 예법을 거스르면 본인의 입신(立身)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말미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른 막내는 복을 받지만, 사회적 규범과 본인의 입신에 얽매인 두 형은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서 설화를 전승하는 계층의 인식을 잘 엿볼 수 있다.

특징 현실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가치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저승' 혹은 '용궁'이 등장한다. 이승의 참다운 길을 안내하기 위한 사후 세계의 절대 공간으로 저승이 등장한다는 점은 다른 저승설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7, 284; 7-6, 390; 8-5, 329; 8-6, 317; 8-11, 388.

참고문헌 저승설화 연구(최래옥, 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985), 저승설화의 전승양상과 현실주의적 성격(곽정식, 어문학101, 한국어문학회, 2008).

필자 김광욱(金侊郁)

민담

죽을 고비 세 번

정의 세 번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면서 펼치는 흥미진진한 살인사건을 다룬 설화.

줄거리 이 이야기는 과거 길에 나선 선비가 겪게 되는 세 가지 일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선비는 과거보러 가는 길에 점쟁이로부터 세 번의 죽을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는 점괘를 받게 되고, 차례로 사건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낯선 여인의 초대에 그 집에 들어갔다가 치한으로 오해한 남편에 의해 봉변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다. 하지만 선비의 정직하고 곧은 태도로 남편이 오해를 풀게 된다. 두 번째는 남편을 여읠 운명인 정승 집 딸의 남편감으로 납치를 당했다가 딸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이야기이다. 선비는 납치되어 강물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정승 딸이 준 금붙이로 죽음을 모면한다. 세 번째는 선비가 과거에 장원 급제한 후 판서의 사위가 되었는데, 첫날밤 정부(情夫)에 의해 신부가 살해되어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리는 이야기이다. 결국 전에 자신을 구해 준 정승 집 딸이 범인을 알아내는 기지를 발휘해, 살인범의 오해를 풀고 그녀와 혼인한다.

변이 살인범이 황백삼 혹은 백황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본도 존재한다. 하지만 황백삼이 대부분이며 그 이름이 살인사건 해결의 단서가 된다. 세 번째 이야기가 하나의 완결편으로 특화된 이본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장한영을 살린 금낭-황백삼〉이다. 여기에서 장한영 역시 살인사건의 누명을 쓰지만, 과거 길에 점쟁이로부터 받은 점괘로 살아나게 된다. 점괘에는 노란 종이에 '흰 백(白)' 자 세 개가 적혀 있었고, 정승의 딸이 그것을 살인범의 이름인 황백삼으로 추론하여 범인을 잡는다.

분석 이야기의 구조가 문제와 그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문제가 수수께끼 상황과 관련되기에 수수께끼담의 구조를 설명할 때 거론되는 설화이다. 또 마지막 사건의 해결에 여성의 지혜가 관련되기에 여지담(女智談)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기는 이야기 외에 세 번째 이야기가 한 편의 각편으로 구연되기도 한다.

의의 설화 내부에 수수께끼 상황이 펼쳐지고 그 해결 과정이 흥미롭게 진행되어 한 편의 흥미진진한 추리소설과 같은 재미를 주는 설화이다. 특히 수수께끼의 해결에 등장하는 여성의 지혜는 사회적 약자를 새롭게 인식해야 함을 환기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81; 4-4, 118.

참고문헌 수수께끼담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김경섭,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수수께끼의 소통상황 연구(김미숙,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 수수께끼의 기능과 의미 연구(추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필자 김경섭(金鏡燮)

민담

중들의 절 자랑

정의 부석사, 해인사, 통도사에서 각각 수도하는 세 스님이 자기 절이 얼마나 더 큰지 비교하는 소화(笑話) 형태의 설화.

역사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삼국시대부터 전해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대 스님의 상(像)은 민중에게 숭상 대상이었지만, 조선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지가 세속화되고 희화화되어 인간적 결함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조가 국시로 유교를 선택하면서 억불의 길을 걸었고 지배 계층이 양반 사대부였기 때문이다.

줄거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사,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양산시 통도사의 세 스님이 서로 자기 절이 더 크다고 시비하였다. 양산 통도사 스님이 합천 해인사 스님에게 "너희 절이 얼마나 크냐?"라며, 자기 절에 대해서 "동네 곳곳에 들어가면 중이 하도 많아 눈 깜빡거리는 소리가 동해 바람 부는 소리처럼 난다."라고 하였다. 합천 해인사 스님은 양산 통도사 스님의 이야기에 "우리 절은 하루아침에 돌쪽 갈게(돌가루)가 서 말씩 나온다."라고 하였다. 영주 부석사 스님은 "우리 절은 동짓날 팥죽을 끓이면 노를 저어 석 달 열흘을 가도 간을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세 스님은 자기 절이 더 크다고 허풍을 떨었다.

변이 각편에는 대화에 참가하는 스님의 수가 두 명인 변이도 있으며, 비교하는 절이 해인사와 부석사, 해인사와 마곡사로 각각 둘인 변이도 있다.

분석 이 설화에서는 자기 절이 더 크다고 자랑하기 위해 허풍을 떠는 스님들을 희화화하여 보여 준다. 이는 구비전승에서 스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보여 주는 방식 중 하나이다. 존경받는 숭앙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추함을 드러내는 대상도 아닌, 속세의 인간과 다름없는 친근한 대상임을 보여 주고 있다.

특징 근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수도자들을 우리 주변의 보통 인물들과 다름없는 접근하기 편한 인물로 설정하여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설정은 소화가 주는 오락성과 더불어 설화와 같은 서사물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삶의 진실을 보여 준다.

의의 이 설화는 높은 도덕성과 인격적 소양을 갖추고 수도하는 스님들의 희화화를 통해 타인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허영심을 꼬집는다. 이 자료들은 현대 개그관에서 지도층의 희화화라는 측면으로 전승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928; 2-8, 557; 4-5, 73; 6-8, 437.

참고문헌 구전소화에 나타난 승려의 이미지와 웃음(김복순, 어문논집41, 중앙어문학회, 2009), 한국문학의 골계 연구(김영준, 태학사, 1993), 한국의 소화(황인덕, 설화문학연구-상, 회경고전문학연구회,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필자 김미숙(金美淑)

민담

쥐떼도강

정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강을 건너는 쥐떼를 소재로 한 민담.

역사 세계 광포설화(廣布說話)의 하나로 그만큼 전승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국내에서는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 지은 『명엽지해(蓂葉志諧)』의 〈장담취처(長談娶妻)〉라는 이야기가 가장 오랜 것이다. 단, 이 자료는 쥐들이 꼬리를 물고 점고(點考)에 응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임석재 선생이 평안북도 정주(1932년)와 선천·철산(1934년)에서 각각 채록한 〈쥐가 강을 건너다〉와 충청남도 홍성에서 1943년에 채록한 〈끝없는 이야기〉가 비교적 오랜 것이고, 이후 전국 각처에서 채록된 자료가 많다.

줄거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끝없는 이야기'를 원하여 딸(혹은 큰돈)을 내걸고 이야기꾼을 구하였다. 어떤 사람이 찾아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쥐떼들이 먹이를 찾아 꼬리를 물고 강을 건넌다." 하지만 이야기는 "또 한 마리가 꼬리를 물고 강으로 뛰어들었다. 또 한마리가 꼬리를 물고 강으로 뛰어들었다"(혹은 '찍 찍 찍')라는 이야기만 끝도 없이 반복될 뿐이었다. 결국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손들고 약속을 행했다.

분석 이 설화는 〈끝없는 이야기〉,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 등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들은 구조적·형식적 특징에 의한 명칭이므로 특정 유형의 명칭으로는 적당치 않다. 세계 설화의 대표적 유형집인 톰슨(S. Thompson)의 『설화 유형집(The Types of the Folktale)』에도 '끝없는 이야기들(Endless Tales)'이라고 되어 있으나, 복수형인 것으로 보아 단일 유형이 아닌 다수 유형을 뭉뚱그린 명칭으로 보인다. 〈쥐떼도강〉은 내용상의 특징을 드러낸 제명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들은 끝부분이 '한 마리의 쥐가 물에 텀벙 뛰어들었다. 또 한 마리가 텀벙 뛰어들었다. 또 한 마리가……'와 같은 식으로 계속된다. 대개 화자는 이야기 밑천이 떨어졌거나 청자의 구연 강청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나, 청자는 더 이상의 이야기 듣기를 포기한다. 내용적으로는 끝이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으나, 실제로는 끝을 못 본 채 중단되고 마는 것이다.

의의 이 설화는 이른바 형식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흔히 〈아라비안나이트〉로 널리 알려진 〈천일야화(千一夜話)〉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에서 부자나 권력가가 이야기꾼을 구한다는 대목은 과거에 '이야기'가 거래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정작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야기 밑천이 문제였다. 간혹 이야기꾼으로서의 뛰어난 재주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예는 흔치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 유형은 이와 같은 경우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출처 黃葉志諧,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3, 143; 6, 65.

참고문헌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조희웅, 한국학중앙연구원, 1983), The Types of the Folktale(S. Thompson,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1964).

필자 조희웅(曺喜雄)

민담

쥐의 둔갑

정의 사람으로 변해 주인 행세를 하는 쥐를 물리친다는 내용의 둔갑설화.

역사 인도의 둔갑설화인 〈구두쇠 이리이샤〉와 비슷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시종 인색한 이리이샤 하나만을 내세워서 설화적인 소박성을 지키고 있다. 결국 이 두 설화의 목적

은 회개에 있다. 승려나 제석신(帝釋神)의 영험으로 욕심 많고 인색한 사람이 참회하여 불도에 귀의한다는 것이 그 주제이다. 요컨대 진(眞)·가(假)라는 두 주인이 쟁투하는 이야기는 인도의 불교설화에서 근원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는 소박한 민속 이야기로, 또 한 갈래는 그 원류대로 불교적 설화로 뻗어 전해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쥐의 둔갑〉이나 〈김·경쟁주설화(金慶爭主說話)〉는 우리 민속에서 유래한 '둔갑'과 '금기'적 사고법 그리고 불교에서 유래한 '학승(虐僧) 모티프'가 결합한 설화류라 할 수 있다.

줄거리 전국적으로 분포된 광포설화이다. 이야기는 대개 집주인이 함부로 버린 손톱이나 발톱을 오랫동안 주워 먹은 쥐가 주인으로 둔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든 가족이 주인으로 변한 쥐를 진짜로 알고, 원님의 판결로 마침내 진짜가 가짜로 몰려 쫓겨난다. 갖은 고생을 하며 떠돌아다니다가, 원조자의 충고로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고양이가 가짜를 죽이자 가짜는 원래의 쥐로 되돌아오고 진짜가 다시 주인이 된다. 이때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 좇과 쥐 좇도 구별 못 하느냐!"라고 조롱하며 욕한다.

변이 〈쥐의 둔갑〉은 신이담(神異譚) 가운데 변신담(變身譚)에 속하며, 『한국설화유형분류집(韓國說話類型分類集)』에서 '갈만한 데 오기'로 분류할 수도 있다. 주인이 집을 떠난 사이에 변신한 쥐가 주인 노릇을 하는 변이형도 있다. 원조자로 여자가 등장하기도 하며, 원조자 없이 주인이 스스로 고양이를 데려갈 생각을 하기도 한다. 쥐가 둔갑하여 어린 신랑이나 아들이 되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둔갑하는 원인이 의관을 함부로 버려뒀기 때문이거나, 며느리가 쥐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은 타인의 실수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설화는 사람이 자신이 지닌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분별하여 방심하는 사이에 허점이 드러나, 귀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충언과 경계를 교훈으로 한다. 이 이야기가 전파되면서 "쥐 좇도 모른다."라는 선설화(先說話) 후속담(後俗談)이 생겼다. 고소설인 〈옹고집전(雍固執傳)〉은 이 설화와 인색한 주인이 동냥 온 중을 학대하는 이야기가 합쳐져서 이루어졌다. 〈쥐의 둔갑설화〉는 불효에 대한 징계를, 〈김·경쟁주설화〉는 배불(排佛)에 대한 징계를 각각 주제로 한다. 한편, 이 이야기는 '의인화의 법칙'과 '향토화의 법칙'에 따른 화소의 변이가 일어났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분석 〈쥐의 둔갑〉은 쥐와 고양이,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등장시킨다. 이는 소박한 민속적 설화를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여건이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며느리가 늙은 쥐에게 밥을 퍼 주는 대목이다. 그것도 아침밥의 첫 주걱으로 푼, 이른바 '숫밥'을 쥐에게 주었다. 우리 민속에서 숫밥은 으레 집안 어른의 밥그릇에 먼저 담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굶주린 쥐를 동정하느라고 시아버지께 드려야 할 숫밥을 쥐에게 일 년이나 주었다. 집안 어른이 먹어야 할 숫밥을 먹은 늙은 쥐는 자기가 집안 어른이 되고 싶었고, 또 실제로 어른 행세를 했다. 이 설화의 묘처는 여기에 있다. 우직하기만 한 며느리는 악의없이 쥐에게 선심을 베풀었으나, 그것이 결국 불효부(不孝婦)가 되고 말았다는 소박한 결말이다.

〈김·경쟁주설화〉는 몽골 〈박타는 처녀〉계의 설화인 보응설화(報應說話)와 상통한다. 이 계통의 소설인 〈흥부전(興夫傳)〉에서 본다면 경씨 성의 부호는 놀부, 김대운(金大運)은 흥부에 해당하고, 〈흥부전〉의 '박'의 기적이 이 설화에서는 '일노옹(一老翁)'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를 뿐,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는 거의 같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은 불교적 색채이다. 승려가 한 부호에게서 당한 모욕을 복수한다. 성직자를 모독한 대가는 곧 패가망신의 결과밖에 없고, 성직자를 우대한 대가는 부귀를 누리게 된다는 종교적 이적(異蹟)을 강조한다. 〈쥐의 둔갑〉에서는 쥐에게 숫밥을 퍼 준 며느리의 무의식적인 불효가 발단이 되어 쥐와 고양이가 등장함으로써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과 결말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김·경쟁주설화〉에서는 동기가 의식적이고 적극성을 띤 배불행위이며, 응징에 나선 존재가 승려이고 결말을 해결하는 것도 승려의 석장(錫杖)이었다는 데서 이 설화의 불교적 의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쥐의 둔갑〉은 이런 종교적 의도가 전혀 없을 뿐더러, 불효에서도 적극적이거나 의식적이고 극도로 간교한 불효는 전혀 없다. 오직 동물인 쥐에 대한 동정이 결과적으로 불효로 이어지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가짜·진짜 두 사람의 쟁주에 중점을 둔 동화와 같은 소박한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요 인물이 며느리와 시아버지뿐이고, 그 밖에는 쥐와 고양이가 등장할 뿐이다. 그러나 〈김·경쟁주설화〉는 이 설화에 없는 김대운과 경성부호라는 대조적인 인물을 미리 설정했고, 사건 발단에는 구걸하는 중이, 또 중의 술법으로 노옹이 나타났다. 이러는 동안에 김대운은 부호가 되고 경성은 몰락하며, 끝에 가서는 처음의 중이 다시 나타나서 영검한 석장으로 가옹(假翁)을 쳐 사건의 종말을 가져온, 그야말로 극히 작의적인 사건 전개를 보인다.

특징 본 설화는 '버리면 벌 받기'형의 설화로,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한국인의 민속적 금기관(禁忌觀)과 효사상이 강하게 스며 있는 게 특징이다.

의의 함경도 무가 〈창세가〉에 보면, 쥐는 미륵이 탄생하여 해와 달, 별을 정돈했던 천지 창조 때에 미륵에게 물과 불의 근원을 알려 주었던 영물이다. 〈십이지설화〉에 나타난 바대로 쥐는 인간 다음으로 영리한 동물을 상징한다. 각종 설화집이나 〈쥐전〉, 〈서동지전〉 같은 고소설 작품에 쥐가 등장하고 있는 까닭도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적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삼았던 조선조에서 쥐는 부정적 존재로 전락한다. 특히 정약용 같은 학자는 쥐를 백성의 곡식을 수탈하는 지방 관리나 국고를 탕진하는 간신배에 비유하였다. 쌀 한 톨이라도 중히 여겨야 한다는 민간의 곡령숭배사상과 유가의 효사상이 적절히 섞인 설화라 할 수 있다.

출처 속담 이야기(김선풍·리룡득, 국학자료원, 199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1, 338; 5-4, 604; 7-18, 528.

참고문헌 설화문학개설(장덕순, 선명문화사, 1974), 한국 구비전설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 설화문학 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필자 김선풍(金善豊)

민담

쥐의 보은

정의 자신의 집에 들어온 쥐를 내쫓지 않고 곡식을 나눠 먹도록 배려했더니, 이후 그 쥐가 위험을 예고해 주어 목숨을 구했다는 민담.

줄거리 마음씨 착한 부자가 집에 드나드는 쥐를 내쫓기는커녕 따로 밥을 챙겨 먹여 키운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안의 쥐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와 춤을 추는 광경이 벌어지자, 부자는 집 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함께 구경한다. 이때 산사태가 나서(혹은 폭우가 쏟아져서) 집이 무너지는데, 다행히 집 밖으로 나온 부잣집 식구들은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변이 자신에게 밥을 먹도록 허락해 준 사람에게 쥐가 보은한다는 큰 뼈대는 유지한 채, 쥐가 위험한 순간을 예고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난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쥐가 떼로 나와 춤을 추는 것이지만, 때로는 단순히 서로 꼬리를 물고 늘어서서 집 밖으로 나온다든가 탑 모양으로 층층이 올라타 사람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차이를 보인다.

분석 이 설화는 동물 보은담의 일종이다. 동물이 인간에게 은혜를 갚는 내용은 대부분 인간이 베푼 것과 동일하나, 보은의 강도가 더해지기도 한다. 여기서 쥐는 자신을 먹여 살려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은하고 있다. 말 못 하는 동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면 상대가 비록 한낱 미물이라도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징 집안 형편이 여유롭든 그렇지 못하든 공생의 마음으로 쥐의 몫까지 따로 챙겨 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천성이 착하다는 표징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보상을 받아 행복해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의의 예로부터 쥐는 사회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동물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미래를 내다보는 영물(靈物)로 표상되어, 평소에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에게 불행한 기운을 암시하여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141; 312; 3-4, 682; 896,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3, 241; 7, 324.

참고문헌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김종대, 다른 세상, 2001), 문학작품에 나타난 쥐 상징성 고찰(김영민, 한국언어문학43, 한국언어문학회, 1999),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이인경, 민속원,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김혜정(金慧瀞)

전설

지귀

志鬼

상호텍스트 선덕여왕

정의 선덕 여왕을 짝사랑하다가 죽어 화귀(火鬼)가 된 지귀(志鬼)의 사랑을 담은 설화.

역사 이 설화는 신라 선덕 여왕 때의 이야기로 처음에 『수이전(殊異傳)』에 수록되었으나, 『수이전』이 소실되어, 권문해(權文海, 1534~1591)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권20에만 전한다. 또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 이혜동진(二惠同塵) 조에도 관련 설화가 일부 보인다.

줄거리 신라 선덕 여왕 때에 지귀라는 사람이 있었다. 지귀는

선덕 여왕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짝사랑을 하였고 상사병으로 몸이 점점 여위어 갔다. 그러한 지귀의 소문은 널리 퍼졌다. 어느 날 여왕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소문을 듣고 지귀를 불렀다. 지귀는 절의 탑 밑에서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여왕이 돌아가는 길에 지귀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팔찌를 빼어 놓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잠에서 깬 지귀는 팔찌를 보고는 여왕이 다녀갔음을 알았다. 이에 사모의 정이 더욱 불타올랐고, 마침내 죽어 화귀로 변해 버렸다.

변이 위 줄거리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인 〈술파가설화(術波伽說話)〉는 용수(龍樹)가 쓴 『대지도론(大智度論)』과 석도세(釋道世)가 편찬한 중국의 불교설화집 『법원주림(法苑珠林)』에도 수록되어 있다. 〈술파가설화〉는 〈지귀설화〉보다 다양한 사건과 풍부하고 합리적인 사건 진행을 보여 주는데, 수록 문헌의 연대로 봤을 때 〈지귀설화〉는 〈술파가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 이 설화에서 지귀의 심화(心火)로 탑과 거리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화신(火神)은 당시에 자연신 계통의 무신(巫神)으로 받아들여졌다. 무속신의 하나인 화신은 '화덕벼락장군신', '벼락대신화신', '조왕신', '화주신'으로 구분된다.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 화신에게 제사하는 풍속을 숭고한 사랑과 연관지어 문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지귀설화〉다.

특징 이 설화는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인도의 불교설화가 신라시대 때 토착화하면서 당시의 역사 사실과 결부되고, 민간신앙과 연결되면서 민간설화로 정착된 것이다.

의의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인 '지괴설화(志怪說話)'의 효시이며, 화재 예방 풍속의 내력을 설명한 설화라는 점에서 민속학적 의의가 있다.

출처 大東韻府群玉, 大智度論, 法苑珠林, 三國遺事.

참고문헌 신라수이전 소고(최강현, 국어국문학25·26, 국어국문학회, 1962~1963), 심화요탑설화고(인권환, 국어국문학41, 국어국문학회, 1968), 심화요탑설화에 나타난 불의 상징성(유경환, 국어국문학122, 국어국문학회, 1998), 지귀설화 소고(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필자 이동철(李東哲)

민담

지네각시

표제어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민담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정의 가난한 남성이 지네 여인과 살다가 신의를 지키고, 그 남성의 도움으로 지네 여인은 승천하거나 사람이 된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처자식을 부양하기 어려운 한 남자가 죽으려고 산에 갔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그에게 죽지 말고 같이 살자고 제의하였다. 결국 남자는 여인을 따라가 산속 여인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다. 그런데 남자는 가족이 걱정되어서(혹은 부친의 제삿날이 다가와서) 자기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여인은 처음에 가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그러나 남자가 계속 가고 싶다고 하자, 여인은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오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당부하였다. 남자는 자기 집에 들렀다가, 여인의 도움으로 식구들이 부유하게 잘살고 있음을 알았다. 다시 산속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은 조상을 만났다. 죽은 조상은 여인의 정체가 지네라는 것과 함께 여인을 처치해야 살 수 있다면서, 그 방법으로 "담배 침(밥알)을 뱉으라."라고 하였다. 남자는 집에 돌아와 과연 여인이 지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동안의 은혜를 생각하여 죽이기를 단념하였다. 여인이 남자에게 사례하면서 "당신이 오는 도중에 만난 조상은 사실은 구렁이로 자기와 승천 경쟁을 하는데, 그대의 덕으로 자신이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지네 여인은 승천하나, 구렁이는 승천하지 못하거나 죽는다. 남자는 지네 여인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어 잘살았다.

변이 이 설화는 지네와 구렁이가 지상에서 승천 경쟁을 하는데, 여기에 인간 남성이 여인으로 변한 지네와 살면서 지네를 돕는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이야기의 결말은 각편별로 지네가 승천하는 이야기, 사람이 되는 이야기, 지네가 승천 혹은 사람되기에 실패하는 이야기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각편 수에서 '승천하기'형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아, '지네 여인의 승천담'이 원형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승천하기'형에서 지네는 여성, 구렁이는 남성의 모습을 하는데, 그 반대의 예도 많다. 둘은 대개 천상에서 득죄(得罪)하여 적강(謫降)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람 변신하기'형은, 지네 여인은 인간 남성과 사는 것으로 끝맺으며, '지네가 활인(活人)한 덕' 대신에 '남성과의 성적(性的)인 접촉'이 강조된다. '승천 혹은 사람되기 실패'형은 인간 남성의 '배은망덕함' 때문에 지네 여인의 승천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지네는 대개 죽거나 사라진다. 그것은 남성이 지네 여인의 정체를 몰래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물(異物)의 신성함이 드러났을 때, 인간과의 관계가 파탄난다는 것을 뜻한다. 〈욕신금기설화〉에도 이런 예가 나온다.

분석 이 설화는 '이물(異物)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으로 변신한 뒤, 승천하거나 혹은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된 관심은 이물교혼(이물교구)의 측면에서 신성성의 발현과 그 의미의 구명에 초점이 놓여 있다. 나아가 변신설화의 틀에서 이물의 변신 양상과 그 특징을 밝히려는 논의도 있다. 또한 이 설화 속의 이물이 구렁이, 지네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용사설화(龍蛇說話)' 혹은 '사신설화(蛇神說話)'로 간주하여 하위 유형별 특징을 밝히면서, 전체 용사설화의 관계들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구명하려는 작업도 있다. 이밖에도 이 설화의 방대한 자료를 채록하여 지역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추출한 뒤 이를 지리 환경에 따른 변이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 설화는 대립하는 짝으로 '지네(여)와 구렁이(남)'를 설정한 예가 보통이다. 그런데 자료의 통계로 보아, 구렁이가 지네보다 등장 횟수가 더 많다. 곧 여성을 신격으로 설정했을 때, 구렁이 여성이 지네 여성보다 더 빈도수가 많으며, 남성을 신격했을 때도 구렁이 남성이 지네 남성보다 훨씬 더 많다. 이는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볼 때, 구렁이가 지네보다 원형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용사신격(龍蛇神格)은 '용–이무기–구렁이–지네'의 과정을 겪으며 변모한다.

이 설화는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덕'을 쌓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용사설화에는 용이나 구렁이가 승천을 위하여 여의주를 구할 때, 더러는 여성과 성적인 접촉이나 결합을 요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활인의 덕'이 승천의 조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경쟁이 강조되고, 지네 여인이 '가난한 남성을 몰래 도와 부유하게 한 것'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음이 강조된다. 따라서 구렁이의 승천 자체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먹여 살리는 '인간의 생존'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야기의 결말에는 승천을 도운 대가로 지네 여인이 승천하면서, 재물을 남기거나 비를 내리면서 들판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인간 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네의 승천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는 비록 지네라는 이물(異物)이지만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가난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던 자신을 도와준 여인'에게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과 잠시나마 부부가 되어 같이 살았다는 인간적인 유대감 내지 신뢰(믿음)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부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가 드러난다. 이는 지네와 승천 경쟁하는 반대편 이물인 구렁이가 남성의 '죽은 조상(혹은 그의 친구)'으로 변신하여 지네 여인을 죽이는 방법을 일러주지만, 남성은 조상의 말을 거역하면서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아내였던 지네 여인을 죽이지 않는다. 이는 수직적 부자 윤리 및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부부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의 변환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의의 이 설화는 이물교혼설화, 변신설화 그리고 용사설화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용사설화(혹은 사신설화)의 측면에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수신계 신격인 용과 이무기는 점차 구렁이, 지네, 거미 따위로 변모하며, 이들은 자력(自力)으로 승천하다가 신성성의 쇠퇴화 추세에 따라 타력(他力)으로 승천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은 용사설화의 전승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설화로서, 지네 여인이 인간 남성과 접촉하고, 그의 도움을 통하여 승천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1021; 1–6, 416; 1–8, 324; 2–3, 372.

참고문헌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네처녀설화(이지영,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1997), 이물교구설화연구(라인정,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지네각시 설화의 전승과 그 의미(김정석, 민족문화16, 민족문화추진회, 1993), 지네 여인 변신설화의 지역성과 전승양상(심민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이지영(李志映)

민담

지네장터

표제어 두꺼비의 보은

민담

지렁이 눈과 가재의 띠

정의 동물유래담에 속하는 민담으로 지렁이는 왜 눈이 없으며 땅속에서 사는가 하는 이유를 다룬 설화.

줄거리 옛날에 지렁이는 눈이 있었고, 가재는 눈이 없는 대신 비단 띠 같은 부드러운 피부를 가졌었다. 눈이 부러웠던 가재는 지렁이를 부추겨 지렁이의 눈과 자신의 비단 띠를 잠시 맞바꾸기로 하였다. 눈을 잃은 지렁이는 곧바로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재에게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분함과 부끄럼을 이기지 못한 지렁이는 땅속에 들어가 살면서 "애드르르" 하며 울게 되었다.

변이 이 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도가 높지 않고, 내용도 간단하여 변이형이 많지 않다. 비슷한 유형으로는 〈가재의 수염과 굼벵이의 눈〉이 있다. 가재와 굼벵이가 멋진 수염과 눈을 바꾸기로 약속하였으나, 굼벵이의 눈을 받은 가재는 "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수염이냐!" 하며 가 버렸다는 내용이다.

분석 이러한 유형의 설화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분포를 보이는데, 그중 〈나이팅게일과 발 없는 도마뱀〉이 널리 알려졌다. 나이팅게일이 발 없는 도마뱀으로부터 눈을 빌렸다가 되돌려 주지 않았다. 그 뒤로, 발 없는 도마뱀은 나이팅게일이 둥지를 틀고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그 안에 구멍을 뚫어 복수한다고 한다. 일본에는 〈지렁이와 뱀의 눈 교환〉 설화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뱀 대신 개구리나 두더지가 등장하기도 한다. 비슷한 유형으로는 〈도마뱀의 꼬리〉가 있다. 이와 같은 다른 나라 설화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소재가 다소 다를 뿐 두 동물 중 한쪽이 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동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동물의 생김새나 성질의 특이함을 두고 민중이 재미있어할 만한 설명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허구적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487; 4-6, 568; 5-1, 282;
참고문헌 한국설화의 유형적연구(조희웅, 한국연구원, 1983),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1986), 韓國昔話の硏究(崔仁鶴, 弘文堂, 1976).
필자 권혁래(權赫來)

민담

지렁이 삶아 봉양한 효자

정의 가난한 형편에 며느리가 끓여 준 지렁이 국을 먹고 시어머니가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효성과 먹을 것'의 관계는 그 연원이 깊고 길다. 병든 부모를 위해 자식을 삶아 바친 뼈아픈 희생은 동자삼의 이야기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고함치던 남편이 아내가 시부모의 양기를 돋우려고 씨암탉을 고아 주고 오느라 점심밥이 늦은 사연을 알고 논둑에 서서 절을 하는 이야기 등으로 전승되었다.

줄거리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객지로 나가고 혼자서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며느리가 살았다. 시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고 싶으나 먹을거리가 없어 어려운 중에 개울가에서 지렁이를 발견하자 깨끗이 씻어 국을 끓여 드렸다. 그 국을 달게 받아먹던 시모는 아들이 오면 며느리를 칭찬하려고 국건더기를 건져 자리 아래 감추어 두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국건더기를 보이자 아들이 "지렁이!" 하고 놀라 외쳤고, 그 소리에 모친이 눈을 떴다. 며느리의 효심 덕분에 어머니가 눈을 뜨자 아들은 아내에게 절을 했다.

분석 이 민담에서 효성의 주체는 며느리이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은 모친이 살이 뽀얗게 오르고 혈색이 좋아진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긴다. 없는 살림에 며느리가 눈먼 시어머니를 열심히 봉양한 까닭이다. 자신이 그동안 맛있게 먹은 반찬이 지렁이인 것을 몰랐던 모친은 아들이 "지렁이!" 하고 외치는 소리에 놀라 눈을 뜬다. 전통 사회에서 가정 내 여성의 권리는 지극히 미미하였으나, 효성은 결국 먹고 입고 사는 일상사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가사를 책임지는 주부, 즉 며느리가 효성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남편이 바깥일에 매달리는 동안 집에서는 며느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부모를 섬기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효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성'임을 강조한다.

특징 효행은 먹고 사는 일인데, 이 민담에서는 먹을 것의 문제를 극단까지 밀고 가서 지렁이로 국을 끓인다. 지렁이는 알고는 먹기 어려운 더럽고 징그러운 생물이지만, 깨끗이 씻어 정성스럽게 끓인 것을 모르고 먹으면 맛있고 몸에도 좋은 음식이 된다. 이렇게 하여 먹을 것과 섬김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윗사람이지만 자기 부모에게 잘한 공을 치하해서 절을 한다. 도리와 명분이 어떤 것임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의의 눈이 먼 부모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병을 고치는 화소의 극대점이다. 눈먼 부모의 눈을 뜨게 하는 자식의 이야기는 한국 고전문학의 중심에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7, 668; 5-1, 52; 7-1, 239; 7-17, 391; 8-14, 364.
참고문헌 구비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김대숙,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문헌소재 효행설화의 역사적 전개(김대숙, 구비문학연구6, 한국구비문학회, 1998),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박영주, 도남학보16, 도남학회, 1997).
필자 김대숙(金大璹)

전설

지리산

智異山

정의 여성 산신으로 널리 알려진 지리산신 성모천왕(聖母天王)과 그를 모신 성모사(聖母祠) 등 지리산에 관한 전설

역사 지리산 성모사에 안치된 성모상을 지리산신으로 보고 서술성모(西述聖母), 선도성모(仙桃聖母), 성모천왕으로 명명하면서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제왕운기(帝王韻紀)』, 『어우야담(於于野談)』,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등에서 그 실체를 무조(巫祖), 마야부인, 박혁거세 어머니, 위숙왕후 등으로 보았다. 그에 관한 무조이야기, 역사이야기 등이 다양하게 파생되었다.

줄거리 신라시대 지리산 엄천사(嚴川寺)에 있던 법우화상(法雨和尙)은 도행이 뛰어났다. 비가 내리지 않던 어느 날 개울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니, 키가 크고 힘이 센 성모천왕이 하늘의 명으로 법우화상과 자신이 부부의 인연을 맺어 세상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둘은 천왕봉 아래 백무동에 내려와 집을 짓고 함께 살면서 딸 여덟을 낳았는데, 이들이 팔도의 큰무당이 되어 무업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지리산과 연관된 또 다른 이야기인 〈귀양 간 지리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지리산은 원래 경상도에 있던 산이었는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 보낸 후 전라도 산이 되었다고 한다. 이태조가 조선을 개국하기 위해 팔도의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모든 산신이 다 승낙했지만, 지리산신은 이미 우투리가 왕이 되는 것을 승낙했으므로 돌아앉아 버렸다. 이태조는 우투리를 찾아서 죽이고,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는 이유로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 보내 버렸다.

변이 지리산 여성 산신인 성모는 무조인 성모천왕에서 도가의 신인 서술성모로, 다시 선도성모로 변이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유학자인 김종직(金宗直)은 성모를 고려 태조 왕건의 어머니인 위숙왕후로 추정하였다. 경상남도 산청 지역에 있는 성모사의 성모 석상에 칼자국이 있는 이유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는 고려 말에 이성계가 왜구를 토벌할 때 비를 내리게 도와주어 왜적들이 보복으로 석상에 해코지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민간 전설에서는 지리산신을 모시는 남악사가 화엄사 경내에 있으므로 이태조의 등극에 반대하여 귀양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새롭게 생성하여 전승하고 있다.

분석 지리산신이 후대까지도 여신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한국의 여신신화 연구에서 주된 관심사이다. 특히 지리산 산청 지역에 있는 성모사에 봉안되었던 성모 석상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파생된 점에 주목하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지리산을 유람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기행문에서 그 실체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였다. 무속에서는 조선의 무조로 성모천왕을 꼽고 있는데, 신라의 승려인 법우화상과의 결연담과 더불어 천왕봉 아래 백무동이라는 지명전설을 연결하고 있다. 그 결과, 조선시대 무속 집단과 지역 주민에 의해 수많은 음사(淫祀)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불교 승려와 유학자들의 비판이 계속되었다. 그에 얽힌 이야기로 『어우야담』에는 천연(天然)이라는 승려가 미신적인 음사를 폐지하기 위해 성모사를 불태운 이야기가 수록되어 전한다. 지리산 성모의 실체에 대한 논쟁도 여러 역사 문헌과 개인 문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리산의 성모를 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나 박혁거세의 어머니 또는 고려 태조 왕건의 어머니 위숙왕후 등이 신격화된 것으로 추론하면서 논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의 여신 연구와 결부되어 현재까지도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리산 여신은 태조 이성계와도 긴밀하게 연계가 되는데, 고려 말 지리산 아래 인월 지역의 왜구를 퇴치한 이성계를 성모천왕이 조화를 부려 도왔고, 이에 앙심을 품은 왜적들이 성모사에 모셔진 성모 석상의 미간을 칼로 내려쳐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성계의 무공을 돕던 지리산신이 이태조의 등극 과정에서는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전승된다. 그리고 〈아기장수 우투리〉와 결부되면서 〈귀양 간 지리산〉과 같은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 경내에 남악사가 세워져 지리산신을 모신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경남 산청 천왕봉 아래 성모사에서 모셨던 지리산신에 대한 제향이 구례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징 지리산에 관한 이야기는 그 명칭의 유래담이 단편적으로 전하는 예가 많다. 불교에서 지혜를 관장하는 문수보살이 좌정한 산세이므로 지리(智異)가 되었다는 이야기, 백두의 맥이 흘러 이루어진 산이므로 두류(頭流)로 불렸다는 이야기, 신선의 불사약이 있다는 삼신산의 하나여서 방장(方丈)으로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전승된 소재는 지리산신인 성모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 신화의 주인공들이 여신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남성 중심의 사유체계로 변환되면서 큰 산의 신들이 남성 신격으로 변화하는데, 지리산의 신은 여신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불변의 근거는 성모사에 모셔진 성모 석상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리산신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생성되고, 이를 논박하기 위한 또 다른 이야기가 파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사서와 지리지, 야담집 등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리산신을 전남 남악사에서 모신 사연을 설명하는 〈귀양 간 지리산〉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산 인근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성계의 왜구 토벌이 이루어져 조선 개국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조선 건국 후 지리산신을 전라도 남악사에서도 모시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영남 지방의 반감이 지리산신을 조선 개국의 반역자로 몰아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19, 계명구락부, 192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399; 5-4, 255; 7-1, 55; 8-6, 471.

참고문헌 귀양 간 지리산설화의 전승 배경과 변이양상(박기용, 우리말글36, 우리말글학회, 2006), 선도성모설화의 변개 양상과 그 의미(김종군, 온지논총23, 온지학회, 2009), 지리산의 노고단과 성모천왕(송화섭, 도교문화연구27, 한국도교문화학회, 2007), 화개면지-상(화개면지편찬위원회, 2002).

필자 김종군(金鍾渭)

신화

지리산성모

智異山聖母

정의 지리산의 여성 산신에 대한 신화.

역사 지리산은 고대로부터 산신 신앙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아 왔다. 신라 때에는 산신에게 제사지내던 삼산오악(三山五嶽) 중 하나였고, 노고단(老姑壇)이란 지명 역시 지리산 산신에 대한 성대한 제사의식이 지속적으로 거행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현재도 지리산 성모는 '산신 할머니', '천왕 할매' 등으로 불리며 마을이나 개인의 대소사가 있을 때에 치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줄거리 지리산 천왕봉에는 마고라고 하는 성모천왕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성모천왕이 산을 내려다보는데 '법우'라는 도행(道行)이 높은 화상이 도를 닦고 있었다. 성모천왕은 '내가 저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어 하늘의 뜻을 펼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산꼭대기에서 소변을 보았다. 법우화상이 홀연히 보니 산골짜기에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 큰 시냇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이었다. '어디서 이렇게 큰 물줄기가 생겼을까?' 궁금해 하며 천왕봉 꼭대기로 올라간 법우화상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여인을 발견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성모천왕은 "내가 인간세계에 귀양을 내려와 있었는데, 그대와 인연을 맺고자 물의 술법을 이용하였다." 라고 하였다. 둘은 드디어 부부가 되어 딸 여덟을 낳았고, 이들에게 무업(巫業)을 가르쳐서 조선 팔도에 보냈다. 지금 팔도의 무당들은 이들의 후손이다.

분석 지리산성모는 '성모천왕', '마고', '마야고' 등으로 불리며, 그 다양한 명칭만큼 시대에 따라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에는 신모가 고려 태조의 어머니 위숙왕후라고 했다. 이는 김종직의 『두류산록(頭流山錄)』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랜 기간 동안 널리 구연되었던 신화였음을 알 수 있다. 『두류산록』에는 이 외에도 신모가 석가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라는 이야기를 승려들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마고', '마야고'라고 불리는 신모의 명칭에 기인한 전승이라 보인다. 현재 보편적으로 전승되는 〈지리산성모〉는 이능화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 기재된 신모와 법우화상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팔도 무당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지리산에 있는 백무동(百巫洞)이라는 지명이 상징하듯 무당이 많이 거주하기도 하였고, 타지의 무당들도 지리산을 '큰 산'으로 섬기며 치성과 참배를 하는 대상이 되면서 유포된 이야기인 듯하다.



지리산성모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문화재청

의의 지리산성모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신으로 숭앙되며 다양한 유형의 전승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전승들 속에서 지리산성모는 '마고'라는 거인 창조신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고려 태조 왕건의 어머니라며 고려 건국신화에 차용되었던 흔적도 발견된다. 또한 법우화상과 혼인하여 팔도 무당이 되게 하였다는 전승은 무속과 불교가 융합된 민간신앙의 층위를 보여 주는 한편, 지금껏 현지인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출처 頭流山錄, 조선무속고(이능화, 창비, 2008), 한국인의 신화(한상수, 문음사, 1987).

참고문헌 지리산 성모사에 취하여(김영수, 한국민속연구논문선, 일조각, 1982), 지리산의 노고단과 성모천왕(송화섭, 도교문화연구27, 한국도교문화학회, 2007).

필자 김준기(金俊基)

전설

지명전설

地名傳說

정의 마을 및 마을 내의 여러 장소의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

역사 마을 형성의 역사가 오랜 만큼 그 명명의 역사도 실로 유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연유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도 지명전설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가장 이른 것이 유리왕 대 해명 태자가 창으로 자결하였다고 하여 땅 이름이 '창원(槍原)'이 되었다는 지명전설이다. 그 밖에도 효자와 효녀가 살았던 마을을 의미하는 효가리(孝家里)와 효양방(孝養坊)에 대한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월명리(月明里), 재매곡(財買谷), 율리(栗里), 주포촌(主浦村) 등의 지명전설이 기록되었다. 조선시대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근대의 읍지류에 이르면 지명전설에 대한 기록이 대폭 늘어나며, 그 전통이 이후의 지방지류(地方誌類)까지 이어졌다.

내용 마을의 지명은 해당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을 다른 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혹은 마을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역사 문화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명명(命名)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지명전설은 마을이 그렇게 불리게 된 연유와 유래를 설명하는 언술이다. 지명전설은 마을의 지명뿐만 아니라 마을 내 특정 장소와 관련된 전설까지 포함한다. 지명과 지명전설이 동시에 생겼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나, 실제로는 이미 있는 지명에 전설이 첨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 하나의 지명에 반드시 하나의 전설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애오개(阿峴)' 마을은 '아이고개' 마을이란 의미인데, 작은 고개, 아이 시신이 넘어간 고개, 서울 부아악(負兒岳)의 아이가 달아나려는 것을 떡으로 달래는 비보(裨補) 고개 등의 세 가지 유래담이 전승된다.

우리나라 지명에는 우리말 지명과 한자어 지명이 혼재하여 시대와 사람에 따라 지명이 달리 해석되고 표기되는 과정에서 그 본래의 지명이 망실되고 엉뚱하게 변한 경우가 많다. 현재 마을의 지명은 한자어로 된 행정명과 우리말로 된 고유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원래는 모두 우리말 지명이었을 것인데, 행정상의 필요에서 또는 기록의 편의를 이유로 한자어화 되는 과정에서 본래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고 그 유래에 대한 이설(異說)도 생겨났다. 마을의 부침(浮沈), 구성원의 이주와 유입, 행정 구역의 변화에 따른 마을 이합(離合)의 역사와 더불어 마을 이름이 바뀌면서, 민간어원설에 의한 부회가 보태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어원설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니다. 고증을 통해 가릴 것은 가려야겠지만 때로는 전설적 논쟁이 갖는 역사적 진실을 더 의미 있게 포착해야 할 때도 있다. 또한 마을의 지명 및 지명전설은 마을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온 것인 만큼, 마을사의 전개에 따라서 다른 지명과 전설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시림(施林)이 알지왕이 출현할 때 흰 닭이 울었다고 하여 계림(鷄林)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 그 예다.

이렇게 마을의 지명전설에는 마을의 자연적 특징 외에도 역사와 문화를 포괄한 인문적 특성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따

라서 지명을 자연환경과 연관된 지명과 인문 환경과 연관된 지명으로 분류해 온 것을 따라서, 마을의 지명전설도 자연지명 전설과 인문지명 전설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자연지명 전설은 다시 마을의 지형·지세, 위치·방위, 자연물, 동식물의 네 하위 범주로, 그리고 인문지명 전설은 경제, 교통, 역사·고사, 유적·유물의 네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세 그루 있는 마을이어서 삼송리가 되었다든지, 밤나무가 많은 마을이어서 대율리로 불리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자연지명 전설 가운데 동식물 지명전설의 범주에 속한다. 경북 고령군 고령읍의 정정골은 우륵 선생이 가야금을 켜던 소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 경북 영주시 순흥에 가면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그 마을의 앞내까지 흘렀다고 하여 '피끝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다. 이 두 사례는 역사 및 고사와 연관된 인문지명 전설에 속한다.

지명전설이 워낙 다양한 탓인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명전설의 조사 보고, 분류와 분포,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편이다. 최근에 마을 지명유래담의 연행이 주로 마을의 유력 남성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과정과 그 담론화 현상에 주목한 한 편의 연구(김영희)가 비로소 주제적 접근을 열어주었다.

특징 마을 공동체의 지명전설들이 사건 자체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회의와 논쟁 속에서도 여전히 마을사 및 마을 문화에 관한 중요한 언술로 전승되는 까닭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마을의 존재 자체가 그 언술들의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의 지형에 얽힌 지명전설들은 마을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기원과 내력을 밝혀 주는 이야기로서, 신화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구미, 마산, 배너미재 등과 같은 지명들이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전승집단이 신화적 인식의 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명전설은 다른 마을과 변별하는 인식적 경계이자 마을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해 온 점에서, 다른 어떤 전설보다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다. 마을의 지명전설에는 그 마을 특유의 자연, 역사, 문화를 공유해 온 공동체 성원들의 기억과 인식이 담겼기 때문이다.

의의 마을의 지명과 지명전설은 마을 공동체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가치를 지닌다. 또한 기록에서 소외된 마을사의 편린들이 마을의 지명 및 지명전설 속에 갈무리되고 있어, 기록의 역사를 보완하는 데서 나아가 기억 또는 구술의 역사가 드러낼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을 재구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마을(동, 촌)을 지시하는 전래지명어의 한자어화에 대하여(김정태, 인문학연구3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마을지형 및 지명유래담의 공동체 구성력 탐구(김영희, 비교민속학46, 비교민속학회, 2011), 밀양지역의 지명연구 1(곽재용, 영남어문학21, 영남어문학회, 1992), 지명전설의 구조와 의미(신태수, 문학과 언어10, 1989).

필자 천혜숙(千惠淑)

민담

지성이감천이

상호참조 산함일구 강토이주, 형제투금

정의 장애를 가진 '지성'과 '감천'이 선행을 베풂으로써 장애를 해소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설화.

역사 〈지성이감천이〉는 속담 '지성이면 감천'의 유래담으로 일컬어지며, 고소설 〈한후룡전(韓厚龍傳)〉에 수용되어 작품 전반부의 삽화 구성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줄거리 일찍 부모를 여의고 거지 노릇을 하던 장님 감천이와 앉은뱅이 지성이가 있었다. 어느 날, 서로 돕기로 하고 그날부터 감천이가 지성이를 업고 다니며 밥을 얻어먹었다. 하루는 샘에서 물을 먹다가 커다란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서로 양보하다가 둘로 나눌 수 없어 그냥 버리고 갔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행인에게 금덩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행인의 눈에는 금덩이가 큰 구렁이로 보였으므로 화가 나서 둘로 잘라 버렸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금덩이를 하나씩 나눠 가졌으나, 강도를 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에 가져다 바쳤다. 절에서 그들을 위해 치성을 드린 결과, 지성이는 허리를 펴고 일어났고 감천이는 눈을 뜨게 되었다.

변이 이 설화는 각편에 따라 지성이와 감천이가 형제(의형제)인 예와 이웃에 사는 친구 사이인 예로 나누어진다. 먼저 장애를 가진 예에서는 함께 선행을 베풂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된다. 반면, 장애가 없는 이야기에서는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둘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악한 사람에 대한 징벌이 있고 없음에 따라 착한 사람만 행복해지기도 하고, 두 사람 다 행복해지기도 한다. 눈먼 사람이 도깨비(행인, 호랑이)의 말을 엿듣고 물로 눈을 씻어서 눈을 떴다는 변이형도 있다.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 분류가 가능한데, 우선 장애 유무에 따라 장애형과 비장애형, 갈등 유무에 따라 갈등형과 비갈등형으로 나뉘며, 형제간 갈등은 다시 선형악제형과 악형선제형으로 구분된다. 또 악행에 대한 징벌 유무에 따라 화해형과 응징형으로, 기본 모티프의 첨삭을 기준으로 기본형, 축소형, 확장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제투금담(兄弟投金譚), 경재적선담(傾財積善譚)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특히 전승과정에서 〈선사태자입해품(善事太子入海品)〉, 〈악우품(惡友品)〉과 같은 불전설화를 수용하였다.

의의 서로 돕는 가운데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욕심 없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게 된다는 전승집단의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877; 2-6, 200; 5-3, 647; 6-2, 702; 6-11, 316,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3), 충남민담(한상수, 형설출판사, 1980).

참고문헌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 연구(백민정,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불교문학연구(인권환,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필자 곽정식(郭正植)

용어

지역전설

地域傳說

정의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전해오는 전설.

내용 전설은 일정한 시대와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장소의 경우는 특정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대개 지명전설과 인물전설이 일반적으로 지역전설이라 할 수 있다. 지명전설은 특히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지역전설에 속한다. 인물전설의 경우도 불특정 인물도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이거나 또는 가상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인물전설은 그 출생 및 활동 면에서 지역적 배경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역전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지역에서는 그 지역 나름의 전설이 전승되어 오는 것이 상례이다. 지역전설은 지역의 뛰어난 인물이나 사건 또는 지명 등을 설명이 아닌 서사적 줄거리를 통해서 보여 주게 된다. 각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지역전설은 지역의 특수한 지형이나 역사 등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역민들의 긍지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필자 나경수(羅景洙)

신화

지장본풀이

정의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지장이라는 여신의 근본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 즉 지장이라는 여신에 관한 무속신화.

역사 현재 제주도 무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신화 가운데 하나로, 서사무가이며 일반신본풀이에 속한다. 제주도의 큰굿 중 '시왕맞이' 및 '양궁숙임' 제차에서 구송되고 있으며, 작은굿으로는 '거무영청대전상'이란 굿에서도 구송되고 있다. 〈지장본풀이〉가 언제부터 굿에서 불렸을까 하는 문제는 〈지장본풀이〉가 구송되고 있는 시왕맞이, 혹은 시왕맞이가 속해 있는 제주도 큰굿의 역사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제주도 큰굿은 원래 본토에서 전해진 것으로, 이러한 큰굿은 열두거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역사도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장본풀이〉도 오래된 형태의 신화라 할 수 있다. 지장신이 남을 죽이는 살(煞)을 가진 여신인 동시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구제하여 저승으로 천도시키는 여신이라는 점, 그리고 백정들의 수호조상신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지장본풀이〉는 원래 큰굿과 같은 제의에서 희생물을 바치며 구송되었던 신화로 볼 수 있다.

줄거리 천하거부인 남산과 여산 부부는 나이 많도록 자식이 없어 절에다 많은 시주를 하고 원불수륙을 드린 후 예쁜 딸을 낳아 지장이라 이름 짓는다. 지장아기씨가 네 살 되던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이 해마다 한 명씩 죽어 마침내는 고아가 되어 외삼촌 집에 얹혀살면서, 개가 먹던 접시를 들고 동네를 다니며 구걸하는 등 온갖 천대와 박대를 당한다. 그렇지만 하늘의 부엉새가 날개를 펼쳐 덮어 주는 등 천우신조가 있어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러한 학대와 가난 속에서도 착하고 아름답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시집을 간다. 곧 아들을 낳았으므로 시아버지는 온갖 재산을 다 물려준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해마다 연이어 죽고 드디어는 남편과 자식까지 죽는다. 혼자가 된 지장아기씨는 시누이 집에 가서 살고자 하였으나 시누이가 온갖 욕을 하며 박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온다. 길에서 한 대사를 만나 사주팔자를 봐 달라고 하니, 대사는 그녀에게 초분과 말분이 좋다고 하며 서러운 가족을 위해 새남굿을 하라고 알려 준다.

지장아기씨는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뽕나무 씨와 누에씨를 얻어 와 명주를 짠 뒤에 이것으로 굿에 쓸 신맞이용 다리와 무기구의 끈, 그리고 재미(齋米)를 걷으러 다닐 때 사용할 자루를 만든다. 그리고는 머리를 깎은 뒤 송낙을 쓰고 장삼 차림으로 목탁을 들고 자루를 둘러메고 사방으로 다니며 시주를 받는다. 시주받은 백미를 방아에 넣고 찧은 뒤 시루에 쪄서 떡을 만들어, 마침내 자기 때문에 죽어간 서러운 가족을 위해 새남굿을 벌인다. 굿을 끝내고 죽은 영혼이 저승에서 무엇이 되었나를 점치니 가족이 모두 새[鳥]로 환생하였다고 나온다. 지장아기씨도 좋은 일을 하였기에 죽어 새의 몸으로 환생한다.

분석 채록된 자료들을 비교하면, 선후가 뒤바뀐 경우도 있고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다소 길이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끝 부분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나타나는데, 지장아기씨가 행하는 굿 이름이 다르다. 박남하 및 고대중 구연본에서는 초새남굿·이새남굿·삼새남굿으로 나오고,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전새남굿과 후새남굿으로, 정태진 구연본에서는 전새남굿과 육마실굿으로 나온다. 전새남굿이 병자를 살려 주기를 기원하는 굿이라 한다면, 이야기의 상황으로 볼 때 전새남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는다.

지장아기씨가 굿을 한 후 새로 환생했다는 것은 모든 자료에 공통이다. 그런데 박남하 구연본에는 이러한 내용에 앞서 지장아기씨가 굿을 한 후 '천장판에 연ᄀᆞ르 붙이니', 즉 영혼이 저승에서 무엇이 되었나를 점치니 서러운 가족이 새로 환생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지장아기씨가 해준 새남굿 덕분에 가족들이 모두 가장 바람직한 존재인 새로 환생했다는 뜻이다. 〈지장본풀이〉에서는 마지막에 지장신이 새로 환생하였다고 한 후에 곧이어 온갖 새, 즉 온갖 사기(邪氣)의 종류를 말한 다음 이것을 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새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말인 사(邪), 즉 새가 연상되어 뒤에서 사기를 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쁜 기운을 쫓음으로 해서 〈지장본풀이〉는 결국 마지막에는 나쁜 액(厄)을 막는 액막이용 노래로 전환되고 있다. 제주도 굿에서는 '새'와 '사'가 혼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새ᄃᆞ림'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장아기씨가 죽어 새로 환생했다는 내용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큰굿 내의 일반신본풀이를 보면 주인공인 중요한 신들은 모두 죽지 않기 때문이다.

특징 시왕맞이는 저승에 있는 15시왕 및 저승차사를 모시고 행하는 굿인데, 〈지장본풀이〉는 〈차사본풀이〉와 〈ᄉᆞ만이본풀이〉 다음에 구송되며, 이 본풀이가 끝나면 '삼천군병질침'이 시작된다. '거무영청대전상'은 백정의 집안에서 생업의 번창을 빌 때 하는 굿으로, 굿 중에 실제 소도 잡는데, 지장신은 백정들의 수호조상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른 일반신본풀이에 비해 길이가 짧고, 3·3조의 음수율과 3음절 2음보의 규칙적인 음율을 가지고 있어 리듬성이 강하다. 구송 방법도 다른 일반신본풀이와 달리 심방이 서서 창을 하면 악무가 북과 장구를 치며 구마다 복창한다.

의의 〈지장본풀이〉는 끝에 사기를 쫓는 내용이 나오고 본풀이 내용도 죽음과 결부되어 있어, 간혹 질병과 재앙을 주는 요괴인 사의 발생 내력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풀이 내용을 보면, 지장아기씨는 살을 가져 남을 죽게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새로 환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원혼을 구제하여 저승으로 천도시키는 신이라 할 수 있다. 〈지장본풀이〉는 현재 제주도에서만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무가가 동해안 무속에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예전에는 육지부에서도 구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지장본풀이〉는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새남굿 및 사찰에 남아 있는 지장보살의 기원 및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민속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본풀이는 여성시련담 또는 여성고난담의 대표적 작품이자 〈시집살이노래〉와 같은 민요를 형성한 모태일 수도 있다. 이 둘은 서사구조 및 내용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출처 지장본풀이-고대중 구연본(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지장본-박남하 구연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지장본풀이-안사인 구연본(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지장본풀이-정태진 구연본(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참고문헌 무속신화 지장본풀이 연구(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제주도 서사무가의 특수성 연구(전주희, 구비문학연구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신화적 의미·제의적 성격 연구(김헌선, 한국무속학10, 한국무속학회, 2005).

필자 이수자(李秀子)

용어

지중용출

地中湧出

정의 대지가 자궁으로부터 만물을 만들어 낸 것처럼 최초의 인간이 식물처럼 대지로부터 솟아올랐다고 상상하는 초기 창조신화 주인공의 탄생 방식.

내용 한반도 건국신화는 대부분 하늘에서 하강하는 구조를 가진다. 북방에서 만주와 한반도로 이주한 세력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출자처(出自處)를 하늘이라고 했다. 청동기와 철기를 지닌 강력한 새로운 지배자는 천강신화(天降神話)를 건국신화로 삼았다. 그런데 탐라국 건국신화에서는 지중용출(地中湧出), 즉 땅이 출자처다. 신화의 주인공 고·양·부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 탐라국 건국신화뿐만 아니라 구비전승의 본풀이 속에 나타나는 신들은 대개 땅에서 솟아난다. 제주 본향당(本鄕堂) 중에 뿌리에 해당하는 〈송당본풀이〉에서도 소로소천국이 땅에서 솟아나고, 부인인 백주또도 강남천자국 금모래밭에서 솟아나 제주로 들어온다.

'지중용출(地中湧出)' 또는 '종지용출(從地湧出)'은 대지의 품속에서 생명이 산출된다는 원초적 사유의 반영, 즉 대지의 생식력을 토대로 한 지모신신앙이 내재해 있다. 대지가 자궁으로부터 만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여긴 유럽과 북미의 초기 창조신화는 최초의 인간이 식물처럼 대지로부터 솟아올랐다고 상상한다. 땅으로부터 식물이 솟아나듯 인간이 솟아났다는 탄생담은 인류의 원초적인 신화다. 다른 지역 신화는 자연신에서 인격신으로 바뀌어 갔는데 제주는 자연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중용출'은 신석기시대 농경을 시작한 인간의 사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형적 모티프다.

필자 허남춘(許南春)



지팡이가 살아났다는 굴참나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문화재청

전설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

정의 스님이 지니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지팡이가 뿌리를 내려 나무가 되었다는 설화.

역사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생명력을 지닌 나무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나무의 생명력을 믿은 정령숭배에서 나온 것이다.

줄거리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낙네가 마을을 지나는 스님을 붙잡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자 스님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꽂은 후 "이 지팡이에 공을 들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팡이에서는 새순이 돋고 잎이 돋아나고, 뿌리를 내려 큰 나무가 되었으며 마을을 지키는 나무가 되었다.

변이 이 이야기는 전국에서 전해지는 전설로, 유명한 인물에 빗대어 전해지기도 하고 특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사명대사가 지팡이를 거꾸로 꽂으면서 "나무가 죽으면 나도 죽은 줄 알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나무는 경상북도 경주시 인계동에 살아 있다고 한다. 보조국사 지눌이 꽂은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는 경북 청도에 있고, 경북 영주 부석사에도 사명대사가 꽂아서 살아난 지팡이 나무가 있다고 한다. 강원도 수타사에 있는 주목(朱木)도 노스님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꽂은 것이 자라난 것이라 한다.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사에 있는 쌍향수는 보조국사와 담당국사(湛堂國師)가 중국에서 수도를 끝내고 귀국할 때 짚고 온 지팡이를 나란히 꽂은 것이라고 한다.

분석 나무는 살아 있으며 생명력과 주술적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들 나무설화는 나무가 사람처럼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한다고 믿는 민중의 사고가 바탕이 된 것이다.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제의를 드리는 일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 왔다.

특징 동물은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여겼으나 식물이나 나무는 움직일 수 없기에, 생명에 대한 경외

감을 다루기보다는 생명의 기원 혹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력을 지닌 대상으로 다루었다. 풀이나 나무가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며 사람들도 땅에서 났다는 것은 지모신신화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의의 생명의 기원이자 삶의 원천인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천지창조신화나 인류시조신화에도 두루 등장한다. 〈단군신화〉의 신단수에서는 단군이 잉태되었으며, 나무가 신성한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나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순환하는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797; 7-9, 907; 8-7, 523; 9-1, 93.

참고문헌 설화에 나타난 나무의 생명성과 그 조형물(임재해, 비교민속학4, 비교민속학회, 1989),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6).

필자 박성석(朴性錫)

민담

지하국 다녀와 명의 된 사람

정의 지하국에서 의술을 배워 의원으로 행세하다 장님으로 산 사람에 관한 설화.

줄거리 매잡이가 매사냥을 나갔다가 동굴로 들어가서 지하세계에 이르렀다. 지하세계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고, 그곳 사람 옆에 매잡이가 붙으면 그 사람이 쇠약해지는 등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매잡이는 어여쁜 부잣집 딸 옆에 붙어 장난을 치다가 점쟁이의 술수에 걸려 병 속에 갇혀 버렸다. 그러다 아이들이 병을 깨는 바람에 겨우 풀려난 매잡이는 자신을 알아보는 노인을 따라갔다. 그 노인에게 의술을 배운 후 집으로 돌아와서 의원 행세를 하였다. 명의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임금의 귀에 들어갔고, 궁에서는 매잡이를 잡아들여 황구렁이로 변한 대비의 병을 고치라고 했다. 매잡이는 일단 시간이나 벌어 보자는 생각에 99일간 스승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99일 만에 나타난 스승이 처방하기를 대비는 개의 성기 99개를 먹이면 되고, 매잡이에게는 제명에 살려면 의원 노릇을 그만하라고 충고하고 약을 주었다. 대비를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 뒤 보상을 받은 매잡이는 노인이 준 약을 먹고 겉모습이 장님처럼 변했다. 매잡이는 받은 상금으로 편히 먹고 살았다.

분석 이 설화는 지하국에 간 매잡이 이야기와 황구렁이로 변한 대비를 고치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앞부분에서 매잡이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초월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매잡이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얻은 것이 아니어서 곧 한계에 다다른다. 점쟁이의 병에 갇혔던 매잡이는 노력 없는 삶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의술을 배운다. 후반부에서 대비는 일찍 남편을 잃고 내시를 마음에 두었다가 구렁이가 되었고, 매잡이는 이를 고치지 못하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대비와 명의로 소문난 매잡이도 자신의 신분 때문에 위기에 봉착했다. 그 위기를 넘기고 살기 어려울 것 같은 장님으로 변하는데, 어찌 보면 매잡이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신분이다.

특징 지하세계가 등장하는 이야기로는 〈지하국대적퇴치설화〉가 널리 알려졌으며, 고소설 〈홍길동전〉, 〈금방울전〉에도 부녀 납치 모티프로 등장한다. 일련의 이야기에서 지하세계는 인간을 위협하는 괴물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 지하세계는 인간세계 밑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지하세계에서 인간세계는 곧 하늘이다. 따라서 지하세계에서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다. 즉 현실계와 이계(異界)의 관계 역전을 위한 공간으로 지하세계가 등장한다.

출처 세계민담전집1-한국(신동흔, 황금가지, 2003).

참고문헌 지하국대적퇴치설화 연구(김기창, 국제어문19, 국제어문학회, 1997), 한국민속과 문학 연구(김열규, 일조각, 1971), 한국 설화문학 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필자 김광욱(金侊郁)

민담

지하국대적퇴치

地下國大賊退治

정의 지하국의 괴물을 퇴치하고 납치된 여자를 구해 내어 혼인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이 설화는 〈금원전〉·〈금령전〉·〈최치원전〉과 같은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전등신화』의 〈신양동기〉·〈홍길동전〉·〈설인귀전〉에도 반영되었으므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원전〉이나 〈최치원전〉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가령 〈금령전〉은 주인공이 머리 아홉을 가진 괴물에게 납치당한 공주를 구출한 뒤 혼인한다는 점에서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맥을 같이한다.

줄거리 옛날 어느 처녀가 괴물에게 납치당했다. 부모가 재산과 딸을 현상(懸賞)으로 내걸고 용사를 구하자, 어떤 용사가 나타나 부하와 함께 나섰다. 용사는 어렵사리 괴물의 거처가 지하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이르는 좁은 문도 발견하였다. 밧줄을 드리워 부하들을 차례로 내려보내려고 했으나, 모두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마지막에 드디어 용사 자신이 지하국에 이르렀다. 용사는 우물가 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물을 길러 나온 처녀의 물동이에 나뭇잎을 훑어 뿌려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용사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 괴물의 집 문을 무사히 통과하였다. 여자가 용사의 힘을 시험하려고 바위를 들어 보게 했으나 들지 못하자, 용사에게 '힘내는 물'을 먹였다. 힘을 기른 용사는 마침내 괴물을 죽이고 납치되었던 사람들을 구하여 지상으로 올려보냈다. 그러나 지상에 남아 있던 부하들은 용사를 지하에 남겨둔 채 여인을 가로채서 가 버렸다. 용사는 결국 신령의 도움을 받아 지상에 올라와 부하들을 처벌하고 여자와 혼인하였다.

변이 손진태가 경상남도 구포 지역의 설화를 학계에 소개하였지만, 거의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큰 줄거리보다는 세부적으로 변이가 이루어진다. 주인공인 용사는 무신(武臣), 나그네, 한량과 같이 다양하며, 구원받는 여인도 여자, 처녀, 공주로 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이 대적의 소굴로 들어갈 때, 문지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수박으로 변신한다는 대목도 두드러진 변이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줄거리 전체로 보면 앞에서 지적한 설화나 소설들이 변이로 간주되지만, 가장 두드러진 변이의 하나는 주인공이 지하국 대적의 근거지에 들어갈 단서를 찾는 데 있다. 고생하는 주인공에게 신선이 길 안내를 하는가 하면, 주인공의 도움을 받은 까치가 길라잡이 역할을 맡기도 한다.

한편 세계의 민담 가운데서도 변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르네-톰슨이 설화의 유형으로 정리한 〈용 퇴치자(AT300)〉, 〈곰 아들(AT301)〉, 〈두 형제(AT303)〉와 같은 것이 있다.

분석 이 이야기는 신이담이다. 곧 신비하고도 기이한 이야기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내용과 줄거리가 환상적이기도 해서 대중은 물론 국문학·민속학계의 많은 관심을 끌어 왔다. 따라서 관련 연구도 많은 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손진태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또는 강은미의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설화 자체의 변이가 많고 유사한 이야기도 다양해서, 그러한 자료를 모두 합하면 자그마치 60편가량 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지하의 악마나 괴물 또는 대적에게 납치된 젊은 여인을 용감한 사나이가 구해 내어서 짝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특징 주인공이 갖은 어려움과 고난, 위기를 모두 겪은 끝에 악당을 퇴치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는, 민담의 전형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금원전〉·〈금령전〉·〈최치원전〉과 같은 소설과 어울려서 큰 범주로는 그야말로 동공이곡(同工異曲)으로 보인다.

의의 이 설화는 한국의 설화 중에서 복합적인 구성을 지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플롯의 허구성이 가진 이채로움으로 인해 소설로 변모하기도 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금원전〉·〈금령전〉·〈최치원전〉과 같은 고전소설이 파생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율도국'을 세운 뒤 굴속의 요괴를 퇴치하고 그 요괴에게 납치된 여인을 구출해서 아내로 삼은 점은 〈지하국대적퇴치설화〉가 작품의 후반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설화는 한국의 민담론에서 설화 유형의 대표적인 보기로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다양하게 논란이 된 대표적인 민담으로 본다.

출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505; 1-3, 307; 2-8, 172; 6-7, 712; 7-6, 39; 8-6, 3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3, 朝鮮民譚集(孫晋泰, 郷土研究社, 1930).

참고문헌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연구(강은미,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김열규(金烈圭)

민담

지혜담

智慧談

정의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지혜화소가 서사적 골격을 이루는 설화.

내용 지혜담(智慧譚)은 지혜가 발휘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서사 형식을 갖는 설화 전반을 지칭하지만, 하위 유형들의 서사적 의미는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되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문제의식을 함축한다. 지혜담 구연 자료에는 지혜 발휘 방식에 대해 '재치, 술책, 지략, 계략, 수완, 이통(理通), 꾀' 등으

로 표현하고 있어, 지혜담에서 활용되는 지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지혜는 지식을 부려 쓰는 능력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력을 중시하는 살아있는 앎의 영역이다.

지혜담은 건국신화에서부터 확인된다. 주몽이 말을 얻는 과정이나 탈해의 '여탄(礪炭) 파내기'는 지략이 부각되고, 유리의 단검 찾기는 수수께끼 풀이에 열쇠가 있는 지혜 측정의 서사인데, 모두 입사식담의 절차로 기능하고 있다. 지혜담과 입사식의 관계는 오랜 설화 전통을 이루고 있는데, 결혼을 앞둔 남녀가 지혜 측정 절차를 통과하는 사례는 조선시대 문헌설화 〈택부담(擇夫譚)〉, 〈왕비간택〉, 구전설화 〈살림 잘하는 며느리〉, 〈사위 뽑는 시험〉 등이 존재한다.

지혜담은 광범위한 하위 유형을 포괄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지혜 발휘 방식에 따라 지략, 역발상, 직관, 논증, 재치로 분류할 수 있다. '지략'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생각을 바탕으로 속임수나 위장 등 의도된 장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아이지혜담, 여성지혜담, 남성지혜담에서 고루 나타난다. '발상의 전환'과 '역발상'은 상식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에서 지혜가 발현되며,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돋보이는 경우이다. 아이지혜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논증'은 근거를 제시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는 방법으로서 송사를 해결하는 지혜담에서 주로 쓰이는데, 논리적 진술이나 과학적 수사 방법이 동원된다. 자식을 둔 생부와 양부의 다툼에서 양부의 편을 들어준 〈아버지 가린 아들〉을 비롯하여 원님이 판결한 〈칠십생남비오자(七十生男非吾子)〉 등이 있다. '재치'는 순간적 기지가 요청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발휘되며, 순발력 있는 말솜씨나 민첩한 행동이 동반된다. 〈박문수의 목숨 구한 아이〉, 〈살인 누명 모면한 사람〉 등이 있다. '직관'은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친정아버지의 실수를 감싼 딸〉 등이 해당된다.

지혜담은 문제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 문제형, 집안 문제형, 사회 문제형, 국가 문제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지혜 발휘자에 따라 아이지혜담, 여성지혜담, 남성지혜담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지혜 발휘자의 유형에 따라 이야기 세계가 달라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아이지혜담에는 다양한 하위 유형이 포함되므로 문제의 성격도 국가 문제형, 가족 문제형, 사회 문제형, 개인 문제형이 두루 나타나지만 가장 우세한 것은 가족 문제 유형이다. 아이지혜담은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경험적 인식에 기반을 두는 성인들과 달리 직관이나 역발상에 의한 지혜가 부각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어른 노릇 바꾸어서 부자 된 아이〉의 경우 가족 관계는 통념적 위계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가치관으로 재구성된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소통적이고 상생적인 관계 아래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정 경제와 가족 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제시한다. 아이로 표상되는 순수성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참신함과 발랄함, 직관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실현된다. 아이지혜담에 정치적, 사회적, 가족적 차원의 상하관계를 다루는 문제가 많은 것이나, 통념이나 고정관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발상의 전환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아이의 지혜가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아이의 지혜가 갖는 의미 기능을 뒷받침해 준다. 여성 인물의 지혜가 현실적 문제 타개에서 발휘되는 양상은 역사적으로도 확인된다. 여성지혜담의 연원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지략을 발휘하는 〈산상왕의 비(妃) 우 씨〉, 지략을 발휘하여 왕의 횡포를 벗어나는 도미의 처 선덕여왕의 지기삼사(知機三事) 등에서 확인된다. 고대의 여성 인물과는 달리 구비 여성지혜담에는 여성의 지혜발현이 가문과 가족 차원의 문제 해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효, 형제간의 우애, 가정 경제 해결 등이 문제의 주류를 이루지만 결혼 문제 해결에 관한 유형도 다수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생활 영역을 집안으로 규정했던 유가적 여성 윤리관의 영향 탓으로서, 여성의 능력이 가족 관계와 가정 경제 문제에 집중되어야 했던 현실을 반영한다. 여성지혜담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험적 지혜의 측면을 드러내며, 여성에 대한 변모된 인식을 나타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남성지혜담은 집안 문제, 가족 문제, 사회 문제, 개인 문제로 나타나지만 아이지혜담이나 여성지혜담에 비해 비중이 약한 편이다. 이는 참신하고 발랄한 발상에서 해결 단서를 찾는 지혜담의 성격상 경험적 지식의 영역을 독점하는 남성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남성지혜담에만 나타나는 유형으로는 먼저 〈불효한 며느리 효부로 바꾸기〉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들 수 있는데,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지략을 사용하여 며느리의 효행을 유도한다.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해 명판결을 하는 명관설화가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혜담에서 가장 다양한 자료양상을 보여 주는 것은 지략에 의한 집안 문제 해결형이다. 그것은 우리 전통사회가 개인보다는 집안이나 가족을 우선시하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이나 가족 문제는 설화 향유층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삶의 우선순위를 점하는 것이므로 설화 향유층의 최대 관심사는 현실적 삶의 문제임을 나타낸다. 지혜담은 상식을 넘어서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현실적 제약을 넘어서는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 지혜담은 열악한 민중적 삶의 현실을 지혜로 극복하는 이야기이다. 현실적 권력관계의 강/약 구도를 서사세계에서 지혜의 강/약으로 전환시킴으로서 현실적 권력 구도를 해체한다. 사회적 약자가 지혜를 발휘하여 현실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하는 지혜담의 구조는 민중적 지혜관을 반영한다. 특히 아이와 여성의 지혜담이 부각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지혜를 통해 현실 권력 구조를 역전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비판하는 기능을 보여 준다.

특징 지혜담은 지혜 발휘 화소가 서사의 핵심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아이 또는 여성 인물군이 부각되는 설화이다. 예사롭지 않은 지혜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이인담과, 지략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사기담과 혼동할 수 있지만, 지혜를 발휘하는 인물이 보통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인담과 구별되고,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주어진 지략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사기담과는 구별된다.

의의 지혜담의 지혜 발현 양상은 현실적 대처 능력을 중시하는 민중적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지혜관을 보여 준다. 지혜담에서 제시되는 문제 해결 방식은 상식이나 고정관념을 벗어난 발랄한 시선에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변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지혜담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아이지혜담은 국가, 사회, 가족 관계에서 상/하, 우/열, 강/약의 구도를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통념을 불식하고 실사구시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둔 현실 상황 또는 관계양상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혜담에서 보이는 현실주의적 가치관과 창조적 문화 인식은 민중적 자의식의 반영으로서, 근대로 나아가는 성장된 민중 의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인다. 지혜담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서사 기법, 의미 지향, 민중적 세계 인식은 판소리, 민속극을 비롯한 조선 후기 민중적 문학과 예술 장르의 형성 및 전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구전설화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강진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아이지혜담 연구(이성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여성지혜담연구(오혜나,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 구비지혜담 연구(김옥숙,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강진옥(姜秦玉)

신화

진가장무가

표제어 짐가제무가

자료

진담록

陳談錄

정의 조선 후기에 찬술된 편자 미상의 소화집(笑話集).

내용 『진담록(陳談錄)』은 1958년에 민속학자료간행회에서 간행한 유인본(油印本) 『고금소총(古今笑叢)』에 수록되어 있다. 총 49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진담록'이란 제명도 여기에서 근거한다. 그러나 그 제목이 설향노부(雪香老父)가 편찬한 『민속자료 소림집설(民俗資料笑林集說)』에는 '진담론'으로 나타난다. 이야기 편수도 고금소총본보다 한 편이 더 많은 50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진담론'이 더 타당한 명칭이며, 선본(善本)이라 하겠다. 편찬 시기는 1811년으로 추정한다. 『진담록』은 '제목'을 붙이고, '본 이야기'를 제시한 다음, 본 이야기를 '설명'한 후, 최종적으로 'ㅇ'를 붙인 논평'을 다는 일관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형식은 중국 소화집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록된 이야기들 가운데는 중국의 소화집 『절영삼소(絶纓三笑)』 및 『소부(笑府)』 등과 관련이 깊은 것도 있다. 중국 소화와 우리나라 소화의 수용 및 변이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다. 『진담록』은 『파수추(破睡椎)』 등 우리나라 패설집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필자 김준형(金埈亨)

전설

진묵대사

震默大師

정의 조선 중엽 진묵대사(震默大師) 일옥(一玉)의 인간성, 학문과 신앙,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 주는 설화.

역사 진묵대사는 1562년(영종 17)에 전라도 만경현(萬頃縣) 불거촌(佛居村),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성모암 자리에서 태어나서 임진왜란 시기를 거쳐 1633년(인조

11)에 72세로 입적하였다. 진묵대사 본인이나 제자가 쓴 행적(行蹟)은 없는데, 1850년에 초의선사(草衣禪師)가 짓고 전주 봉서사(鳳棲寺)에서 간행한 『진묵대사유적고(震默大師遺蹟考)』에 그의 일화가 18편이 전한다. 구전하는 진묵 대사 관련전설은 현재 32편 정도가 채록되었다.

줄거리 진묵이 일곱 살에 봉서사에 출가하여 사미승으로 있으면서 향불을 피우니 주지의 꿈에 제천(諸天)이 나타나, "부처가 향을 피우니 우리들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사가 사미승으로 있을 때에 경상도 창원에서 대사를 짝사랑하던 여자가 죽어 기춘(奇春)이라는 시동(侍童)으로 환생하였다. 진묵대사는 심히 기춘을 귀여워하였다. 이를 비난하는 대중에게 기춘을 시켜 대중과 진묵의 국수 그릇에 바늘을 넣게 하였는데, 진묵의 그릇은 바늘도 국수가 되었다. 진묵은 불량배와 고기잡이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는데, 술은 다 토했고, 물고기는 변(便)을 보아서 다 살려냈다. 죽은 어머니를 위해 '무자식 천년향화지지(無子息千年香火之地)'라는 명당을 잡아 주었고, 가난한 누님이 진묵이 있는 절에서 곡식을 꾸어 갈 때 갈 길을 밝게 하려고 해를 붙들어 두었다가 누님이 집에 당도할 즈음에 해가 넘어가게 했다.

분석 진묵은 부처의 화신이라 신통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속인처럼 술을 곡차(穀茶)라고 하면서 마시고, 물고기를 먹었다. 진묵은 고승이면서 유학(儒學)을 잘 알고, 유교에서 덕목을 삼은 가족 간의 효도와 우애를 실천하였다. 이처럼 진묵대사는 설화에서 성(聖)과 속(俗), 불교와 유교를 다 아우르는 대인(大人)으로 나타난다.

특징 멀리서 절에 불이 난 것을 알고 불을 끈 이야기는 원효대사, 의상대사, 서산대사, 사명당 같은 고승들의 전설에도 있지만, 진묵대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신비로운 전설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의의 그가 어렸을 때 사화(士禍) 같은 일로 시대는 암울하였고, 서른 살 때 일어난 임진왜란 7년간 백성은 비참하였다. 이렇게 당시 답답하고, 불안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일반 백성이 구원자(救援者)이자, 활불(活佛)이자, 현세불(現世佛)이자, 위로자(慰勞者)인 신통력 있는 기인(奇人)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을 때 진묵대사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그의 활동을 담은 전설이 나왔다. 〈진묵대사전설〉에는 중으로서 속인과 같이 술도 먹고 고기도 먹는 반속반불승(半俗半佛僧) 모습으로 속인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백성들의 바람과 더불어, 불쌍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불교에 용맹정진(勇猛精進)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출처 경남구전자료집3(조희웅·노영근·박인희, 박이정, 200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2, 41; 248; 252; 796; 861; 6-8, 128; 149.

참고문헌 三國遺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불교설화의 양상(최래옥, 한국문화연구3, 경희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필자 최래옥(崔來沃)

민담

진정한 친구

정의 교훈담으로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주제를 다룬 설화.

줄거리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과연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시험하고자 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시신을 빌리거나 죽은 돼지를 사 자루에 넣은 다음,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라고 했다. 아들이 친구들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사람을 죽였는데 시체를 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반면,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 살인을 해서 시체를 지고 왔다고 하니, 그 친구는 바로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수습할 방도를 찾자고 했다. 그리고 자기 집 뒤꼍을 괭이로 파고 시체를 묻고는 친구에게 안심하고 자라고 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를 가르칠 수 있었다.

변이 자루에 송장을 넣고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대목에서 변이가 있다. 아버지가 시체를 구해 놓고 아들이 모르게 살인한 것처럼 위장하는 예도 있고, 새끼 돼지를 죽여 자루 안에 넣고 송장처럼 위장한 예도 있다. 아버지가 친구 집에 찾아갔을 때 송장을 처리하는 방법에도 변이가 있다. 한밤중에 바로 땅을 파고 시체를 묻는 이야기도 있고, 죽은 돼지를 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끝맺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아버지가 자식에게 위기의 순간을 통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몸소 가르친다는 훈자설(訓子說)의 하나이다. 강희맹의 『훈자오설(訓子五說)』 중 〈도자설(盜子說)〉과 유사하며, 야담집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의의 이 설화는 진정한 친구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렵고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점을 부자간에 대비하여 보여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8, 133; 5-2, 90; 403; 6-9, 165.

참고문헌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83).

필자 권혁래(權赫來)

전설

진좌수

秦座首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승되는 여우의 구슬을 빼앗아 먹고 명의가 되었다는 진좌수와 관련된 전설.

줄거리 진좌수가 명의가 된 내력을 전하는 이야기와 기이한 방식으로 치료를 거듭하였다는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진좌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매일 서당을 오가던 소년 진좌수의 몸이 점점 말라갔다. 이를 본 훈장이 까닭을 묻자 소년은 별다른 일이 없고 다만 언제부터인지 서당을 오가는 길에 어떤 처녀가 나타나 구슬을 서로 물었다 뱉는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훈장은 소년에게 다시 처녀를 만나거든 얼른 구슬을 삼키고 하늘, 땅, 사람을 차례로 보라고 당부하였다. 과연 처녀가 나타나자 소년은 얼른 구슬을 삼켜 버렸다. 그러자 꼬리 아홉 달린 여우로 변한 처녀가 미처 날뛰다가 달아났다. 소년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그만 훈장의 당부를 잊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소년은 사람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는지를 척척 알아맞히는 명의가 되었다. 훈장의 당부대로 했더라면 천문과 지리까지 통달하게 되었을 것이었다. 후자의 이야기는 성공담과 모방 실패담이 곁들여져 흥미를 더하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승된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동네 아낙이 아이를 낳는데 난산이었다. 그 남편이 급하게 달려가 처방을 물었다. 진좌수는 문지방을 갈아 물에 개어 먹이면 된다고 하였다. 그대로 했더니 금방 해산을 할 수 있었다. 겨울이 왔다. 역시 동네 아낙이 아이를 낳는데 난산이었다. 그 남편이 이전에 진좌수가 했던 대로 따라 하면 되겠다고 여기고 문지방을 갈아 먹였다. 이번에는 산모와 아이가 죽고 말았다. 그 남편이 진좌수에게 달려가 따졌다. 이에 진좌수는 "여름에야 모든 문을 열어젖히니 문지방을 갈아 먹이면 산도가 열리지만 겨울에는 문을 죄다 닫아 두니 문지방을 갈아 마시면 산도 또한 막히는 게 당연하지 아니한가"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분석 진좌수가 여우에게 구슬을 빼앗아 명의가 되는 과정은 〈여우구슬〉 이야기 중 하나이다. 여우구슬을 근원적으로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믿어 왔던 민간에서는 여우구슬이 오랜 숭앙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여우구슬을 삼키고 명풍수, 명의, 유명한 학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구슬의 신비한 힘과 그 인물들이 발휘했던 신이한 능력에 대한 숭앙감을 반영한 것이라 보았다. 또한 이 설화는 대체로 비합리적이거나 기이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함으로써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데서 흥미를 추구하는 이야기이다. 전혀 무관한 듯한 처방과 효험의 이유를 교묘하게 연결 짓는 것에서 이야기꾼의 재주가 발휘된다.

특징 짧은 이야기지만 듣는 이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설정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이다. 또한 예사 사람은 쉽사리 따라할 수 없다는 경계의 뜻도 함께 담아 실제로 진좌수의 치료법을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것이 위험함을 충분히 강조한다.

출처 제주도전설(현용준, 서문당, 1976), 제주설화집성1(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9-1, 44; 9-2, 614; 9-3, 71.

참고문헌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강진옥, 고전문학연구9,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신묘한 구슬설화유형의 구조와 의미(최원오,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학회, 1994).

필자 강정식(姜晶植)

신화

짐가제무가

정의 관북지역 액막이 굿에서 불려지는 서사무가.

역사 살해자의 아들로 환생하여 갑자기 죽음으로써 염라왕(저승사자)의 판결을 유도하고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는 원혼의 이야기는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이 펴낸 『해동이적보(海東異蹟補)』의 〈김치설화(金緻說話)〉에서 확인된다. 김치가 홍덕현감으로 재임했을 때의 일화라는 〈김치설화〉는 구전되는 〈홍덕현감설화〉와 흡사하여, 이 유형 설화의 역사적 원형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치설화〉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차사본풀이〉의 근원설화로 추정되고, 〈차사본풀이〉는 〈짐가제무가〉와 서사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김치설화〉, 〈차사본풀이〉, 〈짐가제무가〉는 역사적 계통성을 지니면서 독자적으로 전승된 서사 유형으로 판단된다.

줄거리 동문수학하던 김 정승, 이 정승, 박 정승의 세 동갑내기 아들들이 세상 구경을 떠났다. 강림골에 들어서니 짐가제의 아내가 나서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므로 거기서 저녁을 먹은 뒤 보따리를 풀고 누웠다. 짐가제가 돌아와 아내로부터 집에서 자고 있는 손님들이 항아장수를 하면서 고을 구경 다니는 세 정승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애들을 죽이고 단번에 부자가 되자."라고 하였다. 아내의 만류에도 짐가제는 도령들을 죽이고 시신을 외양간 말판 밑에 넣었다. 그날부터 짐가제의 아내는 갑사옷을 입고 옥가락지를 끼며 호사를 하니 이웃사람들이 모두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수군댔다. 세 도령의 죽은 혼은 지부왕에게 가서 "고수레 달라."라고 애원하여, 정월 대보름날 밤에 세 우물의 은붕어, 금붕어가 되어 기다리고 있었다. 짐가제의 아내가 물 도둑질 하려고 한 우물에 가니 금붕어가 뜨고, 다른 우물에는 은붕어, 또 다른 우물에는 금붕어가 뜨므로 귀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가서 남편과 함께 먹었다.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아들 삼 형제를 낳으니 짐가제가 기뻐하여 정성을 다해 키웠다. 삼 형제가 일곱 살이 되자 독서당을 마련하고 공부를 시키니 아이들이 영특하여 사서삼경에 통달하여서 서울로 과거를 보러갔다. 아이들로부터 팔도 도장원 알성급제를 하고 집으로 내려온다는 편지를 받고 짐가제가 큰 잔치를 준비하니, 각 골 선비들이 잔치를 보러 왔다. 금의환향하여 사당에서 허배(虛拜)하던 아이들이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으므로, 머리를 들어보니 입에 피를 물고 모두 죽어 있었다. 짐가제가 "세 아들이 한날한시에 죽었다."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두르니 손님들이 모두 쫓겨 갔다. 그날로 관가에 들어간 짐가제가 "내 아들 잡아간 삼사재를 붙잡아 달라."라고 하자, 관장이 손사령을 불러 짐가제의 아들들을 잡아간 삼사재를 잡아오라고 했다. 손사령이 식음을 전폐하며 고민하자 그 아내가 "떡과 음식을 마련해서 기망산 다리목에 펼쳐 놓으세요." 하고 알려주므로 그대로 하였더니 열시왕 사재가 굿상 차린 줄 알고 모두 나왔다가 귀신 잡으라고 차린 밥인 것을 알고는 손사령에게 갈 곳을 안내하도록 했다. 열시왕 사제가 관장을 불러들여 "외양간 말판을 들어보라." 하니 짐가제가 데굴데굴 구르며 살려 달라고 했다. 외양간의 말판을 드니 세 아이의 시신이 새파랗게 썩지도 않고 있었다. 짐가제를 황소 다섯 마리가 끄는 다섯 수레에 묶어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 아내도 목을 벤 후, 열시왕 사재는 '열시왕의 사령'으로 부리려고 손사령의 혼만 빼서 저승으로 갔다. 남편을 찾아다니던 손사령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음을 알고 옷고름에 목을 매어 죽었다.

변이 〈짐가제무가〉의 이본은 지금섬 구연본 〈짐가제무가〉와 이고분 구연본 〈진가장굿무가〉 두 편인데, 이본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저승 존재의 명칭인데, 〈짐가제무가〉에서는 삼사재와 열시왕 사재로 〈진가장굿무가〉에서는 '(자식 잡아간) 귀신'으로 달리 지칭되지만 이들은 '저승 존재'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둘째, 이승과 저승 매개자의 경우, 〈짐가제무가〉에서는 '손사령이라 하는 한쪽 눈이 멀고 한쪽 다리는 외이고 한쪽 팔은 밭은 그런 사람', 〈진가장굿무가〉에서는 '못나고 못난 충신(인간)'으로 달리 지칭되나 양자는 '비일상성'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셋째, 손사령은 열시왕 사재의 사령이 되고, '못나고 못난 인간'은 장승이 된다. 두 이본에서 보여 주는 이러한 차이들은 '표현'상의 문제일 뿐 속성상으로는 유사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구비전승에서 흔히 발생하는 '망각'에 의한 변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소의 속성이 부각되는 〈진가장굿무가〉에 비해 화소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짐가제무가〉가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손사령이 열시왕의 사령이 된다는 〈짐가제무가〉의 결말도 저승사자 유래담으로서 〈차사본풀이〉와의 연관성이 부각된다.

분석 〈짐가제무가〉의 서사구조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혼령이 원수를 갚으려고 살해자의 자식으로 환생하는 전반부와, 삼 형제가 과거에 급제하고 갑자기 죽음으로써 열시왕의 재판을 통해 원수를 갚는 후반부로 이루어진다. 원혼은 복수를 위해 환생을 시도하고, 살해자는 자기 아들 삼 형제의 죽음을 파헤치려고 저승 존재의 개입을 요청한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유형은 '죽음–환생–죽음'으로 서사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열시왕의 재판으로 죽음에 얽힌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결말을 통해 서사 내용과 제의적 기능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짐가제처럼 악행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인과응보로서 권선징악이라는 교훈도 있지만, 열시왕의 재판을 통해 원한을 해소한다는 결말은 망자의 부정을 씻기고 좋은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망묵굿의 제의적 기능과 동일한 의미 지향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특징 〈짐가제무가〉의 특징은 〈차사본풀이〉와의 비교에서 잘 드러나는데, 청배를 목적으로 하는 〈차사본풀이〉와 달리 〈짐가제무가〉는 저승사자보다는 퇴치 대상인 짐가제를 더 부각시켜서 액막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짐가제무가〉의 또 다른 특징은 인물 형상에서 드러나는데, 〈차사본풀이〉가 과양생처의 악행을 부각하는 데 비해 〈짐가제무가〉는 짐가제가 악행을 주도한다. 인물 형상의 의외성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자 형상에서도 부각된다. 강림과 손사령은 관가에서 사령으로 일하다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자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저승의 사자로 전환되는 인물인데, 〈차사본풀이〉의 강림은 남다른 면모를 지닌 존재로서 비범성과 영웅성이 부각되는 반면, 〈짐가제무가〉는 매개자 형상에서 신체적 또는 지력적(智力的)인 비정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 형상의 비정상성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매개자이자 저승사자로서 전환되는 인물의 존재방식이 갖는 비일상성 또는 탈일상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의 〈짐가제무가〉와 〈차사본풀이〉는 등장인물 명칭을 제외하면 내용의 상당 부분이 흡사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가진 무가가 우리나라 최북부인 함경도 지역과 최남단인 제주도 지역에서만 전승된다는 사실은 무가의 전승과 변이, 민속문화의 권역과 역사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켜 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나아가 〈짐가제무가〉에서 보여 주는 원혼의 존재와 해원의 방식은 무속적 세계 인식과 한국문화의 기층적 세계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출처 관북지방무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6).

참고문헌 김치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문제(강진옥, 비교민속학41, 비교민속학회, 2010), 동계 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본 차사본풀이의 성격과 기능(권태효·김윤희, 구비문학연구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김형근·김헌선, 정신문화연구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최원오, 한국민속학29, 한국민속학회, 1997).

필자 강진옥(姜秦玉)

민담

쫓겨날 며느리 구한 가짜지관

정의 가짜풍수가 된 궁핍한 선비가 초상집에서 팔삭둥이를 낳아 쫓겨나게 된 며느리의 부탁으로 시키는 대로 하여 며느리도 구하고 자신도 부자가 되는 설화.

줄거리 자식을 하나 둔 가난한 지관이 죽었다. 글밖에는 배운 것이 없는 이 지관의 아들은 살길이 막막하여 아버지가 쓰던 쇠를 가지고 집을 나섰다. 길을 가다 돈 많은 기와집을 발견했는데 마침 그 집 대감이 죽어 묏자리를 구하는 상황이었다. 아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감투를 쓰고 들어가자 엄청난 풍수인 줄 알고 묏자리에 대해 물었고 아들은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각편을 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는 여덟 달 만에 자식을 낳아 쫓겨날 처지에 있는 며느리가 있었다. 며느리는 이 아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아들은 며느리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호혈(虎穴) 산소에는 팔삭둥이가 태어나야 옳다."라고 하여 쫓겨날 뻔했던 며느리도 구하고 자신도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분석 이 설화의 주인공은 글만 읽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비생산적 인물로,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탐색을 해야만 하는 처지의 인물이다. 풍수라는 직업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인데도 이들은 아무 갈등이나 고민 없이 출발한다. 하지만 출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의 이러한 탐색 과정은 이 설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궁지에 빠진 며느리를 구하는 사건이나 그 며느리가 이인(異人)이었다는 의외의 사건이 뒷받침되어 문제가 해결된다.

특징 '출발'은 탐색 모티프의 바탕이 되는 행위로서, 전 세계에 걸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민담에서의 출발 모티프는 신분 상승이나 삶의 반전을 꾀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이전까지의 삶을 모두 부정하는 자기부정(自己否定)이라는 의미 또한 가진다. 이 설화에서 역시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인공의 출발은 삶의 반전을 꾀하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탐색으로 진행된다. 이 점은 어떤 경우이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의의 '출발'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하고 있다. '탐색'은 인간의 경험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흥미를 자아내는 이야깃거리 중 하나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을 좋아하는 인간 성향은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내려오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6, 541; 2–6, 196; 3–4, 683; 6–11, 347; 7–10, 796.

참고문헌 설화학강요(조희웅, 새문사, 1993),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민속원, 1995).

필자 김미숙(金美淑)

차복
차사본풀이
차산필담
차전놀이 유래
참새가 뛰는 이유
창녕조씨시조신화
창세가
채제공
처녀 더위 빼기
처녀고개
처용
처용암
천냥점 치고 잘된 사람
천년두골쌍용수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천부지모
천생연분
천안삼거리
천예록
천자가 된 구렁이
천자명당
천자바위
천지왕본풀이
철쭉꽃
첫날밤에 똥 싼 신부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청구야담
청다리
청실홍실
청야담수
청어장수
청평사
초공본풀이
촌담해이
최영
최영장군당신화
최제우
최치원
춤추는 호랑이
충렬굿무가
충주어씨시조신화
치마대
치마바위
치술령
치악산
친구 간에 지킨 의리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칠산바다
칠성본풀이
칠성풀이
칠월칠석 유래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콩쥐팥쥐

민담

차복

借福說話

표제어 남의 복 빌려 산 사람

신화

차사본풀이

정의 강림이 저승차사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풀이하는 제주도 무속신화.

역사 김치(金緻)가 홍덕 현감으로 재임했을 때의 일화인 『해동이적보(海東異蹟補)』의 〈김치(현감)설화〉는 〈차사본풀이〉의 근원설화로 지목된 바 있는 〈홍덕현감설화〉의 역사적 원형성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김치설화〉와 〈차사본풀이〉는 서사구조와 인물 유형에서 상동성을 보여 주며, 관장의 이름도 김치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김치가 홍덕 현감을 지낸 후 제주 관관으로 부임했다는 관직 이력은 〈차사본풀이〉와 〈김치설화〉의 관계에 대한 배경적 정황 추론에 일정한 근거를 제공한다. 〈짐가제무가〉는 〈차사본풀이〉와 내용이 흡사하지만, 〈차사본풀이〉는 그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저승차사 유래담의 독자성을 다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김치설화〉, 〈차사본풀이〉, 〈짐가제무가〉는 소재의 원천을 공유하면서 장르적, 지역적 변이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로서 그 역사적 계통성이 인정된다.

줄거리 동개남은중절의 대사중은 동경국 버물왕 아들 삼 형제의 단명을 예지하고 소사중에게 향후 대응 방법을 알려준 뒤 열반한다. 소사중은 동경국으로 가서 삼 형제의 단명을 알리고, 연명의 방도를 묻는 버물왕에게 삼 년 법당 불공을 권유한다. 버물왕은 삼 형제에게 비단 짐을 하나씩 지워 동개남절로 보낸다. 소사중은 삼 년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아이들에게 과양 땅을 조심하라 당부하지만, 피로와 허기증을 견디지 못한 삼 형제는 과양생의 집으로 들어가 요기할 음식을 부탁한다. 과양생 처는 물건을 탐내어 아이들을 살해하고 주천강 연내못에 시신을 버린다. 삼 형제의 혼은 꽃으로 환생하고, 다시 구슬로 변하여 과양생 처에게서 삼 형제로 태어난다. 삼 형제는 15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서 사당에 절하다가 한꺼번에 죽어 버린다. 과양생 처는 김치 원님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지만 결처가 나지 않자 욕설을 퍼붓고, 김치 원님은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 염라왕을 잡아오도록 한다. 고민하던 강림은 첫날밤에 소박했던 큰부인을 찾아가서 하소연한다. 큰부인은 강림의 저승 여행을 준비하고 문전신과 조왕신에게 강림의 저승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한다. 강림은 조왕신과 문전신의 인도 아래 78가지 갈림길로 들어서고, 질토래비의 도움을 받아 저승 연추문 앞에 도달한다. 강림은 조왕할망의 도움으로 새로 변신한 염라왕의 정체를 확인하고, 염라왕으로부터 이승을 방문하겠다는 약조를 받아낸 후 이승으로 돌아온다. 염라왕이 행차하자 그 위세에 놀란 김치 원님은 숨어 버리고, 강림이 나서서 염라왕과 김치 원님의 갈등을 중재한다. 염라왕의 재판으로 과양생 부부는 죄상이 밝혀져 처벌되고 삼 형제는 재생하여 집으로 돌아간다. 강림의 재주를 탐낸 염라왕은 강림의 삼혼(三魂)을 빼내 저승으로 데려간다. 강림은 염라왕으로부터 인간 죽음의 질서에 관한 적배지를 인간 세상에 전달하라는 임무를 받지만, 까마귀의 실수로 적배지가 잘못 전달되어 인간 죽음의 순서가 없어지고 현재와 같이 혼란스러워졌다. 강림은 염라왕의 명을 받고 기지를 발휘하여 저승차사가 되었다.

변이 〈차사본풀이〉는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며, 현재 10여 편의 이본이 보고되어 있으나 공통된 서사단락을 갖추고 있어 이본별 차이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삼 형제의 연명 방법(장사, 팔도 구경, 법당 불공), 강림의 저승행을 제안하는 인물(김치 아내, 지동통인, 부하사령, 김치 본인), 강림의 저승길을 안내하는 원조자의 종류나 숫자(조왕신·문전신·질토래비 외에 삼신선 토신 점쟁이 등), 염라왕의 적배지 전달 방법 등에서 차이가 보인다. 속성상의 유사성을 공유하는 이러한 변이 양상은 구연자의 기억 문제로 보인다.

분석 〈차사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신화이지만, 유사한 내용을 가진 설화와 무가 유형이 존재하고 있어 동계서사와의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홍덕현감설화〉가 〈차사본풀이〉, 〈짐가제무가〉와 같은 계통의 자료로서 근원설화일 가능성이 지적된 이후, 〈짐가제무가〉와의 비교를 통해 〈차사본풀이〉의 존재 양상이나 본풀이로서의 특성이 전면적으로 부각된 바 있고, 동계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차사본풀이〉의 성격과 기능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최근 〈홍덕현감설화〉의 역사적 원형성을 보여 주는 『해동이적보』 소재 〈김치설화〉가 확인됨에 따라 〈차사본풀이〉가 역사적 문맥에서 논의될 단서가 마련되고 〈차사본풀이〉의 인물 형상, 서술 구조, 저승 여행 등을 주목한 논의가 이어져서 서술 시각이나 향유층의 세계 인식 규명에도 일조하고 있다. 〈차사본풀이〉는 버물왕 아들 삼 형제, 과양생 처, 강림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삽화로 전개되지만, 삼 형제의 연명 시도와 좌절, 과양생 처의 탐욕과 좌절은 죽음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강림의 저승 여행과 염라왕의 재판을 유발한다. 강림의 저승 여행은 삼 형제의 죽음과 환생, 원혼과 해원, 이승과 저승의 관계에서 드러났던 대립적 국면을 해소하고 미지의 저승 세계를 익숙한 내부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사건이다. 강림의 저승 여행은 이승과 저승이 그 경계를 넘어 하나의 통일된 세계상을 구현하는 사건으로서, 삶과 죽음의 갈등을 중재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무속적 상상력과 세계 관념의 일단을 보여 준다.

특징 〈차사본풀이〉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계의 다른 서사 유형들과 구별된다. 첫째, 상장례(喪葬禮)의 기원에 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언급된다는 점, 둘째, 저승을 다녀오는 강림의 존재가 특히 중시된다는 점, 셋째, 강림의 여정을 통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저승의 길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 넷째, 죽음의 기원과 관련하여 인간의 죽음이 왜 질서가 없게 되었는지를 해명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죽음을 관장하는 차사신격의 권능이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저승차사 본풀이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의의 〈차사본풀이〉는 무속의례에서 뚜렷한 위상을 차지하는 신화이자,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룬 서사문학이다. 특히, 저승차사 좌정 내력을 풀이하면서 죽음과 사후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강림의 저승 여행을 통해 이승의 관점에서 저승 세계를 내부 공간화하여 하나의 통일된 세계상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세계 구조 관념과 존재론적 관심을 풍부한 무속적 상상력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화사적,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출처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韓國の民間信仰-資料(장주근, 도쿄: 금화사, 1973).

참고문헌 김치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문제(강진옥, 비교민속학41, 비교민속학회, 2010), 김치 인물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차사본풀이 서술시각(강진옥, 구비문학연구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동계 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본 차사본풀이의 성격과 기능(권태효·김윤희, 구비문학연구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서사무가연구(서대석, 국문학연구8, 국문학연구회, 1968),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연구(김형근·김헌선, 정신문화연구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차사본풀이 연구(강진옥, 한국고전연구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강진옥, 비교민속학43, 비교민속학회, 2010).

필자 강진옥(姜秦玉)

자료

차산필담

此山筆談

정의 조선 후기에 배전(裵坱, 1843~1899)이 편찬한 야담집(野談集).

내용 『차산필담(此山筆談)』은 「건(乾)」·「곤(坤)」 2책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영인본은 『한국야담자료집성』 8권(정명기 편, 고문헌연구회, 1987)과 『여항문학총서』 10권(임형택 편, 여강출판사, 1991)에 들어 있다. 「건(乾)」에는 〈영가김씨부부적음설(永嘉金氏夫婦積陰說)〉, 〈홍녀가천치귀록(洪女嫁賤致貴錄)〉 등 5편, 「곤(坤)」에는 〈증염행매(拯艷行媒)〉, 〈노노수뢰(老老受賂)〉 등 9편이 실려 있다. 또 「원납이문(願納異聞)」에는 〈흥선대원군살이재후사(興善大院君殺李在垕事)〉, 〈경상감사백징언양동자가산사(慶尙監司白徵彦陽童子家産事)〉 등이 실려 있다.

이 작품들은 충, 효, 열이란 전통 유가 이념을 과장하여 보여 주기도 하고, 기존 유가 이념을 확인하면서도 당대 현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나아가 달라진 세상에 적절한 새로운 생활 이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욕망의 성취를 그 자체로 보여 주는가 하면, 19세기 말 당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윤리적 주장을 강렬하게 드러내거나 암시한다. 특히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 윤리를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그 때문에 기존 야담이 어색하게 변개되기도 했다. 또 백성의 권리가 중앙 권력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민권 사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편찬자 배전은 여러 문헌에서 흥미를 끄는 작품들을 단순히 전재하는 소극적인 편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작가의 역할을 하였다. 작가로서 강렬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려다 보니 계몽 정신이 지나쳐 다소 작품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는 야담집 편찬자의 새로운 경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 이강옥(李康沃)

전설

차전놀이 유래

정의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인 차전놀이의 유래에 관한 전설.

역사 〈차전놀이유래〉는 한결같이 927년(고려 태조 10) 12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고창성(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벌어진 고창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후백제의 견훤군과 고려의 왕건군은 고창성 일대에서 대격돌을 벌였는




차전놀이
국립민속박물관

데, 이때 고창성의 지배적 호족들인 김선평(金宣平), 권행(權行), 장길(張吉) 등 세 사람은 주민들을 이끌고 왕건군에 가담해서 큰 공을 세웠다. 왕건은 이를 기려 세 사람의 호족을 태사(太師)에 봉하고 "동쪽을 편안하게 했다."라고 하여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시켰다.

줄거리 세 개의 유래담이 전한다. 첫 번째 이야기이다. 견훤이 후삼국 통일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신라를 멸하고 여세를 몰아 고창성으로 진격했을 때 당시 성주 김선평, 형관(刑官) 권행, 장길 등 세 사람은 왕건군에 가담했다. 이들은 견훤이 지렁이의 화신임을 알고서 많은 소금을 낙동강에 푼 뒤 군민 전체가 단결하여 인해전술로 견훤군을 강물로 밀어붙이게 해서 견훤군을 참패시켰다. 이로 인해 왕건은 고려를 창건하였고 위의 세 사람을 개국공신으로 여겨 태사에 봉하였다. 이후 안동 사람들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차전놀이를 전승해 왔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다. 팔공산 전투에서 견훤에게 패배한 왕건이 고창으로 후퇴해 견훤군과 일전을 앞두게 되자 삼 태사(김선평, 권행, 장길)와 주민들은 왕건군에 가담했다. 양 진영은 서로 대치한 채 겨울을 지냈다. 견훤이 진을 친 저수봉 기슭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안중 노파[安中媼]가 적의 동태와 기밀을 탐지하여 일일이 삼태사 진영에 보고하였다. 그 가운데 견훤이 지렁이의 화신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그때부터 비밀리에 많은 등짐장수를 시켜서 소금을 비축하였다가 해동과 더불어 어둠을 틈타서 주변의 물웅덩이와 개천을 간수(소금물)로 만들었다. 이 무렵 안 노파는 고삼주를 빚어서 적군의 장졸들에게 대접하여 만취케 한 뒤 이 사실을 아군 진영에 통보하였다. 아군은 때를 놓치지 않고 일제히 기습 공격을 감행해 대승을 거두었다. 승전 후 삼 태사는 군민과 등짐장수를 모아 전공을 치하하고 승전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등짐장수들은 흥에 넘쳐 쪽지게 위에 우두머리를 올려 태우고 "월사 덜사" 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뛰어놀았다. 그 뒤 이것을 본 군민들은 쪽지게를 본떠 놀이기구를 만들어 덕망 있는 사람을 태우고 양편으로 나누어 놀이를 하며 전승을 기념하니 이것이 차전놀이의 효시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다. 후백제의 왕 견훤은 본래 지렁이였다. 안동 사람들은 견훤을 몰아내기 위해서 소금 배를 풀어 낙동강 물을 짜게 만들고 주민들이 모두 나와 팔짱을 끼고 지렁이로 화한 견훤을 어깨로 밀어 강물에 빠뜨렸다. 그랬더니 견훤은 짠물 때문에 죽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안동 사람들은 견훤을 떠밀 때처럼 떼 지어 차전놀이를 하였는데, 놀이를 할 때는 손을 쓰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어깨로 서로를 밀어댄다.

분석 지역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동놀이의 기원전설은 놀이의 전승을 합리화하는 한편, 전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이 전설 역시 고려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고창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차전놀이를 벌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차전놀이가 지역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특징 세 가지 유형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시 고창성의 지도부이자 그 뒤에도 내내 안동 사회를 지배해 온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 등의 시조인 삼 태사의 활약상을 부각시킨 반면, 두 번째 이야기는 삼 태사뿐만 아니라 안중 할멈과 지역민의 활약을 골고루 드러내고 있으며, 세 번째 이야기는 익명화된 군민들의 활약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역사적 사건이 전승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전승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의 〈차전놀이유래〉에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지역민들의 자부심과 함께 놀이의 유래를 역사적 사건과 연관시킴으로써 전승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지역민의 의도가 담겨 있다.

출처 안동차전(김명한, 사단법인 안동차전놀이보급회, 1972), 차전·놋다리(임동권,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6, 문화재관리국, 1967).

참고문헌 안동차전(김명한, 사단법인 안동차전놀이보급회, 1972), 안동차전의 역사와 유사놀이에 대한 검토(한양명, 민속학연구5, 국립민속박물관, 1998), 차전·놋다리(임동권,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6, 문화재관리국, 1967).

필자 한양명(韓陽明)

민담

참새가 뛰는 이유

표제어 까치의 재판

신화

창녕조씨시조신화

昌寧曺氏始祖神話

정의 창녕 조씨 시조인 조계룡(曺繼龍)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득성(得姓)에 관한 신화.

줄거리 〈창녕조씨시조신화〉는 여느 시조신화에 비해, 시조 조계룡의 신이한 탄생 과정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특히 창녕 조씨 족보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창녕조씨충간공파보(昌寧曺氏忠簡公派譜)』, 『창녕조씨장양공파보(昌寧曺氏莊襄公派譜)』, 『창녕조씨시중공파보(昌寧曺氏侍中公派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라 때 한림학사 이광옥의 딸인 예향(禮香)이 청룡질(靑龍疾)을 얻어 화왕산에 있는 용담에서 목욕하다가 청룡의 아들 옥결(玉玦)과 만났다. 그리고 계룡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옆구리 밑에 '조(曺)' 자가 새겨져 있는지라 성을 조씨(曺氏)라 하였다고 한다. 또 세속에 전해 내려오는 바로는, 조씨의 시조모 예향은 나면서부터 복질(腹疾)이 있어 고생하던 중 어떤 사람이 화왕산에 있는 못이 매우 영험하니 목욕재계하고 정성껏 기도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 말에 길일을 택하여 못으로 올라가 목욕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참에, 갑자기 못 속에서 운무가 자욱하게 솟아올라 컴컴해지며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잠시 후에 운무가 개면서 예향은 못 속에서 솟아 나왔다. 그 뒤로 병이 씻은 듯이 나은 동시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 꿈에 장부가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화왕산 큰 연못의 신룡(神龍)의 아들 옥결인데, 내가 아이의 아버지이다. 아이를 잘 기르면 공후에서 경상에 이르기까지 자손만대가 끊임없이 번창할 것이라." 하였다. 아버지 한림학사 이광옥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니, 왕은 자세히 듣고서 '조계룡'이라는 성명을 주었다. 장성하여 진평왕의 사위가 되고 창성부원군으로 봉해졌는데, 이 사람이 창녕 조씨의 시조라고 한다.

분석 〈창녕조씨시조신화〉는 시조인 조계룡의 탄생과 득성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신화의 핵심은 시조의 신비로운 탄생으로, 시조가 예향과 신룡인 옥결과의 교구(交媾)로 태어난다는 점에서 그 신이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옆구리 밑에 '조' 자가 새겨져 있어 이를 성으로 삼은 것은, 남평 문씨 시조가 석함에 문자가 새겨져 이를 성으로 삼은 것과 같다. 또한 '조계룡'이라는 성명을 통해 용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씨족집단이 새롭게 출현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의의 이 신화는 용지(龍池)와 같은 특정한 공간에서 인간과 용의 교혼으로 아이가 잉태되어 태어나서는, 특출한 인물이 되어 이후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시조의 부모는 인간과 이류인 동물로 여성과 남성의 이원적 대립구조를 가진다. 시조를 출산한 여성은 물과 대지,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관장하는 지모신이며, 이류인 남성은 수부신으로, 지모신과 수부신의 결합으로 시조가 출생하는 신화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출처 昌寧曺氏侍中公派譜, 昌寧曺氏莊襄公派譜, 昌寧曺氏忠簡公派譜, 한국성씨대관(창조사, 1971), 한국인의 족보(일신각, 1977).

참고문헌 창녕조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문학회, 2002),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8), 한국씨족설화 연구(허경회,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서해숙(徐海淑)

신화

창세가

創世歌

정의 함경도 함흥 지역의 무녀 김쌍돌이[金雙石伊]가 구연한 무속의 창세신화.

줄거리 손진태가 1923년에 채록하여 1930년에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이라는 책에 그 내용을 소개했다. 하늘과 땅이 나뉘지 않은 상태였다가 하늘이 가마솥 뚜껑처럼 볼록하게 도드라지자 그 틈새에 미륵이 땅의 네 귀에 구리 기둥을 세워 천지가 분리되었다. 이 시절에는 해와 달이 둘씩 있었는데, 미륵이 해와 달을 하나씩 떼어 북두칠성과 남두칠성 그





일월성신
국립민속박물관

리고 큰 별, 작은 별들을 마련했다. 미륵은 칡넝쿨을 걷어 베를 짜서 칡 장삼을 해 입었다. 그런 연후에 물과 불의 근본을 알아내기 위하여 쥐의 말을 듣고 금덩산으로 들어가서 차돌과 시우쇠를 톡톡 쳐서 불을 만들어 내고, 소하산에 들어가서 샘을 찾아 물의 근본을 알아내었다. 미륵이 금쟁반·은쟁반을 양손에 들고 하늘에 축수하여 하늘로부터 금벌레·은벌레를 다섯 마리씩 받아, 각각 남자와 여자로 변하여 다섯 쌍의 부부가 생겨나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다. 미륵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석가가 등장하여 미륵에게 인간 세상을 내놓으라 했다. 미륵은 석가의 도전을 받고 인세 차지 경쟁을 하게 되었다. 미륵이 계속 승리하자 석가는 잠을 자면서 무릎에 꽃을 피우는 내기를 제안하고, 미륵이 잠든 사이에 미륵이 피운 꽃을 가져다 자기 무릎에 꽂아 부당하게 승리한다. 미륵은 석가에게 인간 세상을 내어주고 사라진다. 석가의 부당한 승리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는 부정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분석 창세신화는 천지개벽에서 비롯한다. 하늘과 땅이 생겨날 적에 미륵님이 태어났다고 했다. 그러니 미륵님은 천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했던 창세의 주역신이 되는 셈이다. 그 시절 하늘과 땅이 들러붙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늘이 점점 가마솥 뚜껑의 손잡이처럼 볼록해졌다고 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비로소 틈이 생긴 것인데, 가마솥 뚜껑 손잡이처럼 볼록해졌으니 네 귀퉁이 부분에 틈새가 생겼다는 뜻이다. 이때 미륵님이 구리 기둥 넷을 가지고 땅의 네 귀퉁이마다 받쳐 세워 놓으니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분리되었다고 했다. 구리 기둥 넷으로 땅과 하늘을 나누었으니 흔히 말하는 천원지방(天圓地方), 곧 하늘은 둥근 형상을, 땅은 네모난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어 일월성신(日月星辰)이 생겨난 내력을 노래했다. 그 시절에는 해도 둘이요, 달도 둘이었다. 해와 달을 하나씩 조정해야 오늘날 인간 세상의 이치와 같아지는 까닭에 달 하나를 떼어 내 칠성별을 만들고 해 하나를 떼어 내 임금과 대신 그리고 백성의 별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뭇별은 해와 달에서 비롯했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해와 달을 하나씩 조정해야 하는 연유가 있다. 다른 지역 창세신화를 보면 낮에 해가 둘이면 사람이 뜨거워서 못 살고, 밤에 달이 둘이면 추워 살 수 없다고 그 연유를 밝혔다. 해와 달이 여럿이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했다는 신화는 여러 민족의 창세신화에서 전승되지만, 해와 달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것으로 별을 만들었다고 한 점이 특별하다.

무구의 하나인 청동 거울은 '곤을'이라 하기도 하고 '명도(明圖)'라 하기도 한다. 명도의 뒷면은 일월천(日月天)의 문양을 새겨 놓아 천체(天體)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명도의 특징은 주로 천궁경(天穹鏡)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볼록거울 형상을 하는 것은 그 표면으로 일월을 나타내고 그 뒷면으로 하늘의 궁륭(穹窿)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당들이 사용하는 곤을 혹은 명도가 이러한 천체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하늘이 가마솥 뚜껑처럼 볼록하게 도드라졌다고 하고, 그 둥근 하늘에 일월성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발상은 무속의 우주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벌레·은벌레가 자연적으로 인간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미륵이 양손에 든 금쟁반·은쟁반에 떨어져 인간 남녀가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륵이 전지전능한 인간의 창조주는 아니다. 하늘에 축사(祝詞)하여 금벌레와 은벌레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미륵의 상위에 하늘로 설정한 천신이 있었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미륵이 벌레를 인간 남녀로 화생시켰다고 해서 인간 창조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금쟁반·은쟁반은 해와 달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금벌레·은벌레는 곧 해벌레·달벌레가 된다. 벌레가 이미 해와 달의 정기를 받아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인간 세상의 하찮은 벌레가 아니라 신이한 성격을 덧입고 있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벌레와 같은 형상을 지닌 신이한 존재가 하강하여 인간이 되었다는 설정이다.

다섯 쌍의 부부가 있어 인간이 태어났으니 이 땅의 사람들은 다섯 조상에게서 나온 셈이 된다. 하늘에서 떨어진 금벌레·은벌레가 사람이 되었으니 모두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섯 쌍의 부부를 마련하여 이 땅의 인간들이 다섯 조상 양위(兩位)의 후손이라고 설정했으므로 다섯 개의 족원이 있다는 뜻이 된다. 미륵님이 다스리던 세월은 태평하였는데, 석가님이 내려와서 미륵님의 인간 세상을 빼앗고자 했다. 둘 사이에 벌어지는 인세 차지 경쟁의 과정은 오늘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렇지만 잠을 자면서 꽃을 피우는 경쟁은 우리나라 전역에 공통으로 전승되는 대결화소이기에 특별히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석가의 속임수로 승패가 갈렸다. 그 결과 인간 세상이 말세가 된다 하여, 석가의 세월에는 기생이 나고 과부가 나고 무당이 생겨나고 역적이 나고 백정이 나고 아랫사람의 반역이 생겨난다고 했다. 기생이니 과부니 무당이니 역적이니 백정이니 하는 따위는 인간 세상이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을 풀어낸 것이다. 인간은 선하고 정직한데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부정한 까닭에 인간 세상에 죄악이 생겼으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원죄는 부정한 신에게서 비롯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특징 북부 지역에서 창세신화의 이름은 다양하다. 〈김쌍돌이본〉과 〈전명수본〉은 손진태가 '창세가'로 명명하여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본래의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이 지역 창세신화의 특징은 우선 경쟁의 주체가 미륵과 석가라는 두 거인신으로 설정되었다는 데 있다. 이 점은 다른 지역과 대비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쟁 주체가 미륵과 석가로 설정됨으로써 부모의 존재 역시 나타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태초에 이미 존재하는 거인신이어서 부모의 혈통을 통해 신성성을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창세신화의 온전한 면모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 신화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창세가〉의 내용은 마이다르 보르항과 샥즈무니 보르항이 등장하는 몽골의 창세신화와 일본 류큐의 아마미 군도에서 전승되는 창세신화와도 내용상 공통유형에 속한다. 아울러 중·동부 유럽을 포함한 지역과 슬라브 민족들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창세신화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어 비교신화학적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자료이다.

출처 조선신가유편(손진태, 동경:향토연구사, 1930).

참고문헌 선신과 악신의 상호모방과 협연의 창조론과 선악의 문제(박종성, 통합인문학연구1-2, 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2009), 중동부 유럽과 한국의 창세신화 그리고 변주(박종성, 비교민속학35, 비교민속학회, 2008), 창세시조신화의 변이와 의미(서대석, 구비문학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과 몽골의 창세신화 비교연구(노르브남,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국의 창세신화(김헌선, 길벗, 1994),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박종성, 태학사, 1999).

필자 박종성(朴鍾聲)

전설

채제공

蔡濟恭

정의 채제공의 출생, 문장력, 지혜, 충정들을 설명한 인물전설.

줄거리 부자 허 씨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밤마다 이물(異物)이 찾아와 그녀와 관계를 맺고 사라졌다. 하루는 명주실을 이물의 옷자락에 꿰어 놓고, 다음 날 실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거북 한 마리가 있었다. 그 후 10개월이 지나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채제공이다. 채제공이 태어날 때는 7년 대한(大旱)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채제공이 태어나자 마을의 아랫샘과 윗샘에서 생명수가 펑펑 솟아나는 이적이 나타났다. 채제공이 여덟 살 때 이웃 대감집의 앵두를 따 먹다 들켰다. 이때 대감이 채제공에게 벌로 시를 짓도록 하고 운자를 주었는데, 어린 채제공이 단숨에 시를 지어 대감을 감탄시켰다. 한편 채제공은 열여덟 살에 평강군수가 되었다. 이웃 남자와 산에 피를 뜯으러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한 여인이 채제공에게 남편을 찾아줄 것을 청원하였다. 채제공은 혼자 돌아온 이웃 남자가 여인의 집에 들

렀을 때, 그 집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온 사실을 알고는 남자를 문초하여 살인한 사실을 알아냈다.

분석 〈채제공전설〉은 크게 신이한 출생, 뛰어난 문장력, 지혜와 재치, 충정의 네 가지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출생담에서는 이물 교구 화소가 등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은 거북이다. 거북은 장생과 길사를 상징하는 신수(神獸)로, 재상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채제공에 대한 민중의 긍정적 평가가 개입한 결과로 해석된다. 채제공의 문장력은 어린 시절부터 발휘된다. 글에서 주로 올바른 정사(政事)에 대한 포부를 읊는데, 뒤에 정조와 글 겨루기에서도 뛰어난 시문(詩文) 능력을 보인다. 이는 민중이 훌륭한 선비의 기본 덕목으로 학식과 문장력을 요구한 결과이다. 채제공의 지혜와 재치는 어려운 사건에 휘말린 민중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는 데에 활용된다. 또 채제공은 곧은 성품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며 임금에게 직언도 서슴지 않는 채제공의 충정이 이야기에 잘 드러난다.

의의 채제공은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포부와 기개를 지녔고, 출세 후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당당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것은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 내고자 하는 민중의 현실 극복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또 여기에는 소신이 분명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닌 관리의 출현에 대한 민중의 갈망이 숨어 있다. 요컨대 〈채제공전설〉은 당시 민중이 바라는 관리의 표상과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적 인물의 전형을 보여 주는 현실적 영웅담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출처 청양군지(청양군지편찬위원회, 청양군, 199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8, 344, 한국구전설화집(김기창·박미영, 민속원, 2004).

참고문헌 번암 채제공설화 연구(김기창, 새국어교육7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번암 채제공의 문학 연구(백승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필자 오세길(吳世吉)

민담

처녀 더위 빼기

정의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속여 꾸미는 술책과 관련된 설화.

역사 예부터 남자는 성장하면 결혼해 가정을 이루어야 했다. 그래서 노총각은 한 여성을 지목해 술책을 써서 속여 결혼하는 예가 있었다. 속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악행이지만, 노총각의 경우는 부득이한 처사로 여겨 웃으면서 인정해 주었다. 대중이 묵계한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윤색하여 설화로 꾸미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창작해 전파했다.

줄거리 머슴살이 노총각이 주인집 딸이 벗어 놓은 속곳을 훔쳤다. 새벽에 그것을 입고 일을 하니 주인이 보고 물었다. 그래서 급히 나오느라 바지를 바꾸어 입었다면서 뛰어들어가니, 딸과 한 방에서 잔 것으로 알고 사위로 삼았다.

다른 이야기도 있다. 한 노총각은 과부 집 일을 하면서 결혼할 줄 모르니 가르쳐 달라 했다. 과부가 정말 모르는 줄 알고 동침해 가르쳐 주었다. 곧 노총각은 결혼했다고 소문 내어 과부와 부부가 되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렇다. 한 소금장수가 시골에 가서 들에서 노부부의 집안 얘기를 듣고, 집에 처녀 혼자 있음을 알고 찾아갔다. 처녀에게 외가 친척이라 속여 식사 대접을 받고 돈까지 약취한 다음, 얼굴을 보고 속병이 있으니 고쳐야 한다고 의원 행세를 했다. 순진한 처녀가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누우니, 곧바로 덮쳐 음행했다. 그러고 흘러나온 정액을 그릇에 담아 병의 농(濃)이라면서 주었다. 돌아온 부모가 얘기를 듣고 꾸짖고 탄식했다.

변이 노총각의 결혼이기에 사람들이 관용으로 환영했다. 그런데 남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술책으로 여인의 정조를 유린하는 내용으로 많이 변질되었다. 또 다른 변이 형태는 술책으로 부잣집 딸과 결혼하지만 재산은 남성 쪽에서 마련해 부자가 되는 내용이 첨가되기도 했다. 처가 덕으로 잘사는 것을 수치로 여긴 사회 통념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노력에 의하지 않고, 갑자기 황금상자를 얻거나 우연히 행운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분석 남성은 불우한 노총각이고, 여성은 넉넉한 집안의 처녀이거나 부유한 과부다. 두 사람이 한 방에 있었거나 동침했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술책을 내용으로 하는데, 여성은 남성과 접촉하면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정조관념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특징 결혼과 부(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룬다는 특성을 지닌다. 불우한 노총각이 부잣집 딸과 결혼하면 남성의 두 가지 기본 소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바닥 서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주었으므로 가난한 서민 남성들이 좋아해 많이 전파했다.

의의 비록 술책을 쓰고 있지만 사회의 인정을 받고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웃음을 유발하는 예술 활동에 소재로 적절히 이용하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村談解頤,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6, 798; 2-6, 383; 8-9, 204.

참고문헌 조선 후기 문헌설화의 연구(조희웅, 형설출판사, 1982), 한국문헌설화 4(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 야담문학 연구(정명기, 보고사, 1996).

필자 김현룡(金鉉龍)

전설

처녀고개

정의 한 처녀가 떠난 연인을 찾아 다녔는데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사실을 모르고 절망하여 자결한 고개라 하여 처녀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유래전설.

줄거리 〈처녀고개전설〉은 각기 다른 두 편의 서사가 전해진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총각이 중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한 처녀를 사랑했다. 총각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처녀에게 살랑골로 찾아오라고 했다. 처녀는 총각을 찾아 먼 길을 오다가 한 고개에서 만난 일꾼에게 살랑골을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꾼은 구만리를 지나면 살랑골이라고 알려 주었다. 처녀는 지금까지 천 리 길을 걸어왔는데 구만리면 늙어 죽어도 만나기 어렵다면서 그 자리에서 목을 매 자결했다. 사람들이 그 고개를 처녀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풍산리 고개 아래 마을에 사랑하는 처녀와 총각이 살았다. 총각이 과거에 합격하여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다. 처녀는 십 년 동안 총각을 기다리면서 고갯마루 소나무에 버선목을 걸어 놓고 기다렸다. 하루는 처녀가 새로 만든 꽃버선을 걸기 위해 소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실족하여 강물에 빠져 죽었다. 총각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왔으나 자신을 기다리다가 죽은 처녀의 소식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때부터 이 일대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풍산리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버선목을 걸어 두었던 소나무를 성황으로 모시고, 그 고개는 처녀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변이 첫 번째 이야기는 지역에서 구비전승되는 서사로 이별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에서 변이가 일어난다. 일제강점기 때 함경도 청년이 구만리 발전소 건설을 위해 끌려온 예도 있고, 한국전쟁으로 이별하는 예도 있다.

분석 처녀는 오로지 연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힘겨운 천 리 길을 달려왔다. 그러기에 처녀에게 들린 '구만 리'라는 소리는 청천벽력과도 같다. 길 안내자가 전한 '구만리'는 희망적 메시지이다. 그러나 처녀가 그것을 지명이 아니라 거리로 인식하는 순간 절망적 메시지가 되고 만다. 이러한 장치는 전설의 특성인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징 이 전설은 처녀의 죽음에 얽힌 특징한 사건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지명유래담이다. 두 가지 서사 중 첫 번째 서사는 한 처녀가 연인을 찾아오다가 고개에 이르러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비극적 서사로, 비장미가 흐르는 전형적인 전설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 그에 비해 두 번째 서사는 과거를 보러 떠난 연인을 기다리던 처녀가 실족하여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 서사에, 처녀가 실족하여 죽은 고개의 소나무를 성황으로 모시고 이에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는 전설을 향유하는 공동체의 염원이 가미되어 신성성을 획득하여 전설의 신화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첫 번째 서사는 전설의 비극적 원형성과 전승력을 두루 갖춘 구전적 특징이 두드러지고, 두 번째 서사는 비교적 스토리가 잘 가다듬어지고 윤색된 문헌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의의 전형적인 전설의 문법을 따르는 서사와 신성성을 획득하여 신화적 성격을 보이는 서사를 비교함으로써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구전서사 갈래의 상호 관계와 역동적 변이양상을 살필 수 있다.

출처 강원의 설화1(강원도, 2005), 향토의 전설(강원도, 1979).

참고문헌 강원의 설화1(강원도, 2005), 구전이야기의 갈래와 상호관계에 따른 연구(신동흔, 비교민속학22, 비교민속학회, 2002), 향토의 전설(강원도, 1979).

필자 박현숙(朴賢淑)

전설

처용

處容

정의 동해 용의 아들로 신라 왕정을 보좌하다가, 아내를 범한 역신(疫神)을 물리치고 문신(門神)이 된 처용에 관한 설화.

역사 신라 49대 헌강왕(재위 875~886) 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879년(헌강왕 5)에 생김새와 옷차림이 괴이한 사람 넷이 왕 앞에 나와 노래하고 춤추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 11 신라본기 헌강왕 조의 기록이 이 설화와 관련된다. 고려시대의 사서와 문집에 처용희(處容戲)나 처용무(處容舞)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고, 조선 초에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과 『악장가사(樂章歌詞)』에 고려의 〈처용가(處容歌)〉가 실려 있다.

줄거리 헌강왕이 울산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일관(日官)이 동해 용의 변고라고 아뢰니 용을 위해 절[망해사(望海寺) 혹은 신방사(新房寺)]을 짓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동해 용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 춤추고 연주하였다. 그중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라벌로 와서 왕정을 보좌하였다. 왕이 미녀를 아내로 삼게 하고 급간(級干) 벼슬을 주어 머물도록 하였다. 그런데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장면을 목격한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물러났다. 이때 부른 노래가 〈처용가〉이다. 그러자 역신은 처용 앞에 무릎 꿇고 이후로 처용의 모습을 그린 문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에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여 재앙을 물리치고 경사를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변이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내용이 울산의 〈처용암전설〉로 전승되었다. 또 제주도에서는 역신이 용신(龍神)인 처용에게 굴복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영덕 앞바다에 흑룡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자 무술이 뛰어난 처용랑이 퇴치했다고 하였다.

분석 처용에 대해서는 용신, 무당, 화랑, 호족 자제, 이슬람 상인 등의 설이 있고, 이에 따라 용신신앙, 무속신앙, 화랑도 사상과의 관련성이 거론된다. 처용과 아내, 역신의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한 갈등구조는 연극적 성격을 지닌다. 역병(疫病) 퇴치의 주술적 의도가 담겨 있으며, 당대에 일어난 성 추문 사건의 설화적 윤색으로 볼 수도 있다.

특징 이 설화는 후대 처용희·처용무 공연의 연극적 바탕이 되는 이야기이다. 〈처용가〉의 내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설화의 극적 긴장감을 높여 준다. 울산의 처용암과 결부된 전설적 성격도 띠고 있다.

의의 신라 헌강왕 대 성립되어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공연되는 연희와 춤의 서사 내용을 이룬다. 벽사진경의 의미를 지닌 채 오랜 시간 전승된 전통 연희의 하나로 문학적, 민속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처용가〉의 배경 설화로서도 의의가 있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고려 처용가의 처용랑망해사조 재해석과 벽사진경의 원리(정운채, 고전문학연구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삼국유사소재 처용설화의 일분석(이우성,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 처용가와 관련설화의 생성기반과 의미(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1997),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처용설화의 연구(장주근, 한국어교육6, 한국어교육학회, 1963), 처용설화의 일고찰(이용범, 진단학보32, 진단학회, 1969).

필자 신재홍(申載弘)

전설

처용암

處容岩

개운포

정의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과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갈재[盧嶺]에 있는 처용암에 관한 설화.

역사 울산의 〈처용암설화〉는, 관련 기사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의 처용랑망해사(處容郎望海寺) 조에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신라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서인충(徐仁忠)과 윤홍구(尹弘鳴)가 남긴 기록에도 이곳에서 왜적에게 대승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 장성의 〈처용암설화〉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처용의 면목과 같아서 처용암이라고 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 〈처용설화〉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울산 처용암과 관련해서는 '처용–아내–역신'의 구조로 된 〈처용가〉 배경설화 외에도 호국용신설화가 전한다. 임진왜란 때에 왜적의 선단 수백 척이 울산으로 몰려왔을 때, 장수들이 목욕재개하고 처용암에 나아가 제를 올리자 개운포로 들어오던 왜선 50여 척 가운데로 큰 회오리와 뇌성이 들이쳐 적선이 전복되었다고 한다. 장성의 처용암과 관련해서는 미인암 또는 가래바위로 바뀌면서 지명설화가 전승된다. 그 바위 아래에 있는 마을을 지나는 선비와 관료가 '가래[蘆娥, 蘆花]'라는 기생의 미색에 빠져 패가망신한다는 말을 들은 임금이 장군을 보내 그녀의 목을 치자 바위가 가래의 얼굴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 한 도사가 그것 때문에 미인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 바람기가 있다고 하여 바위의 한쪽 눈을 정(釘)으로 쪼아 버린 후에는 애꾸 미인이 태어난다고 한다.



처용암
울산시 남구 황성동, 문화재청

변이 울산의 처용암 자리가 명당이라 그곳에 묘를 쓰면 인물이 난다고 하여 사람들이 암장(暗葬)을 하기만 하면 괴변이 생겨서 굴총을 했다고 한다. 장성의 〈가래바위전설〉로는 여색에 빠지려던 선비가 정신을 차려 가래를 죽였다고도 하고, 가래를 사모하던 총각이 직접 쪼아서 가래바위를 만들었다고 하는 설화도 있다.

분석 처용 전승의 연구는 울산과 장성의 〈처용암설화〉를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더는 진전이 없었다. 두 설화는 바다와 산중, 남성 중심과 여성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대립적이지만 명칭이 같을 뿐 아니라 미인을 두고 두 남성이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특징 울산의 처용암은 궁중적인 것으로 기록된 이후로 고정적이 되었고, 그 장소가 성스러운 곳으로 인식되어 계속 제의가 행해지고 있다. 장성의 경우에는 처용암, 미인암, 가래바위 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설화가 재생산되고 있다.

의의 울산의 처용암은 신라 〈처용설화〉의 증거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용신, 특히 호국용신과 관련이 있는 성소로 여겨져 지역민들이 숭배하고 있다. 장성의 처용암은 중앙 권력의 진출을 차단하려는 소외된 지방 민중의 대결 의식을 드러내면서 재미있게 변형된 설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長城邑誌, 花巖實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7, 701; 8–12, 82; 94; 9–1, 103, 전남의 전설(김정호, 전라남도, 1991).

참고문헌 처용전승의 계승과 변천(최진형, 반교어문연구24, 반교어문학회, 2008), 처용전승의 구조적 연구(설성경, 한국민속학7, 민속학회, 1974), 처용전승의 전개양상과 의미 연구(김유미,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필자 정상박(鄭尙朴)

민담

천냥점 치고 잘된 사람

정의 가난한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산 점쟁이의 예언 덕분에 거듭되는 위기를 모면하고 행운을 얻는다는 설화.

줄거리 한 젊은이가 집에 부인을 남겨둔 채 함경도로 배를 타고 명태잡이를 떠났다. 몇 달 후 명태잡이를 마친 젊은이는 집의 소식도 알아볼 겸해서 점을 잘 친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는 점괘 하나를 써 줄 때마다 젊은이에게 천 냥을 요구해서 도합 삼천 냥에 세 가지 점괘를 봐 주었다. "돌아가는 길에 바위 사이에 배를 매어 놓고 쉬지 마라.", "집에 돌아가서 떨어지는 기름을 머리에 발라라.", "피를 한 말을 쓰니 쌀이 석 되뿐이 안 나온다."라는 점괘였다. 젊은이는 점쟁이가 준 글 석 장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어느 포구에서 하룻밤을 쉬었다. 다른 일행들은 모두 배를 포구에 정박했지만 젊은이는 포구 밖에 배를 매 놓았다. 밤사이에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들이 서로 부딪쳐서 모두 죽고, 젊은이만 살아남았다. 집에 도착한 젊은이는 부인과 서로 고생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 잠을 자는데, 기름병이 갑자기 머리맡에 떨어졌다. 점괘가 생각난 젊은이는 기름을 상투에 발랐다. 한밤중에 미리 부인과 약속을 한 부인의 간부가 들어와 젊은이의 머리를 만져 보더니 옆에 있던 부인을 남편으로 착각하여 죽였다. 부인이 죽은 것을 알고 걱정이 되어 밤을 새운 젊은이는 마지막 점괘를 해석할 수가 없어서 글을 잘 해석하는 이웃 선비에게 보였다. 선비는 근방 어느 절의 강철성이란 중놈을 잡아오라고 했다. 선비는 피가 한 말이면 쌀이 석 되가 나기 때문에 강철성임을 알았고, 덕분에 젊은이는 살인 누명을 벗게 되었다.

변이 이 설화는 흔히 〈천냥점(千兩占)〉, 〈인지위덕(忍之爲德)〉, 〈세 번의 죽을 고비〉, 〈세 가지 점괘〉, 〈명점(名占)〉 같은 여러 제목으로 전국에서 전승된다. 이야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인공의 문복(問卜)–점쟁이의 점괘–점괘에 따른 주인공의 행위–행위의 결과로 인한 주인공의 위기 모면'의 순차적 구조는 같다. 주인공으로는 뱃사공, 선원, 정승, 선비, 머슴, 총각 등 주로 가난한 처지의 총각이나 선비가 많이 등장한다. 주인공이 점쟁이에게 점을 칠 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예도 있지만 대다수의 이야기는 주인공의 처지에서 전 재산과 다름없는 큰돈을 복채(卜債)로 내는데 주로 '천 냥'일 때가 많다. 따라서 이야기의 제목도 〈천냥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점쟁이의 점괘가 하나이거나 넷 이상인 예도 있지만 대다수는 셋으로 나타난다.

점쟁이가 말한 점괘의 내용과 그 점괘가 실현되는 양상에 따라 이 설화는 몇 가지 변이형을 보여 준다. 첫 번째는 "대로로 가라, 밉거든 곱다고 해라, 반기거든 기어라."의 세 점괘에 따라 주인공이 행동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바위 밑에 배를 대지 마라, 머리에 묻은 기름을 씻지 마라, 한 말의 곡식에서 일곱 되의 곡식이 나온다."는 점괘에 몇 개의 점괘가 더 첨가되는 유형이다. 점괘가 다수 첨가될 경우는 민간에서 독립된 설화로 전승되고 있는 〈귀물작변(鬼物作變)〉 또는 〈소로 된 사람〉 모티프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보쌈 모티프가 삽화(揷話)로 포함되어 있는 유형으로, 고전소설 〈정수경전(鄭壽慶傳)〉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 주인공은 살인 누명을 쓰게 되는데, 점쟁이의 점괘를 통해 진범의 이름이 노란 종이에 흰 백(白) 자 세 개, 즉 '황백삼(黃白三)'임이 밝혀진다. 마지막으로, 흔히 〈삼인위덕(三忍爲德)〉이나 〈인지위덕〉이라는 제목이 붙는 이야기로, 무식한 주인공이 글을 배우다가 '참을 인(忍)' 자를 교훈으로 삼게 되게 되는데, 화가 난 상황에서 세 번을 참아 결국 큰 위기를 벗어난다는 내용의 변이형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과 그것의 극복에 얽힌 이야기로, 운명에 대한 민담 전승자들의 사고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람은 제각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운명론적 사고'가 이 설화의 전제이다. 하지만 인간은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결정론적 사고'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인공인 젊은이는 가만히 앉아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그 운명을 극복하려 한다. 그 극복 방법은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 삼천 냥을 주고 용한 점쟁이에게 점괘를 사는 것이다. 운명은 극복될 수 있다는, 그리고 운명을 극복하여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다. 처음부터 젊은이에게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주어지는 것은,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운명설화에는 정해진 운명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운명실현형'과 인간이 노력으로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운명변역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설화는 운명변역형에 해당한다.

특징 이 설화는 아르네-톰슨(Aarne-Thompson)의 『설화의 유형』에서 〈하인의 좋은 충고(AT910B)〉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설화는 중국에서 4세기 초에 간행된 『수신기(搜神記)』에 세 가지 예언 모티프가 거의 유사하게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과 상당한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선 중기에 이제신(李濟臣)이 지은 『후청쇄어(鯸鯖瑣語)』와 조선 후기 설화집인 작자미상의 『교수잡사(攪睡襍史)』의 문헌설화에도 이 설화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사 또한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전소설 〈정수경전〉은 이 설화를 소설화한 작품으로 세 가지 예언을 중요한 모티프로 하고 있어 설화와 고전소설의 영향 관계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의의 이 설화는 신이담(神異譚) 중에서 예언담(豫言譚)에 속하는 것으로 중국과 한국 간의 설화 수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을 점괘를 통해 예방하여,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민중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81; 351; 2-1, 265; 4-1, 52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8, 92.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의 이해(강등학 외, 월인, 2002),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한국 운명설화에 나타난 운명관 연구(정재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필자 이홍우(李洪雨)

민담

천년두골쌍용수

千年頭骨雙龍水

프레이 어머니 병 고친 효자

민담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정의 이계(異界)에서 구한 천도복숭아로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아내도 얻은 효자에 관한 민담.

줄거리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머슴으로 불우하게 살던 효자가 있었다. 임금이 병에 걸려서 천도복숭아를 구해 오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과 벼슬을 약속하자, 효자는 말리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천도복숭아를 구하러 나섰다. 효자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인가도 드문 땅 끝에 있는 신이한 산에 당도하였다. 무작정 산으로 올라가다가 우연히 만난 세 처녀가 길을 알려 주어 겨우 천도복숭아가 있는 곳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임금에게 바치기 위해, 또 하나는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그리고 만백성이 먹을 것까지 천도복숭아 세 개를 챙기니 나무가 사라졌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올라가다가 만난 처녀들이 따라가겠다며 나서서, 결국 할 수 없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셋 모두를 부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임금에게 천도복숭아를 바치니 병이 금세 나았고, 어머니에게 드리니 "천도복숭아 어디 좀 보자."라며 눈을 번쩍 떴다. 남은 한 개로 백성이 모두 나눠먹었고 임금에게 상금을 받아 잘살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효자의 아름다운 부인을 탐낸 임금이 부인을 걸고 내기를 하자고 했다. 첫 번째로 바둑 내기를 하는데, 부인이 알려준 대로 벼룩이 앉는 곳에만 돌을 두었더니 이겼다. 두 번째 내기는 수십 마리 말을 먹일 수 있는 쇠로 된 말구유를 만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 역시 아내의 도움으로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낸다. 세 번째 내기는 말하는 물과 웃는 꽃을 구해 오라는 것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부인이 옥으로 만든 병에 담긴 말하는 물과 방실방실 웃는 꽃을 건넸다. 병 속에 담긴 물을 다른 곳에 따라 부으면 물이 "그만, 그만."이라고 말했다. 임금이 이것을 보고는 신기해서, 병에 담긴 말하는 물이 그만 부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붓다가 결국 대궐에 물이 넘쳐 연못이 되고 말았다. 효자는 선녀인 아내의 도움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잘 살았다.

분석 이 설화는 불행하게 살던 머슴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계 여행에 나선다는 점에서 〈구복여행〉과 같은 모티프를 공유한다. 또한 천도복숭아를 구하러 여행을 떠난다는 점에서는 〈바리공주〉에 나타나는 구약(救藥) 모티프를, 천도복숭아로 눈먼 어머니가 눈을 뜬다는 점에서는 〈심청전〉의 개안(開眼) 모티프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설화는 크게 복숭아를 구하러 가는 전반부와 왕과 내기를 벌이는 후반부로 나뉘는데, 설화의 후반부에는 〈우렁각시〉의 우부현녀 모티프와 관탈민녀 모티프가 결합된다.

의의 한국 민담의 다양하고도 중요 화소가 결합된 민담으로, 구비설화의 유동성과 적층성을 잘 드러내 그 의의가 크다. 단일 민담으로도 높은 문학성과 서사성을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6, 119; 8-1, 266.

참고문헌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 연구(신동흔,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학회, 1994).

필자 은현정(殷賢貞)

용어

천부지모

天父地母

정의 시조의 신성한 혈통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신화의 구조와 체계를 설명하려는 서사 모형.

내용 건국시조는 공통적으로 천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시조가 직접 하강한 존재인지 아니면 지상에서 탄생한 존재인지에 따라 분명하게 구별된다. 전자의 신화로는 〈환웅신화〉, 〈해모수신화〉가 있다. 후자는 다시 ①천상적 존재[父]와 지상적 존재[母]의 신성한 혼인으로 탄생한 2세가 왕이 되는 경우와, ②하늘에서 하강한 운반체(運搬體)를 통해 스스로 탄생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이지영은 바로 ①의 경우를 천부지모형(天父地母型) 신화로, ②의 경우를 천남지녀형(天男地女型) 신화라 부른 바 있다. 천부지모형은 시조가 "부모의 신성한 혼인을 통하여 탄생한 뒤 나라를 처음 세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천남지녀형은 이러한 부모의 신성한 혼인이 나타나지 않은 채, "시조가 하강한 개체에서 탄생하거나 혹은 스스로 탄생한 뒤 자신이 지상적 존재의 신성한 여성과 혼인하면서 나라를 처음 세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천부지모형에는 '부모의 결합'이 중시되는 반면에 천남지녀형에는 '남녀 부부의 결합'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천부지모형은 〈단군신화〉, 〈해부루신화〉, 〈주몽신화〉, 〈유리신화〉 등에 나타나고 있어서, 주로 북방지역에 널리 전승하는 신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천지왕본풀이〉, 〈제석본풀이〉 등과 같은 무속신화도 천부지모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서사모형은 한국 신화의 전승체계를 해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필자 이지영(李志映)

민담

천생연분

프레이 청실홍실

전설

천안삼거리

天安三距離

정의 충청남도 천안시 삼룡동 325-8번지에 있는 조선시대 삼남대로의 분기점인 천안삼거리에서 〈흥타령〉과 함께 전해 내려오는 지명전설.

역사 천안삼거리는 한양과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로 통하는 길로, "천안삼거리 흥~ 능수나 버들은 흥~"이라고 하는 〈흥



천안삼거리 능수버들
충남 천안시 삼룡동, 1985.10.23, 배도식

타령〉과 더불어 삼거리에 능수버들을 심은 애절한 사연을 담은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삼기원(三岐院)'이 고을 6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중엽에 형성된 설화로 보인다.

줄거리 조선시대 중기 군정 유봉서(柳鳳瑞)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부인도 일찍 죽어 딸을 홀로 기르며 살았다. 유봉서는 군정으로서 나라에 변고가 있어 천안삼거리에 있는 삼례 주막에 딸을 맡기고, 변경을 지키는 수자리로 떠나야 했다. 유봉서는 딸이 잘 자라기를 기원하며 버드나무를 심고 떠났다. 그러나 딸이 다 자라도록 유봉서가 돌아오지 않아 사람들은 딸을 '능소'라고 불렀다. 어느 해 식년시 과거를 보기 위해 삼남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 가운데 호남에서 명망 높은 유학자 이사문에게 사사받은 박현수(朴賢秀)가 도적 떼에게 노잣돈을 모두 털리고 심하게 다쳐서 찾아왔다. 능소는 박현수를 극진히 간병하며 서로의 사연을 나눴고 급세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능소는 박현수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명지전(明紙錢) 살 돈과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박현수는 과거에서 장원을 하여 홍문관 수찬 교지를 받는 한편, 형판의 사위가 되어 달라는 청혼도 받았다. 그러나 박현수는 생명의 은인이요, 과거 뒷바라지를 해 준 사람을 저버릴 수 없다며 청혼을 거절했다. 박현수가 바쁜 일정을 마치고 천안삼거리에 내려와 보니, 능소는 나쁜 소문으로 심하게 병을 앓고 있었다. 박현수는 속히 본가에 전갈을 보내 능소와 혼례를 올렸다. 이 혼례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당에 모인 하객들이 "천안삼거리 홍/ 능수나 버들은 홍/ 제멋에 겨워서/ 휘늘어졌구나 홍/ 에헤야 에헤야 홍/ 성화가 났구나/ 계변 양류가 홍/ 사사록(絲絲綠)인데요/ 그 버들가지가/ 유색신(有色新)이로다 홍/ 에헤야 에헤야 홍/ 성화가 났구나 홍"이라고 〈홍타령〉을 흥겹게 불렀다. 신랑 신부도 춤을 덩실덩실 추며 〈홍타령〉을 불렀다.

변이 이 전설은 천안삼거리에 전해오는 전설로 능소가 기생이었다는 이야기로 전하기도 한다.

분석 이 전설은 조선시대 유교 이념 아래 형성된 전설로 열녀 설화와 성격을 같이한다. 길손인 박현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것을 바쳐 돌봐 주고 뒷바라지를 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면서 정절을 지킨 능소를 박현수가 장원급제하고 돌아와 지킴으로써 사랑을 이루어 혼례를 치르는 이야기로, 〈춘향전〉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유교 이념이 천안삼거리 〈홍타령〉과 함께 전해지며, 주막의 정서를 풋풋하게 담고 있는 설화이다.

의의 이 전설은 충남 천안시 홍타령 축제와 애틋한 사랑이야기가 합하여 옛 정취를 더욱 느끼게 한다.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길손을 돕는 따뜻한 인간애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올곧은 선비 정신을 잘 보여주는 설화로, 우리 민요인 천안삼거리 〈홍타령〉과 함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다.

출처 新增東國輿地勝覽, 천안시지(천안시지편찬위원회, 1987), 천안의 민담과 설화(민병달·이원표, 천안문화원, 1998).

참고문헌 구비문학대관(천안문화원, 1996).

필자 이인화(李仁和)

자료

천예록

天倪錄

정의 조선 중기 임방(任堕, 1640~1724)이 편찬한 야담집(野談集).

내용 수촌(水村) 임방이 1717년에서 1724년 사이에 편찬한 야담집으로, 필사본만 존재한다. 현전하는 여러 종의 필사본을 종합해 보면, 원(原) 『천예록(天倪錄)』에는 적어도 총 67편 이상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 상궁이 궁체로 쓴 한글본도 존재하고 있어, 이 책이 궁중에서도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3년에 선교사 게일(J. S. Gale)이 『Korean Folk Tales』에서 이 책을 영역하여 소개하기도 했다. 『천예록』은 형식적인 면에서 두 이야기를 한데 묶어 소개한 후 그에 대한 논평을 붙인 다음에 7언의 제목을 붙이는 방식을 취했고, 내용 면에서도 〈옥소선 이야기[掃雪因窺玉簫仙]〉나 〈일타홍 이야기[簪桂重逢一朶紅]〉 등처럼 후대에 기록된 동일 유형보다 작품성이 뛰어난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그런데 근래에 『천예록』에는 순정한 야담 외에 '우스운 이야기'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천예록』은 17세기 말~18세기 초 잡록이 야담이라는 장르로 구체화되며 변전하는 양상을 잘 보여 준 사례다. 야담의 형성 및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다.

필자 김준형(金埈亨)

전설

천자가 된 구렁이

표제어 주원장

민담

천자명당

天子明堂

정의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상주가 무덤을 쓰고 천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어느 부잣집 머슴이 상을 당한다. 마침 부잣집에 들른 이름난 지관이 명당 터를 확인하기 위해 머슴에게 달걀을 구해 달라고 한다. 머슴이 일부러 달걀을 삶아서 갖다 준다. 지관은 한밤중에 산으로 올라가 명당 터에 달걀을 묻어 두고 기다린다. 머슴이 따라가 보니 지관은 한곳에 달걀을 묻어 두고 산 닭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삶은 달걀인 줄 모르는 지관은 새벽녘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분명 천자가 나올 자리인데 이상하다고 혼잣말을 한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지관이 포기하려 할 즈음, 달걀을 묻어 둔 터에서 닭이 튀어 나와 홰를 친다. 지관은 부잣집 주인에게 비록 닭이 늦게 울었지만 황금으로 관을 꾸미고 황소 백 마리를 잡아 제사를 지내면 천자가 나올 명당이라고 일러 준다. 부잣집 주인은 황금 관과 황소 백 마리를 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명당을 포기한다. 머슴은 주인에게 명당을 달라고 하여 억새(또는 황금색이 나는 볏짚)로 시신을 싸고, 발목이 흰 황소 한 마리에 시신을 싣고 가서 장례를 치른다(황소만한 이를 백 마리 잡아 제물로 삼기도 한다). 장례를 다 치른 머슴은 스스로 하늘을 날 것이라고 소문을 내 임금에게 붙잡혀 간다. 며칠 말미를 얻는 동안 대국 천자가 머슴의 소문을 듣고 잡아들이라 한다. 우연히 하늘을 나는 부채를 얻은 머슴은 대국 천자 앞에서 시범을 보인다. 대국 천자는 한번 날아 보자며 그동안 머슴에게 천자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으라 한다. 머슴은 천자에게 부채를 사용하여 나는 방법만 가르쳐 주고 멈추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결국 돌아오지 않는 천자 대신 머슴이 대국을 다스리는 천자가 된다.

변이 천자가 날 명당에 관한 설화는 위 유형 외에도 조선왕조를 일으킨 이성계와 연관된 유형이 존재한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며 살아가던 아이가 있었는데,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름난 지관이 자기 아버지의 묏자리를 구하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다가 어느 바닷가에 당도하여 물 한가운데 있는 바위 명당을 발견한다.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서 망설이고 있자 근처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그 까닭을 물었다. 지관은 아이에게 물속 바위(혹은 부처)에 대해 확인하고, 그 자리가 천하명당이니 자기 부친의 유골을 바위 왼쪽 구멍에 묻어 달라고(혹은 부처의 왼쪽 귀에 걸어 달라고) 부탁한다. 아이는 자기 아버지 유골을 함께 가져가서 바위 왼쪽 구멍에 묻고 지관 부친의 유골은 오른쪽에 묻는다. 왼쪽 자리는 천자가 날 자리고 오른쪽 자리는 왕이 날 자리여서, 지관의 후손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 되고 혜엄치던 아이는 중국으로 가서 천자가 된다. 이 변이형에서 보이는 묏자리는 일반적인 명당과는 달리 물속에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천자가 될 주인공의 능력과 운수로 명당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천자명당형 설화와 공통적이다. 또한 천자의 인물됨과 운수가 이성계라는 인물과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어 향유자들의 천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분석 명당 발복의 효험이 천자 등극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이 설화는 운명을 개척하려는 주인공의 의지가 강조된다. 가난한 머슴이나 어촌의 물질하는 아이에게 빈천한 신세를 면하고 타고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천자명당〉의 주인공은 바라기 어려운 명당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름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 머슴은 부잣집 주인도 포기한 자리를 기지로 해석하여 발복의 효험을 얻어 낸다. '백 마리의 소[百牛]'를 '발목이 흰 소[白牛]'로 해석해 낸 것은 절실한 바람과 타고난 기지가 결합된 결과이다. 그렇

지만 타고난 운명이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지가 허락되지 않아 황금관은커녕 나무관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타고난 운명은 발복의 조건을 저절로 만족시킨다. 누런 볏짚이나 보릿짚, 억새로 싼 시신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황금으로 만든 관'으로 보인 것이다. 한편, 명당의 비밀을 발설하고 아이에게 선심을 베푼 결과가 이성계를 패배로 몰고 갔다는 변이형 설화는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설화의 주요 행위 요소는 '명당 발견–명당 탈취–발복'인데, 이야기의 주된 관심은 명당 탈취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미천한 아이나 풍수의 아들 이성계가 왕이나 천자가 되는 것은 신분상 최상의 발복이다.

특징 〈천자명당〉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자연의 기운에 의존해 복을 얻고자 하는 기복적 특징을 띤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관을 통해 명당을 얻으려면 지위나 재물이 있어야 한다. 풍수설화는 가난한 머슴이나 천애 고아라도 누구나 명당을 통해 발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명당을 얻기 위해서는 타고난 천운이 있어야 되지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적극적 의지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발랄한 사고가 필요함을 말해주기도 한다. 또한 이성계 관련 설화에서는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와는 다른 피지배층의 역사의식도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728; 6-4, 178; 7-7, 787; 8-6, 543; 8-10, 394.

참고문헌 음택풍수 명당발복설화를 통해 살펴 본 우리 풍수문화(김만태, 실천민속학연구15, 실천민속학회, 2010), 장백전의 설화화 과정과 그 양상(강문종, 장서각2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0),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 풍수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 분석(신월균,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필자 강성숙(姜盛淑)

전설

천자바위

상호텍스트 이성계

정의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해당하는 웅천 지역 천자바위 유래전설.

역사 신라 말 고려 초는 동북아 질서의 격변기였다. 한반도에서는 고려왕조가, 중원에서는 원나라가 국가의 명운을 다하고 쇠망해 가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한 틈을 타 한반도와 중원 양쪽 모두 지방 군웅들이 득세하였는데, 두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척한 인물이 이성계와 주원장이었다. 〈천자바위전설〉은 이성계와 주원장이 각각 조선과 명나라를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

줄거리 한 풍수장이가 아비의 묏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천자봉 앞바다에서 명당을 찾았다. 반인반수의 수달이 바닷가 굴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 찾아가 보니, 웅천 토호의 딸이 수달에게 잡혀 와 낳은 아이였다. 두 개의 굴 중 하나는 천자가, 다른 하나는 제후가 날 명당임을 알아본 풍수장이가 수달의 아들에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자기 조상의 무덤을 쓰게 하였는데, 수달의 아들이 물살 때문에 거꾸로 걸었다. 이 바람에 수달의 아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명나라 천자 주원장이 되었고 풍수장이의 후손 중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나왔다.

변이 이본에 따라 풍수장이가 아니라 이성계의 조상 혹은 이성계로 설정된 예가 있으며, 무덤을 쓰러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주체도 수달의 아들인 주원장이 아니라 이성계 조상 집안의 하인으로 설정된 예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이성계 조상과 누르하치 조상의 내기로 되어 있으며, 이성계와 누르하치의 건국 능력에 관한 대결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계와 주원장의 조선과 명나라 창업을 위한 일종의 풍수 발복담에 해당한다.

특징 풍수 명당에는 조선을 창업할 왕이 나는 자리와 명나라를 건국할 천자가 나는 자리가 존재하며, 이 두 가지 형태의 명당을 두고 이성계의 조상과 주원장이 대결을 벌이는 형태를 보여 준다. 천자가 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수영 실력이다. 이성계의 조상은 비록 천자가 나는 자리의 위치는 알아냈지만, 웅천 바닷속에 있는 명당에 접근할 수영 실력이 없으므로 결정적인 자격 미달이다. 그럼에도 이성계의 조상은 주원장의 수영 실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서 결핍된 자질을 만회하고 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지만, 주원장의 천자 등극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의의 조상의 무덤을 명당에 써서 그 집안이 잘되었다는 전형적인 풍수 명당 모티프가 각각 조선과 명나라의 건국조인 이성계와 주원장의 이야기와 결합하면서 국가의 창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성계와 주원장의 조상이 조선과 명나라 건국 전 같은 지역권에 머물렀으며,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능력 내기를 통해 명나라를 창업하는 천자자리의 주원장에로의 귀속을 정당화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2, 134; 8-10, 394.

참고문헌 구비설화와 문헌설화의 비교연구(임헌도·강귀수, 공주대학교 논문집 9, 공주대학교, 1971), 문학과 문화–분단 이전 북한 이성계, 여진족 대결담의 유형과 이성계신화로서의 인식체계(권도경, 동방학2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이성계전설의 인물인식과 그 특징(이태문,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1997).

필자 권도경(權都京)

신화

천지왕본풀이

정의 제주도 지역의 무속의례인 초감제에서 전승되는 창세신화.

줄거리 박봉춘이 구연한 〈초감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가 혼합되었다가 하늘에서 조이슬, 땅에서 둘이슬이 솟아나 음양이 상통하게 되어 개벽하고 사람이 생겨났다(배포도업침). 이때는 밤낮이 암흑이어서 인간이 동서남북을 몰랐는데, 이마 앞뒤에 눈이 둘씩 나 있는 남방국 일월궁의 아들 청의동자가 솟아났다. 하늘 옥황의 두 수문장이 내려와 앞이마의 눈 둘을 취해 해가 둘 생겨나게 하고 뒷이마의 눈을 둘 취해 달이 둘 생겨나도록 했다. 그리하여 하늘에는 해 둘, 달 둘이 생겨났는데 사람이 살 수 없었다. 천지왕이 일월을 조정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하강했다. 천지왕이 인간 세상의 바지왕과 결연하여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쌍둥이를 낳고는 인간 세상을 떠났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자라면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 놀림을 당하자 아버지인 천지왕을 찾아 혈통을 확인했다. 인간 세상에 해와 달이 두 개씩이어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자 천지왕이 천 근의 무쇠 살과 활 둘을 주며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없애라고 명했다. 이에 대별왕이 해를, 소별왕이 달을 하나씩 없앴는데, 조정된 해는 동산새별이 되고, 달은 어시렁별이 되었다. 이로부터 하늘에 동산새별, 어시렁별, 북두칠성, 견우직녀성, 사백성, 타광성 등 여러 성신이 생겨났다(성인 출생과 천지 배포, 제주도 배포도업이 이어짐).

그리고 박봉춘 구연의 〈천지왕본풀이〉가 있다. 수명장자가 무도막심하여 천왕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천지왕이 노하여 일만 군사를 거느리고 흉험을 주나 실패했다(천주왕이 머리에 상엄을 씌웠으나 종놈이 도끼로 깨뜨림). 돌아오는 길에 백주할망 집에 유숙하여 박이왕과 결연하고는 박이왕이 인간 세상을 차지하라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대·소별왕이라 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칵씨를 두 방울을 본미로 주었다. 대·소별왕 형제가 칵씨를 심어 타고 올라가 천지왕을 만나 친자 확인을 받았다. 쌍둥이 형제는 천지왕의 명령으로 인세 차지 경쟁을 벌였다. 은대야에 꽃 피우기 시합을 벌였으나 소별왕이 속임수를 쓰자 대별왕이 이를 질책하고 소별왕이 사죄했다. 이어 소별왕이 에숙(수수께끼) 시합을 제안하였고, 소별왕이 승리하여 이승을 차지했다. 인간 세상을 차지한 소별왕이 수명장자의 육신이 모기·파리·빈대가 되게 함으로써 수명장자를 징치했다. 소별왕이 인간의 버릇을 가르치고 복록을 마련하고 선악을 구별하여 인간 세상을 차지했다.

분석 제주 지역에서는 대체로 〈천지왕본풀이〉라고 불리거나 〈초감제〉라 하여 그 내용이 전승된다. 모두 태초의 일들을 노래하고 천지의 배포와 도업에 관한 초감제에서 전승되기 때문에 창세신화 본연의 성격을 굿에서 온전히 지속시키면서 전승된다고 할 수 있다. 〈초감제〉는 굿의 이름이고 〈천지왕본풀이〉는 그 속에서 전승되는 창세서사시의 이름인 셈이다. 별도로 창세서사시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초감제〉라는 굿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초감제는 비념에서부터 큰굿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의 대소에 불구하고 모든 무의(巫儀)에 공통으로 행해지는 기본적인 굿 절차이다. 하늘과 땅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시루떡의 층계같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고 하고, 하늘과 땅의 이슬이 생겨 합수하고 이어 구름이 생기고 '청황·질황·인왕[天皇·地皇·人王]' 닭이 나와 머리를 들고 꼬리를 치고 날갯짓을 하면서 천지가 열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노래하며 성신과 일월의 생성 내력을 계속한다. 이어 〈천지왕본풀이〉가 계속된다. 제주 지역의 창세신화는 여기까지라 할 수 있다. 〈초감제〉와 〈천지왕본풀이〉가 별개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창세신화로 전승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둘이 나뉘어 인간 세상의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천지왕본풀이〉가 따로 전승되기도 한다. 이 경우 〈천지왕본풀이〉는 천지개벽 이후에 하늘 옥황의 천지왕이 인간 세상의 악인인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인간 세상의 여인과 결연한 후, 저승과 이승을 나누어 차지하는 대별왕·소별왕 형제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중점이다.

관서, 관북 지방 창세신화(창세가)에서 미륵과 석가의 인세 차지 경쟁은 부모의 혈통이 설정되지 않지만, 이 신화에서는 부모의 혈통이 확정되었다. 〈초감제〉에서는 천지왕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은 일월조정을 위해서이지만,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수명장자 징치가 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쪽이나 일월조정은 인세 차지 경쟁의 두 주체가 감당하는 것이어서 창세의 주역신과 인세 차지 경쟁의 주체

가 분리되어 있는 양상이다. 창세의 주역신은 일월조정을 비롯한 창세의 역할만 감당하면 될 것이지만 수명장자 징치라는 특별한 목적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창세신의 역할이 후손의 생산과 역할의 전이라는 맥락으로 신화의 서사가 변천한 것이다.

특징 제주도의 고유한 신화소인 종지용출형(從地聳出型)과는 다른 천부지모형(天父地母型)의 신화형태를 지닌 창세신화이다. 제주도 고유의 신화이기보다는 육지에서 유입된 신화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적인 서사 구성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각편마다 차이가 분명하다.

천지왕과 바지왕(총명부인)의 결연으로 대별왕과 소별왕이 출생하고(강일생본에서는 母의 존재가 사라지고 그저 천지왕의 아들 삼 형제가 솟아난다고 되어 있다), 이들이 인세 차지 경쟁을 벌이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북부 지역 〈창세가〉와 오산의 〈시루말〉을 포괄하고 있는 자료이다.

두 거인신이 쌍둥이 형제의 인간으로 바뀐 것은 〈시루말〉에서 이미 나타났고 이 지역 창세신화에서 이어받았다. 창세신화에 부모의 혈통이 개입한 변이가 확인되는 것이다. 〈시루말〉에서는 쌍둥이 형제의 다툼이 없으나 〈천지왕본풀이〉에는 〈창세가〉를 이어 인세 차지 경쟁으로 다시 나타나는데 이 점도 중요하다. 특히 김두원본과 이무생본, 박봉춘본은 제주의 창세서사시를 고찰하는 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긴요한 자료이다.

제주도지역본의 가장 큰 특징은 천지왕의 수명장자 징치가 존재하고, 그 성공 여부가 상반된다는 점과 미륵과 석가라는 두 거인신이 아닌 사람 형제가 인세 차지 경쟁을 벌인다는 점이다. 창세신화의 처음을 천지왕의 수명장자 징치로 시작하는 의미와 징치의 성공 여부나 징치 결과의 유보는 이 신화가 갖는 제주 지역 내에서의 편차여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천지왕이 하강하였을 때는 일월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각각 둘씩이어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었을 때인데, 이즈음에 이미 많은 곡식과 재화를 가진 수명장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수명장자가 범상한 인간이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며, 나아가 적어도 기존의 신격에 버금가는 존재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천지왕의 수명장자 징치는 천지왕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지 못하고, 능력의 우위에도 실패로 종결된다. 천지왕의 수명장자 징치 실패가 다음 대에 이르러 종결되는 양상은 인간 세상의 신이 독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행해야 할 과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출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조선무속의 연구-상·하(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참고문헌 구비문학, 분석과 해석의 실제(박종성, 월인, 2002), 창세시조신화의 변이와 의미(서대석, 구비문학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의 창세신화(김헌선, 길벗, 1994), 제주도 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박종성, 태학사, 1999).

필자 박종성(朴鍾聲)

전설

철쭉꽃

정의 경상남도 하동 금오산에 처녀 달님과 총각 별님이 살았는데, 이들이 죽어 철쭉꽃이 되었다는 전설.

줄거리 옛날 하동 금오산에 처녀 달님과 총각 별님이 살았는데, 서로 사랑하며 앞날을 기약했다. 인근에 살고 있던 지신(地神)이 예쁜 달님을 탐내 별님을 해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지신은 못된 잡신에게 별님을 죽여주면 하동의 넓은 들 너뱅이들을 주겠다고 했다. 잡신은 칼과 도끼를 들고 별님에게 가서 공격했다. 이를 본 산새들이 남해에 있는 산신령 호랑이 부부에게 알렸다. 영감 호랑이는 할멈 호랑이에게 하던 일을 끝내고 갈 테니 먼저 가서 별님을 구하라고 했다. 할멈 호랑이가 금오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남해가 육지에서 떨어져 나갔다. 지신이 할멈 호랑이가 못오게 도술을 부린 것이다. 별님이 잡신의 칼을 맞고 죽자, 달님이 달려와 자기도 칼을 잡고 자결하고 말았다. 별님과 달님이 죽으며 흘린 피가 철쭉꽃으로 변했다고 한다.

변이 하동군이나 하동문화원에서 발간한 자료는 줄거리가 같으나, 『전설따라 삼천리』에 수록된 자료는 조금 다르다. 앞의 자료에는 주인공들이 처녀 총각으로 되어 있으나, 뒤의 자료에는 부부로 되어 있다. 가해자들을 보면 전자에서는 지신이 잡신을 꼬드겨 공격하도록 하나, 후자에서는 지신이 잡신의 도움을 받아 구렁이로 변신하여 산신인 호랑이를 공격하여 죽인다. 별님을 죽일 때에도 전자에서는 잡신이 도끼와 칼을 사용하나, 후자에서는 잡신의 주문으로 별님의 겨드랑이에 난 금비늘을 없애서 죽이는 걸로 되어 있다.

분석 이 전설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하동군과 하동문화원에서 발간한 자료집에 각 1편씩 실려 있고, 그 밖에 2편 더 채록된 정도이다. 금오산에 달님과 별님이 살다가 악한 무리의 공격을 받아 죽는데, 그때 흘린 피가 철쭉꽃으로 변했다는 금오산 철쭉꽃의 연기설화이다.

특징 이 설화에는 주인공인 선남선녀, 공격자인 지신과 잡신, 원조자인 산신 부부가 등장하여 경합을 벌이지만 선신인 산신보다 악신인 지신과 잡신이 승리한다. 그리하여 선남선녀는 죽어 철쭉꽃으로 재생한다.

출처 내고장 전통가꾸기(하동군, 1983), 마을의 유래 및 사적 전설(정찬갑, 하동문화원, 1986), 전설따라 삼천리(명문당편집부, 명문당, 1982) 한국설화·전설대전집(박영준, 태양사, 1975).

참고문헌 금강산으로 가는 울산바위(서문성, 창, 1998),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설화의 연구(김화경,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필자 배도식(裵桃植)

민담

첫날밤에 똥 싼 신부

정의 첫날밤에 신랑이 기지를 발휘하여 기가 센 신부를 꼼짝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말괄량이 길들이기〉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이야기 유형이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유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줄거리 옛날에 기가 센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장가를 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한 총각이 자청하여 장가를 들었는데, 첫날밤에 똥을 싸서 자고 있는 신부의 속곳 속에 몰래 넣어 두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신랑이 신부에게 "첫날밤부터 똥을 싸는 신부가 어디에 있느냐."라면서 신부의 기를 죽였다. 이후 신부가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첫날밤에 똥 싼 년이 뭐 그러느냐."라면서 기를 죽이며 아들 딸 낳고 살았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자신의 환갑잔치에서 첫날밤 똥 싼 사람은 부인이 아니었고, 자신이 일부러 그런 행위를 해서 기가 센 마누라를 잡고 살았다고 실토했다. 이에 화가 난 부인은 남편의 수염을 몽땅 뽑아버렸다.

변이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드센 아내를 길들이는 방식은 대체로 똥이 매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똥을 싸는 대신 호박을 사용하기도 하며, 물을 엎질러 놓고 오줌을 쌌다고 누명을 씌워 아내의 기를 죽이기도 한다. 또한 신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신랑이 기지를 발휘해서 나이 많고 드센 신부를 길들여 사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기지나 지혜를 발휘해 상대방을 길들인다는 측면에서 '지혜담(智慧談)' 또는 '지략담(智略談)'으로 분류되어 왔다. 또한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소화담(笑話談)'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구조가 단순하고 특별한 변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설화만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징 '길들이기' 형의 민담에서 상대방을 길들이는 방식은 대개 처음에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고 그것이 평생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게 하여 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성격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방식도 일상적인 지혜가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남들과는 달리 번뜩이는 지혜를 지녔다는 점,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적 상황이라는 데서 특이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설화 전승집단은 정신적으로는 지적 만족을 느끼면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결과의 반전을 통해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혜담의 의미이자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의의 길들이기 형태의 지혜담에서는 사건의 진위보다는 해결 방식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전승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또한 주인공이 지혜와 지략을 발휘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팍팍한 현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민중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지혜담을 포함하는 소화담은 동화에도 많이 등장하여 현대문학의 소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802; 4-1, 548; 5-6, 265.

참고문헌 지혜담연구(오영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한국 구비 지혜담연구(김옥숙,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한미옥(韓美玉)

민담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정의 혼인 첫날밤에 해산한 신부를 신랑이 보살펴서 해로하고 훗날 가문이 번성했다는 설화.

줄거리 혼인 첫날밤에 신부가 해산을 하자 신랑은 이불(또는 옷)을 찢어 신부가 낳은 아이를 감싼 뒤 몰래 데리고 나가 길옆에 숨겨두었다. 그러고는 돌아와 장모에게 미역국을 먹고 싶다고 부탁한 뒤 아내를 설득하여 이를 먹게 하였다. 다음

날 신랑은 일찍 외출해서 아이를 발견한 척하며 아내에게 키우게 하였다. 그의 집안은 이후 관운이 피고 번창하게 되었다. 세월이 한참이나 흐른 뒤에야 남편은 아내에게 해산했던 사연에 대해 물었다. 한편, 대다수 이본에서는 첫날밤에 태어난 아들이 자라 서당에 다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된다. 그 후 가출하였다가 양부가 사망하자 찾아와서 명당에 묘를 쓰겠다며 관을 들고 사라진다. 세월이 흘러 양부의 후손이 우연히 묘를 발견하는데, 묘비에는 몇 대 손이 찾아오리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이 묘터로 인해 양부의 자손은 대대손손 성공하게 된다.

변이 위의 줄거리 중 전반부는 『계압만록(鷄鴨漫錄)』에 실린 것이다. 여러 각편들은 신방에서 발생한 사건은 『계압만록』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이야기 후반부가 각각 변이되었다. 『나손소장본(羅孫所藏本)』과 『양은천미(揚隱闡微)』의 경우 남편이 경전의 가르침대로 선(善)을 행했음에도 복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함께 공부하던 선비들에게 토로하고, 이 사연을 몰래 엿듣게 된 임금이 과거문제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짓게 하여 남편 일행을 급제시킨다. 구비전승되는 대다수 각편들은 이때 태어난 아들이 자라 양부의 집안에 보은하는 풍수발복담으로 확장되었고, 〈한양조씨시조담〉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분석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를 수발한 남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고 감싸준 관용이었다. 그가 다른 이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내면에 자유롭게 사랑을 실천할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랑과 그 집안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결말은 그와 같은 덕(德)이 단지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감동적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 설화향유층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고, 굳이 덕의 실현을 부부되기로 형상화한 것은 나와 대상의 거리를 두지 않는 데에 실천의 진정성이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징 위기에 처한 여성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남성이 보상을 받았다는 설화들은 정태화가 거지 소녀를 첩으로 삼아 짧은 명을 늘였다는 경우(『금계필담』), 상사병으로 죽은 여인을 첩이라 인정하여 선산에 안장한 이희갑이 부친으로부터 집안이 번창할 것이라며 칭찬받은 경우(『나손소장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호남 지역의 〈강실도령〉이라는 서사민요에서는 설화와 달리 첫날밤 해산한 신부가 미역국만 찾거나 신랑에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등 상황이 희화화되어 있다.

출처 鷄鴨漫錄, 羅孫所藏本, 揚隱闡微, 조선민담집(손진태, 동경:향토연구사, 1930), 조선설화집(손진태, 최인학 역, 민속원, 200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589; 1-7, 112; 5-2, 741; 5-4, 970; 5-7, 534; 7-8, 93.

참고문헌 구전설화에 나타난 파격(최진형, 구비문학연구29, 한국구비문학회, 2010), 여성 민요 장자군의 문학세계(강진옥, 한국 고전여성작가 연구, 이혜순 외, 태학사, 1999),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홍나래, 구비문학연구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필자 홍나래(洪나래)

민담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정의 청개구리가 비 올 때 우는 이유를 설명하는 설화.

역사 중국 당나라 이석(李石)의 『속박물지(續博物志)』 권9, 은성식(殷成式)의 『유양잡조속집(酉陽雜俎續集)』 권4, 10세기 말 송나라 『태평광기(太平廣記)』 권39에 실려 있다. 주로 중국·일본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 설화는 불효자가 등장하는 인간담(人間譚)이고, 일본 설화는 비둘기·부엉이와 같은 조류가 등장하여, 새가 울게 된 유래를 다루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한편, 이 설화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구전되고 있다.

줄거리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다.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엄마는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강가에 묻어 달라고 유언한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듣고자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 만든다. 이후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 슬프게 운다는 이야기이다.

변이 이괄은 청개구리처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반대로만 하였다. 세월이 흘러 죽음에 가까워진 아버지는 이괄이 또 반대로 할 줄 알고 자신이 죽으면 똑바로 묻으라고 하였다. 이괄의 아버지는 반은 용이고 반은 사람이라 거꾸로 묻으면 용이 되어 승천할 참이었다. 그런데 이괄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후회하고 마지막 유언에 따라 아버지를 바로 묻었다. 이렇게 해서 이괄의 아버지는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했고 후에 이괄의 난도 실패했다고 한다.

분석 개구리는 허파로는 완전하게 숨을 쉴 수 없어서 살갗으로도 숨을 쉰다. 그리고 살갗에 습기가 있으면 숨 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개구리는 비가 오려고 하면 습기 때문에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삽화
20세기 전반, 국립민속박물관

기운이 나고 기분도 상쾌해져 즐겁게 노래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 슬퍼서 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

의의 말 안 듣는 아이를 '청개구리 같다.'라고 하는 관습적 비유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설화는 우리 민족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런데 현대에는 무조건적인 수긍하기보다는 청개구리처럼 독특하게 사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청개구리형 사고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한 단면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80~1988) 1-7, 295; 9-3, 655,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3, 47; 4, 74; 9, 216.

참고문헌 구비설화에 나타난 자녀서사의 어머니(정운채, 문학치료연구6,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한국설화에 미친 중국설화의 영향(손병국, 인문사회과학논문집31,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한일민담의 비교연구(성기열, 일조각, 197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경희(金璟姬)

자료

청구야담

青邱野談

정의 조선 후기 편자 미상의 야담집(野談集).

분석 『청구야담(靑邱野談)』은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담집이다. 『계서야담(溪西野談)』 『동야휘집(東野彙輯)』과 함께 3대 야담집으로 불리는데, 그중에서도 『청구야담』은 야담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러 종의 이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버클리대본 10권 10책본이 가장 선본이다. 또한 규장각에는 19권 19책으로 이루어진 한글본 『청구야담』이 두 종 있어, 이 책이 궁중에서도 널리 읽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야담』에는 대략 290편 남짓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야담』에는 『학산한언(鶴山閑言)』, 『계서잡록(溪西雜錄)』, 『후재전서(厚齋全書)』 등과 같은 기존 야담집 및 문집에서 발췌하여 수록한 작품이 많다. 그러면서도 사건에 중심을 두고, 제보자를 비롯한 사실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논평을 삭제하는 등의 일정한 변화를 꾀한다. 사실성보다 이야기가 지닌 오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는 한 예라 하겠다.

필자 정명기(鄭明基)

전설

청다리

정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청다리를 배경으로 하여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아이'라는 말의 유래로 널리 전승되고 있는 설화.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과 이와 관련한 전설의 증거물인 제월교(霽月橋)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 이 다리의 다른 이름이 청다리이다.

줄거리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서 북쪽으로 약 1㎞쯤 떨어진 곳에 소수서원이 있다. 이 소수서원을 끼고 죽계천이 흐르고, 그 위에 부석사 방향으로 놓인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청다리'라고 한다. 소수서원에는 전국에서 많은 선비와 유생들이 와서 학문을 닦았다. 소수서원을 지나는 죽계천 주변은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맑아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다. 이때 지역의 처자들과 만나거나 기생들과 어울리는 선비들도 있었다. 간혹 서로 정이 들어 원치 않은 아기를 갖기도 하였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소수서원 옆 청다리 밑에 갖다 버리기도 하였다. 이 소문이 점차 퍼져 나가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 뒤로 어른들이 아이를 놀릴 때 "청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너의 어머니가 청다리 밑에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해 놓고 기다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이 이 설화는 "다리 밑에서 아이를 주워 왔다."라는 속언의 유래담으로 전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각편에 따라 청다리의 유래에 대한 내용이 변이되어 나타난다. 단종 복위

운동과 관련하여 고아가 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에서 "청다리 밑에서 아이를 주워 왔다."라는 말이 생겼다고도 한다. 또 교량전설로 〈효불효다리〉 유형의 변이가 있다.

분석 여러 변이에도 불구하고 〈청다리 설화〉는 다리라는 증거물을 토대로 유래담과 전설의 형태로 전승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설화에서 다리는 은밀한 공간이면서 공공의 약속된 장소를 의미한다. 다리는 공간과 공간을 이어 주는 장소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남녀의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이므로 이 설화가 희극성과 비극성을 동시에 전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특징 "아이를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라는 이야기의 전승이 반드시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청다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역사 사실과 어울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전승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지역이든지 다리는 설화의 증거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널리 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영남의 전설(유증선, 형설출판사, 1974), 영주영풍향토지(송지향, 여강출판사, 1987).

참고문헌 한국의 전설·신화·민담에 나타난 옛 교량의 특징연구(문지영, 대한토목학회지367, 대한토목학회, 2010), 효불효교 설화의 변이양상과 원형적 의미(이원영, 온지논총25, 온지학회, 2010).

필자 안태현(安泰賢)

민담

청실홍실

정의 어떤 노인이 청실홍실로 남녀 인연을 맺어 주는 것을 보고, 한 총각이 하늘이 정해 준 자신의 배필을 알게 되고 그 배필을 죽여 거역하려 했으나 결국은 그 배필과 결혼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태평광기』가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그 저서에 기록되어 있는 중국의 〈월하노인설화〉인 〈정혼점(定婚店)〉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옛날에 한 노총각이 길을 가다가 어떤 호호백발의 할머니가 실 두 개를 가져다 서로 꼭 매어 놓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보니 인연을 맺어 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자기 인연을 물어보니 고개 너머 있는 어떤 집의 어린 여자아이라고 했다. 기가 막힌 총각은 그 어린애를 죽이려고 이마에 돌멩이를 던지고 달아났다. 오랜 세월이 지나 노총각이 고을의 원님이 되어 장가를 가는데 신부가 이마와 양쪽 볼에 빨간 칠을 하고 있었다. 첫날밤에 그 이유를 묻자 어릴 때 돌에 맞은 상처 자국이 있어 빨갛게 칠했다는 것이다. 그 말에 신부가 바로 자기가 돌을 던졌던 어린애임을 알고 둘이 천생연분임을 깨달았다.

분석 이 설화는 하늘이 정해 준 천생배필은 거부할 수 없다는 운명론적 시각을 보여 주고 있기에 운명담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설화로 많이 연구되었다. 중국의 〈월하노인설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설화 역시 운명적 인식을 고차원에 자리매김하였으나, 운명보다 더욱 낮은 차원, 이를테면 도덕과 같은 것을 두루 끌어안으면서 운명의 필연성을 보여 주었기에 설화의 전개방식이 더욱 설득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특징 이 설화는 중국의 〈월하노인설화〉가 전파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천생배필을 거부하는 까닭이 중국에서는 신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주인공이 노총각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또 신이 배필을 맺어 주는 행위도 한국 설화가 중국보다 원형에 가까우며 신 대신 점쟁이나 대사가 등장함으로써 신적인 존재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의의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주인공이 신붓감을 죽이려는 극단적 행위를 취했으나 결국은 천생배필과의 만남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하늘이 정해 준 배필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운명 결정론적 의식을 보여 준다. 또한 부부가 화락하고 백년해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문이 번창하고 자손이 잘되는 등 인생에 필요한 것을 두루 갖추었다는 데서 천생인연이야말로 최고의 배필이라는 설화 향유층의 인식을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9, 81; 4-6, 505.

참고문헌 한국 운명설화 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한중 운명설화 연구(박명숙, 민속원, 2009).

필자 박명숙(朴明淑)

자료

청야담수

靑野談藪

정의 조선 후기 편자 미상의 야담집(野談集).

분석 『청야담수(靑野談藪)』는 한문에 현토를 한 야담집이다. 현재 서울대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6권 6책의 필사본 이외에 다른 이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편찬 시기는 20세기 초로 추정된다. 『청야담수』는 『동야휘집(東野彙輯)』, 『동패낙송(東稗洛誦)』, 『동패(東稗)』, 『파수록(破睡錄)』, 『학산한언(鶴山閑言)』, 『이순록(二旬錄)』, 『계서잡록(溪西雜錄)』, 『기문총화(記聞叢話)』 등 적어도 8종의 원천 자료를 가진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첨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등의 일정한 변화를 주기도 했다. 이 책의 편자의 의식은 논평을 통해 일부 읽을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보면 편자가 '유교적 이념을 기준으로 현실과 도덕이라는 기준에 맞도록 논평을 가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청야담수』가 한문 현토본이라는 점, 이런 양식이 토대가 되어 신문학기 초기에 구활자본 현토야담집이 다수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체제의 통일성이 결여되었다는 점과 시대적 요구를 소거한 채 과거의 문화유산을 수용하는 데만 그쳤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라 하겠다.

필자 정명기(鄭明基)

민담

청어장수

정의 산골에 생선이나 생선젓을 팔러 다니는 생선장수에게 어리숙한 산골 사람이 가족과 자신의 몸을 팔아 생선이나 젓갈을 사 먹는다는 우행담에 속하는 민담.

줄거리 산중에 생선을 팔러 다니는 장수가 와서 생선을 사라고 외치는데, 산골 사람이 생선은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 사 먹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생선장수가 돈 대신 집안의 여자와 함께 자게 해 주면 생선을 주겠다고 한다. 시골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하룻밤 자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생선을 얻어먹는다. 생선 맛을 본 남자는 다음에 또 생선장수가 오자 생선이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이번에는 자신의 딸과 함께 자게 해 주고 생선을 얻어먹는다. 심지어 남자인 자신이 생선장수에게 성(性)을 제공하고 생선을 얻어먹으면서도, 가족들에게 맛있는 생선을 먹는 것이 누구의 덕이냐며 생색을 내는 이야기이다.

변이 남편이 장에 가거나 나무를 하러 간 사이에 아내가 청어장수에게 성을 제공하고 청어를 얻어서 남편에게 요리해 주자, 맛있게 먹은 남편이 사연을 듣고 아내의 밑 부분에 대고 절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아내가 뒤로 해 주고 새우젓을 얻어 그 덕에 맛있게 먹은 남편이 앞은 자기 것이지만 뒤는 괜찮으니 앞으로도 뒤로 하고 새우젓을 얻어먹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대개는 생선장수가 먼저 돈 대신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생선이나 새우젓을 먹고 싶어 하는 시골 사람이 먼저 잠자리를 제안하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청어장수〉 유형의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모두 생선류를 접하기 어려운 깊은 산골이라는 사실이고, 둘째, 성을 사는 사람은 성적으로 결핍된 장사꾼이며, 성을 제공하는 사람은 어리숙한 시골 여인이나 가족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셋째, 이야기 속의 남편이나 아버지(시아버지)는 장사치에게 성을 제공한 아내나 딸(며느리)을 질책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위해 수고한 인물로 치사한다는 점이다. 이 민담에서는 아내나 딸뿐 아니라 남성인 자신까지 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청어를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터무니없이 과장된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이 민담이 장사꾼을 다루는 다른 민담들과 다른 점은 청어장수가 속임수를 쓰지 않았는데도 산골 사람이 스스로 바보짓을 벌여 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징 여타의 장사꾼 민담은 여성의 무지함과 탐욕은 물론, 장사꾼의 간교함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시골 남성의 바보짓을 보여 주긴 하지만, 그 바보스러운 행위가 유발하는 웃음에 초점이 있을 뿐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성적 모티프를 기반으로 하지만, 배경 상황과 관련된 인물들의 삶과 애환에서 비롯되는 웃음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육담류와 완연한 차이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9, 826; 6-1, 625; 7-7, 575,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9, 182.

참고문헌 구전설화연구(최인학, 새문사, 1994), 바보음담의 사회문화적 해석(이강엽, 한국민속학33, 민속학회, 2001), 바보이야기, 그 웃음의 참뜻(이강엽, 평민사, 1998).

필자 김복순(金福順)

전설

청평사

淸平寺

상호참조 상사뱀

정의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오봉산 아래에 있는 청평사에 얽

힌 사찰연기설화.

역사 973년(광종 24) 승현(承賢)선사가 창건하고 백암선원(白岩禪院)이라 하였으나, 폐사되었다가 1068년(문종 2) 이의(李顗)가 중건하고 다시 보현원(普賢院)이라 하였다. 이의의 아들 이자현(李資玄)이 이곳으로 내려와 은거하면서 오봉산에 도적과 호랑이, 이리가 없어졌다고 하여 산 이름을 청평산이라 하고 사찰을 중창하여 문수원(文殊院)이라 불렀다. 1550년(명종 5) 보우(普雨)가 청평사로 개칭하였다.

줄거리 옛날 금강산에 수도하던 스님이 중국 공주가 천하일색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보고 싶어서 중국으로 갔다. 궁궐 밖에서 서성이던 스님은 첩자로 오인받아 잡혀 죽어서 상사뱀이 되었다. 상사뱀은 공주가 잠자는 사이에 몰래 공주의 몸에 붙었다. 상사뱀이 붙은 공주는 궁에서 쫓겨나 방랑하다가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어서 고려로 왔다. 그런데 금강산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소양강 오봉산으로 갔다. 절 구경을 하려면 몸을 깨끗이 해야 하기에 공주는 상사뱀에게 잠시 떨어져 달라고 부탁했다. 공주는 폭포수(공주탕)에서 몸을 씻고 절로 향했다. 공주는 법당에 있는 짓다 만 가사(袈裟)를 들고서 한 땀, 한 땀 뜨며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부처님께 하소연했다. 그때 별안간 마른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 똬리를 틀고 기다리던 상사뱀을 죽였다. 공주가 중국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상사뱀이 떨어진 내력과 사찰이 낡았음을 알리니, 황제가 돈을 보내어 절을 중창하게 되었다. 변이형으로 공주를 기다리던 뱀이 공주를 찾아 절로 왔으나, 절 문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 회전문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상사뱀설화〉는 대부분 신분 차이에서 오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결과를 배경으로 한다. 이 설화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한편, 이 설화는 가사불사(袈裟佛事) 공덕을 드러내는 설화라고 볼 수 있다. 공주가 업을 제거한 결과는 가사불사에 동참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서 그 공덕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유사 설화와 달리 설화와 관련된 공주탑, 회전문, 공주탕 같은 증거물들이 존재함으로써 전승력이 강하게 유지된다.

특징 이 설화는 〈상사뱀설화〉의 전형적인 유형이면서 주인공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청평사지(淸平寺誌)』에는 원나라 순제의 공주라 했는데, 이는 중국의 지배를 받던 고려 조정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청평사 중창과 관련한 인물로 왕실과 혼인 관계에 있던 이자현이 있다. 이자현은 거사불교를 일으키고 청평사를 중건하여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와 사촌인 장경궁주는 순종의 비였는데, 순종이 일찍 죽어 외궁에 머물면서 궁노와 간통하다가 폐위된 일이 있다. 간통으로 쫓겨난 궁주가 갈 곳은 사람들의 내왕이 드문 궁벽한 산중이었을 것이고, 사촌 오라버니가 머물고 있던 청평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상사뱀설화〉와 〈청평사중창설화〉가 서로 융합되어 연기설화로 전해지는 듯하다.

출처 문화유적총람(문화재관리국, 1977), 청평사실측조사보고서(춘성군, 1984), 춘성의 맥(춘성군, 1985).

참고문헌 청평사연기설화고(김용덕, 한국언어문화6, 한국언어문화학회, 1988), 한국사찰전서(권상로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필자 김용덕(金容德)



청평사 회전문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문화재청

신화

초공본풀이

정의 제주도 큰 굿에서 불리는, 초공신의 근본 내력을 설명하는 무속신화.

역사 현재 제주도 무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신화 가운데 하나로서, 서사무가이며 일반신본풀이에 속한다. 제주도의 큰굿 중 '초공본풀이' 제차에서 구송되고 있다. 〈초공본풀이〉의 기원은 본토의 〈제석본풀이〉와 서사구조가 같다는 점에서 볼 때 고대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줄거리 이 본풀이의 앞부분은 안사인 구연본을, 유정승따님아기와 관련된 내용은 이중춘 구연본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하 임정국 대감과 지하 김진국 부인은 부자였지만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황금산 도단땅에서 온 주자 대사의 말을 듣고 불법당에 많은 시주를 한 후 딸을 낳아 이름을 '노가단풍자지멩왕아기씨'라 짓는다. 딸이 열다섯이 되었을 때, 부부는 하늘 옥황의 부름으로 벼슬을 살러 가게 되어 딸을 살장 안에 가두어 놓고 계집종에게 딸을 잘 돌보면 나중에 종 문서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후 떠난다. 삼천 선비들이 자지멩왕아기씨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는, 가서 권재삼문을 받아오는 자에게 삼천 냥을 주겠다고 한다. 주자 선생이 자원하여 딸에게 와 술법으로 살장을 열고 재미(齋米)를 받으며 한 손으로 아기씨의 머리를 세 번 쓸고 떠난다. 부모가 돌아와 딸이 중의 아들 삼형제를 수태한 것을 알고는 죽이고자 하였으나 차마 다섯 목숨을 죽일 수 없어 검은 암소에 행장을 실어 계집종과 함께 집 밖으로 내쫓는다. 아기씨는 계집종과 함께 수많은 높은 산과 다리, 그리고 큰물을 지나 마침내 황금산 도단땅에 도착하여 주자 선생을 만난 후 나락껍질을 벗겨야 하는 시험을 치르고 불도땅에서 쌍둥이 세 아들을 낳는다. 쌍둥이 삼 형제는 온갖 고생을 하며 성장하여 과거 시험을 보는데, 처음에는 과거에 합격하지만 중의 아들이라 낙방하고 나중에는 화살로 연추문을 쏘아 맞춘 결과 합격한다. 과거에 낙방한 삼천 선비는 아기씨 집의 여종을 꾀어 삼 형제를 과거에 떨어지게 해 주면 종 문서를 돌려주겠다고 하고, 물명주 전대를 자지멩왕아기씨의 목에 걸어 삼천천제석궁에 가두어 놓는다. 여종이 삼 형제에게 가서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니, 삼 형제는 과거에 급제하면 무얼 하겠느냐 하며 울다가 어머니의 봉분을 보니 헛봉분이라 어머니를 구하고자 아버지에게로 간다. 주자 선생은 아들들에게 어머니를 구하려면 전생팔자를 그르쳐야 한다면서 '天地門'이란 글자를 새긴 무구(巫具)를 만들어 주고, 초감제, 초신맞이, 시왕맞이제를 마련한 후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삼 형제가 너사메아들 너 도령을 만나 무악기인 북과 울쩡(징)을 만들어 삼천천제석궁에 가서 열나흘을 울리니 궁에서 아기씨를 내어 놓는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위하여 금법당을 만들고 여기에 무구(巫具) 전체와 삼만 제기(祭器)를 보관해 놓고 어머니로 하여금 이곳을 지키게 한다. 그리고 이어 상잔과 천문, 요령, 삼멩두를 만들어 연당에 두고 양반의 원수를 갚고자 시왕대반지[신칼]를 만들어 삼시왕으로 들어서다가 유정승따님아기를 만난다.

유정승따님아기는 일곱 살에 육간제비를 받은 후 10년 간격으로 눈이 멀었다 나았다 하는 병을 앓다가 예순일곱 살에 눈이 뜨이고 신안을 얻었는데, 아랫마을 자복장자집 아기가 죽어 가는 것을 살려 주며, 만약 딸이 살아나면 10년 후에 굿을 하라고 권한다. 유정승따님아기가 일흔일곱 살에 자복장자의 부탁으로 굿을 하려 했으나 굿하는 법을 몰랐다. 그러다가 혼절하여 서강베포땅의 신당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삼시왕에 있던 삼 형제는 유정승따님아기가 왔다는 말을 듣고 물명주 전대로 걸어 올려 약밥과 약술을 먹이고 어인타인을 찍은 후 무당서 삼천 권을 주고 수레감봉 막음법을 알려 준다. 유정승따님아기는 다시 신당으로 내려와 여기에서 무당서를 통달한 후, 자지멩왕아기씨로부터 삼천기덕과 일만 제기, 궁전궁납 멩두멩철을 얻고 너 도령 삼 형제와 함께 아랫마을 장자집에 가서 굿을 한다. 이때 도임상처럼 초감젯상을 크게 차려 놓고 무당서에 쓰인 대로 공신가신법을 설연하였는데, 이때 유정승따님아기가 낸 굿법이 지금까지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것이다.

변이 〈초공본풀이〉는 길어서인지 후반부가 될수록 내용의 변이가 심하다. 황금산 도단땅에 사는 대사의 이름이 주자 선생, 주접 선생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초 채록 자료에는 주자 선생으로 되어 있다. 유정승따님아기에게 무점 기구를 주는 존재는 삼시왕으로 가던 삼 형제가 주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중이나 대사가 준다고 하는 것도 있다.

분석 제주도 큰굿은 육지부에서 전해진 것으로, 〈초공본풀이〉는 원래 열두 거리로 구성된 큰굿의 세 번째 거리인 '초공맞이제'에서 구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제주도 큰굿에서는 초공본풀이가 열 번째 제차로 되어 있으며, 신화명인 동시에 제차 이름이다. 서대석 교수는 육지부에서 구송되고 있는 '제석본풀이계' 무속신화가 바로 〈초공본풀이〉와 같은 계열의 신화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전에는 육지부에서도 〈초공본풀이〉와 같은 신화가 구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의 이 신화는 우리 무속의 뿌리 및 기원을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최초의 무당 및 굿의 종류, 무구 및 무악기가 마련되는 과정, 무구·무악기·제기를 모셔 놓는 법당의 기원, 그리고 최초의 강신무는 누구인가 하는 것 등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제주도 신내림굿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주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신내림굿을 할 때 심방이 삼시왕에 끌려가서 약밥과 약술을 먹고 어인타인을 받으며 무당서 삼천 권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강신무였던 유정승따님아기가 행한 일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심방은 신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신의 일을 모방하여 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신성성과 정통성, 그리고 전통성을 공인받는다. 민속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본풀이는 여성여웅담 또는 여성시련담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이후 성장하여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표적인 심부담(尋父談)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본풀이는 매우 오래된 형태의 신화라 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요소는 후대의 서사물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본풀이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현재 무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의례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신화는 현재도 제의현장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신화라 할 수 있어 신화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

출처 초공본풀이(안사인 구연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초공본풀이(이중춘 구연본,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참고문헌 무신도 삼불제석의 신적 성격과 형성배경(이수자, 역사민속학4, 역사민속학회, 1994), 심방의 입무의례 연구-초공본풀이와 신굿의 관계를 중심으로(문봉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제석본풀이 연구(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필자 이수자(李秀子)

자료

촌담해이

村談解頤

정의 조선 전기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편찬한 소화집(笑話集).

내용 『촌담해이(村談解頤)』는 현재 완전한 형태로 전승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의 작품 수에 대해 논란이 있다. 편자가 쓴 서문에서는 수록된 모란의 속임수, 어리석은 하인의 속임수, 미치광이 하인의 중매, 두더지 혼인, 사미승이 홍시를 훔친 이야기, 교활한 토끼의 송사, 홍선이 천모를 맹신한 이야기, 혜능이 연화에게 목을 맨 이야기 등 여덟 편의 작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모단탈재(牡丹奪財)〉, 〈치노획첩(癡奴獲妾)〉, 〈청부독과(菁父毒果)〉, 〈계경주지(繫頸住持)〉 네 편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원문이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이본인 유인본 『고금소총(古今笑叢)』에는 『촌담해이』 열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 이외 나머지 여섯 편에 대해서는 후대에 첨부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촌담해이』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적 연구 외에 자서(自序)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자서에서 무위자(無爲子)는 시골 노인들과 나눈 극담(劇談) 가운데 '턱이 열릴만한 것[解頤]'을 선택하여 기록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지극한 이치가 있음을 역설한다. 수록되어 있는 네 편의 작품들은 육담(肉談)이거나 사기담(詐欺談)인데, 줄거리가 정교하며 길이가 비교적 길다. 또한 각 작품 말미에 논평이 있어 작품에 대한 찬자의 감상과 평가를 알 수 있다.

필자 류정월(柳正月)

전설

최영

崔瑩

정의 내우외환을 물리치고 고려를 수호한 말기의 명장 최영 장군에 얽힌 설화.

역사 이 설화에서는 그의 출생지가 강원도 철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서 성장기의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최영 장군은 수차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고 원나라 원병과 내란 평정과 같은 혁혁한 공을 세워 요직에 진출하였다.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무주 지역에서 가로막힌 바위를 쳤다는 것과 사위를 고르려고 능력을 자랑하다가 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리고 명나라가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고 고려를 요동(遼東)에 귀속시키려 하자, 요동 정벌을 계획하고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정벌군을 이끌고 출정하였다. 이때 부하인 이성계가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으로 개성에 난입하자, 이에 맞서 싸우다가 체포되어 고봉(高峰, 고양) 등지에 유배되었다가 73세에 개경(開京)에서 참형되었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관한 이야기는 최영과 관련 없이 별도로 전승되고 있다.

최영 장군은 고려 충신으로 큰 공로를 세웠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참수당하는 억울한 인물이다. 이런 생애를 부각시켜 무속에서는 장보고, 임경업, 남이, 신립과 함께 한국의 주요 장군신으로 모시는 좌정담이 일부 전한다.

줄거리 최영 장군에 관한 구비전승 이야기는 미미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설화를 보면, 최영 장군은 홍성 인근에서 자라면서 훌륭한 말을 얻어 무술을 연마하였다. 최영은 자신의 말과 빠르기 내기를 하여 실수로 말을 죽인 후 후회하며 말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이후 노력으로 벼슬에 올라 고려를 위하여 왜구를 물리치던 중 무주에 있는 적성산성에 들렀다. 그런데 행군을 하는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 칼로 베어내고 나갔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다가 딸에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이다. 최영은 뒤에 요동정벌을 시도하다가 부하인 이성계의 배반으로 억울하게 죽어 무속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그런 최영은 신이 되었지만 단종신에게 패배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영장군사당
부산시 남구 감만동, 2006.4.20, 배도식

변이 최영 장군에 관한 구비설화를 보면 충남 홍성군, 전북 무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 영월군에서 조사된 것이 보일 뿐이다. 최영 장군은 충남 홍성군 금마면에 있는 철마산에서 무예를 닦으면서 글을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의 무예를 따르지 못하였다. 이 철마산에는 사나운 동물들이 많았는데, 옛날에 한 장수가 무예를 연마할 때 동물들이 활동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마음대로 문밖을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 어느 날 그의 훈련소리가 들리지 않자, 동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다닐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장수가 훈련하기를 빌었고, 어느 날부터 훈련하는 소리가 전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런데 하루는 장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농부가 보게 되었다. 그러자 철마가 산을 넘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 장수는 백성들을 위해 산 정상을 무너뜨려 동물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다.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에 있는 금마총의 유래담은 다음과 같다. 최영 장군이 홍성군 백월산에서 훌륭한 말을 얻어 무예를 닦고 있었다. 어느 날 최영 장군은 말과 내기를 하였는데, 화살을 쏘고 말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주변을 찾아보아도 화살이 보이지 않자 말의 목을 쳤다. 그때 화살이 말에 꽂혀서 최영 장군은 말을 부둥켜안고 후회하면서 말을 묻어 주었는데 그곳이 금마총이라 한다. 또 전북 무주군에 전승되는 설화는 사고지(史庫地)였던 적성산성과 관련된 것으로, 행군하는데 바위가 가로막아 칼로 베고 지나갔다는 단편적인 장도(장수)바위에 관한 전설 4편이 있다. 또 강화도 자료를 보면, 최영 장군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윗감을 직접 시험하여 자기만 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였다. 그래서 한 젊은이를 불러서 자신의 목을 자른 뒤 다시 붙어 소생하는 재능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이때 딸은 아버지가 살아나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아버지의 떨어진 목에 재를 뿌려 다시 붙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강원 영월군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군 덕구리에는 최영장군을 서낭당 당신으로 모시고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에는 단종신을 서낭신으로 모셨다. 그런데 두 마을의 서낭기가 마주치면 최영 장군을 모신 깃봉이 저절로 부러졌다. 그 이유는 신하보다 왕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밖에 최영 장군을 개성 덕물산 신당에 신으로 모셨는데 처녀를 바치는 습속이 있었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최영 장군 무덤은 풀이 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최영이 죽을 때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면 풀이 나지 않고, 혹시 원한이 풀리면 무덤에 풀이 날 것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분석 고려 말 명장인 최영 장군은 수많은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간신의 발호를 징치한 무장으로서 『고려사(高麗史)』 열전에 상세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최영 장군의 실제 행적과 달리 이와 관련된 문헌설화와 구비설화는 많이 전승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활동공간의 문제와 지배질서에 대척되었던 인물이라 전승의 한계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영 장군의 설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당신에 관한 연구에서 좌정담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이다.

의의 현재까지 조사된 최영 장군 설화는 최영이 가진 능력의 신이함을 보여 준다. 최영의 능력은 천부적이지만, 어린 시절 노력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최영은 칼로 바위를 자르고 철마를 얻어 타거나 〈치마대전설〉의 주인공이 되었다. 딸과 관련된 설화는 〈지하국대적퇴치설화〉를 차용한 것으로, 최영 장군의 신이한 능력을 강조하고 억울한 최후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또한 당신 좌정담은 최영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서 신성성을 견지하면서 전승되었다.

출처 무주의 구비설화와 민요-상·하(김용덕·강현모, 무주문화원, 2006), 최영장군당굿 연구(최영장군당굿보존회, 민속원, 2008),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887; 2-8, 59, 홍성의 전설과 효열(구재기·김정헌, 홍성문화원, 1995).

참고문헌 고려명장 최영의 역사흔적을 찾아서(김병섭, 해암, 2007),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22-최영·최영장군신(민병하·최길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필자 강현모(姜賢模)

신화

최영장군당신화

崔瑩將軍堂神話

정의 황해도 개성 덕물산 및 서울 주변 지역, 남해안 일대, 충청도 일대에서 마을신앙의 제당에 좌정하고 있는 당신(堂神)

인 최영장군과 관련한 신화.

역사 최영장군은 1316년(충숙왕 3)에 출생하여 1388년(우왕 14)에 죽은 고려 말의 명장으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는 생가 터와 사당이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최영장군은 양광도 도순문사(都巡問使) 휘하에 있으면서 왜적을 상대로 용맹을 떨쳤고, 1352년(공민왕 1)에는 조일신의 반락세력을 처단하였으며, 그 후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최영장군은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요동 정벌에 나섰다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성계 일파에 의해 지금의 경기도 고양으로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는 살아생전에 집의 쌀독이 빌 때도 권력을 이용해 뇌물과 청탁을 받지 않을 정도로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이성계가 최영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영화를 누린 인물이라면 최영장군은 외부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내부의 반란세력들을 척결함으로써 나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옳은 일이라 믿고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인물이다. 충성스럽고 정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통과의례를 거쳐 삶을 마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원한이 사무친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최영장군의 역사적인 위상과 억울한 죽음이 훗날 다양한 이야기 형태로 전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여러 지역의 마을신앙에서 최영장군을 신격으로 모시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구술 자료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녹전리 구술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서 전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영장군은 한 나라를 주름잡는 장군이었는데, 공중을 향해 자기 목을 베면 그 목이 수만리 밖에 떨어져도 다시 돌아와서 달라붙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을 자른 뒤 그 목을 다시 붙어 소생하는 재주였다. 최영 장군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최영 장군은 자기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사랑한 남자는 자기 아버지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매운재를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칼로 자기 목을 후려치자 재빨리 그 재를 뿌려 목이 다시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목은 덕물산에 떨어져서 최영장군신이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녹전리에서 채록된 구술



최영 사당 무인사
경남 남해군 미조리, 한국관광공사

자료의 내용은 이렇다. 정초가 되면 먼저 마을 사람들은 농악을 치면서 성황당 앞에 가서 성황신을 맞이하는데, 그 신을 모시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의 안녕을 빌고 농악을 친다. 그런데 마을 앞에 있는 도랑을 경계로 강원도 지역인 덕구리에는 태백산 서낭신을 모셨고, 경상도 지역인 내덕리에는 최영장군신을 모셨다. 이들 마을에서 각각 집집마다 심방하면서 농악을 치다 보면 공교롭게도 두 마을의 농악대가 정면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두 마을 농악대의 깃대가 마주치면 최영장군신을 모시는 깃봉이 저절로 부러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그것으로 보면 단종신인 태백산 서낭신이 경상도의 최영장군신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신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분석 최영장군신은 중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의 몸주로 많이 모셔져 있는데, 최영 장군이 무당의 몸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장군이었기 때문이다. 무속에서 원혼적 속성이 강한 인물이 신격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원혼적 속성만 강해서는 안 된다. 그것과 더불어 그 인물이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야 한다. 예컨대 단종과 같은 왕실 관련 인물들이거나 임경업 장군이나 남이 장군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장군들이 무당의 몸주신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영장군신은 무당의 몸주신으로서 영험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옥수동 부군당이나 용문동 부군당, 남이장군당에 부군신으로 모셔져 있고, 서울 마포구 대흥동 불[火]당에서도 최영장군신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최영 장군의 출생지인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서 마을신으로 모시고 있고,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리와 통영군 사량면 등지에서 마을신으로 모시고 있다.

최영장군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을신으로서의 신성성과 영험성을 보여주는 당신화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당신화의 전승을 지속시키는 데는 제의적인 내용이나 신화적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야기 주인공의 신성성과 영험성이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 신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인공의 영험성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대체로 〈최영장군당신화〉는 최영 장군의 신이한 능력을 강조하는 의미와 억울하게 죽은 원혼적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는 영웅인 최영 장군의 원혼을 신격화하여 신으로 모시는 곳에서 전승되고 있다.

특징 〈최영장군당신화〉는 무속신과 마을신의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무속신화이면서 마을신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의 〈최영장군당신화〉는 마을 단위에서 정승되는 신화적인 면모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무속신앙과 마을신앙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887; 2-8, 59.

참고문헌 남이장군당의 무신도 연구(홍태한, 중앙민속학14,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실존인물의 신격화 배경화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서종원, 중앙민속학14,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9), 충남지역 인문전설의 전승양상과 활용방안(최운식, 한국민속학38, 한국민속학회, 2003), 한국의 마을제당(국립민속박물관, 1995).

필자 표인주(表仁柱)

전설

최제우

崔濟愚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천성산 내원골 적미굴에 전해 내려오는 최제우와 동학 관련 전설.

줄거리 1824년에 태어난 최제우의 호는 수운(水雲), 아명은 복술,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이었다. 태어날 때 생가에서 마주 보이는 구미산(龜尾山)이 사흘 밤낮으로 울었다고 한다. 부친 근암공이 과거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큰달이 자기 앞으로 왔다. 이때 산 너머에 있는 금척 청주 한씨에게도 둥근달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 후 정처없이 걸어 근암공이 공부하는 곳에 당도하여 지내다가 최제우를 낳게 되었다. 최제우는 서출이다 보니 처음에 방랑을 많이 하였다. 1829년 수운이 6세 때 모친이 운명하고, 17세 때 부친이 운명하였다. 14세 때 금강산을 유람하고, 19세에 혼인하고, 24세까지 무예를 익히거나 장사를 하는 식의 방랑 생활을 하다가 처갓집이 있는 울산 유곡동(여시바윗골)에 가서 명상을 시작했다. 이후 계속된 명상과 수행 끝에 37세에 도통한다. 이때 용담정에서 한울님으로부터 천도(영부와 주문)를 받았다. 도통한 1860년부터 포덕을 시행하다가 1863년에 해월에게 도를 전수하고, 이듬해 1864년 대구 감영에서 참형을 당한다. 감영에서 최제우에게 곤장을 칠 때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고, 곤장을 맞아 생긴 상처가 즉시 아물었다고 한다. 또한 칼이 목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시체에는 칼의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변이 최제우에 대한 전설은 다양한 자료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해 온다. 그 중 이돈화가 지은 『천도교창건사』가 가장 충실한 자료를 전한다. 각 자료마다 다른 설화 내용은 신인출현의 예언, 양부모의 예사롭지 않은 만남, 금강산의 중이 전한 친서이야기, 어떤 노파를 죽인 뒤 살린 일, 말이 멈추자 제방이 무너진 일, 말이 강을 건넜는데 물에 빠지지 않은 일,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나무 위에 앉아 마을을 환하게 비춘 일, 꿈으로 미리 닥칠 화를 예견한 일, 감영에서 참형당할 때 관에 서기가 어렸던 일 등이다. 최제우와 관련된 알려진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 및 일가친척의 일화도 다수 채록이 되었다.

분석 천도교의 공식 기록과 민중에 전래되는 설화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준다. 교조를 신성시하는 입장과 그 신성성이 거세되거나 다른 관점이 부각되는 민중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게 채록되었다. 많은 변이가 있지는 않지만 비교 연구를 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 현재 연구는 종단 입장의 설화 연구와 일반적인 접근의 연구로 구분되며, 둘 다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며 상보적 관계에 있다. 동학혁명의 과정과 관련한 설화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의 최제우 관련 설화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의 의의 및 실체를 밝히는 것과 아울러 구비문학의 연구 지평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는 의의가 있다. 또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동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점을 드러내는 데 〈최제우〉 전설에 대한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진다.

출처 천도교창건사(이돈화, 경인문화사, 1977), 하북면지(하북면지편찬위원회, 199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 296.

참고문헌 용담유사연구(윤석산, 민족문화사, 1987), 동학설화와 동학의 역사(윤석산 외,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동학성립과 이야기(조동일, 홍성사, 1981).

필자 이정재(李丁宰)

전설

최치원

崔致遠

상보참조 금돼지굴

정의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다가 구출되어 온 여인이 낳은 놀라운 아들 최치원에 관한 설화.

역사 이 설화는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야래자설화〉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설화로, 소설 〈최고운전〉의 서두인 '최치원 탄생담'과 내용이 같다. 〈최고운전〉이 널리 퍼지면서 민간에 설화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신라시대 문창고을에 부임해 오는 원님의 부인들이 무엇인가에 납치되어 사라지는 변괴가 일어났다.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최충은 부인의 치마폭에 명주실을 달아 놓는 대비를 했지만 역시 부인이 사라지고 만다. 최충은 명주실을 따라 갔는데 실이 두 바위틈으로 사라져 버려 낙담하였다. 하지만 한밤중에 바위가 열린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밤에 열린 바위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온갖 풍악이 울려 퍼지는 별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미녀들이 춤을 추는 한가운데 금돼지가 부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자는 것을 본 최충은 자신이 왔음을 부인에게 알렸다. 부인은 금돼지에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사슴가죽을 씹어 뒤통수에 붙이면 죽는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지니고 있던 사슴가죽으로 된 바늘 쌈지를 금돼지에게 붙여 죽였다. 이렇게 구출되어 온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최치원이다.



최고운 영정
경북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 문화재청

변이 대부분 각편의 내용이 동일하나, 금돼지의 변괴 이후 최치원이 버림받는 내용, 거울을 깨뜨려 승상 나업의 종이 되는 내용, 여러 시험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내용, 중국에 들어가 과거에 급제하는 내용, 신라로 돌아와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는 내용들이 더 붙은 각편도 있다.

분석 〈지하국대적퇴치설화〉, 〈야래자설화〉 같은 주변 설화와의 관련성을 비교·대조하여 분석하고, 해당 화소의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찾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소설 〈최고운전〉의 관계 맺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초기소설로서 〈최고운전〉의 위상이 밝혀지면서 이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최치원〉 설화의 내용과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징 〈지하국대적퇴치설화〉, 〈야래자설화〉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설화로 최치원의 신이함과 최치원이 신라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유를 형상화해 냈다.

의의 최치원이 금돼지의 아들이라는 유래담을 통해 민간에서 신이한 영웅적 존재임을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113; 2-8, 727; 8-11, 199.

참고문헌 최고운전을 통해 읽는 초기 고전소설사의 한 국면(정출헌,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최고운전의 설화적 전승과 최치원설화의 연원(유광수, 한국문화연구3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최고운전의 작가의식과 소설사적 위상(박일용, 고전문학연구16, 한국고전문학회, 1999), 최고운전의 형성시기와 출생담고(김현룡,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최치원전승의 연구(한석수, 계명문화사, 1989).

필자 유광수(劉光洙)

민담

춤추는 호랑이

정의 삼 형제가 집안의 보잘것없는 물건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여 돌아온다는 내용의 모험담 성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삼 형제가 아버지에게 지팡이·농짝·방울을 유산으로 받는다. 삼 형제는 유물을 들고 각자의 길을 떠난다. 첫째는 산속에서 여우가 무덤 속에서 꺼낸 해골을 뒤집어쓰고 할머니로 둔갑한 것을 목격한다. 둔갑한 여우가 마을 잔칫집으로 들어가 신부를 건드리자 신부가 쓰러진다. 첫째가 신부 맥을 짚는 척하다가 지팡이로 둔갑한 여우를 후려치자 신부가 살아난다. 첫째는 신부를 살려 보상을 받고 여우 잡은 지팡이도 팔아서 고향집으로 돌아온다. 둘째는 종에게 쫓겨 목숨이 위험한 여자를 농짝에 숨겨 주어 목숨을 구한다. 둘째도 여자를 데리고 고향집으로 돌아온다. 막내는 큰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호랑이떼를 만난다. 막내가 나무 위로 피신하자 호랑이들이 무동을 타고 올라선다. 막내가 방울을 흔들자 맨 아래 호랑이가 방울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바람에 무동을 탄 호랑이들이 모두 떨어져 죽는다.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형들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온다.

변이 삼 형제가 지닌 물건은 지팡이·북·장구이거나 활·쇠망치·장구 또는 맷돌·북·나팔로 설정되기도 한다. 삼 형제가 물건으로 도깨비를 놀라게 하여 도깨비방망이를 얻거나 도깨비들의 말을 엿듣고 사경을 헤매는 정승 딸을 구하고 결혼하는 예도 있다. 활을 쏘아 달려드는 백호를 혼내 주거나 쇠망치로 도깨비를 혼내 주고 처녀를 구하기도 한다. 무동을 탄 호랑이를 춤추게 하는 도구는 장구, 나팔, 버들피리, 북과 같은 다양한 악기로 설정된다. 이 설화는 〈여우 잡은 소금 장수〉, 〈무당 호랑이〉로 각각 독립된 유형으로 전승되기도 한다.

분석 삼 형제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거나 집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물건은 지팡이, 북, 나팔, 농짝, 방울, 장구로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삼 형제는 각자 다른 길로 흩어진다. 이는 삼 형제가 이제 부모 형제도, 재산도, 어떤 배경도 없이 오로지 혈혈단신으로 세상과 맞닥뜨려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삼 형제의 숨겨진 내면의 힘은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대변된다. 지팡이로는 과감한 결단력과 냉철한 변별력을 발휘하여 둔갑한 여우를 잡고, 농짝으로는 포용력을 발휘하여 한 생명을 구한다. 방울·장구·북·나팔·피리로는 예술적 영감, 감각을 발휘하여 본능적이고 야성적인 호랑이를 춤을 추게 만들어 성공을 이끌어 낸다.

특징 〈춤추는 호랑이〉의 독립된 삽화(揷話)는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헝가리, 러시아, 인도 등 전 세계에 분포한다. 아르네-톰슨의 설화 분류 유형 중 〈무동을 타고 나무 위로 오르는 이리(Wolves climb on top of one another to tree, AT121)〉로 분류되는 소담(笑談)·소화(笑話)·희극적 민담이다. 한국 설화에서는 〈춤추는 호랑이〉 삽화가 각각의 삼 형제 삽화와 결합하여 전승되기도 한다.

의의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설화인 만큼 다른 나라 설화와 비교함으로써 보편성·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조선설화집(손진태, 최인한 역, 민속원, 200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6, 161; 7-8, 555,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88; 4, 221.

참고문헌 웅,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이나미, 민음인, 2010), 한국민족설화와 호랑이(황패강, 국어국문학55~57, 국어국문학회, 1972).

필자 박현숙(朴賢淑)

신화

충렬굿무가

정의 함경도 망자(亡者) 천도굿인 망묵에서 하나의 굿거리로 구연되는 서사무가.

역사 이 서사무가가 언제부터 함경도 망묵에서 불리기 시작하였는지, 또 제보자가 이 자료를 어떤 경로를 거쳐 습득하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자료가 고소설 〈유충렬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소설 출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고소설 〈유충렬전〉은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창작 군담소설로 알려졌고 〈조웅전〉과 함께 당대에 가장 인기있는 작품이다. 군담소설로 보아서는 〈소대성전〉이나 〈장백전〉 유형보다 후대의 작품으로 19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 서사무가도 19세기 이후에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놓고 보았을 때에 그러리라는 추정이며, 부분적인 삽화(揷話)나 모티프 가운데에는 고소설 〈유충렬전〉의 내용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줄거리 김태곤이 이고분 무녀에게 받은 자료로 『한국무가집(韓國巫歌集)』 3권에 실려 있는 것이 유일하다.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은 장수였는데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충렬의 어머니는 남편이 옥중에 있는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날개가 달린 아이였다. 노인에게 물었더니 장수가 될 아이라면서, 충렬이 난 지역에 샛별같이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아보니 날개가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였다. (간신들이) 그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빼앗아 강물에 던지려고 하다가 (불쌍하여) 등에 널빤지 하나를 지우고 물명주 세 필로 감아 강물에 띄웠더니 거북이가 지고 가 갈대밭 깊은 곳에 두었다. 아

이가 갈대밭에서 울자 이 소리를 들은 임금님이 그 아이를 찾아 데려오게 하여 유모에게 주어 기르게 하였다. 한편 충렬의 어머니는 아이가 이미 고기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고생고생하며 살다가 절간에 가 시주나 하면서 살면 혹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절간으로 들어가 밥해 주는 일을 하면서 남편 만나기를 빌고 빌었다. 충렬이 무럭무럭 자라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에 나라에 큰 난리가 났으나 막아 낼 장수가 없었다. 충렬이 스스로 나서서 싸움에 나가 이기고 적장의 목을 벤 뒤 빼앗겼던 공주를 찾아 돌아왔다. 충렬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여 절간으로 들어갔는데 그 절간은 어머니가 있는 절이었다. 어머니는 공부하러 온 충렬에게 밥을 지어 주면서도 그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충렬이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유심이라는 것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의 밥그릇에 편지를 써 넣어 자신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렸다. 충렬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으나 아버지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다시 충렬에게 편지를 보내고 충렬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자 아버지는 충렬에게 그러면 (자신이 어머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렬의) 배냇저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게 한다. 어머니가 함에 보관하고 있던 충렬의 배냇저고리를 보내 자신이 충렬의 어머니임을 입증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분석 구연자 이고분은 본적이 함경남도 함흥시 중화리이고 스물세 살에 신이 내려 영험으로 명성을 날리던 무당이었다. 8·15 때에 월남하여 서울에 살면서 함경도 지역 월남민들을 상대로 무업을 계속하던 함흥 지역의 대표적 무당으로 알려졌다. 임석재·장주근의 『관북지방무가』에도 함경도 지역의 망묵굿 전반을 조사한 것이 있으나 그 자료에는 이 굿거리가 없다. 따라서 이 굿거리가 함경도 망묵굿의 일반적 굿거리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한국무가집』 3권에 실린 자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서사무가가 망묵굿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 무가가 "다른 발원이 아니오라/다른 원정이 아닙니다/시왕(十王)에 길을 닦을 적이요/나라님 충신 몸이 되여서/청춘에 가는 인상들이 난준에 가 난을 막아 가실 적이"라는 사설로 시작됨으로 보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혼령을 위로해 준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무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성개(成功)를 해 가주구 극히 극히 성가를 해 가주구/나라에 건중(陣中)을 막아 가주구 대신 걸음으 나가 가주구/우리나라를 보가 나구 보가 나구 았으니 이 역삽니다."라고 끝맺는 것으로 보아, 이 자료를 구연한 무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영웅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런 사실은 후대에 전수해야 할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의 이 자료는 고소설 〈유충렬전〉을 서사무가로 만든 것으로, 동해안 지역 서사무가 심청굿과 함께 매우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충렬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창작 군담소설로 당대에 큰 인기를 누렸는데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공감을 받았다는 것이 이 작품이 서사무가로 불리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고소설과 서사무가의 장르 교섭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일차적 의의가 있다. 또한 유충렬의 출생 과정에서 고소설에는 없는 아기장수 모티프의 수용, 거북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는 모티프, 밥그릇을 이용한 편지의 전달과 같이 흥미를 끄는 많은 설화적 장치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고소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설화적 장치가 가미되어 서사무가로 정착한 것이 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소설 〈유충렬전〉은 충신과 간신의 대결이 작품의 근간을 형성한다. 유충렬과 그 아버지 유심은 간신인 정한담과 최일귀 일파의 탄압으로 수난을 당하고, 이들 간신 일파는 왕권의 도전자가 되어 충신파와 대결한다. 그러나 서사무가 충렬굿에서는 이 충신과 간신의 대결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대신 설화적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출처 한국무가집3(김태곤, 집문당, 1978).

참고문헌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서대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영웅소설론(서대석,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1990), 함경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아기장수 전설의 수용양상(권태효,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필자 박경신(朴敬伸)

신화

충주어씨시조신화

忠州魚氏始祖神話

정의 충주 어씨 시조인 어중익(魚重翼)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득성(得姓)에 관한 신화.

줄거리 『충주어씨족보(忠州魚氏族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어씨의 관(貫)은 충주이다. 평장공 휘 중익을 비조로 여기며, 휘는 급(汲)이다. 급의 부인이 어느 날 꿈에 큰 연못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푸른 옷을 입은 한 소년이 물속에서 나왔다. 소년의 풍모는 정갈하고 수려했으며 목소리가 옥구슬 구르는 듯했다. 부인은 신이하면서도 마음으로 부러워하며 소년과 대화를 나누었다. 잠시 후 소년이 작별을 고하며 말하길 훗날 반드시 귀한 아이를 낳을 것인데 몸에 특이한 표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말을 마치고 잉어로 변하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과연 달이 지나 부인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용모가 비범하였다.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세 개의 비늘이 있었는데 크기가 작은 쐐기만 하고 광채가 사람을 압도했다. 이 아이는 이후 고려 태조 개국 원훈으로 관직이 문하시중 평장사에까지 이르렀다. 어느 날 고려 태조가 자기에게도 비늘이 있는데 공에게 비늘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 어씨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분석 〈충주어씨시조신화〉는 최근에 발행한 『충주어씨대동보』에도 먼 조상인 중익이 나면서 체구와 상모(狀貌)가 기이하고 겨드랑이 밑에 세 개의 비늘이 있으며, 장성하여 고려 태조 왕건을 섬겼고 태조가 사성(賜姓)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어머니의 현몽 부분이 생략되었다. 이외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한국인 족보』, 『한국성씨대관』에는 겨드랑이 밑에 비늘 셋이 있어 고려 태조가 이를 보고 어씨로 사성했다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의의 〈충주어씨시조신화〉는 어머니와 청의동자(靑衣童子)로 화신(化身)한 잉어와 교구하여 시조가 탄생하고, 태조 왕건이 어씨를 사성했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전반적으로 시조의 신이한 탄생을 통해 그 영험함과 신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태조 왕건의 개입으로 성씨시조에 대한 역사적 무게가 부가되어 공신력을 얻고 있다. 그리하여 충주 어씨 시조가 역사적으로 걸출한 인물임을 증명하면서 남다른 존재임을 뭇사람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이 신화에서 잉어가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는 것은 수신(水神)적인 질서체계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출처 朝鮮王朝實錄, 忠州魚氏族譜, 창녕조씨충간공파보(농경출판사, 1984), 충주어씨대동보(한국족보문화사, 1999), 한국성씨대관(창조사, 1971), 한국인의 족보(일신각, 1977).

참고문헌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8), 한국씨족설화 연구(허경회,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서해숙(徐海淑)

전설

치마대

馳馬臺

표제어 말무덤

전설

치마바위

정의 치마 모양의 바위나 여성의 생산성을 상징하는 바위에 얽힌 전설.

줄거리 첫 번째는 치마 모양의 바위에서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바위는 장군이나 장수, 대지모신의 자취가 있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산신제나 기우제를 올리기도 한다. 두 번째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이 공신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왕비 단경왕후를 폐위시킨 후 10년 이상 부부로 지낸 왕비를 그리워하였다. 이를 안 폐비 신 씨(단경왕후)가 자신이 궁에서 입던 치마를 매일같이 인왕산 바위에 펼쳐 놓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바위를 '치마바위'라고 한다.

변이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의 치마바위는 마을 사람들이 산신제나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이 치마바위 앞에 있는 돌을 던져 그 돌이 바위 위에 자리를 잡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바위 위에는 장수가 오줌을 눈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바위 위에서 발을 굴리면 속이 빈 것처럼 "텅텅"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 한편,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의 치마바위에는 동네 여자가 '들망질'을 하다가 이무기를 만났는데, 이무기가 여자를 잡으려고 치마를 물었으나 치맛자락만 잘리고 여자는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때 벼락이 쳐서 이무기는 두 동강 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천지조화를 부려 사람을 살린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분석 치마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인왕산 치마바위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2012.8.16, 시몽

반정으로 생이별해야 했던 중종과 폐비 신 씨에 얽힌 역사적인 성격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주술적 행위와 의례의 대상이 되는 성스러운 바위의 내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자는 역사적 사건과 결부된 인물전설의 증거물 성격이 강한 반면, 후자는 거석신앙(巨石信仰)의 대상물에 해당하는 바위 내력이나 마을공동체의 자연 우주가 형성된 내력을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신화적 성격이 강하다.

의의 이 전설은 600년 이상 도읍지였던 서울의 서악(西岳)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대표하는 역사적 전설이라 부를 만하다. 서울에는 치마바위, 세검정 등 반정을 둘러싼 일화와 연계된 공간이 여러 곳 있는데, 반정이야말로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부류의 〈치마바위전설〉은 모두 대지모의 흔적을 담은 신화적 공간 내지는 장수, 이무기 등 성스러운 대상과 연계된 공간의 내력을 풀어내는 이야기로 전승된다. 한국의 거석신앙이나 이와 연관된 이야기 전승에 관한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8) 1-7, 190; 8-7, 512.

참고문헌 암석숭배로서 거석문화에까지(최남선, 동광2-1, 동광사, 1927). 향토서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0).

필자 김영희(金昤希)

전설

치술령

鵄述嶺

상호참조 망부석

정의 신라 눌지왕(訥祇王) 때 왜에 볼모로 잡혀간 왕의 동생을 구해 보낸 뒤, 그 대신 잡혀서도 신라에 대한 충절을 꺾지 않아 죽은 박제상과 그를 치술령에서 기다린 부인의 전설.

역사 신라 눌지왕 402년(실성왕 원년)에 왜에 잡혀간 내물왕의 아들 미사흔(未斯欣)을 충신 박제상이 다시 구해 온 일로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紀異)」2 〈내물왕과 김제상〉에 실려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 〈박제상〉에는 신라왕의 계보가 더 자세하게 전승되고 있다. 후에 치술령 지명과 관련되어, 『삼국유사』에서 제상의 처가 치술신모가 되었다는 화소가 〈망부석전설〉과 결합되어 〈치술령 망부석〉 이야기로 구비전승된다.

줄거리 눌지왕은 각각 왜와 고구려에 볼모로 잡혀간 두 아우인 미해와 보해를 구하고자 했다. 박제상이 명을 받들고 고구려에 가서 보해를 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미해를 그리워하자, 박제상은 집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왜로 향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내가 바닷가로 갔으나 제상은 배를 타고 손만 흔들었다. 제상은 왜왕에게 신임을 얻은 뒤 미해를 먼저 탈출시켰다. 화가 난 왜왕이 혹한 심문을 하며 회유하려 하지만 제상이 굴복하지 않자 화형시켰다. 미해가 무사히 신라에 당도한 후 눌지왕은 제상의 아내를 국대부인으로 삼고 그의 딸은 미해공의 부인으로 삼았다. 이후 부인은 치술령에 올라가 통곡하다가 치술신모가 되어 왜로부터 신라를 지켰다. 또 몸은 망부석이 되고 혼은 새가 되어 날아갔는데, 그곳을 비조라 하고, 새가 숨어든 절의 이름은 은을암이라 하였다.

변이 이 전설의 줄거리는 『삼국유사』와 〈치술령〉 구비설화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삼국유사』는 박제상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부인이 치술령의 치술신모가 되었다고 하지만, 구비전승되는 〈치술령전설〉은 박제상 부인의 처지에서 서술되고, 망부석만이 아니라 혼이 새가 된 것을 치술령 주변의 지명과 연관해 전승하고 있다.

분석 이 전설은 『삼국유사』의 〈치술신모〉와 구비설화의 〈망부석〉이라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승되어 다른 층위의 문제의식을 보여 준다. 〈치술신모〉는 박제상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충(忠)과 맞물려 박제상 처의 절개 역시 충절로 이어지게 한다. 반면에 〈치술령 망부석〉은 대업을 위해 떠난 남편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부인의 심정을 돌과 새로 상징하며, 여성의 기다림에 대한 원망을 투영한다.

특징 〈박제상전설〉이 인물전설로 박제상을 중심으로 충(忠)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면, 〈망부석〉 전설은 지명설화로 아내를 중심으로 망부석을 통해 여성의 기다림에 주목하게 한다. 〈망부석〉은 기다림의 한(恨)을 상징함과 동시에 변하지 않는 열렬한 사랑을 다각적으로 생각하게 해, 〈박제상전설〉과는 다른 층위의 서사를 나타낸다.

의의 〈치술령전설〉은 이후 왜의 침략이 있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마을을 지키는 치술신모가 있다는 호국의 정신을 함께 전승한다는 의의가 있다.

출처 三國遺事,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3, 265.

참고문헌 박제상 전승의 양상과 의미(권영호, 어문학75, 한국어문학회, 2002). 박제상전의 설화적 구성과 그 역사적 맥락(손정인, 대동한문학29, 대동한문학회, 2008). 삼국유사와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술령 전승의 두 양상(김정은, 온지논총24, 온지학회, 2010).

필자 김정은(金廷恩)

전설

치악산

雉岳山

정의 동물 보은담의 한 유형으로 강원도 원성군 치악산(雉岳山)의 유래를 이야기한 전설.

역사 〈치악산전설〉은 최상수의 『한국민간전설집』에 〈치악산과 상원사(上院寺)〉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원주 치악산의 산명유래전설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전국 각지에서 널리 전승되는 동물보은담의 한 유형으로 1924년 박달성이 『어린이』 2-9호에 〈생명의 종소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이래, 여러 설화집에 수십 편이 채록되어 수록되어 있고 1952년 간행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종소리〉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1960년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읽혔다. 최근 설화집에 수록된 자료도 20여 편이 되는데 설화 제목은 〈까치의 보은〉, 〈꿩의 보은〉, 〈학이 종을 쳐서〉,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꿩〉, 〈새의 보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줄거리 옛날 시골에 사는 한 젊은이가 과거를 보려고 집을 나서서 서울을 향하여 가다가 강원도 적악산(赤岳山)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산중에서 꿩(까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꿩 두 마리가 뱀에 감겨 먹히려는 찰나였다(큰 나무 위에 까치집이 있고 그 속에 까치 새끼들이 있었는데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집을 향하여 기어오르고 있었다). 젊은이는 활로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꿩(까치)을 구해 주었다. 젊은이는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잘 곳을 찾아 헤매다가 한 인가를 발견하고, 그 집에 가서 자고 가기를 청하였다. 그 집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잘 곳을 안내해 주었다. 젊은이가 피곤하여 깊이 잠들었다가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깨어 보니 큰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입을 벌려 삼키려고 하였다. 구렁이는 젊은이에게 "나는 낮에 네가 죽인 구렁이의 아내인데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만약 살고 싶으면 종소리 세 번만 울려 다오. 그러면 풀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구렁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뎅! 뎅! 뎅!' 하고 종소리가 세 번 울렸다.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반가운 빛을 띠고 감고 있던 젊은이의 몸을 풀어 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구렁이는 용이 되어 승천하였다). 날이 밝아오자 젊은이는 종소리가 난 곳을 찾아가 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종루가 있었는데, 종 아래에는 전날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울부짖던 꿩(까치) 두 마리가 머리가 깨져 죽어 있었다. 젊은이는 꿩(까치)이 은혜를 갚으려고 종을 울리고 죽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과거 길을 포기하고 그곳에 절을 세워 꿩(까치)들의 명복을 빌며 일생을 마쳤다. 그 후로 적악산을 치악산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고, 젊은이가 세운 절이 지금의 치악산 상원사이다(그 뒤 젊은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명관이 되었다).

변이 〈치악산전설〉 유형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20여 편이 채록되었는데 주인공의 신분, 구출한 새의 종류, 구렁이를 죽인 도구, 암구렁이의 거취, 종소리 난 곳, 후일담 등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주인공은 한량, 선비, 포수, 나무꾼, 학동, 중국 시인 장계(張繼) 등으로 나타나는데 빈도수를 본다면 선비가 7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한량으로 4편이다. 그런데 신분이 밝혀져 있지 않은 '한 사람'이나 '한 총각'으로 나타나는 각편이 4편이나 되어 어떤 것이 본래 주인공의 신분이었는지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주인공이 구렁이를 죽일 때 사용한 도구의 변이를 보면 활이 16편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총, 돌, 몽둥이, 작대기가 각각 1편이다. 이로써 활이 확실히 본래 이야기의 화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신분은 활을 사용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한량이 정답이라는 추정이 성립한다. 주인공이 길을 가는 목적은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이 압도적 다수로 나타난다. 주인공 신분이 선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과거가 선비들의 전유물로 인식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본다. 한량이 구해 준 새는 까치가 11편, 꿩이 7편, 학, 멧새, 황새, 까마귀가 각각 1편씩이다. 까치가 빈도수가 가장 높고 다음이 꿩인데, 활을 사용하려면 까치가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종소리가 난 곳은 절



상원사동종
강원 평창군 진부면, 문화재청

이 8편으로 가장 많고 구체적 증거물로는 한산사(寒山寺)가 3편, 치악산이 2편이다. 여기서 한산사를 증거물로 제시한 각 편에서는 주인공이 장계라는 중국 당대(唐代)의 시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후일담이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 특이한 하위 유형을 이룬다. 후일담은 주인공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대조적인 결말이 나타난다. 하나는 과거에 급제해서 잘되었다는 것으로 7편이 나타나고, 과거를 포기하고 절을 짓고 중이 되었다는 것이 1편, 과거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1편, 시를 지었다는 것이 5편, 미상이 7편으로 되어 있다.

분석 〈치악산전설〉은 동물보은담의 한 유형으로 새가 자신을 살려 준 인간에게 스스로를 희생하여 목숨을 구해 주는 보은을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치악산전설〉에는 사람, 구렁이, 새라는 세 종류의 행위자가 등장한다. 사람은 과거를 보러 가는 젊은이이고, 구렁이는 새를 잡아먹으려다가 화살에 맞아 죽은 수구렁이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다가 종소리를 듣고 사라진 암구렁이 부부이고, 새 두 마리는 새끼들을 키우는 한 쌍의 부부로 젊은이의 도움으로 살아났으나 암구렁이에게 죽게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종을 울리고 죽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런데 구렁이는 수구렁이와 암구렁이가 각기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데 비하여 새 부부는 하나의 캐릭터로서 쌍둥이처럼 행동한다. 새들은 날아다니는 동물로 활동 공간이 천공이고, 구렁이는 기어 다니는 동물로 지상에 밀착해서 살아가며, 인간은 직립 보행하는 동물로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머리는 천공을 향한 채 걸어 다닌다. 즉 지상과 천공 사이에서 구렁이가 가장 아래 공간인 지상과 밀착되어 살고 까치가 천공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 인간이 걸어서 움직인다. 이처럼 새와 사람과 구렁이는 '나는 동물, 걷는 동물, 기는 동물'로 활동 공간이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된다. 구렁이가 새를 잡아먹는 것은 약육강식의 살육이 자행되는 동물적 본능의 세계로 자연 생태계의 한 단면이다. 젊은이가 구렁이를 퇴치한 것은 약육강식의 자연 질서를 뒤바꾼 인간의 자연정복 행위로 폭력으로 폭력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동물적 차원의 움직임이다. 이는 새의 희생 행위와 비교할 때 낮은 차원이다. 즉 사람은 구렁이를 죽이는 살육 행위로 새들을 구해 주었으나 새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구렁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사람을 살렸기에 도와주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의의 천공에서 삶을 영위하는 새들이 자기희생으로 폭력적 살육(殺戮)을 끝내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정화하여 지상에 평화를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차원 높은 신성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설화는 불교의 구원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처 쌍꿩의 보은(심의린, 조선동화대집, 1926), 치악산과 상원사(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4, 505.

참고문헌 종소리의 구조와 의미(서대석, 한국문화8,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7),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서대석, 세창출판사, 2011).

필자 서대석(徐大錫)

민담

친구 간에 지킨 의리

정의 일반담 중에 교훈담으로 분류되는 민담의 한 유형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 친구를 도와준 사건을 중심으로 친구 간의 의리를 다룬 설화.

줄거리 〈선량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부(姦夫)를 잡아준 평양감사의 친구〉, 〈당태종과 엄자룡〉, 〈박준원과 박종경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들이 있다. 먼저 〈선량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절친한 친구들이 어려운 친구 한 명을 서로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여덟 명의 친구들이 가난한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찬물만 대접받고는 논 한 마지기씩 주자고 약속한다. 시아버지의 말을 들은 며느리가 한 마지기가 뭐냐며 논 세 마지기에 집도 사 주라고 하여 친구는 가난을 면했다. 〈간부를 잡아준 평양감사의 친구〉는 친구 아내의 간부를 없애 친구의 목숨과 가정을 구해 준 사람의 이야기이다. 평양감사로 떠나는 사람이 한 친구에게 자기 집과 아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아내가 중과 바람이 나 그 중이 평안감사를 찾아가서 죽이려 하자, 이것을 알아챈 친구가 나서서 간부를 없앴다. 〈당태종과 엄자룡〉은 당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 같이 공부하였던 엄자룡과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이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이 잘되면 다른 한 사람을 돕기로 약속하였다. 훗날 당태종이 왕이 되자 엄자룡이 위수에 가서 은거하였는데, 당태종이 중국 천하를 다 뒤져 친구를 찾아내 격의 없이 대접하였다. 〈박준원과 박종경 이야기〉는 정조 때 인물 박준원, 박종경 부자가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킨 이야기이다. 높은 벼슬을 살던 박종경은 사정이 어려운 친구를 찾아 지혜롭게 집안을 일으켜 주고 벼슬도 주었다.

분석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진정한 친구라면 무조건 친구의 편에 서서 이해해 주고 도와줄 거라는 선조들의 관념이 담겨 있다. 또한,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서로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그것이 선조들이 생각하는 '의리'이다.

특징 이 설화는 각기 다른 사건의 이야기들이 산재하면서 '친구 간의 의리'라는 추상적 주제를 형상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야담이나 실제 있었던 일, 역사적 인물들의 사건 등 여러 층위에서 설화가 형성되어 전하고 있다.

의의 어려운 친구를 모른 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친구 간 의리의 요체라는 점을 간명하게 잘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50; 2-8, 676; 6-4, 373; 7-5, 299.

참고문헌 이야기문학 실타래(조희웅, 글누림, 2008),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필자 권혁래(權赫來)

민담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정의 양아들이 모든 재산을 물려준 딸들에게 구박을 받는 양아버지를 모셔와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내용의 현실적 민담.

줄거리 옛날에 딸 셋만 둔 부자 영감이 양자를 들였다. 부자 영감은 자신을 잘 모시겠다는 세 딸의 약속을 믿고 모든 재산을 상속한 뒤 세 딸의 집을 차례로 찾아간다. 하지만 세 딸은 모두 부자 영감을 구박한다. 딸들의 구박이 심해지자 부자 영감은 목을 매러 산으로 간다. 등짐장수를 하던 양아들이 부자 영감을 발견하고 집으로 모셔간다. 양아들 내외는 부자 영감을 극진히 봉양한다. 부자 영감이 양아들 내외를 도와 괭이질을 하다가 땅속에서 금 단지를 발견하여 양아들 내외에게 준다.

변이 영감이 딸들에게 재산을 되찾는 예도 있는데, 딸들을 관아에 고발하여 재산을 되찾거나 딸들에게 더 좋은 땅을 준 딸의 문서와 바꿔 주겠다면서 땅문서를 받아 양아들에게 준다. 영감이 죽을 생각으로 가출하거나 무작정 가출하여 걸인 행실을 하다가 양아들 내외를 만나서 살게 되기도 한다. 이때 여러 각편에 영감이 실수로 아이를 죽이는 삽화(揷話)가 삽입되어 있다. 영감이 술에 취해 실수로 자고 있던 아이를 밟거나 깔아뭉개 죽이게 되거나 아이를 닭으로 착각하여 삶는다. 대체로 죽은 아이를 발견한 양아들 내외는 영감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아이를 묻으려고 땅을 파다가 금을 발견하고 아이도 되살아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분석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설화는 '양아들 하나가 딸 열보다 낫다'는 대다수 구연자의 표현처럼 남성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딸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뒤, 아버지를 쫓아낸다. 하지만 양아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양아버지를 봉양하며 효를 다한다. 이는 딸은 외인(外人), 아들은 내인(內人)이라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가족관의 발현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아들·며느리 중심으로 서사가 진지하게 진행되는 본격담(本格談)으로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효 관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설화는 가부장권이나 양자의 권위보다 오히려 딸과 양며느리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 주목하여, 여성이 가족 관계의 파탄과 지속을 결정하는 주체 구실을 하는 여성주의 경향이 강한 설화로 분석하기도 한다.

특징 이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 411-4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유형으로 분류된다. 친자인 딸보다 양자인 아들의 효심이 낫다는 인식을 부각하기 위해서 『삼국유사(三國遺事)』 「효선(孝善)」 등 여러 문헌에 실려 있는 〈손순매아(孫順埋兒)〉 유형이나 구전설화 〈동자삼(童子蔘)〉 유형과 같은 유교적 효 관념이 투영된 효행담을 덧붙이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2, 64; 3-3, 790; 4-5, 617; 5-5, 470; 7-9, 1056; 8-6, 101.

참고문헌 설화에 나타난 새식구 들이기에 대한 두 가지 시선(박현숙, 구비문학연구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친딸과 양자로 형성된 가족관계 파탄과 지속의 주체(임재해, 구비문학연구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필자 박현숙(朴賢淑)

전설

칠산바다

정의 칠산 고을이 바다로 변할 때 이인의 말을 믿고 따른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설화.

역사 육지가 바다로 변한다는 대홍수 전설과 관련 있는 이야기이면서, 특정 성씨의 지역 정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옛날 칠산 고을에 살던 노인이 마을 앞에 있는 사람 모양의 바위에 치성을 드렸는데, 그 바위에서 코피가 나면 이곳을 떠나라는 현몽(現夢)을 받는다. 마을 사람들에게 현몽 받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돼

지피를 바위에 발라 코피가 나는 것처럼 해 놓고 노인을 조롱한다. 노인이 이것을 보고 마을을 떠나자고 하지만 손자만 따라 나서고 아무도 따라오지를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손자만 데리고 고을을 떠나다가 소금장수를 만나는데, 소금장수가 이인임을 알아보고 함께 머문다. 그날 저녁 칠산 고을은 바다로 변하였고 현몽을 믿은 노인과 손자만 살아남았다.

변이 이 설화는 각편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각편에 따라 현몽을 받기도 하고, 중을 극진히 대접하자 중이 알려 주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이인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또한 이변의 징조도 사람 모양의 바위에 코피가 난다거나 불상의 귀에서 피가 난다거나 하지만, 불가사의한 일이 이상 징후의 징표로 설정되어 있는 점은 같다. 살아남은 사람 역시 혼자이기도 하고 여러 명이기도 하지만, 노인의 말을 믿고 따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분석 지명유래담이나 인물담 그리고 금기담의 하나이다. 특히 이 설화는 금기의 설정과 이를 믿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때의 금기는 조건적 지시 방식이다. 즉, 일정한 조건에 따른 금기의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적 금기의 불이행은 징벌적 의미의 불행한 결과로 나타난다.

특징 이 이야기는 조건적 금기의 설정과 이행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이상 징후를 알려 주고 이것이 실현되면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금기의 설정은 실제 이를 믿고 이행하면 살아남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죽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때 이행의 주체자는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상 징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금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설정되는데, 이상 징후를 믿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를 이행하는지의 여부가 이 이야기의 핵심 요소이다.

의의 이 이야기는 칠산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주로 전하는데, 조건적 금기의 설정과 이를 믿고 이행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징계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금기는 신성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며, 신성한 명령이나 금기를 위반했을 때는 징벌을 내리는 기능이 있다. 신성에 도전하는 상승 욕구에 대한 제지와 징벌에 대한 금기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출처 압해도 설화자료(허경회·이준곤, 도서문화1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4, 689.

참고문헌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연구(김용덕, 한국언어문화3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신동흔,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필자 박종오(朴宗吾)

신화

칠성본풀이

정의 제주도에 전승되는 업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가신 형태의 부군칠성을 위하는 의례에서 부르는 무속신화.

줄거리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은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다가 절간에 불공을 드려 아기씨를 낳았다. 그러나 대감 부부가 집을 떠난 사이에 아기씨가 중의 아이를 임신한다. 부모는 중의 자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기씨를 무쇠상자에 담아 바다에 버린다. 아기씨는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제주도에 닿아 오르려고 하였으나 상륙하려는 곳마다 이미 그곳을 차지한 당신 탓에 적절한 좌정처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다가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에 이르러 물질하러 나섰던 잠수부(해녀)와 낚시하러 나선 어부에게 발견되어 그곳에서 자신을 위할 수 있는 적절한 신앙민을 구하게 된다. 이때 아기씨와 아기들(칠성)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부와 잠수부는 더럽다며 외면한다. 아기씨와 칠성은 이들에게 흉험(凶險)을 주어 마침내 조상으로 섬김을 받는다. 잠수부와 어부는 칠성을 섬기면서부터 부자가 되어 잘산다. 동네 사람들이 이를 알고 너나없이 칠성을 모시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을을 지켜 주는 본향당을 도외시하게 된다. 이에 함덕리의 본향신인 서물할망이 칠성을 핍박한다. 칠성은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제주성 안으로 들어간다. 관덕정으로 갔더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못살게 굴어 칠성은 산지물로 간다. 그곳에서 빨래하러 나온 칠성통 송씨 집안의 며느리를 따라간다. 칠성은 송씨 집안으로 들어가 조상으로 섬김받고 송씨 집안을 소문난 부자가 되게 해 준다. 나중에 칠성은 제각기 흩어져 막내는 밧칠성, 어머니는 안칠성으로 각각 좌정하여 곡물을 지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해 주는 신이 되었다. 나머지는 추수지기, 형방지기, 옥지기, 과원지기, 창고지기, 관청지기로 각각 좌정하여 단골민들의 제향을 받게 되었다. 그 뒤로 칠성은 제주도에서 너나없이 모시는 집안의 부군칠성신이 되었다.

분석 칠성신은 가신으로 업을 말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를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가른다.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의 내력을 푸는 것으로 본풀이 가운데 가장 특수한 본풀이이다. 뱀을 섬기는 독특한 본풀이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한다. 〈칠성본풀이〉와 거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토산알당본풀이〉 또는 〈토산여드렛당본풀이〉가 있다. 이 본풀이에서도 뱀으로 말미암아 생긴 까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본풀이와 의례가 〈칠성본풀이〉와 거의 같게 연행된다. 이 본풀이는 매우 모순된 면모가 있는데, 서두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견된다. 부모가 절간에 불공을 드려서 아기씨를 얻었는데도 중의 자식을 잉태했다는 이유로 버린다는 점이 그렇다. 이는 〈초공본풀이〉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러한 모순에는 종교적 갈등이 들어 있다. 고유 신격이 외래 신격과 갈등하는 양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중국 〈노자화호(老子化胡)〉, 일본 〈혼지수이자쿠(本地垂迹)〉의 방법과 다른 양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본풀이는 매우 중요한 종교 간 갈등을 드러내는 본풀이이기도 하다.

이 본풀이에서는 두 번째 갈등이 있다. 아기씨와 자식들이 좌정처를 정하지 못하고 제주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그 갈등 역시 단순하지 않다. 자신이 다스릴 곳을 정하는 것은 신격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미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본향당신과 불가피하게 갈등이 일어난다. 단골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시도할 만한 기회마저 차단당함으로써 부군칠성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 된다. 그런데 함덕에서는 잠수(잠녀)와 보재기(어부)를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타진되었다.이로써 단골과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서물할망과 갈등이 생겨 단골들과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좌정처를 찾아 이동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 목안 산지물의 칠성통 송씨 집안 며느리에게 섬겨지고, 이곳에서 단골민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새롭게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좌정받는다. 칠성신의 좌정은 외지에서 들어온 신앙이 새롭게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점에서 제주도의 〈칠성본풀이〉는 신들의 갈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 신앙의 정립서사시로서 의의가 있다.

특징 〈칠성본풀이〉는 대개 심방이 앉아서 장구를 치면서 말미장귀로 구연하는 특징이 있다. 말미장귀는 외굿거리라고도 한다. 간혹 시간이 없을 때에는 요령을 들고 이를 구연하기도 한다. 집안에 곡식과 부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구연하기도 하고, 뱀과 관련된 우환이나 탈이 났을 때에 이를 없앨 방법으로 연행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칠성새남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칠성을 종이에 그려 꼬아 만들어서 계란, 쌀 그리고 잔을 놓아 별도의 칠성차롱을 구성하기도 한다. 코사(굿놀이)나 큰굿에서는 이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차려서 하기도 한다.

의의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같은 제주도의 본풀이에서는 외지 신격이 제주도 내지 신격과 자리 잡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을 보인다. 신격 갈등의 전체 면모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동시에 본풀이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 본풀이는 깊은 의미가 있다. 또한 조상신본풀이의 성격을 띠면서 입체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출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참고문헌 제주도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김헌선, 한국고전문학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필자 김헌선(金憲宣)

신화

칠성풀이

상효원조 북두칠성

정의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의 하나 혹은 그것이 구연되는 굿거리의 이름.

역사 굿판을 중심으로 구비전승되는 신화이므로 그 역사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에서 같은 유형의 서사무가가 구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 건국신화〉나 〈제석본풀이〉에 보이는 전형적인 심부담(尋父譚)적 요소나 여성 수난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신화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보면 가장 활발히 전승된 지역은 전라북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 전승본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줄거리 천하궁의 칠성님과 지하궁의 매화부인이 혼인하였으나 오랫동안 자식이 없자 부부는 의논하여 기자(祈子)치성을 드리기로 한다. 과연 치성을 드린 보람이 있어서 매화부인이 임신하여 한꺼번에 아들 일곱을 낳는다. 부인의 출산 소식에 칠성님은 기뻐하여 달려갔지만, 아들을 일곱이나 낳은 것을 알고는 무섭고 징그럽다고 하면서 혼자 천하궁으로 올라가 버린다. 하늘나라로 올라간 칠성님은 옥녀부인에게 다시 장가들어 하늘나라에서 살았다. 뜻밖에 소박을 맞은 매화부인은 아들들을 물에 띄워 버리려고 하지만, 도승이 나타나 그 아이들은 하늘이 아는 아이들이니 잘 기르라고 한다. 아들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자 서당에 보냈더니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월등히 잘하였다. 서당에 같이 다니는 다른 아이들이

일곱 아이의 재주를 시기하고 아비 없는 자식들이라고 놀렸다. 놀림을 받은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조른다. 매화부인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천하궁의 칠성님임을 알려 주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찾아 천하궁으로 올라간다. 아이들은 시험을 통과하여 칠성님의 아들임을 입증한다. 아이들에게 정신이 팔려 칠성님이 집안을 돌보지 않자 옥녀부인은 일곱 아이를 죽일 계획을 한다. 옥녀부인은 중병이 든 것으로 칠성님을 속이고, 점쟁이에게 가 점을 쳐서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고 한다. 칠성님이 점을 치러 가자 옥녀부인은 먼저 가서 자신이 점쟁이인 양 하고는 일곱 아들의 간을 먹어야 나을 병이라고 한다. 칠성님이 기가 막혀 집으로 돌아와 소리 내어 울자 일곱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 그 연유를 알게 된다. 아들들은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지 않느냐고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자신들을 죽여 간을 내어 계모를 살리라고 한다. 칠성님이 아들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자신이 낳은 새끼 일곱 마리의 간을 가져다가 주면 옥녀부인이 꾸민 짓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는 사라진다. 칠성님이 새끼 사슴의 간을 옥녀부인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옥녀부인은 그것을 먹는 척하고는 숨긴다. 칠성님과 일곱 아들은 간악한 옥녀부인을 죽이고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매화부인은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절망하여 연못에 빠져 죽은 뒤였다. 아이들이 환생화를 구해 와서 어머니를 살려 아버지와 잘 살게 하고 자신들은 칠성신이 되었다.



칠성신
국립민속박물관

변이 이 무속신화는 강원도와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두루 전승된다. 함흥 지역의 〈살풀이〉, 평양 지역의 〈성신굿〉, 제주도의 〈문전본풀이〉 등이 같은 유형의 자료들이다.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많은 자료가 채록되었다. 전북 부안군에서 임석재(任晳宰)가 채록하여 『줄포무악(茁浦巫樂)』에 수록한 성씨본, 박소녀본,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김태곤(金泰坤)이 채록하여 『한국무가집』 1권에 수록한 이어인련본(李於仁連本), 전북 정읍시에서 김태곤이 채록하여 『한국무가집』 2권에 수록한 김야무본(金也蕪本), 전북 고창군에서 김태곤이 채록하여 『한국무가집』 3권에 수록한 배성녀본(裵成女本), 전북 전주시에서 최길성(崔吉城)이 채록하여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북도편에 수록한 최문순본(崔文順本), 최장복본(崔長福本), 전북 군산시에서 박순호(朴順浩)가 채록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 5권 4책에 수록한 김옥순본 등의 이본이 있다.

분석 이 신화는 칠성신의 내력담을 담은 무속신화이다. 칠성신은 민간신앙에서 인간의 수명과 화복을 주관하는 신으로 인식된다. 무속의 굿에서는 자식들의 무병장수와 건강, 가정의 안락과 풍성한 재물을 기원하는 의미로 구연한다. 일곱 아들이 글공부를 잘해서 친구들의 시기를 받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다가 어머니를 졸라 아버지의 행방을 탐색하고는,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전형적인 심부담이다. 이러한 삽화(揷話)는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유리가 아버지 주몽을 찾아가 만나는 대목, 〈제석본풀이〉에서 세 아들이 박 넝쿨을 따라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대목 등과 일치한다. 부자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과제가 부과되고 아이들이 그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식임을 인정받는 점도 〈고구려 건국신화〉나 〈제석본풀이〉와 거의 같다. 또한 이 신화 속의 여주인공 매화부인은 단지 아들을 한꺼번에 일곱씩이나 낳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일방적으로 수난을 당하는데, 이는 〈고구려 건국신화〉 속의 유화나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가 겪었던 여성 수난의 모티프와 비슷하다. 또한 억울하게 연못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아들들이 환생화를 구해 와서 살리는 삽화는 제주도 무속신화 〈문전본풀이〉에도 등장하는 것이다. 후처가 전실 자식들을 죽이기 위하여 꾀병을 앓고 점을 쳐서 일곱 아들의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아들들이 산짐승의 도움을 받아 그 간으로 자신들의 간을 대신하고 그 과정에서 후처의 악행이 탄로 나고 징계되는 과정 역시 〈문전본풀이〉와 거의 같다.

의의 우리 서사문학사에서 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계모담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모담이라고 하면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계모담이 이 무속신화나 〈문전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칠성님의 본부인인 매화부인은 착한 아내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남편에게 소박맞고 일방적으로 수난을 당한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칠성님의 후처인 옥녀부인은 악인형 계모이고 칠성님은 그 악처의 꾐에 빠져 사리 분별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가장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어리석고 계모가 그렇게 간악하지만 아들들은 힘을 합쳐 계모의 흉계를 드러내고 응징한다. 간악한 옥녀부인이 징계되고 착한 매화부인이 되살아나는 것은 설화에서 흔히 보이는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상계와 지상계를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도 무속신화에 자주 나타나는 공간 구도이다.

출처 관서지방무가(임석재·장주근, 문교부, 1966), 칠성풀이계 신화(최길성,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북도, 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구비문학대계6-8(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한국무가집1·3(김태곤, 집문당, 1992).

참고문헌 무속신앙(최길성,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북도, 문화재관리국, 1971), 전북씻김굿(이영금, 민속원, 2007), 줄포무악(임석재, 문화재관리국, 1970),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이수자, 우리문학의 여성성·남성성-고전문학, 월인, 2001),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필자 박경신(朴敬伸)

전설

칠월칠석 유래

七月七夕 由來

견우직녀

정의 까치가 놓은 오작교(烏鵲橋)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설화.

역사 칠월칠석 저녁이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한 견우성과 직녀성, 그리고 북두칠성때문에 이 설화가 생겨난 것으로 본다. 이 설화는 고대 중국 설화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후한 때 만든 효당산(孝堂山) 석실의 삼족오도(三足烏圖)에 이미 직녀성과 견우성이 보인다. 최남선(崔南善)은 『조선상식(朝鮮常識)』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이 일 년에 한 번씩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찍이 주대(周代)에 해마다 경험하는 천상의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차츰 탐기적(耽奇的)인 요소가 붙어 한대(漢代)에 와서 〈칠월칠석설화〉가 성립된 것이라고 했다. 1976년 말 평안남도 남포시 덕흥동에서 발굴된 덕흥리 무덤(5세기 초)의 벽에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지는 견우와 직녀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있다.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실로 오랜 역사를 지닌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줄거리 하늘나라 목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가 혼인하였다. 이들이 혼인한 후 놀고먹으며 게으름만 피우자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견우는 은하수의 동쪽에, 직녀는 은하수의 서쪽에 떨어져 살게 하였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건널 수 없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태우면서 지내야 했다. 견우와 직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안 까마귀와 까치들은 해마다 칠월칠석날에 이들을 만나게 해 주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 주었다. 이것이 오작교이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칠월칠석날이 되면 이 오작교를 건너 서로 그리던 임을 만나 일 년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고 다시 헤어진다.

변이 〈칠월칠석설화〉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기본으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와 같은 중국 세시기에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나 이본이 많다. 우리나라에도 〈견우직녀설화〉가 널리 알려졌는데 조금씩 이야기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전한다. 견우와 직녀 대신 짚신할아버지와 짚신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전래하는 예도 있다. 굳이 짚신이 된 까닭은 직조의 별인 직녀처럼 짚신도 짜는 것이기에 생긴 변이로 볼 수 있다.

분석 견우와 직녀에 대한 본격적인 고사는 중국 전한(前漢)의 회남왕 유안(劉安)이 저술한 『회남자(淮南子)』, (B.C. 2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대에 견우성과 직녀성이 인격화되면서 설화로 꾸며졌고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5~6세기)에 이르러 전설의 초기 형태가 생겨났다. 〈견우직녀설화〉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짜임새 있게 자세히 전하는 책은 『제해기(齊諧記)』(5세기)이다.

특징 하늘의 별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칠석의 별자리는 견우와 직녀성 못지않게 북두칠성을 중시한다. 북두칠성은 수명신(壽命神)이어서 칠석 견우성에는 수명장수를 기원하며, 직녀성에는 걸교(乞巧)라 하여 바느질 솜씨를 기원했다. 〈견우직녀설화〉는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

출처 荊楚歲時記, 燕京歲時記.

참고문헌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전호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중국대세시기1·2(국립민속박물관, 2006), 문헌과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본 칠석세시와 전승(김명자, 인문과학연구9, 안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조선상식-풍속·지리·제도(최남선, 영인본, 민속원, 1997).

필자 김명자(金明子)

민담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정의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가 습관을 참지 못하고 꾀를 써서 욕망을 해결한다는 설화.

줄거리 한 마을에 늘 코를 흘리는 사람과 눈에 진물이 나는 사람 그리고 머리에 부스럼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코를 닦고, 눈에 달려드는 파리를 쫓으며, 머리에 난 부스럼 긁는 일을 습관처럼 반복했다. 하루는 떡 한 접시가 생겨 서로 먹겠다고 다투다가 내기를 하기로 했다. 코흘리개는 코 안 닦기, 눈곱쟁이는 눈에 달려드는 파리 안 쫓기, 부스럼쟁이는 머리 부스럼 안 긁기로 하여 이를 지키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했다. 억지로 습관을 참고 있던 부스럼쟁이는 참다못해 꾀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산에서 노루를 봤는데 뿔이 여기에도 돋고 저기에도 돋아 있다고 말하면서 머리에 난 부스럼을 마음껏 긁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코흘리개가 자기에게 총이 있었으면 "탕" 하고 쏴서 잡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콧물을 슬쩍 훔쳤다. 그러자 눈곱쟁이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손사래를 쳐 날아드는 파리를 쫓았다.

변이 이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에 10여 편의 채록본이 존재하는데, 내용은 거의 같다. 다만 명칭이 '코흘리개(코 흘리기 잘하는 사람)', '눈병앓이(눈첩첩이)', '머리헌뎅이(머리 헌 자)'와 같이 다르게 나타나고, 대개 한 마을의 친구로 나타나는 세 사람이 삼 형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부스럼쟁이가 생각해 낸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이 노루 대신 토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는 뿔 대신 토끼 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변이된다. 그렇지만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양상 그리고 행위의 효과는 거의 같다.

분석 우행담에 속하는 이 설화는 우행의 주체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행담의 주인공은 향유자들에게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우월감을 갖게 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특징 눈병이나 부스럼은 환경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병이다. 이 설화의 주인공들은 우스운 이야기 속에서 희화화되고 있지만, 향유자들에게 일으키는 웃음의 공격성은 약하다. 주인공들과 비슷한 환경을 경험한 향유자만이 주인공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웃음의 대상으로 삼아 쾌락을 공유하고자 했던 이 설화에서는 민중의 생활상과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인간 생존의 바탕이 되는 본능적 욕망들을 긍정하는 한편, 공동체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간의 속성들은 교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306,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207; 5, 329.

참고문헌 바보이야기의 유형과 그 의미(이강엽,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박이정, 1997), 한국서사문학의 바보인물연구(한만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필자 강성숙(姜盛淑)

민담

콩쥐팥쥐

정의 계모와 의붓언니 팥쥐의 구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콩쥐가 신이한 존재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변신을 거듭한 후 결국 살아나 계모와 팥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구전 설화 〈콩쥐팥쥐〉의 형성 시기를 추정하기는 힘들다. 구전되던 이 설화가 20세기 초에 와서 기록문학인 〈콩쥐팥쥐전〉으로 소설화되었는데, 이후 설화는 소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콩쥐팥쥐전〉의 출현 시기를 17세기로 앞당겨 잡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20세기 이후 정착된 형태의 소설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줄거리 콩쥐의 어머니가 죽자 계모가 자신이 낳은 딸 팥쥐를 데리고 콩쥐의 집으로 들어온다. 계모는 콩쥐에게 갖은 구박을 하며 일을 시킨다. 하루는 계모가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를, 팥쥐에게는 쇠 호미를 주며 넓은 밭을 매라 한다. 팥쥐는 일찌감치 밭매기를 끝내고 집으로 갔지만 콩쥐는 부러진 호미 때문에 울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검은 소 한 마리가 내려와 쇠 호미를 마련해 주고 밭을 대신 매 준다. 어느 날 계모가 팥쥐만 데리고 외가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는 밑 빠진 독에 물 길어 붓기, 벼 찧기, 삼 삼기, 베 짜기를 마친 후에 따라오라고 한다. 콩쥐가 울고 있으니 두꺼비가 나타나 독의 구멍을 막아 주고, 새들이 날아와 벼를 찧어 주고, 검은 소가 삼을 삼아 주며, 선녀가 내려와 베를 대신 짜 주고 잔치에 입고 갈 옷과 신발을 준다. 그런데 콩쥐는 잔치에 가다 신발 한 짝을 잃어 버린다. 신발을 발견한 원님이 콩쥐에게 돌려 주면서 결국 콩쥐와 혼인한다. 그러자 질투가 난 팥쥐가 콩쥐를 유인하여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는 자신이 콩쥐인 양 행세한다. 꽃으로 환생한 콩쥐가 팥쥐를 괴롭히자 팥쥐는 꽃을 아궁이에 넣어 불태운다. 마침 불을 얻으러 온 이웃집 할머니가 부엌에서 구슬을 발견하고 가져간다. 구슬은 다시 콩쥐로 변신하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원님을 깨우쳐 준다. 원님은 콩쥐의 시신을 찾아 살려 내고 팥쥐를 죽여 계모에게 보낸다. 팥쥐의 시신을 본 계모는 놀라서 죽는다.

변이 이 설화는 〈신데렐라(Cinderella, AT510)〉로 널리 알려진 유형에 속한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인도 게르만 계와 동아시아 계, 아프리카 계, 아메리카 계가 존재한다. 등장인물의 관계나 고난, 조력자 모티프가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동아시아 계 유형은 결혼 이후 여성 주인공의 변신이 지니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중국의 〈싸라기 언니와 겨 동생〉, 일본의 〈고메(米子)와 아와(粟子)〉, 베트남의 〈떰(깨진 쌀알) 깜(겨)〉에서는 〈콩쥐팥쥐〉와 마찬가지로 결혼 후 죽임을 당한 여주인공이 여러 모습으로 환생하는 삽화(揷話)가 등장한다. 또한 의붓언니가 처벌을 받아 죽고, 계모가 시신을 보고 놀라 죽는다는 모티프 역시 같다.

한국 〈콩쥐팥쥐〉는 각편을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고소설 〈콩쥐팥쥐전〉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는 설화이고, 다른 하나는 고소설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티프인 삼을 먹은 소가 항문으로 삼 삼아 내기, 밑 빠진 솥에 밥하기 과제, 팥쥐가 팥죽으로 콩쥐 유인하기가 보이는 설화이다. 그 밖에 '잃어 버린 신발' 모티프가 생략된 채 전승되는 설화군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승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유형군에서는 주인공의 이름도 각각 '콩쥐 팥쥐', '팥조지 콩조지, 콩조시 폿조시', '콩레 팥레' 등으로 달리 나타난다. 콩쥐와 팥쥐의 이름과 역할이 바뀌는 예도 있으나 고소설의 영향으로 결국 '콩쥐팥쥐'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신데렐라〉 이야기가 이 설화의 전승에 영향을 미쳐 이름의 변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분석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이 설화가 갖는 범세계적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이후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이야기의 비교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이 설화는 콩쥐의 결혼 이후 이야기에 초점이 놓여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계모형 소설 혹은 가정소설과 연관하여 주로 소설사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전승과정과 관련해서는 〈콩쥐팥쥐전〉의 형성과정과 출현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 설화의 통과의례적 구조와 상징에 주목하여 한 여성이 자기 세계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으로 작품 세계를 해석하기도 했다. 북한 학계에서는 사회주의적 이념과 주체사상의 관점으로 콩쥐에게 부여된 노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민족적 고유성을 부각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인공들에게 보이는 죽음과 변신 모티프는 농경신화적 성격을 지니는데, 여성성을 증명해야 하는 내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동아시아에서 주인공의 고난과 죽음, 환생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초기 연구가 〈콩쥐팥쥐〉의 범세계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소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념적 지향을 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작품 자체에 논의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작품세계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축적된다면 작품의 의미와 전승 집단의 의식, 전승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배경과 같은 것들이 밝혀질 것이다. 또한 설화와 소설의 관련성과 차별성, 여타 계모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이 설화의 서사문학적 위상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징 구성상 〈신데렐라〉 유형의 이야기에 속한다. 계모의 학대를 극복하고 원님과 혼인하기까지 과정이 그러한데, 남녀 결연담과 계모담이 결합된 것이다. 콩쥐가 팥쥐에게 죽임을 당하고 변신, 환생하여 복수하는 후반부는 동아시아 유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고난과 죽음, 변신과 재생의 과정에서 자기정체성 확인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소설 〈콩쥐팥쥐전〉이 설화의 전승과정에 끼친 영향이 크고, 서구의 〈신데렐라〉 또한 전승과 향유과정에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9, 246; 460; 8-8, 102.

참고문헌 국문학통론(장덕순, 신구문화사, 1963), 조선의 콩쥐팥쥐는 서양의 신데렐라 이야기(최남선, 괴기2, 동명사, 1929), 콩쥐팥쥐의 농경 신화적 성격(이혜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콩쥐팥쥐 이야기 재고(이관일, 겨레어문학6-7, 겨레어문학회, 1972), 콩쥐팥쥐 연구의 경과와 전망(이원수, 어문학61, 한국어문학회, 1997).

필자 강성숙(姜盛淑)

탐색담
탕건바위
태백산
태평한화골계전
토끼와 호랑이
토끼의 간
토끼의 재판
토산여드렛당본풀이
토정
통과제의
통도사
퉁두란
트릭스터담

파송자
파자놀이
파자점
파평윤씨시조신화
파한집
팔봉산
팥죽땀 흘리는 시아버지
팥죽할멈과 호랑이
평강채씨시조신화
표충비
풍속유래전설
풍수담
풍신신화
피바위

ㅌ ㅍ

: 티읕 : 피읖

ㅎ

용어

탐색담

探索譚

정의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탐색주지(探索主旨)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유형.

내용 '探(탐)'과 '索(색)'이 모두 '찾다'는 뜻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탐색이란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것을 뜻하고, 탐색담(探索譚)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탐색담 중 가장 많은 것은 잃어버린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 것인데, 대개는 이것을 찾으러 어디론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내용이 많아 여행담, 혹은 탐험담과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탐색담은 고대의 신화로부터 현대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문학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탐색담을 이루는 탐색주지(탐색화소, 탐색 모티프)는 전 문학사를 아우르는 중요한 서사소(敍事素)라 할 수 있으며, 신화 원형 혹은 문학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입사식(入社式, initiation)과 같은 통과의례에서도 숨겨 놓은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 과정이나 절차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탐색주지를 담고 있는 신화나 민담들은 이와 같은 입사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설화에서는 탐색의 대상이 주로 공주나 아버지 혹은 숨겨 놓은 물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대 소설에 이르면 자아(自我)를 찾는 탐색 과정이 많이 그려지고 있다.

필자 이수자(李秀子)

전설

탕건바위

정의 탕건 모양의 바위가 생긴 내력에 관한 설화.

줄거리 〈탕건바위전설〉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전한다. 첫째, 옛날 덕이 있는 한 선비가 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오다 갑자기 내린 비에 물이 불어난 탓에 죽고 말았다. 선비가 죽은 자리에 평소 선비가 쓰고 다니던 탕건 모양의 바위가 솟아올랐다. 6~7월에 냇물이 이 바위 중간 부분까지 올라오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둘째, 옛날에 처녀를 남몰래 사모하던 총각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는 처녀를 기다리다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총각을 만나지 못했던 처녀가 바위 위에 돌을 얹어 탕건 모양을 만들고 의복을 씌운 후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처녀가 총각 곁으로 가기 위해 바위 곁에 앉아 거울을 놓고 단장을 하는 순간, 뇌성벽력과 함께 비가 쏟아지면서 처녀와 거울이 각시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변이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들이 급제 여부를 점치던 바위를 탕건바위라 부른다.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에서는 산돼지를 잡아 바위 위에 피를 뿌리거나 바위를 새끼줄로 묶어 들어 올리는 시늉을 하면서 노래부르고 풍물을 치는 '탕건바위 놀이'를 행한다. 이는 일종의 기우제로, 자신의 집이 더럽혀진 데 화가 난 용이 이를 씻어내기 위해 비를 내린다는 관념에서 유래한 제의적 놀이이다. 또한, 새끼줄로 바위를 묶어 들어 올리는 것은 바위 밑에 장수가 숨겨 놓은 보물이 있고 이를 용이 지키고 있다는 관념에서 유래한 행동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보물을 모두 파내 버리겠다는 협박조의 의미가 담긴 주술적 행위다. 경북 울진 지역에서는 용왕제를 올리지 않아 배가 바위에 부딪혀 좌초한 일이 있었던 후부터 탕건바위에서 별신굿을 지냈다고 한다. 경북 영천 지역에서는 더벅머리 총각과 사랑에 빠진 만석꾼의 딸이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탕건바위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를 안 총각이 날마다 바위에서 통곡하다가 소복한 여인에게서 "바위를 깨뜨리라."라는 말을 듣고 바위를 깨기 시작했다. 바위가 탕건 모양으로 깨진 어느 날, 뇌성벽력이 치고 비가 쏟아지자 육중하던 바위가 흔들리면서 피가 쏟아졌다. 그 후 만석꾼은 거지가 되고 총각은 바위에서 만석꾼 딸의 뒤를 따랐다.

분석 이 전설은 거석신앙(巨石信仰)과 연관된 서사로 해석할 수 있다. 전국에 분포한 대부분의 탕건바위에서는 주술적인 행위나 의례가 시행되는데, 물과 연관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탕건바위전설〉 중에는 기우제의 기원이나 별신굿의 내력을 밝힌 이야기들이 있다. 또 다른 부류의 전설은 이루지 못한 남녀 간의 사랑에 얽힌 이야기로 〈망부석설화〉의 한 부류로 볼 수 있다. 탕건바위는 이처럼 용이나 장수가 깃들어 살거나 이루지 못한 사랑의 원한이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의의 이 전설은 주술적인 행위가 치러지는 암석의 기원을 밝히는 이야기 혹은 기우제와 별신굿과 같은 공동체 핵심 의례를 처음 지내게 된 내력을 밝히는 이야기로 전승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홍수설화〉나 〈망부석설화〉의 성격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8) 6-6, 90; 7-5, 48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참고문헌 암석숭배로서 거석문화에까지(최남선, 동광2-1, 동광사, 1927), 암석숭배설화고(박용식, 어문논집24·2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5).

필자 김영희(金玲希)



태백산 장군당
강원 태백시 소도동, 2008.10.4, 김도현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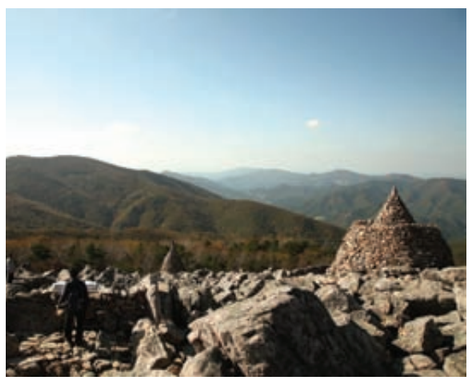
태백산

太白山

정의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태백산과 관련한 전설.

역사 태백산은 신라 때 중사(中祀)를 설치하고 산신제를 지냈던 명산으로, 단종이 억울하게 죽은 후에 태백산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영월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다.

줄거리 영월 관풍헌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단종은 1457년 10월 24일, 세조의 명으로 사약을 가지고 온 금부도사 왕방연에 의해서 17세의 어린 나이로 승하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단종이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고 믿는다. 추익한은 1434년 한성부윤의 관직을 버리고 영월 상동면 연상리 고비덕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추익한이 어느 날 단종을 알현하고자 영월로 향하던 중에 연하리 계곡에서 곤룡포 차림으로 백마를 타고 가는 단종을 만났다고 한다. 추익한이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자 단종은 태백산으로 간다며 자취를 감추었다. 단종의 죽음을 알게 된 추익한도 숨을 거두었다고 전한다.



태백산 천제단
강원 태백시 소도동, 2009.10.3, 김도현

변이 추익한은 영월 중동면 수라리에 살고 있었다고도 하며, 머루와 다래를 챙겨 가지고 수라리재를 넘자 영월 쪽에서 하얀 말을 타고 단종이 오고 있었다고 한다. 단종이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라 하므로 읍내로 달려가니 이미 단종이 승하한 뒤여서 다시 수라리재로 갔으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한다. 영월읍 연하리 두평마을 설화에는 추익한이 산머루를 따서 가지고 연하리 계사폭포에 이르렀을 때 백마를 탄 단종을 만났다고 한다. 단종을 만난 장소가 수라리재, 연하리 계곡, 연하리 계사폭포, 연하리 두평마을 등으로 나타난다.

분석 단종이 태백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음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영남야언〉에 전한다. 단종이 해를 당하던 날 저녁에 추익한이 일이 있어 관에 들어가다가 길에서 백마를 타고 동곡으로 달려 올라가는 단종을 만났다. 길가에 엎드려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단종이 돌아보며 태백산으로 놀러 간다고 해서 백성들이 관에 들어가니 벌써 해를 당한 뒤였다고 한다.

특징 태백산은 신라 이래 국가치제(國家致祭)로 산신제를 수행한 곳으로서, 이곳의 산신신앙과 단종 숭배가 융합해서 확장되는 설화적 특징을 보인다.

의의 단종의 혼백을 태백산의 신령으로 승화시킨 설화로, 단종이 죽어서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 한다. 영월읍 중·동부 지역인 하동면, 중동면 상동읍 일대에서는 단종을 신격으로 모신다. 단종을 산신, 성황신과 별개로 인식하거나 동일시하는데, 이는 단종이 태백산으로 향했다는 노정과 관련이 있다. 영월 지역민들의 단종에 대한 숭배의식이 다양하게 설화로 반영되었다.

출처 燃藜室記述, 莊陵誌,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2-3, 314; 2-4, 469; 2-8, 57.

참고문헌 단종신앙과 제의연구(김의숙, 강원문화사연구2,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단종의 신격화과정과 그 의미(김효경, 민속학연구5, 국립민속박물관, 1998), 영월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학교박물관, 1995), 영월단종제 민속조사보고서(장정룡 외, 영월군, 2007), 영월지역 단종관계 언어전승물의 서사세계와 지역민의 의식세계(강진옥,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필자 장정룡(張正龍)

자료

태평한화골계전

太平閑話滑稽傳

정의 조선 성종 때에 서거정(徐居正)이 편찬한 한문으로 된 소화집(笑話集).

내용 이 책은 1477년(성종 8)에 지어져서 1482년(성종 13)경에 간행되었다. 강희맹이 쓴 서문에는 본래 4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나 그 원본이 전하지 않아 완전한 모습은 알 수 없다. 현재 전하는 이본은 모두 5종이다.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 일사 방종현 선생 구장본을 등사한 프린트본, 민속학자료간행회에서 간행한 『고금소총(古今笑叢)』 속에 들어 있는 프린트본, 일본 텐리대(天里大) 금서문고(今西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백영 정병욱 선생 소장 필사본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이본들은 완질본이 아니라, 그중 일부의 내용들만 남아 있는 것들이다. 서거정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세상에 대한 근심을 잊어버리고자 친구들과 우스갯소리 했던 것을 쓴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당대 지식인들이 주고받았던 소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은 현전하는 국문학사상 최초의 대규모 순수 설화자료집으로 후대 소화집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필자 박경신(朴敬伸)

민담

토끼와 호랑이

표제어 꼬리 잘린 호랑이, 토끼의 재판

민담

토끼의 간

정의 동물담으로 토끼가 꾀를 내어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인도의 본생설화(本生說話, Jataka) 중에 전승되는 이야기를 근원설화로 하며 중국 『육도집경(六度集經)』 같은 불경을 거쳐서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한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1 「열전」 김유신(金庾信) 상에 실린 것이다. 그 이후로 판소리 〈수궁가〉와 판소리계 소설 〈토끼전〉의 삽입설화가 되기도 하였으며 토끼의 지혜를 보여 주는 한 일화로 구비전승되기도 했다.

줄거리 용왕이 병이 들었는데 토끼의 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하여 신하 중에 자라를 보내 토끼를 데려오게 한다. 자라가 산으로 가 토끼를 만나서는 수궁에 가면 대단한 벼슬을 할 수 있을 거라며 꾄다. 토끼는 자라의 꾐에 넘어가 자라의 등에 업혀 수궁으로 간다. 수궁에 도착하자 용왕의 신하들이 토끼를 잡아 간을 꺼내려 한다. 토끼는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며 자라가 처음부터 자신의 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더라면 가지고 왔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 두고 왔다고 대답한다. 용왕이 그 말을 믿지 않자 자신의 밑을 보여 주면서 "하나는 오줌 싸는 구멍, 하나는 똥 싸는 구멍, 하나는 간을 뺐다 들였다 하는 구멍"이라고 대답한다. 용왕은 구멍이 셋 있는 것을 보고는 토끼의 말을 믿고 간을 가져오라며 자라와 함께 육지로 돌려보낸다. 자라 등에 업혀 육지에 돌아온 토끼는 자라에게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어디 있냐며 자신을 속인 자라에게 욕을 하고 산속으로 도망간다.

변이 관련 설화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예는 『삼국사기』의 〈구토지설(龜兎之說)〉 혹은 〈구토설화(龜兎說話)〉인데 후대의 설화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용왕이 아닌 용왕의 딸이 심장병에 걸린다. 둘째, 거북이가 토끼를 속이기 위해 하는 말이 수궁에는 자원이 풍부한데다가 매나 독수리와 같은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거북이가 용궁에 도착하기 전에 토끼를 데려가는 이유를 미리 말해 버려서 토끼가 간을 두고 왔으니 돌아가자고 한다. 특히 용왕 자신의 건강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고 결국 토끼와 용왕이 대면한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구토지설〉에서는 거북이와 토끼의 대결이라 상하 관계가 없으나 후대 설화에서는 적대자가 용왕이 되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 된다. 또한 〈구토지설〉은 거북이가 토끼를 설득하는 내용이 동물로서 토끼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물우화의 성격이 강하나 자라가 벼슬을 주겠다며 토끼를 설득하는 후대의 판소리나 설화는 오히려 봉건사회를 상징하는 등장인물 관계가 설정된다. 판소리인 〈수궁가〉나 판소리계 소설인 〈토끼전〉과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설화를 비교하면 줄거리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이야기의 전개가 무척 정교하고 등장인물 묘사나 그들의 대화가 매우 상세히 서술된다. 반면에 구전설화는 삽화적이며 보다 간략한 이야기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장르 차이로 볼 수 있다. 판소리에서는 토끼의 간에 관한 이야기에 덧붙여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그물에 걸렸을 때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쉬파리에게 자신의 몸에 알을 낳아 달라고 해 죽은 척하여 살아남는 등 흥미를 돋우기 위한 삽화(揷話)가 추가된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민담에서도 이 삽화가 토끼의 간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판소리와 소설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분석 설화에 등장하는 토끼는 대체로 힘은 없지만 꾀가 많아서 호랑이나 인간 같은 강자들의 위협을 기지로 이기고 위기를 모면한다. 〈토끼의 간〉 역시 권력이 있는 강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꾀로 위기를 모면하는 약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용왕, 자라, 토끼와 같은 동물이나 상상의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봉건사회의 인물에 해당한다. 즉, 용왕은 통치자, 자라는 신하, 토끼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설화에서 반영되는 사회상은 국왕이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 신하가 백성을 돕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통치자가 백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신하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그 착취에 직접 나서는 역기능 사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설화는 봉건체제를 제 기능을 못 하는 사회로 인식한 데에서 유래하며 그 체제를 비판하고 붕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특징 한국의 〈토끼의 간〉은 인도의 설화가 중국을 통해 한국에 전파된 설화인데, 근원설화와 차이점이 있다. 인도 설화는 악어 부부가 원숭이의 심장을 노리는 것이고, 중국 설화는 자라 부부나 규룡(虯龍) 부부가 원숭이의 간 혹은 심장을 노린다. 이처럼 등장인물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간이나 심장을 노리는 이유도 부인의 필요 때문에 남편이 나서서 표적의 장기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들 설화와 비교했을 때 이야기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토끼의 간〉은 부부가 아닌 용왕과 자라라는 임금과 신하가 등장하기 때문에 한 가정의 문제에서 한 사회의 문제로 이야기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서로운 동물 그림 병풍
온양민속박물관

의의 이 설화는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다. 만약 이것이 봉건사회에 제한되었더라면 지금까지 구전설화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봉건 군주나 신하가 현대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강자의 변덕에 따라 약자가 이용당하거나 휘둘리는 사회임엔 변함이 없다. 약자가 강자와 강자의 앞잡이를 바보로 만들어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를 유발하는 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토끼가 남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인물이라 〈토끼의 간〉은 사회체제에 맞서서 이기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도 할 수 있다.

출처 三國史記, 토끼전 전집(인권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6, 298; 7-4, 167.

참고문헌 민담의 한국화 변이양상(성기설,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토끼전·수궁가 연구(인권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토끼전 연구(김동건,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트릭스터 토끼 설화군의 계통(김기동, 한국사상과문화 4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나수호(那秀昊)

민담

토끼의 재판

정의 은혜 잊은 호랑이를 꾀 많은 재판으로 다시 함정에 빠뜨린 토끼에 대한 설화.

역사 꾀 많고 지혜로운 토끼의 형상은 일찍이 인도의 불경 『본생경(本生經)』에 실린 〈용원설화(龍猿說話)〉의 원숭이와 『삼국사기(三國史記)』 김유신 조에 나오는 〈구토지설〉의 토끼, 판소리 〈수궁가〉와 고전소설 〈토끼전〉의 토끼와 닮았다.

줄거리 옛날 어떤 사람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만난다. 호랑이는 그를 보자 살려만 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애원한다. 그 사람은 함정의 문을 열어 호랑이를 구해주지만, 함정에서 나온 호랑이는 그를 잡아먹겠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억울하니 재판을 해 보자고 호랑이에게 제안한다. 호랑이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 줄 곳만 찾아간다. 먼저 바위에게 가서 부탁하는데, 평소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바위는 호랑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다음으로 토끼한테 가서 재판을 부탁하자 토끼는 호랑이가 빠졌던 함정으로 가 보자고 한다. 함정에 도착하자 토끼가 호랑이에게 함정에 어떻게 빠졌는지 다시 들어가 보라고 한다.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따라 다시 함정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본 토끼는 사람에게 함정의 문을 닫게 한다. 이렇게 토끼는 사람을 위해 현명한 재판을 해 주고는 떠난다.

변이 〈토끼의 재판〉은 각 인물에 부여된 역할이 분명하여 각편에 따른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사람이 사냥꾼이나 중으로 바뀌는데, 그 역할에도 차이가 없다. 보조 재판관 역시 바위, 나무, 가재로 바뀌며 등장하지만, 사람에게 부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역할은 같다.

분석 이 이야기는 자기중심성에 빠진 호랑이의 비극적 결말과 토끼의 탈중심화된 행동을 보여 주어 성장기 아동들에게 탈중심화를 자극할 만한 문학적 도구로 이해된다. 한편,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착취자로, 약하지만 지혜로운 토끼를 민중으로 보아 착취자에 대한 민중의 승리로도 해석한다.

특징 설화에서 토끼는 약자를 대변하는 지혜로운 인물이기도 하지만 비도덕적이고 잔혹한 인물이기도 하다. 전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토끼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고, 후자는 원초적이고 유년기적인 심성을 반영한 트릭스터적인 토끼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의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토끼는 약자이지만, 부당한 상황에서 강자에게 지혜로써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는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는 자이다. 또한, 아동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꾀 많은 토끼는 자기중심성을 가진 아동에게 발달론적 자극을 제공하여 탈중심화를 이끄는 문학적·교육적 상징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2, 706; 7-16, 359.

참고문헌 구비문학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원형(김필래,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민담의 한국화 변이양상(성기열, 구비문학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화문학개설(장덕순, 이우, 1975), 한국의 호랑이 민담 연구(황정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한국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기호(金基鎬)



영모도
국립민속박물관

신화

토산여드렛당본풀이

정의 여드레한집을 모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2리 토산여드렛당의 본풀이.

줄거리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은 제주도 무속의례와 본풀이를 두루 정리한 대표적인 저작이다. 토산여드렛당과 관련한 의례와 본풀이도 함께 수록되었으므로 이 저작을 바탕으로 삼아 줄거리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전라남도 나주에 나주목사가 임기를 계속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자, 어떤 한 선비가 자신을 목사로 시켜 주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며 나섰다. 선비가 목사가 되어 나주에 있는 금성산으로 들어서자 하인들이 영기가 있는 산이라며 목사에게 말에서 내릴 것을 권하였다. 목사가 거부하며 계속 나아가자 말이 발을 절었고, 청기와 집에서 아기씨의 모습을 한 귀신과 만나게 되었다. 목사가 아기씨에게 본래 모습을 보이라 하니, 아기씨는 위 아가리는 하늘에 붙고 아래 아가리는 땅에 붙은 큰 뱀이 되어 나타났다. 목사가 청기와 집을 불태우니 뱀은 금바둑돌과 옥바둑돌로 변하여 서울 종로 네거리에 떨어졌다. 마침 제주에서 강씨 형방, 오씨 형방 등이 육지에 진상하러 갔다가 이 바둑돌을 주웠지만,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여겨 바둑돌을 다시 던져 버렸다. 이들은 제주도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 배를 띄울 수가 없자 점을 쳤고, 강씨 형방의 보자기에 바둑돌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바둑돌을 위하여 굿을 하자 바다에 바람이 불어 제주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배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열운이)에 닿자 바둑돌은 아기씨로 변하여 열운이 당신(堂神) 맹호부인에게 인사를 하였다. 맹호부인은 자신이 열운이마을의 토지관이라며 아기씨에게는 토산리로 가라고 하였다. 아기씨가 길을 가는데 하천리 당신인 개로육서또가 나타나 손목을 잡자, 아기씨는 더럽다며 자신의 손목을 칼로 깎아 버렸다. 아기씨가 토산리에 좌정하고 용왕국에 인사를 드리니 용왕이 아기씨에게 어찌하여 피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다. 아기씨가 개로육서또와 있었던 일을 말하니 용왕은 오히려 아기씨를 꾸짖었고, 그 뒤 아기씨는 개로육서또와 언약을 맺었다. 하루는 아기씨가 느진덕정하님과 함께 빨래하러 갔는데, 파산한 배에 있던 도둑에게 쫓기다가 결국 겁탈당하고 죽었다. 아기씨는 예묻은동산에 묻혔는데 얼마 뒤 아기씨 혼령이 방아를 찧던 가시리 강씨 형방의 딸아기에게 의탁하였다. 강씨 형방의 딸아기가 정신이 혼미해지자 점을 쳤더니 마을에 아기씨 혼령이 들어와서 큰굿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굿이 시작되니 아픈 딸아기가 일어나 누구를 위한 굿이냐고 물으니 부모는 딸아기를 위한 굿이라고 대답하였다. 딸아기는 자신을 위한 굿이면 궤상 연갑을 열어 아버지가 육지에 갔을 때 가져온 물명주와 강명주를 끊어 맺힌 간장을 풀어 주라고 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가 궤상 연갑을 열어보니 물명주와 강명주 틈에 작은 뱀이 말라 죽어 있었다. 백지에 뱀의 모습을 그리고 명주의 고를 풀며 뱀의 맺힌 간장을 풀어 주니 딸아기의 신병이 나았다. 아기씨는 동짓달과 유월 초여드레, 열여드레, 스무여드레에 제를 받는 당신으로 좌정하였다.

변이 이 본풀이는 1930년대에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처음 채록하였다. 그 뒤로 현용준, 진성기, 장주근이 1970년대까지 꾸준히 채록하였고, 현재도 종종 채록되고 있다. 구연하는 심방(무당)에 따라 서사의 상세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한 변이나 지역적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표선면 토산리는 1리와 2리로 구성된 마을이다. 1리는 윗마을로 '웃토산'이라 하고, 2리는 아랫마을이어서 '알토산'이라고 부른다. 이 본풀이는 알토산본향당에서 전승되는 본풀이이다. 알토산마을은 조선시대 삼읍체제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인 정의(旌義) 지역에 속해 있다. 따라서 토산여드렛당을 '정읫한집' 또는 '정읫본향'이라고도 한다. 토산여드렛당은 주로 여성의 혼인을 기회로 정의 지역인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을 중심으로 서귀포시와 중문, 안덕면 일대까지 신앙이 퍼져 나갔다. 신앙민들이 토산여드렛당을 해당 마을로 나눠서 가져간 것이다. 토산여드렛당이 곳곳에 퍼져 가면서 당본풀이도 자연스럽게 해당 마을마다 전승되었다. 다만 이러한 당본풀이들은 본래 〈토산여드렛당본풀이〉에 견주어 매우 축약된 형태로 구연한다. 신의 유래와 제일(祭日) 정도만 간단히 전승되고 있다.

분석 이 본풀이의 서사적 구성을 살피고 방울풂과 같은 의례와 관련한 양상을 살피는 관점에서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다. 더불어 이 본풀이는 뱀신앙과 관련한 대표적인 본풀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주도 사신신앙(蛇神信仰)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하게 검토되었다. 또한 당신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 본풀이와 해당 마을 주민의 생활 양상을 파악한 연구도 있다.

특징 이 본풀이는 굿에서 방울풂이라는 의례와 관련이 있다. 방울풂은 긴 무명을 매듭지어 놓고 이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신의 맺힌 간장을 풀어 주는 제차이다. 토산당굿뿐만 아니라 토산여드렛당과 관련된 일반 개인 집의 굿에서도 행해진다. 한편, 제주도내의 대표적인 뱀신앙이라 다른 마을의 주민은

이를 탐탁하지 않게 여겨 알토산 주민은 혼인과 교류 등에서 난관을 겪기도 하였다.

의의 〈토산여드렛당본풀이〉는 제주도 지역 당본풀이 가운데 풍부한 서사를 간직한 편이다. 또 당신과 조상신의 신앙 양상을 두루 담고 있기도 하다. 주로 여성의 혼인을 통하여 여드렛당신앙이 제주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확대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제주도 내에서 정의 지역 무속신앙은 본향을 매우 중시하는데, 여기에는 토산여드렛당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양창보 심방 본풀이(허남춘 외, 보고사, 2010),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조선무속의 연구-상(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참고문헌 제주도 당신앙 연구(문무병,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현용준·현승환, 탐라문화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토산당본풀이 연구(김동섭,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토산알당한집 본풀이 연구(양영자, 영주어문7, 영주어문학회, 2004).

필자 강소전(姜昭全)

전설

토정

土亭

표제어 이지함

용어

통과제의

通過祭儀

정의 개인이 생을 살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하는 의식.

내용 네덜란드계 프랑스 인류학자인 반 헤네프(A. Van Gennep)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인간 개체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 변화에 따르는 의례 행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것은 출생, 성장, 결혼, 죽음 등의 생물학적 단계와 결부되어 있다. 이전의 사회적 지위나 상태에서 격리시키는 '분리' 단계,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거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전이' 단계, 새로운 세계의 일원이 되거나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는 '통합' 단계로 구성된다. 탄생의식, 성년식, 결혼식, 이·취임식 등 다양한 의례들 사이에 구조적인 상동성이 있다.

신화와 의례의 상동성을 밝힌 제의학파는 통과제의(通過祭儀)를 다양한 문화, 예술의 구조나 원형으로 재조명한다. 또한 의례에서 치러지는 각종 상징적 행위나 모티프는 문학, 예술의 원천이다. 신화에서 소설에 이르기까지 서사문학에서는 주인공이 집을 나와 모험을 하면서 시련을 겪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며, 이후 부와 명예를 누리는 보편적인 구조를 보인다. 이 같은 이야기의 구조가 통과제의의 구조와 흡사하다.

필자 오세정(吳世晶)

전설

통도사

通度寺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통도사(通度寺)의 창건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줄거리 자장(慈藏)이 중국 오대산 문수대성의 소상 앞에서 수도할 때, 꿈에서 소상이 자장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계를 주었다. 이튿날 이승(異僧)이 나타나 자장에게 게송을 풀이해주고 가사와 사리를 주었다. 태화지(太和池)에서 신인이 나타나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고 사리를 모시면 외적의 침입을 막으리라 했다. 신인은 황룡사 호법룡이 자신의 장자라면서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 주면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자장은 다시 종남산 운제사에 가서 3년 동안 수도하였다. 646년



통도사 대웅전과 금강계단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화재청

(정관 7)에 선덕 여왕이 당 태종에게 자장의 귀국을 요청하였다. 자장은 분황사에 살면서 왕의 애호를 받았다. 자장은 황룡사 구층탑을 세웠고, 중국 오대산에서 가져온 사리를 황룡사 구층탑, 대화사탑, 통도사 계단에 나누어 모셨다. 또한 자장은 나라 안의 사람들에게 계를 주면서 불법을 융성하게 하였다. 승려가 되려는 자가 해마다 늘어 통도사를 세우고 계단을 쌓아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변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위의 설화는 「탑상」 황룡사구층탑 조와 「의해」 자장정률 조의 이야기를 결합한 통도사 창건의 연기설화(緣起說話)이다. 자장의 전기를 구성하는 와중에 통도사 창건담이 끼어들어 간 형국이다. 1328년에 석호(釋瑚)가 기록한 『통도사지(通度寺誌)』의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에는 서해의 용이 용궁으로 자장을 청해 용궁의 보배인 자단압침을 바치면서, 절을 지어 사리를 봉안하면 탑을 돌며 호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범승이 자장에게 취서산(영취산) 아래의 독룡지(毒龍池)를 메우고 금강단을 쌓아 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 삼재(三災)를 면하고 불법이 오래 머물며 천룡(天龍)이 항상 옹호할 것이라 했다. 앞선 줄거리의 중국 태화지의 용이 서해의 용으로 바뀌고, 독룡의 피해를 막아 백성을 구하고 불법을 지키는 것으로 통도사의 창사 연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문헌설화들을 수용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구술되던 용신 모티프들을 첨가하여 형성된 것이라 하겠다. 현전하는 구비설화는 자장과 용이 대결해 결국 독룡을 몰아내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불법을 설함으로써 용을 굴복시키는 것과는 다른 면모라 하겠다.

분석 이 설화는 고승의 전기가 사찰 연기설화로 확장되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양상을 잘 보여 주는 서사물이다.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면서 승려가 되고자 하는 백성들을 받아들이려 통도사를 창건했다는 〈자장전〉의 짧은 이야기는 통도사의 기록 속에 독룡을 진압하는 과정으로 흥미롭게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재래신앙이라 할 용 신앙이 불교 신앙과 대결하여 결국 불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음을 잘 보여 주는 설화가 〈통도사연기설화〉이다.

의의 이 설화는 승전(僧傳)과 사지(寺誌), 민간 설화가 뒤섞이면서 용신 신앙과 불교 신앙 사이의 교섭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변이 양상을 다양하게 보여 주면서 통도사의 창건 유래를 흥미롭게 전하고 있는데, 신앙 체계의 변화와 불교사를 살피는 데 그 의의가 깊다.

출처 三國遺事, 통도사지(한국학문화연구소, 아세아문화사,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9, 916; 8-13, 27.

참고문헌 용신창사설화의 형성과 의미(이준곤,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김승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오대혁(吳大赫)

전설

퉁두란

佟豆蘭

정의 이성계의 조선 창업 과정에서 일등 공훈을 세운 여진족 출신의 퉁두란에 관한 설화.

줄거리 퉁두란은 억새 잎으로 탯줄을 끊고 태어났다. 퉁두란은 성장하여 이성계와 결의형제가 되었는데 내기에서 지자 함경남도 북청으로 피난 갔다. 북청 안골 심산 대바위 위에 절을 지었는데 왜놈들이 습격해 오자 팥 열 알을 쥐고 미리 지붕으로 피난 가면서 어미에게 억새 잎으로 탯줄을 끊고 태어난 사실을 왜놈들에게 발설치 말라고 하였다. 어미를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낸 왜적들이 억새 잎을 가지고 지붕으로 찾아갔다. 퉁두란이 숨어 있던 석문을 왜적들이 억새 잎으로 치자 퉁두란이 팥알로 반격했으나, 열 알을 다 쓰고 나서 붙잡혀 죽었다. 퉁두란을 화장해서 묻었는데 묘를 파보니 뼈가 삼층으로 묻혀 있고 팥알 몇 개가 들어있었다. 이장하여 북청 어느 절에다가 무덤을 새로 썼다고 한다.

변이 남한 지역의 〈퉁두란전설〉은 한국 신화의 전형적인 건국조 자질을 지닌 신화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퉁두란은 창업의 목적과 의지가 결여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이성계에게 종속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 〈퉁두란전설〉에는 이성계를 압도하는 퉁두란의 물리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 용상이 몸에 붙는 초자연적인 징험 내기를 통해 퉁두란에게 천부의 왕권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퉁두란을 용상으로 상징한 조선의 왕권을 두고 이성계와 대결하다가 패배하는 인물로 형상화한다.

분석 북한 지역에 전승되는 이 전설의 서사 단락은 〈우투리전설〉에 대응된다. 여진족 퉁두란이 한민족의 설화적 민중 영웅인 우투리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성계의 상대로 호남 지역 〈우투리전설〉을 가져와 북한 지역사의 일부를 차지하는 여진족 출신 퉁두란을 대입시키면서 이 전설의 서사 골격에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투리와 이성계의 대결을 축소하고 그 본격적인 대결을 퉁두란과 왜적의 대결로 대체한다. 그

용어

트릭스터담

Trickster Tale

정의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물 원형인 트릭스터(trickster)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화.

역사 트릭스터담 그 자체는 아마도 인간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트릭스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브린톤(D. Brinton)이 불어 단어인 'fourbe'를 'trickster'로 영역해서 인물 원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19세기부터였다. 트릭스터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20세기 중엽에 라딘(P. Radin)의 단행본 연구서가 출판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북미 원주민 구비문학이 트릭스터 연구의 주를 이루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트릭스터 인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초부터 트릭스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내용 트릭스터담은 설화의 내용이 아닌 주인공에 의해 규정되는 개념이므로 트릭스터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먼저 트릭스터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설명되어야 한다. 먼저 백년 이상 진행되어 온 서양 트릭스터 연구를 보면 초기부터 현대까지 트릭스터에 대한 이해가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트릭스터의 이중성, 즉 남을 속이면서 이기는 이야기도 있는 한편 바보같이 속아 넘어가면서 지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초기 연구자들은 이런 이중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이를 해석하려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연구자들은 트릭스터의 이중성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트릭스터의 성격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로 보기 시작했으며, '경계성'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경계성이란 인간 사회에서 규정한 범주나 규칙, 지위와 같은 요소로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그 경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 위치는 사회구조를 비판하기에 이상적이다. 사회구조에 속해 있으면 기득권이 있어서 비판하기 어렵고 사회구조에서 배제되어 있으면 영향을 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트릭스터 연구도 이런 점에 주목하여 트릭스터의 이중성, 중의성, 또는 경계성에 대해 논했다. 그런데 경계성은 트릭스터에게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트릭스터는 지나친 욕심으로 정의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탐욕이든 식욕이든 성욕이든 트릭스터는 이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트릭스터는 속임수(trick)를 잘 사용하는 인물인데, 이러한 성격이 가장 눈에 잘 띄기에 트릭스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따라서 트릭스터담의 범주에 속하는 설화는 주인공이 상대방을 속이는 사기담이 많다. 거짓말로 상대방을 현혹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무료로 숙식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트릭스터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반드시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등장해야 트릭스터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겨울에 삼베옷을 입으면 찬바람이 그냥 지나가서 춥지 않다는 말장난이나,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여자 옆에 가서 자기 몸에서 나온 촌충이 죽었다면서 통곡함으로써 어이없는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도 트릭스터담이 될 수 있다. 즉 트릭스터가 경계적인 인물이기에 인생이나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재미있는 말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술집 주인이 외상술을 주지 않자, 술집 주인이 준비한 술밥을 돼지가 먹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는 "돼지는 맞돈을 내고 먹는 줄 알았다."라고 하며 앙갚음을 하는 이야기도 속임수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트릭스터의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그리고 성욕이 강하고 금기를 무시하는 트릭스터가 모르는 여자에게 접근하여 입을 맞추는 이야기도 여러 편이 있다. 요컨대 트릭스터담은 트릭담(trick tale) 혹은 사기담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트릭스터로 인정되는 인물이 등장해서 트릭스터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특징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트릭스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여러 문화의 비슷한 인물을 트릭스터라는 보편적인 범주 혹은 원형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었다. 그러나 어떤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인물들을 지나치게 보편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보편적인 원형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계 트릭스터담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 트릭스터담의 특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트릭스터 연구의 출발점이 된 북미 원주민의 트릭스터담에는 트릭스터가 남을 속이는 이야기도 많지만 스스로 속는 이야기도 많다. 그러나 한국 트릭스터담의 경우에는 트릭스터가 스스로 속는 이야기가 거의 없고 남에게 당하는 이야기도 드문 편이며 트릭스터가 상대방을 이기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북미 원주민 트릭스터담의 배경이 되는 사회는 평등한 부족사회이지만, 한국 트릭스터담의 배경이 되는 사회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 트릭스터가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공격하려면 권력자와의 대결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트릭스터가 권력자와만 대결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나 관료와 같은 권력자를 이기는 이야기가 있는 한편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트릭스터담이 신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트릭스터가 언제나 힘이 없는 약자를 옹호하는 민중영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트릭스터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인물인 것이다.

의의 트릭스터담은 결국 사회의 현상(現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해 반문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 물론 권력자를 속이는 것과 같은 눈에 띄는 방법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릭스터는 경계적인 위치에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인물이다. 트릭스터는 인간사회가 세워 놓은 것을 모두 헐어 버리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으면 다시 등장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헐어야 할 것을 헐기 위해 나선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에서 구조와 질서가 존재하는 한 트릭스터담도 계속해서 전승될 것이다.

참고문헌 속임수의 명수들(김열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트릭스터담 연구(조희웅, 어문학논총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호랑이 이야기를 중심으로(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방학중·정만서·김선달을 중심으로(나수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The Hero-God of the Algonkins as a Cheat and Liar(D. Brinton, American Antiquarian, 1885), The Trickster(P. Radin, Greenwood Press, 1956).

필자 나수호(那秀昊)

용어

파송자

派送者, Dispatcher

정의 구조주의 민담학에서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인공을 파견하거나 주인공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인물 유형.

내용 파송자는 러시아 민담학자 블라디미르 프로프(V. Propp)가 설정한 민담의 등장인물(Dramatis Personae)들 중 한 유형이다. 프로프는 민담의 등장인물을 악마(villain), 증여자(donor), 조력자(helper), 탐색대상(sought-for person and her father), 파송자(dispatcher), 주인공(hero), 가짜주인공(false hero)의 7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중 파송자는 주인공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왕이나 천자, 또는 대감이나 부자 등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지하국대적퇴치설화〉에서 대적에게 납치된 딸을 구출하고자 무사나 영웅을 파견하는 왕, 대감, 부자들이 파송자이다. 파송자는 설화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레마스(A.Greimas)는 이를 확대하여 설화뿐 아니라 종교 철학의 영역까지 적용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파송자이고 주인공은 예수그리스도이며 수령자는 인간세상이 된다. 파송자는 주인공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이루어야 할 과업이나 과업에 대한 인식을 전달한다. 설화에서 파송자는 표면에 명백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감추어져 있기도 한다. 〈단군신화〉에서 환인은 환웅을 인간세계에 파송하는 드러난 파송자라고 할 수 있고, 〈박혁거세신화〉에서 박혁거세를 인세에 파견한 파송자는 드러나지 않는 천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서대석(徐大錫)

민담

파자놀이

정의 한자의 문자적 특성을 이용해 글자를 분해하거나 합쳐 가며 질문을 주고받는 지혜담 성격의 설화.

역사 〈파자놀이〉는 참요의 형식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잘 알려진 이야기로는 『고려사(高麗史)』「열전」 권 제50 신오왕 14년 5월 조에 이성계가 위화도를 회군할 때 당시 동요에 "목자득국(木子得國)"이라는 말이 있어 군민이 노소 없이 다 노래했다고 전한다. '목(木)'과 '자(子)'는 '이(李)'의 파자(破字)이니 곧 "李 씨(이성계)가 나라를 얻는다."라는 뜻이다. 또 조선 중기의 참요에는 남곤 일파가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고 써서 벌레들이 갉아 먹게 한 후, 그 흔적을 중종에게 보임으로써 기묘사화(1519년)의 발단이 된 일이 나온다. '주(走)'와 '초(肖)'는 '조(趙)'의 파자이니, 곧 "趙 씨(조광조)가 왕이 된다."라는 뜻이다. 파자를 이용한 언어 민속이 이른 시기부터 있었던 것이다.

줄거리 임금이 신분을 속이고 민정 시찰 중 점쟁이에게 파자점을 본다. 점쟁이가 글자를 하나 짚으라고 하자 임금은 아무 생각 없이 '문(問)' 자를 짚는다. 그러자 점쟁이는 "우군좌군(右君左君) 하니 군왕지상(君王之相)이라."라고 해석한다. 놀란 임금이 거지 한 명을 데려와 깨끗한 새 옷으로 바꿔 입히고는 똑같이 '문(問)' 자를 짚고 점을 보라고 한다. 거지가 시킨 대로 하자 점쟁이는 "문(門) 안에 입 구(口) 자가 들었으니 문전이나 다니면서 입을 벌릴 팔자"라고 해석한다. 이렇듯 점쟁이는 용하게도 같은 글자지만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하였다.

방랑시인 김삿갓과 관련된 이야기도 다수 존재한다. 김삿갓이 어떤 집에 머물렀을 때,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침상을 들이지 않는 구두쇠 집주인 부부와의 일화이다. 김삿갓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아침상을 기다리던 차에 안주인이 "인량차팔(人良且八)" 하니 바깥양반이 "월월산산(月月山山)" 하였다. 김삿갓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견자화중(犬者禾重)아, 정구죽요(丁口竹夭)로다." 하며 그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이다. 안주인의 말, '人良'과 '且八'을 각각 위아래로 붙이면 '食'(밥 식) 자와 '具'(갖출 구) 자가 된다. 곧 안주인은 "밥상 차릴까요?" 하고 물었던 것이다. 바깥양반이 한 말, '月月'을 나란히, '山山'을 위아래로 붙이면 '朋'(벗 붕) 자와 '出'(나갈 출) 자가 된다. 곧 "이 친구가 떠나거든 아침밥을 먹자."라고 대꾸한 것이다. 김삿갓이 금방 이들의 파자 대화를 알아차리고 한 말, '犬者'와 '禾重'을 나란히 붙이면 '저종(猪種)'(돼지 종자)이 되고, '丁口'와 '竹夭'를 각각 위아래로 붙이면 '가소(可笑)'(가소롭다)가 된다. 곧 "돼지 종자들아, 가소롭도다!"라고 외친 것이다.

변이 언어 유희적인 설화가 변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송강 정철이 평양에 연옥이란 기생이 선비들의 재산을 탕진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자진해서 평양감사로 간다. 연옥을 만난 정철은 한시(漢詩) 문답을 통해 그녀가 범상치 않음을 알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오유정철지추(吾有鄭徹之推) 하니 관연옥(貫蓮玉)이라.' 나에게는 단단한 쇠 송곳이 있으니 연옥을 꿰어보자." 은근히 유혹하는 구절에 연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오유요하대풍로(吾有腰下大風爐) 하니 연정철(鍊鄭徹)이라.' 내 허리 밑에는 커다란 풍로가 있느니 쇠끝을 달궈보자." 연옥의 대답에 정철마저 반해 버렸고, 가지고 있던 돈을 탕진하고 말았다.

분석 〈파자놀이〉는 한 글자를 여러 개로 나누거나 여러 글자를 한 글자로 합쳐서 비밀스러운 뜻을 전달하는 표현법이다. 이는 한자 문화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일종의 암호 생산 기술이다. 민속에서는 점치는 법의 한 가지로 한자를 풀어서 길흉을 알아보므로 해자(解字) 혹은 탁자(坼字)라고도 한다. 또 꿈에 나타난 형상적 징후를 글자로 해석하는 해몽설화에도 파자 모티프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런 설화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각지에서 전해 내려왔다. 파자놀이는 앞일을 예언하는 일종의 참언(讖言)으로 작용하거나, 약속된 사람들끼리만 알아듣는 은어(隱語)·비어(秘語)로 사용된다. 또 풍자(諷刺)의 방법 혹은 교육, 오락의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의의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상황이 그대로 이야기가 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자놀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언어적 재치를 알아듣고 또 다른 언어적 재치를 구사하는 능력이 그대로 지혜담이 되어 전파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인물의 재치와 능력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민중의 비밀스러운 해석에 이용되기도 했다. 도사나 은사들의 특이한 행적과 세상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는 데도 파자는 유용하게 쓰인다. 민담 특유의 오락적 재미와 파자놀이라는 언어민속이 가진 유희성이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150; 3-3, 311; 4-3, 266; 8-7, 55.

참고문헌 수수께끼담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김경섭,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수수께끼의 소통 구조의 연구(최경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조선시대 언어유희와 통신언어 언어유희의 비교 분석(전병용, 동양고전연구24, 동양고전학회, 2006), 한국 수수께끼의 기능과 의미 연구(추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필자 김경섭(金鏡燮)

민담

파자점

破字占

정의 파자점(破字占)을 하는 복술가가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도 짚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는 민담.

역사 파자점은 미래를 예언하는 문자점(文字占)으로 한문 글자 하나를 그대로 해석하거나 분해하여 점을 친다. 〈파자점설화〉는 대개 한 글자를 두 가지로 상반되게 푸는 것으로 운명을 예언한다. 숙종 대왕이나 박문수 같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민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줄거리 숙종 대왕이 잠행을 하다가 유명한 파자 점쟁이를 만났다. 점쟁이가 글자 하나를 짚으라고 하니 숙종 대왕이 '물을 문(問)'을 짚었다. 점쟁이가 절을 하며 '문 문(門)' 자 안에 '입 구(口)'가 있으니 좌(左)로도 '임금 군(君)'이고 우(右)로도 '임금 군(君)'이어서 임금이라고 했다. 숙종 대왕이 점쟁이가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거지를 시켜 점쟁이를 찾아가 물을 문자를 짚어 보게 했다. 거지가 '물을 문'을 짚으니 점쟁이가 "문간 밖에 입 구가 있으니 당신은 얻어먹는 거지요."라고 했다.

변이 숙종 대왕 대신 선조 대왕, 이태조, 신라 왕, 중국 천자, 박문수인 예도 있고, 점쟁이 대신 장님인 예도 있다. 똑같이 '초(初)' 자를 짚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는 딸을 낳고 또 한 사람에게는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는 예도 있고, 박문수가 '점 복(卜)' 자를 짚으니 작대기를 글자 아래에 그려 '위 상(上)' 자를 만들며 어사라고 하고, 박문수가 시킨 하인이 '점복' 자를 짚으니 작대기를 글자 위에 그어 '아래 하(下)'를 만들며 하인이라고 하는 예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미래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문자에 심오한 뜻이 들어 있다는 의식이 더하여서 형성된 것이다. 이는 설화를 수용하는 사람의 높은 식견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자 놀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을 달리하는 여러 각편이 존재하는데, 암행어사가 '복(卜)' 자를 짚고 점을 치자, 점쟁이는 허리에 마패를 찼으니 암행어사가 분명하다며 치하하였다. 이것을 지켜보던 거지가 옷을 바꾸어 입고 '복' 자를 짚고 점을 치니, 점쟁이는 허리에 쪽박을 찬 거지라고 하였다. 이성계가 '물을 문' 자를 짚고 점을 치니 점쟁이는 좌로도 '임금 군', 우로도 '임금 군'이니 틀림없이 군왕이 되겠다고 하였다. 거지가 같은 글자를 짚고 점을 치니 '문' 앞에 입을 달았으니 빌어먹겠다고 하였다. 수양 대군이 '전(田)' 자를 짚으니 점쟁이는 전후좌우로 '왕(王)'이니 군왕이 되겠다고 하였고, 김종서가 같은 글자를 짚으니, '갑자무족(甲字無足) 용병무일(用兵無日), 십자사위(十字四圍)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甲자에 발이 없으니 군사를 일으킬 수 없고, 十자가 사방 속에 갇혀 있으니 열 사람의 말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의의 점복의 신이함을 맹목적으로 숭상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의 지혜를 흥미의 요체로 삼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5, 203; 2-4, 197; 2-9, 128; 4-3, 266; 6-8, 319; 7-3, 615; 7-16, 107; 8-3, 571; 8-7, 55.

참고문헌 수수께끼담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김경섭,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1991).

필자 심민호(沈民皓)

신화

파평윤씨시조신화

坡平尹氏始祖神話

정의 파평 윤씨 시조인 윤신달(尹莘達)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득성(得姓)에 관한 신화.

줄거리 『파평윤씨세보(坡平尹氏世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시조를 연못 위에서 얻었다는 이야기는 대체로 경기도 파평 용연리에 살던 할머니가 석함을 얻었다는 속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괴이하고 허망한 사연과 연관되어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속설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다. 공에게는 좌우 겨드랑이에 81개의 비늘이 있고 양어깨에 붉은 점이 해와 달 모양으로 있으며 발에는 7개의 사마귀가 있었다. 이 때문에 혜종(惠宗)이 즉위하여 공의 모습이 범상치 않자 동경 유수로 좌천시켰으며, 그 뒤로도 혜종은 마음에서 매우 시기하여 끝내 부르지 않았다. 공이 임지에서 죽자 이에 경주에서 장사지냈다고 한다. 이처럼 파평 윤씨 족보에는 파평 윤씨 시조의 탄생이 괴이하고 허망한 소리라 하여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대신에 시조의 비범한 면모를 간략히 언급한 정도이다.

그러나 구전자료와 『성씨의 고향』, 『한국성씨대관』에는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었는데,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파평의 파평산 기슭에 용연(龍淵)이 있다. 하루는 구름과 안개

가 자욱하고 천둥과 벼락이 치자 주민들이 분향하고 기도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윤온(尹熅)이라는 노파가 못 가운데 금궤가 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찬란한 금궤 안에는 아이가 들어 있었다. 아이의 좌우 어깨에는 붉은 사마귀, 겨드랑이에는 81개의 비늘, 발에는 7개의 흑점이 있어 광채를 발하였다. 노파는 아이를 거두어 길렀고, 노파의 성을 따라 윤씨가 되었다고 한다.

분석 이 신화에서는 예조(豫兆)에 이어 마을 사람들의 분향과 기도라는 인간의 소망 그리고 금궤가 출현한다. 금궤의 출현을 제일 먼저 목격한 윤온이라는 노파는 아이를 발견하고 양육하는 대행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양육한 아이는 훗날 성씨의 시조로 좌정한다. 파평 윤씨의 시조인 윤신달은 918년(신라 경명왕 2)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삼한 통합에 공을 세워 소양(昭襄)이라 시호를 받는다. 파평은 오늘날의 경기도 파주시를 지칭하는데, 윤신달의 5세손이 파평을 본관으로 삼는 것은 확고한 지역적 지지 기반을 토대로 득성명(得姓名)을 이룬 것임을 역사적으로 살필 수 있다.

의의 이 신화는 시조의 탄생과 득성이 하늘의 절대적인 계시에 의한 것임을 신화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후손에게 성씨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화가 후손에 의해 오늘날에도 유지되는 것은 시조신화에 대한 신성성을 의미한다. 이 신화는 다른 성씨 씨족집단과 변별성을 가지면서 씨족집단의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구심력이 되고 있다.

출처 坡平尹氏世譜. 성씨의 고향(중앙일보사, 1989). 한국성씨대관(창조사, 1971).

참고문헌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8).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한국씨족설화 연구(허경회,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서해숙(徐海淑)

자료

파한집

破閑集

정의 고려 중기의 문신 이인로(李仁老, 1152~1220)가 편찬한 잡록(雜錄).

내용 『파한집(破閑集)』은 이인로가 편찬하였고, 1260년에 그의 아들 이세황(李世黃)이 목판으로 간행했다. 3권 1책으로 되어 있다. 1권에는 24조, 2권에는 26조, 3권에는 33조 등 총 83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파한집』에 수록된 작품은 대부분 시화(詩話)에 해당한다. 시화는 대체로 시론, 작시법, 시일화가 중심을 이룬다. 이 가운데 시 일화에는 구비문학적 성향을 드러낸 작품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임금이 김자의(金子儀)에게 술 석 잔까지만 마시라고 명령을 내리자, 김자의는 임금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며 부처님이 마시는 밥그릇으로 석 잔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그러하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후 조선 초기에 소화로 기록되어 향유되었고, 지금까지도 구전으로 널리 향유되고 있다. 이후 『파한집』의 글쓰기를 반영한 것으로는 고려 말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 이제현(李齊賢)의 『역옹패설(櫟翁稗說)』, 그리고 조선 초 서거정(徐居正)의 『동인시화(東人詩話)』 등이 있다.

필자 김준형(金埈亨)

전설

팔봉산

八峯山

정의 강원도 홍천군 서면,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전라남도 고흥군 등에 있는 팔봉산에 관한 설화.

줄거리 전국 여러 곳에 팔봉산이 있기 때문에 〈팔봉산전설〉 역시 다양하게 구전되고 있다. 우선, 강원 홍천군 팔봉산 부래(負來) 전설에서는 팔봉산이 본래 남쪽 지방에 있던 산이었다고 한다. 옛날에 여덟 명의 장사가 산을 메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이곳에 와서 주저앉아 쉬게 되었는데 갑자기 뇌성벽력과 함께 비가 쏟아지고 강물이 넘쳐 금강산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팔봉산이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홍천군 외 팔봉산과 관련한 삼부인(三夫人) 전설이 있다. 팔봉산 주변 마을에 세거씨족으로 이씨·김씨·홍씨 부인이 살았다. 이씨 부인은 마음씨가 인자했고, 김씨 부인은 더 착하고 자상했으나 홍씨 부인은 너그럽지 못했다. 이씨가 시어머니이고 김씨가 딸, 홍씨는 며느리였다. 당굿을 할 때 이씨 부인에게 신이 내리면 풍년이 들고, 김씨 부인에게 강신하면 대풍이 들고, 홍씨 부인에게 강신하면 흉년이 들었다.

또 다른 전설로는 충남 서산군의 팔봉산과 명당자리가 있다. 서산군 팔봉면 팔봉산에 대절[竹寺]이 있었는데, 이 절의 스님이 뇌성벽력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여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스님은 "누가 나에게 흰죽 한 그릇을 쒀서 갖다 주면 팔봉산의 금붕어 꼬리차지 명당자리를 잡아주겠소."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먹을 것을 가져다주지 않아 스님은 굶어 죽었다. 지금도 팔봉산에 명당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투장(偸葬)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고흥군의 팔봉산 관련 전설은 다음과 같다. 고흥군에서 가장 높은 산은 팔영산인데, 본래는 봉우리가 여덟 개어서 팔봉산이라 불렀다. 옛날 중국의 어느 황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세숫대야에 산봉우리 여덟 개가 비쳐 보였다. 신하들에게 세숫대야에 비친 산을 수소문해서 찾으라고 명하였다. 우리나라 고흥에 와서 겨우 산을 찾아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산 이름을 물으니까 '팔봉산'이라 하였다. 황제에게 그 같은 사실을 보고하니, 황제는 "팔봉산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여덟 봉우리의 그림자가 비쳤으니 '그림자 영(影)' 자를 써서 팔영산(八影山)이라고 해라." 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팔영산으로 고쳤다.

분석 팔봉산은 산봉우리가 8개로 이루어진 산이다. 단지 산의 생김새에 연유하여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기에 이야기가 부연되면서 설화로 형성된 사례이다. '팔(八)'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고 여덟 명의 장사가 산을 옮기다가 어떤 연유로 현지에 놓고 갔다는 유형이 있으며, 산 이름과는 별도로 신성한 공간이라고 인식하며 형성된 명당터 전설, 산신당 전설 등이 전하고 있다.

의의 〈팔봉산전설〉은 전국 각지에 소재한 산 이름과 관련한 전설이다. 단지 봉우리가 여덟 개라서 붙여진 명칭이지만 이야기가 구전되면서 신성성이 강조되는 경향으로 전하고 있다. 홍천군의 삼부인, 서산군의 명당터, 고흥군의 팔영산으로 바뀐 유래 등이 그 같은 사실을 말해 준다. '팔(八)'이라는 숫자의 신성성과도 관련을 갖는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3, 269; 7-13, 473.

참고문헌 강원도 팔봉산 당신제고(김의숙, 한국민속학26, 한국민속학회, 1994). 한국구전설화집(최운식, 민속원, 2002).

필자 홍순석(洪順錫)

민담

팥죽땀 흘리는 시아버지

정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몰래 팥죽을 먹으려다 들키자 시아버지가 팥죽 그릇을 머리에 뒤집어써서 팥죽땀을 흘리고 망신을 당한다는 소화(笑話) 형태의 민담.

줄거리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루는 며느리가 팥죽을 쑤었다. 팥죽을 더 먹고 싶었던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물을 길러 간 사이에 팥죽을 한 그릇 떠서 몰래 먹으려고 화장실로 갔다. 물을 길어 왔는데 시아버지가 안 보이자 며느리 역시 팥죽이 더 먹고 싶어서 몰래 먹으려고 팥죽 그릇을 들고 화장실로 갔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팥죽을 먹던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먹고 있던 팥죽 그릇을 머리에 뒤집어썼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며느리가 팥죽 그릇을 내밀며 "아버님, 팥죽 드세요."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야야, 팥죽땀이 줄줄 흐른다."라고 말했다.

변이 이 이야기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변이형이 다양하지는 않다. 다만, 등장인물이 아버지와 딸로 바뀌거나, 팥죽 그릇을 뒤집어쓰는 인물이 시아버지에서 며느리로 바뀌는 등의 변이가 발견된다. 이 외에 사돈집에 간 사람이 밤에 몰래 팥죽을 훔쳐 먹다 안사돈에게 들켜 망신을 당한다는 변이형도 있다.

분석 유사 설화 간 공통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나 사돈 관계처럼 서로 체면이나 예의를 잘 차려야 하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점과 팥죽이라는 음식을 매개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인물들이 막상 식사할 때는 충분하게 먹지 않고 나중에 몰래 더 먹으려다 비롯된 망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민담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 체면 차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야 했던 시대적 현실이 잘 드러나는 서글픈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식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본능적 욕구임에도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 인간의 본능마저도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보다도 며느리 앞에서는 더욱 그 체면과 권위를 지키려고 애쓴다. 따라서 민담에서 며느리야말로 시아버지의 체면을 격하시키기 위한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인물이다. 민담에 등장하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늘 대립적 관계로 설정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징 이 민담은 표면상 며느리가 식욕 앞에 체통을 저버린 시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는 있지만, 시아버지에게 팥죽 그릇을 내미는 며느리의 행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몸짓으로 이야기한다. 즉, 팥죽에 얽힌 이 이야기는 허기의 경험과 고통마저도 체면과 체통으로 견뎌내야 했던 애환 가운데에도 해학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민중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446; 4-6, 556,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188; 3, 340.

참고문헌 바보설화 웃음의 층위(이강엽, 한민족문화연구36, 한민족문화연구회, 2011), 패설과 소화, 패설 속의 소화(이강옥, 대동한문학24, 대동한문학회, 2006).

필자 김복순(金福順)

민담

팥죽할멈과 호랑이

정의 반복담으로 할머니가 여러 동물과 지게와 같은 도구의 도움으로 호랑이의 위협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손진태는 이 설화가 불전설화에서 유래하여 티베트와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줄거리 산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밭에 팥을 심고 있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머니는 팥농사를 다 지어 동짓날 팥죽 쑤어 먹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 여름, 가을이 지나고 동짓날이 되어 호랑이가 올 때가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팥죽을 쑤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할머니 앞에 알밤, 송곳, 개똥, 맷돌, 자라, 멍석, 지게가 차례로 와서 팥죽을 달라고 한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씩 얻어먹더니 호랑이를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 밤이 되어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부엌에 가서 먹으라고 한다. 부엌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알밤에게 눈을 얻어맞고 앞을 못 보게 된 상태에서 자라에게 코를 물린다. 또 개똥에 미끄러지고, 송곳에 찔린 후 맷돌에 맞아 죽는다. 멍석이 둘둘 말은 호랑이를 지게가 등에 싣고 가 깊은 강 속에 던져 버린다.



노파와 범 삽화
20세기 전반, 국립민속박물관

변이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는 상황은 각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냥 잡아먹으려 하거나, 팥 까기 내기에 져서, 혹은 농사지은 팥으로 팥죽을 끓여 준 뒤에, 아니면 밭매기 시합에 져서 등 다양하다. 팥죽을 끓인 뒤 할머니는 자신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며 서럽게 우는데, 이때 나타난 원조자들의 존재나 도움 방식, 순서도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다. 할머니 방의 등잔불을 끄는 역할은 날파리가, 아궁이에서 호랑이의 눈을 못 뜨게 하는 역할은 알밤(또는 달걀, 총알)이 맡는다. 눈을 물통에서 씻으려 할 때 게(또는 자라)가 발을 깨물고, 송곳이 호랑이의 등 또는 엉덩이를 찌르며, 개똥(쇠똥)이 호랑이를 넘어지게 한다. 맷돌(또는 절구통)이 호랑이의 머리를 쳐서 죽게 하며, 멍석과 지게는 늘 일정하게 보복의 마지막 순서를 맡는다.

분석 핀란드 설화학자 아르네(A. Aarne)의 비교문학 연구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한 갈래가 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서남아시아로부터 발칸 반도를 거쳐, 러시아·독일·이탈리아·스페인까지, 동쪽으로는 중국·한국을 거쳐 일본에 이르렀고, 다른 갈래는 몽골을 거쳐 베링 해협을 건너 캐나다·북미 서안(西岸)으로, 또 한 갈래는 수마트라·자바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의의 뼈 빠지게 농사지은 팥과 할머니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호랑이는 탐욕스러운 권력자를 상징하고, 이에 맞서 할머니를 구해내는 동물과 물건들은 약자와 민중을 상징한다. 이 설화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라도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560,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58; 4, 165; 5, 121; 6, 67.

참고문헌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조희웅, 한국연구원, 1983), 한국 호랑이이야기의 현황과 유형(허원기, 동화와 번역5,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3).

필자 권혁래(權赫來)

신화

평강채씨시조신화

平康蔡氏始祖神話

정의 평강 채씨 시조의 탄생과 득성(得姓)에 관한 신화.

줄거리 1898년(광무 2)에 간행한 『평강채씨족보(平康蔡氏族譜)』에는 "영롱한 거북이가 평강에서 나와 사람으로 변하니 왕이 이를 듣고 채성(蔡姓)을 하사하고 평강백(平康伯)에 봉했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거북이가 직접 현신하여 채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행한 족보에서 시조 탄생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강에 사는 대갓집 규수가 혼전에 잉태를 하였다. 부모가 연유를 물으니 밤마다 미소년이 찾아온다고 했다. 그리하여 하루는 명주실을 꿴 바늘을 미소년의 옷깃에 달아 뒤를 쫓아가니, 미소년은 다름 아닌 집 앞 연못 속의 오색영롱한 거북이의 화신이었다. 그 후 규수가 옥동자를 낳자 임금이 성을 채(蔡)로, 본관을 평강(平康)으로 사성하였다. 지금도 거북이는 채씨의 상징으로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

분석 〈평강채씨시조신화〉의 핵심은 시조의 탄생 과정이다. 거북이와의 이류교혼(異類交婚)에 의해 채씨 시조가 탄생한 것은 비일상적인 탄생으로, 그 신성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밤이면 처녀의 방에 들어와서 자고 간다는 모티프는 전형적인 야래자설화 유형이다. 그리고 야래자인 미소년의 정체가 다름 아닌 거북이라는 점은 〈창녕조씨시조신화〉의 용, 〈충주어씨시조신화〉의 잉어와 마찬가지로 신화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거북 역시 용속(龍屬)에 해당하므로 수신적(水神的)인 질서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규수가 낳은 옥동자에게 임금이 평강을 본관으로 한 채씨 성을 사성한 것은 사회적 공신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신이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성씨인 '채'는 거북이를 뜻하는 것으로, 이 글자는 이러한 신화를 온전히 수용하고 있으며 이류인 거북이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의 이와 같이 〈평강채씨시조신화〉는 규수와 미소년으로 화신(化身)한 거북이와의 교구(交媾)에 의해 시조가 탄생하고, 임금의 사성을 통해 채씨 성을 갖게 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느 신화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지모신(地母神)과 수부신(水父神)의 결합으로 시조가 출생하는 신화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출처 平康蔡氏族譜, 평강채씨대동보, 한국성씨대관(최덕교·이승우, 창조사, 1971).

참고문헌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8), 한국씨족설화연구(허경회,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서해숙(徐海淑)

전설

표충비

表忠碑

표제어 땀 흘리는 비석

전설

풍속유래전설

風俗由來傳說

정의 세시풍속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풍속의 유래를 전해 주는 전설.

내용 전설은 전승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제공되며 특정의 개별적 증거물을 갖는 이야기를 뜻한다. 특히 증거물이 있다는 것은 전설을 믿게 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풍속유래전설은 대체로 그 풍속에 전설이 부연(敷衍)되어 이야기가 생성된 것이다.

일정 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되는 풍속유래전설은 풍속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풍속유래전설에서 반드시 역사성을 지닌 증거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천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비[雨], 또는 바람과 같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풍속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풍속유래전설은 그 풍속의 유래가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칠월칠석 유래〉나 〈태종우(太宗雨)〉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칠월칠석 유래〉는 〈견우직녀〉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지어낸 이야기이다. 태종우는 조선 3대 왕이었던 태종이 서거한 날 내리는 비를 말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5월 초열흘은 태종의 제삿날인데 이날 반드시 비가 오므로 이를 '태종우'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태종이 운명할 때 세종에게 말하기를 "지금 가뭄이 바야흐로 심하니 내가 죽어서도 이를 안다면 반드시 이날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이날이면 어김없이 비가 왔다. 풍속유래전설에는 위와 같은 세시풍속 관련 전설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풍속에 대한 유래 전설이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일부 세시풍속유래담처럼 문헌

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구전되어 오는 것도 있다. 가령 〈오곡밥 유래〉, 〈동지팥죽 유래〉, 〈칠월칠석 유래〉, 〈한식 유래〉 등은 세시풍속의 유래담으로 옛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오곡밥을 먹는 유래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전설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칠월칠석 유래〉는 중국의 여러 세시기에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전설의 주인공인 견우와 직녀가 혼인 재미에 빠져 게을러지므로 천제가 이들을 갈라놓아 일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국세시기』의 모태가 되었다는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달리 기록되어 있다. 견우가 직녀를 맞이하기 위해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쫓겨났다는 것이다. 〈단오전설〉 역시 중국 초나라 충신 굴원(屈原)이 멱라강에 빠져 숨진 것을 위령하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는 기원설이 있는가 하면 오나라 부차(夫差)와 관련된 전설도 있다. 부차가 충신 오자서를 죽여 시신을 물속에 던진 날이 5월 초닷새였으므로 그날을 추도하기 위해서라는 유래설이 있다. 또한 월나라 구천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구천의 병사가 오나라 왕 부차에게 패하자 5월 초닷새에 수군(水軍)을 조련하였는데 이날을 기념하는 데서 단오가 유래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중국에는 단오 관련 유래전설이 다양한데, 우리나라에는 〈굴원전설〉이 일반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풍속유래전설은 사실이라는 믿음을 담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가변성을 지닌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0월 〈손돌목전설〉역시 세시풍속 관련 유래전설로 『동국세시기』에 기록되어 전한다. 이 이야기에는 손돌이 억울하게 숨진 곳으로 알려진 강화도 손돌목이라는 증거도 제시된다. 그런데 〈손돌목전설〉은 다양한 이본(異本)이 구전되기도 한다.

애초 세시풍속의 하나였으며 민속놀이에 포함되기도 하는 하회별신굿탈놀이, 놋다리밟기, 차전놀이처럼 고려시대에 시작되었다는 역사성을 담보하는 전설도 있다. 이 밖에도 기지시줄다리기처럼 풍수와 관련된 유래전설을 지닌 것도 있다. 특히 풍수와 관련된 유래전설은 동제(洞祭)를 지내는 마을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징 풍속유래전설 가운데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세시풍속 관련 유래전설은 〈손돌목전설〉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성된 이야기도 있지만 한식날의 〈개자추설화〉, 〈동지팥죽 유래〉, 칠월칠석의 〈견우직녀〉, 단오 관련 설화 등과 같이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 주를 이룬다. 실증적인 사실을 절대시하는 중국에서는 풍속유래전설을 만들어 그것을 사실화하고자 한다. 곧 설화를 역사적인 담론으로 만들어 풍속을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족정신과 애국정신, 호국정신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우리의 경우 〈손돌목전설〉은 자연현상을 보면서 형성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풍년과 풍어와 같은 생산물의 풍요와 관련되어 있다.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양전동 풍동골에서는 예전에 지냈던 장승제의 유래전설이 전해 온다. 풍동마을이라는 명칭은 장승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주인공의 이름이며, 장승제를 지냈던 장승백이가 오랫동안 있었다. 장승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농사의 풍작을 기리는 마을 제사였으며 마을 축제였다. 중국도 국가적 절기는 애초 응천순시(應天順時), 즉 하늘을 비롯한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농경성(農耕性)을 바탕으로 했지만 점차 이념화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념화하지 않고 주생업이었던 농경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풍속유래전설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의의 풍속유래전설은 때로 그 풍속에 대한 현실감과 믿음 등을 갖게 하면서 관행화되는 데에도 구실을 한다. 가령 고수레는 산신(山神)에 대한 관념을 인식시키기도 하지만 막연히 관행화되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력 10월 손돌풍 때에는 바람을 피해 출어하지 않는 현실적인 대응을 한다. 또한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얽힌 설화는 탈놀이를 하는 까닭에 대한 믿음, 당위성 등을 각인시키는 구실도 한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동국세시기(홍석모, 정승모 역, 풀빛, 2009), 한국구비문학개론(김태곤 외, 민속원, 1995), 한국세시풍속1(김명자, 민속원, 2005), 한중 단오 유래설과 관련 세시(김명자, 남도민속연구14, 남도민속학회, 2007).

필자 김명자(金明子)

민담

풍수담

風水譚

정의 풍수지리설 또는 풍수신앙에 얽힌 인물이나 지형을 설명하거나, 풍수를 시행한 결과 얻은 발복(發福), 발화(發禍)에 관련된 응험 및 풍수로 이름을 얻거나 명성을 떨친 사람의 이야기.

내용 풍수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풍수설에 관한 이야기, 둘째, 풍수설을 시행하는 지사(地師)의 이야기, 셋째, 보편적 풍수관념을 바탕으로 꾸며진 이야기이다. 풍수담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풍수, 수용자, 명당'이다. 이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양상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특히 '풍수의 활동과 결과, 수용자의 명당 획득 과정, 명당의 응험(應驗)'을 중심으로 할 때 풍수담의 각편(各篇)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결정된다.

- 어떤 수용자가 어떻게 해서 명당을 잡아 쓰고 발복하였다.
-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명한 풍수(지관)가 되었다.
- 유명한 풍수가 어떻게 신이한 능력을 보였다.
- 유명한 풍수가 어떻게 실수를 하였다.
- 가짜 풍수가 어떻게 해서 진짜 노릇을 하고 부자가 되었다.
- 어떤 사람이 명당을 얻고 과용이나 금기(禁忌) 파기(破棄)로 망하거나 명당을 파손하고 망하였다.
- 어떤 지형을 인위적으로 보완(補完)하거나 결함을 제거하여 명당을 만들었다.

각편 내용을 근거로 풍수담의 하위 갈래를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수용자에 관한 이야기로 명당 얻기, 명당 빼앗기, 명당 쓰고 발복하기 등이 있다. 둘째, 풍수에 관한 이야기로 명풍수 이야기, 가짜 풍수 이야기 등이 있다. 셋째, 명당에 관한 이야기로 명당 깨트리기, 명당 만들기 등이 있다.

① 명당 얻기 : 수용자가 명당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획득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들이다. 풍수담은 전체적으로 '명당을 찾고, 명당을 얻으며, 그 결과로 발복하기'라는 일련의 행위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명당을 어떻게 얻는가에 주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명당 얻기이다. 그러나 명당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선행을 베푼 결과로 얻거나, 유골을 분실하여 얻거나 또는 유언을 이행하여 얻기도 하며, 때로는 우연히 얻기도 한다. 이들 양상은 명당 얻기 이야기의 하위 유형이다.

② 명당 빼앗기 : 말 그대로 비도덕적, 비윤리적 측면에서 명당을 탈취하는 이야기다. 꾀로써 남의 명당을 빼앗거나 주인 몰래 남의 명당을 차지하는 행위가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암장(暗葬)이나 늑장(勒葬), 투장(偸葬) 등과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했고, 이는 구비문학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형상화하여 민중의 호기심과 명당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한 것이 바로 명당 빼앗는 이야기이다.

③ 명당 쓰고 발복하기 : 명당을 쓰고 난 뒤에 어떤 발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이 놓여 있는 이야기이다. 발복은 시간적으로 금시(今時) 발복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절손(絶孫)의 위기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정상적인 발복도 행해진다. 후자를 흔히 사자생손형(死者生孫型)이라 하는데, 명당이 지닌 신비성을 바탕으로 비현실적인 발복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④ 명풍수 이야기 : 풍수로 이름을 얻거나 명성을 떨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적 실존인물이든 무명인물이든 간에 그들은 이야기의 행위주체이며 사건 전개를 좌우하는 주동인물이다. 풍수의 행위는 "어떻게 풍수가 되고, 어떻게 지술(地術)을 시행하였다."라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때로는 명풍수가 좌절(挫折)하기도 한다.

⑤ 가짜 풍수 이야기 : 명풍수가 아닌 가짜 풍수의 행각을 다룬 풍수담이다. 명풍수 이야기와는 달리 가짜 풍수가 엮어내는 예기치 못한 행위양식과 결과에 관심을 둔다. 결핍 상황에서 출발과 결핍해소 상황의 귀환이라는 민담의 서술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짜 풍수들은 '출발–탐색과정–귀환'을 통해 민담이 지닌 골계적(滑稽的) 특성을 보인다. 이 점이 가짜 풍수담의 소화적(笑話的) 성격이다.

⑥ 명당 깨트리기 : 명당을 얻고 과욕이나 금기(禁忌) 파기로 망하거나 명당을 파손하는 내용을 가진 이야기이다. 명당 얻는 이야기와 견주어 '얻다'라는 점을 강조하면 명당 얻기가 되고 '깨트리다'라는 행위를 강조하면 명당 깨트리기가 된다. 이는 이야기의 짜임과 초점이 '획득'과 '파손'이라는 두 곳에 걸쳐 있다는 뜻이나 명당 깨트리기의 관심은 '파손'에 놓여 있다. 명당을 파손하는 까닭은 이야기마다 다르나 주로 지켜야 할 금기를 깨트리는 것에 있다. 물론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응징하기 위해 금기 파기를 유도하여 명당을 파손하도록 한다.

⑦ 명당 만들기 : 명당을 만들기 위해 땅을 비보(裨補)하는 행위는 실제 풍수 관행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보는 부족한 것을 인위적으로 보완하거나 악운이 서린 지형에 대해 인위적인 조형물로 악운을 눌러 명당을 만들어 가는 것을 두루 가리킨다. 비보는 개념상 환경 인식·공간 구성·취락 경관·

조경·마을신앙 및 의례·민속놀이의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행해진다. 구체적인 예로 '진호(鎭護)를 위해 풍수탑'을 세우거나 '허(虛)한 곳을 막기 위해 조산(造山)'을 쌓는 것과 '방살위호(放殺衛護)를 위해 압승물(壓勝物)'을 세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의미의 유효성을 지닌 채 존속하는 민속재로 남아 있다.

의의 풍수담은 풍수설 내지 풍수신앙에 기반을 둔 이야기인데, 풍수에 대한 관념은 한민족의 신앙적 기본을 이루고 민중생활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풍수설 내지 풍수신앙은 집단적인 의미에서 풍수로 인해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한 집안이나 개인의 운세가 '땅'에서 비롯된다는 데까지 확대된다. 이런 까닭에 집단과 개인의 도덕률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지나치게 기복신앙적(祈福信仰的) 측면으로 변모하여 목적 그 자체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서 산송(山訟)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실학적 성향을 지닌 유학자들은 풍수지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주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이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사 최선의 길'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풍수설을 둘러싼 이해의 깊이가 각각 다르고 수용의 가치를 차별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풍수설 자체가 워낙 난해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디부터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민중의 경우 이런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민중은 풍수설이 담고 있는 대의와 이상을 기본적인 핵심어로 이해하여 전체적 의미를 이야기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명당획득담의 전개와 명당 관념(장장식, 국제어문9·10, 국제어문학회, 1989), 영남지방의 비보조산에 관한 연구(최원석, 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풍수설의 국문학적 수용연구(강중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풍수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최창조, 지리학17, 대한지리학회, 1978),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민속원, 1995), 한국풍수사상(최창조, 민음사, 1984), 한국풍수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 분석(신월균,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필자 장장식(張長植)

용어

풍신신화

風神神話

정의 바람을 주관하는 신의 내력에 대한 신화.

내용 문헌과 구전에서 모두 확인된다. 먼저 문헌을 보면, 〈단군신화〉에서의 '풍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풍백은 농경과 관련하여 바람신을 인격화하여 나타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10월 20일에 부는 바람을 '손돌풍(孫乭風)'이라고 한다면서, 억울하게 죽은 뱃사공 손돌의 원한이 바람이 되어 부는 것이라는 유래를 함께 적고 있다. 여기서 손돌풍은 계절풍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구전을 보면, 제주도의 영등굿에서 모셔지는 영등신(靈登神)을 들 수 있다. 해마다 음력 2월 1일에 제주도에 들어와 15일에 나간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 곳곳의 해안 마을에서는 영등굿이 성대하게 행해진다. 영등신은 해녀들의 채취물인 소라, 전복, 미역 등을 증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뱃사람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신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 신에 대해서는 외눈박이나라에서 온다는 설, 강남천자국에서 온다는 설 등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는 바람운이라는 풍신이 등장하는데, 이 신은 제주도 한라산의 바람을 신격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한국에서는 바람신을 그 자체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경신, 어업신, 내방신(來訪神) 등으로도 아울러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영등굿
제주도 북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2002.3.26, 김태우

필자 최원오(崔元午)

전설

피바위

정의 이성계의 화살에 맞은 왜구 대장 아지발도(阿只拔都)가 흘린 피로 인해 붉은색이 되었다는 전라북도 남원 남천가의 바위전설.

줄거리 전북 남원시 인월면 남천에 있는 붉은 바위에 관한 전설이다. 고려 후기 왜적이 지리산에 진을 치고 노략질을 일삼던 때였다. 조정에서는 이성계와 퉁두란에게 왜구 토벌을 명하였다. 이성계가 황산에서 아지발도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지발도는 황산 앞에만 오면 다시 진지로 돌아가곤 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고려(조선)를 침략하기 전에 누이로부터 "황산을 조심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하루는 새벽이 되지 않았는데도 닭이 울었다. 아지발도는 새벽인가 싶어 고남산 쪽으로 갔다. 이성계가 꾀를 내어 할머니를 아지발도 앞으로 보냈다. 아지발도가 "여기 황산이란 곳이 어디냐?"라고 묻자 할머니는 "여기엔 황산이란 곳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지발도가 안심하고 계속 걸어 날이 밝을 무렵 황산으로 올라오자 퉁두란이 화살로 아지발도의 투구를 맞추었다. 아지발도가 땅에 나뒹굴며 입을 벌리자 이성계가 그 목구멍에 활을 쏘아 죽였다. 이때 아지발도가 많은 피를 흘려 황산다리 아래 바위가 붉게 물들었다. 그 후부터 이 바위를 깨면 붉은색이 나온다고 하여 피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전북 남원시는 이를 기념하여 '황산대첩비지(荒山大捷碑址)'라는 표석을 세웠다.

변이 이성계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려고 왜장 아지발도를 용맹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다. 고려 후기 1380년(우왕 6)에 왜구가 쳐들어 왔을 때 대장이 아지발도라고 전해진다. 아지발도는 열여덟 살 정도에 키가 7척이 넘는 장사였으며, 철갑으로 온몸을 무장하여 화살이 뚫지 못하였다. 이성계는 여진족의 귀화병들을 합쳐 고려군과 혼성부대를 편성하였다. 참모로 변안열을, 부원수로 퉁두란을 두었다. 전북 남원시 운봉과 동면의 중간에 있는 해발 695m의 황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삼천여 명의 부대와 아지발도가 남천에 이르러 산을 기어오르자 이성계가 화살로 아지발도의 투구를 맞췄다. 당황한 아지발도가 투구가 벗겨지지 않도록 투구 끈을 내리려고 입을 벌릴 때, 퉁두란이 쏜 화살이 입에 적중해 아지발도의 목을 꿰뚫어 버렸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변이본도 이성계의 왜구토벌 활약 상황이 중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분석 전북 남원 남천 가에 있는 붉은색 바위를 매개로 이성계의 활약이 그려진다. 〈이성계설화〉는 대표적인 광포설화인데, 이 중 〈피바위전설〉은 전북 남원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고려 말기 황산대첩 때문에 이성계와 관련한 전설이 남원 지역에 많이 전해지고 있다. 아지발도와 관련한 〈피바위전설〉도 하늘의 도움을 받아 왜구를 물리친 이성계의 영웅담이다.

의의 역사적 사건과 붉은 바위라는 지역의 지리 환경이 합하여 이성계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고려사(高麗史)』「열전」의 〈변안열전〉에 유사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역사적 사건을 민중이 수용하고 재편한 맥락을 엿볼 수 있다.

출처 高麗史, 내 고장 전북의 뿌리(전라북도, 1984).

참고문헌 이성계설화의 전승과 의미 연구(이화영,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선 건국과 이성계설화의 정치적 함의(문재윤, 동양정치사상사10-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1).

필자 이윤선(李允先)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 쌓는다의 유래
하음봉씨시조신화
하회마을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
학산한언
한라산
한양도읍
한우물
할미산성
할미할아비바위
해동고승전
해모수신화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
해부루신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인사
행운담
허가바위
허목
허미수
허웅애기본풀이
허준
허풍선이
허황옥신화
형산강
형식담
형제바위
형제투금
혜통
호동왕자 낙랑공주
호랑이 눈썹
호랑이 배 속 구경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호랑이로 변한 남편
호랑이와 곶감
호랑이의 보은
호랑이형님
호식당할 운명
호종단
혹부리영감
혼쥐
홀어미산성
홍계관
홍수설화
화석정
화소
화수분
화엄사
환생담
환생화소
황룡사
황새의 노래 재판
황희
효녀 지은
효부와 호랑이
효불효다리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효자동
효행담
훈장 골탕 먹인 제자
훈장 장가보낸 학동
흥륜사

하

: 히읗

민담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 쌓는다의 유래

정의 하룻밤의 인연이라도 만리장성을 쌓을 만큼의 큰 일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쓰이는 속담 설화.

역사 정약용은 1820년에 펴낸 『이담속찬(耳談續纂)』에서 "일야지숙장성혹축(一夜之宿長城或築)'이라 하여 비록 잠시라도 마땅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雖暫時之須不宜無備]"라는 뜻으로 풀이했고, 1855년에 조재삼이 쓴 『송남잡지(松南雜識)』에서도 "일야만리성(一夜萬里城)이란 원래 왜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하룻밤을 자고 가도 반드시 성을 쌓았다는 데에서 유래했으나 남녀관계를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문헌에서 밝힌 의미는 하룻밤을 자더라도 성을 쌓을 정도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남녀관계로 쓰일 때에는 잠시 만난 사이라도 깊은 정을 맺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속담의 유래설화는 하룻밤 동침한 여인의 계략 때문에 평생 만리장성을 쌓은 남자의 사정을 경계한 내용으로 전승된다.

줄거리 남편이 만리성을 쌓는 데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아 여인이 홀로 지내고 있었다. 떠돌던 소금장수가 방문하자 여인이 자기와 같이 살자고 말했다. 소금장수가 좋다고 승낙하자, 여인은 자기 대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지어놓은 옷을 전해 주고 오면 평생 같이 살겠다고 약속했다. 소금장수는 그날 하룻밤 여인과 동침한 후 만리성을 쌓는 곳까지 가서 여인의 남편에게 옷과 편지를 전달했다. 남편이 편지를 보니 소금장수가 대신 성을 쌓게 하고 남편에게는 속히 돌아오라고 쓰여 있었다. 남편은 소금장수에게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잠깐 자기 대신 성을 쌓아달라고 부탁하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잘 살았다.

변이 여인과 동침하게 된 남자는 소금장수와 같은 떠돌이이거나 이웃사람 또는 집의 머슴으로 등장한다. 때로 성 쌓으러 간 남편을 삼대독자 외아들로 대를 이어야 할 귀한 자손이라 강조하고, 동침하게 된 남자는 늙도록 혼인도 하지 못한 총각에다 신세한탄이나 하는 무지한 인물로 그리기도 한다. 소금장수와의 동침은 주로 여인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성립되지만, 때로 남자들이 홀로 있는 여인에게 끊임없이 접근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변이는 설화가 지닌 비윤리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 이 설화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정절에 대한 관념이 없고 여인은 오히려 성을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화자들은 여인을 열녀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부 때문에 평생 만리성을 쌓아야 되는 소금장수의 억울한 사정에 주목하고 있다.

의의 이 설화는 속담 자체의 의미와 달리, 대체로 남자들에게 낯선 여자의 성적 유혹을 경계하라는 교훈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여인의 비윤리성 때문에 상스러운 이야기라거나 가벼운 이야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출처 耳談續纂, 松南雜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3, 776; 4-4, 354; 5-4, 249; 6-11, 298; 7-2, 294; 8-8, 165.

참고문헌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홍나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구비 열설화 연구(이인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속담사전(이기문, 민중서관, 1962), 속담이야기(김선풍·리용득, 국학자료원, 1993), 한국속담사전(편찬위원회, 여강출판사, 2001), 한국속담의 근원설화(강재철, 백록출판사, 1980).

필자 홍나래(洪나래)

신화

하음봉씨시조신화

河陰奉氏始祖神話

정의 하음 봉씨 시조인 봉우(奉佑)의 탄생과 성장, 득성(得姓)에 관한 신화.

줄거리 〈하음봉씨시조신화〉는 『하음봉씨대동보(河陰奉氏大同譜)』, 『시조하음백봉우유적비(始祖河陰伯奉佑遺蹟碑)』, 『성씨의 고향』 등에 기록되어 전하는데,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106년(고려 예종 원년) 어느 날,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기슭 연못[龍淵]가에 상서로운 광채가 비치고 비가 내렸다. 마침 물을 기르던 노파가 이상히 여겨 살펴보니 돌상자가 떠 있고, 상자 안에는 사내아이가 있었다. 노파가 이 아이를 궁중에 바치니 왕은 기이하게 여겨 왕실에서 키우도록 했다. 노파가 봉헌했다 하여 성을 봉(奉)이라 하고 국가를 보우(保佑)할 인재라 하여 이름을 우(佑)라 하였다. 아이가 자라면서 뛰어난 재주를 보여 하음백(河陰伯)에 봉해졌다. 본관 하음(河陰)은 이 고을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신화 내용은 거의 흡사하나 기록에 따라 노파가 석함을 발견한 곳을 우물, 대택(大澤), 해안(海岸)이라 적고 있다.

분석 하음 봉씨는 인천시 강화군 하음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土姓)이다. 시조 봉우는 1106년에 태어난 사람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 다른 성씨시조에 비해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그동안 문헌자료를 토대로 신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거나 현장답사를 통해 설화를 고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지에서 채록된 설화와 그와 관련한 유물·유적을 토대로 〈석탈해신화〉와 비교 검토하여 '상고시대 이 지역 작은 부족국가의 건국신화로 출발하였던 것이 연륜과 함께 퇴색되어 전승되어 온 것'으로 고찰하거나 탄생 모티프로 본 〈봉씨설화〉를 〈박혁거세신화〉, 〈김알지신화〉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하기도 하였다. 문헌을 통해 전승되는 자료에 비해 강화도 일대에서 채록된 구전자료는 내용상 변이가 일어나 흥미 위주로 전승되고 있다.

의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 시조의 특출함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하음 봉씨 시조인 봉우의 묘소가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에 있으며, 봉우가 태어난 곳인 봉가지(奉哥池)가 강화도에 있었던 기록으로 보아 당시 봉씨 씨족집단은 강화도에서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 봉천대, 봉천사, 석상각 등이 현존하며, 이 유물과 유적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증거물은 〈하음봉씨시조신화〉의 진실성과 신성성을 확보하는 구심력이 되고 있어, 후손에게는 다른 씨족집단과 변별되는 자긍심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始祖河陰伯奉佑遺蹟碑, 성씨의 고향(중앙일보사, 1989), 하음봉씨대동보(1997), 한국인의 족보(일신각, 1977).

참고문헌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8), 한국씨족설화 연구(허경회,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서해숙(徐海淑)

전설

하회마을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하회마을에 전승되는 설화.

역사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마을 전체를 동쪽과 남쪽, 서쪽 세 방향으로 감싸 도는 빼어난 터에 자리 잡은 풍산 류씨(豊山柳氏) 동성 마을이다. 지형은 풍수학적으로 태극형(太極形)·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행주형(行舟形)이라고 한다. 낙동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S자형을 이루면서 마을을 감싸고 흐른다 하여 하회(河回)라는 이름이 붙었다. 안동 하회마을에는 대체로 허 씨(許氏)와 안 씨(安氏) 등 유력한 씨족이 살아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635년(인조 13)의 기록을 보면, 류씨(柳氏)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성 마을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류씨의 입향조는 8세 전서공(典書公) 류종혜(柳從惠)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동족 기반은 중흥조 류운룡(柳雲龍)과 류성룡(柳成龍)에 의해 이루어졌다. 류운룡은 14세손이며 류성룡은 지손(支孫)인데, 이 두 계손들을 겸암파(謙菴派)와 서애파(西厓派)로 부르기도 한다. 낙동강의 상류인 화천(花川)이 하회마을을 감싸고 흐르며, 그 둘레에는 넓은 모래밭이 펼쳐져 있다. 이 중 일부가 〈피 천석 묘〉 이야기에 나오는 섬들이다. 서북쪽에는 울창한 노송림(老松林)인 만송정이 들어서 있다. 강류(江流)의 마을 쪽이 백사장인데 반해, 건너편은 층암절벽으로 부용대 등 여러 정대(亭臺)와 정사(精舍)가 자리 잡고 있어 경승지이다. 과거 강 건너 인근 마을로 통하는 교통수단은 나룻배였으며, 음력 7월 보름에는 부용대 밑에서 선유줄불놀이와 함께 시회(詩會)가 열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은 하회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줄거리 풍산 류씨가 하회마을에 정착하게 된 내력을 형상화한 이야기와, 선(先) 거주민이었던 순흥 안 씨가 피 천석을 얻으며 자연스레 마을 주도권을 류 씨들에게 내주게 된다는 이야기가 중심이다. 먼저 풍산 류씨가 하회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만인적선〉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전서공이 화산을 오르내리면서 3년간 답산을 한 뒤에 연화부수형의 명당임을 알고 지금의 하회에 터를 잡고자 양진당 자리에 집을 지었다. 그런데 집을 지어놓으면 밤새 무너지곤 했다. 세 차례나 그러고 나서 기진맥진하여 잠이 들었는데, 도사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이 터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마을로 들어오는 고갯길에서 3년 동안 만인(萬人)에게 적선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마을 입구 큰 고개에다가 원두막을 짓고 길



하회마을 전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한국관광공사

가는 사람들에게 밥도 주고 신발도 주고 잠도 재워 주며 3년 동안 적선을 하였다. 그런 뒤에 집을 짓자 더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 집을 이룬 것이 지금 양진당의 사랑채 일부라고 한다. 전서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길지에 마을을 이루어 발복(發福)한 까닭에서인지 하회에 터 잡은 풍산 류 씨는 점차 가문이 번성했다. 반면에 화산 기슭에 터를 이루었던 허 씨와 안 씨는 상대적으로 문중이 위축되어 하회를 떠나는 사람이 늘게 되었다. 결국 하회마을은 허 씨와 안 씨의 터전이었던 화산 기슭에서 화천가에 자리 잡은 류 씨들의 터전으로 중심이 이동되었다. 다음으로 〈피 천석 묘〉 이야기는 풍산 류씨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세거해 오던 안 씨들 중 한 부부가 주인공이다. 고려시대 때 가난한 안 씨 부부가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쓰러져 있는 행각승을 만났다. 안 씨 부부는 이를 가엾이 여겨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없는 살림에도 살뜰히 구완을 했다. 부부의 도움으로 깨어난 행각승은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서 명당을 하나 잡아주겠다고 하더니 "삼정승이 나는 명당과 당년에 천석을 하는 명당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 하고 말했다. 워낙 궁핍해서 호구지책이 막연했던 부부는 서슴지 않고 "당년에 천석을 할 수 있는 명당을 잡아 달라."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행각승이 잡아 준 자리로 부부는 선고의 묘를 이장했다. 그해 여름에 장마가 지고 물길이 바뀌더니 묘 아래편 현재의 섬들에 드넓은 들이 생겨났다. 부부가 그 들에 피 종자를 뿌리니 그해에 천석을 수확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동네 사람들이 그 안 씨의 묘를 '피 천석 묘'라고 부르게 되었다.

분석 하회마을과 관련한 〈만인적선〉 이야기와 〈피 천석 묘〉 이야기는 본래 살고 있던 선주민인 허 씨와 안 씨, 풍산 류 씨가 어떻게 홍망성쇠를 이루어 왔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길 끝 마을인 하회에서 풍산 류 씨가 선주민인 허 씨와 안 씨들에게 만인적선을 행함으로써 터를 얻었다는 것과, 안 씨들이 당대에 천석꾼이 될 욕심으로 인해서 후대의 명운을 풍산 류 씨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향 초기 전서공이 건물을 지으려고 기둥을 세워 놓으면 밤사이 무너져 내려서 만인적선을 통해 덕을 쌓고 나서야 현재의 양진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별신굿의 성줏대는 하회마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자연 조건 속에 터 잡고 있는 하회마을 주민들의 기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풍산 류 씨의 입향사와 허 씨와 안 씨, 류 씨로 이어지는 세거사를 알 수 있다. 전서공이 밀림지대였던 화천가에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과 집을 지으려 했을 때 거듭 무너졌다는 이야기, 하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회로 들어오는 고갯길에서 적선하는 것은 곧 하회에 터 잡고 사는 선주민 세력들에게 전적으로 봉사한 셈이다. 신참자로서 선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봉사를 한 뒤에, 마침내 그들의 동의를 얻어 지금의 터에 마을을 이룩하게 된 것이 오늘의 하회라고 하겠다. 〈피 천석 묘〉 이야기는 '섬들'이 생태계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땅이며, 안 씨들이 하회의 주성씨였던 때부터 '섬들'이 하회의 중요한 물적 기반이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당대의 재물을 탐낸 안 씨들의 쇠락을 당연시하면서 하회 류씨들의 세거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 하회마을의 이야기는 마을의 유래와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반상(班常)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안동 하회마을에는 오랜 민간전승 놀이인 선유줄불놀이와 하회별신굿이 행해지고 있는데, 별신굿에 쓰였던 하회탈 및 병산탈들은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작 연대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별신굿 때 쓰이는 탈과 관련한 〈허도령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향언으로 "허 씨 터전에 안 씨 문전에 류 씨 배판"이라고 하여 허 씨와 안 씨가 터를 닦고 마침내 류 씨에 이르러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뜻으로 회자되고 있다. 또한 〈만인적선〉 이야기나 〈피 천석 묘〉 이야기 등은 모두 풍산 류씨가 세거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동성 마을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경북북부지역의 전통문화(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88), 민속마을 하회여행(임재해, 밀알, 1994).

참고문헌 경북북부지역의 전통문화(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88), 민속마을 하회여행(임재해, 밀알, 1994), 안동문화재대관(안동시, 2007).

필자 조정현(曺鼎鉉)

전설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

정의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시작된 내력을 들려주는 이야기로, 이매탈이 미완성이라는 증거를 통해 개연성을 높이는 전설.

역사 고려 중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오래된 탈놀이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다.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는 원형 그대로의 하회탈 9점이 전승되고 있다. 마을굿(별신굿)의 일환으로 노는 농촌 탈춤의 전형을 이루고 있어 서낭굿 계통 탈놀이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 연극사 이해의 중요한 자료이다.

줄거리 옛날 허 도령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허 도령은 꿈에 마을의 수호신으로부터 가면 제작 계시를 받았다. 이튿날 허 도령은 목욕재계하여 집안에 외인의 출입을 막는 금줄을 치고 전심전력으로 가면 제작에 몰두했다. 그때 허 도령을 몹시 연모하는 처녀가 있었다. 처녀는 여러 날을 기다렸으나 허 도령을 볼 수가 없었다. 약속한 금기의 백일을 하루 앞둔 날, 허 도령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던 처녀가 그 모습이나 보고자 창에 구멍을 뚫어 엿보고 말았다. 금단의 계율을 어긴 것이다. 입신지경이던 허 도령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들던 이매탈은 턱이 없이 남게 되었다. 그 후 처녀도 번민하다가 마침내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낭신으로 고이 모시고 해마다 당제를 올리고 특별히 10년마다 별신굿을 벌여왔다고 한다.

변이 출처에 따라서 전설의 주인공이 허 도령이 아니라 안 도령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회마을에 먼저 정착했던 두 성씨에 의해서 별신굿탈놀이가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기근이나 질병 등을 근거로 삼아 탈을 깎게 된 이유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막연히 신의 계시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에 대한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된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에서는 십 년마다 혹은 신탁이 있는 해에 별신굿과 함께 탈놀이가 전승되었다.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마을 별신굿을 하면서 연행되는 탈놀이를 흔히 하회탈춤이라 일컫는다. 서낭당에서 신 내림을 받은 다음 서낭신을 태우고 오는 무동 마당에 이어,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복을 부르는 주지 마당, 소를 잡는 백정 마당, 고단한 질곡의 삶을 희화한 할미 마당, 파계승을 주제로 한 중 마당, 지배층의 허위를 풍자하는 양반·선비 마당, 허 도령과 김씨 처자를 위무하는 혼례 마당, 모의적으로 연행하는 신방 마당, 무당이 연행하는 헛천거리굿 등으로 마무리를 한다. 허 도령과 김씨 처자의 비극적 당신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원혼을 달래는 방식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어 왔다. 원혼을 달래는 제의를 최대한 풍성하고 다양하게 형상화하고 있는데, 서낭신을 무동에 태워서 모셔오는 것, 백정이 소(희생)를 잡는 것, 혼례 마당과 모의적 성행위굿으로서 신방 마당 등을 연행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전설의 핵심적 증거로서, 턱이 없는 미완성의 이매탈은 바보 캐릭터를 통해 세상만사를 풍자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낭신은 각시로 분명하게 형상화되고 인식되는 반면, 허 도령의 존재는 혼례, 신방 마당에 나타나는 흔적을 제외하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국립민속박물관



하회탈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주지 마당과 백정 마당을 들 수 있다. 주지와 같은 상상의 동물을 끌어들여 굿판을 정화시키는가 하면,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던 별신굿의 제의적 전통을 극적으로 형상화하여 지배층을 풍자하는 놀이로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당이다. 혼례 마당과 신방 마당도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특징을 이루는데, 처녀서낭신을 위로하는 굿이므로 처녀신을 시집보내고 초야를 치르도록 하는 주술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할미 마당과 중 마당, 양반·선비 마당은 다른 지역 탈춤의 거리에서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내용에는 상당



하회탈놀이패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국립민속박물관

한 차이가 있다. 할미는 다른 탈춤에서 첩 때문에 고난을 겪다가 죽음에 이르는데, 하회탈춤에서는 시집살이의 고난을 신세타령으로 털어놓다가 영감과 반찬 다툼이 벌어지면서 일방적으로 영감을 궁지에 몰아넣고 반찬을 다 차지한다. 음식을 두고 가부장의 횡포를 풍자하는 셈이다. 양반·선비 마당은 하인의 공격을 받는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풍자되는 다른 탈춤과 달리, 양반과 선비가 서로 다투면서 모두 하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간접적인 풍자 방식을 이룬다. 양반과 하인 사이의 신분적 갈등을 직접적인 대립으로 나타내지 않고 양반과 선비의 다툼으로 간접화한 것이 특징이다. 위와 같은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전설〉은 신화와 제의의 긴밀한 연계 고리가 되고 있으며, 제의를 보증하고 신성성을 강화하는 유기적 결합을 이루어 냈다.

의의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전설〉은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지속적으로 연행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 중 이매탈이 전설에서와 같이 미완성인 채로 탈놀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혼례 마당과 신방 마당을 통해 원혼에 대한 위무와 모의적 성행위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탈놀이 자체가 신화를 재현한 제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잘 드러낸다. .

출처 부락제(조선총독부, 1937), 하회별신탈놀이(성병희, 한국민속학12, 민속학회, 1980).

참고문헌 민속마을 하회여행(임재해, 밀알, 1994), 영남지방의 동제와 탈놀이(박진태, 태학사, 1996), 하회탈춤 전통의 재창조와 안동문화의 이미지 변화(조정현, 비교민속학29, 비교민속학회, 2005).

필자 조정현(曺鼎鉉)

자료

학산한언

鶴山閑言

정의 조선 숙종 때 신돈복(辛敦復, 1692~1779)이 편찬한 야담집(野談集).

내용 신돈복이 젊은 시절부터 노년기인 1759년(영조 35) 무렵까지 수집해 두었던 자료를 1779년(정조 3) 타계하기까지 사이에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현실적 이야기와 비현실적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체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 그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귀신이나 혼령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다. 시화(詩話)·권학(勸學)·풍수(風水)·효자(孝子)·의인(義人)·응보(應報)·도술(道術)·신귀(神鬼)·신수(神獸)에 관한 이야기와 기타 명나라의 멸망 원인, 명나라 유민(遺民)들의 청나라에 대한 불복종, 우리나라의 국토와 인물, 중국 명사들의 국토 편력, 조양래(趙陽來)의 신점(神占), 영변 길정녀(吉貞女)와 신명희(申命熙)의 결연담, 정선(鄭敾)의 그림에 대한 평, 임경업(林慶業) 장군 일화, 규염객(虯髯客)과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상관에 대한 견해, 봉산의 무변 이야기 등이 있다. 특히 한무외(韓無畏)의 〈해동전도록〉이 실려 있어 우리나라 선도(仙道)의 맥을 알 수 있게 한다.

『학산한언(鶴山閑言)』이 실려 있는 『야승(野乘)』은 장서각 소장 21책,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28책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복사본으로 소장되어 있는 것은 초략본으로, 원본은 일본 도쿄대 아천문고(阿川文庫)에 있다. 『학산한언』은 『청구야담(靑邱野談)』, 『기문총화(記聞叢話)』 등 후대 야담집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필자 이강옥(李康沃)

전설

한라산

漢羅山

정의 오름과 백록담 등 한라산과 관련한 전설.

줄거리 제주도의 거녀(巨女)인 설문대할망은 워낙 힘이 세고 키가 커서 제주도 어디를 가나 그녀에 관한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할망(할머니)은 치마폭에 흙을 담아 운반하여 한라산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흘린 흙들이 360여 개의 오름(작은 산)이 되었다. 설문대할망은 큰 키를 자랑이라도 하듯 한라산과 제주시 북쪽 먼 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두 발을 디디고 바닷물에 빨래를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중심에 우뚝 선 한라산은 예부터 신선이 놀던 산이다. 신선들은 흰 사슴을 타고 한라산의 절경을 구경하다 백록담에 이르러서는 그 물을 사슴에게 먹였다. 한 사냥꾼이 활을 들고 백록담 가의 바위 뒤에 숨어 있었는데, 수많은 사슴이 떼로 몰려오자 놀라서 엉겁결에 맨 뒤에 따르는 작은 사슴 한 마리를 쏘았다. 얼마 뒤 백록을 탄 노인이 사슴들을 점검하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

변이 한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슴을 잡으러 가서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급히 활을 치켜들다 아차 실수하여 활 끝으로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말았다. 옥황상제는 화가 나서 한라산의 봉우리 하나를 뽑아 서쪽으로 내던졌는데, 그것이 안덕면 사계리의 산방산이 되었고, 봉우리 하나를 뽑아낸 자국이 백록담이라고 한다.

분석 한라산은 봉우리가 평평하다 하여 두무악(頭無岳), 활이나 무지개처럼 둥글게 굽어 있다 하여 원산(圓山)이라 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는 두모악(豆毛岳)이라고도 하는데, 산의 연락이 하나같지 않고 봉우리 꼭대기에 모두 못이 있어서 마치 물을 담은 그릇을 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래산(금강산), 방장산(지리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영주산(한라산)이 제주를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이름이다. 진시황이 서복(徐福)에게 동남동녀 오백 명을 거느리고 한라산에 가서 불로초를 찾아오도록 명하였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한라산은 신령한 산이다. 한라산을 오르는 입구에는 방선문(訪仙門)이 있다.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인 영구춘화(瀛丘春花)로도 알려진 이곳을 지나면 선계(仙界)로 올라 신선을 만날 수 있다. 그 신선이 백록을 타고 한라산을 돌아다니다 산정 호수의 맑은 물을 백록에게 먹인다고 하여 그곳이 백록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라산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문화재청

특징 한라산의 백록담을 이해하는 데서 1771년에 장한철(張漢喆, 1744~?)이 기록한 『표해록(漂海錄)』을 빼 놓을 수 없다. 『표해록』 1월 5일자 표류 기록을 보면 "멀리 한라산이 보이자 사람들이 너무 기뻐 울며 하는 말이 '우리 부모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 내가 오기를 애타게 고대하는구나! 내 아내와 자식이 저 민둥산에 올라 바라보며 애타게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구나!'라고 하였다. 어떤 이는 일어나 한라산을 향해 절을 하면서 '흰 사슴을 탄 신선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설문대 할머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었다."라는 대목이 있다.

표류하다 기진맥진한 제주사람들이 한라산을 향해 살려달라고 기원하는 대상이 백록선자(白鹿仙者)와 선마선파(詵麻善婆, 詵麻姑)이다. 이는 〈백록담설화〉와 〈설문대할망설화〉가 단순히 구전되어 온 이야기만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한라산신으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그 위치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설문대할망이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 한라산에서 노닐었다고 하니 한국 본토 서해안 지역에서 전승되는 〈마고할미설화〉와의 연관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의 한라산의 한라(漢拏)는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라산은 너무 높아 여기에 올라 남극노인성을 굽어볼 수 있으며, 이 별을 본 사람들은 장수한다고 한다. 한라산은 제주의 상징으로 그 정상 분화구 안에 있는 못은 옛날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곳에서 백록(白鹿)을 타서 놀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를 찾은 시인 묵객이나 관리들이 한라산을 오르면서 이 백록담에서 제주의 주변을 한 눈에 조망하며 백록담 전설을 음미하였다.

백록담의 유래담이지만, 제주민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한라산이 너무 높아 하늘에 닿을 듯하니 거기에 가면 옥황상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과 백록담 분화구

를 옥황상제가 화가 나 뽑아 던진 것이 산방산이라는 것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겠지만 이것은 제주사람들의 자연물에 대한 해석이요, 지형 설명 전설이다.

출처 南冥小乘, 漂海錄, 역주탐라지(이원진, 김찬흡 외 역, 푸른역사, 2002), 제주도전설지(제주도, 1985).

참고문헌 등한라산기(제주문화원, 2000), 한라산의 구비전승·지명·풍수(좌혜경·오창명·신영대,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필자 현승환(玄丞桓)

전설

한양도읍

漢陽都邑

정의 조선시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는 과정과 궁궐 건축 과정을 다룬 설화.

역사 〈한양도읍설화〉는 무학대사[自超, 1327~1405]와 관련된 것이 많다. 무학대사는 고려 말엽에서 조선 초의 승려로 속성은 박 씨이며,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출생하였다. 18세(1344년)에 출가하였으며, 공양왕이 왕사(王師)로 모시려 하였으나 사양하였고, 후에 이성계(李成桂, 1335~1408)의 부름에 응해 왕사가 되어 조선 건국을 도운 인물이다. 『태조실록(太祖實錄)』에 이성계가 새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하는데 무학대사가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성계 꿈 해몽과 관련된 이야기가 『순오지(旬五志)』, 『지봉유설(芝峰類說)』,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전한다. 아울러 궁궐을 세울 때의 일화나 정도전(鄭道傳, 1342~1398)과의 논쟁 등의 이야기들이 구전되는 것을 볼 때 이 설화는 적어도 조선 건국 초기에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줄거리 〈한양도읍설화〉는 무학대사와 관련된 것이 많다.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키웠다는 이야기나 이성계가 왕이 될 것이라는 해몽으로 건립하였다는 강원도 설봉산의 석왕사(釋王寺) 유래담이 있다. 아울러 궁궐을 지을 때 정도전과 대립한 것에 관한 이야기도 전한다. 무학대사와 관련되어 구전하는 설화 중에서는 궁궐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성계는 즉위 후 도읍을 정하기 위해 무학을 데리고 팔도강산을 돌아다닌다. 강원도는 금강산이 있어 경치는 좋으나, 산골이라 도읍을 앉힐 만한 자리가 없었다. 경기도에 들어서니 한강이 흐르고 앞에는 남산이, 뒤에는 삼각산이 있어서 산수가 좋았다. 삼각산 명맥이 인왕산을 이루고 인왕산 명맥이 떨어져 봉황산이 되고 있기에, 이곳에 도읍을 정하기로 하고 누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누각을 세우기만 하면 계속 넘어져 세울 수가 없었다. 이에 충청도로 나가 도읍을 정해 보자며 충청도로 향하였는데, 가는 도중 한 농부가 "이놈의 소 무학같이 우둔하다."라며 밭 가는 소를 야단치는 말을 듣게 된다. 이에 놀란 무학이 노인에게 까닭을 물었더니, "경기도에 들어가 도읍지를 찾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니 무학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묻는다. 이에 무학이 "자리는 좋으나 누각이 서지 않는다." 하자, "학(鶴)의 허리에 집을 세우니 무너진다."라며, "학의 두 날개를 누른 후 집을 세우라."라고 한다. 농부에게 절을 하고 돌아와 성을 쌓아 날개를 누른 후 누각을 세우니 아무 탈이 없었다. 결국 농부의 조언으로 경기도 삼각산 앞에 도읍을 정하게 된 것이다.

변이 대궐 창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각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각편에 따라 무학대사 대신 도선으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상심한 무학대사가 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나는 것으로 설정된 것도 있다. 또한 농부가 꾸짖는 대상이 이성계로 설정된 예도 있고, 한양의 형국을 봉황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울러 무학대사에게 방법을 알려 준 노인이 산신령으로 이야기되기도 하며, 무학대사가 도읍 터를 정하기 위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노인이 "십 리만 더 들어가면 좋은 터를 발견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의 한양 터를 잡았다는 왕십리유래담으로 변이된 것도 있다.

분석 그간 〈한양도읍설화〉는 풍수지리설과 관련되어 무학대사의 풍수이론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이름난 지관의 실수 혹은 이인의 도움 같은 연구에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이성계의 건국과 관련하여 〈이성계설화〉에서 다루기도 하였다. 아울러 궁궐 터를 지정할 때 정도전과 특별한 대립 관계에 있었음을 주목하여 유교와 불교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예도 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 궁궐을 세운 이야기에서는 지관으로서 이름 있는 무학대사가 한양의 터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여 궁궐을 짓지 못했지만, 이인의 도움으로 완성한다. 이에 주목하여 명지관으로 이름난 박상의(朴尙義, 1538~1621)나 남사고(南師古, 1509~1571)의 설화와 비교되기도 한다.

특징 이 설화는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 설정 과정과 궁궐 건축 과정에서 무학대사를 무능력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화소가 두 개 나타나는데, 하나는 무학대사를 꾸짖는 농부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을 풍수지리상 학의 형국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하층민으로 인식되는 농부가 세상 이치에 통달한 고승으로 새 왕조의 건설을 돕고 있는 국사를 조롱한다. 즉 왕의 스승이 일개 농부보다 못한 무능력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나아가 풍수지리에 어두워 도망을 치는 비겁한 인물로까지 그려진다. 한 나라의 국사가 농부만도 못하다면 그 국사의 가르침을 받는 인물은 그보다 더 못난 인물일 수밖에 없음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을 풍수지리상 새(학이나 봉황) 형국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풍수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던 당시에 도읍 터를 못 찾아내거나, 찾더라도 형상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라의 흥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무학대사는 자리도 못 잡거니와 형국 자체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백성들은 은연중 새로운 왕조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세와 백성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의의 〈한양도읍설화〉는 전국에 분포하여 전승되는데, 대부분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도읍지 설정과 궁궐 건축 과정에서 무학대사를 무능력한 인물로 표현한다. 무학대사는 고려 공민왕과 공양왕의 왕사 자리를 수차례 사양하였다가,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왕사가 되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는 충분하며, 조선왕조에 대한 불만이 왕사인 무학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설화는 조선왕조와 이성계에 대한 불만을 왕사인 무학대사를 무능력한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새로운 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민간설화자료집3(허경진, 보고사, 2006), 서울의 전설모음(임석재, 향토서울4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8),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2, 291; 6-4, 904; 7-3, 708; 8-14, 241; 565.

참고문헌 무학대사의 풍수도참사상에 관한 연구(박상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무학전설의 형태와 의미(김일렬, 어문논총31, 한국문학언어학회, 1997), 이성계설화의 전승과 의미 연구(이화영,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필자 박종오(朴宗吾韓)

전설

한우물

상호참조 우물명당

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화정리 대정마을 당산제유래담으로 한우물에 관한 전설.

줄거리 옛날에 남다른 혜안이 있는 풍수가 살았는데, 죽으면서 아들에게 명당을 알려 주려고 했다. 이때 부인은 남이기 때문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유언을 듣지 못하게 했다. 풍수는 아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기 목을 베어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마을에 있는 우물에 넣으라고 유언을 남기는데, 이를 부인이 방 밖에서 몰래 엿듣는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유언에 따라 목을 베어 몰래 우물에 넣었는데, 풍수의 아내가 아들과 다투다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발설한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파자 막 일어서려던 검은 소가 그만 연기 속으로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우물에서 귀곡성이 들리는 등 마을에 변고가 그치질 않자 무당을 불러 통한에 젖은 우룡신의 한을 푼 뒤 우물을 메우고 위쪽에 새 우물을 파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대정마을에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부녀자들이 남몰래 우물에 나와 불을 밝히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생겼다.

변이 이 설화는 〈우물명당설화〉의 대표적인 지역전설로, 전국에 널리 분포하며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다만 각편에 따라 우물에 수장한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발설하는 사람이 며느리나 딸로 설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외인(外人)으로 규정되어 모의(謀議)에서 제외된 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간혹 자신들만 잘되고 마을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발설하는 변이형도 있다. 또한 대체로 어머니 혹은 여성의 발설로 자손들이 망하지만, 발설하는 부분 없이 아들들이 잘살게 되는 결말도 있다.

분석 〈한우물전설〉 혹은 〈우물명당설화〉는 명당 발복에 관한 풍수설화라는 측면, 설화에 등장하는 어머니 혹은 여성의 이미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묏자리로 적합하지 않은 우물이 명당으로 설정된다는 점과 외인으로 취급받는 어머니 혹은 여성이 비밀을 발설함으로써 일을 망치는 주체로 설정된다는 점 때문이다.

특징 이 설화는 '금기의 설정과 파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풍수의 시신이 우물 밖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의 설정은, 비밀 발설이라는 금기를 위반하여 용이나 검은 소로 재생하려던 시도가 좌절된다. 이때 발설의 주체가 가족 구성원이지만, 외인으로 취급받은 어머니 혹은 여성이라는 점은 갈등구조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이 설화는 지역과 관련되어 지명과 공동체 제의의 유래를 설명해 준다.

의의 이 설화는 전국에 분포하는데, 명당 획득과 함께 집안 내의 갈등, 나아가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가치에 대한 대립

과 갈등 관계를 보여 준다. 집안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혈연관계를 설정하여 여성을 배제하고자 했던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이나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명 유래담이면서 의례기원담으로서 의의도 함께 지니고 있다.

출처 남원의 마을유래(남원시, 1998).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3, 328; 4-6, 558.

참고문헌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과 여성의 죄(김영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에서 나타나는 비밀 폭로자로서의 여성 이미지 연구(김영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한국 풍수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 분석(신월균,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필자 박종오(朴宗吾)

전설

할미산성

정의 마고할미와 고모할미라는 두 여성 거인이 성 쌓기 내기를 벌이는 등 할미산성과 관련된 설화

줄거리 할미산성이 남아 있는 경상북도 문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여성 거인설화의 한 형태이다. 하늘의 선녀인 마고(麻姑)와 고모(姑母)라는 두 할미가 서로 성 쌓기 내기를 하였다. 마고할미는 문경읍 마원리의 마고산성을 쌓고 고모할미는 마성면 신현리의 고모산성을 쌓게 되었다. 할미들이 밤중에 바짓가랑이에 돌을 담아 구름을 타고 와서 하룻밤 동안에 성을 쌓던 중, 마고할미가 고모할미는 얼마나 쌓았는지 궁금하여 잠시 넘겨다보는 사이 고모할미에게 그만 패배하고 말았다고 한다.

분석 〈할미산성설화〉는 여성 거인들의 축성(築城) 대결담으로, 대결을 벌이는 쌍방의 존재나 돌을 옮겨 와 성을 쌓는 행위의 대결 양상에서 고대 거인신화적 면모를 잘 간직한 설화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런 설화에서 여성 거인이 성 쌓기 대결을 벌이는 모습은 누이의 축성에 초점을 맞춰 오빠와 대결을 벌이는 내용의 〈오뉘힘내기설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다만 〈할미산성설화〉에는 여성 거인들이 왜 성 쌓기 내기를 벌였는지를 설명하는 필연성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대결 주체 사이에 별다른 갈등도 수반하지 않는다. 반면 〈오뉘힘내기설화〉는 여성 거인적 존재와 그 행위를 그대로 살리면서 남성 신과의 갈등 속에서 대결을 벌이는 형태로 변모된 것으로 보인다. 누이의 성격이나 성 쌓는 행위가 〈할미산성설화〉의 여성 거인신의 행적에 그대로 합치한다는 점과 전승 자료에 따라서는 성을 쌓는 누이의 행위가 거인의 행위인 것으로 겹쳐 나타나는 자료가 있다는 점 그리고 누이가 쌓다가 만 성을 할미성이라고 부르는 자료들도 있다는 점에서 〈오뉘힘내기설화〉와의 친연성이 뚜렷하다.

특징 돌을 옮겨 와 여성 거인끼리 성 쌓기 내기를 벌이는 내용의 설화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거인인 마고할미 부부가 각기 성과 탑을 쌓는 내기를 벌이는 경기도 화성 지역의 〈형도의 탑과 오리섬〉이라든가,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서 전승되는 마을 인근 산의 유래처럼 마고할미 내외가 각기 산을 옮기는 모습을 보이는 설화들이 유사한 성격의 이야기이다.

출처 내고장 전통가꾸기(충주시, 1981). 전설지(충청북도, 1982).

참고문헌 영남의 전설(유증선, 형설출판사, 1971). 한국의 거인설화(권태효, 역락, 2002). 한국학연구의 성과와 그 성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필자 권태효(權泰孝)

전설

할미할아비바위

정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 해수욕장에 있는 명승 제69호 안면도 할미할아비바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역사 신라 제42대 흥덕왕(興德王, 재위 826~836) 때, 해상왕 장보고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신라를 잇는 해상교통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서해안의 중심지인 안면도 건승포에 전략기지를 두고 책임자로 '승언(承彦) 장군'을 파견하였다. 이 전설은 그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지금부터 약 1,150여 년 전 승언 장군에게는 '미도'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다. 장군과 부인은 서로 무척이나 사랑



할미할아비바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010.7, 한국관광공사

해 정이 나날이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상부의 명령을 받고 출정하기 위해 장군은 부인과 헤어졌다. 부인 미도는 날마다 견승포 바위에 올라가 속을 태우며 남편이 돌아오길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이렇게 수년을 기다리다 부인 미도는 바위 위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바위가 남편만 돌아오길 기다리며 서 있는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 버렸고, 그 옆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또 솟아올랐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 바위를 '할미할아비바위'라 불렀다.

변이 〈할미할아비바위전설〉은 꽃지 해수욕장에 전해오는 전설로, 사람들 사이에는 사공 남편을 기다리는 할미바위로 회자되기도 하였다.

분석 이 전설은 해안가 바위 모양을 보고 형성된 전설로 여자가 남편을 위하여 정절을 지킨 열녀설화와 맥을 같이한다. 그렇지만 상부의 명령으로 전쟁에 출정하여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부인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유교 사회의 열녀설화들과는 다른 애틋한 민중의 정서를 담은 애정담이라고 볼 수 있다.

특징 이 전설은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해당화가 줄지어 피어 '꽃지' 또는 '화지(花地)'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름다운 해변과 방포항으로 연결된 꽃다리 그리고 두 바위 뒤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낙조가 있는 명승지와 남녀 사이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어울려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출처 서산민속지-하(서산문화원, 1987). 충남전설집-하(충청남도 향토문화연구소, 1986).

참고문헌 안면도지(안면도지편찬위원회, 1990). 태안군지(태안군, 1995).

필자 이인화(李仁和)

자료

해동고승전

海東高僧傳

정의 각훈(覺訓)이 왕명을 받아 1215년(고려 고종 2)에 편찬한 국내 고승들의 전기집.

내용 현재 2권의 필사본만이 전하고 있는데, 요원(了圓)의 『법화영험전』「현비구니신(顯比丘尼身)」의 말미에 "出海東高僧傳第五(출해동고승전제오)"라 쓰여 있어 원래는 적어도 5권 이상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된다. 남아 있는 문헌은 고승들의 불교 유통을 전하는 2권의 '유통편(流通篇)' 인데, 양(梁)·당(唐)·송(宋)의 세 고승전의 체제를 참조해 서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권의 머리말은 부처의 가르침과 부처의 생애,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불교가 전해진 과정을 서술했다. 다음으로 순도(順道)를 시작으로 삼국에 불교를 전한 11명의 승전을 실었다. 2권에서는 원광을 비롯하여 중국과 인도에 유학한 22명의 승전을 실었다. 중요 인물들을 다루면서 끝에 '찬왈(贊曰)'이라 하여 승전의 주인공들을 예찬함으로써 저자 각훈의 찬술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승려들의 역사를 수습하고 정리하려는 의도에 따라 허구적 서술을 자제하고 기존 문헌들을 활용한 사실적 서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내용상 불교의 전법과 교화, 나아가 화엄종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 오대혁(吳大赫)

신화

해모수신화

解慕漱神話

정의 고구려의 건국시조 주몽의 아버지이자 북부여의 창업왕 해모수에 관한 신화.

역사 이규보의 〈동명왕편(東明王篇)〉에 의하면 『구삼국사(舊三國史)』「동명왕본기」의 일부로 〈해모수신화〉가 상세하게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3 「고구려본기」와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북부여 조와 고구려 조 그리고 고려시대 기록에는 물론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도 실려 있다. 이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동명왕편〉에서처럼 따로 독립해서 전하는 것은 아니고, 고구려 건국신화의 한 부분으로, 해부루(解夫婁)·금와(金蛙)·주몽(朱蒙)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전한다.

줄거리 해모수는 천제(天帝)의 아들로 머리에는 까마귀 깃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을 차고,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탄 채, 고니를 탄 사람 백 명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이곳은 원래는 해부루가 다스리던 지역이었다. 아침이면 정사를 돌보고, 날이 저물면 하

늘로 다시 올라가, 세상에서는 해모수를 천왕랑이라 불렀다. 어느 날, 성 북쪽 웅심산 아래 청하, 즉 압록강에서 나와 웅심연 물가에서 놀고 있는 하백(河伯)의 세 딸을 발견하고, 후사를 얻기 위해 술자리를 베풀어 세 딸을 취하게 만든 후에 유화(柳花)를 붙잡았다. 그 소식을 들은 하백이 노하여 급히 달려와 해모수와 대결을 벌였다. 정말로 천제의 아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하백이 잉어로 변하자 해모수가 수달이 되어서 잡으려 하고, 사슴이 되자 승냥이로 변신하고, 꿩이 되자 매로 변하여 덤비니, 마침내 하백은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유화와 혼인하게 했다. 하백은 해모수가 자기 딸을 버리고 가지나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해모수를 크게 술취하게 한 다음, 가죽수레에 딸과 함께 넣어 오룡거(五龍車)에 실어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준비했다. 그러나 그 수레가 물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해모수가 술이 깨어 유화의 황금비녀로 가죽수레에 구멍을 뚫고 혼자 빠져나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하백은 가문의 명예를 욕되게 했다며 유화의 입술을 석 자나 길게잡아당겨 늘여 놓은 채 우발수(優渤水) 가에 버렸다. 때마침 어부인 강력부추(强力扶鄒)가 그물에 걸린 이 여인을 건져 금와왕에게 바쳤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 말을 못하므로 입술을 세 번 잘라 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인 것을 알고 별궁에 두었더니, 햇빛이 따라와서 유화를 비추었다. 마침내 해를 품고 주몽을 낳으니, 곧 고구려 건국시조이다.

변이 위의 줄거리는 〈동명왕편〉 및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종합한 것으로 아주 자세한 편이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축약되어 있다. 부여의 옛 도읍지에 정체 불명의 사람이 나타나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그곳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 동부여의 왕 해부루가 죽자, 그 뒤를 이은 금와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유화를 만나, 유화가 해모수 때문에 하백한테 쫓겨나 우발수에 살고 있다는 사연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삼국유사』는 압축 서술이란 점에서는 『삼국사기』와 동일하나,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 아니라 단군의 아들이라는 설을 제시하여 주목된다. 부여와 고구려를 고조선과 같은 핏줄로 묶으려는 의도가 작용해 빚어진 결과라고 여겨진다.

분석 〈해모수신화〉는 〈주몽신화〉의 일부로 전해지기에 〈해모수신화〉만 독립적으로 연구한 성과는 없고, 〈주몽신화〉 또는 부여 계통 신화를 연구하면서 거론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 가운데에서 이 신화의 구조인 삼대기(三代記)에 주목한 성과가 돋보인다. 〈해모수신화〉에는 할아버지·아버지·아들의 삼대가 있고, 이들 각 세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할아버지인 천제는 존재하는 곳이 하늘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해모수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후에도 천상적인 성격을 버리지 않고 있어 천상의 존재이면서 지상의 존재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그 아들인 주몽은 지상에서 태어나 지상에서 삶을 마친 지상의 존재이다. 신화학적으로 접근하여, 하늘에서 내려올 때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탔다든가, 따르는 사람 100여 명이 고니를 타고 털깃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든가, 채색 구름이 뭉게뭉게 떴다든가, 아침에는 인간 세상에서 살고 저녁에는 천궁으로 돌아간다는 식의 표현을, 하늘에서 태양이 뜨고 지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등장인물의 신격과 직능에 주목하여, 해모수가 지닌 '해'로서의 성격을 좀 더 드러낸 성과도 있다. 이 신화는 등장인물의 성격 면에서 〈제석본풀이(당금애기)〉 무가와 상통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석본풀이〉가 마을굿인 서낭굿과 별신굿에서 구연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해모수신화〉도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나 구술물이 아닌 제의로서 표현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의의 우리 북방계 신화의 구조는 '천신과 지신(수신)의 혼례-시조의 탄생-건국'인데, 〈해모수신화〉는 이 구조를 〈단군신화〉와 〈동명왕신화〉에서 계승하여 후대에 물려주고 있다. 건국시조가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도 북방계 신화의 공통된 내용으로 이 점에서도 〈해모수신화〉는 〈단군신화〉의 뒤를 이어 천신족 건국신화의 기본형을 재현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신화에 나타나는 변신 모티프는 〈홍길동전〉, 〈박씨전〉 같은 후대 서사문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한편 이 신화를 비롯하여 우리 건국신화가 지닌 삼대기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원래부터가 한 편의 신화에 3대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본래는 1대인 할아버지신화(1대신화)만 존재하다가, 시간이 흘러 2대인 아버지신화가, 다시 3대인 아들신화가 차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자관계로 서술하여 역사의 선후 관계와 동일 계통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신화의 신격이 지닌 천신(天神)·일신(日神)의 성격이 무가 〈제석본풀이〉와 상통하고 있으며, 해모수 집단의 약탈혼과 하백족의 중매혼이라는 혼인 풍속의 차이도 보여 문학사나 문화사 모두에서 중요한 의의를 담은 신화이다.

출처 東明王篇,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地理志.

참고문헌 동명왕편과 제석본풀이의 대비 연구(신경숙,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이복규, 집문당, 1998). 한국 건국신화 연구(나경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한국소설의 이론(조동일, 지식산업사, 1977).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필자 이복규(李福揆)

민담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

정의 흉몽을 길몽으로 해몽한 덕에 성공한 인물에 대한 설화.

역사 이 설화의 역사적 근거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원성대왕 조의 해몽 이야기이다. 김경신이 불길한 꿈을 꾸었는데 해몽가가 이를 흉몽이라 하자 근심하여 두문불출하다가, 여삼이 다시 해석하여 길몽이라 하자 조정에 출입하여 결국 왕위에 올랐다.

줄거리 어떤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던 참에 꿈을 꾸었는데 병을 들자 병목이 부러졌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해몽을 잘한다는 노인을 찾아가니 노인은 외출하고 딸만 있었다. 그녀에게 해몽을 부탁하자 낙방할 꿈이니 시험을 보러 가지 말라고 하였다. 돌아오다가 노인을 만나 딸에게 해몽을 부탁한 일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노인은 딸의 해몽은 잘못되었다고 다시 해몽을 해 주며 길몽이니 과거를 보러 가라고 하였다. 노인의 해몽은 한 손에 쥔 걸 떨어뜨렸으니 한 손에 다 못 쥐고 두 손에 쥐어야 한다는 것으로 좋은 꿈이라 하였다. 젊은이는 이 해몽을 믿고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변이 이 설화에는 해몽 덕에 왕위에 오른 이야기와 과거에 급제한 이야기가 있다. 전자는 원성 대왕 이야기를 재화(再話)한 것으로 원 이야기와 큰 차이가 없다. 후자에는 5편이 있으며 그 문헌적 근거는 『용재총화(慵齋叢話)』의 〈세 선비의 과거 꿈〉이다. 이들 중 3편이 손 병사 관련 이야기이며 흉몽의 징조로 병목이 부러지는 화소가 활용되었다. 이들 중 2편에서 '병(甁)이 부러졌으니[死] 병사(兵使) 벼슬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병이 부러진 것과 병사 벼슬을 관련시켰다.

분석 이 설화의 구조는 '불길한 꿈-흉몽으로 풀이-길몽으로 풀이-성공'으로 되어 있다. 꿈에 대해 처음 해몽가는 흉몽으로 해석하고 이 때문에 주인공은 낙담한다. 두 번째 해몽가는 꿈을 정반대로 해석하여 성공을 장담한다. 결국 주인공은 성공한다. 꿈의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풀이하는 데 따라서 흉몽이 길몽처럼 실현된 것이다. 여기에서 '꿈보다 해몽'이라 하여 해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민족의 꿈에 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즉, 긍정적인 해석이 흉몽으로 생긴 심리적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여 좋은 결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설화는 유감주술적 사고, 언어의 주술적 힘에 대한 믿음과도 관련이 있다.

특징 중국의 해몽서에도 흉몽을 길몽으로 해석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이는 몽상과 현실이 정반대일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꿈 인식은 꿈보다는 해몽을 중시하는 이 설화의 배경적 사고와 구분된다. 이 설화는 꿈을 좋게 해석해 주어 적극적 대응 심리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낙천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길몽을 흉몽으로 풀이하는 설화 〈돼지꿈〉과도 구별된다.

의의 이 설화는 흉몽도 길몽처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민간의 긍정적 꿈 사고, 더 나아가 불우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역전을 기대하며 행동을 감행하는 우리 민족의 적극적, 낙천적 사유를 반영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9, 50; 922.

참고문헌 꿈과 민간 사고(한채영, 민속학술자료총서486, 우리마당터, 2004). 꿈 이야기의 유형과 꿈에 관한 인식(임재해, 문학과비평6, 문학과비평사, 1988).

필자 박상란(朴商蘭)

신화

해부루신화

解扶婁神話

정의 동부여의 건국주 해부루에 관한 신화.

줄거리 북부여왕 해부루의 신하인 아란불이 꿈을 꾸었는데 천제가 내려와서 말했다. "장차 내 자손이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너는 이곳을 피하여라. 동해 해변에 가섭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져서 왕도를 둘 만하다." 꿈에서 깬 아란불은 해부루에게 도읍을 옮기도록 권유했다. 왕은 도읍을 가섭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다. 해부루는 늙도록 아들이 없어 하루는 산천에 제사를 지냈는데,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상히 여겨 돌을 굴리게 하자 그 자리에 금빛 개구리 모양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그 아이를 하늘이 준 아들이라 여겨 이름을 금와(金蛙)라 하고 거두어 길렀다. 금와는 자라서 태자가 되었고 해부루 왕이 죽자 왕위를 이었다.

분석 〈해부루신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에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는 고조선이나 고구려처럼 큰 세력을 떨쳤던 고대 국가의 신화는 아니지만 한 나라의 건국신화인데도 시조의 탄생담이나 결연담이 없다.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도읍의 이동을 통한 국가의 재건 이야기이다. 천명을 받는 꿈도

왕이 아니라 신하에게 찾아온다. 건국신화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며 왕권신화라고 하기에도 부족하다.

『삼국유사』의 이 기사 바로 앞에 북부여 조가 있는데, 해당 기사는 「고기(古記)」를 인용하고 있다. 이 옛 기록은 『제왕운기(帝王韻紀)』에 따르면 『구삼국사(舊三國史)』 「본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부여 건국신화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제가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홀승골성에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북부여를 세웠으며 자칭 해모수라고 했다고 한다. 이 해모수의 아들이 해부루이고, 후에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한다. 북부여 건국신화에 따르면 해부루는 천제의 아들이자 건국주인 해모수의 아들이다. 따라서 해부루는 천제의 손자인데 천제가 손자한테 "내 자손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너는 딴 데로 가라."라고 했다는 말에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뭔가 내력이 있을 법하다. 북부여를 이은 동부여는 국력이 미미했고 해부루-금와-대소 3대 만에 고구려에 패망했다. 즉, 국가가 채 정착되기도 전에 소멸한 것이다. 미력한 국력은 미흡한 건국신화를 낳고, 국가의 패망은 건국신화의 소멸을 가져왔다. 더구나 『구삼국사』나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은 고구려 주몽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해부루의 신화를 자세히 기술할 수 없었다. 〈해부루신화〉가 해부루의 탄생담이나 결연담을 잃은 채 이도(移都) 이야기로만 구성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동부여 건국신화에 없는 또 다른 토막의 이야기가 부루의 탄생담으로 전승되고 있다. 『삼국유사』가 인용하는 「단군기(檀君記)」의 기록으로, 단군이 서하(西河) 하백의 딸과 결혼하여 부루를 낳았다는 내용이다. 부루가 단군의 아들이라는 이 설은 부루가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설과 상치된다. 단군이 부루를 낳았다는 설은 부여계 민족이 남하하여 북부여, 동부여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 토착민 가운데 고조선의 유민을 포섭하고 회유하면서 만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건국신화와 왕권신화는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단군의 아들 해부루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고대국가의 건국신화를 정리했던 일연을 헛갈리게 하였다. 그래서 일연으로 하여금 '주몽과 부루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는 추론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부루신화〉는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징 본래 〈해부루신화〉는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아는 데에는 북부여 건국신화에 단서가 있다. 『구삼국사』 「본기」에 묘사된 천제 해모수의 천상하강 장면은 『구삼국사』에 묘사된 고구려 건국신화의 해모수 천상하강 장면과 흡사하다. 모두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지상에 하강한다. 북부여 건국신화에서 동일 신격인 천제와 해모수가 고구려 건국신화에서는 부자 관계로 분화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이 신화를 재구성해 보면 이렇다.

"「고기」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B.C. 59년(신작 3) 4월 8일에 천제가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홀승골성에 내려왔다. 도읍을 정하여 스스로 왕이라 일컫고 나라 이름을 북부여, 자신의 이름을 해모수라고 하였다.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 하고 해(解)로 성씨를 삼았다."

이런 해모수-해부루로 이어지는 해 씨계 신화를 〈주몽신화〉가 흡수한다. 주몽 집단은 동부여 출신으로 졸본부여, 곧 고구려를 세운 이후 해 씨계를 통합하는 건국신화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 2대 왕 유리는 해 씨였지만 고씨인 고주몽의 적자로 고구려 건국신화에 등장한 것이다. 이 같은 고구려 건국신화 만들기 과정에서 〈해부루 신화〉는 구체적인 탄생담과 건국담 등을 주몽에게 넘겨 준다. 그리고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지닌 채 천제의 명에 따라 동부여로 이주하는 이도신화로 재구성된 채 전승된다.

의의 이 신화는 건국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승되는가를 잘 보여 준다. 해부루는 동부여의 건국주이지만 동부여가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건국사를 구성하지 못했고, 건국신화를 전승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패자가 된 고구려 건국신화의 일부로 재편되어 단편적으로 전승되는 불운을 겪는다. 〈해부루신화〉는 건국신화의 구성과 전승이 국가의 성패에 달려 있음을 증명한다.

출처 舊三國史, 三國遺事.

참고문헌 북방계 건국신화의 문헌적 재고찰(주승택, 한국학보19, 일지사, 1993).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이지영, 월인, 2000).

필자 조현설(趙顯卨)

민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정의 해와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

줄거리 호랑이가 이웃 부잣집에 품일을 갔다 오던 늙은 어머니를 잡아먹고는 어머니의 옷과 머릿수건으로 변장을 하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한다. 오누이는 문구멍으로 내다보고는 호랑이인 줄 알고 뒷문으로 도망쳐 나무 위로 피한다. 이를 추격하여 호랑이가 나무로 올라오자 오누이는 하늘에 빌어 하늘에서 내려준 쇠줄을 타고 올라가 해와 달이 된다. 호랑이도 오누이를 쫓아 썩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 오르다가 줄이 끊어져 수숫대 위로 떨어져 죽는다. 하느님이 오빠는 해, 동생은 달이 되게 하였지만 동생이 밤이 무섭다고 하여 역할을 바꾸어 오빠는 달, 여동생은 해가 된다. 여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강력한 빛을 뿜어낸다.

변이 민담화되면서 이 이야기에는 많은 변이들이 발생한다. 호랑이가 개입하여 동물담으로 구연되면서 "살려주시려면 굵은 동아줄을,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라는 오누이의 기원을 호랑이가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모방담 형식이 덧붙었고, 호랑이의 추락과 죽음으로 인해 수숫대가 붉어진 유래담도 형성되었다. 이본에 따라서는 호랑이의 위치에 개나 늑대가 오기도 한다. 또, 해와 달에 관한 기원담은 생략되고 수숫대가 붉게 된 유래만 내용으로 삼는 유형도 있다.

하지만 천상에 올라간 오누이의 역할 바꾸기가 민담의 장에서는 큰 논란이 되어서 여러 변이형들이 나타났다. 본래 신화에서는 오빠가 늘 누이를 쫓아가므로 오빠는 달, 누이는 해가 된다. 그런데 민담에서는 누이가 밤이 무섭다고 해서 오빠가 달이 되거나, 오누이가 싸우다가 오빠가 누이의 눈을 찔러서 누이가 해가 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누이가 무섭다고 해도 오빠가 한 번 정해진 것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여 오빠가 해가 되는 유형도 있다. 해와 달이 양과 음의 표상이 되면서, 원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쪽과 남성이 양이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쪽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논란이 이 민담의 변이 유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분석 해-누이, 달-오빠 또는 해-오빠, 달-누이 형식의 민담은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해와 달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월기원신화로도 불린다. 한국에서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또는 '해님 달님' 등의 제목으로 널리 구전되어 왔다. 가장 일찍 채록, 보고된 자료가 위에 제시한 내용인데, 1911년에 경상남도에서 오수화가 구연한 〈해와 달〉(정인섭 채록)이다. 한국의 민담을 소개하고 있는 영문 도서에 'The Sun and the Moon'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자료여서 줄거리만 정리되어 있지만 이 유형 민담의 기본 화소를 잘 갖추고 있다. 호랑이의 어머니 살해, 호랑이와 오누이의 대결, 오누이의 승천과 호랑이 징치, 남매의 일월 자리 바꾸기가 그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호랑이가 등장하는 동물담 형식의 민담이지만 온전히 동물담만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신화적 맥락과 민담적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징 쫓고 쫓기는 관계가 이 이야기의 동력인데, 쫓는 존재가 반드시 동물인 건 아니고 사람인 경우도 흔하다. 만주족과 이누이트족 신화에는 오빠가 누이를 쫓는다. 나나이족은 남자가 여자를 쫓고, 일본의 경우는 쫓는 자의 위치에 계모가 있다. 또 다른 만주족 신화에서는 올케와 시누이의 관계에서 올케들이 시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쫓고 쫓기는 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오누이의 경우도 가족 관계 내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누이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근친상간 터부이다. 홍수신화에도 남매혼 모티프가 나타나는데, 근친상간 금지가 문제로 제시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도 이 맥락에 있다. 이누이트 신화를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밤마다 여자를 찾아오는데, 여자가 남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램프 그을음을 기름에 섞어 젖꼭지에 바른다. 다음 날 오빠의 입술이 시커멓게 된 것을 본 누이가 부끄러워 마을을 떠나자 오빠가 뒤따라간다. 계속 쫓고 쫓기며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다. 오빠가 동생을 따라잡는 경우에는 일식이 일어난다. 일월의 기원과 일월식의 기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화는 근친상간 문제를 일월 기원의 핵심적인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만주족 신화도 동일한데, 쫓아가는 오빠의 거울이 달이 되고 도망치는 누이의 등불이 해가 된다.

이런 신화적 맥락에서 보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오누이도 유사한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쫓는 존재는 오빠가 아니고 호랑이다. 쫓기는 존재도 누이가 아니라 오누이로 차이가 크다. 그러나 호랑이는 신화가 민담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근친상간 모티프가 지워지는 과정에서 오빠를 대체한 동물일 수 있다. 오누이가 쫓고 쫓기는 신화에는 '일을 나가 집을 비운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다. 늑대가 쫓는 아이누족, 표범이 쫓는 징포족 신화에도 어머니는 없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어머니의 존재는 한국 민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심층에는 오빠가 누이를 쫓는 일월기원신화가 있고, 그 위에 오빠를 대신하는 호랑이, 또 그 위에 어머니를 잡아먹는 호랑이 모티프가 덧입혀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의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이 민담은 한국 일월기원신화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화가 민담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구비문학적 의의가 있다. 동시에 민담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적 변이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811; 1-5, 308; 2-6, 473; 2-7, 513. Folk Tales from Korea(Zong In Sob, London Univ, 1952).

참고문헌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나타난 변형된 모성, 나르시시즘적 욕망(노제운, 어문논집47, 민족어문학회, 2003),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조현설,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필자 조현설(趙顯卨)

전설

해인사

海印寺

정의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에 위치한 해인사(海印寺)의 창건 유래 전설.

역사 원래 존재했던 가야산 해인사의 창건 유래는 구전되면서 그 생명력을 잃고, 해인사의 대장경판 조성담이 해인사 창건담으로 대체되어 구전되고 있다.

줄거리 신라 합천에 사는 이거인(李居仁)은 성품 좋은 이서(里胥)로 눈이 셋 달린 강아지[三目狗]를 주워 애지중지 키운다. 기른 지 3년째 되던 해 가을 삼목구가 갑자기 죽어 장례를 잘 치러 준다. 다시 2년 후 이거인은 갑자기 병이 들어 죽는다. 이거인은 저승에서 삼목귀왕(三目鬼王)을 만나는데, 삼목귀왕은 자신이 예전에 잘못을 저질러 3년 동안 이승의 축생계로 쫓겨났던 삼목구라고 한다. 삼목귀왕은 이거인에게 염라대왕을 만나거든 인간 세상에서 대장경을 조성하려 했지만 목숨이 다하여 이루지 못했다고 하라 한다. 이거인이 그 말을 따름으로써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와 보니, 실은 한 바탕 꿈이었다. 꿈을 깬 이거인은 삼목귀왕이 시킨 대로 공덕



해인사 전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한국관광공사



팔만대장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한국관광공사

문을 짓고 관인(官印)을 받아 기다렸다. 이듬해 신라의 공주 자매가 마마에 걸렸는데, 대장경 화주가 와야만 살 수 있다고 한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 입궁한 이거인은 대단월(大壇越)로 대장경을 조성하여 그것을 해인사로 옮겼고, 공주들의 몸에 들었던 삼목귀왕이 떠나자 공주들의 병도 나았다. 이후 이거인 부부는 극락왕생했다.

변이 해인사의 창건 연기(緣起)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최치원의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新羅伽倻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900)로 중국에서 석덕[神琳]을 사사한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이 해인사를 세웠다고 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설화 창작으로 이어진다.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943)에는 순응과 이정이 양나라 보지공(寶誌公)의 법을 전해 받고 돌아와 해인사를 창건했다고 했다. 왕후가 등창이 나 두 스님이 준 오색실로 병을 낫게 하는 모티프가 있는데, 이는 위 이야기와 유사하다. 그런데 1662년(현종 3)과 1874년(고종 11)에 쓰인 『가야산해인사고적』이나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동국승니록(東國僧尼錄)』에는 이거인을 주인공으로 한 해인사 장경 연기를 더욱 흥미롭게 전하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해인사의 유래〉라는 설화는 염라왕의 '해인(海印)'이라는 도장을 받아온 이 진사가 용의 득천을 돕고 해인사를 세운 것으로 변이되었다. 대장경이 판각된 인연을 담은 문헌 설화가 구전되면서 해인사 연기설화로 변이된 결과라 하겠다.

분석 〈해인사연기설화〉는 사찰 창건과 고려대장경 판각이라는 두 가지 설화가 문헌과 구비를 넘나들며 전해진 것이다. 이 가운데 해인사의 대장경이 판각된 이야기 관련 설화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삼목구와 '이거인'이라는 역사적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명부와 인간계 어디나 팔만대장경이 담은 불법의 가없는 법력이 미친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징 해인사 연기설화는 엄격하게 따진다면 해인사 장경 연기설화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리고 『가야산해인사고적』에 실린 작품은 명부와 이승을 오가는 환상적, 전기적 성격의 서사 전개와 불교적 의미화를 적절하게 수행하면서 소설적 면모까지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출처 東國僧尼錄, 가야산해인사지(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626.

참고문헌 사찰문헌설화에 나타난 소설담론성 연구(김승호, 어문연구43, 어문연구학회, 2003).

필자 오대혁(吳大赫)

민담

행운담

幸運談

정의 불우했던 인물이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된다는 민담.

내용 행운담은 〈쌀 노적 돌 노적〉, 〈금척〉, 〈새끼 서 발〉,〈박문수 친척 된 사람〉, 〈호랑이 눈썹〉, 〈다시 찾은 옥새〉 등의 민담을 포괄한다. 행운담의 주인공은 어리고 가난하고 불리한 처지의 남자이다. 시골 혹은 산골의 가난한 집안의 아들, 학동, 머슴, 백정 등으로 끼니를 걱정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의 형편을 바꾸어 보려는 특별한 욕심이나 궁리도 없이 무심하게 산다. 주인공 옆에는 항상 대조적인 인물이 존재한다. 주인공보다 형편이 넉넉한 친구, 주인공을 가르치는 서당 선생님, 양반, 박문수 등이다.

어려운 형편의 주인공에게 예기치 못했던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는데, 대부분 옆에 있던 사람이나 친구가 첫 번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 매일 끼니를 거르고 서당에 오는 친구를 위해 부잣집 아들인 친구가 자기 집안의 물건을 감추었다가 주인공이 찾아 주게 하는 방법으로 친구가 끼니를 때우도록 해 준다. 깊은 산골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게으른 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대다가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꾸지람을 듣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알몸으로 집을 떠나는 아들이 안쓰러워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 마침 마당 앞에 떨어져 있는 새끼 서 발을 쥐어 주고 아들을 보낸다.

주인공의 결정적인 기회는 자기 집이나 그동안 살던 지역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다. 그래서 행운담의 중요한 모티프는 '길 떠남'에 있다.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예기치 않게 우연히 찾아온다. 자신의 낮잠을 방해하는 생쥐에게 목침을 던져 죽였는데 어미 쥐가 나타나 무언가를 들고 생쥐를 이리저리 재어 보자 생쥐가 살아나고 머슴이 다시 목침을 던지자 금으로 된 자를 두고 생쥐만 데리고 달아난다. 머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에 금척(金尺)을 손에 넣는다. 주인공은 뜻밖의 기회를 십분 이용한다.

뜻하지 않게 기회가 왔다고 하나 주인공이 아무 생각도 없이 무위도식한 것만은 아니다. 주인공은 대부분 꾀가 많고 기회가 오자 적극적으로 고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 죽으러 간 사람이 호랑이를 찾아가는 것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러 갔다기보다는 호랑이에게 가면 무엇인가 살 방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영물인 호랑이는 사람이 자신을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데 죽으러 왔다고 배짱을 부리니 자신의 눈썹을 신물(神物)로 준다. 돌 노적을 쌓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은 부자의 욕심을 미리 알아채고 자신이 쌓은 돌 노적 꼭대기에 은수저, 금덩이 등의 재화를 얹어 둔다. 금척을 얻은 머슴은 꿈 소문을 퍼트리고 옥에 갇혀서도 기회가 올 때까지 발설하지 않는다. 대국에 갔을 때는 조선에 남은 친구와 모월 모일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기로 미리 약속한다.

행운담은 두 인물을 대조시켜 첫 번째 기회에 주인공에게 행운을 주지만 행운의 범위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층법으로 다음에는 좀 더 넓고 높은 범위로 확대된다. 마을에서 관청, 시골에서 서울, 조선에서 대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두 번째 기회는 더 좋은 조건의 기회인만큼 조금 더 큰 난관이 찾아온다. 그러나 주인공은 두 번째 기회도 역시 잘 헤쳐 나아간다. '결핍과 결핍의 해소'가 반복되는 서사 전개는 행운을 바라는 희망과 우연성을 강조한다. 이같이 거듭 행운을 찾게 되는 것은 물론 우연한 기회 덕분이기도 하지만, 조력자의 도움과 자신이 가진 지혜, 꾀, 그리고 노력 등도 중요한 동기가 된다. 행운을 다 얻고 난 뒤에는 앞으로의 방책까지도 생각해 둔다. 즉 코를 다쳐서 더 이상은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마지막에 꾀를 써서 자신들의 능력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탄로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두는 것이다.

주인공이 해결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신분의 상승, 부자 되기, 결혼 등 다양하다. 이런 목표는 바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들이다. 가난한 주인공이 쌀 노적을 얻고, 미천한 신분의 백정이 박문수의 도움으로 그의 친척이라고 알려져 신분 상승을 확정짓고, 머슴이 두 나라의 부마가 되고, 호랑이 눈썹으로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 등, 이 모든 행운의 핵심은 결국 결혼을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다. 〈공주와 황금〉과 같이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인간이 가진 행복의 목표이고 그 행복은 우연한 기회에 얻어진다는 민담이 전 세계에 성행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운에 대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의의 행운담은 주인공의 성격이나 문제 해결 방식 등에서 웃음이 나오게 하는 이야기들이다. 전설에 비한다면 과장되고 소화에 가까울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행운담은 민담으로 전승되고 있으나 문헌설화에 기록된 유형이라는 점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전승력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행운담을 전승하면서 행복과 삶에 대한 강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행운을 찾아가는 과정을 무겁고 강한 의지로 피력하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노력보다는 횡재를 바라는 심사가 잠재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東野彙輯, 바보설화의 웃음과 의미 탐색(이강엽, 박이정, 2011),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조희웅, 한국연구원, 1983).

필자 김대숙(金大琡)

전설

허가바위

정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바위동굴에 얽힌 전설.

역사 허가바위는 탑산(塔山) 아래 계곡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의 천연동굴로 1991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었다. 강서구의 최초 지명이 '제차파의현(齊次巴衣縣)'이었는데 '제차'는 차례 또는 갯가이고, '파의'는 바위라는 뜻인 것으로 보아 구명(區名)이 이곳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와 고구려에서는 '제차파의현'이라고 하였고 신라에서는 '공암(孔岩)'이라 하였으며, 『팔도군현지도』와 「경기도양천지도」에서 공암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지도』와 「경기도양천지도」에 의하면 공암이 한강의 북쪽을 왕래하는 나루였음을 알 수 있다. 『광여도』에는 공암진(孔岩津)과 양화진(楊花津)과 같이 한강을 넘나들던 나루가 표시되어 있는데, 공암진 옆에 공암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공암진을 북포(北浦)라 하기도 한다. 현 북편 1리 지점에 있다. 바위가 물 복판에 세워져있고 구멍이 있으므로, 이것이 이름으로 되었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허가바위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012.8.17, 시몽

줄거리 고려 태조가 견훤을 징벌하러 갈 때 공암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허선문이 이 강을 건너는 데 도움을 주고, 군량미를 제공하는 등의 공을 세워 '공암촌주(孔巖村主)'라는 벼슬을 받았다. 허선문은 90세를 넘긴 고령에도 고려 태조에 충성을 다했다. 그 자손이 공암 허씨로 공암은 양천(陽川)에 있으므로 곧 양천 허씨를 말한다는 기록이 『경기읍지』에 있다. 조선 세조(世祖) 때 북병사(北兵使)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허종(許琮) 외에 명의 허준(許浚), 허옹(許邕), 허침(許琛)과 같은 많은 인물이 이 바위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조선 선조 때에는 허준이 여기서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이 굴을 책 읽기 좋은 별서(別墅)처럼 사용하였고, 이곳에서 최후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근처에 허준의 아호(兒號)를 따서 조성한 구암(龜岩)공원이 있다.

분석 이 바위는 위에서 보면 그리 높지 않지만 아래에서 보면 수직 절벽 형태의 꽤 높은 바위산이다. 색깔은 자색을 띠고, 바위 아래에는 천연동굴이 있다. 굴의 크기는 가로 약 6m, 세로 약 2m, 높이 약 5m이며, 1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공암바위', '허가바위' 또는 '허가바위굴'이라고 부른다. 양천 허씨의 시조인 허선문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어서 주민들은 이곳을 양천 허씨의 발상지라고 말한다.

특징 이 바위의 굴은 옛날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한강에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했던 혈거동굴이라고 짐작되며, 여러 차례의 정변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동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신처로 쓰였다고 한다.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1991년 올림픽대로가 건설되면서 육지로 변하였다.

출처 강서의 역사·문화·문화재(강서문화원, 1996), 우리고장의 역사와 민담(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청, 1998).

참고문헌 서울600년사-민속(서울시,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지명유래집-중부(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8), 네이버 백과사전(100naver.com).

필자 김용덕(金容德)

전설

허목

許穆

정의 조선 중기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미수 허목에 관한 전설.

역사 허목은 외할아버지 임제(林悌)가 앞산이 와 안기는 태몽을 꾸고 태어나는데 영락없는 고양이 새끼였다. 눈썹이 고양이처럼 하얘서 외할아버지가 '눈썹 미', '머리 수' 자를 써서 호를 미수라 했다. 네 살 때 나주 지역 주민들이 우물을 찾는 데 외할머니 등에 업힌 그가 우물 자리를 찾아 주었으며, 경상도 지방관으로 갔을 때는 해마다 서낭당에 처녀를 한 명씩 바치게 하는 뱀을 처치했고, 삼척 부사로 재임할 때는 척주동해비(일명 퇴조비)를 세워 해일 피해를 막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동해에서 소금산을 찾아 주고 세금을 탕감해 주었다. 또한 정적(政敵)인 송시열의 병을 낫게 해 주었고, 말년에는 자신이 죽인 뱀이 원수를 갚으려는 것을 미리 알고 조치하여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척주동해비 앞면 뒷면
강원 삼척시 육향산, 2012.4.12, 김태수

줄거리 허목의 이인적 풍모(異人的風貌)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널리 알려진 것은 〈뱀퇴치설화〉이다. 〈뱀퇴치설화〉는 세 개의 삽화(揷話)가 한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경상도 어느 고을 수령으로 부임해 갔을 때 그 고을 서낭당에 해마다 열아홉 살 먹은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목이 처녀로 위장해 요물을 기다렸다가 큰 뱀이 서낭당으로 들어오자 칼로 죽여 불태웠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허목의 형님이 아주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허목이 보니 전에 자기가 죽였던 뱀이 환생한 것이라 형님에게 그대로 두면 멸족할 것이라고 당장 죽이라고 요구했지만 형님이 말을 듣지 않자 분파(分派)를 함으로써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이다. 셋째는 허목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본래의 신체는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곳에 묻어 놓고 장사 때에는 가짜 신체로 매장한 뒤 삼 년이 지나 진짜 신체를 찾아 무덤을 만들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하고서 삼 년 뒤에 보니 그 뱀이 가짜 신체를 갈가리 찢어 놓았더라는 내용이다. 세 개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지만 첫째는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목민관으로서의 모습을, 둘째와 셋째는 앞날을 예견하는 이인으로서의 모습을 전해 준다.

변이 허목의 도술가이면서 이인다운 행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된다. 조수(潮水)의 피해로 고통받는 삼척 주민을 위해 척주동해비를 세워 주었고, 이 비석을 허목과 당파가 다른 후임 부사가 깨뜨릴 것을 미리 알고 하나를 더 만들어 피해를 예방했다는 이야기, 살아 있는 꿩 백 마리를 잡아 올리라는 왕명을 받고 두타산 신령에게 명하여 살아 있는 꿩 백 마리를 자루에 넣은 다음 부적을 써서 대궐로 보낸 이야기, 허목에게 신세를 지려고 찾아온 친척이나 친구에게 선물로 돌을 주었는데 그것이 옥석(오금)이었다는 이야기 등이 있다.

분석 허목에 관한 전설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27편, 『삼척의 설화집』에 17편이 수록되었는데 그의 도술과 이인적 풍모를 강조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실제 인물 허목에 대한 평은 주로 성품이나 학문과 관련하여 강직한 정치가, 좋은 글

을 짓고 쓰는 예술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민중의 이야기관에서는 그의 도술과 이인적 풍모가 훨씬 큰 관심사가 된다. 민중은 허목을 '문무를 겸비한 인물, 앞날을 내다보는 이인,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도술가'로 재창조하여 그들의 역사에 편입했다. 민중이 이렇게 허목의 삶을 재창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염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인물전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같이 초능력을 가지고 민중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숙종 대왕, 박문수, 강감찬 같은 많은 역사인물이 민중의 구원자로 등장하는데 허목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민중은 학자요 문관인 허목을 무술 실력이 뛰어난 정의로운 지방관으로 만들어 백성을 수탈하는 뱀을 처치하도록 했다. 신적 존재인 뱀을 처치할 힘을 갖지 못한 민중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대상으로 허목을 내세운 것이다. 허목이 비록 '사특한 것을 배척하기를 한 칼로 처서 두 동강 내듯이 하고 기미를 알아차림이 귀신같았다.'고 하지만, 학자이고 문관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중은 허목에게 뛰어난 무술 실력과 담대한 무관의 능력을 부여하여 끊임없이 자신들을 수탈하는 뱀을 퇴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민중은 허목에게 앞날을 내다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취할 수 있는 도술력을 부여하여 백성의 밀린 세금을 갚아 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도록 한다. 여기서 민중의 염원을 읽을 수 있다. 백성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백성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인물, 문무를 겸비하고 초능력을 소유한 인물로서 그 힘을 백성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인물이 바로 민중이 바라는 이상적인 지방 수령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특징 허목의 전설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이야기는 당파가 달라 정적이긴 했지만 송시열과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다는 〈허목과 송시열의 일화〉, 조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운 〈척주동해비〉 이야기 두 종류이다. 정(情)을 삶의 주요 덕목으로 삼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로 정적이었던 허목과 송시열의 신의와 우정은 오랜 세월 큰 감동으로 전승되고 있다. 또 강원도 삼척은 척주동해비가 있어 허목 관련 설화 가운데 이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전승되는 지역이다.

의의 역사인물전설은 인물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상상하고 염원하는 인물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화에서 허목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민중이 바라는 목민관(지방관)이다. 〈허목전설〉의 주류를 이루는 내용이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분명해진다. 사회적 약자인 민중이 염원하는 목민관의 모습은 언제나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 한 점의 억울함도 없게 하고, 도술로써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허목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출처 삼척의 설화집(김태수, 삼척문화원, 199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66; 2-3, 241; 4-6, 312; 5-4, 551.

참고문헌 설화에 나타나는 허목의 삶과 민중 의식(김태수, 강원민속학20, 강원도민속학회, 2006), 인물전설의 현실인식(홍태한, 민속원, 2000).

필자 김태수(金泰水)

전설

허미수

許眉叟

프레이 허목

신화

허웅애기본풀이

정의 허웅애기가 이승에 머무르려고 하다가 차사에 의해 저승으로 되돌아간 뒤로 이승을 왕래하지 못하게 된 내력을 담은 무속신화.

줄거리 〈콩데기 꽃데기〉 전승이 포함된 것이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진성기의 『남국의 무가』에 실린 〈강을생본〉이 그러한 사례이다. 콩데기는 제 딸 꽃데기만 챙기는 계모로 인하여 갖은 고생을 한다. 계모가 콩데기에게 소를 먹이면서 삼을 삼으라고 하자, 소가 삼을 먹어 치운 뒤에 삼은 삼을 항문으로 내어준다. 꽃데기는 이를 따라 하려다 실패하자 소를 잡아먹고 만다. 콩데기는 소가 생전에 남긴 말에 따라 국물과 뼈를 처리한다. 계모는 굿 구경을 가면서 콩데기에게 기름 묻은 지장 씻는 일, 밑 터진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을 시킨다. 콩데기는 새와 까마귀의 도움으로 지장을 씻고 물을 채운다. 또한 소가 마련해 준 옷과 딴머리로 치장하고 굿 구경을 간다. 굿판에서 청의도령이 내놓은 가막창신이 콩데기의 발에 꼭 맞아 청의도령과 콩데기는 혼인하여 행복하게 산다. 그러다가 콩데기가 꽃데기의 간계에 속아 연화못에 빠져 죽고 만다. 콩데기가 나비로 환생하여 집으로 들어가나 꽃데기에 의하여 청동화로에서 불태워져 구슬이 되어 궤 속에 버려진다. 콩데기는 사람 눈에 띄지 않을 때마다 나타나 꽃데기를 저주한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콩데기는 전후 사정을 말한다. 남편은 꽃데기를 죽여 소금에 절여 젓갈을 담아 그 어미에게 먹이고 꽃데기의 어미를 쫓아낸다. 이후 콩데기는 아이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명이 다하여 저승으로 간다. 콩데기는 저승에서 아이 생각에 늘 걱정하며 눈물로 지낸다. 그 사정을 안 염라대왕의 선처로 밤에는 이승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덕분에 아이들은 어미의 도움으로 남부럽지 않게 자란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간계로 이승에 머무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승으로 잡혀가 콩데기는 더 이상 이승 왕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일로 고부간 사이가 좋지 않은 법이다. 대개의 자료는 콩데기 꽃데기 전승과는 무관하다. 대개 어린 아이를 두고 죽어 저승에 갔다가 밤마다 이승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다가 다시 죽어 영원히 이승 왕래를 못하게 된 내력을 이야기할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진성기의 『남국의 전설』에 실린 〈이오생본〉을 들 수 있다.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던 허웅애기는 살림 솜씨가 좋은 탓에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잡혀가게 된다. 부모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고 차사들에게 인정으로 호소해도 소용없어 속절없이 저승으로 간다. 다만 차사들이 그 사정을 이해해 줘서 밤에는 이승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어미의 도움으로 남부럽지 않게 자란다. 이웃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허웅애기를 붙들어놓기 위하여 허웅애기를 숨겨 놓고 버티게 한다. 그러나 차사가 들이닥쳐 혼을 빼내어 가 버리는 바람에 허웅애기는 죽고 만다. 이로 인하여 사람은 한번 저승에 가면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변이 〈콩데기 꽃데기〉 이야기와 허웅애기가 이승을 왕래 못하게 된 내력이 결합된 경우(강을생본), 허웅애기의 솜씨 묘사와 이승 왕래 못하게 된 내력이 이어지는 경우(이방아본), 허웅애기 솜씨 묘사에 차사 묘사, 차사에 인정 쓰기 화소와 허웅애기 이승 왕래 못하게 된 내력이 이어지는 경우(이오생본), 허웅애기가 이승을 왕래 못하게 된 내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오인숙본) 등 네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콩데기 꽃데기〉는 〈콩쥐팥쥐〉 유형의 이야기다. 〈콩데기 꽃데기〉 이야기는 허웅애기가 갖은 고생을 겪다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전반부를 꾸미는 데 쓰인다. 콩데기 꽃데기 전승이 포함된 것은 드문 사례일 뿐이다. 허웅애기의 살림 솜씨가 묘사되는 것은 일찍이 저승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저승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 차사에게 인정으로 호소하는 대목도 그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 〈허웅애기본풀이〉의 핵심은 역시 저승 왕래를 못하게 된 내력에 있다. 허웅애기가 저승으로 잡혀가는 이유는 제각각이어서 변이가 심하다. 수명이 다해서 저승으로 갔다고 하기도 하고(강을생본), 살림 솜씨가 뛰어나서 잡혀갔다(이오생본)고 한 경우도 있다. 이승에 머무르려고 숨는 대목은 시어머니가 주도하여 며느리 허웅애기를 죽여 저승으로 돌려보내 버렸다고 하기도 하나(강을생본), 대개는 이웃집 할머니가 허웅애기를 도와 이승에 머물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허웅애기를 죽게 하였다고 해서 변이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허웅애기 잡아갈 방도를 차사에게 일러준다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차사가 허웅애기를 데려가기 위하여 혼과 몸 둘 가운데 어느 것을 가지겠느냐고 묻고 혼을 빼어 가버린다고 하였다. 결말도 고부간 갈등의 유래가 되었다(강을생본)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승과 저승이 분명히 구획되고 사람이 두 곳을 왕래하지 못하게 되는 법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분석 〈세민황제본풀이〉처럼 이승으로 돌아가 남은 일을 처리할 기회를 가졌으나 세민황제와는 달리 그 기회를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시간적 배경으로 보아서는 〈천지왕본풀이〉와 관련이 깊다. 해와 달이 두 개가 떠서 사람들이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다고 한 것이나 이승과 저승이 분명히 나뉘지 않을 때라고 하거나 산천초목이 모두 말을 할 때라고 한 것이 모두 그러하다. 대체로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던 허웅애기가 결국 이승을 오가지 못하게 된 내력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셈이다.

특징 오래 전에 굿판에서는 실전된 본풀이다. 어떠한 의례에서 구연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허웅애기〉 이야기는 지금도 굿판이 아닌 이야기판에서는 여전히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러 노래로 불렸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보편적인 전승에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는 뜻이겠다. 따라서 허웅애기 관련 전승은 본풀이가 제주도 이야기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남국의 무가(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남국의 전설(진성기, 학문사, 197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92), 백록어문10(백록어문학회, 1994).

참고문헌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김헌선, 경기교육논총4,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강권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강정식(姜晶植)

전설

허준

許浚

정의 허준이 명의가 되기까지의 수련과정과 뛰어난 의술을

이야기하는 명의설화.

줄거리 허준은 장가들자마자 부모가 죽는 바람에 어렵게 살았다. 하루는 아내가 바느질로 번 돈을 허준에게 주며 시장에 가서 장사라도 할 것을 권했다. 허준은 장에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백발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제자가 되길 청했다. 노인은 10년을 공부할 것을 다짐받고 허준에게 의술을 가르쳤다. 공부한 지 8년 째 되는 해 스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허준은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를 살려 주었다. 돌아온 스승이 죽을 운명의 아이를 살렸다고 꾸짖으며 자신을 떠나라고 하였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허준은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차츰 명의로 이름을 떨치던 허준은 중국 황실의 초빙을 받아 중국으로 가던 길에 호랑이 입에 걸린 비녀를 빼주고 침, 숫돌, 회혼포(廻魂布)를 얻었다. 중국에서 아랫도리가 뱀으로 변한 공주의 병을 고치지 못해 고심할 때, 꿈에 스승이 나타나 10년 수련을 하지 못한 것을 꾸짖으며 해결책을 일러준다. 허준이 병을 고치고 중국 황실에게 군(君)의 칭호를 얻는다.

분석 〈허준설화〉는 크게 두 가지 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그의 수련 과정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치병 행적과 관련된 것이다. 수련 과정의 경우, 그 스승이 산신령, 도인, 유의태로 변이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정해진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수련을 끝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서사구조를 지닌다. 이처럼 허준의 수련을 불완전한 것으로 설정한 것은 파직과 유배를 경험했던 그의 말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허준의 불행한 말년을 민중들은 수련 과정의 한계로 설정하여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행적담의 경우, 허준이 주어진 과제를 결국에는 해결하지만, 혼자 힘이 아니라 원조자의 절대적 도움을 받는다. 이 또한 수련 과정의 불완전성이라는 서사구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당시 의술을 한계에 민중들이 가진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징 〈유의태설화〉와 함께 대표적 명의설화에 속하는 〈허준설화〉는 다른 명의설화와 달리 중국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허준은 중국 공주의 병 치료를 위해 중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신이한 의술 도구를 얻는다. 어떤 각편에서는 이것들을 중국 의원에게 모두 빼앗기고 대신 책 한 권을 얻어 그것을 연구하여 동의보감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서술은 당시 민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허준의 의술과 사상적 배경을 대변하고 있다. 허준이 중국 의술을 정리하여 한국적 처방을 완성했다는 인식이 허준의 중국행 이야기로 형상화된 것이다.

의의 현대에도 의술이 가지는 한계는 존재한다. 과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최고의 명의로 칭송받는 허준에 관한 설화는 의술의 한계와 그에 임하는 의원, 환자들의 올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허준설화〉는 단순히 허준의 뛰어난 의술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의인(醫人)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이 형상화된 것이다.

출처 樂坡漫錄,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3, 137; 4-4, 173.

참고문헌 구비명의전설 연구(김명수, 경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강진옥, 민속어문론총,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한국의료설화연구(곽의숙,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오세길(吳世吉)

민담

허풍선이

정의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두 사람이 서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문답 대결을 벌인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서울 깍쟁이와 경상도 깍쟁이가 겨뤄 보려고 서로 길을 나선다. 밀양 영창강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경상도 깍쟁이가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 서울 깍쟁이가 용궁 잔치에 간다고 하며 강물에 들어간다. 서울 깍쟁이가 한참 만에 나와서는 잔치를 참 잘 차렸다며 경상도 깍쟁이에게 잔치 음식이라고 밤과 대추를 갖다 준다. 경상도 깍쟁이가 서울 깍쟁이 말을 참말이라고 믿고 강물에 들어가 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경상도 깍쟁이가 한 번 진다. 다음에는 서울 깍쟁이가 바람에 날아간 빨랫돌을 사러 간다고 하자, 경상도 깍쟁이가 자기 집 거미줄에 걸려 있으니 가져가라고 해서 한 번 이긴다.

변이 두 주인공의 관계가 사돈으로 나타날 때에는 들녘과 산골로 거주지가 바뀐다. 이 각편에서는 두 사돈이 서로 새 잡는 방법과 송사리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모두 허황된 것이다. 서울 헛똑똑이와 시골 허풍선이로 나오는 각편도 있는데 이때는 시골 허풍선이가 서울 헛똑똑이 말을 믿고 그대로 흉내 냈다가 며느리도 죽이고 살림도 망하게 된다. 소담(笑談)에 속하지만 이와 같은 각편에서는 모방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분석 두 사람이 허풍 대결을 벌인다는 내용의 소담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세 편이 전하는 흔치 않은 설화이다. 이 유형은 지역이 서울과 경상도 혹은 서울과 시골로 설정되었을 때는 서로 한 번씩 상대방의 말을 받아쳐서 대등해지거나, 시골 허풍선이가 서울 허풍선이의 행동을 따라 해서 서울 허풍선이가 승리한다. 그러나 들녘과 산골일 때에는 승부가 가려지지 않는다. 이들의 대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인물의 거주지이다. 사는 곳에 따라 형성된 계층 의식에 화자들이 동조하는 것이며, 결국 화자의 지역적 구분 의식이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징 상대방의 허풍에 허풍으로 맞선다는 점에서 일종의 논리 대결인 거짓말대결설화와는 차이를 보이며, 이것이 이 유형에서 보이는 대결의 특징이다. 이 유형은 서울 사람이 승리한다는 점에서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유형과는 정반대의 지역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여타의 이야기 유형에서 서울 출신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것과는 전혀 다른 의식의 표출이다.

의의 허풍은 종종 거짓말 혹은 언변과 유사한 의미로 인식되어 허풍선이가 언변 좋은 인물의 이름으로 등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9, 871; 8-11, 720.

참고문헌 설화에 나타나는 계층의식 연구(김대숙, 이화어문논집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86).

필자 노영근(盧暎根)

신화

허황옥신화

許黃玉神話

상호참조 김수로왕신화

정의 가락국(駕洛國) 시조 수로왕(首露王)의 왕비 허황옥(許黃玉)에 관한 설화.

줄거리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허황옥은 아유타국(阿踰陁國)의 공주이다. 본국에 있을 때 부모의 꿈에 상제(上帝)가 나타나 "가락국 왕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 등극케 하였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성스러운 사람이다. 새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공주를 보내어 짝을 삼게 하라."라는 명이 내려 공주는 가락국으로 갔다. 이때 가락국에서는 신하들이 수로왕에게 배필이 없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에 왕은 배필을 정하는 것이 하늘의 명이라며 유천간, 신귀간과 같은 구간(九干)에게 망산도에 가서 공주를 맞아 오게 하였다. 당시 공주는 열여섯 살이었고, 20여 명의 종자와 각종 패물을 가지고 수로왕에게 왔다. 김수로왕이 친히 밖으로 나가 공주를 맞이하여 궁궐로 돌아왔다. 그런데 허 황후가 가락국으로 갈 때 파도가 심하여 부왕은 풍랑을 잠재우는 신통력을 가진 석탑을 싣고 가게 하였다. 이 탑이 파사석탑(婆娑石塔)이다. 파사석탑은 닭의 볏에서 나오는 피를 바르면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경상남도 김해 지방의 돌과는 구별된다.

분석 허황옥이 가락국에 올 때 오라버니가 함께 왔는데 이름이 장유화상이다. 경남 김해의 장유면은 그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설화에는 김수로왕과 허황옥 사이에 일곱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고 하며, 일곱 아들이 장유화상을 따라 수도하여 성불하였다는 설화가 칠불암 배경 설화로 전한다. 두 딸 가운데 하나는 탈해왕과 결혼하였고, 또 한 명은 바다 건너 왜의 여왕이 되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장자가 김수로왕의 뒤를 이어 거등왕(居登王)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 김해 허씨가 되었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서로 혼인을 꺼리는 풍속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특징 〈김수로왕신화〉는 시조신화가 갖는 하강 모티프와 도래 모티프가 함께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허황옥의 도래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하여 공주의 도래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 KBS 방송국에서 파사석탑과 옛 아유타 지방에서 출토되는 돌의 성분이 서로 일치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허황옥신화〉는 아유타국이 멸망한 후 그 왕족이 이동하여 허국(許國)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보주(普州)라는



파사각
경남 김해시 가락로, 2012.9.7, 이승형



파사석탑
경남 김해시 가락로, 2012.9.7, 이승형

곳에 머물렀으므로, 성씨를 허씨라 부르고 왕후의 시호를 보주태후라 지었음을 알려 준다.

의의 〈허황옥신화〉는 한국 문화사에서 불교의 유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때가 372년(소수림 2)인데, 『삼국유사』에는 허 황후가 불교 국가인 아유타에서 들어온 해가 A.D. 48년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는 황후와 장유화상을 기리기 위해 지은 장유사가 있었다는 기록과 설화가 있고, 허 황후와 함께 온 장유화상이 수도하면서 일곱 왕자를 성불시켰다는 〈칠불암연기설화〉도 있다. 허 황후 도래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면, 이 신화는 우리나라 불교 전래의 역사를 약 300년가량 앞당기는 의의를 갖는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참고문헌 가락국탐사(이종기, 일지사, 1977), 가락의 설화(남도영, 종교문화사, 1986), 가야불교설화의 고찰(김용덕, 한국학논집21·22, 한양대학교, 1992), 가야불교의 고찰(허명철, 종교문화사, 1987), 내고장 전통(김해군, 1983).

필자 김용덕(金容德)

전설

형산강

兄山江

정의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를 흘러 동해로 들어가는 형산강에 얽힌 설화.

줄거리 옛날 포항과 경주 사이에 형제산이 있었다. 형제산 때문에 남천, 북천, 기계천의 강물이 모여서 큰 호수를 이루었고 장마가 지면 항상 범람하여 경주까지 피해를 줬다. 김부대왕(경순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신라는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순왕이 사관에게 점을 보게 하였고, 사관은 동쪽의 임정현(현 안강·포항 지역)에서 왕위를 위협하는 역적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역적을 막기 위해서는 안강 호수의 물을 영일만(어룡사(漁龍沙))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형제산의 단맥을 위해서 경순왕은 하늘에 올라가 백일 동안 기도하고 종묘사직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땅에서는 태자가 천지신명께 기도하였는데, 태자는 기도 끝에 큰 뱀이 되었다. 태자가 용이 되려면 누군가가 그를 용으로 불러 주어야만 했다. 태자가 길가에 누워 누군가가 용이라 불러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나, 다들 그를 보고 큰 뱀이라 부르며 겁을 먹었다. 마침 한 노파가 손자를 업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손자가 태자에게 용이라고 불렀다. 태자는 뱀을 용으로 불러 준 아이에게 안강호수의 물이 빠진 땅을 주고 그 땅을 아이의 이름을 따 '유금'이라고 불렀다. 한편, 형제산은 형산(兄山)과 제산(弟山)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강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 강을 '형산강'이라고 하였다.

변이 〈용이 된 김부대왕〉 이야기는 김부대왕이 죽어서 용이 되어 왜적을 막았다는 내용으로, 구룡포의 지명유래와 관련 있는 전설이다. 왕이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고 안전을 도모해 주었다는 이러한 내용은 신라 문무왕의 〈호국룡설화〉와 비슷하다. 다음은 김부대왕이 죽은 후에 용이 되어 승천하면서 꼬리로 산을 치고 물길을 터 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그 들을 '안강들' 또는 '안강 양살매기'라고 불렀다. 또 다른 유형은 김부대왕이 죽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회용바위'라고 부른다는 내용이다.

분석 신격화한 이야기에서 용과 인간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이다. 용은 그의 신격을 수용하여 숭배하는 인간에게는 신력을 행사하여 복락을 내리고,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인간에게는 무서운 재앙을 내린다. 이 전설은 인간에게 고난이 닥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뱀을 신격으로 수용하고 용의 위력을 나타냄으로써 복을 누리는 것을 공통 내용으로 취하고 있다. 김부대왕이 용이 되어 물길을 트고 승천한다는 기본적인 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주된 내용이 왜적을 물리친 이야기, 바다를 풍요롭게 만든 이야기, 지형지물을 바꾸어 옥토로 만든 이야기와 같이 강, 바다, 바위를 결부시켜 생성 과정을 이야기한다.

특징 이 전설은 그 신성성이 많이 희석되어 전설로 존재하지만, 김부대왕은 고려 말부터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변화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속신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이야기가 포항 지역의 신화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의의 이 이야기는 현실의 고난에 대한 강렬한 극복 의지와 풍요를 추구하려는 설화 향유층의 의식을 잘 보여 준다.

출처 영일군사(영일군사편찬위원회, 1990), 포항마을의 유래와 전설(포항문화원,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3, 47; 233; 289.

참고문헌 포항지역 구전설화의 유형과 의미(김윤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 4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8), 포항지역 설화 연구(최무환,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구한(金求漢)

민담

형식담

形式譚

정의 일정한 형식, 즉 '틀'에 치중하는 이야기.

역사 설화 구연이 오랜 세월 동안 민중들 사이에서 예술 표현의 한 방법으로 애호되어 왔음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설화 종류 중의 하나인 형식담 전승도 다른 종류들에 못지않게 역사가 오래되었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형식담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역사를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컨대, 회귀적 진행 방식을 취하는 〈두더지 혼사〉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3~4세기경 인도 최고의 설화집 『판차탄트라』를 비롯하여 11세기 후반의 『이야기의 바다』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7~18세기 홍만종의 『순오지(旬五志)』에 〈두더지 혼사〉 이야기가 나타난다.

내용 형식담의 '틀'은 연쇄에 의한 누적성 또는 반복성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서구에서는 형식담을 'formula tale'이라 하고, '어떤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는 설화의 한 종류로, 이러한 종류의 설화에 있어서는 플롯이 형식에 비해 부차적이다.'라고 한다. 형식담이 내용(플롯)보다는 형식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하여 형식담에서는 내용이 무시된다든가 소홀히 여겨진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형식(틀)을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형식담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이야기로는 '누적담(cumulative tales)', '캐치테일(catch tales)', '무한담 혹은 끝없는 이야기(endless tales)', '순환담(round or circular tales)' 등이다.

형식담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둔사적(遁辭的) 형식담'과 '누적적 형식담'으로 나뉜다. 둔사적 형식담은 다시 ①어희적 특성을 지닌 것, ②단형적인 특성을 가진 것, ③무한적인 특성을 지닌 것, ④설문적인 특성을 지닌 것(선택을 요구[擇願]하는 것과 대답을 요청[請答]하는 것이 있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누적적 형식담은 ①행운에 관한 것, ②불행에 관한 것, ③징치(懲治) 혹은 보복에 관한 것, ④문답에 의한 것, ⑤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바보에 관한 것, ⑥회귀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둔사적 형식담 ①은 운율적 특성을 보이거나, 문답 형식을 취하거나, 허언적 내용을 가지거나, 동음(同音)을 이용한다. 상당수의 각편들이 운율적 특성을 보이거나 문답 형식을 취하는 것은 민요의 차용으로 보인다. ②는 화자가 처음에는 매우 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척하여 청자로 하여금 잔뜩 기대를 걸게 한 다음 갑자기 끝을 맺는 부류이다. ③은 화자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구연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더 들으려는 욕망을 접게 하는 것이다. ④는 이야기의 끝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누적적 형식담 ①은 점진적인 성공이 누적되어 마침내 크게 성공하는 이야기이다. ②는 앞과 반대되는 경우로 불행이 누적되는 이야기이다. ③은 악인에 대한 동물 또는 사물들의 연쇄적 보복을 이야기한다. ④는 화자가 문답법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⑤는 바보가 충고하는 사람의 권유를 그대로 실행하여 계속 실수를 하는 이야기이다. 끝으로 ⑥은 이야기의 출발점이 귀착점이 되는 이야기이다.

특징 첫째, 형식담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형식을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누적담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의 사슬(고리)에서 하나만 빠져도 이야기 진행이 곤란하다. 둘째, 형

식담은 어희적(語戱的) 요소가 강하여, 그중의 어떤 것은 말장난 즉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셋째, 반복성을 띤다. 반복에는 형식담의 대부분에서나, 〈끝없는 이야기〉에서와 같이 동일 어사(語辭)나 동일 행위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누적적 형식담의 대부분처럼 행위의 연쇄 또는 점층적 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넷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에 싫증을 느꼈거나, 이야기 밑천이 떨어졌음에도 억지 부탁에 못 이겨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 경우에 꺼내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둔사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형식담 전부가 둔사적인 것은 아니며, 어희적인 형식담의 경우 대부분 둔사적인 경향이 있다. 다섯째, 동물담 중에도 동물이 등장하여 인간의 언어와 행동을 하지만, 형식담에서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물들까지도 등장하여 인간의 언행을 하는 것이 있다. 여섯째, 허언적(虛言的)이며 과장적이다. 형식담의 이 같은 특징은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 자체에 흥미의 초점이 두어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의의 형식담은 그 내용으로 본다면 원래 소담으로 분류될 법한 이야기들이나, 그 형식적인 특성 때문에 형식담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은, 예컨대 민요처럼 설화에도 운율이 존재한다거나, 끝이 없거나 아주 짧거나, 이야기가 반복적이거나 점층적이거나, 혹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회귀성을 보여 주거나 하는 것 같은 독특한 형식미에서 묘미를 느끼게 한다. 이처럼 형식담은 여느 설화들과는 다르게 시적, 미적인 면모를 차별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참고문헌 한국의 형식담(조희웅, 한국학논총3, 국민대학교, 1981), Standard Dictionary of Folklore, Mythology and Legend(M. Leach, New York: Funk & Wagnalls, 1972), The Folktale(S. Thomps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46).

필자 조희웅(曺喜雄)

전설

형제바위

정의 바위의 생김새가 형제를 닮았다고 하여 생긴 전설.

줄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에 전해 오는 〈형제바위전설〉은 이러하다. 조선 선조 때 박충후의 큰딸이 이종택에게 시집갔다. 작은딸이 언니의 시댁에 놀러 갔는데 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자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중으로 피난하다가 왜병에게 쫓겨 이종택과 헤어지고 낙동강 쪽으로 달아났다. 뒤에서는 아귀(餓鬼) 같은 왜병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강가에 이르자 자매는 죽기를 각오하고 큰 바위 위에 올라 강으로 뛰어 내렸다. 그러자 바위가 소리를 내며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서 마치 두 딸의 모습과 같았다. 이에 사람들이 그 바위를 형제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신기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온다. 아득한 옛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밤에만 조금씩 커지는 두 바위가 있었다. 두 바위는 천 길을 먼저 크면 서울의 주봉(主峰)이 된다고 믿고 서로 앞다투어 커지고 있었다. 백 일째 되는 마지막 날 밤이었다. 마을의 젊은 아낙이 이른 새벽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바위가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눈치채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순간 두 바위는 더 크는 것을 멈춘 채 아낙을 원망하듯 고개를 숙이고 강가에 우뚝 서 있게 되었다. 그 모습이 마치 형제 같다고 하여 형제바위라 부른다.

한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기룡마을에는 병석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은 두 형제의 혼이 바위가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에는 조선 중종 때 한양에서 귀양 온 어느 사대부가의 두 아들이 부모가 돌아가시자 어부가 되어 고기잡이하던 중 거친 파도에 배가 뒤집혀 바다 가운데서 죽었는데, 그 후 바다 가운데 큰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솟아올랐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온다.

분석 바위의 모습이 형제를 닮았다는 데서 연유할 뿐, 그 유래는 다양하다. 자연물인 바위에 관한 전설은 대체로 그 생김새를 소박한 지식으로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데, 촛대바위·개바위[狗岩]·갓바위[冠岩]·돛대바위·용바위[龍岩]·칼바위·거북바위[龜岩]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징 바위는 불변의 자연물로 영원성을 상징하는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는 인간 심리가 작용한 예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 동해의 어룡(魚龍)들이 자성산(慈成山)에 들어가 불도를 닦다가 골짜기의 돌로 변하여 종경(鐘磬) 소리를 냈다는 〈만어사어산불영전설(萬魚寺魚山佛影傳說)〉, 의상(義湘)을 연모하던 선묘(善妙)낭자가 용이 되어 의상의 귀국길을 돕고 다시 석룡(石龍)으로 변하여 부석사의 수호신이 되었다는 〈부석사연기설화(浮石寺緣起說話)〉, 또 왜국에 볼모로 잡혀가 있는 왕자를 구하려고 떠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죽어 그 몸이 바위로 변했다는 〈치술령망부석설화(鴟述嶺望夫石說話)〉 등이 대표적이다.

출처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3), 한국구전설화집14(박종익, 민속원, 2005), 내 고향의 전설(김환대, 한국학술정보, 2010).

참고문헌 경주지역의 바위지명 고찰(김경애,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바위 소재 지명어의 명명 근거와 전부지명소(김정태, 지명학12, 한국지명학회, 2006).

필자 곽정식(郭正植)

민담

형제투금

兄弟投金

상응AT 산함일구 강토이주, 지성이감천이

정의 형제가 길에서 금덩이를 주웠으나 우애를 지키기 위하여 도로 버렸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이 설화는 『고려사(高麗史)』「열전」 권34 〈효우정유전(孝友鄭愈傳)〉에 처음 전하는 것으로, 이후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경기도읍지』 등 여러 문헌에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구비설화로 전국 각지에서 채록되고 있다. 중국 명나라 때 진요문(陳耀文)이 편찬한 『천중기(天中記)』 권50 금불상물(金不祥物) 조에는 조선에서 전래하여 중국에 영향을 준 설화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당나라 승려 도세(道世, ?~683)가 편찬한 『법원주림(法苑珠林)』 권94에는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용수(龍樹, 384~417)의 『대지도론(大智度論)』 권22를 인용하여 『고려사』에서 전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의 설화를 이미 전하고 있다. 또한, 일찍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 고구려 조에 『법원주림』을 '주림전(珠琳傳)'이라는 약칭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지도론』이나 『법원주림』 소재의 불전설화가 『고려사』「열전」에 차입(借入)된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고려 공민왕 때의 일이다. 어느 형제가 함께 길을 가던 중, 아우가 금덩어리 두 개를 주워서 하나를 형에게 주었다. 양천강(陽川江, 지금의 경기도 김포군 공암진 근처)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아우가 갑자기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 형이 이상히 여겨서 물었더니 아우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동안 형을 매우 사랑했는데, 지금 금덩어리를 나누고 보니 갑자기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금덩어리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라 차라리 강물에 던져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형도 "네 말이 과연 옳구나." 하고는 동생을 따라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

변이 『대지도론』이나 『법원주림』 소재 불전설화의 한국적 전환은 전설, 단순민담(單純民談), 본격민담(本格民談)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가운데 전설은 고려 말 사상적 흐름의 동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순민담은 설화의 고유 주제인 윤리(형제애)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이면적 주제인 물질욕을 단순한 형식에 담아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격민담은 순수민담의 형식이 더 충실히 갖춰진 것으로, 한국적 전승에 의한 창조적 변모가 가장 잘 이뤄진 이야기이다. 『고려사』「열전」에 전하는 설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고려 공민왕 때의 일이라고 하면서 양천현(陽川縣) 공암진(孔巖津)으로 그 지명을 밝혀 놓았으며, 『경기도읍지』에는 『성산이씨가승(星山李氏家乘)』의 기록을 근거로 주인공을 이억년(李億年, 1266~?)과 이조년(李兆年, 1269~1343) 형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민왕(1351~1374)의 재위 기간과는 맞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조선 말엽 박재형(朴在馨, 1838~1900)이 엮은 『해동속소학(海東續小學)』에는 충민왕(忠愍王) 때 일이라고 하였다. 한편, 현재 구전되고 있는 자료 가운데 다음과 같은 변이형이 있다. 형제가 금덩이 하나를 발견하고 둘로 나눌 수 없어서 그냥 버리고 가다가 행인을 만나 금덩이가 있는 장소를 알려 주었다. 그러자 행인은 그것을 구렁이로 보고 막대기로 찔러 둘로 갈라 놓아서 형제가 하나씩 나눠 가지고 잘살았다고 한다. 이는 문헌 소재의 전설이 민담적 전환을 거쳐 전승되는 과정에서 〈지성이감천이설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 『대지도론』이나 『법원주림』 소재의 불전설화가 우리나라에 전래하여 전설에서 민담으로 전환하게 된 내재적 요인은 무엇보다도 설화적 흥미성이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담으로의 창조적 전승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흥미성은 주제와 소재 그리고 구성미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제의 윤리성도 민담적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불가의 기본 계율이나 가르침은 인간의 보편적 도덕 가치 위에 서 있으며, 그것을 구상적(具象的)으로 표현하고 강조하는 불전설화는 이미 초전불교시대(初傳佛敎時代)부터 대사회적(對社會的) 종교 기능의 하나로 그 의미가 중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불전설화 역시 이런 점이 더

욱 강조되는 방향에서 민중에 의한 전파와 민담적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 주제의 보편성을 잘 갖추고 있는 설화일수록 민담적 전환이 그만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현전 불전계 민담 대부분이 이런 점을 잘 보여 준다.

특징 이 설화의 주제는 『대지도론』이나 『법원주림』 소재 불전설화의 한국적 전환을 통해서 유가적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불가에서는 삼도(三途, 地獄·餓鬼·畜生)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심(貪心)이 첫째가 되고, 육도(六度, 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智慧)의 문 가운데는 보시가 으뜸이 된다고 가르친다. 또 아끼고 탐하는 마음이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는 행이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는다고 가르친다. 보시에는 재물을 보시하는 '재시(財施)'와 법을 보시하는 '법시(法施)'가 있는데, 『대지도론』이나 『법원주림』 소재 불전설화는 재시를 강조하기 위해 인증된 설화이다. 그런데 『고려사』「열전」 권34 〈효우 정유전〉에 부기(附記) 형식으로 전하는 설화는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정유는 왜구가 침범하자 아우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 싸운 인물이다. 이때 아우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다음 죽었고, 정유는 이 사실이 알려져 관직을 제수받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들은 유가가 지향하는 인물이기에 정사(正史)의 열전에 실어 유가의 덕목인 우애를 강조했던 것이다.

의의 형제는 부모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원으로, 그들의 관계는 친밀과 적의(敵意)의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형제투금설화〉는 형제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재물 때문에 형제의 우애가 결코 손상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형제우애담이라 할 수 있다.

출처 京畿都邑誌,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海東續小學,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789; 949; 2-4, 375; 4-4, 438.

참고문헌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에 나타난 형제 간 갈등의 양상과 그 의미(곽정식, 문화전통론집4,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한국 형제투금설화의 연구(강재철, 고전문학연구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형제투금형 설화의 한국민담적 변모(황인덕, 민족문화연구2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필자 곽정식(郭正植)

전설

혜통

惠通

정의 무외삼장에게 신묘한 신법을 배우고 신라로 돌아와 많은 신통력을 부린 신라 중기의 승려인 혜통과 관련된 전설.

역사 이 설화는 밀교승 혜통과 교룡의 대립과 갈등을 보여 주며 불교 우위의 구도를 보인다. 불교 우위의 구도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용신설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설화는 이러한 구도의 이른 시기 모습이다.

줄거리 혜통이 젊어서 수달을 잡아먹고 뼈를 마당에 버렸는데, 그 뼈가 제 집으로 돌아가 새끼 다섯 마리를 품었다. 이를 보고 크게 놀라 참회하고 출가하였다. 당에 들어가서 인도에서 온 무외삼장에게 밀교를 전수받았다. 당 고종의 공주가 병이 들자 교룡을 퇴치하여 병을 고쳐 주었다. 교룡이 신라로 도망쳐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정공을 통하여 알고 귀국하여 교룡을 퇴치하고 신문왕의 등창을 낫게 해 주었다. 교룡은 버드나무로 변신하여 정공이 처형당하게 만들었다. 혜통도 이 사건과 연루되었지만 신통력으로 살아났고, 효소왕의 공주를 낫게 하여 국사로 봉해졌다. 한편, 교룡은 정공에게 원한을 풀고 기장산으로 가서 곰 신령이 되었다. 그곳에서 교룡의 해독(害毒)이 심하였는데 혜통이 이 산중에 이르러 타이르고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주자 용의 해독이 멈췄다. 혜통이 밀본의 뒤를 이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구원하고 만물을 교화하며 겸하여 타고난 총명으로 절을 세워 원한을 푸니 밀교의 교화가 크게 떨쳤다. 천마산의 총지암과 모악의 주석원이 모두 밀교 사원이다.

분석 명랑법사의 신인종(神印宗)과 더불어 한국의 2대 밀교 종파로 역사를 장식한 밀교가 혜통이 개종한 총지종(摠持宗)이라는 점에서 종교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학 연구에서는 용신설화의 맥락에서 혜통과 토착룡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투영된 서술자의 의식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징 혜통의 행적은 전통 용신앙에 대한 불교의 우위 구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구도는 용신이 불교와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금갑설화〉, 〈거타지설화〉와 구별된다. 혜통의 행적에 보이는 용신에 대한 불교 우위의 구도는 용신이 스스로 불도에 귀의하여 보요선사, 명랑법사, 보양법사, 진표율사와 같은 고승들에게 호법신으로 봉사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의의 이 설화는 무엇보다 혜통의 생애와 밀교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다. 한국에서 밀교의 수용과 전개 그리고 총지종의 개종과 전개에서 혜통과 총지종의 관계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라 중대 왕권과 밀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설화는 무엇보다 불교와의 관계에서 토속신앙의 향방을 보여 준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삼국유사 신주편을 통해 본 토속신앙의 향방(신태수, 국어국문학140, 국어국문학회, 2005), 삼국유사 용신설화의 유형과 작품양상(박진태, 고전문학과 교육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신라 중대 왕권과 밀교(이세호, 동국사학49, 동국사학회, 2010), 삼국유사 혜통항용 조의 검토(노중국,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32, 경주시, 2011), 한국에서의 밀교의 수용과 전개(종석, 승가15, 중앙승가대학교, 1998).

필자 김화경(金和經)

주로 하여금 고각을 부수게 하여 낙랑을 점령했으나, 공주는 죽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후반부는 대무신왕의 원비가 차비 소생인 호동을 시기하여 왕에게 참소함으로써 호동이 한마디 변명도 없이 칼에 엎어져 죽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인간 세상의 다양한 비극을 집약시켜 놓았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낙랑왕 최리는 왕자 호동을 사위로 맞이함으로써 고구려와 화친하려다가 도리어 패망에 이르렀다. 호동을 따랐던 공주는 뜻밖에도 그 사랑에 배신당한 채 부왕(父王)의 손에 죽어야 했고, 호동은 부왕을 위해 공주를 배신했으나 도리어 그 때문에 자결해야 했다. 원비의 모함에 왕자를 죽인 대무신왕 역시 어리석고 비극적인 인물이다.

특징 낙랑으로 대표되는 한족과 고구려족 간의 대립과 갈등을 신기(神器) 쟁탈의 모티프를 빌려 형상화하였다.

의의 고구려 해명태자(解明太子) 이야기와 함께 신화시대에서 전설·민담시대로의 전환 내지는 이행기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극히 드문 자료이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촉발하는 소재가 되고 있다.

출처 三國史記, 大東野乘.

참고문헌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조동일, 집문당, 1990), 우리 고전 다시 쓰기(신선희, 삼영사, 2005).

필자 곽정식(郭正植)

민담

호랑이 눈썹

정의 전생 모습을 보여 주는 호랑이 눈썹을 구해 발복한 사연을 전하는 민담.

줄거리 옛날에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괴롭기 그지없었다. 남자는 차라리 호랑이한테 잡아 먹히겠다고 결심하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남자한테 눈썹을 하나 뽑아 주면서 그걸 대고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생의 모습이 보일 거라고 했다. 남자가 눈썹을 대고 살펴보니 많은 이들이 사람이 아닌 동물로 보였다. 자기 부부를 보니 자신은 본래 사람이고 아내는 암탉이어서 일이 그렇게 안 풀린 것이었다. 마침 집에 어느 부부가 손님으로 들었는데 눈썹을 대고 살펴보니 남자는 수탉이고 여자는 사람이었다. 그

전설

낙랑공주

好童王子 樂浪公主

정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에 관한 설화.

줄거리 고구려 3대 대무신왕(大武神王)의 왕자 호동(好童)이 옥저로 놀러 갔을 때, 낙랑왕(樂浪王) 최리(崔理)가 나왔다가 그를 보고 함께 돌아와 사위로 삼았다. 그 후 호동이 귀국하여 공주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전하기를, 만약 병기고(兵器庫)에 들어가 고각(鼓角)을 부수어 버린다면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전부터 낙랑국에는 적병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울리는 고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수게 했던 것이다. 공주는 칼을 가지고 병기고에 들어가 고각을 부숴 버린 후 이를 호동에게 알렸다. 그러자 호동은 왕에게 권하여 낙랑을 습격하였고, 낙랑왕은 적병이 성 아래 이른 후에야 고각이 파괴된 것을 알고는 딸을 죽이고 항복하였다.

대무신왕의 차비(次妃)는 얼굴이 아름다워 왕이 매우 사랑하였는데, 호동이 바로 차비의 소생이었다. 원비(元妃)는 왕이 적통을 버리고 호동을 태자로 삼을까 염려하여 왕에게 호동이 자신을 예로써 대접하지 않으니 음행을 하려는 것 같다고 거짓으로 일러 바쳤다. 호동은 억울한 사정을 해명하지 않은 채 칼에 엎어져 자살하고 말았다.

변이 『삼국사기(三國史記)』「고구려본기」에 따르면, 대무신왕이 낙랑을 멸망시키려고 일부러 혼인을 청하여 그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뒤, 그 며느리를 시켜 본국으로 돌아가 고각을 부수게 했다는 일설이 있다.

분석 전반부는 고구려 왕자 호동이 낙랑공주와 결혼하고 공

부부 또한 되는 일이 없었던 터라, 두 부부는 상의 끝에 서로 짝을 바꾸어서 살기로 하였다. 짝을 바꾼 뒤로 남자는 하는 일마다 잘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 나중에 보니 전 아내의 부부도 부자가 되어 잘살고 있었다.

변이 호랑이가 눈썹 대신 안경을 준다고 되어 있는 각편도 몇 있다. 그리고 눈썹에 비친 남자와 여자의 본모습이 무엇이었는지도 자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자가 사람이고 남자가 동물인 예도 있으며, 동물은 닭이 아닌 개나 돼지, 너구리, 소인 예도 있다. '호랑이 눈썹' 화소는 〈구렁덩덩신선비〉 민담의 헌각시와 새각시 시합 과정에서 탐색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분석 이 설화는 겉으로는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본모습은 제각각이며, 그것은 사람의 전생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호랑이 눈썹을 눈에 댄다는 것은 '호랑이 눈'이 되어 대상의 본질을 본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설화는 서로 본성이 통하는 사람끼리 짝을 이루어야 삶이 잘 풀린다는 인식을 '부부 바꾸기'라는 화소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이는 문학치료 연구에서 성격 차이에 따른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별과 새 출발이 유력한 문제 해결 방법임을 시사해 준다는 것이다.

특징 전생의 인연과 현세의 운명에 관한 전통적인 사유를 반영하면서도, '부부 바꾸기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파격적인 설정을 담고 있다.

의의 '호랑이 눈썹'이라는 화소가 독특하며, 부부간 인연에 대한 관점이 특징적이다. 민간의 윤회론과 인연설을 단면적으로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184; 302; 7-15, 157; 9-3, 664.

참고문헌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정운채,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0), 배우자멀치기서사의 문제해결을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김정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필자 신동흔(申東昕)

민담

호랑이 배 속 구경

정의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다가 그 배 속에서 살아 나와 호랑이를 잡은 희극적 민담.

줄거리 옛날에 커다란 호랑이가 사람들을 많이 해쳤다. 그래서 나라에서 대호를 잡는 사람에게 벼슬을 준다고 했다. 체구가 작은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러 산으로 갔다. 그는 호랑이에게 약을 올려 호랑이가 자신을 삼켜 버리게 했다. 호랑이 배 속에 들어간 체구가 작은 사람은 칼로 호랑이 간을 여러 차례 베어 먹었다. 호랑이가 아프다고 날뛰다가 주위에 있는 호랑이들을 다 물어뜯어 죽였다. 그러자 작은 사람이 칼로 호랑이 배를 가르고 나왔다. 작은 사람은 벼슬을 얻었다. 예전에는 호랑이가 많았는데, 이때 호랑이 씨가 말랐다.

변이 등장인물은 짚신장수, 포수, 할아버지, 작은 사람 등으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혼자 호랑이 배 속으로 들어가는 예가 많다. 각편에 따라서는 포수·소금장수·쌀장수·개장수·노름꾼·석유장수·잡화장수·풍물 치는 팔 형제 등 여러 사람이 차례로 호랑이 배 속으로 들어간 뒤 서로 힘을 합쳐 탈출하는 예도 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가져가는 도구는 도리깨, 칼, 방앗공이, 총 등 다양하다. 또한 호랑이 배 속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칼로 호랑이 배를 가르고 나오는 경우, 호랑이 똥구멍으로 나오는 경우, 호랑이 꼬리를 배 속에서 잡아당겨 뒤집어 잡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통째로 삼킨 호랑이를 고래가 삼키는 경우도 있다.

분석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에게 통째로 먹힌 인물들은 죽음과 맞닥뜨린다. 호랑이 배 속은 죽음을 예고하는 컴컴한 터널과 같다. 호랑이 배 속에서 불을 지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만들고, 호랑이 살점으로 굶주림을 해결하는 등 주인공은 살길을 적극 모색하여 살아 나온다. 인물들은 죽음의 상황을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여유와 유머로 승화시킨다. 이 설화는 힘든 과정을 견디는 이들에게 영감과 힘을 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특징 〈호랑이 배 속 구경〉, 〈호랑이 배 속 잔치〉라는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호랑이의 배 속은 이야기 향유자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지의 공간이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모험하는 것은 성장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이자 축제이고 잔치이다. 이 이야기는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과 모험을 다루고 있고, 힘든 시련과 역경의 과정을 즐거움과 유쾌함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날 많은 옛이야기 책이나 그림책으로 출판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453; 4-6, 538; 7-4, 231; 7-7, 460; 7-8, 51; 809; 8-8, 384; 8-14, 214.

참고문헌 융,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이나미, 민음인, 2010), 조선설화집(손진태, 최인학 역, 민속원, 2009).

필자 박현숙(朴賢淑)

민담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정의 강아지에 참기름을 발라 고소한 냄새로 호랑이를 유혹해 줄줄이 꿰어 잡는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옛날 강원도 금강산에는 호랑이가 많았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앞에 놓고 계속해서 참기름을 듬뿍 발라 댔다. 그런 뒤 강아지 허리에 칡넝쿨을 매어 금강산으로 데리고 갔다. 금강산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나무에 묶어 두자 호랑이가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고 나타났다. 호랑이가 보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으므로 그것을 단번에 삼켰는데, 참기름으로 미끌미끌해진 강아지가 쑤욱 내려가더니 그대로 똥구멍으로 빠져 버렸다. 저절로 호랑이가 줄에 꿰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호랑이도 고소한 냄새를 맡고 왔다가 강아지를 보고 단번에 삼켰는데 역시나 미끄러워 강아지가 똥구멍으로 빠져 버렸다. 다른 호랑이도, 또 다른 호랑이도, 그 다음도 그런 식으로 계속 꿰어져서 이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호랑이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변이 주인공이 게으름뱅이로 설정되기도 한다. 부모가 게으르다고 타박하자 그는 기름 바른 강아지로 호랑이를 잡아 자신의 면모를 과시해 보인다. 또 다른 각편에서는 이 사람이 기름 바른 강아지로 호랑이를 많이 잡자 다른 사냥꾼들이 몰려들어 호랑이를 빼앗는다. 이에 이 사람은 호랑이 왼쪽 귀를 조금만 잘라갈 수 있도록 청하는데, 그런 뒤 잘라낸 호랑이 귀 조각을 갖고 원님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해 호랑이를 되찾는다.

분석 설화에서 호랑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신성한 존재인 산신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단순한 공포의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바보처럼 모자란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멍청한 존재로 드러난다. 사람들에게는 사냥을 해야만 하는 공포의 대상이면서도,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눈앞의 먹이에 눈이 멀어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멍청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멍청함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자인 주인공은 미끼를 잘 이용하여 힘의 상징인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특징 우리 설화에는 동물을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잡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호랑이 잡는 법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랑이에게 술을 잔뜩 먹어 취하게 한 뒤 칼로 얼굴에 '열 십(十)' 자를 그려놓고는 뒤로 가서 꼬리를 밟고 "에끼 놈!" 하고 소리치면 깜짝 놀란 호랑이가 튀어 올라 알몸만 쏙 빠져나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을 절벽 근처의 높은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많은 호랑이들이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르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잡을 수 있다고도 한다. 또, 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그것을 휘휘 휘둘러 호랑이 목을 휘감은 다음 호랑이가 뒤쫓아 오게 해서 입 속으로 들어가 똥구멍으로 나가면 호랑이 가죽이 뒤집어지며 벗겨져 호랑이가 죽게 된다고도 한다. 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치 있는 이야기로 호환(虎患)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랑이 관련 설화들에서 호랑이가 바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272; 8-1, 39; 8-4, 15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8, 240; 10, 289.

참고문헌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심우장 외, 책과함께, 2008),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다중적 상징과 민중의 권력의식(임재해, 실천민속학연구19, 실천민속학회, 2012).

필자 조선영(曺善映)

민담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정의 약한 강아지가 강한 호랑이를 이기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호랑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민가로 내려왔다. 먹이를 찾아 집들을 기웃거리다 보니 강아지, 그것도 아주 볼품없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다. 저 강아지라도 잡아먹어야지 하고 달려들었더니 강아지가 개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개구멍에 들어간 강아지는 가만히 있기는커녕 반대편 개구멍으로 나가더니 '캐갱캥캥' 하고 짖어대기까지 하였다. 마치 날 잡아봐라 하는 식이었다. 이에 열 받은 호랑이가 반대편 개구멍으로 달려들었더니, 이번엔 또 반대편 개구멍으로 나와서 '캐갱캥캥' 하고 짖어댔다. 이러기를 수십 번 하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꾀를 내었다. 마치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달려가지 않고 이쪽 편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그래서 강아지는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간 강아지는 호랑이 똥구멍으로 나올 때까지 마냥 달렸다. 결국 강아지는 호랑이 똥구멍으로 나오고, 호랑이는 죽었다.

변이 사실 강아지가 호랑이 똥구멍으로 나올 개연성은 부족하다. 이 설화와 유사한 설화로, 강아지에게 기름을 먹여 매끄럽게 해 줄을 꿰어 호랑이가 잡아먹게 놔 둔 다음, 강아지가 기름칠 때문에 호랑이 배 속에서 미끄러져 똥구멍으로 빠져 나와 결국은 호랑이를 꿰어잡는다는 내용으로 변이된 설화가 있다. 두 설화의 선후 관계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분석 '빌어먹을'이란 말은 원래 '비루먹을'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한다. '비루'란 동물들에 생기는 고약한 피부병을 뜻한다. 따라서 '비루먹은 강아지'란 병들고 아주 말라서 별 볼 일 없는 강아지란 뜻이다. 개도 아닌 강아지이므로 크기 또한 작은데, 이처럼 정말 약하고 작은 강아지가 강하고 덩치도 큰 호랑이를 잡았다는 것은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약자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의 민중의 상상력에서 호랑이는 힘센 산중의 왕이다. 그럼에도 민중이 만든 다양한 설화에는 자기 꾀에 빠진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다. 이 설화도 자기 꾀에 빠진 호랑이 설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설화 속 호랑이는 강자의 표상이다. 반대로 비루먹은 강아지는 약자의 표상이다. 이 설화는 강자가 약자를 너무 억누르기만 하면 도리어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말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272; 4-4, 284; 683; 7-12, 73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122; 8, 240; 10, 289; 328; 12, 163.

참고문헌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심우장 외, 책과함께, 2008).

필자 이한길(李漢吉)

민담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정의 죽을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살려 주고 그 보답으로 묏자리를 얻는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보은설화와 풍수설화가 결합된 이 설화는 고려 초기 유효금(柳孝金)의 이야기가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전한다. 유차달(柳車達)의 아들 효금이 구월산(九月山)으로 놀러 갔다가 앞을 막아서며 눈물을 흘리는 호랑이를 만나 목에 걸린 은비녀를 뽑아 주었다. 그날 밤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자신이 산신이라 하면서, 구해 준 보답으로 효금의 자손이 대대로 재상이 되게 해 주겠다고 했다. 이후 효금은 벼슬이 좌윤(左尹)에 이르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설화는 5세손 유공권(柳公權)과 4대에 걸친 후손의 벼슬 내력을 기록하여 호랑이의 신령함을 부각했다. 조선 중기 『어우야담(於于野談)』에는 호랑이의 목에 걸린 비녀가 기녀의 것이 되고, 호랑이의 신성 요소가 탈락한다. 구전설화는 그 형성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고려 초기 인물의 역사적 사실과 연관되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어떤 담대한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와 맞닥뜨린다. 호랑이의 모습이 이상하여 살펴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것인가 의심했는데, 호랑이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벌린다. 가까이 가서 입 안을 살펴보니 목에 비녀가 걸려 있어 손을 집어넣어서 비녀를 빼 준다. 호랑이는 자기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여 이 사람을 태우고 가서 명당 터에 내려 주고, 하관할 장소를 발로 가리켜서 알려 준다. 호랑이가 알려 준 장소에 묘를 쓰고 대대로 부귀하게 산다.

변이 구전설화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그렇지만 산신의 현몽 대신 호랑이가 직접 터를 잡아 주는 것으로 변용된 것이 많다. 또한 대변을 보는 중에 호랑이를 만난다거나 황소 같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앞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식으로 주인공의 됨됨이를 부각하는 요소가 첨가된다. 보은하는 동물이 대부분 호랑이(8편)로 나오는데, 꿩(1편)이나 사슴(1편)이 나오는 변이형도 보인다. 이때 주인공의 담대함보다는 측은지심이나 인정이 더 강조된다.

분석 이 설화는 동물의 보은으로 얻은 명당에 관한 이야기로, 동물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보은하기 위하여 명당을 잡아 주는 명풍수의 역할을 한다. 명당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은 그에 상응하는 인품을 갖추고 선행을 해야 한다. 이 설화는 자연(동물)과 사람, 땅과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자연의 섭리, 땅의 논리임을 설명하는 문학적 은유이기도 하다.

특징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설화의 배경과 채록 장소를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후산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문화 유씨(文化柳氏) 집성촌은 청풍면 황석리이다. 충주댐 수몰 이후 많이 떠나갔지만 그곳에는 지금도 유씨 일가 몇 가구가 남아 있다. 또한 호랑이 목에 걸렸던 비녀는 현재 금성면 사곡리에 있는 한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다.

출처 亡羊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於于野談,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793; 3-1, 419; 5-7, 705; 7-9, 855; 8-8, 33.

참고문헌 한국문헌설화7(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 풍수설화의 분류 연구(양은모, 중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강성숙(姜盛淑)

민담

호랑이로 변한 남편

설화유은 김호랑이굴

정의 효를 실천하기 위해 사람이 호랑이로 둔갑한 호랑이 전설.

역사 이 설화는 중국의 『선실지(宣室志)』에 실려 전하는 〈이징전설(李徵傳說)〉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리라 추정된다.

줄거리 옛날 한 효자가 살았다. 그는 어머니가 병이 들자 밤낮으로 치성을 드린다. 어느 날 개의 간을 먹어야 어머니의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서 호랑이로 둔갑할 수 있는 주문이 적힌 책을 얻는다. 이후 그는 날마다 책을 읽고 호랑이로 변신하여 개를 잡아 그 간을 어머니께 드린다. 무서운 호랑이로 변신하는 남편을 본 부인은 그 모습이 보기 싫어 책을 아궁이에 넣어 불살라 버린다. 주문 책을 더는 볼 수 없게 된 아들은 사람으로 변신하지 못하게 된다. 호랑이가 된 효자는 마을의 산과 들로 다니는데, 그를 아는 사람이 "황 선생, 어디 가는가?"라고 하면 고개만 끄덕끄덕한다. 그렇게 마을 사람을 만나면 눈만 끔벅하다가 산으로 올라가곤 한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도 죽었는지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변이 〈호랑이 황팔도〉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며, 전국적으로 구전되는 자료이지만 주 전승지는 충청도 지역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결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호랑이가 포수의 총에 맞아 죽는다.

분석 효자 주인공의 운명이 비극적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지고지순한 효의 실천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범주를 넘고 나쁜 수단을 쓸 때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전승 집단의 도덕의식이 내린 판단이다. 한편,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와 이 둘의 관계를 파탄 낸 부인의 개입을 근거로 금기시된 욕망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특징 중국의 〈이징전설〉은 주인공 이징이 호랑이로 변한 후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다가 홀연히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이야기는 그 동기가 효이지만, 중국의 이야기는 효와 무관하다. 이는 한국인의 뚜렷한 효 관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의의 사람이 호랑이로 둔갑한다든가 효자 주인공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유형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호랑이만 놓고 보면 이 설화 속 호랑이는 성스럽거나 마법을 지닌 동물이 아닌 특별한 동물로서의 호랑이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3, 172; 4-4, 607; 4-6, 340.

참고문헌 구비문학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원형(김필래,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구비전승의 연구(성기설, 일조각, 1976), 호랑이담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김수연, 한국어문학연구5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필자 김기호(金基鎬)

민담

호랑이와 곶감

정의 어리석은 호랑이가 곶감을 자기보다 무서운 존재인 줄 착각하고 도망하는 과정을 묘사한 동물담에 속하는 설화.

역사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설화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교과서에 수록했고, 1920년대에 들어 전래동화로 개작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에 실렸다. 동화작가 고 마해송 선생은 1933년 이 설화를 동화로 각색하였고, 최근에는 그림책으로도 자주 간행한다. 유럽에도 이와 비슷한 〈도둑과 호랑이〉가 널리 분포되어 있고, 4세기경 완성된 인도의 『판차탄트라』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 기원이 매우 오래된 설화임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어느 날 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어느 집 외양간에 숨어 있다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소리를 엿들었다. 어머니가 "호랑이가 왔다. 울지 마라."라고 하는데도 아이가 계속 울자 호랑이는 내심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대담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어머니가 곶감을 이야기하니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그러자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놈이 자신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때 소도둑이 소를 훔치러 왔다가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는 자신의 등 위에 탄 놈이 '곶감'이라고 착각하고, 무서워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다. 하지만 도둑도 곧바로 자신이 호랑이 등 위에 탄 줄 알아채고 떨어지면 잡아먹힐까 봐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날이 밝자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려 고목 속으로 숨고, 호랑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망갔다. 그런데 호랑이를 만난 곰(또는 토끼)이 곶감은 사람일 뿐이라며 잡으러 가자고 호랑이를 부추겼다. 하지만 소도둑이 자신을 괴롭히는 곰의 불알을 잡아당겨 곰은 죽고, 호랑이는 다시 도망갔다.

변이 이 설화는 구성상 호랑이가 곶감 얘기를 듣고 도망치는 단형서사 유형, 호랑이가 소도둑을 태우고 도망치는 유형, 도망쳤던 호랑이가 소도둑을 잡으러 왔다가 혼이 나 다시 도망치는 유형의 변이가 있다. 그리고 결말에서 호랑이가 소도둑의 계략에 넘어가 죽기도 한다. 또한, 호랑이가 소도둑을 잡으러 오는 과정에서 홀로 오는 유형, 토끼나 곰과 같은 동물과 함께 오는 유형 등으로 다시 변이가 일어난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소도둑을 '꽉지'라고도 호칭하였다.

분석 이 유형의 민담은 중국과 일본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발단 부분에서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걱정하는 말을 듣고 호랑이가 자기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다.

의의 어리석은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강자는 어리석음으로 패배하고, 약자는 재치 있는 상황 대처로 승리한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출처 조선동화집(조선총독부, 권혁래 역, 집문당, 2003), 조선민담집(손진태, 향토연구사, 1930),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 학예사, 194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774; 4-4, 943; 4-5, 239; 5-7, 461.

참고문헌 일제강점기 호랑이·토끼 서사의 양상과 문학교육(권혁래, 온지논총22, 온지학회, 2009),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필자 권혁래(權赫來)

민담

호랑이의 보은

정의 호랑이가 주인공에게 자신의 곤경이나 고통을 호소하여 주인공이 호랑이의 불행을 제거해 주고 호랑이가 주인공의 은혜에 보답하는 내용의 민담.

역사 삼국시대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신격형 호랑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인공의 불행을 제거하고, 결핍을 충족하며 공간적 이동을 도와주는 초월적 원조자였다. 그런데 후대에 등장하는 '보은형 호랑이'에서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곤경이나 고통에 대하여 구원을 요청한 후에 주인공을 도와주는 상호 공리적 도움의 형태를 가진 서사구조로 나타난다.

줄거리 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앉아서 옴짝도 못하게 길을 막았으나 그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사람이 호랑이의 입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주겠다고 하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는 호랑이의 입속에 손을 넣어 목에 걸린 비녀를 꺼내 주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이지만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갔다. 그 사람은 산중에서 홀로된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게 사는 노총각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쿵'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 보니 호랑이가 나무를 태산같이 해서 갖다 놓고 갔다. 그 후로 호랑이 덕에 힘들게 나무하지 않고도 나무를 때며 살았다. 또 어느 날 '쿵'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예쁜 처녀를 업어다 놨다. 그 처녀는 어느 재상의 딸로 호랑이한테 물려와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깊은 산중이라 집을 찾기가 어려웠다. 처녀는 자기가



호랑이 민화
국립민속박물관

처한 상황에 어떤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고 그 총각과 혼인하고 살았다. 두 사람은 호랑이가 늘 도와줘서 어머니를 모시며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와서 자신이 죽을 날이 다 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남자에게 장안에 가서 작패를 할 것이라며 그때 자신을 잡으라고 했다. 이윽고 호랑이가 장안에 나타나 포악한 짓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니, 호랑이를 잡아오면 벼슬과 상금을 준다는 포고가 내려졌다. 그래서 남자는 장안에 가서 호랑이를 총으로 쏴 죽이고 벼슬과 상금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변이 전설에서는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 주고 명당을 지명 받아 유씨 가문이 번창한 이야기, 왕건시대에 연안 차씨가 호랑이 목의 비녀를 빼 주고 명당을 지명 받아 정승을 몇 대째 했다는 이야기, 순흥 안씨가 같은 이유로 명당을 얻어 부자가 된 이야기와 같이 성씨 시조들과 명당이 복합되어 조상숭배를 강조하는 일면이 발견된다. 하지만 민담에서는 호랑이의 보은 행위가 결혼을 시켜 주거나 치부(致富)하도록 해 주거나 명의(名醫)가 되도록 해 주는 등 민중의 일반적 관심사로 귀결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분석 동물보은설화는 동물이 사람에게 입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이야기이므로 그 전개과정에 시은(施恩)과 보은(報恩)이라는 요소를 전제로 하며, 때에 따라 동물이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보은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이야기가 첨가되기도 한다. 보은의 내용은 시은과 마찬가지로 은인의 목숨을 구하거나 출세를 도와주며, 재물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등 방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동물이 명당자리를 알려 주거나 직접 나서서 부(富)의 획득이나 출세를 돕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한 재물이 묻힌 장소를 알려 주거나 비현실적인 음덕(陰德)에 의한 간접적인 보은을 하는 예도 있다. 그중 호랑이는 무섭고 용맹하다는 점에서 외경의 대상이고, 산신으로 모셔져 수호신이 되었다. 삼국시대 서사문학에서부터 호랑이가 등장하였고, 후대에서는 더욱 다양한 형상으로 전승되었다. 특히 호랑이는 우리 민족과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형성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인이 가지는 호랑이의 이미지는 짐승이라는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 보다 특수하고 다양한 성격으로 분화되었으며,이는 전통적이며 민족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호랑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동물이다. 이에 동물보은설화에서 보은하는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등장하여 인간사에 관여하며, 권선징악의 윤리적 역할을 담당하는 존엄한 절대자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곤경이나 고통에 대해서 구원을 요청한 후에 도와주는, 상호 공조(共助)의 형태를 가진 중립적 시여자(施與者)로 등장한다.

특징 이 설화는 주인공과 호랑이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특징인데,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먼저 시은하면 호랑이가 그 은혜에 보답한다. 특히 인간의 결핍을 제거해 주는 과정에서 호랑이의 초월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물보은설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포악한 짐승이 아닌 인격화되어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존재로 나와 보은하며, 더 나아가 신이(神異)한 능력을 지닌 신령스러운 동물로서 신의 대행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호랑이는 위협적이지만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온, 전통적 민족 감정과 관련 있는 동물이라 할 수 있다.

의의 호랑이와 인간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보여 주는 이 설화는 호랑이에게 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에서도 배우려는 우리 민족의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설화는 현대 윤리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설화의 교육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실례(實例)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528; 2-5, 102.

참고문헌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상의 연구(이원용, 강원대학교, 1987), 옛 문학의 비평적 시각(김명희, 태학사, 1997), 한국 호랑이 설화집(한상수, 문지사, 1987).

필자 김명희(金明姬)

민담

호랑이형님

정의 호랑이형님이 인간인 아우와 부모에게 효를 행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인간과 호랑이가 관련된 이야기는 고조선의 〈단군신화〉로까지 소급된다. 그만큼 인간과 호랑이의 관계 역사가 깊다는 것이며,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호랑이형님〉 또한 상고시대까지 그 연원을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줄거리 어떤 나무꾼이 가난한 나머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다며 산을 넘어가는데, 도중에 진짜 호랑이를 만났다. 막상 호랑이를 만나 겁이 난 나무꾼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호

랑이에게 "아이고, 형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죽어서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더니 바로 그 형님이시군요!" 하였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형님을 그리워하니 당장 뵈러 가자고 하였다. 이에 호랑이가 그 말을 믿고서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호랑이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없다."라며 거절했다. 그 뒤로 꼬박꼬박 호랑이가 돼지를 가져다 놓으니, 그것으로 나무꾼과 어머니는 부자로 살게 되었고, 나무꾼은 호랑이가 얻어 준 색시에게 장가도 들었다. 몇 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호랑이가 돼지를 가져다 놓는 일도 사라졌는데, 궁금해진 나무꾼이 예전 호랑이가 살던 굴에 가 보니 새끼 호랑이들이 꼬리에 흰 베[布]를 드리고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우리 할머니는 인간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도 식음을 전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꼬리에 흰 댕기를 드리고 있는 거에요."라고 하였다. 나무꾼은 호랑이의 효성에 감동해서 어머니 산소 옆에 나란히 묘를 써주었다고 한다.

변이 〈호랑이형님〉 설화는 대개 가난한 총각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호랑이 덕분에 장가들고 부자가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편에 따라 호랑이형님이 주인공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이야기도 있고, 호랑이가 소년에게 떡을 달라고 하자 소년이 떡 대신 차돌을 주는데 자기는 먹지 못하는 차돌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소년을 보고 놀란 나머지 호랑이 스스로 소년을 형님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분석 〈호랑이형님〉 설화는 인간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한다는 측면에서 지략담인 동시에, 인간에게 효성을 다한다는 점에서 효행담이자 동물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 설화 향유자들은 동물마저도 자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는 효 중시 사상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는 인간과 어리석은 호랑이의 대비를 통해 웃음을 전달하고 있다.

특징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맹수 또는 산신령으로서 양가적인 속성을 띠는데, 이와는 달리 〈호랑이형님〉의 호랑이는 어딘가 엉뚱하고 어리석다. 이는 백수의 왕 호랑이가 가장 무서워한 것이 바로 곶감이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호랑이와 인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의의 〈호랑이형님〉 설화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승되는데, 대표적으로 방정환 선생이 쓴 〈호랑이형님〉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설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종류의 전래동화집과 만화책, 동화극 등이 제작되어 그 맥락을 연연히 이어가고 있을 만큼 교육적 가치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270, 한국인의 민담(최운식, 시인사, 1999).

참고문헌 한국 소화의 연구(신월균,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효관념(강진옥, 민속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1991).

필자 한미옥(韓美玉)

민담

호식당할 운명

정의 호식(虎食)을 당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점쟁이가 알려준 방도로 액운을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하여 호환을 당했다는 민담.

줄거리 어떤 여인이 점을 치니 점쟁이가 말하길 남편이 모일 모시에 호식을 당할 운명을 타고났는데 구들장 아래 단지를 넣고 그 안에 들어가 숨어서 호환(虎患) 시각을 넘기면 살 수 있다고 했다. 드디어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고 한 날이 되자 부인은 점쟁이 말대로 남편을 구들장 아래 숨겨두고, 두 번이나 남편을 찾는 사람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난 후에 아이 업은 여자가 찾아와 남편을 찾았다. 부인이 남편의 행방을 모르겠다고 잡아떼자, 그 여자는 자식을 낳아놓고 모른 척한다고 행패를 부렸다. 화가 난 부인이 참지 못하고 남편이 숨은 곳을 말해 버렸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여 남편을 물고 사라졌다.

분석 이 설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초월적 질서를 상징하고, 호식을 피하려는 부부는 이런 초월적 질서에 따라 지배되는 지상적 존재를 상징한다. 따라서 〈호식당할 운명〉 이야기 속에는 초월적 질서와 지상적 존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대립은 초월적 질서의 승리로 귀결된다. 지상적 존재인 인간은 어떤 방도를 취하든 간에 초월적 질서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취한 방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특징 한번 정해진 운명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내용의 설화들은 대체로 '운명 예언-운명 실현'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변역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이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세 번째에는 아이 업은 여인 모티프를 이용하여 처첩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이야기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이야기에는 모일 모시에 죽을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집 안에만 머물렀는데, 때마침 쏟아진 소나기 때문에 담장이 무너져 깔려 죽었다는 것이 있다.

의의 〈호식당할 운명〉 설화는 인위적으로 운명을 변역하려다가 실패해 불행해졌다는 정명론(定命論) 또는 숙명론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에 해당한다. 특히, 변역의 시도가 실패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운명의 절대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5, 40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5, 321.

참고문헌 설화 속의 호랑이(최인학, 구전설화연구, 새문사, 1994), 설화의 문제해결방식을 통해 본 인식과 그 의미(강진옥,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한국운명설화 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필자 정재민(鄭在珉)

전설

호종단

胡宗旦

정의 중국 왕이 제주의 지혈과 물혈을 끊기 위해 파견하였다는 호종단에 관한 전설.

역사 제주에서 고종달이라 불리는 호종단(胡宗旦)은 고려 예종 때 귀화인이다. 송나라 복주(福州) 출신으로 태학에 입학하여 상사생(上舍生)이 되고, 절강성에 있다가 상선을 타고 고려에 들어왔다. 고려 예종(재위 1106~1122) 연간에 탐라(제주)에 들어와 산수지기(山水之氣)를 제압하였다고 전하는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줄거리 중국 진시황은 제주가 자신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 나올 지세임을 알게 되어 호종단을 불러 제주의 지혈을 끊으라고 지시했다. 호종단은 종달리 바닷가로 들어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쓴다면서 그곳 '물징거'라는 물의 혈을 뜨고, 이어서 화북리에 이르러 '행기물'의 혈을 뜨려다가 그만 실패하였다. 이어 서귀포시 서홍리 '샘이물'의 혈을 뜨고, 토산리의 '거슨샘이'와 'ᄂᆞ단샘이'의 혈을 뜨려 했지만 수호신인 뱀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호종단이 이처럼 각처로 다니며 정혈에다 쇠꼬챙이를 쿡 찔러 단맥하니 제주에는 생수도 왕도 나지 않게 되었다.

분석 사서에 따르면, 호종단이 탐라 땅을 제압한 뒤 돌아가기 위해 비양도(일설에는 차귀도)에 이르렀을 때, 한라산 호국신인 광양당신이 배가 되어 돛대 위에 날아와 앉으니 갑자기 북풍이 일어 호종단의 배가 전복되었다. 그로 인해 차귀(遮歸, 돌아가지 못해 막히다)라는 지명이 생겼고, 고려 조정에서는 광양당신의 신이함을 기려 광양왕으로 봉하고 해마다 제물을 내려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 효종 때의 제주목사 이원진은 『탐라지(耽羅志)』에서 '호종단은 고려에서 벼슬이 기거사인에 이르렀'으니 그에 관한 전설은 근거 없는 말이라고 평하였다. 호종단은 성품이 총명하고 박학하여 글을 잘 짓고 예능에도 능했으며, 압승술(壓勝術)에도 뛰어났다고 전한다.

특징 제주에는 용천수가 발달해 있다. 하지만 마을에 따라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는데, 고종달이 물혈을 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외세에 대한 제주인의 피해의식과 강한 저항을 드러내는 것으로 제주민은 신앙의식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의의 제주에서 왕도 맹수도 안 나오는 연유를 풍수사상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호종단이 제주의 수맥과 지맥을 끊으려 하자 농부와 수호신인 한라산신이 이를 징치하는 대목에서 탐라가 주변국에 복속된 뒤부터 밀려드는 외세에 힘을 모아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출처 제주도 전설(현용준, 서문당, 1976).

참고문헌 제주도의 장수설화(현길언, 홍성사, 1981), 제주사 인명사전(제주문화원, 2002).

필자 현승환(玄丞桓)

민담

혹부리영감

상호보조 도깨비방망이

정의 마음씨 착한 혹부리영감이 도깨비 덕택에 혹을 떼고, 마음씨 나쁜 혹부리영감은 도깨비 때문에 혹을 더 붙이게 되었다는 설화.

역사 〈혹부리영감〉에 대한 역사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조선 시대 중기의 문신이었던 강항의 『수은록(睡隱錄)』에, 일본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강항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일본에 있는 동안 지식

인에게 주자학을 전파시켰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승려였던 순수좌(舜首座)로부터 〈혹부리영감〉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혹을 떼려다 두 개의 혹을 얻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글로 마무리한다. 그런데 1910년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물어집[朝鮮の物語集附俚諺]』에 〈유취(瘤取)〉라는 제목으로 다시 수록되어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조선과 일본의 내선일체나 일선동조론을 내세우는 데 가장 훌륭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일본에서는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초기에 발간된 『우치습유물어(宇治拾遺物語)』에 수록되어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이야기다. 특히 에도시대에는 소년용 적본(赤本)에 수록되면서 전국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의 10대 동화 중 하나로 정착하였다. 이런 이유로 〈혹부리영감〉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어독본』에 1915년 이후 지속해서 수록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줄거리 목에 혹이 달린 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열심히 나무를 하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다. 길을 내려오다가 빈집을 발견해서 하룻밤을 쉬기 위해 들어갔다. 혼자 심심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근처에 있던 도깨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 왔다. 노래에 감동한 도깨비 두목이 "노인, 그 고운 노랫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하고 물었다. 노인은 "목에 달린 혹에서 나오는 것이오."라고 말했다. 도깨비는 재물을 줄 테니 그 혹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재물을 던져 주고 혹을 떼어 갔다. 노인은 혹도 떼고 도깨비가 준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 이웃에 살던 다른 혹부리영감이 그 말을 듣고 일부러 그 빈집을 찾아 들어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밤이 되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도깨비들이 몰려 왔다. 도깨비 두목이 또 그 노랫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다. 노인은 혹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깨비 두목은 그 말을 듣더니 "그전에 어떤 영감이 와서 거짓말을 하더니, 너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편에 혹을 하나 더 붙였다. 이런 이유로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였다.'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한다.

변이 혹부리영감이 도깨비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어독본』에서는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날이 저물어 빈집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런 기록은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물어집』에 기록된 내용과도 일치된다. 그러나 현재 조사된 내용은 막연하게 어디를 갔다 왔다가 날이 저물어 빈집으로 들어간다는 예도 있다. 이런 관점은 날이 저물어 쉬게 되는데, 그 쉬는 공간을 제시하기 위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도깨비가 혹부리영감에게 노래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물었을 때 혹부리영감의 대응 방식이다. 다카하시 도루는 할아버지가 노래를 저장하는 곳을 혹이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내용은 그 후 1923년판 『조선어독본』에 그대로 수록되어 나타난다. 1933년판 『조선어독본』(권4)에 와서는 목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노인이 말하는데, 괴수 '독가비'가 혹에서 나온다는 식으로 바뀌어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의 주인공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래가 나오는 원천에 대한 변이가 이 이야기군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본 이야기는 범세계적인 모방담의 한 형식이기는 하나, 주인공의 성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는 민담의 속성은 착하고 나쁘고를 뚜렷이 드러내며, 특히 한국에서는 효자를 강조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혹부리영감〉은 그런 속성도 무시한 채, 특히 주인공의 거짓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 점에서 우리 전통적인 민담으로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이야기는 반복구조를 통해 전개되기는 하나 선악에 따른 보상과 징벌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행위가 반복되고 먼저냐 나중이냐를 통해서 보상과 징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이야기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인 혹부리영감의 말에 있다. 일제강점기 1923년에 발간된 『조선어독본』에는 혹부리영감이 거짓말을 하고 혹을 뗀다. 교과서의 주인공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1933년 『조선어독본』에 와서 내용의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약 10년 동안 교과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총독부가 조선인의 심성을 왜곡하여 표현하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런 표현 방식을 그 후 발간된 동화책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징 〈혹부리영감〉의 구조는 〈도깨비방망이〉의 서사구조와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서사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지속해서 교과서에 수록된 결과인지 우리의 대표적인 민담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서사구조의 특징이 일본의 혹부리영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일본은 혹부리영감이 춤을 추는데, 한국은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하지만 〈도깨비방망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채록되었음에 반해서, 〈혹부리영감〉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6편 정도만 채록되었다. 따라서 민중은 〈혹부리영감〉보다는 〈도깨비방망이〉에 더 흥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역할이다. 〈혹부리영감〉은 주인공이 착한지 악한지에 대한 언급 없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예가 많다. 즉, 첫 번째 영감이 위기를 잘 극복한 결과로 혹을 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깨비방망이〉에서는 주인공이 착한 효자로 등장한다. 오히려 교훈적인 속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도깨비방망이〉의 서사구조가 더 효과적이었기에 민중의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의의 본 이야기는 다카하시 도루가 한국에 처음 소개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가 일본의 〈혹부리영감(瘤取り爺)〉과 거의 유사한 내용과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에 내선일체의 본보기로 활용되었다. 1915년 『조선어독본』에 〈혹잇는老人〉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기 시작하였는데, 원래 이 내용은 일본에서 발간된 1학년용 『심상소학독본』의 내용과 삽화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1923년과 1933년 교과 과정의 개편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말을 누가 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의 삽화에 수록되었던 '오니'가 그대로 도깨비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은 최근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도깨비가 일본 오니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혹부리영감 때문이라고 하겠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176; 3-1, 291; 7-16, 496.

참고문헌 일본 혹부리영감의 유형과 분포(김용의, 일본어문학5, 한국일본어문학회, 1998), 한국의 도깨비 연구(김종대, 국학자료원, 1994), 혹부리영감담의 형성과정에 대한 시고(김종대, 우리문학연구20, 우리문학회, 2006), 朝鮮の物語集附俚諺(高橋亨, 東京:日韓書房, 1910).

필자 김종대(金宗大)

한다.

변이 남편의 몸에서 나온 혼쥐가 한 마리일 때는 아내가 혼쥐를 도와준 후에 꿈의 내용을 듣고 황금을 찾아 부자가 된다. 그러나 두세 마리일 때는 아내가 혼쥐들 중 마지막 한 마리를 죽이자 대담한 도둑이었던 남편이 겁이 많아져 도둑질을 그만둔다는 내용으로 변이된다.

분석 이 설화는 『한국설화유형분류집』에서 '643-1 사람의 혼은 생쥐(뱀, 거미)' 유형으로 분류되며, 10편가량 채록되었다. 설화 끝에는 인간의 혼이 생쥐라거나, 보통 사람은 혼이 두 개인데 도둑은 혼이 세 개라서 겁 없이 밤에 도둑질하러 다닌다는 설명이 있다. 쥐는 밤에 활동하는 속성이 있고, 곡식을 두고 인간과 경쟁하는 관계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반면에 다산을 통해서 생산성을, 땅속과 지상을 왕래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비밀을 인지한 신령스런 동물로 인식된다. 이런 쥐의 양면성이 땅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부를 가져오는 긍정적 기능과 밤만 되면 돌아다니며 남의 것을 탈취하는 부정적 기능으로 동시에 나타난다. 이 설화에서 남성은 잠이라는 무의식과 쥐라는 동물 세계와 긴밀히 연결된 자연 상태적 존재를 상징하며, 아내는 의복을 만드는 문화 활동을 하고 세상의 법과 기준을 상징하는 자를 활용해서 사람을 조련하거나 계도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징 이 설화는 인간의 육체와 혼이 분리될 수 있다는 사고를 보여 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진 쥐에 대한 양면적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영혼을 거미, 새 따위로 인식하는 외재혼(外在魂) 설화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전승되고 있다.

의의 원귀설화, 변신설화, 제사설화 등에서 죽은 사람의 혼에 대한 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산 사람의 '혼'에 관한 이야기는 희귀하다는 점에서 이 설화의 가치가 높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491; 1-6, 81; 2-6, 35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5, 219; 8, 22; 24.

참고문헌 문학 감상에서의 주체와 타자-혼쥐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감상과 교육적 가치(이인경, 국문학연구16, 국문학회, 2007), 쥐 설화의 유형과 의미 연구(이승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이인경(李仁卿)

민담

혼쥐

정의 사람이 잠을 잘 때 혼쥐가 몸 밖으로 나와서 겪는 과정이 꿈이 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바느질을 하던 아내가 낮잠 자는 남편의 콧구멍에서 생쥐 한 마리가 나오자 뒤를 밟는다. 아내는 생쥐가 방 문턱을 넘거나 물웅덩이를 건널 때 자[尺]로 다리를 놓아 도와준다. 생쥐가 들판에서 땅을 파다가 돌아와 남편의 콧구멍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잠을 깬다. 남편은 꿈에서 겪었다며, 자신이 선녀의 도움으로 험한 길을 무사히 건너 황금단지를 발견했으나 힘이 부쳐서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두 사람은 들판에서 황금단지를 찾아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 사람이 잠을 자면 혼이 쥐가 되어 바깥을 다니는데, 이때 겪은 것이 꿈이라고

전설

홀어미산성

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에 위치한 대모산성과 관련한 설화.

역사 〈홀어미산성〉은 일명 대모산성(大母山城)으로 불리며, 『세종지리지(世宗地理志)』의 기록을 통해 고려 이전에 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파가 아홉 아들을 거느리고 성을 쌓았다는 구전설화가 함께 전하고 있다. 따라서 〈홀어미산성〉에 관한 설화는 적어도 고려 이전에, 또는 이와 유사한 설화가 전국에 걸쳐 전승되고 있음을 볼 때 훨씬 오래 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줄거리 옛날 순창읍에 얌전하고 지체 높은 과부가 살았는데, 성이 양씨였으므로 '양과부'라고 불렀다. 옆집 사는 설씨 총각이 그녀를 흠모하여 결혼하자고 조르자 양과부가 말하길, 하룻밤 내기를 해서 자신이 성을 쌓는 것보다 빨리 설씨 총각이 서울을 왕복하면 결혼하겠다고 하였다. 약속한 날 먼저 성을 다 쌓고 설씨 총각을 기다리는 동안 치마에 묻은 흙을 깜빡하여 설씨 총각과의 내기에서 지자, 양과부는 수절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 이후 사람들은 양과부가 쌓은 성을 '홀어머니산성'이라 불렀다.

변이 전북 순창 지역에 구전하고 있는 이야기로, 성을 쌓은 여인이 양씨 또는 신씨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수절과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외에도 중국 원나라 때 아홉 명의 아들을 둔 부자 할머니가 곡식을 저장하고 지킬 요량으로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다.

분석 〈홀어미산성설화〉는 주로 〈오뉘힘내기〉 유형 설화와 함께 다루어져 왔다. 대체로 화소의 분석 및 변이양상, 신화와 서사무가의 대비 연구와 함께 최근에는 〈거인여신설화〉의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징 〈홀어미산성〉과 〈오뉘힘내기〉 유형 설화는 동일한 축성설화이다. 다만 〈오뉘힘내기〉 유형의 설화는 광포설화임에 비해, 〈홀어미산성설화〉는 전승지가 순창이라는 점에서 지역 전설로 한정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또, 〈오뉘힘내기〉 유형의 설화가 오누이 간의 대결이라면 〈홀어미산성〉에서는 남녀 타인 간의 대결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다를 뿐, 축성과 서울 왕복이라는 내기의 방법은 물론이고 남녀 성대결에 의한 여성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의의 장사 또는 거인 설화에 속하는 이야기이며, 장사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거인여신설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상의 의의를 지닌다. 또, 남녀 대결에서 여성이 패배하는 것은 고대사회가 여성 중심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체제로 변화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고대사회의 체제를 이해하는 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출처 순창군지(순창군, 195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1, 155,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7, 38.

참고문헌 오뉘힘내기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이지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천혜숙,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장덕순, 일조각, 1981), 한국의 거인설화(권태효, 역락, 2002).

필자 한미옥(韓美玉)

민담

홍계관

洪繼寬

교제어 새끼 밴 쥐와 용한 점쟁이

용어

홍수설화

洪水說話

정의 대홍수와 관련된 설화.

내용 태초 혹은 옛날에 있었던 큰 홍수의 유래와 그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화나 전설을 말한다. 신화의 형식으로 구전되는 설화는 〈남매혼〉, 〈목도령신화〉 두 종류이다. 전자는 대홍수 때 살아남은 오누이가 결혼하여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후자는 선악을 상징하는 목신의 아들과 한 소년이 대홍수 때 살아남아 경쟁을 통해 한 노파의 친녀와 양녀와 각각 결혼하여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홍수신화는 인간이나 신의 잘못으로 인한 인류의 멸절과 재창조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홍수신화는 원인이 분명치 않다. 전설은 대부분 지명이나 사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악한 부자의 징치를 다룬 〈장자못전설〉, 홍수 때 배를 맨 산봉우리와 관련된 〈고리봉전설〉, 풍수지리설과 결합된 〈행주전설(行舟傳說)〉, 근친상간 금지의 비극적인 결말을 다루고 있는 〈달래강(고개)전설〉 등이 있다. 홍수신화가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점을 전제한다면 발생론적으로 다양한 홍수전설은 홍수신화에서 파생된 설화 형식이다.

필자 조현설(趙顯卨)

전설

화석정

花石亭

정의 누정전설(樓亭傳說)의 하나로, 임진강변에 있는 화석정(花石亭)이라는 정자의 유래와 임진왜란을 예견한 율곡 이이에 얽힌 전설.

줄거리 율곡 이이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10년 안에 일본이 조선을 침범할 것임을 미리 알고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다. 당시 류성룡 등 대부분의 대신들은 율곡의 말이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고, 나라가 무사할 때 병사를 양성하는 것은 혼란만 만들 뿐이라며 반대하여 율곡은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율곡은 은퇴한 뒤 파주의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화석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하였다. 율곡이 세상을 떠난 후 8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아무런 대비도 못했던 선조는 신하를 거느리고 한양을 떠나 의주로 피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임진나루에 도착한 선조 일행은 칠흑 같은 어둠에 도무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도강이 불가능하였다. 이때 갑자기 화석정이 불타오르며 나루를 환히 비추었고, 선조 일행은 무사히 강을 건너 의주로 피신할 수 있었다. 화석정이 그때 불에 탔던 이유는 율곡의 유언 때문이었다. 율곡은 임종을 하면서 화석정 곳곳에 기름칠을 잘 해 두었다가 모년 모월 모일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였다. 그날이 바로 선조가 임진강을 도강하는 날이었으니, 이미 8년 전에 율곡은 이 일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석정
경기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문화재청

변이 이 전설의 다양한 변이들은 율곡의 치밀한 준비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일어난다. 정자가 잘 타도록 율곡이 기름걸레로 정자를 수시로 닦도록 지시한다든지, 나라가 위급할 때 뜯어보라고 봉서를 남긴다든지 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화석정에 불을 지르라'는 봉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인물로 류성룡이나 이항복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분석 화석정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 있는 정자로 율곡의 5대 조부인 이명신이 세웠다. 화석정은 전설에 언급된 것처럼 율곡이 지은 정자는 아니지만, 율곡이 어릴 적 이 정자를 소재로 '8세부시(八歲賦詩)'를 쓰기도 했고, 관직을 물러난 후에는 이곳에서 시와 학문으로 소일하며 여생을 보냈다. 실제로 화석정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바 있었고, 선조도 임진강을 건너 개성을 거쳐 의주로 몽진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소재들을 바탕으로 하여, 율곡의 십만양병설을 따랐다면 임진왜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민중들의 아쉬움이 〈화석정전설〉을 만들어 냈다고 하겠다.

의의 한국의 정자는 휴식의 공간이며, 여흥의 공간으로 이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을 형성해 왔다. 정자에 얽힌 대부분의 전설이 사대부들의 풍류에 관한 것들인데 비하여 〈화석정전설〉은 국란을 대비하는 율곡의 충정이 담겨져 있는 교훈적 역사전설로 이야기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7, 355,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야사로 보는 조선의 역사(최범서, 가람기획, 2003), 율곡의 시대와 생애(송석구, 율곡사상연구1, 율곡학회, 1994).

필자 김준기(金俊基)

용어

화소

話素, motif

정의 한 편의 완전한 이야기[說話形]를 만들어 주며, 전승하는 힘을 가진 가장 짧은 내용의 이야기 알맹이.

내용 화소(話素)는 일반적으로 모티프(motif)의 번역어로 사

용된다. 톰슨(S. Thompson)은 모티프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모티프는 설화에서 전승하는 힘을 가진 최소의 요소이다. 이 전승력을 갖기 위하여 비상(非常)하고도 눈을 끄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설화 중의 인물인 행위자(行爲者, actors), 어떤 사항(事項, certain items), 그리고 단일한 사건(single incidents)으로 이루어지는 화소는, 그 자체가 단순한 것이며, 분석적 연구로 인하여 파괴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톰슨은 비상하게 눈길을 끄는 것으로 "어머니"를 들었다. 보통 어머니는 모티프가 아니지만, 계모 같이 잔인한 어머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모티프가 된다. 어디서나 전승된 설화의 대부분은 이 단순한 모티프들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의 설화를 23개 모티프로 정리하여 『모티프 인덱스(Motif Index)』 6권으로 간행하였다. 한편, 모티프의 보다 작은 단위를 '화소'로 정의한 경우도 있는데, 최래옥은 한국의 설화를 분석하면서 이 모티프보다 그 아래에 들어갈 작은 설화 단위(이를 '화소'라고 정의함)를 설정하였다. 예컨대 〈장자못전설〉은 "학승, 금기, 함몰, 화석" 네 모티프가 있는데, 학승 모티프는 "장자 영감이" "중에게" "쇠똥을 주었다."라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았다. 설화가 길면 모티프도 많고, 모티프는 그 설화의 내용에 따라 수가 달라진다. 풍수설화 같은 한국설화에서는 한국설화에 맞는 화소가 있다. 설화 분절 단위의 크기로 보면, 가장 큰 단위로 '설화형'(혹은 '유형', type)이 있고 그보다 작은 '삽화'(揷話, episode), 그 밑에 '화소'가 있는 구조다.

필자 최래옥(崔來沃)

민담

화수분

정의 선행한 어떤 인물이 쌀이나 돈 등 무엇이든지 넣기만 하면 계속 늘어나는 화수분을 얻어 부자가 된다는 행운담 성격의 설화.

줄거리 가난한 내외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항상 책만 보는 샌님이라 추석이 되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었다. 도둑질이라도 하자는 아내 말에 남편은 벼를 훔치러 남의 논에 갔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친 천둥소리에 놀란 남편이 달아나다 발에 걸리는 뚝배기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 뚝배기를 가져 와서 쌀을 한 줌 담았더니 쌀이 뚝배기에 가득 찼다. 어떤 노인이 남편의 꿈에 나타나 뚝배기는 혼자만 사용하고 아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남편은 아내가 모르게 뚝배기를 벽장에 숨겨 놓고 혼자만 사용했지만, 어느 날 아내가 남편 몰래 벽장문을 열어 보고 뚝배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 시집간 딸이 와서 그 뚝배기를 빌려 갔지만, 이후 그 효능은 사라져 버렸다.

변이 다양한 변이형이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화수분을 얻어 부자가 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화수분의 효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유형은 쌀을 사러 간 가난한 사람이 쌀 대신 불쌍한 개구리를 사서 물웅덩이에 놓아 주자, 그 개구리들이 화수분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이다. 또 두 유형이 혼합된 이야기도 있고, 위기에 처한 동물이 개구리·올챙이·두꺼비·물고기로, 화수분의 종류가 그릇·냄비·방망이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잉어와 같은 물고기를 구해 준 인물이 용궁에 가서 화수분을 얻어 오는 변이형도 있다.

분석 이 설화에서 화수분을 획득하는 주인공은 재물이 절실히 필요한 몹시 가난한 환경에 놓인 인물들로 설정된다. 이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들의 생존 욕구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을 보여 준다. 하지만 화수분을 통하여 필요 이상의 재물을 구하거나 엉뚱한 인물이 화수분을 획득했을 때 그 효능이 사라진다는 설정은, 과욕과 대가를 치르지 않은 부당한 이익을 경계하는 것이다.

특징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해 주고 그 구원받은 동물이 화수분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 구조는 동물보은담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개구리나 물고기처럼 하찮은 동물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서 구해 준다는 점에서는 생명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으며,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세계관과 교훈성이 나타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845; 2-8, 412; 2-9, 229; 4-1, 419.

참고문헌 국어국문학자료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1995), 동물 보은담에 갈무리된 공생적 동물인식과 생태학적 자연관(임재해, 구비문학연구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필자 김복순(金福順)

전설

화엄사

華嚴寺

정의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 경내 각황전의 중창(重創)에 관련된 사찰전설.

역사 화엄사 각황전은 신라시대 의상대사(義湘大師)가 670년에 중수하면서 화엄경을 새긴 돌을 벽에 둘러 지은 장육전(丈六殿)이 임진왜란 때 불타자 조선 숙종 때 계파선사(桂波禪師)가 다시 세우면서 이름을 바꾸었다. 이에 관련된 전설이 민간에 전승된 것이다.

줄거리 임진왜란 때 불탄 화엄사를 다시 짓기 위해 불사를 전담할 화주승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물독에 손을 넣어 물에 젖은 손을 다시 밀가루가 든 독에 넣어 밀가루가 묻어나지 않는 스님을 적임자로 정하기로 하였다. 모든 스님의 손에 밀가루가 묻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공양주 스님만은 손에 밀가루가 묻지 않았다. 한편, 문수보살이 화주승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절을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시주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런데 화주승이 절을 나서서 처음 만난 사람은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 거지 노파였다. 이 노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주를 청하자 노파는 매우 난감해하다가, 다음 생에 시주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냇물에 빠져 죽고 만다. 화주승은 여인을 죽게 한 죄의식으로 여러 해 동안 세상을 떠돌다가 중국의 수도에 들어간다. 그런데 중국의 공주가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손을 쥐고서 펴지 못하고 있어서 불력으로 이를 펴게 하니 손바닥에 장육전이라고 씌어 있었다. 이에 황제가 부처의 가호로 알고 장육전 불사의 경비를 모두 대고, 황제에게 불교사상을 깨우쳐 주었다고 하여 그 이름을 각황전(覺皇殿)이라고 사액(賜額)하였다.

변이 이 이야기는 화엄사의 각황전 전설이지만 〈화엄사중창설화〉로 전승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왜란으로 절이 불탄 것이 아니라 절의 살림이 매우 어려워 시주를 나서는 이야기로 변이된다. 각편에 따라 이 공양주는 거지 노파, 빨래하는 여인, 남성 노인으로 바뀐다. 그리고 공양주는 청나라 공주, 당나라 왕자, 중국 황제로 환생하기도 한다. 또한 장애 요소는 공주나 왕자가 한쪽 손을 펴지 못하거나 벙어리인 것으로 설정되거나 황제가 모진 병이 들었지만 백약이 무효한 것으로 그려진다. 전승 지역이 넓지 않아 화엄사가 위치한 전남 구례군이나 호남 일대에서 조사되고,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불교계에서 향유되고 있다.

분석 역사 기록으로 보면 화엄사의 각황전은 조선 숙종이 불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각황전'이라고 사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교 국가인 조선의 국왕이 불사를 위해 거금을 하사한 것을 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민중의 의지가 민간 전승의 설화소와 결합한 것으로 본다.

특징 이 이야기에서 중국의 공주나 왕자 혹은 황제의 불치병을 고친다는 소재는 민간에서 향유되던 〈금척설화〉와 비슷하다. 감옥에서 죽은 쥐를 살리는 금척을 얻어서 죽은 공주를 살리고 부마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민중의 소망이 불교적으로 윤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7, 616,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조희웅 외, 박이정, 2010).

참고문헌 지리산권 불교설화(이상구 외, 국립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2009), 화엄사(신대현, 대한불교진흥원, 2009).

필자 김종군(金鍾涓)

민담

환생담

還生談

정의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동물·식물·광물로 태어나는 형태의 설화.

역사 환생담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에 나타난다. 조선 후기에 유재건(1793~1880)이 쓴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 권3 김중진 조에도 환생담이 실려 있다. 환생담은 구전되어 오면서 고소설 〈삼생록(三生錄)〉과 〈삼사횡입황천기(三士橫入黃泉記)〉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내용 환생(還生)은 재생설화(再生說話)에 나타나는 재생의 한 양식이다. 환생담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간환생담, 동물로 태어나는 동물환생담, 식물로 태어나는 식물환생담, 광물로 변하는 광물환생담이 있다. 인간환생담에는 김대성 이야기를 비롯하며 많은 설화가 있다. 『삼국유사』 권5 〈대성효이세부모〉에는 모량리에 살던 가난한 여인의 아들 김대성이 죽어 재상 김문량의 아들로 태어나 현세 부모와 전세 부모를 잘 모시고 살다가 현세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세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훈종의 『한국의 전래소화』에 실린 〈황희

전승의 전생 부모)는 평양감사가 되겠다고 하던 상민(常民)의 아들이 자기의 신분적 한계를 알고 죽어, 가문 좋은 양반집에 태어나 전생의 소원을 풀었다는 이야기이다. 최운식의 『한국의 민담』 1권에 실린 〈정승의 사위가 된 송아지〉에서는 한 남자가 아들을 얻기 위해 소실을 얻었는데, 본처가 아들을 낳자 이를 시기한 소실이 아기를 암소에게 준다.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는 방으로 들어가 본처의 젖을 먹곤 하였다. 소실은 아기가 송아지가 되었음을 알고, 꾀병을 앓으면서 송아지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한다. 송아지의 간을 내오라는 명을 받은 백정이 송아지를 놓아주고, 다른 짐승의 간을 가져다주었다. 송아지는 서울로 가서 종을 울리고 정승의 사위가 된 뒤에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잘생긴 남자로 변하였다. 그는 벼슬이 높아진 뒤에 고향으로 내려가 사실을 밝히고, 서모에게는 벌을 내리고 백정에게는 상을 주었다. 이 이야기에는 동물환생과 인간환생이 함께 나타난다. 이훈종의 『한국의 전래소화』에 실린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을 여러 번 왕래하면서 '사람–구렁이–강아지–사람–사람'의 순으로 환생한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환생과 동물환생이 중복하여 나타난다.

설화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식물이 되는 식물환생담도 많은데, 환생하는 식물은 꽃, 소나무, 대나무, 등나무, 모과나무, 참나무, 밀 등이다. 임동권의 『한국의 민담』에 실린 〈백일홍이 된 두 친구〉에 따르면, 사이좋게 지내던 두 소녀가 눈길을 걷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은 두 소녀의 몸에 뿌리를 박은 채 꽃 두 송이가 피었다고 한다. 이훈종의 『한국의 전래소화』에 실린 〈술 귀신의 유래〉를 보면, 아버지의 병에 사람의 생간이 약이라는 말을 들은 효자는 선비, 중, 미친 사람을 차례로 죽여 간을 취한 뒤에 한곳에 묻었다. 그 이듬해에 그 무덤에 이상한 식물이 자라 그 씨를 받아다가 밭에 심었다. 그 곡식이 밀인데, 밀을 원료로 하여 술이 생겼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들의 영혼이 차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비처럼 행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중처럼 행동하고, 마지막에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게 된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식물환생담을 소재로 하여 꾸민 것으로, 술이 생긴 내력을 술꾼들의 행태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한상수의 『충남민담』에 실린 〈매화꽃과 꾀꼴새〉에서는 약혼녀를 잃은 총각이 그녀의 무덤에 핀 매화를 발견하고, 자기 집 화분에 옮겨 심어 정성껏 보살피며 살았다. 그는 죽은 뒤에 꾀꼬리가 되어 그 매화나무를 찾곤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는 식물환생과 동물환생이 함께 나타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서는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죽어 구슬, 바위, 부처, 북두칠성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변신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람이 죽은 뒤에 변하여 오래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환생으로 볼 수 있다. 김태곤의 「한국의 신화」를 보면, 〈칠성님과 옥녀부인〉에서 칠성님의 일곱 아들이 별이 된다. 현용준의 『제주도 신화』를 보면, 제주도 무가 〈차사본풀이〉에서는 버물왕의 아들 삼 형제가 죽어 세 송이 꽃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세 개의 구슬로 변한다. 과양생의 처는 그 구슬을 먹고 잉태하여 아들 삼 형제를 낳는다.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꽃–구슬–사람'으로 변하는 이 이야기에는 식물환생, 광물환생, 인간환생이 함께 나타난다.

특징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로 환생하는 것은 현대인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고대부터 형성되어 전해 오는 민간의 전통적 사고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간의 전통적 사고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동물이나 식물에 신성성을 부여하여 신성하게 여기거나 영물(靈物)로 본다. 한국인의 민간신앙에서는 하늘, 해, 달, 별, 땅, 산, 강, 바다, 바위와 같은 자연물이나 일부 동물과 식물을 신성시한다. 이것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永續性), 그리고 다른 일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특이성(特異性)을 지닌 것들이다. 현대인은 하나의 현상을 고정불변(固定不變)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민간의 전통적 사고는 어떤 상황을 고착된 것으로 보지 않고, 언제나 바뀌어 순환(循環)한다고 믿는다. 낮과 밤의 교체, 달의 차고 기욺,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명의 변화는 이러한 순환 사고(循環思考)를 형성하게 하고, 강화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순환 사고와 동물이나 식물, 광물을 신성시하는 사고가 겹쳐 인간, 동물, 식물, 광물로의 환생을 상정(想定)하고, 믿게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영혼관(동아시아고대학회, 경인문화사, 2006), 설화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4), 설화문학에 나타난 저승과 영혼(박성석, 논문집10, 경남간호전문대, 1983), 옛이야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삶과 죽음(최운식, 한울, 1997), 재생설화의 재생의식(박계홍, 구비문학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제주도 신화(현용준, 서문당, 1977), 충남민담(한상수, 형설출판사, 1980),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1972), 한국의 민담1(최운식, 시인사, 1990), 한국의 신화(김태곤 외, 시인사, 1987), 한국의 전래소화(이훈종, 동아일보사, 1969).

필자 최운식(崔雲植)

용어

환생화소

還生話素

정의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 또는 식물로 태어나거나 광물로 변하는 설화의 화소.

내용 환생화소(還生話素)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간환생화소', 동물로 태어나는 '동물환생화소', 식물로 태어나는 '식물환생화소', 광물로 변하는 '광물환생화소'가 있다. 가난한 여인의 아들 김대성이 죽은 뒤에 재상의 아들로 태어나 벼슬을 하고, 현세와 전세 부모를 잘 모신 뒤에 그 부모를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운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김대성 이야기〉는 인간 환생화소를 바탕으로 꾸민 것이다. 최운식의 『한국의 민담1』에 실린, 〈정승의 사위가 된 송아지〉에는 사람이 소로 태어났다가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인간환생화소와 동물환생화소가 나타난다. 임동권의 『한국의 민담』 가운데, 〈백일홍이 된 두 친구〉를 비롯한 꽃 전설은 식물 환생화소를 바탕으로 꾸몄다. 김태곤 외의 『한국의 신화』에 실린, 〈칠성님과 옥녀부인〉에서는 칠성님의 일곱 아들이 별이 된다. 현용준의 『제주도 신화』에 실린, 〈차사본풀이〉에서는 버물왕의 아들 삼 형제가 죽어 세 송이의 꽃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세 개의 구슬로 변하고, 이 구슬을 먹은 과양생의 처는 아들 삼 형제를 낳는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환생, 식물환생, 광물환생화소가 함께 들어 있다.

필자 최운식(崔雲植)

전설

황룡사

黃龍寺

정의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었던 황룡사(黃龍寺)의 연기설화(緣起說話).

역사 황룡사가 창건된 유래를 포함하여 가섭불연좌석, 장육존상, 구층탑 등의 유래와 관련한 다양한 설화들이 남아 전한다.

줄거리 553년(신라 진흥왕 14) 2월에 용궁 남쪽에 자궁(紫宮)을 지으려 하니, 황룡이 나타났다. 이를 이상히 여긴 왕은 궁을 사찰로 바꾸고 황룡사라 하였다. 이곳에 과거 부처인 가섭불(迦葉佛)이 좌선을 하던 연좌석(宴坐石)이 있으니, 이 땅이 전불(前佛) 시대의 절터였다. 인도의 아쇼카 왕이 삼존불상을 주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철과 금, 불상의 모형들을 배에 실어 보내며, 인연 있는 곳에서 장육존상(丈六尊像)을 주조하기를 바랐다. 배는 신라 하곡현으로 떠내려 왔고, 574년에 진흥왕은 이 금과 철로 황룡사에 장육존상을 주조해 모시게 했다. 이듬해 불상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땅이 흠뻑 젖었는데, 대왕이 세상을 떠날 조짐이었다. 선덕여왕 12년(643)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慈藏)이 왕에게 청하여,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구층의 목탑을 조성하게 했다. 백제에서 온 공장(工匠)인 아비지(阿非知)로 하여금 목재와 석재로 탑을 짓게 하였다. 무열왕의 아버지인 용춘(龍春)이 이를 주관하였다. 아비지는 꿈에 본국인 백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일손을 멈추었는데, 문득 땅이 진동하며 어둠 속에서 노승(老僧)과 장사가 금당문에서 나와 기둥을 세우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후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탑을 완성하였다. 구층탑은 일본, 중국, 오월 등 주변 나라들의 침범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후 탑은 여러 차례 벼락을 맞아 계속 중수되었는데, 1238년(고려 고종 16)에 몽고의 병화(兵火)로 장육존상, 황룡사 전각과 함께 불에 타 버렸다.

변이 황룡사가 창건되고 멸실되어 간 과정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앞의 줄거리는 『삼국유사』 「탑상」 〈가섭불연좌석〉, 〈황룡사장육〉, 〈황룡사구층탑〉 등에 있는 이야기이다. 일연(一然)은 『옥룡집(玉龍集)』, 『자장전(慈藏傳)』, 『삼국사기』, 『별본(別本)』, 『별전(別傳)』, 사찰의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 황룡사지를 직접 취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연이 〈황룡사연기설화〉를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다양한 설화들이 여러 문헌에 실려 전하고 있었으나 이후 문헌에서는 황룡사와 관련된 설화들이 전하지 않는다.

분석 〈황룡사연기설화〉는 재래의 용신 신앙과 관련을 맺으며 창건되었던 황룡사가 점차 불교의 영향 아래 불교 성지로 변해 간 과정을 보여 준다. 황룡사 관련 설화들은 가섭불이 설법하던 연좌석을 내세우는데, 아쇼카 왕과 관련되거나 자장의 구층탑 건립 요청과 관련된 설화는 용신 신앙의 터전을 불교적 인연지로 변모시켜 나간 과정을 드러낸다.

의의 일연이 몽골의 침입 시기에 잿더미로 변한 황룡사를 취재하여 호국 사찰로 이어져 오던 황룡사의 역사를 다양한 기

록과 설화들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으며, 재래 신앙과 재래 신앙이 불교로 대체되어 간 역사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는 데 그 의의가 깊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참고문헌 용신창사설화의 형성과 의미(이준곤,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한국 사찰연기설화의 연구(김승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오대혁(吳大赫)

민담

황새의 노래 재판

정의 노래를 제일 못하는 동물이 노래를 심판하는 자에게 뇌물을 바쳐 승리한다는 동물우화(動物寓話) 성격의 민담.

줄거리 옛날 한 동네에 따오기가 살고 있었는데 뻐꾸기와 꾀꼬리가 차례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본토박이인 따오기가 좋은 집과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은 두 새는 황새에게 노래 재판을 받아서 잘 부르는 쪽이 이 동네에서 살자고 따오기에게 제안을 했다. 노래를 못해서 걱정을 하는 따오기에게 사연을 들은 손자가 개구리를 잡아서 황새에게 갖다 바치며, 따오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 날이 되어 뻐꾸기와 꾀꼬리, 따오기는 황새를 찾아가 차례로 노래를 불렀다. 황새는 뻐꾸기와 꾀꼬리의 노래를 듣고는 낮은 평가를 하며 나가라고 하고, 따오기는 '따옥' 소리 한마디 했을 뿐인데 과연 점잖다며 동네에 가서 계속 살라고 했다.

변이 이 설화는 '노래 재판'이나 '한무대와(恨無大蛙)', '무와지탄(無蛙之歎)'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 동물들의 노래 재판 사건으로만 이루어진 유형과 이 이야기가 삽화(揷話)로 들어가 있는 액자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등장인물은 뇌물을 주는 자, 피해를 받는 자, 심판자(뇌물을 받는 자)로 구분된다. 뇌물을 주는 자로는 노래를 가장 못하는 동물인 까마귀나 뜸부기, 황새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따오기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피해를 받는 자는 둘 내지 셋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둘인 경우가 더 많으며 이는 화자의 기억력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가 등장한다. 뇌물을 받는 심판자로는 부엉이, 독수리, 학(두루미) 등이 간혹 등장하지만 압도적으로 황새가 많이 등장하며, 공통적으로 개구리를 뇌물로 제공한다. 이처럼 등장인물은 어느 정도 변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뇌물 때문에 공정한 노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중심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분석 이 설화는 노래를 제일 못하는 따오기가 개구리를 부엉이에게 뇌물로 바쳐 노래를 더 잘하는 꾀꼬리와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동물대결담이자 동물우화이다. 액자형에서는 능력은 있지만 과거에 등용되지 못하는 선비가 이 이야기를 숙종대왕이나 시관(試官)에게 들려주어서 깨우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의 노래 재판 자체가 이야기의 핵심이지만 액자형은 삽화(揷話)를 넣은 동기와 그 결과가 전체 이야기의 주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징 이 설화는 동물들의 노래 재판이라는 단일 모티프로도 전승되지만, 액자형에서 내부 이야기의 삽화로도 전승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그래서 이 설화가 고전소설 〈황새결송〉에 풍자성을 드러내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의의 동물우화는 직관적 관찰로 동물에게 일정한 유형을 부여하고, 인간 행동을 동물 행동으로 바꾸어 그 속에 도덕적·교훈적 내용을 담는데, 이 설화는 전통 사회에서 만연하던 송사(訟事)의 부패를 동물우화 방식으로 풍자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출처 충청남도 민담(최운식, 집문당,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2, 517; 5-2, 413; 7-12, 74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10; 6, 348.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1971), 한국 서사문학과 동물(김재환, 보고사, 2005).

필자 이홍우(李洪雨)

전설

황희

黃喜

정의 소신과 관용을 갖춘 후덕한 인품의 명재상 황희에 대한 설화.

역사 황희(黃喜, 1363~1452)는 청백리이자 명재상으로 조선조 최장수 재상이다. 황희는 인간관계를 두루 배려와 관용으로 이끌며, 정치는 소신과 원칙으로 하여 조선 건국 초기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황희는 모두가 양녕대군의 세자 폐위를 지지할 때 끝내 반대하여 남원으로 유배갔다. 그러나 세종은 자신을 반대했던 황희를 불러들여 24년이나 삼정승을 하도록 했다. 고려 말에 벼슬길에 나아가 조선에서 태종과 세종의 특별대우를 받았고 청백리의 표상이라는 점이 이 설화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내용에 따라 배려형, 소신형, 청빈형으로 나눈 것을 포함하여 총 5편을 소개한다. 먼저 배려형은 황희가 추구한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는 설화로 〈네 말이 옳다〉, 〈누렁소와 검정소〉, 〈종 아이가 커서 장원급제〉가 있다. 하루는 황희의 집 여종이 서로 싸우다가 한 여종이 와서 아무개가 여러 가지로 나쁘다고 일렀다. 그러자 황희는 "네 말이 옳다."라고 했다. 다른 여종도 와서 이르니 황희는 또 "네 말이 옳다."라고 했다. 옆에 있던 조카가 화가 나서 "처음 여종이 잘못했는데 왜 바르게 판단을 안 하십니까?" 하고 나서자, 황희는 또 "그래, 네 말도 옳다."라고 대답했다. 〈누렁소와 검정소〉는 황희가 젊을 때의 일이다. 소 두 마리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를 보고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라고 물었다. 농부가 쟁기를 놓고 가까이 와서 황희 귀에 대고 "누렁소가 더 잘합니다."라고 속삭였다. 황희는 농부에게 "그것을 왜 속삭이시오?"라고 말하자, 농부는 "아무리 짐승이라도 비교되는 건 싫어합니다. 또 하찮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끄는 대로 밭을 갈고 따르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어찌 장담하겠소."라고 했다. 〈종 아이가 커서 장원급제〉는 황희의 집 사내 종아이가 재주가 탁월했다. 황희는 그 아이를 면천시키고 큰 인물이 되라고 격려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어 내보냈다. 10여 년 후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젊은이가 절을 올려 자세히 보니 전에 면천한 그 아이였다. 황희는 지난 일을 말하려는 젊은이의 입을 막았다. 신분이 노출되어 장래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소신형에는 그의 강직한 면을 보여 주는 〈손님으로 예우하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황희는 아들에게 기방 출입을 끊으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아들이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아들이 귀가할 때 황 정승이 조복을 차려입고 문까지 나와 큰 손님을 맞이하듯 했다. 아들이 놀라 그 까닭을 물었다. "그동안 나는 너를 아들로 대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를 아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너를 손님의 예로 맞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잘못을 뉘우친 아들은 기방 출입을 끊고 노력하여 재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청빈형에는 청백리로서 황희의 삶을 알 수 있는 〈단 한 벌뿐인 조복〉이 있다. 황희는 조복이 한 벌뿐인데, 어느 겨울밤 조복의 겉감을 빨았다. 그런데 갑자기 입궐하라는 어명이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솜이 너덜너덜 붙은 안감에 관대를 걸치고 어전에 나갔다. 논의하던 중 관대 아래의 솜뭉치를 보고 세종이 수달피 옷인 줄 알고 꾸짖자, 맹사성이 사실을 고했다. 세종이 놀라워하며 피륙을 하사했으나 황희는 받지 않았다.

변이 이 설화는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내용도 유사하다. 〈네 말이 옳다〉에서 조카 대신 부인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황희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은 같다. 손님이 황희를 방문했을 때, 종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서 변이형이 자주 나타난다. 방문자는 종의 아이들이 음식을 다 먹어 치우거나 문서에 오줌을 싸거나, 황희와 장난치며 수염을 당기는 식의 행동에 놀라고 황희의 태도에 감동을 받는다는 내용이 섞여 있다. 이는 황희가 총명하고 후덕한 인품을 갖춘 '어진 재상'이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분석 배려형 설화인 〈네 말이 옳다〉·〈누렁소와 검정소〉·〈종의 아이가 커서 장원급제〉·〈종의 아이가 문서에 오줌싸기〉에서 황희는 온화한 인물로, 타인을 배려하고 노비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두드러진다. 황희는 영의정 때 천첩 소생의 천역(賤役)을 면제해 주었으며, 제도까지 고쳐 천인에게 힘을 주었다. 그런 까닭에 황희가 90세로 서거했을 때 사람들은 신분 고하를 넘어 그를 무척 그리워하며 애통해하였다. 황희는 실제 세자 폐출 사건에서 그러했듯이 소신형 설화인 〈김종서 기강 잡기〉·〈손님으로 예우하기〉·〈장남의 집들이〉에서도 우유부단하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지켰다. 청백리로서 황희의 삶을 반영한 청빈형 설화인 〈단 한 벌뿐인 조복〉·〈청백리 황희 정승과 박광대〉·〈멍석 방바닥〉에서는 황희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벼슬아치로서 규범을 보여 주는 이야기가 많다.

의의 〈네 말이 옳다〉는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보이나, 갈등을 해결할 때 양쪽 입장을 다 들어 주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의 소산이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데 이 설화의 의의가 있다. 즉, '양쪽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상대를 이해하기'가 주제이다. 〈송아지와 제사 지내기〉도 이 유형과 유사한 설화로, 여기서 '황희 정승 정치하듯 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누렁소와 검정소〉는 일상에서 새롭게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설화이다. 하찮은 짐승이라 생각하여 앞에 두고 비판했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깨닫는 데 의의가 있다. '남의 잘잘못을 말할 때 신중히 하자.'가 주제이다. 황희도 젊어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을 배려할 줄 몰랐으나, 농부의 한마디를 통하여 진정 남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훗날 황희 정승의 겸손하고 후덕한 인품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종의 아이가 커서 장원급제〉는 신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현실에서 그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탕이 된 설화이다. 천민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것은 당시의 신분 제도하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성취했다는 것이며, 그와 같은 희망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따라서 '신분을 떠나 능력으로 인재 발탁하기'가 주제라 할 수 있다. 종의 아이가 장원급제를 함으로써, 백성들은 자신의 꿈이 이뤄진 것처럼

기뻐했을 것이다. 당시 백성들은 〈황희설화〉를 만나 위로받았던 것이다. 이 설화는 소통과 청백리의 상징으로 꾸준히 전승되고 있다.

출처 大東野乘, 文宗實錄, 松窩雜說, 於于野談, 筆苑雜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707; 8-3, 690; 8-14, 230.

참고문헌 世宗實錄, 太宗實錄, 황희설화의 전승양상과 역사적 의미(김낙효, 비교민속학19, 비교민속학회, 2000).

필자 김낙효(金洛孝)

전설

효녀 지은

孝女 知恩

정의 지은(知恩)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종으로 팔면서까지 홀어머니를 봉양했다는 내용의 효행설화.

줄거리 신라 때 연권(連權)의 딸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여 서른두 살이 되도록 출가도 하지 않았다. 집이 가난하여 때로는 품팔이도 하고 밥을 빌어오기도 하다가, 끝내 부잣집을 찾아가 스스로 종이 되어 쌀 십여 석을 얻어 두었다. 그리고 종일토록 그 집에서 일하다가 저녁이면 밥을 지어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며칠 후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목 놓아 울자 딸도 따라 울어 두 모녀의 슬픔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감동케 하였다.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화랑 효종랑(孝宗郎)이 지은의 효성에 감탄하여 곡식 백 섬과 의복 등을 보내 주었고, 또 매주(買主)에게 변상하여 지은을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낭도들도 지은에게 각각 곡식을 보냈으며, 임금도 이를 알고 곡식 오백 섬과 집을 하사하여 잘살도록 해 주었고, 지은이 사는 마을에 '효양방(孝養坊)'이라 쓴 푯말을 세웠다.

변이 이 설화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8 열전(列傳)과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효선(孝善)에 수록되어 있는데, 둘 사이에 약간의 변이가 나타난다. 『삼국사기』의 연권의 딸 지은이라는 인명이 『삼국유사』에서는 그냥 빈녀(貧女)로 바뀌었고, 전자가 지은의 나이를 서른두 살이라고 하였으나 후자는 스무 살 안팎이라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는 효종랑이 직접 지은의 효행을 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유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문객(門客)을 통해 듣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포석정(鮑石亭)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장소도 등장한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는 이야기 말미에 나라에서 상으로 내려 준 집을 뒤에 모녀가 희사하여 절로 삼고 이름을 '양존사(兩尊寺)'라고 했다는 후일담을 전하여 사찰연기설화(寺刹緣起說話)의 기능을 지닌다.

분석 이 설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가난이라는 결핍 상황이다. 주인공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서른두 살이 될 때까지 시집도 가지 않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더구나 『삼국유사』의 〈빈녀양모〉에서는 어머니가 눈먼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결핍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따라서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더는 걸식하는 일마저 어렵게 되자, 주인공은 마침내 자신의 몸을 부잣집에 팔아 일용할 양식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주인공의 자기희생이 곧 반전의 계기가 되는바, 이를 통해서 최초의 결핍 상황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 효행설화의 일반적인 서사구조이다. 한편, 남의 집에 품팔이하여 어머니를 봉양한 일은 일찍이 중국의 효행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라 경제(景帝) 때 효자 동영(董永)의 고사가 그것인데, 고려 말 권보(權溥)가 엮은 『효행록(孝行錄)』에 〈동영임신(董永賃身)〉이란 제목으로 실려 전한다. 이 밖에 〈강혁자용(江革自傭)〉이란 제목의 이야기와도 비슷하다.

의의 이 설화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손순매아(孫順埋兒)〉와 함께 상대(上代)에 속하는 것으로, 이 계열의 설화가 끊임없이 창작되고 전승되어 우리나라 효행설화의 특성으로 그 위치를 굳게 지키고 있다.

출처 東國通鑑,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 효녀지은전과 빈녀양모담 일고(황인덕, 한국언어문학28, 한국언어문학회, 1990),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박영주, 도남학보16, 도남학회, 1997), 효행설화의 구조와 의미(최혜진, 어문논집6,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6).

필자 곽정식(郭正植)

민담

효부와 호랑이

정의 며느리의 효행에 감동한 호랑이가 보답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 김현감호(金現感虎) 조에서는 인간을 위해 호랑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호랑이가 인간에게 보답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효부와 호랑이〉 설화와 동일 선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효부와 호랑이〉 설화는 삼국시대로까지 그 연원을 소급하여 볼 수 있다.

줄거리 가난한 집 며느리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어느 날 이웃마을의 환갑잔치에 간 시아버지가 밤이 늦도록 오지 않자 걱정이 된 며느리가 찾아 나섰는데, 시아버지가 산 속에 술이 취해 누워 있고 그 옆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 놀란 며느리는 등에 업은 아이를 호랑이에게 내놓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시아버지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호랑이는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해서 아이를 집 앞에 데려다 놓았다. 이 소식을 들은 관에서는 며느리에게 효부상을 주었다.

변이 각편에 따라서 며느리가 남편 없이 시아버지만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으며, 그럴 경우 젊어서 혼자 된 딸을 친정에서 개가시키려고 하지만 딸이 거절하고 살다가 시아버지를 호랑이에게서 구해 내며, 또한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가 양아들을 데려다 주기도 한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홀시아버지가 맹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아 지역적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 이 설화는 단독으로 연구되기보다는 동물담이나 〈효감호설화(孝感虎說話)〉 모티프를 차용한 효행담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특히 〈효행설화〉는 그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 대부분 전체를 조망하지 않고 부분적인 자료를 유형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하거나 특정 유형의 의미망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징 설화 속 호랑이의 모습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신격화된 호랑이, 원조자로서의 호랑이, 사람을 해치는 악한 호랑이, 어리석은 호랑이 유형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효부와 호랑이〉 설화는 원조자로서의 호랑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동물인 호랑이조차 효를 실천하는 내용을 통해 효의 절대적인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과 더불어 효행담의 범위를 넓히는 설화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의의 호랑이는 우리 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산신으로 숭앙받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 동물이다. 〈효부와 호랑이〉 설화 속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며느리에게 아이를 돌려줌으로써 산신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보여 준다. 결핍의 상황을 효로써 극복한 며느리는 물성(物性)의 호랑이는 물론 신성(神性)의 호랑이까지 감동시키며, 결국 그로 인해 며느리라는 여성은 가족 내에서의 지위 향상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9, 221; 6-3, 522; 7-16, 46.

참고문헌 한국구전효행설화의 연구(강덕희, 국어국문학21,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83), 한국설화연구(최운식, 집문당, 1991), 한국설화와 여성(김대숙, 월인, 2002), 한국효행설화의 성격연구-효자호랑이 설화를 중심으로(최래옥, 한국민속학11, 한국민속학회, 1977), 효자호랑이설화에 나타나는 효관념(강진옥, 민속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필자 한미옥(韓美玉)

민담

효불효다리

상호설화 북두칠성

정의 일곱 아들이 홀로 된 어머니의 밤나들이를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21 경주교량 조에 수록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교량전설(橋梁傳說)이다. 형성 시기는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헌전승과는 별도로 민간에서도 전승된다.

줄거리 신라 때, 일곱 아들을 둔 어머니가 강 건너 마을에 정부(情夫)를 두고 아들들이 잠든 틈에 몰래 그곳에 다녀오곤 하였다. 아들들이 의논하기를 "어머니가 밤에 물을 건너다니시니 자식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하고 돌다리를 놓았다. 이에 어머니는 부끄럽게 여기고 행실을 고쳤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 다리를 효불효다리[孝不孝橋]라고 불렀다.

변이 구비설화에는 이 다리를 일곱 아들이 놓았다고 해서 '칠성교'라고도 하고, 일곱 개의 돌을 놓아 만들었기에 '칠교'라고도 한다. 30편이 넘는 구비설화가 채록되었는데,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설화처럼 아들이 놓은 다리 때문에 어머니가 밤나들이를 못 하는 내용은 거의 드물다. 또한 효불효 문제를 언급하는 구비설화에서는 어머니가 행실을 고쳤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어머니가 그 다리를 건너서 죽는 날까지 밤나들이를 계속했다고 끝나는 예가 많다. 구비설화는 일곱 아들이 어머니의 밤나들이를 적극 도와주고 아예 개가까지 시킨다는 점에서,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밤나들이를 그쳤다고 하여 과부의 훼절을 경계한 『동국여지승람』의 설화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인다.

분석 이 설화에서 '효불효'란 '어머니의 도덕성에서는 불효이나 어머니의 인간적 욕망에 서는 효가 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신라 때부터 전해 오던 이 설화의 원형은 홀로 된 어머니의 밤나들이를 도와 다리를 놓은 일곱 아들이 북두칠성

이 되었다는 '칠성다리'이야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 아들을 출산하여 양육하고도 여전히 강렬한 성욕을 보이는 여인의 풍부한 생식력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민간의 여신 숭배신앙의 대상이 될 만하다.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던 조선 초기에는 이전부터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칠성다리' 유형과 과부의 개가를 부정하는 열절관(烈節觀)으로 덧칠된 '효불효다리' 유형이 공존하고 있다가, 후자가 문헌에 채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화 전승자들은 어머니의 훼절에 따른 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머니의 즐거움을 돕고자 한 아들들의 용기와 헌신에 찬사를 보낸다. 이 설화는 효나 열절 같은 유교의 가치보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진한 사랑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준다.

특징 『동국여지승람』의 설화가 과부의 훼절을 용인하지 않는 유교의 열절관을 강조하는 반면에, 구비설화는 경직된 유교 관념을 뛰어넘는 온정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민중이 상층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지켜온 사실을 볼 수 있다.

출처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민족문화추진회, 197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2, 804; 5-5, 227; 6-4, 831; 6-12, 146; 7-2, 131; 7-3, 602; 7-13, 121; 8-11, 414.

참고문헌 한국설화문학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효불효설화 연구(이인경, 고전문학연구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필자 이인경(李仁卿)

민담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정의 효성이 지극한 효자를 호랑이도 감동하여 태우고 다녔다는 설화.

줄거리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가 살았는데, 집이 가난하여 어머니의 끼니를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머슴살이하는 집에서 밥을 얻어 호랑이 등을 타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옛날 어느 곳의 효자는 앓아 누운 부친의 약을 구하러 멀리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태워 주었다. 옛날 어떤 효자가 시묘살이를 하는데, 호랑이가 태워 주고 무덤 옆에서 지켜 주었다. 또 옛날 어느 효자는 겨울에 어머님께 딸기를 구해 드린다. 어머 니가 돌아가시자 호랑이와 함께 시묘살이하고, 호랑이의 도움으로 장가도 간다.

변이 호랑이가 효자를 태워 주는 이유는 그의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효자가 굶주리는 어머니에게 밥을 구해 준다든지, 병이 난 부모님을 위해 약을 구해 온다든지, 겨울철에 먹고 싶어하는 딸기(두릅, 석이버섯, 죽순, 잉어, 홍시 등)를 구하여 드리는 것으로 변이를 보인다. 이는 물론 호랑이가 태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 다른 예에서는 호랑이가 목에 비녀가 걸려 고통을 당할 때 효자가 손을 넣어 비녀를 빼 준다. 호랑이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효자를 태워 준다. 또 하나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가 부모의 무덤가에서 시묘살이를 하는데, 그 효성에 감동하여 효자를 보호해 주고, 태워 주기도 한다.

분석 호랑이가 효자를 도운 이야기는 비교적 많이 전승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9편이 실려 있고, 『한국의 민담』에 2편, 『경북민담』에 3편, 『조선호랑이 이야기』에 2편, 『경남지방의 민담』에 2편, 『한국구비전설』에 2편이 있다.

이 설화는 문헌설화에는 보이지 않으며, 모두 구비설화로 구연되는 것을 채집한 것이다. 사람의 천적인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도리어 도와준다는 설정은 효의 실천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의의 효를 인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던 시대에 효의 실천을 보고 호랑이도 감동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출처 경남지방의 민담(김승찬, 제일문화사, 1986). 경북민담(김광순, 형설출판사, 1978). 금강산으로 가는 울산바위(서문성, 창, 1998). 조선호랑이 이야기(이가원, 학민사, 1993).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1972).

참고문헌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호랑이(김호근·윤열수, 열화당, 1986). 한국 호설화 연구(배도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호랑이(손도심, 서울신문사, 1974). 한국 효행설화의 성격 연구(최래옥, 한국민속학10, 한국민속학회, 1977).

필자 배도식(裵桃植)

전설

효자동

孝子洞

정의 어떤 집안에 효자가 나와 그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불리게 된 내력을 말하는 지명전설.

줄거리 전국에서 전승되는 전설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에 전승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옥천동에 사는 반씨 집안의 선조는 평소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였다. 마을 앞 개울에서 항상 고기를 잡아 반찬하여 드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모친이 병을 얻었는데 백약이 무효였다. 아들은 뒤뜰에 칠성단을 차리고 자신의 나이를 감하는 대신 어머니가 더 사실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가 산딸기를 먹고 싶다고 하여 아들은 엄동설한임에도 산속을 헤매며 산딸기를 찾았다. 종일 헤매다 지쳐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잘 익은 나무딸기를 발견하여 마침내 딸기를 구했다. 엎어져 가며 산에서 내려오다 큰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효자를 등에 업어 집에 데려다 줬다.

변이 〈효자동〉 전설은 전국에 퍼져 있는 광포전설이다. 전라북도 전주시, 강원도 춘천시, 평안북도 안악군 등에서 많은 효자 관련 전설이 채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위에 소개한 서사구성과 유사하다. 즉, 부모님에 대한 효자의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응하여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내용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에도 효자전설이 전하는데 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옛날 어느 집 식구들이 모두 외출하였는데, 집에 남아 있던 시아버지가 실수로 이불 밑에 있는 어린아이를 깔고 앉아 죽게 했다. 며느리가 돌아와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알리면 시아버지가 곤경에 처할까 봐 얼른 아이를 업고 남편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렸다. 남편은 아이의 뺨을 때리며 아버님을 곤란하게 하는 불효자식이라며 호통을 쳤다. 그러자 아이가 깨어나 살아났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져 이 동네는 효자동이 되었다.

한편 이 효자동은 조선시대부터 있던 동리 이름 '효곡(孝谷)'에서 유래하는데, 원래 선조 때의 대학자 조원(趙瑗)의 아들 희신(希臣)과 희철(希哲) 형제가 효자이므로 쌍효잣골, 또는 효곡이라 불렀다고 한다.

분석 효자동, 효제동, 효자골, 효자문고개, 효동리 권효자의 효행 같은 이야기는 전국에서 널리 발견되는 광포설화이다. '충효열' 삼강의 유교 이념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설화이다. 한국 효행설화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었고, 이미 충분히 다루어진 부분이다. 특히 호랑이와 관련한 효행설화가 대표적으로, 이 설화도 예외가 아니다. 효행의 과정에서 호랑이가 명당터나 명당자리를 잡아주거나 위기를 모면케 하거나 큰 행운과 복을 가져다주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의의 조선의 유교 이념에 관한 교육과정의 결과는 다양하다. 〈효자동〉 전설은 다양한 효행 변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초기에 나온 『삼강행실도』나 『오륜행실도』의 효행편과의 비교를 통해서 유교적 사상과 깊이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서울의 전래동명(이제곤, 백산출판사, 1994). 한국구비문학대계 2-2, 89; 7-3, 179; 220.

참고문헌 한국지명총람1-서울(한글학회, 1965). 한국 효행설화 성격 연구(최래옥, 한국민속학10, 민속학회, 1977). 한국효행설화의 연구(김동기, 어문연구10, 어문연구학회, 1979).

필자 이정재(李丁宰)

용어

효행담

孝行談

정의 자식이 늙으신 부모를 섬기는 태도에 얽힌 이야기.

내용 한국인이 제일 많이 전승하는 민담이다. 주로 60대 이상의 효성을 바라는 입장에 있는 화자가 구술한다. 효행담(孝行談)의 33가지 유형 가운데 80%가 효자의 이야기이고 불효자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다. 먹고 입고 사는 가족 간 일상사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효행담의 배경이 된다.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와 같은 대표 유형은 모자간의 이야기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아들 다음에 중요한 효자는 출가외인인 딸이 아닌 양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일상사를 주관하는 며느리가 효성의 주체가 된다. 치사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효도는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만 실천에는 늘 장애가 동반된다. 그래서 지극한 효성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다. 반면에 불효자에게는 재앙이 뒤따른다. 효행담 가운데 자식을 죽여서 부모를 받드는 희생효(犧牲孝)설화가 효행의 어려움을 역설하면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압도적인 보상으로 강한 전승력을 담보한다.

필자 김대숙(金大塾)

민담

훈장 골탕 먹인 제자

정의 서당 학동이 훈장을 골려주는 소화(笑話) 성격의 설화.

줄거리 첫 번째 유형의 이야기는 이렇다. 제자가 가난한 스승에게 잘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꾀를 내어 스승을 유명한 점쟁이로 소문나게 한다. 그즈음에 대국에서 옥쇄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라에서는 스승을 대국에 파견한다. 제자는 스승에게 대국에 들어가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자신의 집이 불에 타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을 향해 대성통곡하라고 시킨다. 제자가 그날 스승의 집을 실제로 불태우고 있었으므로 대국에서는 스승의 점복에 탄복하게 된다. 그리고 옥쇄를 훔친 범인은 스승의 영험한 능력으로 자신의 행위가 탄로 날까 걱정되어 제 발로 찾아온다. 결국, 스승은 많은 상금을 받고 귀국한다. 욕심이 난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짓을 계속 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 제자는 스승을 산으로 데려가 소나무에 매달아 코를 쨘다. 그러고는 스승에게 코가 째지는 바람에 신통력이 떨어졌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고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훈장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차례로 질문한다. 먼저 '공부를 잘하는 학동'에게 장래 소원을 묻자, 훈장님처럼 아이들 훈육하는 일을 하겠다고 답한다. 흡족한 훈장은 이번에는 '잘사는 집안의 학동'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그러자 돈을 많이 모아서 없는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답한다. 역시 흡족한 훈장은 마지막으로 공부도 별로이고 집안도 어려운 학동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그러자 그 학동은 "커다란 당나귀 좆 세 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한다. 뜻밖의 대답에 훈장은 화가 났지만, 참고서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학동은 글자 한 자 자신에게 가르쳐 주기에도 인색한 '공부 잘하는 학동'이 나중에 커서 아이들 훈육한다고 거짓말하기에 그놈 입에 당나귀 좆을 물려야 한다고 답한다. 그리고 점심도 못 먹는 친구들에게 밥 한 숟가락 주지 않는 '잘사는 집안 학동'이 나중에 커서 없는 사람 구제한다고 거짓말하기에 또 그놈 입에 당나귀 좆을 물려야 한다고 말한다. 훈장이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쓰느냐고 묻자, 학동은 머뭇거리다가 "그런 것들 데리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무릎 치면서 탄식하는 선생님도 당나귀 좆 하나 물려야 하겠습니다."라고 답한다.

변이 변이형 중에는 장가가게 된 제자를 스승이 골려주려고 했다가 신부가 지혜로써 남편의 곤란함을 모면시킴과 동시에 스승을 골탕먹이는 이본이 있다. 스승은 제자에게 생 콩물을 먹여 첫날밤 고생하도록 했지만, 제자의 신부는 도리어 남편의 똥을 스승에게 선물로 준다. 게다가 스승이 모시는 신줏단지까지 개가 물고 가 크게 당하는 이야기이다.

분석 이 이야기들은 훈장을 골탕먹이는 제자들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내용이 각 이본에서 차이가 있을 뿐, 중심축은 상하 질서의 전도와 파괴에서 오는 풍자와 해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의 민담에는 학문적으로나 신분상으로 엄청난 차이를 뛰어넘어 새롭고 유쾌하며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들이 다수 존재한다. 현실의 시·공간적 제한은 물론 지위와 계급의 엄격한 위계도 흥미를 위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147; 2-6, 300.

참고문헌 설화문학연구-상(화경고전문학연구회,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아이지혜담 연구(이성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필자 김경섭(金鏡燮)

민담

훈장 장가보낸 학동

정의 학동이 꾀를 내어 훈장을 과부와 결혼시킨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학동이 혼자 사는 서당 훈장에게 동네 과부가 맘에 드는지 묻는다. 훈장이 좋다고 하자 학동이 사흘 동안 저녁마다 과부 집에 가서 훈장을 찾는다. 나흘째 날에도 그렇게 하자 과부가 화를 낸다. 둘이 말싸움을 하는 사이에 훈장이 과부 집 방에 숨어든다. 학동이 확인을 해 봐야 한다면서 과부와 함께 방에 들어와 훈장을 발견한다. 과부가 소문내지 말라며 학동에게 떡을 해 준다. 학동이 온 동네를 다니며 훈장님 결혼 떡이라고 돌린다. 동네에 소문이 나서 훈장과 과부가 결혼한다.

변이 혼인하는 인물이 훈장이 아닌 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결혼시키거나 머슴이 동네총각을 결혼시키기도 하고, 도령이 머슴을 장가보내기도 한다. 각편에 따라서 닭을 잡는다며 과부와 훈장을 한 방에 가둬서 동침하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훈장의 성기를 과장하여 과부를 자극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허리끈을 찾는 등 오해를 유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분석 전국에 분포하는 지략 있는 아이 이야기 설화 중 하나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만 25편이 실려 있다. 이 유형의 공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혼자 사는 서당 훈장이 있다. 학동이 훈장에게 건넛마을 과부와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고는, 사흘 동안 저녁마다 과부 집에 찾아가 훈장을 찾는다. 셋째 날, 과부와 학동이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에 학동이 시킨 대로 훈장이 과부 집 방에 들어가 눕는다. 과부가 소문내지 말라며 학동에게 떡을 해 주지만, 학동은 이 떡을 결혼 떡이라며 온 동네에 돌려서 결국 훈장과 과부가 결혼한다. 이 설화는 전체적으로 트릭스터담의 구조를 보인다. 학동은 트릭스터이고 훈장과 과부는 트릭의 수혜자가 된다. 이 이야기는 트릭담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일으키며, 동시에 사회 통념에 철저하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그 흥미가 더해지는 특징이 있다. 즉, 훈장과 학동의 관계가 역전되어 있고, 훈장이 과부와 혼인한다. 이 관계에서 가장 어리고 배움도 부족한 학동이 주도적으로 벌이는 사건은 관념으로부터 해방과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전한다. 즉 과부는 평생 수절이라는 덕목을 지켜야 하며, 훈장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이다. 둘 다 인간의 욕망은 덮어 두고 규범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들이 결혼함으로써 규범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여 인간성을 회복하였다는 내용이다.

의의 이 유형은 아지담(兒智談)의 하위 유형으로 〈원님놀이〉, 〈박문수설화〉 등 여러 설화에 흔히 등장하는 '지혜 있는 아이'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8, 596; 8-5, 294.

참고문헌 트릭스터담 연구(조희웅, 어문학논총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트릭서사 연구(임주영,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필자 노영근(盧暎根)

전설

흥륜사

興輪寺

정의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리에 있는 신라 최초의 절 흥륜사에 얽힌 설화.

줄거리 신라 25대 진지왕 때, 흥륜사 승려 진자는 법당의 미륵상 앞에 엎드려 미륵 대성이 신라 땅에 화랑의 모습으로 화생하기를 기도하였다. 어느 날 꿈속에 한 스님이 나타나 웅천 수원사에 가면 미륵선화를 볼 것이라 하였다. 스님이 수원사에 도착하니 한 미소년이 절문 밖에서 웃으며 맞이하였는데 얼마 후 소년은 종적을 감추었다. 진자스님이 천산(千山)의 산신에게 가서 미륵선화를 만나보기를 청하였다. 산신은 앞서 본 소년이 미륵선화임을 알렸다. 진지왕은 그 소년을 찾아 국선으로 받들었다. 소년의 이름은 미시(未尸)이고, 성은 몰랐다. 소년은 풍류도를 몸에 익혀 7년간 온 세상을 훤히 밝히더니 갑자기 흔적을 감추었다. 세인들은 흥륜사의 미륵불이 화생한 것으로 여겼다. 한편 신라 54대 경명왕 때에 흥륜사의 남문과 좌우 회랑이 불탔는데, 왕실의 재정 지원이 없어 복원할 수가 없었다. 정화(靖和), 홍계(弘繼) 두 스님이 백성들의 시주를 받아 복원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어느 날 제석천왕이 흥륜사 좌경루에 내려와 열흘 동안 머물렀다. 백성들이 이에 환희하여 시주물을 바치니 복원 공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제석천왕이 하늘로 올라가려 할 때 두 스님은 천제의 진영을 그려 공양하고자 한다는 말을 드렸다. 그러자 천제는 보현보살상을 봉안하라고 하였다. 두 스님이 보현보살상을 그려 봉안하니 이후 이 보살상을 믿고 공양하는 사람에게 많은 이적이 일어났다.

분석 경북 경주시 사정리에 터만 남아 있는 흥륜사는 신라에 세워진 최초의 가람이며, 사지는 사적 제15호로 지정되었다. 흥륜사는 아도가 창건하였으며, 이차돈의 순교와 함께 신라의 대가람으로 중창되었다. 신라 중엽 이후는 대중신앙의 중심사찰로 변모해 갔다. 법당 내에 미륵 삼존상과 신라십성(新羅十聖)을 안치하고 현세와 내세의 복을 빌었다. 신라 말에 흥륜사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폐허가 되고 말았다. 현재 남아 있는 유적으로는 배례석과 석조, 미소 짓는 사람의 얼굴 무늬가 새겨진 기왓조각 인면문와당이 있을 뿐이다.

특징 황룡사, 사천왕사, 감은사가 호국중심 사찰이고 분황사는 정치중심 사찰인 반면 흥륜사는 기림사와 함께 백성의 신앙중심 사찰이다. 흥륜사의 신라십성에 대한 전설과 절에 얽힌 전설들이 백성의 신앙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찰 설화들과 구별된다.

의의 흥륜사에 안치된 신라십성의 전설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아도 교육적 의의가 크다. 아도의 개척정신, 염촉의 희생정신, 안함의 미래 투시관, 혜숙과 혜공의 따스한 민중사랑, 자장의 계율관, 사파의 귀천 평등관, 원효의 무애보살정신, 의상의 개별과 보편의 원융정신, 표훈의 방편관은 오늘날 교육자들이 재창조의 모델로 삼을 만한 교육적 의의가 있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신라 십성고(김영태, 한국학연구2,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7), 신라 십성 연구(박상주, 교육철학16, 한국교육철학회, 1998), 신라 하대 전기 흥륜사 금당 십성의 봉안과 미륵하생신앙(곽승훈, 한국사상사학11, 한국사상사학회, 1998), 흥륜사와 이차돈의 순교(이봉춘, 신라문화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흥륜사 출신의 고승들(김상현, 신라문화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필자 김화경(金和經)

색인

ㄱ

가락국기 101, 117, 193, 219, 361, 434, 822
가마고개 30
가믄장아기 330, 502
가야건국신화 30, 652
가짜열녀 30, 31, 61
가짜지관 31, 701
가짜풍수 31, 701
각시섬 32
각편 32
간부 잡은 원님 33
감기의 유래 33
감은사 34, 35, 223, 249, 250, 821
감은장아기 35, 329, 330
강·폭포전설 35
강감찬 36, 37, 38, 70, 517, 558, 788
강릉안인진해령사신화 38
강태공 338, 515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39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40
개과천선 73, 188, 503, 650
개로 환생한 어머니 41
개무덤 41, 42
개벽신화 426, 427
개양할미 216, 217, 404, 405
개와 고양이 구슬 다툼 42
개운포 43, 44, 713
개촌신화 44
거북바위 44, 82, 83, 404, 794
거울 처음 본 사람 45
거인 장길손 45, 46
거인설화 34, 45, 46, 50, 51, 146, 281, 373, 405, 778
거짓말 세 마디 46, 47
거타지설화 88, 223, 287, 519, 551, 796
건국신화 48, 49, 53, 103, 116, 117, 143, 152, 172, 199, 200, 239, 276, 286, 298, 326, 362, 413, 415, 416, 425, 490, 523, 548, 550, 585, 605, 624, 648, 657, 674, 693, 696, 771, 780, 782
건망증 심한 사람 49
걸어온 산 50
검단선사 366, 367
게으름뱅이 72, 73, 292, 293, 349, 350, 385, 386, 518, 799
견묘쟁주 51
견우직녀 51, 286, 304, 499, 719, 743, 763, 764
견훤 48, 52, 53, 224, 331, 413, 421, 504, 505, 534, 540, 705, 706, 786
경업대 392
계룡산 53, 54, 178, 190, 240, 323, 531, 653
계림 118, 119, 175, 176, 276, 361, 583, 689
계모담 54, 55, 242, 252, 662, 743, 745
계모설화 95, 96, 393, 422, 495, 496, 526, 745
계불삼년 구불십년 55
계서야담 55, 56, 106, 110, 203, 252, 275, 285, 370, 400, 506, 609, 664, 723
계서잡록 55, 56
고구려건국신화 56
고금소총 56, 105, 250, 252, 314, 370, 389, 542, 589, 697, 728, 750
고기 놓친 까마귀 56
고대신화 361
고대정본풀이 57, 58, 298
고려건국신화 58, 285
고려사 91, 123, 124, 194, 241, 335, 336, 501, 516, 523, 530, 550, 567, 581, 597, 624, 631, 654, 664, 729, 730, 758, 767, 795, 796
고려장 없어진 유래 58
고리봉 59, 60, 178, 240, 808
고목생화 320, 321
고분지통 유래 60
고석정 61, 62, 161
고수레 유래 62
고승·이승전설 6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64, 202
고유 64, 65, 66, 613
고조선건국신화 66
고종달 66, 170, 263, 324, 805
고창녕 65, 66
곡성 안 들은 상복 66, 576
곰나루 67, 68, 549, 597
공갈못 68
공민왕 68, 69, 70, 158, 159, 185, 219, 626, 670, 730, 777, 795
공식적표현 70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70
과거 급제한 백정 아들 71
과부와 머슴 71
과장담 72, 73, 279, 390, 635, 659
곽재우 73, 74, 75, 111, 156, 224, 227, 533, 670
관용적표현 75
관음 신앙 594
관음보살 75, 76, 157, 532, 544, 545, 582, 594, 671
관음사 75, 76
관촉사은진미륵 76
관탈민녀 77, 107, 193, 325, 530, 560, 647, 715
광덕 엄장 77
광청애기본풀이 78
광포설화 45, 50, 65, 112, 144, 155, 164, 307, 321, 358, 430, 498, 517, 635, 660, 677, 681, 682, 767, 808, 819
광포전설 79, 110, 170, 195, 262, 284, 345, 394, 423, 655, 819
구두쇠 개심시킨 공수래공수거 79
구렁덩덩신선비 80, 81, 127, 207, 208, 291, 293, 597, 798
구렁이 32, 37, 41, 55, 80, 81, 82, 108, 109, 110, 140, 203, 208, 209, 271, 303, 310, 407, 505, 514, 519, 552, 553, 554, 557, 565, 566, 584, 597, 607, 621, 644, 648, 664, 675, 684, 685, 690, 694, 717, 720, 737, 738, 795, 812
구룡사 54, 82, 83
구미호 174, 338, 519
구복여행 83, 84, 148, 243, 314, 417, 570, 578, 579, 597, 715
구불십년 55
구비문학 84
구비설화 65, 74, 86, 106, 110, 121, 144, 149, 150, 151, 178, 180, 222, 225, 227, 228, 249, 253, 271, 272, 287, 293, 309, 348, 354, 355, 400, 413, 418, 419, 420, 430, 527, 530, 535, 568, 581, 582, 583, 594, 603, 604, 606, 609, 615, 618, 663, 668, 669, 670, 715, 729, 736, 755, 795, 817, 818
구슬할망본풀이 79, 87, 88
구연 88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의 유래 88
구월산 89, 800
구토지설 90, 122, 123, 750, 751, 752
국사봉 90, 323, 324
국신당 69
군웅본풀이 91, 242, 298
궁예 48, 92, 93, 331, 334, 338
권선징악 66, 135, 180, 183, 184, 188, 225, 315, 386, 495, 503, 547, 631, 644, 682, 700, 743, 803, 806
궤눼깃당본풀이 93, 94, 383, 622
귀머거리 동문서답 94
귀신담 512, 596, 601
귀신설화 596, 601
그리스신화 384, 425, 427, 428
근원설화 64, 75, 177, 235, 245, 325, 393, 422, 430, 525, 563, 586, 699, 704, 750, 751
근친상간 144, 170, 171, 178, 235, 323, 324, 498, 546, 547, 783, 809
글 잘하는 황정승 딸 95
금강산 96, 97, 112, 190, 239, 270, 300, 319, 325, 323, 324, 343, 358, 363, 405, 433, 511, 558, 573, 596, 617, 648, 660, 726, 731, 760, 775, 776, 799
금계필담 97, 233, 400, 496, 575, 722
금기 70, 98, 170, 219, 351, 408, 428, 533, 564, 574, 600, 644, 682, 765, 810
금도끼은도끼 98, 237
금돼지굴 98, 99
금산 99, 100, 373, 531
금상님 382, 383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100
금시발복 명당 101, 102
금와 48, 102, 103, 200, 306, 342, 523, 524, 549, 588, 589, 673, 674, 779, 780, 781, 782
금척 103, 104, 201, 202, 604, 731, 785, 811
기능 105
기문 105
기문총화 55, 56, 65, 106, 203, 227, 400, 575, 615, 725, 774
기우제 58, 68, 309, 334, 524, 556, 560, 561, 562, 569, 571, 735, 748
기인담 106
기지 있는 부인 107
기지시줄다리기 유래 108
김녕사굴 109, 110, 209, 288, 492, 567
김덕령 110, 111, 121, 141, 224, 241, 294, 295, 427, 493, 533, 540, 620, 639
김병연 111, 112, 613
김부대왕 113, 114, 534, 792, 793
김삿갓 112, 115, 513, 758
김선달 115, 116, 134, 206, 283, 315, 343, 544, 545, 589, 643, 665
김수로왕신화 116, 117, 270, 277, 323, 415, 791
김알지신화 118, 119, 255, 362, 415, 416, 580, 771
김유신 119, 120, 121, 123, 124, 202, 223, 255, 331, 388
김응서 121
김중진 122

김춘추 119, 122, 123, 124, 551, 582
김현감호 124, 125, 292, 316, 597, 816
김호랑이굴 125
까치의 재판 126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 괴물 126, 127
꼬리 잘린 호랑이 127
꼬리따기 128
꼬마 명재판관 129
꼬부랑할머니 130
꽃·나무전설 130, 131, 132
꾀로 얻은 명당 132
꾀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132, 133
꾀쟁이 하인 71, 133, 134, 282, 283, 315, 352
꿀 싸는 강아지 134, 135, 278
끝없는 이야기 135, 181, 793, 794

ㄴ

나도 계집 있다 138
나도밤나무 138, 139, 612
나옹화상 139
나주기민창본풀이 139, 140, 298
낙안읍성 141
낙화암 142
난생화소 143
남녀결연담 148, 563
남매탑 53, 54, 143
남매혼설화 144
남사고 144, 145, 274, 556, 566, 669, 776
남산 145, 276, 289, 539
남원진씨시조신화 146, 147
남의 복 빌려서 산 사람 147
남이 120, 148, 149, 533, 728, 730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149
남편 따라 죽은 열녀 150
남편 병 고친 열녀 151, 591
남평문씨시조신화 152
남한산성 152, 153, 174
남해왕 361, 362, 427
내 병 다 나았다 153
내 복에 산다 154, 155, 243, 254, 297, 358, 415, 502, 564, 653
노고바위전설 262, 395, 155, 156, 329
노구할머니 395
노적봉 155, 156, 329
노힐부득 달달박박 156, 515, 538
논개 157, 158
놋다리밟기 유래 158, 159
농경신 380, 556, 588, 745, 766
농다리 159, 160, 373
누명 벗은 시아버지 160

ㄷ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의 유래 164
다시 찾은 옥새 164, 165, 785
다자구할머니 219, 678, 679
닥실나루 166
단군신화 48, 49, 67, 89, 103, 116, 130, 132, 166, 167, 272, 273, 199, 200, 201, 202, 203, 270, 277, 286, 291, 323, 415, 416, 421, 427, 580, 589, 596, 652, 694, 715, 757, 766, 780, 803
단락소 168, 343
단종 35, 97, 132, 168, 169, 374, 375, 529, 577, 626, 690, 723, 728, 729, 730, 749, 750
단혈전설 169
달래강 170, 171, 323, 809
달성배씨시조신화 171
당금애기 172, 173, 217, 265, 298, 420, 428, 429, 585, 586, 742, 780
당신화 173, 175, 339, 401, 404, 490, 491, 625, 627, 657, 677, 729
대감굿무가 173, 174
대관령국사성황당신화 175
대국산성 176, 177
대동야승 148, 177, 370, 418, 561
대신 든 장가 177
대왕암 34, 35, 178, 249, 250, 584
대홍수 59, 60, 69, 144, 170, 178, 179, 238, 285, 286, 369, 621, 637, 638, 739, 808
덕 쌓아 얻은 명당 179, 180
덕만 364, 365
덕진다리 180, 373
도교사상 362
도깨비 물리치는 법 180
도깨비 씨름 181
도깨비가 준 돈 182, 183
도깨비감투 183
도깨비방망이 162, 183, 184, 194, 225, 263, 369, 601, 733, 806, 807
도깨비보 185
도깨비불 185, 186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합 186, 543
도담삼봉 187, 663
도둑 감싸서 개심시킨 사람 188
도둑 잡은 아이 188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189
도드람산 189, 190
도랑선비청정각시노래 190, 191, 242
도량 넓은 남편 191, 192
도미의 처 77, 107, 192, 193, 624, 647, 696
도선 62, 82, 101, 145, 193, 274, 328, 373, 404, 505, 519, 537, 550, 566, 571, 572, 776
도술화소 193
도화녀비형랑 194, 601
독도 195, 319
독수리바위전설 262
독장수구구 195, 196
돈 떼먹는 법 196
돈 천 냥의 구원 197
돈개나루전설 262
돈전풀이 197, 198, 199, 242, 298, 352, 624
동국여지승람 96, 118, 166, 189, 194, 219, 220, 222, 247, 256, 276, 288, 289, 295, 322, 368, 370, 401, 402, 430, 523, 524, 531, 547, 548, 555, 560, 635, 637, 675, 677, 687, 689, 712, 716, 786, 795, 800, 817, 818
동래 정씨 발복 이야기 325
동명왕신화 116, 199, 200, 415, 549, 674, 780
동물 나이 자랑 200
동물·사물전설 201
동물담 64, 165, 199, 202, 203, 225, 257, 258, 411, 542, 587, 750, 783, 794, 801, 804, 817
동물유래담 202, 309, 685
동부여건국신화 203
동야휘집 56, 65, 106, 144, 165, 203, 252, 370, 496, 506, 642, 667, 723, 725
동자삼 204, 307, 409, 686, 739
동지팥죽 유래 204, 205, 764
동패낙송 56, 106, 110, 205, 285, 400, 725
돼지 맞돈 205
돼지꿈 206, 207, 781
두꺼비신랑 207, 208
두꺼비의 보은 208, 209, 288, 607
두더지의 혼사 202, 209
등나무 210
땀 흘리는 비석 210, 211
떠내려온 섬 211
떡보와 사신 165, 187, 211, 212

ㄹ

레비스트로스 294, 428
류성룡 188, 212, 213, 609, 613, 614, 619, 642, 771, 809

ㅁ

마고할미 46, 174, 190, 216, 217, 373, 404, 420, 571, 572, 637, 679, 775, 778
마누라본풀이 217, 218, 242, 353, 354
마십굴 218
마을신화 173, 219, 220, 731
마이산 50, 221
막산이 221, 546
만어사 222, 794
만파식적 201, 202, 223, 250, 421, 523, 560
말무덤 110, 161, 224, 639, 728
말바위 224, 225
말하는 남생이 225, 565, 591
망부석 225, 226, 271, 736, 748, 779, 795
망우리 226, 227
망해암전설 262
매바위전설 262
매옹한록 106, 227, 400, 602, 642
맹감본풀이 227, 228, 645
맹사성 228, 229, 613, 815
머리에 쓰면 둔갑시키는 해골 229
메기 꿈의 해몽 230
메뚜기와 물새와 개미 230
메추라기의 꽁지 134, 202, 231, 232
메타서사 350, 351
며느리 개심시킨 시부모 232
며느리 고르기 233, 234
며느리고개 234, 235
며느리밥풀꽃 131, 235, 236, 291
며느리의 말대꾸 130, 236
멸치의 꿈 236
명당 101, 132, 179, 189, 236, 327, 407, 521, 564, 566, 629
명당 빼앗아간 딸 236
명심보감 547, 548, 635
명엽지해 45, 56, 237, 389, 681
명의설화 587, 790
모방담 151, 183, 237, 263, 282, 390, 517, 518, 783, 790, 806
목도령과 대홍수 238, 621
묘향산 167, 239, 317, 323, 358, 637
무너미고개 239, 240

무당 57, 78, 91, 104, 130, 227, 241, 259, 295, 318, 334, 337, 362, 370, 371, 381, 396, 414, 429, 491, 495, 507, 520, 578, 580, 586, 623, 687, 688, 689, 709, 712, 730, 734, 753, 773, 777
무당호랑이 240, 733
무등산 110, 240, 241, 295, 323, 670
무속설화 152, 153, 597
무속신앙 94, 114, 368, 507, 712, 731, 754
무속신화 78, 87, 172, 173, 174, 190, 197, 198, 199, 217, 241, 242, 243, 251, 252, 291, 297, 298, 303, 333, 335, 336, 342, 370, 375, 376, 380, 412, 416, 426, 427, 428, 506, 508, 577, 581, 582, 585, 586, 623, 644, 645, 657, 691, 704, 715, 726, 727, 731, 740, 742, 743, 788
무수옹 243, 244
무식으로 유식 이기기 244
무열왕 123, 124, 249, 362, 813
무영탑 245, 524, 535, 536
무왕 53, 154, 155, 246, 254, 287, 297, 329, 357, 358, 421
무학대사 53, 63, 45, 226, 227, 240, 246, 274, 328, 329, 373, 551, 552, 776, 777
문경새재 246, 247, 678
문굿무가 247
문둥이 남편과 이부열녀 249
문무왕 34, 35, 77, 78, 82, 114, 124, 201, 202, 223, 249, 250, 288, 331, 583, 792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250
문전본풀이 242, 251, 298, 742, 743
문헌설화 40, 65, 74, 85, 91, 106, 110, 115, 121, 148, 151, 165, 225, 228, 233, 252, 253, 256, 272, 282, 287, 322, 341, 349, 357, 400, 413, 418, 419, 420, 430, 519, 527, 539, 567, 581, 582, 583, 593, 601, 604, 609, 612, 615, 618, 629, 663, 668, 669, 670, 696, 714, 729, 755, 786, 818
문화영웅 112, 427
미륵불 76, 77, 92, 114, 156, 157, 289, 388, 559, 560, 609, 821
미륵사 253, 254, 357, 358, 367
미추왕신화 254, 255
미혈 255
민간설화 363, 370, 528, 529, 605, 629, 684
민간신앙 92, 126, 138, 248, 303, 337, 414, 523, 558, 559, 562, 567, 572, 620, 657, 658, 684, 689, 742, 812
민담 256
민속문학 85, 196, 218, 259, 288, 667, 670, 692, 727
민속신앙 82, 114, 173, 556
밀본 259

ㅂ

바다·섬전설 262
바닷물이 짠 이유 263
바리공주 127, 173, 217, 242, 264, 265, 298, 428, 429, 526, 534, 715
바리데기 216, 265, 298, 420, 502
바보며느리 265, 345, 568
바보사위 245, 251, 266, 267, 269, 345, 568
바보설화 269, 438, 567, 568
바보에게 성행위 가르치기 267
바보원님 268, 269, 568
바보의 문자 쓰기 269
바보형제 269, 270, 591
바위·굴전설 270
박문수 65, 71, 271, 272, 273, 500, 503, 509, 581, 613, 619, 620, 627, 696, 759, 785, 786, 788, 821
박문수 친척 된 사람 273
박상의 273, 274, 519, 537, 577, 776
박연폭포 35, 274, 275, 354
박엽 275
박제상 216, 225, 226, 276
박춘재 646
박혁거세신화 48, 116, 117, 118, 255, 276, 277, 366, 415, 416, 421, 523, 757, 771
반쪽이 135, 277, 278
발복설화 102, 329, 330, 358, 394, 504, 548
밥 안 먹는 마누라 278, 279
방귀시합 279, 280, 281
방귀쟁이며느리 43, 282, 520
방리득보 43, 282, 520
방이 183, 184, 370, 431, 502, 503
방학중 115, 133, 134, 206, 282, 283, 544, 665
배너미골 284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 284, 285
배코날전설 262
백두산 48, 167, 210, 285, 286, 323, 350, 427, 550, 551
백마강 286, 287
백일홍 131, 209, 287, 288, 812, 813
백제건국신화 288
백줏도 382, 383
뱀신랑 288
범어사 288, 289, 523, 294
벙어리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289
벼락터전설 262
벽골제 211, 290, 291
벽사진경 37, 712
변신담 203, 207, 208, 291, 292, 293, 386, 521, 682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사람 292
변신화소 193, 293, 521
변이 293
별신굿 394, 395, 428, 429, 430, 748, 764, 772, 773, 774, 780
병립구조 294
보리암 294
보양 223, 295, 309, 406, 571, 575, 796
보은속리정이품송 295, 296
보조국사 294, 397, 398, 693
보한집 36, 41, 124, 252, 296, 389, 613, 654, 760
복 타고난 백정의 딸 296
본풀이 297
본향당 94, 173, 242, 298, 355, 381, 382, 383, 398, 399, 424, 621, 622, 623, 693, 740, 741, 753, 766
봉사 남편과 벙어리 아내 299
봉정사 299, 300
부모 때리는 효자 300, 301
부부간의 비밀신호 301
부부의 떡 다툼 301
부석사 92, 262, 271, 299, 300, 302, 303, 318, 583, 593, 594, 679, 680, 693, 723, 795
북두칠성 120, 303, 304, 495, 650, 707, 719, 743, 812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304, 645
북부여건국신화 304, 652
불가사리 201, 304, 305
불교설화 41, 63, 76, 100, 164, 223, 303, 397, 398, 574, 574, 596, 598, 621, 682, 684
불국사 306, 535, 536, 575, 582, 811, 813
불씨 지킨 며느리 307, 591
불전설화 45, 305, 691, 762, 795, 796, 827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307
비 내린 이무기 308
비라도와 최총각전설 263
비비각시전설 262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309
빈대절터 310
뻐꾸기 201, 310, 311, 662, 814
삐악삐악꼬꼬 311

ㅅ

사귀가 된 엽전 314
사금갑 339
사기담 134, 135, 314, 315, 697, 728, 756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316
사만이본풀이 228, 242, 298, 317
사명당 161, 239, 317, 318, 358, 359, 360, 422, 531, 582, 620, 698
사복 318, 319, 580
사신설화 685
사자바위 319
사자생손지지 320, 328
사주가 임금과 같은 사람 321
사찰·탑상전설 321, 322
사찰연기담 271, 306, 559
산·봉·영전설 323
산방산 324, 325, 775, 776
산삼과 이시미 325
산삼전설 262
산상왕 325, 326
산신제 90, 376, 599, 678, 679, 735, 749
산함일구 강토이주 326
살림 잘하는 며느리 233, 234, 696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327
삼각산 37, 190, 328, 329, 776
삼공본풀이 154, 155, 242, 243, 297, 298, 329, 330, 358, 564
삼국사기 52, 92, 93, 102, 103, 114, 118, 120, 122, 130, 131, 154, 155, 192, 202, 252, 266, 276, 277, 290, 297, 325, 326, 329, 331, 336, 361, 362, 365, 368, 369, 370, 389, 493, 498, 501, 516, 517, 530, 547, 548, 549, 580, 583, 585, 588, 612, 617, 624, 654, 678, 687, 689, 712, 736, 750, 752, 779, 780, 782, 792, 797, 813, 816
삼국유사 43, 48, 52, 53, 63, 91, 101, 102, 114, 118, 119, 123, 124, 131, 142, 154, 155, 157, 166, 167, 175, 185, 191, 192, 193, 194, 199, 202, 219, 222, 252, 253, 256, 259, 276, 277, 287, 288, 292, 295, 297, 302, 306, 309, 314, 517, 523, 525, 536, 538, 539, 548, 549, 550, 551, 560, 571, 574, 575, 580, 582, 583, 588, 593, 594, 596, 597, 612, 617, 631, 635, 636, 637, 654, 670, 671, 683, 684, 687, 689, 712, 736, 739, 755, 779, 780, 781, 782, 791, 795, 796, 797, 811, 813, 816
삼년고개 331, 332
삼대 후레아들 놈 332
삼두구미본풀이 333, 334
삼부연폭포 334
삼성신화 242, 335, 399, 416
삼성혈전설 263
삼승할망본풀이 298, 336, 354
삼을나전승 336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337

삼족구 201, 338, 521
삼족오 51, 201, 338, 339
삼척해신당신화 339, 340
삼천갑자동방삭 341
삼태성 286, 304, 341, 342
삼태자풀이 242, 298, 342
삼학도 342, 343
삽목전설 559
삽화 343
상가승무노인탄 343, 591
상객 간 아버지 실수 덮은 딸 344
상객의 망신 345
상사바위 99, 100, 345, 346, 347, 557
상사뱀 74, 291, 303, 346, 347, 579, 581, 601, 726
상사병 89, 99, 192, 248, 347, 380, 557, 684, 722
상사여귀 347
상원사 348, 389, 737
새끼 밴 쥐와 용한 점쟁이 348
새끼 서 발 349, 350, 785
새빨간 거짓말 130, 350, 351
새의 말 알아듣는 사람 351
새털 사서 장가간 총각 351
새털옷 신랑 352, 353, 624
생불할망본풀이 353, 354
서경덕 160, 354, 355, 613
서고청 355, 357
서귀포본향당본풀이 355, 766
서기 357, 613
서동 243, 253, 357, 358, 495, 505, 564
서불설화 666
서사무가 55, 78, 86, 87, 91, 173, 180, 217, 227, 241, 247, 248, 264, 303, 329, 358, 371, 394, 398, 407, 408, 428, 429, 430, 494, 495, 508, 540, 577, 578, 579, 598, 624, 625, 643, 691, 699, 726, 733, 734, 741, 808
서산대사 239, 317, 358, 359, 360, 422, 531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15, 360, 791
서화담 354, 355, 360, 615
석가탑 535
석탈해 116, 117, 119, 255, 306, 314, 315, 361, 362, 415, 416, 537, 771
선녀와 나무꾼 97, 209, 362, 363
선녀홍대 363
선덕여왕 259, 364, 365, 696, 813
선도산성모 365, 366
선운사 366, 367
선형악제 503, 691
설문대할망 46, 216, 367, 368, 542, 543, 774, 775
설씨녀 331, 368, 369, 516
설화 369, 370, 371
섬진강 185, 372
섬진강두꺼비 372
성·다리전설 372, 373
성기 큰 남녀 374
성덕대왕신종 374, 515, 516
성삼문 374, 375, 613, 656
성조무가 375, 376, 377
성조푸리 376, 377
성질 급한 사위 377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 377
세검정 379
세경본풀이 379, 380, 524, 578
세민황제본풀이 381, 789
세시풍속 372, 561, 586, 763, 764
세종실록지리지 166, 274, 276, 523, 560, 654, 779, 780
세화본향당본풀이 298, 381, 382
셍굿무가 383, 384
소 바꿔 탄 사돈 385
소가 된 게으름뱅이 292, 385, 386
소가 된 사람의 복수 386
소가 된 상좌 386
소박맞은 세 자매 387
소백산 388, 389
소화 237, 314, 315, 345, 389, 390, 514, 676, 750
속 깊은 어린 신랑 390
속담 55, 64, 84, 86
속리산 295, 296, 391, 392, 550
속어면순 56, 389, 392
손 없는 색시 392, 393, 394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394
손님굿무가 174, 394, 395, 396
손돌목 396, 397
손돌바람 397
손순매아 397, 517, 635
송광사 294, 397, 398
송당본향당본풀이 382, 383, 398, 399, 623
송동지영감본풀이 400
송시열 106, 400, 519, 613, 787, 788
송익필 106, 253, 357, 400, 401, 612, 613
송징장군당신화 401, 402
수로부인 403, 596
수목숭배 130, 139, 559
수부지모 52, 403, 505
수성당신화 404, 405
수수께끼 107, 186, 405, 406, 640, 680, 758
수수께끼 푼 아이 405
수이전 124, 252, 253, 256, 365, 370, 406, 525, 683, 684
수중명당 407, 675
숙영랑앵연랑신가 242, 298, 407, 408
순차구조 294, 408, 576
술 귀신 유래 408
스님 골려먹은 상좌 409
스티스 톰슨 301
시골말로 급제한 선비 409
시골여자의 말대답 410
시골쥐서울쥐 411
시래호박소 411
시루말 242, 298, 720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413
시무굿 414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415
시조모 365, 366
시조신화 44, 48, 116, 117, 118, 200, 220, 286, 362, 370, 416, 585, 760
시퀀스 417
신돌석 417, 418, 533
신라건국신화 418, 652
신립 35, 74, 346, 418, 419, 420
신모신화 420
신목전설 420
신물 181, 193, 339, 420, 421, 525, 557, 646, 647, 785
신방 지키는 유래 421
신방에 든 아들 죽인 계모 422
신사임당 612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다 422
신선전설 423
신원 67, 255, 347
신중본풀이 423, 424
신증동국여지승람 118, 189, 220, 222, 247, 276, 322, 368, 401, 402, 531, 547, 548, 675, 677, 712, 716, 786, 795, 800
신화 425
신화소 118, 119, 179, 242, 243, 270, 412, 426, 428, 540, 585, 588, 625, 637, 638, 720, 755
심청굿무가 428, 429
심화요탑 406, 430
십삼도재담집 57, 389, 646
십이지 528, 529
쌀 나오는 바위 271, 355, 430, 677
쌀 나오는 족순 똥 나오는 족순 431
쌀 노적 돌 노적 431, 785
쌍계사 432, 433
쌍녀분 363, 364, 433

아기봉 490
아기씨당신화 490, 491
아기업개당신화 491, 492
아기장수 61, 79, 111, 129, 174, 271, 278, 417, 418, 421, 490, 493, 494, 532, 533, 546, 547, 599, 631, 655, 734
아들 많이 낳을 팔자 494
아들로 태어난 원수 494
아들의 간 먹는 계모 495
아랑각 347, 496
아르네-톰슨 607, 695, 714, 733
아버지 구한 아들 497
아비와 동침할 운명 498
아우라지 499
아이를 솥에 넣고 도망친 토끼 500
아지담 497, 500, 643, 821
아지재판 33, 501
아차산 349, 501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501, 643
악형선제 210, 282, 431, 502, 503, 691
암행어사 젖 먹이고 발복한 여인 503
애오개 504, 689
야담집 55, 97, 105, 110, 157, 205, 227, 252, 256, 355, 370, 375, 401, 496, 508, 512, 575, 576, 613, 615, 639, 654, 664, 667, 668, 698, 705, 716, 723, 724, 725, 774
야래자 52, 194, 403, 416, 504, 505, 563, 732, 763
양사언 506, 613
양씨아미본풀이 298, 506
양은천미 252, 508, 722
양이목사본풀이 508, 509
어린 원님의 지혜 509
어머니 병 고친 효자 510, 591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510
어면순 56, 122, 202, 511
어사가 된 막냇사위 51
어우야담 56, 144, 151, 157, 203, 211, 252, 259, 370, 418, 512, 536, 601, 615, 664, 687, 800
어희담 299, 513, 514, 568
엉터리 염불로 극락 가기 514
엎질러진 물 515
에밀레종 515, 516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 308, 516, 591, 819

색인

여우 56, 57, 113, 127, 129, 194, 200, 201, 203, 229
여우 잡은 소금장수 229, 517
여우고개 518
여우구슬 518, 519, 699
여우누이 127, 520, 521, 526
여우와 까마귀 521
여우혈 명당 521, 522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522
역옹패설 252, 389, 523, 760
연기설화 75, 76, 177, 262, 300, 319, 358, 398, 593, 594, 598, 720, 725, 784, 785, 813
연명설화 304, 523, 570, 645, 664
연못·샘전설 523, 524
연오랑세오녀 223, 339, 406, 525, 625, 637
연이와 버들도령 393, 526, 591
열녀비 150, 151, 659
열녀시험 526, 527, 591
열두 띠 유래 528
열불열녀 529, 530, 591
열행담 151, 527, 530
영규대사 54, 166, 531, 533, 641
영남루 161, 496, 531
영등신 531, 532, 766
영등할머니 531
영웅·장수전설 532, 533, 618
영웅신화 86, 120, 124, 362, 399, 427, 509, 520, 534, 652
영웅의 일대기 86, 200, 242, 398, 425, 534, 648
영웅전설 532
영월하송리은행나무 534, 535
영지 524, 535, 536
영혼이 뒤바뀐 사람 536
예인·재인전설 537
옛 지아비가 황천에서 운다 538
오곡밥 유래 539, 764
오구굿 242, 264, 414
오뉘산성 540, 641
오뉘탑 53, 540
오뉘힘내기 46, 72, 79, 110, 111, 141, 153, 159, 210, 224, 540, 541, 600, 639, 641, 778, 808
오동도 541
오물음 122, 542
오백장군 368, 423, 424, 542, 543, 622, 623
오성과 한음 272, 543, 544, 619
오성의 장난 543, 618
오세암 63, 544
오쟁이 지다의 유래 545
오찰방 545, 546
옥녀봉 96, 323, 324, 546, 547
온달 35, 266, 297, 329, 331, 369, 501, 547, 548, 564
온돌야화 256, 331, 563
온조비류신화 548, 549
와라진 귀신 333
왕건신화 48, 550, 551, 605
왕권신화 53, 103, 104, 167, 426, 584, 585, 586, 782
왕비간택 233, 234, 696
왕십리 227, 551, 776
왜적 물리친 여자 대장부 552
용 못 된 이무기 552, 553
용 승천 309, 553, 554, 555
용 싸움 44, 79, 524, 555, 56, 560, 654
용궁에서 보물 얻어온 사람 556
용녀바위전설 262
용다리 557
용마 63, 74, 110, 159, 224, 225, 271, 373, 421, 493, 655, 662
용머리고개 557, 558
용머리바위 262
용문사 558, 559
용미리석불입상 559
용비어천가 91, 103, 524, 555
용사설화 310, 685
용소 35, 79, 82, 271, 309, 334, 555, 556, 560, 561, 562
용연전설 262
용왕 42, 91, 93, 94, 123, 198, 222, 262, 295, 318, 336, 359, 361, 398, 520, 550, 557, 571, 596, 622, 631, 679, 750, 751, 753
용재총화 36, 133, 181, 259, 266, 346, 309, 527, 561, 592, 601, 613, 781
용추폭포 562
우렁각시 77, 108, 192, 343, 563, 661, 662, 715
우목낭상 564, 656, 657
우물명당 564, 777
우부현녀 108, 302, 564, 715
우애담 565, 590
우연히 들어온 업 565, 566
우연히 잡은 명당 566
우주수 319
우탁 567, 613
우투리 604, 605, 687, 755, 756
우해왕과 풍미녀전설 763
우행담 72, 154, 165, 265, 269, 301, 302, 345, 349, 390, 567, 568, 725, 744
운림지 569
운명담 164, 180, 304, 337, 569, 570, 651, 652, 724
운문사 295, 571
운주사 193, 571, 572
울돌목 508, 572
울산바위 96, 573, 637
웃개나루 573, 574
원광법사 574, 575
원귀 166, 224, 347, 348, 419, 579, 581, 582, 596, 601, 618
원님으로 환생한 머슴 575
원님의 명판결 576, 577
원두표 132, 577
원령 409
원조자 55, 95, 105, 174, 183, 191, 310, 325, 442, 495, 520, 526, 587, 682, 704, 720, 762, 790, 802, 817
원천강본풀이 242, 243, 577, 578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579, 626
원형 580
원혼설화 347, 348, 580, 581, 582, 601, 626
원효 77, 99, 254, 318, 319, 329, 580, 582, 583, 593, 698
월성 118, 583
위숙왕후 336, 688
유금이들 114, 250, 325, 555, 556, 584
유래담 33, 52, 103, 150, 158, 166, 202, 204, 230, 347, 501, 523, 529, 536, 559, 584, 590, 604, 646, 678, 704, 706, 724, 432, 775
유리왕신화 584, 585, 586
유왕산 586
유의태 510, 587, 790
유형 587
유화부인 588, 589
육담 589
윤리담 590, 591
은혜갚은 까치 591
음부에 그린 그림 591
음택풍수 566
의견 42, 55
의상 78, 82, 83, 271, 288, 299, 300, 302, 329, 433, 558, 582, 593, 594, 794, 821
의좋은 동서 594
의좋은 형제 503, 595
이견대 223, 249, 250
이계담 596, 597
이계여행화소 597
이공본풀이 242, 298, 597, 598
이괄 224, 533, 599, 670, 722
이류교혼화소 600
이만경전설 263
이몽학 110, 111, 141, 224, 533, 540, 600, 641
이무기 68, 83, 201, 209, 262, 263, 271, 287, 295, 308, 309, 310, 323, 325, 334, 335, 411, 419, 552, 553, 554, 555, 562, 571, 605, 675, 685, 735
이물교혼 37, 53, 208, 505, 685
이물담 180, 601, 602
이산해 602, 613
이서구 603, 604, 613
이성계 48, 53, 63, 99, 103, 201, 224, 226, 240, 246, 321, 501, 524, 551, 555, 604, 629, 663, 675, 687, 717, 728, 730, 755, 758, 767, 776
이슬우화 56, 64, 98, 196, 202, 369, 411
이순신 74, 111, 155, 156, 159, 318, 347, 579, 605, 606, 628, 670
이야기꾼 122, 258, 371, 606, 681, 699
이야기로 쫓은 도둑 606
이야기주머니 278, 607
이야기판 88, 122, 371, 546, 606, 608, 629, 788
이어도 263, 608, 609
이여송 121, 169, 609, 613, 618, 619, 620
이완 610
이원익 610, 611, 613
이의 울음 611
이이 106, 609, 612, 613, 614
이인·명사전설 612, 613
이인담 106, 697
이재수 509, 614
이준경 253, 613, 614, 615
이지란 615
이지함 106, 537, 602, 613, 615, 616, 661
이차돈 63, 617
이태원 617, 618
이항복 543, 609, 613, 618, 619, 620, 670
이황 144, 212, 355, 519, 613, 619, 620
인과응보 66, 100, 169, 180, 386, 536, 700, 810
인문신화 426, 427
인문전설 620, 655
인물전설 620
인불구 유래 209, 238, 620
인신공희 68, 208, 209, 287, 288, 290, 291, 428, 516, 621, 657
일뤠또본풀이 621, 622
일식 월식 623
일월노리푸념 198, 242, 298, 352, 623, 624, 625
일월산황씨부인당신화 625
일월신화 525, 625, 626
일월조상 58, 78, 79
일화 627

임경업장군 627, 628
임꺽정 61, 62, 161, 211, 629
임자 있는 명당 629
임지한 630
임진왜란 63, 73, 110, 120, 145, 155, 160, 166, 175, 197, 211, 241, 253, 273, 289, 294, 317, 339, 358, 396, 418, 422, 531, 551, 605, 609, 612, 614, 628, 630, 642, 662, 669, 698, 712, 787, 794, 805, 809, 811
입사식 234, 277, 281, 361, 520, 696, 748
입석대 392
잉어의 보은 631

ㅈ

자린고비 73, 634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635
자식에게 들킨 부부동침 636
자연신화 426
자연전설 53, 54, 195, 620, 636, 637, 655
자연창조전설 637, 638
자청비신화 173, 380, 638
작제건 49, 88, 91, 123, 242, 287, 523, 550, 551, 597, 605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 638
잡기고담 639
장군봉 187, 639
장군수 149, 285, 392, 524, 533, 640
장보고 402, 533, 640, 728, 778
장수바위 641
장수전설 532, 533, 613
장승재판 576, 642
장인 버릇 고친 사위 642
장자못 79, 98, 291, 343, 373, 383, 394, 547, 574, 643, 644, 655
장자풀이 228, 242, 298, 644, 645, 646
재담 86, 87, 236, 360, 389, 411, 513, 514, 618, 646
재복데기 646, 647
재인폭포 647
재주 많은 의형제 648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648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온 사람 649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 650
저승설화 596, 649, 651, 679
저승에서 만난 배필 651
적강화소 652
적대자 94, 155, 352, 353, 399, 526, 648, 652, 671, 750
전래동화 80, 98, 135, 331, 349, 625, 801
전래설화 592, 663
전봉준 533, 652, 653
전생 인연으로 부부된 사람 653
전설 654
전승집단 31, 66, 85, 93, 100, 219, 425, 505, 649, 690, 706
전실 자식 눈 뺀 계모 591, 656
전횡장군 657
절부암 658, 659
젊어지는 샘물 659
점복담 660, 661
접동새 201, 311, 661, 662
정기룡 613, 662, 663
정도전 187, 373, 551, 613, 663, 776
정렴 351, 613, 661, 664
정령 522, 600, 658, 693
정만서 115, 134, 206, 283, 544, 664, 665
정방폭포 666
정승 낳을 여자 666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 667
정승을 소로 만든 망태기 668
정철 669, 758
정충신 74, 357, 669, 670
제석님청배 407
제석본풀이 242, 298, 342, 383, 384, 585, 586, 670, 715, 726, 741, 708
제왕운기 49, 166, 199, 365, 670, 687, 782
조력자 360, 413, 521, 645, 646, 648, 661, 671, 745, 757, 785
조룡대 287
조마구 671
조상 41, 57, 70, 88, 101, 114, 140, 170, 227, 228, 242, 298, 328, 506, 507, 566, 605, 609, 684, 718, 740
조상본풀이 78, 242, 506, 578
조선민담집 256, 370, 565, 623
조선환여승람 401
족제비가 된 남편의 원혼 672
종소리 673, 737, 738
주구 333, 359, 421, 557
주몽신화 48, 102, 103, 117, 139, 167, 172, 200, 242, 259, 270, 277, 326, 342, 416, 421, 532, 549, 585, 588, 625, 673, 674, 715, 780, 782
주보 286, 353
주약 421
주왕산 674, 675
주원장 629, 675, 718
주인집 딸에게 장가간 머슴 676
주천강 251, 252, 676, 677, 704
죽령산신당신화 677, 678
죽어서 염라대왕 된 사람 679
죽을 고비 세 번 679
중들의 절 자랑 680
쥐떼도강 681
쥐의 둔갑 681, 682
쥐의 보은 683
지귀 364, 683, 684
지네각시 684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684, 685
지네장터 685
지눌 294, 693
지렁이 눈과 가재의 띠 685
지렁이 삶아 봉양한 효자 686
지리산 53, 63, 171, 240, 294, 323, 355, 373, 404, 433, 550, 551, 604, 687, 767
지리산성모 216, 366, 420, 688, 689
지명유래담 99, 224, 262, 263, 310, 349, 372, 389, 505, 572, 599, 617, 637, 641, 690, 711, 740, 778
지명전설 67, 170, 185, 195, 201, 226, 239, 271, 284, 287, 324, 332, 339, 402, 405, 524, 557, 558, 561, 654, 655, 675, 687, 689, 690, 715, 818
지모신 276, 277, 380, 416, 657, 707, 763
지성이감천이 183, 327, 690, 795
지역전설 89, 109, 159, 195, 262, 323, 556, 557, 655, 691, 777, 808
지장본풀이 242, 243, 298, 691, 692
지중용출 692, 693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 693
지하국 다녀와 명의 된 사람 694
지하국대적퇴치 99, 105, 127, 223, 271, 285, 602, 640, 648, 652, 671, 694, 695, 729, 732, 757
지혜담 108, 234, 344, 568, 610, 695, 696, 697, 721, 757, 758
진가장무가 697
진담록 56, 697
진묵대사 697, 698
진안할망당본풀이 492
진정한 친구 591, 698, 699, 739
진좌수 699
진표율사 63, 391, 392, 796
진흥왕 366, 367, 571, 583, 617
짐가제무가 581, 699, 700, 704
쫓겨날 며느리 구한 가짜지관 701

ㅊ

차복 147, 148, 570, 704
차사본풀이 298, 382, 414, 581, 692, 699, 700, 704, 705, 812, 813
차산필담 705
차전놀이 유래 705, 706
참새가 뛰는 이유 707
창녕조씨시조신화 707, 763
창세가 46, 217, 239, 291, 298, 540, 626, 683, 707, 708, 709, 719, 720
창세신화 179, 216, 239, 242, 335, 368, 383, 384, 412, 525, 643, 707, 708, 719, 720
창조신 46, 217, 239, 242, 420, 689
채제공 709
처녀 더위 빼기 710
처녀고개 711
처용 43, 192, 223, 711, 712, 713
처지담 390
천냥점 치고 잘 된 사람 713
천년두골쌍용수 714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714
천부지모 48, 167, 238, 242, 404, 412, 585, 715
천생연분 648, 649, 715, 724
천안삼거리 715
천연두 217, 218, 394, 395, 396
천예록 601, 639, 716, 717
천자가 된 구렁이 717
천자명당 675, 717, 718
천자바위 718
천지왕본풀이 242, 291, 298, 335, 412, 426, 540, 643, 715, 719, 720, 789
철마 404, 405, 729
철쭉꽃 131, 403, 720
첫날밤에 똥 싼 신부 721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721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722
청구야담 40, 52, 56, 106, 122, 144, 203, 252, 285, 370, 504, 506, 575, 609, 642, 664, 667, 702, 723, 774
청다리 723
청실홍실 724
청야담수 400, 724, 725
청어장수 725
청평사 347, 725, 726
초감제 330, 335, 336, 719, 727
초공본풀이 242, 298, 538, 578, 726, 727, 728
촌담해이 56, 389, 409, 567, 728

촛대바위 270, 271, 794
최영 224, 533, 641, 658, 728, 729, 730, 731
최제우 731
최치원 363, 364, 406, 505, 593, 613, 672, 694, 695, 732, 784
출생설화 506
춤추는 호랑이 732, 733
충렬굿무가 733
충주어씨시조신화 734, 763
치마대 224, 729, 735
치마바위 270, 735, 736
치병굿 394
치술령 225, 736
치악산 82, 284, 675, 737, 738
치우담 64, 202, 345, 390
친구 간에 지킨 의리 738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739
칠기도전설 263
칠산바다 404, 739, 740
칠성본풀이 58, 242, 298, 303, 304, 740, 741
칠성풀이 242, 252, 298, 303, 741
칠월칠석 51, 52, 743, 763, 764

ㅋ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744
콩쥐팥쥐 55, 257, 371, 393, 743, 744, 745, 789

ㅌ

탄금대 418, 420
탐색담 223, 357, 557, 748
탕건바위 748
태몽 44, 119, 175, 212, 376, 400, 533, 575, 600, 603, 787
태백산 167, 168, 169, 286, 323, 420, 427, 643, 730, 749
태평한화골계전 56, 252, 370, 389, 511, 750
토끼 122, 123, 127, 134, 200, 202, 203, 232, 446, 449, 484, 500, 541, 542, 592, 744, 746, 750, 751, 752, 802, 834, 837
토끼와 호랑이 750
토끼의 간 750, 751
토끼의 재판 752
토산여드렛당본풀이 798, 741, 753
토정 357, 408, 537, 613, 615, 616, 620, 661, 754
통과의례 51, 100, 167, 205, 281, 337, 393, 647, 730, 745, 748, 798, 834
통과제의 267, 754
통도사 318, 571, 680, 754, 755
퉁두란 604, 605, 755, 767
트릭스터 115, 116, 127, 134, 135, 206, 283, 500, 665, 674, 752, 756, 757, 821
트릭스터담 116, 134, 135, 283, 752, 756, 757, 821

ㅍ

파송자 671, 757
파자놀이 758
파자점 759
파평윤씨시조신화 759
파한집 119, 252, 296, 389, 613, 654, 760
팔도재담집 57, 389, 646
팔봉산 760
팥죽 115, 185, 204, 205, 265, 278, 337, 344, 354, 363, 507, 540, 610, 680, 745, 761, 762
팥죽땀 흘리는 시아버지 761
팥죽할멈과 호랑이 762
패망설화 394
평강공주 155, 501, 548
평강채씨시조신화 762, 763
표충비 211, 763
풍속유래전설 763, 764
풍수담 41, 139, 329, 543, 566, 599, 765, 766
풍수지리설 49, 537, 551, 644, 765, 808
풍신신화 766
풍자 108, 112, 129, 130, 224, 267, 269, 514, 530, 648, 758, 773, 774, 820
피바위 767

ㅎ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 쌓는다의 유래 768
하음봉씨시조신화 768, 770
하회마을 212, 213, 771, 772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 772, 773
학산한언 723, 725, 774
한국설화유형분류집 51, 151, 178, 237, 245, 597, 676, 682, 807
한라산 57, 216, 323, 324, 325, 356, 367, 368, 382, 423, 542, 666, 766, 774, 775, 776
한양도읍 776
한우물 223, 777
할미산성 778
할미섬전설 263
할미할아비바위 778, 779
해동고승전 63, 77, 252, 406, 548, 549, 571, 575, 779
해랑당설화 262
해모수 35, 47, 48, 103, 425, 585, 588, 596, 652, 673, 715, 779, 780, 782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 781
해부루 102, 103, 549, 585, 674, 779, 780, 781, 782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91, 520, 625, 626, 638, 782, 783, 784, 812
해인사 73, 139, 262, 317, 531, 556, 557, 631, 680, 784, 785
행운담 178, 568, 785, 786, 810
행위소 39, 340
허가바위 786, 787
허목 787, 788
허미수 788
허웅애기본풀이 298, 788, 789
허준 537, 786, 789, 790
허풍선이 790, 791
허황옥신화 791
현몽 41, 79, 120, 140, 147, 219, 319, 340, 362, 366, 413, 581, 625, 735, 740, 771, 800, 811
형산강 584, 792
형식담 128, 209, 211, 257, 349, 350, 370, 371, 568, 681, 793, 794
형제바위 271, 794
형제투금 431, 503, 595, 795, 796
혜린대사 397, 398
혜통 796
호구신 491
호국룡 34, 223, 250, 597, 792
호국신 119, 250, 254, 421, 805
호동왕자 낙랑공주 797
호랑이 124, 143, 167, 194, 202, 232, 247, 250, 278, 292, 293, 316, 413, 417, 516, 522, 615, 630, 720, 733, 752, 762, 768, 783, 785, 797, 798, 799, 800, 801, 802, 817
호랑이 눈썹 293, 785, 797, 798
호랑이 배 속 구경 798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799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799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800
호랑이로 변한 남편 801
호랑이와 곶감 801
호랑이의 보은 802
호랑이형님 805
호식당할 운명 804
호정설화 669
호종단 805
혹부리영감 332, 805, 806, 807
혼쉬굿 407, 645
혼쥐 597, 807
홀어미산성 808
홍계관 348, 349, 501, 576, 661, 808
홍수설화 60, 240, 535, 748, 808
화석정 160, 612, 809
화소 809, 810
화수분 810
화엄사 687, 810, 811
화엄사상 319, 594
환생 63, 119, 124, 140, 149, 235, 265, 303, 311, 447, 456, 479, 526, 575, 597, 654, 662, 692, 700, 745, 811, 812, 813
환생꽃 264, 526
환생담 41, 601, 653, 811, 812
환생화소 813
황금궤 118, 119, 580
황룡사 77, 571, 583, 754, 755, 813, 821
황새의 노래 재판 814
황천혼시 228, 242, 298, 407, 408, 645
황팔도 125, 801
황화일엽 95, 393
황희 139, 509, 613, 620, 627, 814, 815
효녀 지은 816
효부와 호랑이 591, 816, 817
효불효다리 303, 724, 817, 818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818
효자동 818, 819
효행담 151, 178, 308, 344, 516, 517, 526, 590, 635, 739, 804, 817, 819
효행설화 190, 204, 301, 308, 344, 510, 517, 687, 816, 817, 818, 819
훈장 골탕 먹인 제자 819
훈장 장가보낸 학동 820
흥륜사 124, 194, 255, 259, 306, 821
흥보가 282
흥부전 183, 184, 209, 282, 682
희생열 151, 249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편

필자

강성숙(姜盛淑) 인제대학교

금시발복 명당 101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189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250
설씨녀 368
장승재판 642
천자명당 717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744
콩쥐팥쥐 744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800

강소전(姜昭全) 제주대학교

서귀포본향당본풀이 355
오백장군 542
절부암 658
정방폭포 666
토산여드렛당본풀이 753

강은해(姜恩海) 계명대학교

금도끼은도끼 98
도깨비가 준 돈 182
도깨비감투 183
도깨비불 185
도화녀비형랑 194

강재철(姜在哲) 단국대학교

구두쇠 개심시킨 공수래공수거 79
도둑 감싸서 개심시킨 사람 188
상가승무노인탄 343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 638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 650

강정식(姜晶植) 제주대학교

구슬할망본풀이 87
막산이 221
생불할망본풀이 353
세민황제본풀이 381
세화본향당본풀이 382
아기업개당신화 491
오찰방 545
일뤠또본풀이 621
진좌수 699
허웅애기본풀이 788

강진옥(姜秦玉) 이화여자대학교

금척 103
달래강 170
며느리 고르기 233
변신화소 293
상사뱀 346
여우누이 520
연못 · 샘전설 523
용소 560
원혼설화 580
유형 587
이류교혼화소 600
이물담 601
지혜담 695
짐가제무가 699
차사본풀이 704

강현모(姜賢模) 한남대학교

말무덤 224
쌀 나오는 바위 430
영웅 · 장수전설 532
오뉘힘내기 540
온조비류신화 548
이몽학 600
이완 610
임지한 630
장군수 640
장수바위 641
최영 728

곽정식(郭正植) 경성대학교

가짜열녀 30
모방담 237
산함일구 강토이주 326
지성이감천이 690
형제바위 794
형제투금 795
호동왕자 낙랑공주 797
효녀 지은 816

권도경(權都京) 대전대학교

독도 195
사자바위 319
이성계 604
장보고 640
천자바위 718
퉁두란 755

권선경(權宣慶) 덕성여자대학교

아기씨당신화 490

권태효(權泰孝) 국립민속박물관

거인 장길손 45
거인설화 46
걸어온 산 50
불씨 지킨 며느리 307
울산바위 573
할미산성 778

권혁래(權赫來) 용인대학교

우애담 565
윤리담 590
지렁이 눈과 가재의 띠 685
진정한 친구 698
친구 간에 지킨 의리 738
팥죽할멈과 호랑이 762
호랑이와 곶감 801

김경섭(金鏡燮) 건국대학교

누명 벗은 시아버지 160
독장수구구 195
삼대 후레아들 놈 332
성삼문 374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 377
수수께끼 푼 아이 405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501
이야기꾼 606
자식에게 들킨 부부동침 636
죽을 고비 세 번 679
파자놀이 757
훈장 골탕 먹인 제자 819

김경희(金璟姬) 세종대학교

까치의 재판 126
메뚜기와 물새와 개미 230
메추라기의 꽁지 231
소가 된 게으름뱅이 385
소가 된 상좌 386
아들로 태어난 원수 494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722

김광욱(金侊郁) 광주발전연구원

엉터리 염불로 극락 가기 514
죽어서 염라대왕 된 사람 679
지하국 다녀와 명의 된 사람 694

김구한(金求漢) 울산대학교

금산 99
남산 145
옥녀봉 546
웃개나루 573
형산강 792

김기호(金基鎬) 영남대학교

꼬리 잘린 호랑이 127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316
쌀 나오는 죽순 똥 나오는 죽순 431
아이를 솥에 넣고 도망친 토끼 500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522
토끼의 재판 752
호랑이로 변한 효자 801

김낙효(金洛孝) 한양대학교

건망증 심한 사람 49
귀머거리 동문서답 94
성질 급한 사위 377
우탁 567
황희 814

김대숙(金大琡) 평택대학교

내 복에 산다 154
복 타고난 백정의 딸 296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307
삼공본풀이 329
숙영랑앵연랑신가 407
어머니 병 고친 효자 510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 516
우렁각시 563
우부현녀 564
지렁이 삶아 봉양한 효자 686
행운담 785
효행담 819

김명자(金明子) 안동대학교

동지팥죽 유래 204
오곡밥 유래 539
칠월칠석 유래 743
풍속유래전설 763

김명희(金明姬) 강남대학교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사람 292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413
호랑이의 보은 802

김미숙(金美淑) 아주대학교

꾀로 얻은 명당 132
덕 쌓아 얻은 명당 179
임자 있는 명당 629
중들의 절 자랑 680
쫓겨날 며느리 구한 가짜지관 701

김복순(金福順) 강원대학교

감기의 유래 33
바보사위 266
소박맞은 세 자매 387
청어장수 725
팥죽땀 흘리는 시아버지 761
화수분 810

김선풍(金善豊) 중앙대학교

꽃 · 나무전설 130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다 422
쥐의 둔갑 681

김승찬(金承璨) 부산대학교

사명당 317
서산대사 358

김열규(金烈圭) 서강대학교

선녀와 나무꾼 362
성기 큰 남녀 374
지하국대적퇴치 694

김영희(金昤希) 연세대학교

공갈못 68
누정 · 비각 · 묘총전설 160
삼각산 328
아랑각 496
우물명당 564
장군봉 639
치마바위 735
탕건바위 748

김용덕(金容德) 한양대학교

고승 · 이승전설 63
금기화소 97
꾀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132
이차돈 617
청평사 725
허가바위 786
허황옥신화 791

김월덕(金月德) 전북대학교

낙안읍성 141
덕진다리 180
마이산 220
송광사 397
용머리고개 557

김의숙(金義淑) 강원대학교

고석정 61
김병연 111
이괄 599

김정경(金靜京) 서강대학교

소가 된 사람의 복수 386
아차산 501
잉어의 보은 631

김정은(金廷恩) 건국대학교

기지 있는 부인 107
망부석 225
상객 간 아버지 실수 덮은 딸 344
속 깊은 어린 신랑 390
치술령 736

김종군(金鍾渭) 건국대학교

가마고개 30
사귀가 된 엽전 314
새털 사서 장가간 총각 351
쌍계사 432
원두표 577
임꺽정 629
지리산 687
화엄사 810

김종대(金宗大) 중앙대학교

도깨비 씨름 181
도깨비방망이 183
도깨비보 185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합 186
삐약삐약꼬꼬 311
왕십리 551
혹부리영감 805

김준기(金俊基) 경희대학교

세검정 379
신모신화 420
용문사 558
이태원 617
지리산성모 688
화석정 809

김준형(金埈亨) 부산교육대학교

거울 처음 본 사람 45
계서야담 55
계서잡록 56
기문총화 105
김중진 122
보한집 296
세 여인의 소원 378
속어면순 392
송익필 400
스님 골려먹은 상좌 409
어면순 511
역옹패설 523
이준경 614
재담 646
진담록 697
천예록 716
파한집 760

김진형(金鎭亨) 고려대학교

나옹화상 139
부석사 302
주왕산 674

김태수(金泰水) 삼척시립박물관

말바위 224
삼부연폭포 334
허목 787

김헌선(金憲宣) 경기대학교

군웅본풀이 91
궤눼깃당본풀이 93
나주기민창본풀이 139
도랑선비청정각시노래 190
바리공주 264
본풀이 297
송당본향당본풀이 398
시루말 412
시무굿무가 414
칠성본풀이 740

김현경(金賢敬) 국립민속박물관

애오개 504

김현룡(金鉉龍) 건국대학교

고금소총 56
예인·재인전설 537
음부에 그린 그림 591
이산해 602
정도전 663
처녀 더위 빼기 710

김혜정(金慧瀞) 고려대학교

며느리밥풀꽃 235
쥐의 보은 683

김화경(金和經) 영남대학교

감은사 34
김수로왕신화 116
만파식적 223
문무왕 249
미추왕신화 254
혜통 796
흥륜사 821

나경수(羅景洙) 전남대학교

무등산 240
미륵사 253
바위·굴전설 270
벽골제 290
산·봉·영전설 323
성·다리전설 372
운주사 571
일월신화 626
전봉준 652
전횡장군당신화 657
지역전설 691

나수호(那秀昊)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선달 115
돈 떼먹는 법 196
돼지 맞돈 205
방학중 282
사기담 314
정만서 664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 667
토끼의 간 750
트릭스터담 756

노성환(魯成煥) 울산대학교

오동도 541

노영근(盧暎根) 국민대학교

각편 32
과장담 72
기능 105
기인담 106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 괴물 126
꼬부랑할머니 130
반쪽이 277
방귀시합 279
병립구조 294
새빨간 거짓말 350
순차구조 408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415
시퀀스 417
허풍선이 790
훈장 장가보낸 학동 820

류정월(柳正月) 서강대학교

꿀 싸는 강아지 134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의 유래 164
명엽지해 237
자린고비 634
저승에서 만난 배필 651
전생 인연으로 부부된 사람 653
촌담해이 728

문무병(文武秉) 제주교육박물관

김녕사굴 109
설문대할망 367
이어도 608

박경신(朴敬伸) 울산대학교

개운포 43
공식적표현 70
관용적표현 75
문전본풀이 251
손님굿무가 394
신중본풀이 423
심청굿무가 428
충렬굿무가 733
칠성풀이 741
태평한화골계전 750

박명숙(朴明淑) 苏州大学

구복여행 83
아들 많이 낳을 팔자 494
청실홍실 724

박상란(朴商蘭) 강남대학교

돼지꿈 206
무수옹 243
새의 말 알아듣는 사람 351
음탕한 선생 발거벗긴 과부 592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 781

박성석(朴性錫) 경상대학교

거북바위 44
논개 157
땀 흘리는 비석 210
용다리 557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 693

박성지(朴聖智) 이화여자대학교

밀본 259
보양 295
원광법사 574
조신 671

박연숙(朴蓮淑) 계명대학교

아들의 간 먹는 계모 495
연이와 버들도령 526

박종성(朴鍾聲)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변신담 291
북두칠성 303
산삼과 이시미 325
삼성신화 335
삼태성 341
셍굿무가 383
창세가 707
천지왕본풀이 719

박종오(朴宗吾) 목포대학교

고수레 유래 62
금돼지굴 98
단혈전설 169
박상의 273
아비와 동침할 운명 498
우연히 잡은 명당 566
울돌목 572
칠산바다 739
한양도읍 776
한우물 777

박종익(朴鍾翼) 충남대학교

관촉사은진미륵 76
낙화암 142
남매탑 143
용미리석불입상 559

박현숙(朴賢淑) 건국대학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64
구연 88
며느리 개심시킨 시부모 232
오세암 544
재복데기 646
처녀고개 711
춤추는 호랑이 732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739
호랑이 배 속 구경 798

배도식(裵桃植) 부산시문화재위원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39
김호랑이굴 125
대국산성 176
시골여자의 말대답 410
철쭉꽃 720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818

서대석(徐大錫) 서울대학교

구렁덩덩신선비 80
구비문학 84
단군신화 166
당금애기 172
신화 425
영웅의 일대기 534
일월노리푸념 623
적대자 652
조력자 671
치악산 737
파송자 757

서종원(徐鍾源) 단국대학교

임경업장군당신화 627

서해숙(徐海淑) 전남대학교

남원진씨시조신화 146
남평문씨시조신화 152
달성배씨시조신화 171
시조신화 415
우연히 들어온 업 565
창녕조씨시조신화 707
충주어씨시조신화 734
파평윤씨시조신화 759
평강채씨시조신화 762
하음봉씨시조신화 770

손지봉(孫志鳳) 이화여자대학교

맹사성 228
삼천갑자동방삭 341
이여송 609
주원장 675

송효섭(宋孝燮) 서강대학교

김유신 119
김유신신화 120
김춘추 122
김춘추신화 123
김현감호 124
사찰·탑상전설 321
삼국유사 331
선녀홍대 363
선덕여왕 364
연오랑세오녀 525
원효 582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635

신동흔(申東昕) 건국대학교

계룡산 53
김덕령 110
꾀쟁이 하인 133
마십굴 218
박문수 271
박문수 친척 된 사람 273
서기 357
영규대사 531
오성의 장난 543
이인·명사전설 612
이항복 618
인물전설 620
호랑이 눈썹 797

신연우(申蓮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돈 천 냥의 구원 197
바보원님 268
바보형제 269
신방 지키는 유래 421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510
옛 지아비가 황천에서 운다 538

신재홍(申載弘) 가천대학교

광덕 엄장 77
노힐부득 달달박박 156
사복 318
서동 357
처용 711

심민호(沈民皓) 한국족보박물관

닥실나루 166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327
새끼 밴 쥐와 용한 점쟁이 348
여우혈 명당 521
파자점 759

심우장(沈愚章) 광주과학기술원

거짓말 세 마디 46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의 유래 88
동물담 202
동자삼 204
두더지의 혼사 209
변이 293
부모 때리는 효자 300
삼족구 338
소 바꿔 탄 사돈 385
이야기로 쫓은 도둑 606
이야기주머니 607
이야기판 608
족제비가 된 남편의 원혼 672

안병국(安炳國) 선문대학교

상사여귀 347

안태현(安泰賢) 옛길박물관

문경새재 246
소백산 388
청다리 723

오대혁(吳大赫) 동국대학교

관음사 75
만어사 222
의상 593
통도사 754
해동고승전 779
해인사 784
황룡사 813

오세길(吳世吉) 동의과학대학교

범어사 288
사주가 임금과 같은 사람 321
신돌석 417
유의태 587
이순신 605
이지함 615
채제공 709
허준 789

오세정(吳世晶) 충북대학교

난생화소 143
남매혼설화 144
두꺼비의 보은 208
목도령과 대홍수 238
백일홍 287
신화소 428
에밀레종 515
인불구 유래 620
인신공희 621
적강화소 652
통과제의 754

오정미(吳正美) 건국대학교

며느리의 말대꾸 236
밥 안 먹는 마누라 278
벙어리로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289
암행어사 젖 먹이고 발복한 여인 503
엎질러진 물 515
왜적 물리친 여자 대장부 552

유광수(劉光洙) 연세대학교

최치원 732

유형동(俞亨東) 중앙대학교

머리에 쓰면 둔갑시키는 해골 229
바닷물이 짠 이유 263
술 귀신 유래 408
여우 잡은 소금장수 517
이의 울음 611

은현정(殷賢貞) 국립민속박물관

등나무 210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394
정승을 소로 만든 망태기 668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714

이강엽(李康燁) 대구교육대학교

과부와 머슴 71
내 병 다 나았다 153
바보며느리 265
바보의 문자 쓰기 269
부부의 떡 다툼 301
우행담 567

이강옥(李康沃) 영남대학교

고분지통 유래 60
금계필담 97
대동야승 177
동야휘집 203
서경덕 354
소화 389
수이전 406
어우야담 512
용재총화 561
이황 619
차산필담 705
학산한언 774

이동철(李東哲) 한양대학교

과거 급제한 백정 아들 71
비 내린 이무기 308
영지 535
용 못 된 이무기 552
용 승천 553
지귀 683

이복규(李福揆) 서경대학교

구월산 89
도선 193
동명왕신화 199
묘향산 239
무학대사 246
삼국사기 331
운림지 569
해모수신화 779

이상희(李尙姬) 충남대학교

백마강 286
보은속리정이품송 295
유왕산 586
이서구 603
이원익 610
정기룡 662

이성희(李聖熙) 경희대학교

간부 잡은 원님 33
관탈민녀 77
꼬마 명재판관 129
도둑 잡은 아이 188
도미의 처 192
명당 빼앗아간 딸 236
아버지 구한 아들 497
아지담 500
어린 원님의 지혜 509
장인 버릇 고친 사위 642

이수자(李秀子) 이화여자대학교

개로 환생한 어머니 41
고려장 없어진 유래 58
마누라본풀이 217
무속신화 241
지장본풀이 691
초공본풀이 726
탐색담 748

이승수(李勝洙) 한양대학교

남한산성 152

이승철(李昇哲) 관동대학교

강릉안인진해령사신화 38
삼척해신당신화 339

이영수(李瑛洙) 단국대학교

손돌목 396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648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온 사람 649
저승사자의 실수 650

이영식(李英植) 강릉원주대학교

구룡사 82

이원영(李元榮) 건국대학교

구렁이의 보은 81
도깨비 물리치는 법 180

이윤경(李倫慶) 성신여자대학교

계모담 54
글 잘하는 황정승 딸 95
신방에 든 아들 죽인 계모 422
전실 자식 눈 뺀 계모 656

이윤선(李允先) 목포대학교

각시섬 32
노적봉 155
바다·섬전설 262
삼학도 342
섬진강두꺼비 372
수성당신화 404
여우고개 518
피바위 767

이인경(李仁卿) 인제대학교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40
남편 병 고친 열녀 151
대신 든 장가 177
손 없는 색시 392
열녀시험 526
열불열녀 529
열행담 530
혼쥐 807
효불효다리 817

이인화(李仁和) 충남문화재전문위원

국사봉 90
기지시줄다리기 유래 108
농다리 159
천안삼거리 715
할미할아비바위 778

이정재(李丁宰) 경희대학교

곰나루 67
말하는 남생이 225
망우리 226
배너미골 284
최제우 731
효자동 818

이지영(李志映) 상명대학교

개와 고양이 구슬 다툼 42
견우직녀 51
무식으로 유식 이기기 244
박혁거세신화 276
빈대절터 310
석탈해신화 361
수부지모 403
야래자설화 504
이계담 596
이계여행화소 597
일식 월식 623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684
천부지모 715

이창식(李昌植) 세명대학교

도담삼봉 187
속리산 391
수로부인 403
죽령산신당신화 677

이학주(李學周) 강원대학교

김부대왕 113
며느리고개 234

이한길(李漢吉) 강릉원주대학교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309
신통한 여덟 형제 424
오쟁이 지다의 유래 545
의좋은 형제 595
재주 많은 의형제 648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799

이홍우(李洪雨) 서울대학교

동물 나이 자랑 200
봉사 남편과 벙어리 아내 299
상객의 망신 345
용추폭포 562
주인집 딸에게 장가간 머슴 676
천냥점 치고 잘 된 사람 713
황새의 노래 재판 814

임철호(林哲鎬) 전주대학교

곽재우 73
김응서 121
상사바위 345
정철 669
정충신 669

장장식(張長植) 국립민속박물관

가짜지관의 성공 31
풍수담 765

장정룡(張正龍) 강릉원주대학교

강감찬 36
대관령국사성황당신화 175
태백산 749

전관수(田寬秀) 연세대학교

불국사 306
월성 583

전신재(全信宰) 한림대학교

무너미고개 239
아우라지 499
이이 612

정경민(鄭京珉) 이화여자대학교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70
정승 낳을 여자 666

정명기(鄭明基) 원광대학교

기문 105
동패낙송 205
매옹한록 227
문헌설화 252
박엽 275
양은천미 508
잡기고담 639
정렴 664
청구야담 723
청야담수 724

정상박(鄭尙朴) 동아대학교

고유 64
처용암 712

정재민(鄭在珉) 육군사관학교

나도밤나무 138
남의 복 빌려서 산 사람 147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304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336
연명설화 523
운명담 569
원님의 명판결 576
호식당할 운명 804

정진희(鄭眞熙) 아주대학교

광청애기본풀이 78
양이목사본풀이 508
이공본풀이 597

정충권(鄭忠權) 충북대학교

방이 282
사자생손지지 320
의좋은 동서 594

조선영(曺善映) 국립민속박물관

메기 꿈의 해몽 230
방귀쟁이며느리 280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799

조재현(趙在顯) 한국학중앙연구원

불가사리 304

조정현(曺鼎鉉) 안동대학교

계불삼년 구불십년 55
류성룡 212
봉정사 299
유금이들 584
하회마을 771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 772

조현설(趙顯卨) 서울대학교

건국신화 48
금와왕신화 102
산상왕 325
왕건신화 550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579
유리왕신화 584
유화부인 588
제왕운기 670
주몽신화 673
해부루신화 78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782
홍수설화 808

조희웅(曺喜雄) 국민대학교

꼬리따기 128
다시 찾은 옥새 164
떡보와 사신 211
민담 256
새끼 서 발 349
새털옷 신랑 352
설화 369
악형선제 502
점복담 660
쥐떼도강 681
형식담 793

좌혜경(左惠景) 제주대학교

세경본풀이 379
영등할머니 531

천진기(千鎭基) 국립민속박물관

동물·사물전설 201
빠꾸기 310
열두 띠 유래 528
접동새 661

천혜숙(千惠淑) 안동대학교

개촌신화 44
광포전설 79
김알지신화 118
대홍수 178
마고할미 216
마을신화 219
삼년고개 331
선도산성모 365
아기장수 493
용 싸움 555
운문사 571
일월산황씨부인당신화 625
자연창조전설 637
장자못 643
전설 654
지명전설 689

최래옥(崔來沃) 한양대학교

고리봉 59
나도 계집 있다 138
단락소 168
바보에게 성행위 가르치기 267
백두산 285
삽화 343
쌀 노적 돌 노적 431
어사가 된 막냇사위 511
육담 589
일화 627
진묵대사 697
화소 809

최명환(崔明煥) 한국외국어대학교

강·폭포전설 35
금강산 96
단종 168
신목전설 420
아기봉 490
영월하송리은행나무 534

최운식(崔雲植) 한국교원대학교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100
도술화소 193
영혼이 뒤바뀐 사람 536
온달 547
원님으로 환생한 머슴 575
환생담 811
환생화소 813

최원오(崔元午) 광주교육대학교

고기 놓친 까마귀 56
두꺼비신랑 207
문굿무가 247
삼족오 338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360
시골말로 급제한 선비 409
시골쥐서울쥐 411
신물 420
어희담 513
여우구슬 518
용궁에서 보물 얻어온 사람 556
원천강본풀이 577
원형 580
젊어지는 샘물 659
풍신신화 766

표인주(表仁柱) 전남대학교

당신화 173
보리암 294
송징장군당신화 401
인문전설 620
자연전설 636
최영장군당신화 729

한미옥(韓美玉) 전남대학교

견훤 52
궁예 92
남사고 144
선운사 366
주천강 676
첫날밤에 똥 싼 신부 721
호랑이형님 803
홀어미산성 808
효부와 호랑이 816

한양명(韓陽明) 안동대학교

공민왕 68
놋다리밟기 유래 158
차전놀이 유래 705

한종구(韓宗求) 한국교통대학교

남이 148
송시열 400
신립 418

허남춘(許南春) 제주대학교

고대정본풀이 57
양씨아미본풀이 506
이재수 614
지중용출 692

현승환(玄丞桓) 제주대학교

맹감본풀이 227
산방산 324
삼두구미본풀이 333
한라산 774
호종단 805

홍나래(洪나래) 이화여자대학교

곡성 안 들은 상복 66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149
남편 따라 죽은 열녀 150
도량 넓은 남편 191
문둥이 남편과 이부열녀 249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 284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721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 쌓는다의 유래 770

홍순석(洪順錫) 강남대학교

개무덤 41
도드람산 189
박연폭포 274
양사언 506
재인폭포 647
팔봉산 760

홍태한(洪泰漢) 중앙대학교

대감굿무가 173
돈전풀이 197
성조무가 375
장자풀이 644

자문위원

강진옥(이화여자대학교)
신동흔(건국대학교)
이강옥(영남대학교)
정명기(원광대학교)
조현설(서울대학교)
천혜숙(안동대학교)
최원오(광주교육대학교)

감수위원

김열규(서강대학교)
나경수(전남대학교)
서대석(서울대학교)
조희웅(국민대학교)
최래옥(한양대학교)
최인학(인하대학교)